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85n1593

禪宗正脈

明如菴集

中華電子佛典協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 _1593-A 禪宗正脉序](#)
 - [No. _1593-B 禪宗正脉敘](#)
 - [No. _1593-C 禪宗正脉引](#)
 - [No. _1593-D 敘古啟明讀禪宗正脉法](#)
 - [達磨西來](#)
 - [非無知解](#)
 - [有事商量](#)
 - [深究洪規](#)
 - [得個人頭](#)
 - [漸有開廓](#)
 - [法在汝邊](#)
 - [遲速不同](#)
 - [常習坐禪](#)
 - [不明大理](#)
 - [工夫之說](#)
 - [問處求證](#)
 - [簡集之意](#)
 - [去繁就簡](#)
 - [體會機緣](#)
 - [隨宜參用](#)
 - [古今例同](#)
 - [禪宗正脉目錄](#)
 - [佛祖](#)
 - [釋迦牟尼佛](#)
 - [一祖摩訶迦葉尊者](#)
 - [二祖阿難尊者](#)
 - [四祖優波鞠多尊者](#)
 - [八祖佛陀難提尊者](#)
 - [十祖脇尊者](#)
 - [十一祖富那夜奢尊者](#)
 - [十四祖龍樹尊者](#)
 - [十五祖迦那提婆尊者](#)

- [十七祖僧伽難提尊者](#)
- [十九祖鳩摩羅多尊者](#)
- [二十祖闍夜多尊者](#)
- [二十三祖鶴勒尊者](#)
- [二十四祖師子尊者](#)
-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 [東十祖師](#)
 - [菩提達磨大師](#)
 - [慧可大師](#)
 - [僧璨大師](#)
 - [道信大師](#)
 - [弘忍大師](#)
 - [慧能大師](#)
- [旁出](#)
 - [四祖旁出](#)
 - [一世](#)
 - [牛頭山法融禪師](#)
 - [二世](#)
 - [牛頭智巖禪師](#)
 - [鍾山曇璀禪師](#)
 - [五世](#)
 - [牛頭智威禪師](#)
 - [六世](#)
 - [牛頭慧忠禪師](#)
 - [安國玄挺禪師](#)
 - [天柱崇慧禪師](#)
 - [鶴林玄素禪師](#)
 - [七世](#)
 - [佛國惟則禪師](#)
 - [徑山道欽禪師](#)
 - [八世](#)
 - [雲居智禪師](#)
 - [鳥窠道林禪師](#)
 - [五祖旁出](#)
 - [一世](#)
 - [北宗神秀禪師](#)
 - [嵩嶽慧安國師](#)
 - [蒙山道明禪師](#)

- 二世
 - 壽州道樹禪師
 - 降魔藏禪師
 - 福先仁儉禪師
 - 破窳墮和尚
 - 嵩嶽元珪禪師
- 三世
 - 終南山惟政禪師
 - 嵩山峻極禪師
- 四世
 - 保唐無住禪師
- 六祖旁出
 - 一世
 - 西域崛多三藏
 - 韶州法海禪師
 - 吉州志誠禪師
 - 扁擔山曉了禪師
 - 洪州法達禪師
 - 壽州智通禪師
 - 江西志徹禪師
 - 信州智常禪師
 - 廣州志道禪師
 - 永嘉直覺禪師
 - 司空山本淨禪師
 - 婺州玄策禪師
 - 河北智障禪師
 - 南陽慧忠國師
 - 荷澤神會禪師
 - 二世
 - 耽源應直禪師
 - 蒙山光寶禪師
 - 五世
 - 圭峰宗密禪師
- 南嶽
 - 南嶽懷讓禪師
 - 一世
 - 江西馬祖道一禪師
 - 二世

- [百丈懷海禪師](#)
- [南泉普願禪師](#)
- [鹽官齊安國師](#)
- [歸宗智常禪師](#)
- [大梅法常禪師](#)
- [佛光如滿禪師](#)
- [五洩靈默禪師](#)
- [盤山寶積禪師](#)
- [麻谷寶徹禪師](#)
- [東寺如會禪師](#)
- [西堂智藏禪師](#)
- [章敬懷暉禪師](#)
- [大珠慧海禪師](#)
- [洪州百丈惟政禪師](#)
- [泐潭法會禪師](#)
- [杉山智堅禪師](#)
- [石鰲慧藏禪師](#)
- [北蘭讓禪師](#)
- [南源道明禪師](#)
- [中邑洪恩禪師](#)
- [泐潭常興禪師](#)
- [汾州無業禪師](#)
- [大同澄禪師](#)
- [鵝湖大義禪師](#)
- [伏牛自在禪師](#)
- [興善惟寬禪師](#)
- [三角總印禪師](#)
- [魯祖寶雲禪師](#)
- [芙蓉太毓禪師](#)
- [紫玉道通禪師](#)
- [五臺隱峯禪師](#)
- [西園曇藏禪師](#)
- [楊岐甄叔禪師](#)
- [馬頭神藏禪師](#)
- [華林善覺禪師](#)
- [濛谿和尚](#)
- [佛隴和尚](#)
- [烏臼和尚](#)

- [石臼和尚](#)
- [本谿和尚](#)
- [石林和尚](#)
- [亮座主](#)
- [百靈和尚](#)
- [金牛和尚](#)
- [利山和尚](#)
- [乳源和尚](#)
- [松山和尚](#)
- [則川和尚](#)
- [打地和尚](#)
- [秀谿和尚](#)
- [江西槐樹和尚](#)
- [水潦和尚](#)
- [浮杯和尚](#)
- [龍山和尚](#)
- [龐蘊居士](#)
- [三世](#)
 - [黃檗希運禪師](#)
 - [長慶大安禪師](#)
 - [大慈寰中禪師](#)
 - [平田普岸禪師](#)
 - [石霜性空禪師](#)
 - [福州古靈神贊禪師](#)
 - [和安通禪師](#)
 - [百丈涅槃和尚](#)
 - [趙州觀音院從諗禪師](#)
 - [長沙景岑禪師](#)
 - [茱萸和尚](#)
 - [子湖利縱禪師](#)
 - [白馬曇照禪師](#)
 - [雲際師祖禪師](#)
 - [香巖端禪師](#)
 - [靈鷲閑禪師](#)
 - [蘇州西禪和尚](#)
 - [陸巨大夫](#)
 - [甘贄行者](#)
 - [關南道常禪師](#)

- [雙嶺玄直禪師](#)
- [徑山鑑宗禪師](#)
- [芙蓉靈訓禪師](#)
- [新羅大茅和尚](#)
- [五臺智通禪師](#)
- [杭州天龍和尚](#)
- [杭州刺史白居易](#)
- [鎮州普化和尚](#)
- [壽州良遂禪師](#)
- [萇山慧超禪師](#)
- [虔州處微禪師](#)
- [薦福弘辯禪師](#)
- [朗州古暉和尚](#)
- [河中府公畿和尚](#)
- [祕魔巖和尚](#)
- [湖南祇林和尚](#)
- [黃州齊安禪師](#)
- [四世](#)
 - [睦州陳尊宿](#)
 - [千頃楚南禪師](#)
 - [烏石靈觀禪師](#)
 - [羅漢宗徹禪師](#)
 - [相國裴休居士](#)
 - [大隋法真禪師](#)
 - [靈樹如敏禪師](#)
 - [靈雲志勤禪師](#)
 - [壽山師解禪師](#)
 - [潞州淶水和尚](#)
 - [嚴陽善信尊者](#)
 - [光孝慧覺禪師](#)
 - [國清奉禪師](#)
 - [木陳從朗禪師](#)
 - [杭州多福和尚](#)
 - [雪竇常通禪師](#)
 - [石梯和尚](#)
 - [漳州浮石和尚](#)
 - [關南道吾和尚](#)
 - [末山尼了然禪師](#)

- [金華俱胝和尚](#)
- [五世](#)
 - [刺史陳操尚書](#)
 - [長慶道巘禪師](#)
- [應化聖賢](#)
 - [文殊菩薩](#)
 - [天親菩薩](#)
 - [維摩會上](#)
 - [善財](#)
 - [須菩提尊者](#)
 - [舍利弗尊者](#)
 - [賓頭盧尊者](#)
 - [秦跋陀禪師](#)
 - [寶誌禪師](#)
 - [雙林善慧大士](#)
 - [南嶽慧思禪師](#)
 - [天台智者顓禪師](#)
 - [豐干禪師](#)
 - [寒山子](#)
 - [拾得子](#)
 - [明州布袋和尚](#)
 - [法華志言大士](#)
- [青原](#)
 - [青原山行思禪師](#)
 - [一世](#)
 - [石頭希遷禪師](#)
 - [二世](#)
 - [藥山惟儼禪師](#)
 - [丹霞天然禪師](#)
 - [大顛寶通禪師](#)
 - [長髯曠禪師](#)
 - [京兆尸利禪師](#)
 - [招提慧朗禪師](#)
 - [鳳翔佛陀禪師](#)
 - [大同濟禪師](#)
 - [三世](#)
 - [道吾宗智禪師](#)
 - [雲巖曇晟禪師](#)

-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
- [百巖明哲禪師](#)
- [澧州高沙彌](#)
- [鼎州李翱刺史](#)
- [翠微無學禪師](#)
- [孝義寺性空禪師](#)
- [僊天禪師](#)
- [三平義忠禪師](#)
- [馬頰山本空禪師](#)
- [本生禪師](#)
- [石室善道禪師](#)
- [四世](#)
 - [石霜山慶諸禪師](#)
 - [漸源仲興禪師](#)
 - [淶清禪師](#)
 - [袖山僧密禪師](#)
 - [幽谿和尚](#)
 - [夾山善會禪師](#)
 - [清平山令遵禪師](#)
 - [投子山大同禪師](#)
 - [道場山如訥禪師](#)
 - [白雲約禪師](#)
 - [棗山光仁禪師](#)
- [五世](#)
 - [太光山居誨禪師](#)
 - [九峯道虔禪師](#)
 - [湧泉景欣禪師](#)
 - [雲蓋志元禪師](#)
 - [南際僧一禪師](#)
 - [覆船山洪薦禪師](#)
 - [鹿苑暉禪師](#)
 - [鳳翔石柱禪師](#)
 - [南嶽玄泰禪師](#)
 - [潭州雲蓋禪師](#)
 - [龍湖普聞禪師](#)
 - [張拙秀才](#)
 - [肥田慧覺伏禪師](#)
 - [洛浦山元安禪師](#)

- [黃山月輪禪師](#)
- [韶山寰普禪師](#)
- [上藍令超禪師](#)
- [太原海湖禪師](#)
- [天蓋山幽禪師](#)
- [三角令珪禪師](#)
- [投子感溫禪師](#)
- [牛頭微禪師](#)
- [盤山二世禪師](#)
- [九嶷敬慧禪師](#)
- [觀音巖俊禪師](#)
- [濠州思明禪師](#)
- [六世](#)
 - [谷山有緣禪師](#)
 - [泐潭延茂禪師](#)
 - [鳳棲同安院常察禪師](#)
 - [禾山無殷禪師](#)
 - [洪州泐潭牟禪師](#)
 - [六通院紹禪師](#)
 - [雲蓋志罕禪師](#)
 - [新羅國瑞巖禪師](#)
 - [新羅國百巖禪師](#)
 - [新羅國大嶺禪師](#)
 - [禾山師陰禪師](#)
 - [柘溪從實禪師](#)
 - [青峯傳楚禪師](#)
 - [烏牙彥賓禪師](#)
 - [永安靜禪師](#)
 - [鄧州中度禪師](#)
 - [永安淨悟禪師](#)
 - [木平善道禪師](#)
 - [崇福志禪師](#)
 - [鷲嶺善本禪師](#)
- [七世](#)
 - [大安興古禪師](#)
 - [烏牙行朗禪師](#)
 - [開山懷書禪師](#)
 - [青峰山清勉禪師](#)

- 大宋
 - 太宗皇帝
 - 孝宗皇帝
- 未詳法嗣
 - 茶陵郁山主
 - 先淨照禪師
 - 東山雲頂禪師
 - 雲幽重暉禪師
 - 樓子和尚
 - 天竺證悟法師
 - 本嵩律師
 - 老宿
 - 二庵主
 - 老宿
 - 官人
 - 婆子
 - 陳道婆
 - 婦人
- 晝原
 - 二世
 - 天皇道悟禪師
 - 三世
 - 龍潭崇信禪師
 - 四世
 - 德山宣鑿禪師
 - 泐潭寶峰和尚
 - 五世
 - 巖頭全叡禪師
 - 雪峰義存禪師
 - 瑞龍恭禪師
 - 高亭簡禪師
 - 六世
 - 瑞巖師彥禪師
 - 羅山道閑禪師
 - 玄沙師備宗一禪師
 - 長慶慧稜禪師
 - 保福展禪師
 - 鼓山神晏興聖國師

- [龍華靈照禪師](#)
- [翠巖令參禪師](#)
- [鏡清道忞禪師](#)
- [報恩懷嶽禪師](#)
- [安國瑤禪師](#)
- [睡龍道溥禪師](#)
- [長牛皎然禪師](#)
- [鵝湖孚禪師](#)
- [隆壽紹卿禪師](#)
- [永福從拿禪師](#)
- [雲蓋歸本禪師](#)
- [洛京南院和尚](#)
- [法海行周禪師](#)
- [杭州龍井通禪師](#)
- [杭州龍興宗靖禪師](#)
- [南禪契璠禪師](#)
- [越山師竇禪師](#)
- [極樂元儼禪師](#)
- [潮山延宗禪師](#)
- [普通普明禪師](#)
- [太原孚上座](#)
- [南嶽惟勁禪師](#)
- [白兆志圓禪師](#)
- [七世](#)
 - [瑞峰神祿禪師](#)
 - [黃龍誨機禪師](#)
 - [明招德謙禪師](#)
 - [大寧微禪師](#)
 - [天竺義澄禪師](#)
 - [羅山義因禪師](#)
 - [羅漢桂琛禪師](#)
 - [天龍明直禪師](#)
 - [僊宗契苻禪師](#)
 - [白龍道希禪師](#)
 - [安國慧球禪師](#)
 - [螺峰冲奧禪師](#)
 - [泉州睡龍山和尚](#)
 - [大章契如庵主](#)

- [雲峰光緒禪師](#)
- [國清師靜上座](#)
- [招慶道匡禪師](#)
- [報恩寶資禪師](#)
- [報慈光雲禪師](#)
- [開先紹宗禪師](#)
- [傾心法瑤禪師](#)
- [水陸洪儼禪師](#)
- [廣嚴咸澤禪師](#)
- [報慈慧朗禪師](#)
- [石佛靜禪師](#)
- [觀音清煥禪師](#)
- [東禪可隆禪師](#)
- [僊宗守玘禪師](#)
- [永安懷烈禪師](#)
- [龜山和尚](#)
- [報慈從環禪師](#)
- [太傅王延彬居士](#)
- [延壽慧輪禪師](#)
- [報慈文欽禪師](#)
- [鳳凰山從琛禪師](#)
- [永隆慧瀛禪師](#)
- [嶽麓山和尚](#)
- [後招慶和尚](#)
- [建山澄禪師](#)
- [招慶省僉禪師](#)
- [天竺子儀禪師](#)
- [白雲智作禪師](#)
- [龍山文義禪師](#)
- [鼓山智嶽禪師](#)
- [報恩清護禪師](#)
- [瑞巖師淮禪師](#)
- [報國照禪師](#)
- [龍冊子興禪師](#)
- [佛隲知默禪師](#)
- [南禪遇緣禪師](#)
- [資福智遠禪師](#)
- [烏巨儀晏禪師](#)

- [白鹿貴禪師](#)
- [長慶藏用禪師](#)
- [瑞峰智端禪師](#)
- [僊宗明禪師](#)
- [安國祥禪師](#)
- [保福清豁禪師](#)
- [大龍山智洪禪師](#)
- [白馬山行靄禪師](#)
- [興教師普禪師](#)
- [八世](#)
 - [棗樹和尚](#)
 - [黃龍智顯禪師](#)
 - [玄都澄禪師](#)
 - [呂巖直人](#)
 - [普照瑜禪師](#)
 - [清豁洪淮禪師](#)
 - [清涼休復禪師](#)
 - [龍濟修禪師](#)
 - [延慶傳殷禪師](#)
 - [南臺守安禪師](#)
 - [廣平玄旨禪師](#)
 - [靈峰志恩禪師](#)
 - [報劬玄應禪師](#)
 - [報恩宗顯禪師](#)
 - [太平清海禪師](#)
 - [興陽道欽禪師](#)
 - [歸宗道詮禪師](#)
- [九世](#)
 - [天平山從漪禪師](#)
 - [圓通德禪師](#)
 - [奉先慧同禪師](#)
 - [九峰義詮禪師](#)
 - [隆壽法騫禪師](#)
- [南嶽為仰宗](#)
 - [三世](#)
 - [為山靈祐禪師](#)
 - [四世](#)
 - [仰山慧寂禪師](#)

- [香巖智閑禪師](#)
- [徑山洪譚禪師](#)
- [九峰慈慧禪師](#)
- [京兆米和尚](#)
- [三角法馮庵主](#)
- [王敬初常侍](#)
- [五世](#)
 - [西塔光穆禪師](#)
 - [南塔光湧禪師](#)
 - [霍山景通禪師](#)
 - [無著文喜禪師](#)
 - [五觀順支禪師](#)
 - [南禪無染禪師](#)
 - [太安清幹禪師](#)
 - [雙溪田道者](#)
 - [洪州米嶺和尚](#)
 - [雙峰古禪師](#)
- [六世](#)
 - [資福如寶禪師](#)
 - [芭蕉慧清禪師](#)
 - [清化全怱禪師](#)
 - [黃連義初禪師](#)
- [七世](#)
 - [資福貞濂禪師](#)
 - [芭蕉繼徹禪師](#)
 - [承天辭確禪師](#)
- [耆原法眼宗](#)
 - [八世](#)
 - [清涼文益禪師](#)
 - [九世](#)
 - [天台德韶國師](#)
 - [清涼泰欽禪師](#)
 - [靈隱清簪禪師](#)
 - [歸宗義柔禪師](#)
 - [百丈道恒禪師](#)
 - [杭州永明道潛禪師](#)
 - [杭州報恩慧朗禪師](#)
 - [金陵報慈行言導師](#)

- [崇壽契稠禪師](#)
- [報恩法安禪師](#)
- [雲居清錫禪師](#)
- [正勤希奉禪師](#)
- [羅漢智依禪師](#)
- [章義道欽禪師](#)
- [報恩匡逸禪師](#)
- [報慈文遂導師](#)
- [羅漢守仁禪師](#)
- [黃山良匡禪師](#)
- [報恩玄則禪師](#)
- [淨德智筠禪師](#)
- [高麗國慧炬國師](#)
- [寶塔紹巖禪師](#)
- [般若敬導禪師](#)
- [歸宗策直禪師](#)
- [棲賢圓禪師](#)
- [新興齊禪師](#)
- [古賢謹禪師](#)
- [興福可動禪師](#)
- [十世](#)
 - [永明延壽禪師](#)
 - [五雲志逢禪師](#)
 - [報恩永安禪師](#)
 - [紫凝智勤禪師](#)
 - [普門希辨禪師](#)
 - [光慶遇安禪師](#)
 - [華嚴慧達禪師](#)
 - [九曲慶祥禪師](#)
 - [開化行明禪師](#)
 - [瑞鹿遇安禪師](#)
 - [龍華慧居禪師](#)
 - [齊雲遇臻禪師](#)
 - [瑞鹿本先禪師](#)
 - [興教洪壽禪師](#)
 - [蘇州永安道原禪師](#)
 - [雲居道齊禪師](#)
 - [秀州羅漢院願昭禪師](#)

- [支提辯降禪師](#)
- [棲賢澄湜禪師](#)
- [千光環省禪師](#)
- [崇福慶祥禪師](#)
- [雲居義能禪師](#)
- [歸宗慧誠禪師](#)
- [十一世](#)
 - [瑞巖義海禪師](#)
 - [靈隱玄本禪師](#)
 - [堯峯顯耀禪師](#)
 - [聖壽昇禪師](#)
 - [興教惟一禪師](#)
 - [西余體柔禪師](#)
 - [定山惟素山主](#)
 - [淨土惟正禪師](#)
- [十二世](#)
 - [靈隱延珊禪師](#)
- [南嶽臨濟宗](#)
 - [四世](#)
 - [臨濟義玄禪師](#)
 - [五世](#)
 - [興化存獎禪師](#)
 - [寶壽沼禪師](#)
 - [三聖慧然禪師](#)
 - [魏府大覺和尚](#)
 - [灌谿志閑禪師](#)
 - [紙衣和尚](#)
 - [定州善崔禪師](#)
 - [幽州譚空和尚](#)
 - [襄州歷村和尚](#)
 - [米倉禪師](#)
 - [齊魯禪師](#)
 - [雲山和尚](#)
 - [虎谿庵主](#)
 - [桐峯庵主](#)
 - [杉洋庵主](#)
 - [定上座](#)
 - [六世](#)

- [南院慧顥禪師](#)
- [守廓侍者](#)
- [西院思明禪師](#)
- [寶壽和尚](#)
- [大悲和尚](#)
- [水陸和尚](#)
- [澄心旻德禪師](#)
- [魯祖山教禪師](#)
- [鎮州談空和尚](#)
- [際上座](#)
- [七世](#)
 - [風穴延沼禪師](#)
 - [穎橋安禪師](#)
 - [興陽歸靜禪師](#)
- [八世](#)
 - [首山省念禪師](#)
 - [廣慧直禪師](#)
- [九世](#)
 - [汾州善昭禪師](#)
 - [葉縣歸省禪師](#)
 - [神鼎洪譚禪師](#)
 - [谷隱蘊聰禪師](#)
 - [廣慧元璉禪師](#)
 - [三交智嵩禪師](#)
 - [仁王處評禪師](#)
 - [丞相王隨居士](#)
- [十世](#)
 - [石霜楚圓慈明禪師](#)
 - [瑯琊慧覺禪師](#)
 - [大愚守芝禪師](#)
 - [法華全舉禪師](#)
 - [芭蕉谷泉禪師](#)
 - [天聖皓泰禪師](#)
 - [浮山法遠禪師](#)
 - [寶應昭禪師](#)
 - [大乘慧果禪師](#)
 - [金山曇穎達觀禪師](#)
 - [仁壽珍禪師](#)

- [永慶普禪師](#)
- [駙馬都尉李遵勗居士](#)
- [英公夏竦居士](#)
- [華嚴道隆禪師](#)
- [文公楊億居士](#)
- [十一世](#)
 - [翠巖可直禪師](#)
 - [蔣山警元禪師](#)
 - [大寧道寬禪師](#)
 - [道吾悟直禪師](#)
 - [廬法源禪師](#)
 - [靈隱德章禪師](#)
 - [定慧超信海印禪師](#)
 - [泐潭月禪師](#)
 - [姜山方禪師](#)
 - [白鹿端禪師](#)
 - [直如方禪師](#)
 - [長水子璿講師](#)
 - [雲峯文悅禪師](#)
 - [秀州本覺若珠禪師](#)
 - [華嚴普孜禪師](#)
 - [瑯琊方銳禪師](#)
 - [興陽希隱禪師](#)
 - [石佛顯忠祖印禪師](#)
 - [淨住居說禪師](#)
 - [節使李端愿居士](#)
 - [西余淨端禪師](#)
- [十二世](#)
 - [大滄慕喆直如禪師](#)
 - [穹窿圓禪師](#)
 - [興化紹清禪師](#)
 - [智海道平禪師](#)
- [十三世](#)
 - [泐潭景祥禪師](#)
 - [光孝慧蘭禪師](#)
 - [東林遵禪師](#)
 - [潭州東明遷禪師](#)
 - [慶善能禪師](#)

- [慶善隆禪師](#)
- [十四世](#)
 - [淨因躡審繼成禪師](#)
 - [開福哲禪師](#)
 - [鴻福昇禪師](#)
 - [萬壽素禪師](#)
 - [香山淵禪師](#)
 - [寶峯景淳知藏](#)
 - [蘆山法直禪師](#)
- [十五世](#)
 - [冶父道川禪師](#)
- [晝原曹洞宗](#)
 - [四世](#)
 - [洞山良价禪師](#)
 - [五世](#)
 - [曹山本寂禪師](#)
 - [雲居道膺禪師](#)
 - [疎山匡仁禪師](#)
 - [晝林師虔禪師](#)
 - [高安白水仁禪師](#)
 - [白馬儒禪師](#)
 - [龍牙居遁禪師](#)
 - [華嚴靜禪師](#)
 - [九峯滿禪師](#)
 - [北院通禪師](#)
 - [洞山全禪師](#)
 - [京兆蜺子和尚](#)
 - [幽棲道幽禪師](#)
 - [越州乾峯和尚](#)
 - [吉州禾山和尚](#)
 - [天童啟禪師](#)
 - [欽山文叟禪師](#)
 - [六世](#)
 - [洞山延禪師](#)
 - [金峯從志禪師](#)
 - [鹿門直禪師](#)
 - [曹山霞禪師](#)
 - [曹山光慧禪師](#)

- [曹山智炬禪師](#)
- [育王通禪師](#)
- [鳳棲同安不禪師](#)
- [歸宗懷暉禪師](#)
- [嵇山章禪師](#)
- [雲居懷嶽禪師](#)
- [杭州佛日本空禪師](#)
- [永光直禪師](#)
- [朱谿謙禪師](#)
- [雲居簡禪師](#)
- [新羅雲住和尚](#)
- [護國守澄淨果禪師](#)
- [靈泉歸仁禪師](#)
- [疎山證禪師](#)
- [百丈安禪師](#)
- [黃檗慧禪師](#)
- [伏龍璘禪師](#)
- [京兆三相和尚](#)
- [麈德延禪師](#)
- [石門蘊禪師](#)
- [龍光譚禪師](#)
- [石藏炬禪師](#)
- [重雲暉禪師](#)
- [瑞龍璋禪師](#)
- [報慈嶼禪師](#)
- [含珠哲禪師](#)
- [紫陵匡一禪師](#)
- [同安威禪師](#)
- [七世](#)
 - [上藍慶禪師](#)
 - [天池隆禪師](#)
 - [益州直禪師](#)
 - [佛手巖行因禪師](#)
 - [龜洋慧忠禪師](#)
 - [同安志禪師](#)
 - [智門欽禪師](#)
 - [薦福思禪師](#)
 - [太陽堅禪師](#)

- [五峰紹禪師](#)
- [麴德義禪師](#)
- [麴德周禪師](#)
- [石門徹禪師](#)
- [紫陵微禪師](#)
- [興元大浪和尚](#)
- [八世](#)
 - [普寧顯禪師](#)
 - [梁山緣觀禪師](#)
 - [普淨常覺禪師](#)
 - [雲頂德敷禪師](#)
 - [石門遠禪師](#)
 - [北禪懷感禪師](#)
 - [石門筠首座](#)
- [九世](#)
 - [太陽警玄禪師](#)
 - [藥山昇禪師](#)
 - [鼎州羅紋珍山主](#)
 - [道吾詮禪師](#)
 - [南禪聰禪師](#)
- [十世](#)
 - [投子義青禪師](#)
 - [興陽剖禪師](#)
 - [福嚴審承禪師](#)
 - [羅浮顯如禪師](#)
 - [白馬喜禪師](#)
 - [雲門暉禪師](#)
 - [梁山冀禪師](#)
- [十一世](#)
 - [芙蓉道楷禪師](#)
 - [大洪恩禪師](#)
 - [洞山雲禪師](#)
 - [福應文禪師](#)
- [十二世](#)
 - [丹霞子淳禪師](#)
 - [淨因枯木成禪師](#)
 - [寶峯照禪師](#)
 - [石門易禪師](#)

- [天寧誦禪師](#)
- [天寧璉禪師](#)
- [梅山己禪師](#)
- [普賢秀禪師](#)
- [鹿門燈禪師](#)
- [資聖南禪師](#)
- [洞山微禪師](#)
- [太傅高世則居士](#)
- [大洪守遂禪師](#)
- [十三世](#)
 - [長蘆直歇清了禪師](#)
 - [天童宏智正覺禪師](#)
 - [大洪預禪師](#)
 - [尼慧光禪師](#)
 - [圓通德止禪師](#)
 - [智通景深禪師](#)
 - [華藥智朋禪師](#)
 - [香山尼佛通禪師](#)
- [十四世](#)
 - [雪竇嗣宗禪師](#)
 - [善權智禪師](#)
 - [淨慈自得慧暉禪師](#)
 - [石窠恭禪師](#)
 - [光孝徹禪師](#)
 - [大洪為禪師](#)
 - [長蘆琳禪師](#)
 - [慧力悟禪師](#)
 - [雪峯深禪師](#)
 - [慧日安禪師](#)
 - [吉祥寶禪師](#)
- [十五世](#)
 - [雪竇智鑑禪師](#)
- [耆原雲門宗](#)
 - [六世](#)
 - [雲門文偃禪師](#)
 - [七世](#)
 - [白雲子祥實性大師](#)
 - [德山緣密圓明禪師](#)

- [巴陵新開顯鑿禪師](#)
- [雙泉師寔明教禪師](#)
- [香林澄遠禪師](#)
- [洞山守初禪師](#)
- [泐潭謙禪師](#)
- [奉先深禪師](#)
- [披雲寂禪師](#)
- [舜峯韶禪師](#)
- [般若柔禪師](#)
- [薦福承古禪師](#)
- [雙峯欽禪師](#)
- [資福詮禪師](#)
- [黃雲元禪師](#)
- [龍境倫禪師](#)
- [大容譚禪師](#)
- [華嚴慧禪師](#)
- [黃檗法濟禪師](#)
- [谷山豐禪師](#)
- [洞山清稟禪師](#)
- [北禪寂禪師](#)
- [淨源直禪師](#)
- [大梵圓禪師](#)
- [藥山圓光禪師](#)
- [奉國海禪師](#)
- [雲門球禪師](#)
- [佛陀遠禪師](#)
- [慈雲深禪師](#)
- [化城鑿禪師](#)
- [護國和尚](#)
- [西禪欽禪師](#)
- [覺華照禪師](#)
- [延長山和尚](#)
- [黃龍贊禪師](#)
- [雲門朗上座](#)
- [篡子山庵主](#)
- [八世](#)
 - [大歷和尚](#)
 - [寶華和尚](#)

- [月華山月禪師](#)
- [樂淨匡禪師](#)
- [後白雲和尚](#)
- [文殊直禪師](#)
- [南臺勤禪師](#)
- [德山晏禪師](#)
- [乾明普禪師](#)
- [中梁崇禪師](#)
- [黃龍愿禪師](#)
- [普安道禪師](#)
- [泐潭靈澄散聖](#)
- [五祖師戒禪師](#)
- [福昌善禪師](#)
- [建福同禪師](#)
- [智門光祚禪師](#)
- [福嚴良雅禪師](#)
- [開福賢禪師](#)
- [丫山盛禪師](#)
- [蓮華峯祥庵主](#)
- [德山遠禪師](#)
- [開先照禪師](#)
- [金陵天寶和尚](#)
- [法雲善禪師](#)
- [藍田直禪師](#)
- [雪峯欽山主](#)
- [西峯豁禪師](#)
- [九世](#)
 - [洞山曉聰禪師](#)
 - [石霜誠禪師](#)
 - [泐潭澄禪師](#)
 - [雲蓋顯禪師](#)
 - [上方嶽禪師](#)
 - [育王坦禪師](#)
 - [金山新禪師](#)
 - [雪竇重顯明覺禪師](#)
 - [雲蓋鵬禪師](#)
 - [彭法泗禪師](#)
 - [北禪賢禪師](#)

- [日芳上座](#)
- [開先暹禪師](#)
- [秀州資聖勤禪師](#)
- [潭州鹿苑圭禪師](#)
- [十世](#)
 - [雲居曉舜禪師](#)
 - [杭州佛日契嵩禪師](#)
 - [洪州太守許式](#)
 - [育王璉禪師](#)
 - [承天簡禪師](#)
 - [九峯韶禪師](#)
 - [西塔殊禪師](#)
 - [雲居億禪師](#)
 - [令滔首座](#)
 - [玉泉承皓禪師](#)
 - [雲居慶禪師](#)
 - [國慶順宗禪師](#)
 - [天聖守道禪師](#)
 - [天衣義懷禪師](#)
 - [承天宗禪師](#)
 - [南明慎禪師](#)
 - [君山昇禪師](#)
 - [洞庭惠金典座](#)
 - [修撰曾會居士](#)
 - [圓通訥禪師](#)
 - [法昌遇禪師](#)
 - [廣因要禪師](#)
 - [雲居了元佛印禪師](#)
 - [智海逸正覺禪師](#)
 - [天章楚禪師](#)
- [十一世](#)
 - [蔣山泉禪師](#)
 - [慈雲慧禪師](#)
 - [歸宗通禪師](#)
 - [天宮徽禪師](#)
 - [福昌信禪師](#)
 - [慧林宗本圓照禪師](#)
 - [法雲圓通秀禪師](#)

- [慧林若冲覺海禪師](#)
- [長蘆應夫禪師](#)
- [佛日智才禪師](#)
- [天鉢元禪師](#)
- [棲賢遷禪師](#)
- [梵言首座](#)
- [三祖會禪師](#)
- [澄照慈禪師](#)
- [崇德澄禪師](#)
- [定慧雲禪師](#)
- [報本存禪師](#)
- [開聖棲禪師](#)
- [衡山禮禪師](#)
- [雲門侃禪師](#)
- [太平坦禪師](#)
- [佛足祥禪師](#)
- [明因贊禪師](#)
- [侍郎楊傑居士](#)
- [慧日堯禪師](#)
- [中際遵禪師](#)
- [百丈悟禪師](#)
- [善權泰禪師](#)
- [崇福基禪師](#)
- [大中隆禪師](#)
- [僉判劉經臣居士](#)
- [十二世](#)
 - [清獻公趙抃居士](#)
 - [法雲善本禪師](#)
 - [金山善寧禪師](#)
 - [壽州資壽巖禪師](#)
 - [秀州本覺一禪師](#)
 - [投子顥禪師](#)
 - [地藏恩禪師](#)
 - [靈曜良禪師](#)
 - [香山泳禪師](#)
 - [靈泉一禪師](#)
 - [石佛通禪師](#)
 - [法雲惟白佛國禪師](#)

- [僊巖純禪師](#)
- [慈濟聰禪師](#)
- [白兆珪禪師](#)
- [福巖初禪師](#)
- [德山仁繪禪師](#)
- [香積旻禪師](#)
- [瑞相來禪師](#)
- [真空一禪師](#)
- [華嚴智明禪師](#)
- [永泰航禪師](#)
- [壽聖邦禪師](#)
- [長蘆隨禪師](#)
- [夾山齡禪師](#)
- [元豐滿禪師](#)
- [善勝悟禪師](#)
- [西京招提湛禪師](#)
- [十三世](#)
 - [淨慈楚明禪師](#)
 - [雪峯思慧禪師](#)
 - [資福明禪師](#)
 - [雲峯璿禪師](#)
 - [延慶復禪師](#)
 - [道場顏禪師](#)
 - [天竺從諫講師](#)
 - [普濟淳禪師](#)
 - [尼法海禪師](#)
 - [丞相富弼居士](#)
 - [尼文照禪師](#)
 - [萬年幽禪師](#)
 - [慧林懷深慈受禪師](#)
 - [萬壽瓊禪師](#)
 - [天衣哲禪師](#)
 - [智者詮禪師](#)
 - [報恩然禪師](#)
 - [雪峯演禪師](#)
 - [衛州王大夫](#)
 - [嶽林直禪師](#)
 - [秀州觀音和尚](#)

- 十四世
 - 淨慈象禪師
 - 靈隱惠淳禪師
 - 淨慈月堂道昌禪師
 - 徑山照堂了一禪師
 - 金山了心禪師
 - 香巖如壁禪師
 - 國清妙印禪師
- 十五世
 - 中竺癡禪元妙禪師
 - 靈巖日禪師
 - 玉泉達禪師
- 十六世
 - 光孝深禪師
- 南嶽臨濟宗
 - 十一世
 - 黃龍慧南禪師
 - 十二世
 - 黃龍晦堂心禪師
 - 東林常總照覺禪師
 - 寶峯克文直淨禪師
 - 雲居元祐禪師
 - 黃檗惟勝禪師
 - 祐聖[宋-木+居]禪師
 - 開元琦禪師
 - 仰山偉禪師
 - 福巖慈感禪師
 - 雲蓋智禪師
 - 報本元禪師
 - 隆慶慶閑禪師
 - 三祖宗禪師
 - 泐潭英禪師
 - 保寧圓璣禪師
 - 雲峯道圓禪師
 - 四祖洪演禪師
 - 清隱潛庵源禪師
 - 廉泉曇秀禪師
 - 靈鷲慧覺禪師

- [積翠永庵主](#)
- [歸宗芝庵主](#)
- [十三世](#)
 - [黃龍死心悟新禪師](#)
 - [黃龍靈源清禪師](#)
 - [泐潭草堂清禪師](#)
 - [青原信禪師](#)
 - [夾山純禪師](#)
 - [雙嶺化禪師](#)
 - [龜山曉津禪師](#)
 - [保福權禪師](#)
 - [護國新禪師](#)
 - [黃龍明禪師](#)
 - [道吾圓禪師](#)
 - [太史黃庭堅居士](#)
 - [觀文王韶居士](#)
 - [秘書吳恂居士](#)
 - [泐潭乾禪師](#)
 - [開先瑛禪師](#)
 - [象田梵卿禪師](#)
 - [褒親瑞禪師](#)
 - [慧力昌禪師](#)
 - [慧圓上座](#)
 - [內翰蘇軾居士](#)
 - [兜率從悅禪師](#)
 - [法雲佛照杲禪師](#)
 - [泐潭湛堂準禪師](#)
 - [淨覺本禪師](#)
 - [報慈英禪師](#)
 - [寶華鑑禪師](#)
 - [九峯廣禪師](#)
 - [黃檗全禪師](#)
 - [清涼慧洪覺範禪師](#)
 - [超化靜禪師](#)
 - [石頭懷志庵主](#)
 - [雙谿印首座](#)
 - [羅漢南禪師](#)
 - [慈雲彥隆禪師](#)

- [大滄祖琿禪師](#)
- [福巖演禪師](#)
- [昭覺白禪師](#)
- [薦福道英禪師](#)
- [尊勝朋講師](#)
- [慧日明禪師](#)
- [道場如禪師](#)
- [寶壽樂禪師](#)
- [廣慧杲禪師](#)
- [永安正禪師](#)
- [光孝爽禪師](#)
- [法輪添禪師](#)
- [育王淨曇禪師](#)
- [直如戒香禪師](#)
- [月珠祖鑑禪師](#)
- [萬壽念禪師](#)
- [參政蘇轍居士](#)
- [十四世](#)
 - [禾山方禪師](#)
 - [崇覺空禪師](#)
 - [九頂惠泉禪師](#)
 - [性空妙普庵主](#)
 - [空室道人智通](#)
 - [上封佛心才禪師](#)
 - [法輪端禪師](#)
 - [長靈卓禪師](#)
 - [寺丞戴道純居士](#)
 - [黃龍山堂道震禪師](#)
 - [萬年雪巢法一禪師](#)
 - [雪峯慧空禪師](#)
 - [正法希明禪師](#)
 - [祖庵主](#)
 - [勝因靜禪師](#)
 - [龍牙宗密禪師](#)
 - [東禪從密禪師](#)
 - [天童交禪師](#)
 - [圓通昱禪師](#)
 - [二靈和庵主](#)

- [慈氏瑞僊禪師](#)
- [雪竇持禪師](#)
- [石佛益禪師](#)
- [疎山了常禪師](#)
- [兜率慧照禪師](#)
- [丞相張商英居士](#)
- [西蜀鑾法師](#)
- [典牛游禪師](#)
- [九僊法清禪師](#)
- [覺海法因庵主](#)
- [德山瓊禪師](#)
- [中巖能禪師](#)
- [雲頂印禪師](#)
- [信相顯禪師](#)
- [大滌大圓智禪師](#)
- [十五世](#)
 - [文定公胡安國居士](#)
 - [普賢素禪師](#)
 - [鼓山洵禪師](#)
 - [鼓山珍禪師](#)
 - [育王無示謨禪師](#)
 - [道場慧禪師](#)
 - [顯寧智禪師](#)
 - [烏回範禪師](#)
 - [德山初禪師](#)
 - [嘉興報恩法常首座](#)
 - [萬壽夢庵信禪師](#)
 - [慧日默庵道禪師](#)
 - [光孝繁禪師](#)
 - [雪峯忠禪師](#)
 - [蓬萊圓禪師](#)
 - [左丞范冲居士](#)
 - [樞密吳居厚居士](#)
 - [諫議彭汝霖居士](#)
 - [中丞盧航居士](#)
 - [左司都貺居士](#)
 - [宣秘禮禪師](#)
 - [徑山塗毒智策禪師](#)

- 十六世
 - 萬年心聞耆禪師
 - 天童朴禪師
 - 高麗國坦然國師
 - 龍華本禪師
 - 東山吉禪師
 - 懶審樞禪師
- 十七世
 - 龍鳴賢禪師
 - 大滄唳審鑑禪師
- 南嶽臨濟宗
 - 十一世
 - 楊岐方會禪師
 - 十二世
 - 白雲守端禪師
 - 保寧仁勇禪師
 - 比部孫居士
 - 十三世
 - 五祖法演禪師
 - 雲蓋智本禪師
 - 保福殊禪師
 - 提刑郭祥正
 - 壽聖知淵禪師
 - 上方日益禪師
 - 十四世
 - 昭覺克勤圓悟佛果禪師
 - 太平慧勲佛鑑禪師
 - 龍門清遠佛眼禪師
 - 開福道寧禪師
 - 大隋南堂靜禪師
 - 無為泰禪師
 - 五祖自禪師
 - 九頂素禪師
 - 元禮首座
 - 普融知藏
 - 承天賢禪師
 - 金陵俞道婆
 - 十五世

- [徑山大慧宗杲禪師](#)
- [虎丘紹隆禪師](#)
- [育王佛智端裕禪師](#)
- [大滄佛性法泰禪師](#)
- [護國此庵景元禪師](#)
- [南峯雲辯禪師](#)
- [靈隱慧遠佛海禪師](#)
- [鴻福文禪師](#)
- [華藏民禪師](#)
- [昭覺道元禪師](#)
- [中竺\[仁-二+\(么*刀\).\]堂中仁禪師](#)
- [象耳袁覺禪師](#)
- [中巖華嚴祖覺禪師](#)
- [明因曇玩禪師](#)
- [虎丘雪庭元淨禪師](#)
- [天寧訥坐梵思禪師](#)
- [君山覺禪師](#)
- [寶華顯禪師](#)
- [東山覺禪師](#)
- [樞密徐俯](#)
- [郡王趙令衿](#)
- [侍郎李彌遜](#)
- [成都范縣](#)
- [文殊心道禪師](#)
- [南華旻禪師](#)
- [龍牙才禪師](#)
- [蓬萊卿禪師](#)
- [佛燈珣禪師](#)
- [泐潭明禪師](#)
- [寶藏本禪師](#)
- [祥符海禪師](#)
- [淨眾璣禪師](#)
- [龍翔竹庵士珪禪師](#)
- [雲居高庵悟禪師](#)
- [黃龍牧庵忠禪師](#)
- [烏巨雪堂行禪師](#)
- [白楊順禪師](#)
- [雲居如禪師](#)

- [歸宗直牧賢禪師](#)
- [道場正堂辯禪師](#)
- [世奇首座](#)
- [淨居尼慧溫禪師](#)
- [給事馮楫濟川居士](#)
- [大滄月庵善果禪師](#)
- [石頭回禪師](#)
- [護聖居靜禪師](#)
- [南巖勝禪師](#)
- [梁山廓庵師遠禪師](#)
- [能仁悟禪師](#)
- [尚書莫將居士](#)
- [龍圖王蕭居士](#)
- [十六世](#)
 - [教忠晦庵彌光禪師](#)
 - [東林卍庵道顏禪師](#)
 - [西禪懶庵鼎霈禪師](#)
 - [東禪蒙庵思岳禪師](#)
 - [西禪此庵守淨禪師](#)
 - [開善道謙禪師](#)
 - [育王佛照德光禪師](#)
 - [華藏滌庵演禪師](#)
 - [天童無用全禪師](#)
 - [玉泉懿禪師](#)
 - [薦福本禪師](#)
 - [靈巖性禪師](#)
 - [蔣山直禪師](#)
 - [靈隱誰庵演禪師](#)
 - [光孝遠禪師](#)
 - [靈隱最庵印禪師](#)
 - [竹原元庵主](#)
 - [淨居尼妙道禪師](#)
 - [資壽尼無著妙總禪師](#)
 - [侍郎張九成無垢居士](#)
 - [參政李邴居士](#)
 - [寶學劉彥脩居士](#)
 - [提刑吳偉明居士](#)
 - [門司黃彥節居士](#)

- [秦國夫人計氏妙直](#)
- [天童應庵曇華禪師](#)
- [清涼坦禪師](#)
- [淨慈水庵一禪師](#)
- [道場無庵全禪師](#)
- [慧涌日禪師](#)
- [靈巖安禪師](#)
- [國清簡堂機禪師](#)
- [焦山或庵體禪師](#)
- [湛堂深禪師](#)
- [參政錢端禮居士](#)
- [東山齊己禪師](#)
- [疎山歸雲本禪師](#)
- [內翰曾開居士](#)
- [知府葛郟居士](#)
- [徑山寶印禪師](#)
- [楚安方禪師](#)
- [文殊業禪師](#)
- [稠巖贊禪師](#)
- [待制潘良貴居士](#)
- [無為隨庵緣禪師](#)
- [萬年閑禪師](#)
- [中際能禪師](#)
- [普雲圓禪師](#)
- [退庵休禪師](#)
- [長蘆日庵仁禪師](#)
- [圓極岑禪師](#)
- [覺報清禪師](#)
- [何山然禪師](#)
- [信相修禪師](#)
- [玉泉窮谷璉禪師](#)
- [大滄行禪師](#)
- [老衲證禪師](#)
- [山堂淳禪師](#)
- [復庵封禪師](#)
- [野庵璿禪師](#)
- [雲居蓬菴會禪師](#)
- [中庵空禪師](#)

- [漈菴珠禪師](#)
- [十七世](#)
 - [淨慈肯堂充禪師](#)
 - [智者元庵慈禪師](#)
 - [鼓山木庵永禪師](#)
 - [龍翔柏堂雅禪師](#)
 - [劔門分庵主](#)
 - [天童密庵傑禪師](#)
 - [南書記](#)
 - [侍郎李浩居士](#)
 - [華藏伊庵權禪師](#)
 - [三峯印禪師](#)
 - [德山涓禪師](#)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No. 1593-A 禪宗正脉序

有大聖人中天印度。曰能仁氏。乃往古昔然燈所記。賢劫次補。四十九年開示演化。接物利生。悲濟無量。仁慈普覆。聲教所被。微塵刹海。而雙林息照。布瑟波印於飲光。少室單傳。摩訶衍基於達磨。此正法眼藏。教外別傳。禪宗之所自也。已而六傳至曹溪。而支分派別。洋溢汎濫。徧滿天下。不有文字紀錄事緣。又何以知其投鍼玄趣。激電迅機。開示妙明之真性哉。此吳僧道原。傳燈錄之所有作。而有宋真宗皇帝。詔翰林學士楊億之所有敘而總裁也。後斯轍者。曰廣燈。續燈。聯燈。普燈。雖各詳略不同。亦無非所以明此一大事也。宋時有僧濟者。患五燈之浩瀚。作五燈會元。以惠來學。甚盛心也。然而後人猶以未易通究為病者。是其中間機緣語句。峻險者。壁立萬仞。淺近者。鼻孔半邊。或入海而算沙。或追羊而感岐。此國朝嘉興府僧如聿。禪宗正脉之所有作也。聿蚤參空谷禪師於虎林得旨。即韜光環堵於嘉禾之真如。四海象龍。望風嚮慕。而參禮者戶屢常滿。而慨夫五燈之機緣峻險曰。上根之人。當頭便領。十日並照。中下之徒。銀山鍊壁。絲毫萬里。用是抄錄簡集。由某佛以至某人之嗣。凡幾世幾百人為幾卷。俾人人通曉以為證悟之因。復夢神教。題曰禪宗正脉。刻梓流通。猗歟盛哉。書成。飛錫踵門。以敘文為請。嘻余耄矣。豈足以敘此書之文哉。然而仰惟。佛法自漢永平東被真丹。禪宗一宗。徧滿寰宇。佛祖以下。得其傳者。自一燈以至無盡燈焉迄今逮二千祀。代有金輪深信體解。作興驩動。振耀金湯。際我大明太祖高皇帝。聖神文武。統御華夷。樹刹建幢天章御製。躋斯民於仁壽之域。措天下於雍熙之治。太宗文皇帝。繼體守成。欽明文思。光被四表。聖治無為。製詞贊詠。佛日光輝。欽惟皇上嗣登大寶。聖哲溫恭。厲精圖治。四海會同。佛聖再來。佛法外護。天人叶贊。率土昇平。白髮禮臣。乞骸歸老。受恩莫報。弗遑寧居。間得一覽禪宗正脈。大為慶幸。

異時必有以是帙冒塵睿覽。若景德之傳燈錄者矣。第不知奉詔總裁刪定。而兼敘引者為誰也。(臣)雖老矣。猶能欣戴拱嘿。以俟其美音。

大明弘治三年歲在庚戌除夕前一日賜進士階榮祿大夫正治上卿太子少保禮部尚書奉勅致仕前兼左春坊左庶子八十二翁杭郡鄒幹撰

No. 1593-B 禪宗正脉敘

原夫三界惱熱。灼諸火之易燃。一物長靈。亘億劫而弗滅。欲求作佛。莫切證心。心本圓成。性原妙覺。恒河沙數總具如來。萬徑千蹊悉歸定慧。若心外求佛。何異鬻塵以為糜性。外探宗真。顛吹砂而作飯。能使菩提融徹。摩尼朗曜。明宗衍派。啟迪沙門。難矣。然我釋迦文佛。迨夫達摩祖師方軌弘宣。既著明於西域。分鑿顯說。亦漸移於東土。闡無三之教。開不二之門。禪悅彌彰。宗風大普。導示眾惑。遏絕諸妄。萬塗叢歸。一繇般若。由是有為仰瀟眼雲門。至以曹洞靈濟之五宗。各自成佛作祖。有一世二世。以至數世。十世百世之法嗣。亦自授派傳支。燈燈繼續。鉢鉢相承。聆此師傅。參他僧旨。譬持明鏡遇物。可以鑑形。若投良劑。隨方因之療疾。家操智炬。燭眾生於迷途。人駕慈航。渡群品於覺海。此禪宗正脉之所以作也。夫禪而曰宗。妙心珠之悟證。脉而曰正。去[脈-月+彳]道之外邪。公案分明。階級剖別。剪經文之蕪蔓。斷文字之葛藤。廣取頓漸之妙言。獨宏問答之奧義。誠禪域之南車。宗門之武庫者也。如巖上人。摹寫赫[跳-兆+虎]。鬻其瓶鉢。鏟剛梨棗。募彼金錢。數載拮据。一朝卒業。實心懽喜。質問愚蒙。蒙也慈波空蕩。苦海易沈。印證未窺乎真如。希仰猶累於塵垢。若夫尊南為聖。嗤北為愚。背北向南。大悟可入。背南向北。下愚匪明。是在學佛之徒。得迦葉之會心。豈必出家之流。効豐干之饒舌。

萬曆乙巳初秋閩郡徐[燉-享+孛]興公序

No. 1593-C 禪宗正脉引

景泰庚午。喬參學空谷禪師于脩吉山。山在杭西湖上。先是師積稔緣化吾郡。夜話山房。獲親爐鞴。一日問師。如何是露柱。師良久曰。此是說不得底。自會去。厥後成化庚寅。師還化。其年喬四十六。亦病革再甦。自惟失怙間。始專心淨土。勸人念佛。數以米一粒一聲。積二百斛。供眾三年。印圖若干萬相。涉十有五年。迄今未既也。頃在杭時。嘗閱五燈會元。弗果終帙。今偶獲展讀。謂是空谷先師。親加點句者。何幸遇之。感悸交至。第以此書機緣峻險。篇帙浩繁。粵有上根當頭便領。十日並照。所謂高暉之臨幽谷。長風之游太虛者也。自餘中下之流。銀山鍊壁。絲毫萬里。鈍置已躬。妄生知解。以為成立。為此發心。抄錄簡集。以便觀覽。或者謂。余手風絕筆。已四十年。龍鍾耄老。不堪筆硯。余皆不應。丙午仲冬一之日。始晝則抄錄夜則檢閱。至唐杜鴻謁無住禪師庭樹鷓鳴時。遂有省。所謂得個人頭。非悟也。由是益堅其志。自言。若無先師存日提激。何有今日事哉。復自念言。簡集果符佛意。集成當以何名。是夜若聞神語。曰禪門正脉。覺而異之。先佛有言。汝以緣心聽法。此法亦緣。以此觀之。神即是我。我即是神。夢與非夢。二而一也。矧惟會元佛祖命脉。今日禪宗正脉。有以夫。於是謹述用心顛末如此。或者又曰。簡集弗傳。與無集等。亟命同服興聖德海。繕寫成帙。募彼悉檀捐金繡梓。用廣其傳云爾。

時維

大明弘治歲次己酉冬十一月旦嘉禾如喬謹識

No. 1593-D 敘古啟明讀禪宗正脉法

達磨西來

馬祖大師示眾。其略云。達磨西來。傳上乘一心之法。令汝等開悟。又引楞伽經。以印眾生心地。

非無知解

歸宗和尚曰。從上古德不是無知解。他高尚之士。不同常流。今時不能自成自立。虛度時光。湧泉云。見解言語總要知通若識不盡。敢保輪迴去在。為何如此。蓋為識漏未盡。汝但盡却今時。始得成立。

有事商量

趙州和尚曰。兄弟莫久立。有事商量。無事。向衣鉢下。坐窮理好。黃龍南禪師。告慈明曰。此心未穩。乞為指示。慈明曰。既如是則坐而商量。

深究洪規

薦福古禪師。嘗參大光玄福嚴雅。無有可其意者。由是終日默然。深究先德洪規。一日覽雲門語。忽然發悟。

得個人頭

大慧禪師曰。山僧十三歲出家。早知有此事。雖在村院裏。常要買諸家語錄看。雖理會未得。然便喜雲門睦州說話。汝等未得個人頭。須得個人頭。既得箇人頭。不得孤負老僧。(云云)明明向汝道。尚自不會。豈況蓋覆將來。

漸有開廓

空谷和尚僧問。師之省處與我說。為末世之標格。空曰。某謁南極古拙及眾知識。皆令參趙州無字。久而無省。偶見五燈會元中祖師

活機用。心漸有開廓。古人機用。我已識之矣。又問。人天眼目碧巖集可看否。空曰。可。

法在汝邊

淨名云。此法即見聞覺知學不得。若離見聞覺知亦不得。到這裏。須知有一條活路。若識得這活路。法在汝邊。

遲速不同

老宿云。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我立地待汝搆去。古塔主云。利根者畫時解脫。鈍根者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與你入拔舌地獄。參。

常習坐禪

馬祖在衡岳山。常習坐禪。南嶽嘗以磨甌作鏡而諭之。乃曰。若執坐相。非達其理。祖師云。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在。體無去住。妙喜曰。我只要你行亦禪坐亦禪。語默動靜體安然。諸方說靜了方悟。我是悟了方靜。不敢相瞞。未悟時心識紛飛。悟了方貼貼地。

不明大理

德山和尚云。若不明大理。饒你去佛肚裏過來。只是能行底。屎橛不曾遇著。好人便即認得六根門頭光影。向口裏說取露布。是隱言妙句光彩尖新。爭奈你自家無分。仁者是別人涕唾。圓通云。道眼若未明。有甚麼用處。無事切須尋究。玄沙云。道眼不明。生死根源不破。

工夫之說

幻住和尚云。前代諸尊宿。初不曾有做工夫之說。惟是單提此事。俾之言下領悟。又云。古人於參學此道用心處。謂做工夫。斯說最切當。而學者例於此說。

問處求證

佛眼云。昔人因迷而問。故問處求證人。得一言半語。將為事究明令徹去。不似今人胡亂問趂口答。取咲達者。

簡集之意

蚤以五燈會元浩繁難讀。多有機緣峻險壁立萬仞。上根吐舌。中下罔措。用是唯取顯明簡直者。使人易曉。去取無定。簡集成編。且如會元本集中。牛頭山法融禪師若干人。則總題四祖大醫禪師。旁出法嗣于其前。今正脉中。各以四祖。旁出標干上。他可類推。上堂示眾。甚有切於人者。輒以愚意。略加標首。如史鑑然。以便尋討。

去繁就簡

是集一依五燈會元。並不敢有所更改也。間有生緣神異參謁問話。繁者不敢備錄。然亦有束而簡之之處。

體會機緣

看機緣須看他師家問處。學者答處。如何即是。如何則不是。自有入處。既得入處。烏有峻險簡直顯明者哉。

隨宜參用

凡機緣上安【評】字。則指圓悟禪師評唱。若安【頌】字。則頌古聯珠有此。或機緣頌古有。及會元無出者。意句圓妙則【增收】。

如翫鶴望俊流當立大志。亦草率不得。須將諸祖頌古通集。碧巖集。人天眼目。彼此尋究。相助顯發。

古今例同

或曰。五燈會元是佛祖心髓。孰敢妄分優劣。而去取無定耶。曰子豈不見五燈是五家之作。今為會元哉。碧巖集。祖師機緣唯取一百。則禪宗頌古聯珠通集。四百餘人。前人頌之集之。豈不知有一千七百人善知識耶。譬彼病革矣。當求速効之方可也。余之簡集。無他。每見同學。懼繁弗覽。正恐大法湮微。故強為是編。俾易覽易精。而得入悟門者。則不以我為非歟。正魯庵所謂。知我罪我。其唯此集矣。

敘古啟明讀法(終)

禪宗正脉目錄

第一卷

釋迦牟尼佛 摩訶迦葉尊者

阿難尊者 優波鞠多尊者

佛陀難提尊者 脇尊者

富那夜奢尊者 龍樹尊者

迦那提婆尊者 僧迦難提尊者

鳩摩羅多尊者 闍夜多尊者

鶴勒尊者 師子尊者

般若多羅尊者

菩提達磨大師 慧可大祖禪師

僧粲鑑智禪師 道信大醫禪師

弘忍大滿禪師 慧能大鑿禪師 (會元一卷終)

(一世)牛頭融 (二世)牛頭巖 鍾山瓘 (五世)牛頭威

(六世)牛頭忠 安國挺 天柱慧 鶴林素
(七世)佛國則 徑山欽 (八世)雲居智 鳥窠林
(一世)北宗秀 嵩嶽安 蒙山明 (二世)降魔藏
壽州樹 福先儉 破竈墮 嵩嶽珪
(三世)終南政 嵩山極 (四世)保唐住
(一世)西域崛多 韶州海 吉州誠 匾擔了
洪州達 壽州通 江西徹 信州常
廣州道 永嘉覺 司空淨 婺州榮
河北隍 南陽忠 荷澤會 (二世)耽源真
蒙山寶 (五世)圭峰密 (會元二卷終)

第二卷

南嶽讓 (一世)馬祖一 (二世)百丈海 南泉願
鹽官安 歸宗常 大梅常 佛光滿
五洩默 盤山積 麻谷徹 東寺會
西堂藏 章敬暉 大珠海 百丈政
泐潭會 杉山堅 石鞏藏 北蘭讓
南源明 中邑恩 泐潭興 汾州業
大同澄 鵝湖義 伏牛在 興善寬
三角印 魯祖雲 芙蓉毓 紫玉通
鄧隱峰 西園藏 楊岐叔 馬頭藏
華林覺 濛谿 佛隩 烏臼
石臼 本谿 石林 亮座主
百靈 金牛 利山 乳源
松山 則川 打地 秀谿
裨樹 水潦 浮杯 龍山
龐蘊 (會元三卷終)
(三世)黃檗運 長慶安 大慈中 平田岸
石霜性空 古靈贊 和安通 百丈涅槃

趙州諗 長安岑 菜萸和尚 子湖蹤
白馬照 雲際祖 香巖端 靈鷲閑
蘇州西禪 陸亘大夫 甘贄行者 關南常
雙嶺真 徑山宗 芙蓉訓 大茅
五臺通 天龍 白居易 普化和尚
壽州遂 薯山超 虔州微 薦福辨
古隄和尚 公畿 祕魔巖 祇林
黃州安 (四世)陳尊宿 千頃南 烏石觀
羅漢徹 裴相國 大隨真 靈樹敏
靈雲勤 壽山解 淶水 嚴陽信
光孝覺 國清奉 大陳朗 多福
雪竇通 石梯 浮石 關南吾
末山尼 俱胝和尚 (五世)陳操尚書 長慶巖

(會元四卷終)

第三卷

文殊菩薩 天親菩薩 維摩大士 善財童子
須菩提 舍利弗 賓頭盧 秦跋陀
寶誌公 善慧大士 南嶽慧思 豐干禪師
寒山子 拾得子 明州布袋 法華志言
天台顛 (已上按會元二卷末今見此卷首)
青原思 (一世)石頭遷 (二世)藥山儼 丹霞然
大顛通 長髭曠 京兆利 招提朗
鳳翔佛陀 大同濟 (三世)道吾智 雲巖晟
船子誠 百巖哲 高沙彌 李翱
翠微學 孝義空 僊天 三平忠
馬頰空 本生 石室 (四世)石霜諸
漸源興 淶清 神山密 幽谿
夾山會 清平遵 投子同 道場訥

白雲約 棗山仁 (會元五卷終)
(五世)大光誨 九峯虔 湧泉欣 雲蓋元
南際一 覆船荐 肥田伏 鹿苑暉
石柱 南嶽泰 潭州蓋 龍翔聞
張拙 洛浦安 黃山輪 韶山普
上藍超 太原湖 天盖幽 三角珪
投子溫 牛頭微 盤山二世 九巖慧
觀音俊 濠州明 (六世)谷山緣 泐潭茂
同安察 禾山殷 泐潭牟 六通紹
雲蓋罕 瑞巖 百巖 大嶺
禾山陰 柘溪實 青峰楚 烏牙賓
永安靜 鄧州度 永安悟 木平道
崇福志 鷲嶺本 (七世)大安古 烏牙朗
開山晝 青峰勉 太宗皇帝 孝宗皇帝
郁山主 先淨照 東山頂 雲幽憚
樓子 天竺悟 嵩律師 老宿
二菴主 老宿 官人 燒庵婆
陳道婆 婦人 (會元六卷終)

第四卷

(二世)天皇悟 (三世)龍潭信 (四世)德山鑒 泐潭寶峰
(五世)巖頭叢 雪峯存 瑞龍恭 高亭簡
(六世)瑞巖彥 羅山閑 玄沙備 長慶稜
保福展 鼓山晏 龍華照 翠巖參
鏡清怱 報恩嶽 安國瑫 睡龍溥
長生然 鵝湖孚 隆壽卿 永福奔
雲蓋本 洛京南院 法海周 龍井通
龍興靖 南禪璠 越山鼎 極樂儼
潮山宗 普通明 太原孚 南嶽勁

白兆圓 (會元七卷終)

(七世)瑞峰祿 黃龍機 明招謙 大寧微

天竺澄 羅山因 羅漢琛 天龍真
僊宗符 白龍希 安國球 螺峰奧
睡龍和尚 雲峰緒 大章如 國清靜
招慶匡 報恩資 報慈雲 開先宗
傾心瑫 水陸儼 廣巖澤 報慈朗
石佛靜 觀音換 東禪隆 僊宗玘
永安烈 新羅龜山 報慈環 王延彬
延壽輪 報慈欽 鳳凰琛 永隆瀛
岳麓和尚 後招慶 建山澄 招慶僊
天竺儀 白雲作 龍山義 鼓山嶽
報恩護 瑞巖進 報國照 龍冊興
佛隲然 南禪緣 資福遠 烏巨晏
白鹿貴 長慶用 瑞峰端 僊宗明
安國祥 保福豁 大龍洪 白馬靄
興教普 (八世)棗樹 黃龍顥 玄都澄
呂洞賓 普照瑜 清谿進 清涼復
龍濟修 延慶殷 南臺安 廣平旨
靈峰恩 報劬應 報恩顯 太平海
興陽欽 歸宗詮 (九世)天平漪 圓通德
九峰詮 河東原 隆壽騫 奉先同

(會元八卷終)

第五卷

為仰宗

(三世)為山祐 (四世)仰山寂 香巖閑 徑山譚
九峰慧 京兆米 三角遇 王常侍
(五世)西塔穆 南塔湧 霍山通 無著喜

五觀支 南極染 大安幹 雙谿田
米嶺和尚 雙峰古 (六世)資福寶 芭蕉清
清化怱 黃連初 (七世)資福遂 芭蕉徹
承天確 (會元九卷終)

法眼宗

(八世)清涼益 (九世)天台韶 清涼飲 靈隱聳
歸宗柔 百丈恒 永明潛 報恩明
報慈言 崇壽稠 報恩安 雲居錫
正勤奉 羅漢依 章義欽 報恩逸
報恩遂 羅漢仁 黃山匡 報恩則
淨德筠 高麗炬 寶塔巖 般若遵
歸宗真 棲賢圓 新興齊 古賢謹
興福勳 (十世)永明壽 五雲逢 報恩安
紫凝勤 普門辨 光慶安 華嚴達
九曲祥 開化明 瑞鹿安 龍華居
齊雲臻 瑞鹿先 興教壽 永安原
雲居齊 羅漢昭 報恩智 支提隆
棲賢湜 千光省 崇福祥 雲居能
歸宗誠 (十一世)瑞岩海 靈隱本 堯峰暹
聖壽昇 興教一 西余柔 定山素
淨土政 (十二世)靈隱珊 (會元十卷終)

第六卷

臨濟宗

(四世)臨濟玄 (五世)興化獎 寶壽沼 三聖然
魏府覺 灌谿閑 紙衣符 定州崔
幽州譚空 歷村和尚 米倉和尚 齊聳禪師
雲山和尚 虎谿庵主 桐峰庵主 杉洋庵主
定上座 (六世)南院顛 廓侍者 西院明

寶壽二世 大悲和尚 水陸和尚 澄心德
魯祖教 鎮州譚空 際上座 (七世)風穴沼
穎橋安 興陽靜 (八世)首山念 廣慧真
靈泉和尚 (九世)汾陽昭 葉縣省 神鼎諤
谷隱聰 廣慧璉 三交嵩 仁王評
鹿門昭 王隨丞相 (會元十一卷終)
(十世)石霜圓 琅琊覺 大愚芝 法華舉
芭蕉泉 天聖泰 浮山遠 寶應昭
大乘果 金山穎 仁壽珍 永慶普
李遵最 英公夏竦 華嚴隆 楊大年
(十一世)翠巖真 蔣山元 大寧寬 道吾真
廣法源 靈隱章 定慧信 泐潭月
白鹿端 真如方 長水璿 雲峰悅
淨因臻 定林琛 本覺珠 華嚴孜
琅琊銳 興陽隱 石佛忠 淨住說
李端愿 西余端 (十二世)大滄喆 穹窿圓
興化清 (十三世)泐潭祥 光孝蘭 東林遵
慶善能 慶善隆 (十四世)淨因成 開福哲
鴻[田/升]福 香山淵 景淳如藏 (十五世)冶父川
(會元十二卷終)

第七卷

曹洞宗

(四世)洞山价 (五世)曹山寂 雲居膺 疎山仁
青林虔 高安仁 白馬儒 龍牙遁
華嚴靜 九峯滿 北院通 洞山全
京兆蜺 幽棲幽 越州乾峰 吉州和山
天童啟 欽山邃 (六世)洞山延 金峰志
鹿門真 曹山霞 曹山慧 曹山炬

育王通 同安丕 歸宗暉 嵒山章
 雲居嶽 佛日空 永光真 朱谿謙
 雲居簡 新羅雲住 護國澄 靈泉仁
 疎山證 百丈安 黃檗慧 伏龍璘
 京兆三相 廣德延 石門蘊 龍光謹
 石藏炬 重雲暉 瑞龍璋 報恩嶼
 含珠哲 紫陵一 同安威 (會元十三卷終)
 (七世)上藍慶 天池隆 益州真 佛手因
 龜洋忠 同安志 智門欽 薦福思
 大陽堅 五峯紹 廣德義 廣德周
 石門徹 紫陵微 興元浪 (八世)普寧顯
 梁山觀 普淨覺 雲頂敷 石門遠
 北禪感 石門筠 (九世)大陽玄 藥山昱
 羅紋珍 道吾詮 南禪聰 (十世)投子青
 興陽剖 福嚴承 羅浮如 白馬
 雲門運 梁山冀 (十一世)芙蓉楷 大洪恩
 洞山雲 福應文 (十二世)丹霞淳 枯木成
 寶峰照 石門易 天寧誦 天寧璉
 梅山己 普賢秀 鹿門燈 資聖南
 洞山微 高世則 大洪遂 (十三世)長蘆了
 天童覺 大洪預 尼慧光 圓通止
 智通深 華藥朋 尼佛通 (十四世)雪竇宗
 善權智 自得暉 石窓恭 光孝徹
 大洪為 長蘆琳 慧力悟 雪峰深
 慧日安 吉祥實 (十五世)雪竇鑑 (會元十四卷終)

第八卷

雲門宗

(六世)雪門偃 (七世)白雲祥 德山密 巴陵鑒

雙泉寬	香林遠	洞山初	泐潭謙
奉先深	披雲寂	舜峰韶	般若柔
薦福古	雙峰欽	資福詮	黃雲元
龍境倫	大容謹	華嚴慧	黃檗濟
谷山豐	洞山稟	北禪寂	淨源真
大梵圓	藥山光	奉國海	雲門球
佛陀遠	慈雲深	化城鑒	護國和尚
西禪欽	覺華照	延長山	黃龍贊
雲門朗	纂子山	(八世)韶州大歷	寶華和尚
月華月	樂淨匡	後白雲	文殊真
南臺勤	德山晏	乾明普	中梁崇
黃龍愿	普安道	泐潭散聖	五祖戒
福昌善	建福同	智門祚	福嚴雅
開福賢	丫山盛	蓮華祥	德山遠
開先照	金陵天寶	法雲善	藍田真
雪峰欽	西峰谿	(九世)洞山聰	石霜誠
泐潭澄	雲盖顛	上方嶽	育王坦
金山新	雪竇顯	雲盖鵬	彰法泗
北禪賢	芳上座	開先暹	資聖勤
鹿苑圭	(十世)雲居舜	佛日嵩	許太守
育王璉	承天簡	九峰韶	西塔殊
雲居億	滔首座	玉泉皓	雲居祥
國慶宗	天聖道	(會元十五卷終)	
天衣懷	承天宗	南明慎	君山昇
洞庭金	曾脩撰	圓通訥	法昌遇
廣因要	雲居元	智海逸	天章楚
(十一世)蔣山泉	慈雲慧	歸宗通	天宮徽
福昌信	慧林本	法雲秀	慧林冲

長蘆夫 佛日才 天鉢元 棲賢遷
 淨眾言 三祖會 澄照慈 崇德澄
 定慧雲 報本存 開聖棲 衡山禮
 雲門侃 太平坦 佛足祥 明因贊
 楊傑侍郎 慧日堯 中際遵 百丈悟
 善權泰 崇福基 大中隆 劉僉判
 (十二世)趙清獻公 法雲本 金山寧 資壽巖
 本覺一 投子顛 地藏恩 靈曜良
 香山泳 靈泉一 石佛通 法雲白
 僊巖純 慈濟聰 白兆圭 福嚴初
 德山繪 香積旻 瑞相來 真空一
 華嚴明 永泰航 壽聖邦 長蘆蹟
 夾山齡 元豐滿 善勝悟 招提湛
 (十三世)淨慈明 雪峰慧 資福明 雲峰璿
 延慶復 道場顏 天竺諫 普濟淳
 尼法海 富弼丞相 尼文照 萬年幽
 慈受深 萬壽瓚 天衣哲 智者銓
 報恩然 雪峰演 王大夫 觀音和尚
 (十四世)淨慈象 靈隱淳 淨慈昌 徑山一
 金山心 香巖壁 國清印 萬杉堅
 (十五世)中元妙 玉泉達 (十六世)光孝深 (會元十六卷終)

第九卷

臨濟宗

(十一世)黃龍南 (十二世)晦堂心 照覺總 真淨文
 雲居祐 黃檗勝 祐聖[宋-木+居] 開元琦
 仰山偉 福嚴感 雲盖智 報本元
 隆慶閑 三祖宗 泐潭英 保寧璣
 雪峰圓 四祖演 清隱源 廉泉秀

靈鷲覺	積翠永	歸宗芝	(十三世)死心新
靈源清	草堂清	青原信	夾山純
雙嶺化	龜山津	保福權	護國新
黃龍明	道吾圓	黃太史	王觀文
吳秘書	泐潭乾	開先瑛	象田卿
褒親瑞	慧力昌	圓上座	蘇內翰
兜率悅	法雲杲	湛堂準	淨覺本
報慈英	寶華鑑	九峯廣	黃檗全
覺範洪	超化靜	石頭志	雙谿印

(會元十七卷終)

羅漢南	慈雲隆	大瀉璿	福嚴演
昭覺白	薦福英	尊勝明	慧日明
道場如	寶壽樂	廣慧杲	永安正
光孝爽	法輪添	育王曇	真如香
月珠鑑	萬壽念	蘇參政	(十四世)禾山方
崇覺空	九頂泉	性空普	空室通
佛心才	法輪端	長靈卓	黃龍霞
雪巢一	雪峰空	正法明	祖庵主
戲魚靜	龍牙密	東禪密	天童交
圓通旻	和庵主	慈氏仙	雪竇持
石佛益	疎山常	兜率照	張無盡
西蜀鑾	典牛游	九仙清	覺海因
德山瓊	中巖能	雲頂印	信相顯
大瀉智	(十五世)胡安國	普賢素	鼓山洵
鼓山珍	育王諶	道場慧	顯寧智
烏回範	德山初	報恩常	夢菴信
默庵道	光孝愍	雪峰忠	蓬萊圓
范左丞	吳樞密	彭諫議	盧中丞

都左司 宣秘禮 塗毒策 (十六世)心聞賁
天童朴 高麗坦然 龍華本 東山言
懶庵樞 (十七世)在庵賢 唼庵鑑 (會元十八卷終)

第十卷

臨濟宗

(十一世)楊岐會 (十二世)白雲端 保寧勇 孫比部
(十三世)五祖演 雲盖本 保福殊 郭功甫
壽聖淵 上方益 (十四世)圓悟勤 佛鑑懃
龍門遠 開福寧 大隨靜 無為泰
五福自 九頂素 禮首座 融藏主
承天賢 俞道婆 (十五世)徑山杲 虎丘隆
佛智裕 佛性泰 此庵元 南峰辯
靈隱遠 鴻福文 華藏民 昭覺元
中竺仁 象耳覺 華嚴覺 明因玩
虎丘淨 天寧思 君山覺 寶華顯
東山覺 徐樞密 趙令矜 李彌遜
范縣君 文殊道 南華曷 龍牙才
蓬萊卿 佛珣燈 泐潭明 寶藏本
祥符海 淨眾璨 (會元十九卷終)
龍翔珪 高庵悟 牧庵忠 烏巨行
白楊順 雲居如 歸宗賢 道場辯
奇首座 尼慧溫 馮給事 月庵果
石頭回 護聖靜 南巖勝 梁山遠
能仁悟 莫尚書 王龍圖 (十六世)教忠光
卍庵顏 懶庵需 蒙庵岳 此庵淨
開善謙 佛照光 遯庵演 無用全
玉泉懿 薦福本 靈巖性 蔣山直
誰庵演 光孝遠 最庵印 竹原元

尼妙道	尼妙總	張無垢	李漢老
劉彥脩	吳偉明	黃彥節	計妙真
應庵華	清涼旦	水庵一	無庵全
慧通旦	靈巖安	簡堂機	或庵體
湛堂深	錢端禮	全庵己	疎山本
曾內翰	葛知府	徑山印	楚安方
文殊業	稠庵贊	潘待制	隨庵緣
且庵仁	萬年閑	中際能	普雲圓
退庵休	圓極岑	覺報清	何山然
信相脩	窮谷璉	大瀉行	老衲證
山堂淳	復庵封	野庵璿	蓬庵會
中庵空	遯庵珠	(十七世)肯堂充	智者慈
木庵永	龍翔雅	劍門分	密庵傑
南書記	李侍郎	伊庵權	三峰印
德山涓	(會元二十卷終)		

禪宗正脉目錄(終)

No. 1593

禪宗正脉卷第一

佛祖

釋迦牟尼佛

【頌】初生下。乃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曰天上天下。唯吾獨尊(後雲門云。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貴圖天下太平)。

【評】【頌】世尊。一日陞座。大眾集定。文殊白椎曰。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

○世尊昔因文殊至諸佛集處。值諸佛各還本處。唯有一女人。近彼佛坐。入於三昧。文殊乃白佛。云何此人得近佛坐。而我不得。佛告文殊。汝但覺此女。令從三昧起。汝自問之。文殊遶女人三匝。鳴指一下。乃托至梵天。盡其神力而不能出。世尊曰。假使百千文殊。亦出此女人定不得。下方過四十二恒河沙國土。有罔明菩薩。能出此女人定。須與罔明大士。從地湧出。作禮世尊。世尊勅罔明出。罔明却至女子前。鳴指一下。女子於是從定而出。

【頌】世尊。因波斯匿王。問勝義諦中。有世俗諦否。若言無。智不應二。若言有。智不應一。一二之義。其義云何。佛言大王。汝於過去龍光佛法中。曾問此義。我今無說。汝今無聽。無說無聽。是名為一義二義。

【頌】世尊。因外道問。昨日說何法。曰說定法。外道曰。今日說何法。曰不定法。外道曰。昨日說定法。今日何說不定法。世尊曰。昨日定。今日不定。

【頌】世尊。因五通仙人問。世尊有六通。我有五通。如何是那一通。佛召五通仙人。五通應諾。佛曰。那一通。你問我。

【頌】世尊。因普眼菩薩欲見普賢。不可得見。乃至三度入定。徧觀三千大千世界。覓普賢不可得見而來白佛。佛曰。汝但於靜三昧中起一念。便見。普賢。普眼於是纔起一念。便見普賢。向空中乘六牙白象。

【頌】世尊。因自恣曰。文殊三處過夏。迦葉。欲白椎擯。出纔拈椎。乃見百千萬億文殊。迦葉盡其神力。椎不能舉。世尊遂問迦葉。汝擬擯那一箇文殊。迦葉無對。

【頌】世尊。因長爪梵志索論義。預約曰。我義若墮。我自斬首。世尊曰。汝義以何為宗。志曰。我以一物不受為宗。世尊曰。是見

受否。志拂袖而去。行至中路。乃省謂弟子曰。我當回去。斬首以謝世尊。弟子曰。人天眾前。幸當得勝。何以斬首。志曰。我寧於有智人前斬首。不於無智人前得勝。乃歎曰。我義兩處負墮。是見若受。負門處麤。是見不受。負門處細。一切人天二乘。皆不知我義墮處。唯有世尊。諸大菩薩。知我義墮。回至世尊前曰。我義兩處負墮。故當斬首以謝。世尊曰。我法中無如是事。汝當回心向道。於是同五百徒眾。一時投佛出家。證阿羅漢。

【頌】世尊。因有外道問。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外道讚歎曰。世尊大慈大悲。開我迷雲。令我得入。乃作禮而去。阿難白佛。外道得何道理。稱讚而去。世尊曰。如世良馬。見鞭影而行。

【頌】世尊一日勅阿難。食時將至。汝當入城持鉢。阿難應諾。世尊曰。汝既持鉢。須依過去七佛儀式。阿難便問。如何是過去七佛儀式。世尊召阿難。阿難應諾。世尊曰。持鉢去。

○世尊因有比丘問。我於世尊法中。見處即有。證處未是。世尊當何所示。世尊曰。比丘某甲。當何所示。是汝此問。

【頌】世尊因黑氏梵志。運神力。以左右手。擎合歡梧桐花兩株。來供養佛。佛召仙人。梵志應諾。佛曰。放下著。梵志遂放下左手一株花。佛又召仙人。放下著。梵志又放下右手一株花。佛又召仙人。放下著。梵志曰。世尊。我今兩手皆空。更教放下箇甚麼。佛曰。吾非教汝放捨其花。汝當放捨外六塵。內六根。中六識。一時捨却。無可捨處。是汝免生死處。梵志於言下。悟無生忍。

【頌】世尊因靈山會上五百比丘。得四禪定。具五神通。未得法忍。以宿命智通。各各自見過去。殺父害母。及諸重罪。於自心內。各各懷疑。於甚深法。不能證入。於是文殊。承佛神力。遂手

握利劍。持逼如來。世尊乃謂文殊曰。住住不應作逆。勿得害吾。吾必被害。為善被害。文殊師利。爾從本已來。無有我人。但以內心。見有我人。內心起時。我必被害。即名為害。於是五百比丘。同讚歎曰。文殊大智士。深達法源底。自手握利劍。持逼如來身。如劍佛亦爾。一相無有二。無相無所生。是中云何殺。

【頌】世尊敲髑髏。問耆婆生何道。曰生人道。又敲一。生何道。曰生天。又敲一。耆罔措。

【頌】世尊因地。布髮掩泥。獻花於然燈。然燈見布髮處。遂約退眾。乃指地曰。此一方地。宜建一梵剎。時眾中有一賢于長者。持標於指處插曰。建梵剎竟。時諸天散花讚曰。庶子有大智矣。

【頌】世尊。因七賢女。遊屍陀林。一女指屍曰。屍在這裏。人向甚處去。一女曰。作麼作麼。諸姊諦觀。各各契悟。感帝釋散花曰。惟願聖姊。有何所須。我當終身供給。女曰。我家四事七珍。悉皆具足。唯要三般物。一要無根樹一株。二要無陰陽地一片。三要叫不響山谷一所。帝釋曰。一切所須。我悉有之。若三般物。我實無得。女曰。汝若無此。爭解濟人。帝釋罔措。遂同往白佛。佛言。憍尸迦。我諸弟子大阿羅漢。不解此義。唯有諸大菩薩。乃解此義。

【頌】城東有一老母。與佛同生。而不欲見佛。每見佛來。即便回避。雖然如此。回顧東西。總皆是佛。遂以手掩面。於十指掌中。亦總是佛。

【頌】殃崛摩羅。因持鉢至一長者門。其家婦人正值產難。子母未分。長者曰。瞿曇弟子。汝為至聖。當有何法。能免產難。殃崛語長者曰。我乍入道。未知此法。待我回問世尊。却來相報。及返。

具事白佛。佛告殃崛。汝速去報言。我自從賢聖法來。未曾殺生。殃崛奉佛語。疾往告之。其婦得聞。當時分娩。

【頌】世尊至多子塔前。命摩訶迦葉。分座令坐。以僧伽黎圍之。遂告曰。吾以正法眼藏。密付於汝。汝當護持。傳付將來。

【頌】世尊臨入涅槃。文殊大士。請佛再轉法輪。世尊咄曰。文殊。吾四十九年住世。未曾說一字。汝請吾再轉法輪。是吾曾轉法輪邪。

【頌】世尊於涅槃會上。以手摩霄告眾曰。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瞻仰取足。勿令後悔。若謂吾滅度。非吾弟子。若謂吾不滅度。亦非吾弟子。時萬億眾。悉皆契悟。

一祖摩訶迦葉尊者

【頌】見世尊在靈山會上。拈花示眾。是時眾皆默然。唯迦葉破顏微笑。世尊曰。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法門。不立文字。教外別傳。付囑摩訶迦葉(頌古稍異)。

二祖阿難尊者

【頌】一日問迦葉曰。師兄。世尊傳金襴袈裟外。別傳箇甚麼。迦葉召阿難。阿難應諾。迦葉曰。倒却門前剎竿著。

四祖優波毘多尊者

在世化導。證果最多。每度一人。以一籌置於石室。其室縱十八肘。廣十二肘。充滿其間。最後有一長者子。名曰香眾。來禮尊者。志求出家。尊者問曰。汝身出家。心出家。答曰。我來出家。非為身心。尊者曰。不為身心。復誰出家。答曰。夫出家者。無我我故。無我我故。即心不生滅。心不生滅。即是常道。諸佛亦常。

心無形相。其體亦然。尊者曰。汝當大悟。心自通達。宜依佛法僧。紹隆聖種。

八祖佛陀難提尊者

【頌】九祖伏馱密多。問祖曰。父母非我親。誰是最親者。諸佛非我道。誰是最道者。祖以偈答曰。汝言與心親。父母非可比。汝行與道合。諸佛心即是。外求有相佛。與汝不相似。欲識汝本心。非合亦非離。

十祖脇尊者

【頌】至一林中。有富那夜奢。合掌前立。祖問汝從何來。奢曰。我心非往。祖曰。汝何處住。曰我心非止。祖曰。汝不定邪。曰諸佛亦然。祖曰。汝非諸佛。曰諸佛亦非。祖知是法器。即與剃度。付法說偈曰。真體自然真。因真說有理。領得真真法。無行亦無止。

十一祖富那夜奢尊者

尋詣波羅柰國。有馬鳴大士。迎而作禮。問曰。我欲識佛。何者即是。祖曰。汝欲識佛。不識者是。曰佛既不識。焉知是乎。祖曰。既不識佛。焉知不是。曰此是鋸義。祖曰。彼是木義。祖問鋸義者何。曰與師平出。馬鳴却問。木義者何。祖曰。汝被我解。馬鳴豁然省悟。

十四祖龍樹尊者

至南印度。彼國之人。多信福業。祖為說法。遞相謂曰。人有福業。世間第一。徒言佛性。誰能覩之。祖曰。汝欲見佛性。先須除我慢。彼人曰。佛性大小。祖曰。非大非小。非廣非狹。無福無報。不死不生。彼聞理勝。悉回初心。祖復於座上。現自在身。如

滿月輪。一切眾。唯聞法音。不覩祖相。彼眾中。有長者子。名迦那提婆。謂眾曰。識此相否。眾曰。目所未覩。安敢辨識。提婆曰。此是尊者現佛性體相。以示我等。何以知之。蓋以無相三昧。形如滿月。佛性之義。廓然虛明。言訖。輪相即隱。復居本座。而說偈言。身現圓月相。以表諸佛體。說法無其形。用辨非聲色。彼眾聞偈。頓悟無生。

十五祖迦那提婆尊者

【頌】謁龍樹大士。將及門。龍樹知是智人。先遣侍者。以滿鉢水。置於座前。尊者覩之。即以一針。投之而進。欣然契會。

○祖至迦毗羅國。彼有長者。曰梵摩淨德。一日園樹生耳如菌。味甚美。唯長者與第二子羅睺羅多。取而食之。取已隨長。盡而復生。自餘親屬皆不能見。祖知其宿因。遂至其家。長者迺問其故。祖曰。汝昔曾供養一比丘。然此比丘。道眼未明。以虛霑信施。故報為木菌。唯汝與子。精誠供養。得以享之。餘即否矣。又問長者年多少。答曰。七十有九。祖乃說偈曰。入道不通理。復身還信施。汝年八十一。此樹不生耳。長者聞偈已。彌加歎伏。且曰。弟子衰老。不能事師。願捨次子。隨師出家。

十七祖僧伽難提尊者

行化至摩提國。見山舍一童子。持圓鑑。直造祖前。祖問汝幾歲邪。曰百歲。祖曰。汝年尚幼。何言百歲。童曰。我不會理。正百歲耳。祖曰。汝善機邪。童曰。佛言。若人生百歲。不會諸佛機。未若生一日。而得決了之。祖曰。汝手中者。當何所表。童曰。諸佛大圓鑑。內外無瑕翳。兩人同得見。心眼皆相似。彼父母。聞子語。即捨令出家。祖携至本處。授具戒訖。名伽耶舍多。他時聞風吹殿鈴聲。祖問曰。鈴鳴邪。風鳴邪。舍多曰。非風鈴鳴。我心鳴

耳。祖曰。心復誰乎。舍多曰。俱寂靜故。祖曰。善哉善哉。繼吾道者。非子而誰。即付法眼。

十九祖鳩摩羅多尊者

至中天竺國。有大士名闍夜多。問曰。我家父母。素信三寶。而常縈疾瘵。凡所營作。皆不如意。而我隣家。久為旃陀羅行。而身常勇健。所作和合。彼何幸而我何辜。祖曰。何足疑乎。且善惡之報。有三時焉。凡人。但見仁夭暴壽。逆吉義凶。便謂亡因果。虛罪福。殊不知影響相隨。毫釐靡忒。縱經百千萬劫。亦不磨滅。時闍夜多。聞是語已。頓釋所疑。祖曰。汝雖已信三業。而未明業從惑生。惑因識有。識依不覺。不覺依心。心本清淨。無生滅。無造作。無報應。無勝負。寂寂然。靈靈然。汝若入此法門。可與諸佛同矣。一切善惡。有為無為。皆如夢幻。闍夜多。承言領旨。即發宿慧。祖乃付法眼。偈曰。性上本無生。為對求人說。於法既無得。何懷決不決。又云。此是妙音如來見性之句。汝宜傳布後學。

二十祖闍夜多尊者

北天竺國人也。智慧淵沖。化導無量。後至離閔城。敷揚頓教。彼有學眾。唯尚辯論。為之首者。名婆修盤頭。(此云徧行)常一時不臥。六時禮佛。清淨無欲。為眾所歸。祖將欲度之。先問彼眾曰。此徧行頭陀。能脩梵行。可得佛道乎。眾曰。我師精進。何故不可。祖曰。汝師與道遠矣。設苦行歷於塵劫。皆虛妄之本也。眾曰。尊者蘊何德行。而譏我師。祖曰。我不求道。亦不顛倒。我不禮佛。亦不輕慢。我不長坐。亦不懈怠。我不一食。亦不雜食。我不知足。亦不貪欲。心無所希名之曰道。時徧行聞已。發無漏智。歡喜讚歎。祖又語彼眾曰。會吾語否。吾所以然者。為其求道心切。夫絃急即斷。故吾不贊。令其住安樂地。入諸佛智。復告徧行曰。吾適對眾。抑挫仁者。得無惱於衷乎。徧行曰。我憶念七劫

前。生常安樂國。師於智者月淨。記我非久。當證斯陀含果。時有大光明菩薩出世。我以老故。策杖禮謁。師叱我曰。重子輕父。一何鄙哉。時我自謂無過。請師示之。師曰。汝禮大光明菩薩。以杖倚壁畫佛面。以此過慢。遂失二果。我責躬悔過以來。聞諸惡言。如風如響。況今獲飲無上甘露。而返生熱惱邪。惟願大慈。以妙道垂誨。祖曰。汝久植眾德。當繼吾宗。聽吾偈曰。言下合無生。同於法界性。若能如是解。通達事理竟。

二十三祖鶴勒尊者

年七歲。遊行聚落。覩民間淫祀。乃入廟叱之曰。汝妄興禍福。幻惑於人。歲費牲牢。傷害斯甚。言訖。廟貌忽然而壞。由是鄉黨謂之聖子。

○有師子。歸依尊者而問曰。我欲求道。當用何心。祖曰。汝欲求道。無所用心。曰既無用心。誰作佛事。祖曰。汝若有用。即非功德。汝若無作。即是佛事。經云。我所作功德。而無我所故。師子聞是語已。即入佛慧。

二十四祖師子尊者

自得法遊方。至罽賓國。有波利迦者。本習禪觀。故有禪定。知見。執相。捨相。不語之五眾。祖詰而化之。四眾皆默然心服。唯禪定師。達磨達者。聞四眾被責。憤悻而來。祖曰。仁者習定。何當來此。既至于此。胡云習定。彼曰。我雖來此。心亦不亂。定隨人習。豈有處所。祖曰。仁者既來。其習亦至。既無處所。豈在人習。彼曰。定習人故。非人習定。我當來此。其定常習。祖曰。人非習定。定習人故。當自來時。其定誰習。彼曰。如淨明珠。內外無翳。定若通達。必當如此。祖曰。定若通達。一似明珠。今見仁者。非珠之徒。彼曰。其珠明徹。內外悉定。我心不亂。猶若此

淨。祖曰。其珠無內外。仁者何能定。穢物非動搖。此定不是淨。達磨達。蒙師開悟。心地朗然。祖既攝五眾。名聞遐邇。

【頌】因罽賓國王秉劍。至尊者所。問曰。師得蘊空否。祖曰。已得蘊空。王曰。離生死否。祖曰。已離生死。王曰。既離生死。可施我頭。祖曰。身非我有。何恠於頭。王即揮刃。斷尊者首。白乳涌高數尺。王之右臂。旋亦墮地。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東印度人也。行化至南印度。彼王名香至。崇奉佛乘。尊重供養。度越倫等。又施無價寶珠。時王有三子。曰月淨多羅。曰功德多羅。曰菩提多羅。其季。開士也。祖欲試其所得。乃以所施珠。問三王子曰。此珠圓明。有能及否。第一王子。第二王子。皆曰。此珠七寶中尊。固無踰也。非尊者道力。孰能受之。第三王子曰。此是世寶。未足為上。於諸寶中。法寶為上。此是世光。未足為上。於諸光中。智光為上。此是世明。未足為上。於諸明中。心明為上。此諸光明。不能自照。要假智光。光辨於此。既辨此已。即知是珠。既知是珠。即明其寶。若明其寶。寶不自寶。若辨其珠。珠不自珠。珠不自珠者。要假智珠而辨世珠。寶不自寶者。要假智寶以明法寶。然則師有其道。其寶即現。眾生有道。心寶亦然。祖歎其辨慧。乃復問曰。於諸物中。何物無相。曰於諸物中。不起無相。又問於諸物中。何物最高。曰於諸物中。人我最高。又問於諸物中。何物最大。曰於諸物中。法性最大。

【頌】祖因東印度國王。請祖齋次。王乃問諸人盡轉經。唯師為甚不轉。祖曰。貧道出息不隨眾緣。入息不居蘊界。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非但一卷兩卷。

菩提達磨大師者

南天竺國香至王第三子也。姓剎帝利。本名菩提多羅。後遇二十七祖般若多羅。至本國。受王供養。知師密跡。因試令與二兄辨所施寶珠。發明心要。既而尊者謂曰。汝於諸法。已得通量。夫達磨者。通大之義也。宜名達磨。因改號菩提達磨。祖乃告尊者曰。我既得法。當往何國而作佛事。願垂開示。者曰。汝雖得法。未可遠遊。且止南天。待吾滅後六十七載。當往震旦。設大法藥。直接上根。慎勿速行。衰於日下。祖恭稟教義。服勤左右垂四十年。未嘗廢闕。迨尊者順世。遂演化本國。時有二師。一名佛大先。二名佛大勝多。本與祖。同學佛陀跋陀小乘禪觀。佛大先。既遇般若多羅尊者。捨小趣大。與祖並化。時號二甘露門矣。而佛大勝多。更分徒而為六宗。第一有相宗。第二無相宗。第三定慧宗。第四戒行宗。第五無得宗。第六寂靜宗。各封已解。別展化源。聚落崢嶸。徒眾甚盛。祖喟然嘆曰。彼之一師。已陷牛跡。況復支離繁興。而分六宗。我若不除。永纏邪見。言已。微現神力。至有相宗。乃至寂靜宗所。彼各尊者。聞師指誨。豁然開悟。既而六眾。咸誓歸依。由是。化被南天。聲馳五印。經六十載。度無量眾。

【頌】後值異見王。輕毀三寶。因問波羅提尊者。(無相宗首)何者是佛。者曰。見性是佛。王曰。師見性否。曰我見佛性。王曰。性在何處。曰性在作用。王曰。是何作用。我今不見。曰今現作用。王自不見。王曰。於我有否。曰王若作用。無有不是。王若不用。體亦難見。王曰。若當用時。幾處出現。曰若出現時。當有其八。王曰。其八出現。當為我說。波羅提即說偈曰。在胎為身。處世為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辨香。在口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徧現俱該沙界。收攝在一微塵。識者知是佛性。不識喚作精魂。王聞偈已。心即開悟。悔謝前非。

○祖念震旦緣熟。行化時至。遂汎重溟。凡三周寒暑。造于南海。實梁普通七年庚子歲。九月二十一日也。廣州刺史蕭昂。其主禮迎

接。表聞 武帝。帝覽奏。遣使賈詔迎請。十月一日至金陵。帝問曰。朕即位已來。造寺寫經度僧。不可勝紀。有何功德。祖曰。並無功德。帝曰。何以無功德。祖曰。此但人天小果。有漏之因。如影隨形。雖有非實。帝曰。如何是真功德。祖曰。淨智妙圓。體自空寂。如是功德。不以世求。

【評】【頌】帝又問。如何是聖諦第一義。祖曰。廓然無聖。帝曰。對朕者誰。祖曰。不識。帝不領悟。(頌古上云。師遂折蘆渡江。至魏。後帝舉問誌公。公曰。陛下識此人否。曰不識。誌曰此是觀音大士。傳佛心印。曰當遣詔之。誌曰。莫道陛下詔。盍國人去。他亦不回)祖知機不契。潛回江北。屆于洛陽。當魏孝明帝正光元年也。寓止于嵩山少林寺。面壁而坐。終日默然。人莫之測。謂之壁觀婆羅門。

【頌】時有僧神光者。近聞達磨大士。住止少林。至人不遙。當造玄境。乃往彼晨夕參承。祖常端坐面壁。莫聞誨勵。光自惟曰。昔人求道。敲骨取髓。刺血濟饑。布髮掩泥。投崖飼虎。古尚若此。我又何人。其年十二月九日夜。天大雨雪。光堅立不動。遲明積雪過膝。祖憫而問曰。汝久立雪中。當求何事。光悲淚曰。惟願和尚慈悲。開甘露門。廣度羣品。祖曰。諸佛無上妙道。曠劫精勤。難行能行。非忍而忍。豈以小德小智。輕心慢心。欲冀真乘。徒勞勤苦。光聞祖誨勵。潛取利刀。自斷左臂置于祖前。祖知是法器。乃曰。諸佛最初求道。為法忘形。汝今斷臂吾前。求亦可在。祖遂因與易名。曰慧可。乃曰。諸佛法印。可得聞乎。祖曰。諸佛法印。匪從人得。可曰。我心未寧。乞師與安。祖曰。將心來與汝安。可良久曰。覓心了不可得。祖曰。我與汝安心竟。

【頌】越九年。欲返天竺。命門人曰。時將至矣。汝等盍各言所得乎。時有道副對曰。如我所見。不執文字。不離文字而為道用。祖曰汝得吾皮。尼總持曰。我今所解。如慶喜見阿閼佛國。一見更不再見。祖曰汝得吾肉。道育曰。四大本空。五陰非有而我見處無一

法可得。祖曰汝得吾骨。最後慧可禮拜。依位而立。祖曰汝得吾髓。

○乃顧慧可而告之曰。昔如來以正法眼。付迦葉大士。展轉囑累而至於我。我今付汝。汝當護持。并授汝袈裟。以為法信。各有所表。宜可知矣。可曰。請師指陳。祖曰。內傳法印。以契證心。外付袈裟。以定宗旨。後代澆薄。疑慮競生。云吾西天之人。言汝此方之子。憑何得法。以何證之。汝今受此衣法。却後難生。但出此衣。并吾法偈。用以表明。其化無礙。至吾滅後二百年。衣止不傳。法周沙界。明道者多。行道者少。說理者多。通理者少。潛符密證。千萬有餘。汝當闡揚。勿輕未悟。一念回機。便同本得。聽吾偈曰。吾本來茲土。傳法救迷情。一華開五葉。結果自然成。祖又曰。吾有楞伽經四卷。亦用付汝。即是如來心地要門。令諸眾生。開示悟入。吾自到此。凡五度中毒。我嘗自出而試之。置石石裂。緣吾本離南印。來此東土。見赤縣神州。有大乘氣象。遂踰海越漠。為汝求人。際會未諧。如愚若訥。今得汝傳授。吾意已終。
(○別記云。祖初居少林寺九年。為二祖說法。祇教外息諸緣。內心無喘。心如墻壁。可以入道。慧可。種種說心性。曾未契理。祖祇遮其非。不為說無念心體。可。忽曰。我已息諸緣。祖曰。莫成斷滅去否。可曰。不成斷滅。祖曰。此是諸佛所傳心體。更無疑也)言已。端居而逝。

【頌】葬熊耳山。起塔於定林寺。後三歲魏宋雲。奉使西域。回遇祖於葱嶺。見手携隻履。翩翩獨逝雲問師何往。祖曰西天去。雲歸。具說其事。及門人啟壙。唯空棺。一隻革履存焉。舉朝為之驚嘆。奉詔取遺履於少林寺供養。

○初梁武遇祖因緣未契。及聞化行魏邦。遂欲自撰師碑而未暇也。後聞宋雲事。乃成之。代宗諡圓覺大師。塔曰空觀。

慧可大師

得法傳衣事跡。達磨章具之矣。自少林託化西歸。大師繼闡玄風。博求法嗣。

【頌】至北齊天平二年。有一居士。年踰四十。不言名氏。聿來設禮而問祖曰。弟子身纏風恙。請和尚懺罪。祖曰。將罪來與汝懺。士良久曰。覓罪不可得。祖曰。與汝懺罪竟。宜依佛法僧住。士曰。今見和尚。已知是僧。未審何名佛法。祖曰。是心是佛。是心是法。法佛無二。僧寶亦然。士曰。今日始知罪性。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如其心然。佛法無二也。祖深器之。即為剃髮。云是吾寶也。宜名僧璨。於光福寺受具。自茲疾漸愈。執侍經二載。祖乃告曰。菩提達磨。遠自竺乾。以正法眼藏。并信衣密付於吾。吾今授汝。汝當守護。無令斷絕。

僧璨大師

初以白衣謁二祖。既受度傳法。隱于舒州之皖公山。屬後周武帝破滅佛法。祖往來太湖縣司空山。居無常處。積十餘載。時人無能知者。

【頌】至隋開皇十二年壬子歲。有沙彌道信。年始十四。來禮祖曰。願和尚慈悲。乞與解脫法門。祖曰。誰縛汝。曰無人縛。祖曰。何更求解脫乎。信於言下大悟。服勞九載。祖屢試以玄微。知其緣熟。乃付衣法。

○祖信心銘曰。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毫釐有差。天地懸隔。欲得現前。莫存順逆。違順相爭。是為心病。不識玄旨徒勞念靜。圓同太虛。無欠無餘。良由取捨。所以不如。莫逐有緣。勿住空忍。一種平懷。泯然自盡。止動歸止。止更彌動。唯滯兩邊。寧知一種。一種不通。兩處失功。遣有沒。從空背空。多言多慮。轉不相應。絕言絕慮。無處不通。歸根得旨。隨照

失宗。須臾返照。勝却前空。前空轉變。皆由妄見。不用求真。唯須息見。二見不住。慎莫追尋。纔有是非。紛然失心。二由一有。一亦莫守。一心不生。萬法無咎。無咎無法。不生不心。能由境滅。境逐能沈。境由能境。能由境能。欲知兩段。元是一空。一空同兩。齊含萬象。不見精麤。寧有偏黨。大道體寬。無易無難。小見狐疑。轉急轉遲。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任性合道。逍遙絕惱。繫念乖真。昏沉不好。不好勞神。何用踈親。欲取一乘。勿惡六塵。六塵不惡。還同正覺。智者無為。愚人自縛。法無異法。妄自愛著。將心用心。豈非大錯。迷生寂亂。悟無好惡。一切二邊。良由斟酌。夢幻空花。何勞把捉。得失是非。一時放却。眼若不睡。諸夢自除。心若不異。萬法一如。一如體玄。兀爾忘緣。萬法齊觀。歸復自然。泯其所以。不可方比。止動無動。動止無止。兩既不成。一何有爾。究竟窮極。不存軌則。契心平等。所作俱息。狐疑淨盡。正信調直。一切不留。無可記憶。虛明自照。不勞心力。非思量處。識情難測。真如法界。無他無自。要急相應。唯言不二。不二皆同。無不包容。十方智者。皆入此宗。宗非促延。一念萬年。無在不在。十方目前。極小同大。忘絕境界。極大同小。不見邊表。有即是無。無即是有。若不如是。必不須守。一即一切。一切即一。但能如是。何慮不畢。信心不二。不二信心。言語道斷。非去來今。

道信大師

生而超異。幼慕空宗。諸解脫門。宛如宿習。既嗣祖風。攝心無寐。脇不至席者。僅六十年。後住破山。頭學侶雲臻。一日往黃梅縣。路逢一小兒。骨相奇秀。異乎常童。祖問曰。子何姓。答曰。姓即有。不是常姓。祖曰。是何姓。答曰是佛性。祖曰。汝無姓邪。答曰。性空故無。祖默識其法器。即俾侍者。至其母所。乞令出家。母以宿緣故。殊無難色。遂捨為弟子。以至付法傳衣。一日

告眾曰。吾武德中游廬山。登絕頂。望破頭山。見紫雲如蓋。下有白氣。橫分六道。汝等會否。眾皆默然。弘忍曰。莫是和尚他後橫出一枝佛法否。祖曰善。後貞觀癸卯歲。太宗。嚮師道味。欲瞻風彩。詔赴京。祖上表遜謝。前後三返。竟以疾辭。第四度命使曰。如果不起。即取首來。使至山諭旨。祖乃引頸就刃。神色儼然。使異之。回以狀聞。帝彌加欽慕。就賜珍繒。以遂其志。

弘忍大師

蘄州黃梅人也。

【頌】先為破頭山中栽松道者。嘗請於四祖曰。法道可得聞乎。祖曰。汝已老。脫有聞。其能廣化邪。儻若再來。吾尚可遲汝。迺去。行水邊。見一女子浣衣。揖曰。寄宿得否。女曰。我有父兄。可往求之。曰諾我即敢行。女首肯之。遂回策而去。女周氏季子也。歸輒孕。父母大惡。逐之。女無所歸。日傭紡里中。夕止於眾館之下。已而生一子。以為不祥。因拋濁港中。明日見之泝流而上。氣體鮮明。大驚。遂舉之。成童。隨母乞食。里人呼為無姓兒。逢一智者歎曰。此子缺七種相。不逮如來。後遇信大師得法。嗣化於破頭山。

○咸亨中。有一居士。姓盧。名慧能。自新州來參謁。祖問曰。汝自何來。盧曰嶺南。祖曰。欲須何事。盧曰。唯求作佛。祖曰。嶺南人無佛性。若為得佛。盧曰。人即有南北。佛性豈然。祖知是異人。乃訶曰。著槽廠去。盧禮足而退。便入碓坊服勞於杵臼之間。晝夜不息。經八月。祖知付授時至。遂告眾曰。正法難解。不可徒記吾言。持為己任。汝等各自隨意述一偈。若語意冥符。則衣法皆付。時會下七百餘僧。上座神秀者。學通內外。眾所宗仰。咸推稱曰。若非尊秀。疇敢當之。神秀竊聆眾譽。不復思惟。乃於廓壁書一偈曰。身是菩提樹。心如明鏡臺。時時勤拂拭。莫使惹塵埃。祖

因經行。忽見此偈。知是神秀所述。乃讚歎曰。後代依此修行。亦得勝果。各令念誦。盧在碓坊。忽聆誦偈。乃問同學。是何章句。同學曰。汝不知。和尚求法嗣。令各述心偈。此則秀上座所述。和尚深加歎賞。必將付法傳衣也。盧曰。其偈云何。同學為誦。盧良久曰。美則美矣。了則未了。同學訶曰。庸流何知。勿發狂言。盧曰。子不信邪。願以一偈和之。同學不答。相視而笑。盧至夜。密告一童子。引至廊下。盧自秉燭。請別駕張日用。於秀偈之側。寫一偈曰。菩提本無樹。明鏡亦非臺。本來無一物。何處惹塵埃。祖後見此偈。曰。此是誰作。亦未見性。眾聞斯語。遂不之顧。逮夜。祖潛詣碓坊。問曰。米白也未。盧曰。白也。未有篩。祖於碓。以杖三擊之。盧即以三鼓入室。祖告曰。諸佛出世為一大事故。隨機大小而引導之。遂有十地三乘頓漸等旨。以為教門。然以無上微妙祕密圓明真實正法眼藏。付于上首大迦葉尊者。展轉傳授。二十八世至達磨。屆于此土。得可大師承襲。以至于今。以法寶及所傳袈裟。用付於汝。善自保護。無令斷絕。聽吾偈曰。有情來下種。因地果還生。無情既無種。無性亦無生。盧行者。跪受衣法。啟曰。法則既受。衣付何人。祖曰。昔達磨初至。人未之信。故傳衣以明得法。今信心已熟。衣乃爭端。止於汝身。不復傳也。且當遠隱。俟時行化。所謂受衣之人。命如懸絲也。盧曰。當隱何所。祖曰。逢懷即止。遇會且藏。盧禮足已。捧衣而出。是夜南邁。大眾莫知。

慧能大師

造黃梅之東山。忍大師一見。默而識之。

【頌】後傳衣法。令隱于懷。集四會之間。屆南海。遇印宗法師。於法性寺講涅槃經。祖寓止廊廡間。暮夜風颺刹旛。聞二僧對論。一曰旛動。一曰風動。往復酬答。曾未契理。祖曰。可容俗流。輒預高論否。直以風旛非動。動自心耳。印宗竊聆此語。竦然異之。

明日邀祖入室。徵風旛之義。祖具以理告。印宗不覺起立曰。行者定非常人。師為是誰。祖更無所隱。直敘得法因由。於是印宗執弟子之禮。請授禪要。乃告四眾曰。印宗具足凡夫。今遇肉身菩薩。乃指座下盧居士曰。即此是也。因請出所傳信衣。悉令瞻禮。會諸名德。為之剃髮。就法性寺智光律師。授滿分戒。後返曹谿。雨大法雨。學者不下千數。

○中宗神龍元年。降詔云。朕請安秀二師。宮中供養。萬機之暇。每究一乘。二師並推讓曰。南方有能禪師密受忍大師衣法。可就彼問。令遣內侍薛簡。馳詔迎請。願師慈念。速赴上京。祖上表。辭疾。願終林麓。簡曰。京城禪德。皆云欲得會道。必須坐禪習定。若不因禪定而得解脫者。未之有也。未審師所說法如何。祖曰。道由心悟。豈在坐也。經云。若見如來。若坐若臥。是行邪道。何故。無所從來。亦無所去。若無生滅。是如來清淨禪。諸法空寂。是如來清淨坐。究竟無證。豈況坐邪。簡曰。弟子回主上必問。願和尚慈悲。指示心要。祖曰。道無明暗。明暗是代謝之義。明暗無盡。亦是有盡。相待立名。故經云。法無有比。無相待故。簡曰。明喻智慧。暗況煩惱。修道之人。儻不以智慧照破煩惱。無始生死。憑何出離。祖曰。煩惱即是菩提。無二無別。若以智慧照煩惱者。此是二乘小見。羊鹿等機。大智上根。悉不如是。簡曰。如何是大乘見解。祖曰。明與無明。其性無二。無二之性。即是實性。實性者。處凡愚而不減。在賢聖而不增。住煩惱而不亂。居禪定而不寂。不斷不常。不來不去。不在中間。及其內外。不生不滅。性相如如。常住不遷。名之曰道。簡曰。師說不生不滅。何異外道。祖曰。外道所說不生不滅者。將滅止生。以生顯滅。滅猶不滅。生說無生。我說不生不滅者。本自無生。今亦無滅。所以不同外道。汝若欲知心要。但一切善惡。都莫思量。自然得入清淨心體。湛然常寂。妙用恒沙。簡蒙指教。豁然大悟。禮辭歸闕。

○祖一日謂眾曰。汝等諸人。自心是佛。更莫狐疑。外無一物而能建立。皆是本心生萬種法。故經云。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若欲成就種智。須達一相三昧。一行三昧。若於一切處。而不住相。彼相中不生憎愛。亦無取捨。不念利益成壞等事。安閒恬靜。虛融澹泊。此名一相三昧。若於一切處。行住坐臥。純一直心。不動道場。真成淨土。名一行三昧。若人具二三昧。如地有種。能含藏長養成就其實。一相一行。亦復如是。我今說法。猶如時雨。溥潤大地。汝等佛性。譬諸種子。遇茲霑洽。悉得發生。承吾旨者。決獲菩提。依吾行者。定證妙果。

○先天元年。告諸四眾曰。吾忝受忍大師衣法。今為汝等說法。不付其衣。蓋汝等信根淳熟。決定不疑。堪任大事。聽吾偈曰。心地含諸種。普雨悉皆生。頓悟華情已。菩提果自成。說偈已。復曰。其法無二。其心亦然。其道清淨。亦無諸相。汝等慎勿觀淨。及空其心。此心本淨。無可取捨。各自努力。隨緣好去。嘗有僧舉臥輪禪師偈曰。臥輪有伎倆。能斷百思想。對境心不起。菩提日日長。祖聞之曰。此偈未明心要。若依而行之。是加繫縛。因示偈曰。慧能沒伎倆。不斷百思想。對境心數起。菩提作麼長。祖說法利生。經四十載(門人記錄目為壇經。盛行于世)。

(會元一卷終)

旁出

牛頭山法融禪師

年十九。學通經史。尋閱大部般若。曉達真空。忽一日歎曰。儒道世典。非究竟法。般若正觀。出世舟航。遂隱茅山。投師落髮。

【頌】後入牛頭山。幽棲寺北巖之石室。有百鳥銜花之異。唐貞觀中。四祖遙觀氣象。知彼山有奇異之人。乃躬自尋訪。問寺僧。此

間有道人否。曰。出家兒。那箇不是道人。祖曰。阿那箇是道人。僧無對。別僧曰。此去山中十里許。有一懶融。見人不起。亦不合掌。莫是道人麼。祖遂入山。見師端坐自若。曾無所顧。祖問曰。在此作甚麼。師曰觀心。祖曰。觀是何人。心是何物。師無對。便起作禮曰。大德高棲何所。祖曰。貧道不決所止。或東或西。師曰。還識道信禪師否。祖曰。何以問他。師曰。嚮德滋久。冀欲禮謁。祖曰。道信禪師。貧道是也。師曰。因何降此。祖曰。特來相訪。莫更有宴息之處否。師指後面曰。別有小庵。遂引祖至庵所。遶庵唯見虎狼之類。祖乃舉兩手作怖勢。師曰。猶有這箇在。祖曰。這箇是甚麼。師無語。少選。祖却於師宴坐石上。書一佛字。師覩之。竦然。祖曰。猶有這箇在。師未曉。乃稽首請說真要。祖曰。夫百千法門。同歸方寸。河沙妙德。總在心源。一切戒門定門慧門。神通變化。悉自具足。不離汝心。一切煩惱業障。本來空寂一切因果。皆如夢幻。無三界可出。無菩提可求。人與非人。性相平等。大道虛曠。絕思絕慮。如是之法。汝今已得。更無闕少。與佛何殊。更無別法。汝但任心自在。莫作觀行。亦莫澄心。莫起貪嗔。莫懷愁慮。蕩蕩無礙。任意縱橫。不作諸善。不作諸惡。行住坐臥。觸目遇緣。總是佛之妙用。快樂無憂。故名為佛。師曰。心既具足。何者是佛。何者是心。祖曰。非心不問佛。問佛非不心。師曰。既不許作觀行。於境起時。心如何對治。祖曰。境緣無好醜。好醜起於心。心若不強名。妄情從何起。妄情既不起。真心任徧知。汝但隨心自在。無復對治。即名常住法身。無有變異。吾受璨大師頓教法門。今付於汝。汝今諦受吾言。只住此山。向後當有五人達者。紹汝緣化。祖付法訖。遂返雙峰終老。師自是法席大盛。

○唐永徽中。徒眾乏糧。師往丹陽緣化。去山八十里。躬負米一石八斗。朝往暮還。供僧三百。二時不闕。三年。

牛頭智巖禪師

一日宴坐。覩異僧。身長丈餘。神姿爽拔。詞氣清朗。謂師曰。卿八十生出家。宜加精進。言訖不見。嘗在谷中入定。山水暴漲。師怡然不動。其水自退。師後謁融禪師。發明大事。融謂師曰。吾受信大師真訣。所得都亡。設有一法勝過涅槃。吾說亦如夢幻。夫一塵飛而翳天。一芥墮而覆地。汝今已過此見。吾復何云。

鍾山曇瓘禪師

初謁融禪師。融目而奇之。乃告之曰。色聲為無生之鴆毒。受想是至人之坑穽。子知之乎。師默而審之。大悟玄旨。尋晦迹鍾山。多歷年所。茅庵瓦缶。以終老焉。

牛頭智威禪師

謁法持禪師。傳授正法。自爾江左學徒。皆奔走門下。有慧忠者。目為法器。師嘗有偈示曰。余本性虛無。緣妄生人我。如何息妄情。還歸空處坐。忠答曰。虛妄是實體。人我何所存。妄情不須息。即汎般若船。師知其了悟。乃付以院事。隨緣化導。

牛頭慧忠禪師

平生一衲不易。器用唯一鐙。嘗有供僧穀兩廩。盜者窺伺。虎為守之。縣令張遜者。至山頂謁。問師有何徒弟。師曰。有三五人。遜曰。如何得見。師敲禪牀。有三虎哮吼而出。遜驚怖而退。師有安心偈曰。人法雙淨。善惡兩忘。直心真實。菩提道場。

安國玄挺禪師

初參威禪師。侍立次。有講華嚴僧問。真性緣起其義云何。威良久。師遽答曰。大德。正興一念問時。是真性中緣起。其僧言下大

悟。

天柱崇慧禪師

僧問。達磨未來此土時。還有佛法也無。師曰。未來且置。即今事作麼生。曰某甲不會。乞師指示。師曰。萬古長空。一朝風月。僧無語。師復曰。闍黎會麼。曰不會。師曰。自己分上作麼生。干他達磨來與未來作麼。他家來。大似賣卜。漢。見汝不會。為汝錐破卦文。纔生吉凶。若作汝分上。一切自看。僧曰。如何是解卜底人。師曰。汝自出門時。便不中也。

○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也。師曰。隔嶽峯高長積翠。舒江明月色光輝。

○問如何是大通智勝佛。師曰。曠大劫來。未曾壅滯。不是大通智勝佛。是甚麼。曰為甚麼佛法不現前。師曰。只為汝不會。所以佛不現前。汝若會去亦無佛可成。

○問如何是西來意。師曰。白猿抱子來青嶂。蜂蝶銜花綠蕊間。

鶴林玄素禪師

一日有屠者禮謁。願就所居辦供。師欣然而往。眾皆見訝。師曰。佛法平等。賢愚一致。但可度者。吾就度之。復何差別之有。

【頌】有僧扣門。師問是甚麼人。曰是僧。師曰。非但是僧。佛來亦不著。曰為甚麼不著。師曰。無汝棲泊處。

佛國惟則禪師

初謁忠禪師大悟玄旨。乃曰。天地無物也。是我無物也。雖無物也。而未嘗無物也。如此。則聖人如夢。百姓如夢。孰為死生哉。

至人以是能獨照。能為萬物主。吾知之矣。

徑山道欽禪師

初服膺儒教。年二十八。遇素禪師。謂之曰。觀子神氣溫粹。真法寶也。師感悟。因求為弟子。素。躬與落髮。乃戒之曰。汝乘流而行。逢徑即止。師遂南邁。抵臨安。見東北一山。因問樵者。樵曰。此徑山也。乃駐錫焉。

○僧問如何是道。師曰。山上有鯉魚。海底有蓬塵。

【頌】馬祖令人送書到。書中作一圓相。師發鍼。於圓相中著一點。却封回(忠國師聞乃云。欽師猶被馬師惑)。

○崔趙公問。弟子今欲出家得否。師曰。出家乃大丈夫事。非將相之所能為。公於是有省。

【頌】唐大曆三年。代宗詔至闕下。親加瞻禮。一日同忠國師在內庭坐次。見帝駕來。師起立。帝曰。師何以起。師曰。檀越何得向四威儀中見貧道。帝悅。謂國師曰。欲錫欽師一名。國師欣然奉詔。乃賜號國一焉。

雲居智禪師

嘗有華嚴院僧繼宗問。見性成佛。其義云何。師曰。清淨之性。本來湛然。無有動搖。不屬有無淨穢。長短取捨。體自翛然。如是明見。乃名見性。性即佛。佛即性。故曰。見性成佛。曰性既清淨。不屬有無。因何有見。師曰。見無所見。曰既無所見。何更有見。師曰。見處亦無。曰如是見時。是誰之見。師曰。無有能見者。曰究竟其理如何。師曰。汝知否。妄計為有。即有能所。乃得名迷。隨見生解。便墮生死。明見之人即不然。終日見。未嘗見求名處體。相不可得。能所俱絕。名為見性。曰此性徧一切處否。師曰。

無處不徧。曰凡夫具否。師曰。上言無見不徧。豈凡夫而不具乎。曰因何諸佛菩薩不被生死所拘。而凡夫獨縈此苦。何曾得徧。師曰。凡夫於清淨性中。計有能所。即墮生死。諸佛大士。善知清淨性中。不屬有無。即能所不立。曰若如是說。即有能了不了人。師曰。了尚不可得。豈有能了人乎。曰至理如何。師曰。我以要言之。汝即應念清淨性中。無有凡聖。亦無了不了人。凡之與聖。二俱是名。若隨名生解。即墮生死。若知假名不實。即無有當名者。又曰。此是極究竟處。若云我能了。彼不能了。即是大病。見有淨穢凡聖。亦是大病。作無凡聖解。又屬撥無因果。見有清淨性可棲止亦大病。作不棲止解亦大病。然清淨性中。雖無動搖。具不壞方便應用。及興慈運悲。如是興運之處。即全清淨之性。可謂見性成佛矣。繼宗踊躍。禮謝而退。

鳥窠道林禪師

【頌】詣長安西明寺復禮法師。學華嚴經。起信論。禮示以真妄。頌。俾修禪那。師問曰。初云何觀。云何用心。禮。久而無言。師三禮而退。屬代宗詔國一禪師至闕。師乃謁之。遂得正法。歸於西湖。見秦望山有長松。枝葉繁茂。盤屈如蓋。遂棲止其上。故以為名。有侍者會通。忽一日欲辭去。師問曰。汝今何往。對曰。會通為法出家。和尚不垂慈誨。今往諸方學佛法去。師曰。若是佛法。吾此間亦有少許。曰如何是和尚佛法。師於身上拈起布毛吹之。通遂領悟玄旨。

【頌】白居易侍郎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諸惡莫作。眾善奉行。白曰。三歲孩兒也解甚麼道。師曰。三歲孩兒雖道得。八十老人行不得。

北宗神秀禪師

少親儒業。博綜多聞。俄捨愛出家。尋師訪道。遇五祖坐禪為務。乃歎伏曰。此真吾師也。誓心苦節。以樵汲自役。而求其道。祖默識之。深加器重。

○師示眾曰。一切佛法。自心本有。將心外求。捨父逃走。

嵩嶽慧安國師

唐貞觀中。至黃梅謁忍祖。遂得心要。

○有坦然。懷讓二僧來參。問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何不問自己意。曰如何是自己意。師曰。當觀密作用。曰如何是密作用。師以目開合示之。然於言下知歸。讓乃即謁曹谿。

○武后徵至輦下。待以師禮。與秀禪師。同加欽重。后嘗問師。甲子多少。師曰不記。后曰。何不記邪。師曰。生死之身。其若循環。環無起盡。焉用記為。況此心流注。中間無間。見漚起滅者。乃妄想耳。從初識。至動相滅時。亦只如此。何年月而可記乎后聞稽顙信受。

蒙山道明禪師

【頌】聞五祖密付衣法與盧行者。即率同志數十人。躡跡追逐。至大庾嶺。師最先見。餘輩未及。盧見師奔至。即擲衣鉢於盤石曰。此衣表信。可力爭邪。任君將去。師遂舉之。如山不動。踟躕悚慄。乃曰。我來求法。非為衣也。願行者開示於我。盧曰。不思善。不思惡。正恁麼時。阿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師當下大悟。徧體汗流。泣禮數拜。問曰。上來密語密意外。還更別有意旨否。盧曰。我今與汝說者。即非密也。汝若返照自己面目。密却在汝邊。師曰。某甲雖在黃梅隨眾。實未省自己面目。今蒙指授入處。

如人飲水。冷暖自知。今行者即是某甲師也。盧曰。汝若如是。則吾與汝。同師黃梅。善自護持。

壽州道樹禪師

年將五十出家。遇秀禪師。言下知微。乃卜壽州三峯山。結庵而居。常有野人。服色素朴。言譚詭異。於言笑外。化作佛形。及菩薩羅漢天仙等形。或放神光。或呈聲響。師之學徒。覩之。皆不能測。如此涉十年後。寂無形影。師告眾曰。野人作多色伎倆。眩惑於人。只消老僧不見不聞。伊伎倆有窮。吾不見不聞無盡。

降魔藏禪師

遇北宗盛化。便是摠衣。秀問曰。汝名降魔。此無山精水怪。汝翻作魔邪。師曰。有佛有魔。秀曰。汝若是魔。必住不思議境界。師曰。是佛亦空。何境界之有。

福先仁儉禪師

自嵩山罷問。放曠郊廛。謂之騰騰和尚。有了元歌。行于世。

破竈墮和尚

【頌】隱居嵩嶽山塢。有廟甚靈。殿中唯安一竈。遠近祭祀不輟。烹殺物命甚多。師一日領侍僧入廟。以杖敲竈三下曰。咄。此竈只是泥瓦合成。聖從何來。靈從何起。恁麼烹宰物命。又打三下。竈乃傾破墮落。須臾有一人。青衣峩冠。設拜師前。師曰。是恁麼人。曰我本此廟竈神。久受業報。今日蒙師說無生法。得脫此處。生在天中。特來致謝。師曰。是汝本有之性。非吾強言。神再禮而沒。少選。侍僧問曰。某等久侍和尚。不蒙示誨。竈神得甚麼徑旨。便得生天。師曰。我只向伊道。是泥瓦合成。別也無道理為伊。侍僧無言。師曰會麼。僧曰不會。師曰。本有之性。為甚麼不

會。侍僧等乃禮拜。師曰。墮也墮也。破也破也。後義豐禪師舉似安國師。安歎曰。此子會盡物我一如。可謂如朗月處空。無不見者。難搆伊語脉。豐問曰。未審甚麼人搆得他語脉。安曰。不知者。時號為破竈墮。

○僧問物物無形時如何。師曰。禮即唯汝非我。不禮即唯我非汝。其僧乃禮謝。師曰。本有之物。物非物也。所以道。心能轉物。即同如來。

嵩嶽元珪禪師

謁安國師。頓悟玄旨。遂卜廬於嶽之龐塢。一日有嶽神乞戒。師即為張座。付五戒已。神乃曰。我神通亞佛。師曰。汝神通十句。五能五不能。佛則十句。七能三不能。神竦然避席跪啟曰。可得聞乎。師曰。汝能戾上帝。東天行。而西七曜乎。曰不能。師曰。汝能奪地祇融五嶽。而結四海乎。曰不能。師曰。是謂五不能也。佛能空一切相。成萬法智。而不能即滅定業。佛能知羣有性。窮億劫事。而不能化導無緣。佛能度無量有情。而不能盡眾生界。是為三不能也。定業亦不牢久。無緣亦是一期。眾生界本無增減。亘無一人能主其法。有法無主。是謂無法。無法無主。是謂無心如我解佛。亦無神通也。但能以無心。通達一切法爾。神曰。我誠淺昧。未聞空義。師所授戒。我當奉行。

終南山惟政禪師

【頌】唐文宗好嗜蛤蜊。汧海官吏。先時遞進。人亦勞止。一日御饌中。有擘不張者。帝以其異。即焚香禱之。乃開。見菩薩形儀。梵相具足。帝遂貯以金粟檀香合。覆以美錦。賜興善寺。令眾僧瞻禮。因問羣臣。斯何祥也。或奏。太一山惟政禪師。深明佛法。博通強記。乞詔問之。帝即頒詔。師至。帝問其事。師曰。臣聞物

無虛應。此乃啟陛下之信心耳。故契經云。應以此身得度者。即現此身而為說法。帝曰。菩薩身已現。且未聞說法。師曰。陛下觀此為常邪。非常邪。信邪。非信邪。帝曰。希奇之事。朕深信焉。師曰。陛下已聞說法竟。皇情悅豫。得未曾有。詔天下寺院。各立觀音像。以答殊休。

嵩山峻極禪師

【頌】僧問。如何修善行人。師曰。擔枷帶鎖。曰如何是作惡行人。師曰。修禪入定。曰某甲淺機。請師直指。師曰。汝問我惡。惡不從善。汝問我善。善不從惡。僧良久。師曰會麼。曰不會。師曰。惡人無善念。善人無惡心。所以道。善惡如浮雲。俱無起滅處。僧於言下大悟。後破竈墮聞舉。乃曰。此子會盡諸法無生。

保唐無住禪師

唐相國杜鴻漸問曰。弟子聞金和尚說。無憶。無念。莫妄。三句法門是否師曰然。公曰。此三句。是一是三。師曰。無憶名戒。無念名定。莫妄名慧。一心不生。具戒定慧。非一非三也。公曰。後句妄字。莫是從心之忘乎。曰。從女者是也。公曰。有據否。師曰。法句經云。若起精進心。是妄非精進。若能心不妄。精進無有涯。公聞。疑情盪然。公又問。師還以三句示人否。師曰。初心學人。還令息念。澄停識浪。水清影現。悟無念體。寂然現前。無念亦不立也。

○于時庭樹鷓鳴。公問。師聞否。師曰聞。鷓去已。又問師聞否。師曰聞。公曰。鷓去無聲。云何言聞。師乃普告大眾曰。佛世難值。正法難聞。各各諦聽。聞無有聞。非關聞性。本來不生。何曾有滅。有聲之時。是聲塵自生。無聲之時。是聲塵自滅。而此聞性。不隨聲生。不隨聲滅。悟此聞性。則免聲塵之所轉。當知聞無

生滅。聞無去來。公與僚屬大眾。稽首又問。何名第一義。第一義者。從何次第得入。師曰。第一義。無有次第。亦無出入。世諦一切有。第一義即無。諸法無性性。說名第一義。佛言。有法名俗諦。無性第一義。公曰。如師開示。實不可思議。

西域崛多三藏

於六祖言下契悟。後遊五臺。見一僧結庵靜坐。師問曰。孤坐奚為。曰觀靜。師曰。觀者何人。靜者何物。其僧作禮問曰。此理如何。師曰。汝何不自觀自靜。彼僧茫然。師曰。汝出誰門邪。曰秀禪師。師曰。我西域異道最下種者。不墮此見。兀然空坐。於道何益。

韶州法海禪師

初見六祖問曰。即心即佛。願垂指喻。祖曰前念不生即心。後念不滅即佛。成一切相即心。離一切相即佛。吾若具說。窮劫不盡。聽吾偈曰。即心名慧。即佛乃定。定慧等持。意中清淨。悟此法門。由汝習性。用本無生。雙修是正。師信受。以偈贊曰。即心元是佛。不悟而自屈。我知定慧因。雙修離諸物。

吉州志誠禪師

初參秀禪師。後往曹谿質疑。六祖曰。汝師若為示眾。師曰。嘗指誨大眾。令住心觀靜。長坐不臥。祖曰。住心觀靜。是病非禪。長坐拘身。於理何益。聽吾偈曰。生來坐不臥。死去臥不坐。元是臭骨頭。何為立功過。師曰。未審大師。以何誨人。祖曰。吾若言有法與人。即為誑汝。但且隨方解縛。假名三昧。聽吾偈曰。一切無心自性戒。一切無礙自性慧。不增不減自金剛。身去身來本三昧。師聞偈悔謝。即誓依歸。乃呈偈曰。五蘊幻身。幻何究竟。回趣真如。法還不淨。

匾擔山曉了禪師

有忽雷澄禪師撰塔碑。其略曰。師住匾擔山。號曉了。六祖之嫡嗣也。師得無心之心。了無相之相。無相者森羅眩目。無心者分別熾然。絕一言一響。響莫可傳。傳之行矣。言莫可窮。窮之非矣。師得無無之無。不無於無也。吾今以有有之有。不有於有也。不有之有。去來非增。不無之無。涅槃非滅。嗚呼。師住世兮曹谿明。師寂滅兮法舟傾。師譚無說兮寰宇盈。師示迷徒兮了義乘。匾擔山色垂茲色。空谷猶留曉了名。

洪州法達禪師

念法華經三千部。後禮拜六祖曰。惟願和尚大慈。略說經中義理。祖曰。汝念此經。以何為宗。師曰。學人愚鈍。從來但依文誦念。豈知宗趣。祖曰。汝試為吾念一徧。吾當為汝解說。師即高聲念經。至方便品。祖曰止。此經元來以因緣出世為宗。縱說多種譬喻。亦無越於此。何者因緣。唯一大事。一大事。即佛知見也。汝慎勿錯解經意。見他道開示悟入。自是佛之知見。我輩無分。若作此解。乃是謗經毀佛也。彼既是佛。已具知見。何用更開。汝今當信。佛知見者。只汝自心。更無別體。蓋為一切眾生自蔽光明。貪愛塵境。外緣內擾。甘受驅馳。便勞他從三昧起。種種苦口。勸令寢息。莫向外求。與佛無二。故云開佛知見。汝但勞勞執念。謂為功課者。何異[牧/(厂@牛)]牛愛尾也。師曰。若然者。但得解義。不勞誦經也。祖曰。經有何過。豈障汝念。只為迷悟在人。損益由汝。聽吾偈曰。心迷法華轉。心悟轉法華。誦久不明已。與義作讐家。無念念即正。有念念成邪。有無俱不計。長御白牛車。(云云)師從此領旨。亦不輟誦持。

壽州智通禪師

初看楞伽經。約千餘徧。而不會三身四智。禮拜六祖。求解其義。祖曰。三身者。清淨法身。汝之性也。圓滿報身。汝之智也。千百億化身。汝之行也。若離本性。別說三身。即名有身無智。若悟三身。無有自性。即名四智菩提。聽吾偈曰。自性具三身。發明成四智。不離見聞緣。超然登佛地。吾今為汝說。諦信永無迷。莫學馳求者。終日說菩提。師曰。四智之義可得聞乎。祖曰。既會三身。便明四智。何更問邪。若離三身。別譚四智。此名有智無身也。即此有智。還成無智。復說偈曰。大圓鏡智性清淨。平等性智心無病。妙觀察智見非功。成所作智同圓鏡。五八六七果因轉。但用名言無實性。若於轉處不留情。繁興永處那伽定(轉識為智者。教中云。轉前五識。為成所作智。轉第六識為妙觀察智。轉第七識為平等性智。轉第八識為大圓鏡智。雖六七因中轉。五八果上轉。但轉其名。而不轉其體也)師禮謝。以偈贊曰。三身元我體。四智本心明。身智融無礙。應物任隨形。起修皆妄動。守住匪真精。妙智因師曉。終亡汙染名。

江西志徹禪師

一日遠來禮覲六祖。問曰。弟子嘗覽涅槃經。未曉常無常義。乞和尚慈悲。略為宣說。祖曰。無常者。即佛性也。有常者。即善惡一切諸法分別心也。曰和尚所說。大違經文。祖曰。吾傳佛心印。安敢違於佛經。曰經說佛性是常。和尚却言無常。善惡諸法。乃至菩提心。皆是無常。和尚却言是常。此即相違。令學人轉加疑惑。祖曰。涅槃經。吾昔者聽尼無盡藏讀誦一徧。便為講說。無一字一義不合經文。乃至為汝。終無二說。曰學人識量淺昧。願和尚委曲開示。祖曰。汝知否。佛性若常。更說甚麼善惡諸法。乃至窮劫。無有一人發菩提心者。故吾說無常。正是佛說真常之道也。又一切諸法。若無常心者。即物物皆有自性。容受生死。而真常性有不徧之處。故吾說常者。正是佛說真無常義也。佛比為凡夫外道。執於邪常。諸二乘人。於常計無常。共成八倒。故於涅槃了義教中。破彼

偏見。而顯說真常。真樂。真我。真淨。汝今依言背義。以斷滅無常。及確定死常。而錯解佛之圓妙最後微言。縱覽千徧。有何所益。行昌忽如醉醒。乃說偈曰。因守無常心。佛演有常性。不知方便者。猶春池拾礫。我今不施功。佛性而現前。非師相授與。我亦無所得。祖曰。汝今徹也。宜名志徹。師禮謝而去(師姓張。名行昌)。

信州智常禪師

一日參六祖。祖問。汝從何來。欲求何事。師曰。學人近禮大通和尚。蒙示見性成佛之義。未決狐疑。至吉州遇人指迷。令投和尚。伏願垂慈攝受。祖曰。彼有何言句。汝試舉看。吾與汝證明。師曰。初到彼三月。未蒙開示。以為法切故。於中夜獨入方丈。禮拜哀請。大通乃曰。汝見虛空否。對曰見。彼曰。汝見虛空有相貌否。對曰。虛空無形。有何相貌。彼曰。汝之本性。猶如虛空。返觀自性。了無一物可見。是名正見。無一物可知。是名真知。無有青黃長短。但見本源清淨。覺體圓明。即名見性成佛。亦名極樂世界。亦名如來知見。學人雖聞此說。猶未決了。乞和尚垂誨。令無疑滯。祖曰。彼師所說。猶存見知。故令汝未了。吾今示汝一偈曰。不見一法存無見。大似浮雲遮日面。不知一法守空知。還似太虛生閃電。此之知見瞥然興。錯認何曾解方便。汝當一念自知非。自己靈光常顯現。師聞偈已。心意豁然。乃述一偈曰。無端起知解。著相求菩提。情存一念悟。寧越昔時迷。自性覺源體。隨照枉遷流。不入祖師室。茫然趣兩頭。

廣州志道禪師

初參六祖問曰。學人自出家。覽涅槃經。僅十餘載。未明大意。願和尚垂誨。祖曰。汝何處未了。對曰。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於此疑惑。祖曰。汝作麼生疑。對曰。一切眾生

皆有二身。謂色身。法身也。色身無常。有生有滅。法身有常。無知無覺。經云。生滅滅已。寂滅為樂者。未審是何身寂滅。何身受樂。若色身者。色身滅時。四大分散全是苦。苦不可言樂。若法身寂滅。即同草木瓦石。誰當受樂。又法性是生滅之體。五蘊是生滅之用。一體五用。生滅是常。生則從體起用。滅則攝用歸體。若聽更生。即有情之類。不斷不滅。若不聽更生。則永歸寂滅。同於無情之物。如是則一切諸法。被涅槃之所禁伏。尚不得生。何樂之有。祖曰。汝是釋子。何習外道斷常邪見。而議最上乘法。據汝所解。而色身外。別有法身。離生滅。求於寂滅。又推涅槃常樂。言有身受者。斯乃執吝生死。耽著世樂。汝今當知。佛為一切迷人。認五蘊和合為自體相。分別一切法為外塵相。好生惡死。念念遷流。不知夢幻虛假。枉受輪迴。以常樂涅槃。翻為苦相。終日馳求。佛愍此故。乃示涅槃真樂。剎那無有生相。剎那無有滅相。更無生滅可滅。是則寂滅現前。當現前之時。亦無現前之量。乃謂常樂。此樂無有受者。亦無不受者。豈有一體五用之名。何況更言涅槃。禁伏諸法。令永不生。斯乃謗佛毀法。聽吾偈曰。無上大涅槃。圓明常寂照。凡愚謂之死。外道執為斷。諸求二乘人。目以無為作。盡屬情所計。六十二見本。妄立虛假名。何為真實義。唯有過量人。通達無取捨。以知五蘊法。及以蘊中我。外現眾色象。一一音聲相。平等如夢幻。不起凡聖見。不作涅槃解。二邊三際斷。常應諸根用。而不起用想。分別一切法。不起分別想。劫火燒海底。風鼓山相擊。真常寂滅樂。涅槃相如是。吾今強言說。令汝捨邪見。汝勿隨言解。許汝知少分。師聞偈。踊躍作禮而退。

永嘉真覺禪師

【頌】徧探三藏。精天台止觀。圓妙法門。於四威儀中常冥禪觀。後因左谿朗禪師激勵。與東陽策禪師。同詣曹谿。初到振錫。繞祖三匝。卓然而立。祖曰。夫沙門者。具三千威儀。八萬細行。大德

自何方而來。生大我慢。師曰。生死事大。無常迅速。祖曰。何不體取無生。了無速乎。師曰。體即無生。了本無速。祖曰。如是如是。于時大眾。無不愕然。師方具威儀參禮。須臾告辭。祖曰。返太速乎。師曰。本自非動。豈有速邪。祖曰。誰知非動。師曰。仁者自生分別。祖曰。汝甚得無生之意。師曰。無生豈有意邪。祖曰。無意誰當分別。師曰。分別亦非意。祖歎曰。善哉善哉。少留一宿。時謂一宿覺矣。師著證道歌。永嘉集。

司空山本淨禪師

【頌】唐玄宗詔師到京。勅住白蓮亭。而後召兩街名僧碩學。赴內道場。與師闡揚佛理。時有遠禪師。抗聲謂師曰。今對聖上。校量宗旨。應須直問直答。不假繁詞。只如禪師所見。以何為道。師曰。無心是道。遠曰。道因心有。何得言無心是道。師曰。道本無名。因心名道心名若有。道不虛然。窮心既無。道憑何立。二俱虛妄。總是假名。遠曰。禪師見有身心。是道已否。師曰。山僧身心本來是道。遠曰。適言無心是道。今又言身心是道。豈不相違。師曰。無心是道。心泯道無。心道一如。故言無心是道。身心本來是道。道亦本是身心。身心本既是空。道亦窮源無有。遠曰。觀禪師形質甚小。却會此理。師曰。大德只見山僧相。不見山僧無相。見相者。是大德所見。經云。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即見其道。若以相為實。窮劫不能見道。遠曰。今請禪師。於相上說於無相。師曰。淨名經云。四大無主。身亦無我。無我所見。與道相應。大德。若以四大有主是我。若有我見。窮劫不可會道也。遠聞語失色。逡巡避席。師有偈曰。四大無主復如水。遇曲逢直無彼此。淨穢兩處不生心。壅決何曾有二意。觸境但似水無心。在世縱橫有何事。復云。一大如是。四大亦然。若明四大無主。即悟無心。若乃無心。自然契道。

○志明禪師問。若言無心是道。瓦礫無心。亦應是道。又曰。身心本來是道。四生十類皆有身心。亦應是道。師曰。大德。若作見聞覺知解會。與道懸殊。即是求見聞覺知之者。非是求道之人。經云。無眼耳鼻舌身意。六根尚無。見聞覺知。憑何而立。窮本不有。何處存心。焉得不同草木瓦礫。明杜口而退。師有偈曰。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如鳥空中只麼飛。無取無捨無憎愛。若會應處本無心。始得名為觀自在(次有禪師近臣問答。文繁不備)。

婺州玄策禪師

遊方時。屈于河朔。有隍禪師者。曾謁黃梅。自謂正受。師知隍所得未真。往問曰。汝坐於此作麼。隍曰入定。師曰。汝言入定。有心邪。無心邪。若有心者。一切蠢動之類。皆應得定。若無心者。一切草木之流。亦合得定。曰我正入定時。則不見有有無之心。師曰。既不見有有無之心。即是常定。何有出入。若有出入。則非大定。隍無語。良久問。師嗣誰。師曰。我師曹谿六祖。曰六祖以何為禪定。師曰。我師云。夫妙湛圓寂。體用如如。五陰本空。六塵非有。不出不入。不定不亂。禪性無住。離住禪寂。禪性無生。離生禪想。心如虛空。亦無虛空之量。隍聞此說。遂造于曹谿。請決疑翳。而祖意與師冥符。隍始開悟。

河北智隍禪師

【頌】始參五祖。雖嘗咨決。而循乎漸行。乃往河北結庵長坐。積二十餘載。不見惰容。後遇策禪師激勵。遂往參六祖。祖愍其遠來。便垂開決。師於言下豁然契悟。前二十年所得心。都無影響。

南陽慧忠國師

【頌】一日喚侍者。者應諾。如是三召三應。師曰。將謂吾孤負汝。却是汝孤負吾(僧問趙州。國師喚侍者。意作麼生。州云。如人暗裏書字)。

字雖不成。文彩已彰)。

○上堂。禪宗學者。應遵佛語。一乘了義。契自心源。不了義者。互不相許。如獅子身中蟲。夫為人師。若涉名利。別開異端。則自他何益。如世大匠。斤斧不傷其手。香象所負。非驢能堪。

○僧問。若為得成佛去。師曰。佛與眾生。一時放却。當處解脫。曰作麼生得相應去。師曰。善惡不思。自見佛性。曰若為得證法身。師曰。越毗盧之境界。曰清淨法身作麼生得。師曰。不著佛求耳。曰阿耨箇是佛。師曰。即心是佛。曰心有煩惱否。師曰。煩惱自離。曰豈不斷邪。師曰。斷煩惱者。即名二乘。煩惱不生。名大涅槃。曰坐禪看靜。此復若為。師曰。不垢不淨。寧用起心而看淨相。

○問見十方虛空是法身否。師曰。以想求取之。是顛倒見。

○問即心是佛。可修萬行否。師曰。諸聖皆具二嚴。豈撥無因果邪。又曰。我今答汝。窮劫不盡。言多去道遠矣。所以道。說法有所得。斯則野干鳴。說法無所得。是名師子吼。

【頌】上堂。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白雲淡泞。出沒太虛之中。萬法本閒。而人自鬧(頌見韶國師章)。

○師問僧。近離甚處。曰南方。師曰。南方知識以何法示人。曰南方知識祇道。一朝風火散後。如蛇退皮。如龍換骨。本爾真性。宛然無壞。師曰。苦哉苦哉。南方知識說法。半生半滅。曰南方知識即如是。未審和尚此間說何法。師曰。我此間身心一如。身外無餘。曰和尚何得將泡幻之身。同於法體。師曰。你為甚麼入於邪道。曰甚麼處是某人於邪道處。師曰。不見教中道。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

○有人問。如何是解脫。師曰。諸法不相到。當處解脫。曰恁麼即斷去也。師曰。向汝道。諸法不相到。斷甚麼。

○師問本淨禪師。汝已後見奇特言語如何。淨曰。無一念心愛。師曰。是汝屋裡事。

【評】【頌】唐肅宗問。如何是十身調御。師乃起立曰。會麼。帝曰不會。師曰。與老僧過淨瓶來。帝又問曰。如何是無諍三昧。師曰。檀越蹋毗盧頂上行。帝曰。此意如何。師曰。莫認自己清淨法身。帝又問。師都不視之。曰朕是大唐天子。師何以殊不顧視。師曰。還見虛空麼。帝曰見。師曰。他還眨眼視陛下否(評唱頌古稍異。覽者審焉)。

【評】【頌】師以化緣將畢。涅槃時至。乃辭代宗。代宗曰。師滅度後。弟子將何所記。師曰。告檀越造取一所無縫塔。帝曰。就師請取塔樣。師良久曰。會麼。帝曰不會。師曰。貧道去後。有侍者應真。却知此事。乞詔問之。師遷化後。帝詔應真問此意如何。真述偈曰。湘之南。潭之北。中有黃金充一國。無影樹下合同船。琉璃殿上無知識(應真後住耽源山)。

荷澤神會禪師

年十四為沙彌。謁六祖。祖曰。知識遠來大艱辛。將本來否。若有本。則合識主。試說看。師曰。以無住為本。見即是主。祖曰。這沙彌爭合取次語。便打。師於杖下思惟曰。大善知識。歷劫難逢。今既得遇。豈惜身命。自此給侍。

【頌】他日祖告眾曰。吾有一物。無頭無尾。無名無字。無背無面。諸人還識否。師乃出曰。是諸佛之本源。乃神會之佛性。祖曰。向汝道。無名無字。汝便喚作本源佛性。師禮拜而退。祖曰。

此子向後。設有把茆蓋頭。也只成得箇知解宗徒(法眼云。古人授記人終不錯。如今立知解為宗。即荷澤也)。

○師尋往西京受戒。唐景隆年中。却歸曹谿閱大藏經。於內六處有疑。問於六祖 第一問。戒定慧曰。所用戒何物。定從何處修。慧因何處起。所見不通流。祖曰。定即定其心。將戒戒其行。性中常慧照。自見自知深 第二問。本無今有有何物。本有今無無何物。誦經不見有何義。真似騎驢更覓驢。祖曰。前念惡業本無。後念善生今有。念念常行善行。後代人天不久。汝今正聽吾言。吾即本無今有 第三問。將生滅却滅。將滅滅却生。不了生滅義。所見似聾盲。祖曰。將生滅却滅。令人不執性。將滅滅却生。令人心離境。未即離二邊。自除生滅病 第四問。先頓而後漸。先漸而後頓。不悟頓漸人。心裏常迷悶。祖曰。聽法頓中漸。悟法漸中頓。脩行頓中漸。證果漸中頓。頓漸是常因。悟中不迷悶 第五問。先定後慧。先慧後定。定慧後初。何生為正。祖曰。常生清淨心。定中而有慧。於境上無心。慧中而有定。定慧等無先。雙修自心正 第六問。先佛而後法。先法而後佛。佛法本根源。起從何處出。祖曰。說即先佛而後法。聽即先法而後佛。若論佛法本根源。一切眾生心裏出。

○祖滅後二十年間。曹谿頓旨。沉廢於荆吳嵩嶽。漸門盛行于秦洛。師入京。天寶四年。方定兩宗(南能頓宗北秀漸教)乃著顯宗記。盛行于世。

耽源應真禪師

為國師侍者時。一日國師在法堂中師入來。國師乃放下一足。師見便出。良久却回。國師曰。適來意作麼生。師曰。向阿誰說即得。國師曰。我問你。師曰。甚麼處見某甲。

【頌】師又問。百年後。有人問極則事如何。國師曰。幸自可憐生。須要覓箇護身符子作麼。

○麻谷問。十二面觀音豈不是聖。師曰是。麻谷與師一擲。師曰。想汝未到此境。

蒙山光寶禪師

初謁荷澤。澤謂之曰。汝名光寶。名以定體。寶即已有。光非外來。縱汝意用而無少乏。長夜蒙照而無間歇。汝還信否。師曰。信則信矣。未審光之與寶。同邪異邪。澤曰。光即寶。寶即光。何有同異之名乎。師曰。眼耳緣聲色時。為復抗行。為有回互。澤曰。抗互且置。汝指何法為聲色之體乎。師曰。如師所說。即無有聲色可得。澤曰。汝若了聲色體空。亦信眼耳諸根。及與凡與聖平等如幻。抗行回互。其理昭然。師由是領悟。禮辭而去。

圭峰宗密禪師

大和中徵入內。賜紫衣。帝累問法要。朝士歸慕。唯相國裴公休。深入堂奧。受教為外護。師以禪教學者。互相非毀。遂著禪源諸詮。寫錄諸家所述詮表禪門根源道理文字句偈。集為一藏。(或云一百卷)以貽後代。

○其都序略曰。禪是天竺之語。具云禪那。此云思惟修。亦云靜慮。皆定慧之通稱也。源者是一切眾生本覺真性。亦名佛性。亦名心地悟之名慧。修之名定。定慧通名為禪。此性是禪之本源。故名禪源。亦名禪那。理行者。此之本源是禪理。忘情契之是禪行。故云理行。然今所集諸家述作。多譚禪理。少說禪行。故且以禪源題之。今時有人。但目真性為禪者。是不達理行之旨。又不辯華竺之音也。然非離真性。別有禪體。但眾生迷真合塵。即名散亂。背塵合真。方名禪定。若直論本性。即非真非妄。無背無合。無定無

亂。誰言禪乎。況此真性。非唯是禪門之源。亦是萬法之源。故名法性。亦是眾生迷悟之源。故名如來藏藏識。(出楞伽經)亦是諸佛萬德之源。故名佛性。(涅槃等經)亦是菩薩萬行之源。故名心地。(出梵網經)萬行不出六波羅蜜。禪者但是六中之一。當其第五。豈可都目真性。為一禪行哉。然禪定一行。最為神妙。能發起性上無漏智慧。一切妙用。萬行萬德。乃至神通光明。皆從定發。故三乘人。欲求聖道。必須修禪。離此無門。離此無路。至於念佛求生淨土。亦修十六觀禪。及念佛三昧。般舟三昧等也。又真性即不垢不淨。凡聖無差。禪門則有淺有深。階級殊等。調帶異計。欣上厭下而修者。是外道禪。正信因果。亦以欣厭而修者。是凡夫禪。悟我空偏真之理而修者。是小乘禪。悟我法二空所顯真理而修者。是大乘禪。(上四類。皆有四色四空之異也)若頓悟自心。本來清淨。元無煩惱。無漏智性。本自具足。此心即佛。畢竟無異。依此而修者。是最上乘禪。亦名如來清淨禪。亦名一行三昧。亦名真如三昧。此是一切三昧根本。若能念念修習。自然漸得百千三昧。達磨門下。展轉相傳者。是此禪也。達磨未到。古來諸家所解。皆是前四禪八定。諸高僧修之。皆得功用。南嶽天台。令依三諦之理。修三止三觀。教義雖最圓妙。然其趣入門戶次第。亦只是前之諸禪行相。唯達磨所傳者。頓同佛體。迥異諸門。故宗習者。難得其旨。得即成聖。疾證菩提。失即成邪。速入塗炭。先祖革昧防失。故且人傳一人。後代已有所憑。故任千燈千照。洎乎法久成弊。錯謬者多。故經論學人。疑謗亦眾。原夫佛說頓教漸教。禪開頓門漸門。二教二門。各相符契。今講者偏彰漸義。禪者偏播頓宗。禪講相逢。胡越之隔。(宗密)不知宿生何作熏得此心。自未解脫。欲解他縛。為法亡於軀命。愍心切於神情。(亦如淨名經云。若自有縛。能解他縛。無有是處。然欲罷不能。驗是宿習難改故)每歎人與法差。法為人病。故別撰經律論疏。大開戒定慧門。顯頓悟資於漸修。證師說符於佛意。意既本末而委示。文乃浩博而難尋。汎學雖多。秉志者少。況迹涉名相。誰辯金

鑰。徒自疲勞。未見機感。雖佛說悲增是行。而自慮愛見難防。遂捨眾入山。習定均慧。前後息慮。相繼十年。微細習情。起滅彰於靜慧。差別法義。羅列現於空心。虛隙日光。纖埃擾擾。清潭水底。影像昭昭。豈比夫空守默之癡禪。但尋文之狂慧者也。然本因了自心而辯諸教。故懇情於心宗。又因辯諸教而解修心。故虔誠於教義。教也者。諸佛菩薩所集經論也。禪也者。諸善知識所述句偈也。但佛經開張。羅大千八部之眾。禪偈撮略。就此方一類之機。羅眾則莽蕩難依。就機則指的易用。今之纂集。意在斯焉。

○裴休為之序曰。諸宗門中皆有達人。然各安所集。通少局多。故數十年來。師法益壞。以承稟為戶牖。各自開張。以經論為干戈。互相攻擊。情隨函矢而遷變。法逐人我以高低。是非紛拏。莫能辨析。則向者世尊菩薩。諸方教宗。適足以起諍後人。憎煩惱病。何利益之有。我圭峰大師。久而嘆曰。吾丁此時。不可以默矣。於是以如來三種教義。印禪宗三種法門。鎔餅盤釵釧為一金。攪酥酪醞醐為一味。振綱領而舉者皆順。據會要而來者同趣。尚恐學者之難明也。又復直示宗源之本末。真妄之和合。空性之隱顯。法義之差殊。頓漸之異同。遮表之回互。權實之深淺。通局之是非。若吾師者。捧佛日而委曲回照。疑暘盡除。順佛心而橫亘大悲。窮劫蒙益。則世尊為闡教之主。吾師為會教之人。本末相符。遠近相照。可謂畢一代時教之能事矣。或曰。自如來未嘗大都而通之。今一旦違宗趣而不守。廢關防而不據。無乃乖祕藏密契之道乎。答曰。如來初離別說三乘。後乃通為一道。故涅槃經。迦葉菩薩曰。諸佛有密語。無密藏。世尊讚之曰。如來之言。開發顯露。清淨無翳。愚人不解。謂之秘藏。智者了達。則不名藏。此其證也。故王道興。則外戶不閉。而守在戎夷。佛道備。則諸法總持。而防在魔外。不當復執情攘臂於其間也。

(會元二卷終)

禪宗正脉卷第一

南嶽

南嶽懷讓禪師

【頌】謁嵩山安和尚。安啟發之。乃直指詣曹谿參六祖。祖問。甚麼處來。曰嵩山來。祖曰。甚麼物恁麼來。師無語。遂經八載。忽然有省。乃白祖曰。某甲有箇會處。祖曰作麼生。師曰。說似一物即不中。祖曰。還假修證否。師曰。修證則不無。汙染即不得。祖曰。祇此不汙染。諸佛之所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西天般若多羅識汝。足下出一馬駒。踏殺天下人。病在汝心。不須速說。師執侍左右一十五年。

○開元中。有沙門道一。在衡嶽山常習坐禪。師知是法器。往問曰。大德坐禪圖甚麼。一曰。圖作佛。師乃取一甌。於彼菴前石上磨。一曰。磨作甚麼。師曰。磨作鏡。一曰。磨甌豈得成鏡邪。師曰。磨甌既不成鏡。坐禪豈得作佛。一曰。如何即是。師曰。如牛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

○師又曰。汝學坐禪。為學坐佛。若學坐禪。禪非坐臥。若學坐佛。佛非定相。於無住法。不應取捨。汝若坐佛。即是殺佛。若執坐相。非達其理。一聞示誨。如飲醍醐。禮拜問曰。如何用心。即合無相三昧。師曰。汝學心地法門。如下種子。我說法要。譬彼天澤。汝緣合故。當見其道。又問。道非色相。云何能見。師曰。心地法眼。能見吾道。無相三昧。亦復然矣。一曰。有成壞否。師曰。若以成壞聚散而見道者。非見道也。

【頌】僧問。如鏡鑄像。像成後。未審光向甚麼處去。師曰。如大德為童子時。相貌何在。曰祇如像成後。為甚麼不鑑照。師曰。雖然不鑑照。謾他一點不得。

【頌】後馬大師闡化於江西。師問眾曰。道一為眾說法否。眾曰。已為眾說法。師曰。總未見人持箇消息來。眾無對。因遣一僧去。囑曰。待伊上堂時。但問作麼生。伊道底言語記將來。僧去。一如師旨。回謂師曰。馬祖云。自從胡亂後。三十年不曾少鹽醬。師然之。

江西馬祖道一禪師

【頌】一日謂眾曰。汝等諸人。各信自心是佛。此心即是佛心。達磨大師。從南天竺國。來至中華。傳上乘一心之法。令汝等開悟。又引楞伽經文。以印眾生心地。恐汝顛倒不自信。此一心之法。各各有之。故楞伽經以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夫求法者。應無所求。心外無別佛。佛外無別心。不取善。不捨惡。淨穢兩邊。俱不依怙。達罪性空。念念不可得。無自性故。故三界唯心。森羅萬象。一法之所印。凡所見色皆是見心。心不自心。因色故有。汝但隨時言說。即事即理。都無所礙。菩提道果。亦復如是。於心所生。即名為色。知色空故。生即不生。若了此意。乃隨時著衣喫飯。長養聖胎。任運過時。更有何事。汝受吾教。聽吾偈曰。心地隨時說。菩提亦祇寧。事理俱無礙。當生即不生。僧問。和尚為甚麼說即心即佛。師曰。為止小兒啼。曰啼止時如何。師曰。非心非佛。曰除此二種人來。如何指示。師曰。向伊道不是物。曰忽遇其中人來時如何。師曰。且教伊體會大道。

【頌】一夕西堂百丈南泉。隨侍翫月次。師問。正恁麼時如何。堂曰。正好供養。丈曰。正好修行。泉拂袖便行。師曰。經入藏。禪歸海。唯有普願。獨超物外。

○師問百丈。汝以何法示人。丈豎起拂子。師曰。祇這箇。為當別有。丈拋下拂子。

○僧問。如何是西來意。師便打。曰我不打汝。諸方笑我也。

【頌】鄧隱峯辭師。師曰。甚麼處去。曰石頭去。師曰石頭路滑。曰竿木隨身。逢場作戲。便去。纔見石頭。即繞禪床一匝。振錫一聲。問是何宗旨。石頭曰。蒼天蒼天。峯無語。却回舉似師。師曰。汝更去問。待他有答。汝便噓兩聲。峯又去。依前問。石頭乃噓兩聲。峯又無語。回舉似師。師曰。向汝道石頭路滑。

○洪州廉使問曰。喫酒肉即是。不喫即是。師曰。若喫是中丞祿。不喫是中丞福。師入室弟子。一百三十九人。各為一方宗主。轉化無窮。

【評】【頌】師示疾。院主問。和尚近日尊候如何。師曰。日面佛。月面佛。

○龐居士問。不昧本來人。請師高著眼。師直下覷。士曰。一等沒絃琴。唯師彈得妙。師直上覷。士禮拜。師歸方丈。士隨後曰。適來弄巧成拙。

百丈懷海禪師

卅歲離塵。三學該練。屬大寂闡化江西。乃傾心依附。與西堂智藏南泉普願同號入室。時三大士。為角立焉。

【評】【頌】師侍馬祖行次。見一羣野鴨飛過。祖曰。是甚麼。師曰。野鴨子。祖曰。甚處去也。師曰。飛過去也。祖遂把師鼻擗。負痛失聲。祖曰。又道飛過去也。師於言下有省。

○次日馬祖陞堂。眾纔集。師出卷却席。祖便下座。師隨至方丈。祖曰。我適來未曾說話。汝為甚便卷却席。師曰。昨夜被和尚擗得鼻頭痛。祖曰。汝昨日向甚處留心。師曰。鼻頭今日又不痛也。祖曰。汝深明昨日事。師作禮而退。

【頌】師再參。侍立次。祖目視繩床角拂子。師曰。即此用。離此用。祖曰。汝向後開兩片皮。將何為人。師取拂子豎起。祖曰。即此用。離此用。師挂拂子於舊處。祖振威一喝。師直得三日耳聾。自此雷音將震。檀信請於洪州新吳界。住大雄山。以居處巖巒峻極。故號百丈。既處之。未朞月。參玄之賓。四方麇至。為山黃檗。當其首焉。一日師謂眾曰。佛法不是小事。老僧昔被馬大師一喝。直得三日耳聾。黃檗聞舉。不覺吐舌。師曰。子已後莫承嗣馬祖去麼。檗曰不然。今日因和尚舉。得見馬祖大機之用。然且不識馬祖。若嗣馬祖。已後喪我兒孫。師曰。如是如是。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授。子甚有超師之見。檗便禮拜。

【評】【頌】為山五峯雲巖。侍立次。師問為山。併却咽喉唇吻。作麼生道。山曰。却請和尚道。師曰。不辭向汝道。恐已後喪我兒孫。又問五峯。峯曰。和尚也須併却。師曰。無人處斫額望汝。又問雲巖。巖曰。和尚有也未。師曰。喪我兒孫。

【頌】上堂。有一老人隨眾聽法。眾退。唯老人不去。師問。汝是何人。曰某非人也。於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某云。不落因果。遂五百生墮野狐身。今請和尚代一轉語。貴脫野狐身。師曰。汝問。老人曰。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師曰。不昧因果。老人於言下大悟。作禮曰。某已脫野狐身。住在山後。敢乞依亡僧津送。師令維那。白椎告眾。食後送亡僧。大眾聚議。一眾皆安。涅槃堂又無病人。何故如是。食後。師領眾至山後巖下。以杖挑出一死野狐。乃依法火葬。師至晚上堂。舉前因緣。黃檗便問。古人錯祇對一轉語。墮五百生野狐身。轉轉不錯。合作個甚麼。師曰。近前來向汝道。檗近前打師一掌。師拍手笑曰。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為山舉問仰山。仰曰。黃檗常用此機。為曰。汝道天生得。從人得。仰曰。亦是稟受師承。亦是自性宗通。為曰。如是如是)。

【評】【頌】僧問。如何是奇特事。師曰。獨坐大雄峯。僧禮拜。師便打。

○上堂。靈光獨耀。迥脫根塵。體露真常。不拘文字。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僧問。如何是佛。師曰。汝是阿誰。曰某甲。師曰。汝識某甲否。曰分明個。師乃舉起拂子曰。汝還見麼。曰見。師乃不語。

【頌】普請鑿地次。忽有一僧聞鼓鳴。舉起鑿頭大笑便歸。師曰。俊哉。此是觀音入理之門。師歸院。乃喚其僧問。適來見甚麼道理便恁麼。曰適來肚飢。聞鼓聲歸喫飯。師乃笑。

○問。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如同魔說時如何。師曰。固守動靜。三世佛冤。此外別求。即同魔說。

○問。如何是大乘頓悟法要。師曰。汝等先歇諸緣。休息萬事。善與不善。世出世間。一切諸法。莫記憶。莫緣念。放捨身心。令其自在。心如木石。無所辨別。心無所行。心地若空。慧日自現。如雲開日出相似。但歇一切攀緣。貪嗔愛取。垢淨情盡。對五欲八風不動。不被見聞覺知所縛。不被諸境所惑。自然具足神通妙用。是解脫人。對一切境。心無靜亂。不攝不散。透過一切。聲色無有滯礙。名為道人。善惡是非。俱不運用。亦不愛一法。亦不捨一法。名為大乘人。不被一切善惡空有垢淨。有為無為。世出世間。福德智慧之所拘繫。名為佛慧。是非好醜。是理非理。諸知見情盡。不能繫縛。處處自在。名為初發心菩薩。便登佛地。

○問。如今受戒。身口清淨。已具諸善。得解脫否。師曰。少分解脫。未得心解脫。亦未得一切處解脫。曰如何是心解脫。及一切處解脫。師曰。不求佛法僧。乃至不求福智知解等。垢淨情盡。亦不守此無求為是。亦不住盡處。亦不欣天堂。畏地獄。縛脫無礙。即

身心及一切處。皆名解脫。汝莫言有少分戒。身口意淨。便以為
了。不知河沙戒定慧門。無漏解脫。都未涉一毫在。努力向前。須
猛究取。莫待耳聾眼暗。面皺髮白。老苦及身。悲愛纏綿。眼中流
淚。心裏悵惶。一無所據。不知去處。到甚麼時節。整理脚手不得
也。縱有福智名聞利養。都不相救。為心眼未開。唯念諸境不知返
照。復不見佛道。一生所有善惡業緣悉現於前。或忻或怖。六道五
蘊。俱時現前。盡敷嚴好舍宅。舟船車輦。光明顯赫。皆從自心貪
愛所現。一切惡境。皆變成殊勝之境。但隨貪愛重處。業識所引。
隨著受生。都無自由分。龍畜良賤亦總未定。

○問如何得自由分。師曰。如今得即得。或對五欲八風。情無取
捨。慳嫉貪愛。我所情盡。垢淨俱亡。如日月在空。不緣而照。心
心如木石。念念如救頭然。亦如香象渡河。截流而過。更無疑滯。
此人。天堂地獄所不能攝也。夫讀經看教語言。皆須宛轉。歸就自
己。但是一切言教。祇明如今鑒覺自性。但不被一切有無諸境轉。
是汝導師。能照破一切有無諸境。是金剛慧。即有自由獨立分。若
不能恁麼會得。縱然誦得十二韋陀典。祇成增上慢。却是謗佛。不
是修行。但離一切聲色。亦不住於離。亦不住於知解。是修行。讀
經看教。若准世間。是好事。若向明理人邊數。此是壅塞人。十地
之人脫不去。流入生死河。但是三乘教。皆治貪瞋等病。祇如今念
念若有貪瞋等病。先須治之。不用求覓義句知解。知解屬貪。貪變
成病。祇如今但離一切有無諸法。亦離於離。透過三句外。自然與
佛無差。既自是佛。何慮佛不解語。祇恐不是佛。被有無諸法縛。
不得自由。以理未立。先有福智。被福智載去。如賤使貴。不如先
立理。後有福智。若要福智。臨時作得。撮土成金。撮金成土。變
海水為酥酪。破須彌為微塵。攝四大海水入一毛孔。於一義作無量
義。於無量義作一義。伏惟尊重。

○師有時說法竟。大眾下堂。乃召之。大眾回首。師曰。是甚麼(藥山目之為百丈下堂句)。

○師凡作務執勞。必先於眾。主者不忍。密收作具。而請息之。師曰。吾無德。爭合勞於人。既徧求作具不獲。而亦忘食。故有一日不作。一日不食之語。流布寰宇矣。

南泉普願禪師

初習相部舊章。究毗尼篇聚。次遊諸講肆。歷聽楞伽。華嚴。入中百門觀。精鍊玄義。後扣大寂之室。頓然忘筌。得遊戲三昧。一日為眾僧行粥次。馬祖問。桶裏是甚麼。師曰。這老漢合取口。作恁麼語話。祖便休。自餘同參之流。無敢詰問。

○上堂。然燈佛道了也。若心相所思出生諸法。虛假不實。何以故。心尚無有。云何出生諸法。猶如形影。分別虛空。如人取聲。安置篋中。亦如吹網。欲令氣滿。故老宿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教你兄弟行履。據說十地菩薩住首楞嚴三昧。得諸佛祕密法藏。自然得一切禪定解脫。神通妙用。至一切世界。普現色身。或示現成等正覺。轉大法輪。入涅槃。使無量入毛孔。演一句經無量劫。其義不盡。教化無量億千眾生。證無生法忍。尚喚作所知愚。極微細所知愚。與道全乖。大難大難。珍重。

【頌】上堂曰。王老師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溪東牧。不免食他國王水草。擬向溪西牧。亦不免食他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

○師有書與茱萸曰。理隨事變。寬廓非外。事得理融。寂寥非內。僧達書了。便問萸。如何是寬廓非外。萸曰。問一答百也無妨。曰如何是寂寥非內。萸曰。覩對聲色。不是好手。僧又問長沙。沙瞪目視之。僧又進後語。沙乃閉目示之。僧又問趙州。州作喫飯勢。

僧又進後語。州以手作拭口勢。後僧舉似師。師曰。此三人不謬為吾弟子。

【頌】上堂。道個如如。早似變了也。今時師僧。須向異類中行。歸宗曰。雖行畜生行。不得畜生報。師曰。孟八郎漢。又恁麼去也。

【頌】上堂。文殊普賢。昨夜三更相打。每人與二十棒。趲出院去也。趙州曰。和尚棒教誰喫。師曰。且道王老師過在甚處。州禮拜而出。

【頌】師有時曰。江西馬祖。說即心即佛。王老師不恁麼道。不是心。不是佛。不是物。恁麼道。還有過麼。趙州禮拜而出。時有一僧。隨問趙州曰。上座禮拜便出。意作麼生。州曰。汝却問取和尚。僧乃問。適來諗上座。意作麼生。師曰。他却領得老僧意旨。

【頌】師問黃檗。定慧等學。明見佛性。此理如何。檗曰。十二時中。不依倚一物。師曰。莫是長老見處麼。檗曰。不敢。師曰。漿水錢且置。草鞋錢教阿誰還。

【評】【頌】師因東西兩堂爭貓兒。師遇之。白眾曰。道得則救取貓兒。道不得。即斬却也。眾無對。師便斬之。趙州自外歸。師舉前語示之。州乃脫履安頭上而出。師曰。子若在。即救得貓兒也。

【頌】有僧問訊。叉手而立。師曰。太俗生。其僧便合掌。師曰。太僧生。僧無對。

【評】【頌】師與歸宗麻谷。同去參禮南陽國師。師於路上畫一圓相。曰道得即去。宗便於圓相中坐。谷作女人拜。師曰。恁麼則不去也。宗曰。是甚麼心行。師乃相喚便回。更不去禮國師。

【頌】師在山上作務。僧問。南泉路向甚麼處去。師拈起鎌子曰。我這茆鎌子。三十錢買得。曰不問茆鎌子。南泉路向甚麼處去。師曰。我使得正快。

○僧問。即心是佛又不得。非心非佛又不得。師意如何。師曰。大德且信即心是佛便了。更說甚麼得與不得。祇如大德喫飯了。從東廊上。西廊下。不可總問人得與不得也。

【頌】師住庵時。有一僧到庵。師向伊道。我上山去作務。待齋時作飯自喫了。送一分上來。少時其僧自作飯喫了。却一時打破家事。就床臥。師待不見來。便歸庵見僧臥。師亦就伊邊臥。僧便起去。師住後曰。我往前住庵時。有箇靈利道者。直至如今不見。

【頌】陸亘大夫問。弟子家中有一片石。或時坐。或時臥。如今擬鐫作佛。還得否。師曰得。陸曰。莫不得否。師曰不得。

【頌】師因至莊所。莊主預備迎奉。師曰。老僧居常出入。不與人知。何得排辦如此。莊主曰。昨夜土地報道和尚今日來。師曰。王老師修行無力。被鬼神覷見。侍者便問。和尚既是善知識。為甚麼被鬼神覷見。師曰。土地前更下一分飯。(玄覺云。甚麼處是土地前。更下一分飯)。

【頌】第一座問。和尚百年後向甚麼處去。師曰。山下作一頭水牯牛去。座曰。某甲隨和尚去。還得也無。師曰。汝若隨我。即須銜取一莖草來。

【頌】師與魯祖杉山歸宗四人離馬祖處去。各住菴。於路分袂處。師插下拄杖曰。道得也被這個礙。道不得也被這個礙。歸宗拽拄杖打師一下曰。只是這個。王老師說甚麼礙與不礙。魯祖曰。只此一句。大播天下。宗曰。還有不播者麼。祖曰有。宗曰。作麼生是不播者。祖作掌勢【增收】。

鹽官齊安國師

【頌】僧問。如何是本身盧舍那。師曰。與老僧過淨瓶來。僧將淨瓶至。師曰。却安舊處著。僧送至本處。復來詰問。師曰。古佛過去久矣。

○有講僧來參。師問。座主蘊何事業。對曰。講華嚴經。師曰。有幾種法界。曰廣說則重重無盡。略說有四種。師豎起拂子。曰。這個是第幾種法界。主沉吟。師曰。思而知。慮而解。是鬼家活計。日下孤燈。果然失照。

【頌】僧問大梅。如何是西來意。大梅曰。西來無意。師聞乃曰。一個棺材兩個死漢(玄沙云。鹽官是作家)。

【評】【頌】師一日喚侍者曰。將犀牛扇子來。者曰破也。師曰。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者無對(投子代云。不辭將出。恐頭角不全)。

歸宗智常禪師

上堂。從上古德。不是無知解。他高尚之士。不同常流。今時不能自成自立。虛度時光。諸子莫錯用心。無人替汝。亦無汝用心處。莫就他覓。從前祇是依他解。發言皆滯。光不透脫。祇為目前有物。

【頌】僧問。如何是玄旨。師曰。無人能會。曰向者如何。師曰。有向即乖。曰不向者如何。師曰。誰求玄旨。又曰。去。無汝用心處。曰豈無方便門。令學人得入。師曰。觀音妙智力。能救世間苦。曰如何是觀音妙智力。師敲鼎蓋三下曰。子還聞否。曰聞。師曰。我何不聞。僧無語。師以棒趨下。

○師嘗與南泉同行。後忽一日相別。煎茶次。南泉問曰。從來與師兄商量語句。彼此已知。此後或有人問。畢竟事作麼生。師曰。這一片地。大好卓庵。泉曰。卓庵且置。畢竟事作麼生。師乃打翻茶鉢便起。泉曰。師兄喫茶了。普願未喫茶。師曰。作這個語話。滴水也難消。

【頌】師剗草次。有講僧來參。忽有一蛇過。師以鉏斷之。僧曰。久嚮歸宗。元來是個羸行沙門。師曰。你羸我羸。曰如何是羸。師豎起鉏頭。曰如何是細。師作斬蛇勢。曰與麼則依而行之。師曰。依而行之且置。你甚處見我斬蛇。僧無對。

【頌】僧辭。師問甚麼處去。曰諸方學五味禪去。師曰。諸方有五味禪。我這裡祇有一味禪。曰如何是一味禪。師便打。僧曰。會也會也。師曰。道道。僧擬開口。師又打。僧後到黃檗。舉前話。檗上堂曰。馬大師出八十四人善知識。問著個個厠漉漉地。祇有歸宗較些子。

【頌】江州刺史李渤問。教中所言。須彌納芥子。渤即不疑。芥子納須彌。莫是妄談否。師曰。人傳使君讀萬卷書籍。還是否。曰然。師曰。摩頂至踵。如椰子大。萬卷書向何處著。李俛首而已。

○李異日又問。一大藏教。明得個甚麼邊事。師舉拳示之曰。還會麼。曰不會。師曰。這個措大。拳頭也不識。曰請師指示。師曰。遇人即途中授與。不遇即世諦流布。師以目有重瞳。遂將藥手按摩。以致兩目俱赤。世號赤眼歸宗焉。

大梅法常禪師

初參大寂。問如何是佛。寂曰。即心是佛。師即大悟。遂之四明梅子真舊隱。縛茆燕處。

【頌】大寂聞師住山。乃令僧問。和尚見馬大師。得個甚麼。便住此山。師曰。大師向我道。即心是佛。我便向這裏住。僧曰。大師近日佛法又別。師曰。作麼生。曰又道非心非佛。師曰。這老漢惑亂人未有了日。任他非心非佛。我祇管即心即佛。其僧回舉似馬祖。祖曰。梅子熟也。

○上堂。汝等諸人。各自回心達本。莫逐其末。但得其本。其末自至。若欲識本。唯了自心。此心原是一切世間出世間法根本。故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心且不附一切善惡而生。萬法本自如如。

【頌】夾山與定山同行。言話次。定山曰。生死中無佛。即無生死。夾山曰。生死中有佛。即不迷生死。互相不肯。同上山見師。夾山便舉問。未審二人見處。那個較親。師曰。一親一疎。夾山復問那個親。師曰。且去明日來。夾山明日再上問。師曰。親者不問。問者不親(夾山住後。自云。當時失一隻眼)。

○忽一日謂其徒曰。來莫可抑。往莫。可追。從容問。聞鼯鼠聲。乃曰。即此物非他物。汝等諸人善自護持。吾今逝矣。言訖示滅。

佛光如滿禪師

唐順宗問。佛從何方來。滅向何方去。既言常住世。佛今在何處。師答曰。佛從無為來。滅向無為去。法身等虛空。常住無心處。有念歸無念。有住歸無住。來為眾生來。去為眾生去。清淨真如海。湛然體常住。智者善思惟。更勿生疑慮。帝又問。佛向王宮生。滅向雙林滅。住世四十九。又言無法說。山河與大海。天地及日月。時至皆歸盡。誰言不生滅。疑情猶若斯。智者善分別。師答曰。佛體本無為。迷情妄分別。法身等虛空。未曾有生滅。有緣無佛出。無緣佛入滅。處處化眾生。猶如水中月。非常亦非斷。非生

亦非滅。生亦未曾生。滅亦未曾滅。了見無心處。自然無法說。帝聞大悅。益重禪宗。

五洩靈默禪師

【頌】遠謁石頭。便問。一言相契即住。不契即去。石頭據坐。師便行。頭隨後召曰闍黎。師回首。頭曰。從生至死。祇是這箇。回頭轉腦作麼。師言下大悟。乃拗折拄杖而棲止焉。

○一日告眾曰。法身圓寂。示有去來。千聖同源。萬靈歸一。吾今漚散。胡假興哀。無自勞神。須存正念。若遵此命。真報吾恩。儻固違言。非吾之子。時有僧問。和尚向甚麼處去。師曰。無處去。曰某甲何不見。師曰。非眼所覩。(洞山云作家)言畢。奄然順化。

盤山寶積禪師

【頌】因於市肆行。見一客人買豬肉。語屠家曰。精底割一斤來。屠家放下刀。叉手曰。長史。那箇不是精底。師於此有省。

【頌】又一日出門。見人舁喪。謔郎振鈴云。紅輪決定沉西去。未審魂靈往那方。幕下孝子。哭曰哀哀。師忽身心踊躍。歸舉似馬祖。祖印可之。

【頌】上堂。夫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復是何物。禪德。譬如擲劍揮空。莫論及之不及。斯乃空輪無迹。劍刃無虧。若能如是。心心無知。全心即佛。全佛即人。人佛無異。始為道矣。

【頌】上堂。禪德。可中學道。似地擎山。不知山之孤峻。如石含玉。不知玉之無瑕。若如此者。是名出家。故導師云。法本不相礙。三際亦復然。無為無事人。猶是金鎖難。所以靈源獨耀。道絕

無生。大智非明。真空無迹。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涅槃。並為增語。禪德。直須自看。無人替代。

【評】【頌】上堂。三界無法。何處求心。四大本空。佛依何住。璿璣不動。寂爾無言。覲面相呈。更無餘事。珍重。

【頌】師將順世。告眾曰。有人邈得吾真否。眾將所寫真呈。皆不契師意。普化出曰。某甲邈得。師曰。何不呈似老僧。化乃打筋斗而出。師曰。這漢向後掣風狂去在。師且奄化。

麻谷寶徹禪師

【頌】問臨濟。大悲千手眼。那箇是正眼。濟曰。大悲千手眼。那箇是正眼。速道速道。師近前拽臨濟下禪床却坐。濟近前曰不審。師擬議。濟便喝。拽下禪床却坐。師便出去(出臨濟章)。

○師使扇次。僧問。風性常住。無處不周。和尚為甚麼却搖扇。師曰。你祇知風性常住。且不知無處不周。曰作麼生是無處不周底道理。師却搖扇。僧作禮。師曰。無用處師僧。著得一千個。有甚麼益。

東寺如會禪師

【頌】自大寂去世。師常患門徒以即心即佛之談。誦憶不已。且謂佛於何住而曰即心。心如畫師而云即佛。遂示眾曰。心不是佛。智不是道。劔去遠矣。爾方刻舟。時號東寺為禪窟焉。

【頌】仰山參。師問。汝是甚處人。仰曰。廣南人。師曰。我聞廣南有鎮海明珠是否。仰曰是。師曰。此珠如何。仰曰。黑月即隱。白月即現。師曰。還將得來也無。仰曰。將得來。師曰。何不呈似老僧。仰叉手近前曰。昨到瀉山。亦被索此珠。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師曰。真師子兒。善能哮吼。

西堂智藏禪師

一日大寂遣師詣長安。奉書于忠國師。國師問曰。汝師說甚麼法。師從東過西而立。國師曰。祇這箇。更別有。師却從西過東邊立。國師曰。這箇是馬祖底。仁者作麼生。師曰。早箇呈似和尚了也。

【評】【頌】僧問馬祖。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祖曰。我今日勞倦。不能為汝說得。問取智藏。其僧乃來問師。師曰。汝何不問和尚。僧曰。和尚令某甲來問。上座。師曰。我今日頭痛。不能為汝說得。問取海兄去。僧又去問海。(百丈和尚)海曰。我到這裏却不會。僧乃舉似馬祖。祖曰。藏頭白。海頭黑。

○馬祖一日問師曰。子何不看經。師曰。經豈異耶。祖曰。然雖如此。汝向後為人也須得。曰智藏病思自養。敢言為人。祖曰。子末年必興於世。師便禮拜。馬祖滅後。眾請開堂。

○李尚書嘗問僧。馬祖大師。有甚麼言教。僧曰。大師或說即心即佛。或說非心非佛。李曰。總過這邊。李却問師。馬大師有甚麼言教。師呼李翱。李應諾。師曰。鼓角動也。

【頌】僧問。有問有答。賓主歷然。無問無答時如何。師曰。怕爛却那(後有僧舉問長慶慶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

章敬懷暉禪師

上堂。至理亡言。時人不悉。強習他事。以為功能。不知自性。元非塵境。是箇微妙大解脫門。所有鑒覺。不染不礙。如是光明。未曾休廢。曩劫至今。固無變易。猶如日輪。遠近斯照。雖及眾色。不與一切和合。靈燭妙明。非假鍛鍊。為不了故。取於物像。但如捏目。妄起空花。徒自疲勞。枉經劫數。若能返照。無第二人。舉措施為。不虧實相。

【評】【頌】有僧來。遶師三匝。振錫而立。師曰是是。其僧又到南泉。亦遶南泉三匝。振錫而立。泉曰。不是不是。此是風力所轉。終成敗壞。僧曰。章敬道是。和尚為甚麼道不是。泉曰。章敬即是。是汝不是。

大珠慧海禪師

依越州大雲寺智和尚受業。初參馬祖。祖問。從何處來。曰越州大雲寺來。祖曰。來此擬須何事。曰來求佛法。祖曰。我這裡一物也無。求甚麼佛法。自家寶藏不顧。拋家散走作麼。曰阿那箇是慧海寶藏。祖曰。即今問我者是汝寶藏。一切具足。更無欠少。使用自在。何假外求。師於言下。自識本心。不由知覺。踊躍禮謝。師事六載。後以受業師老。遽歸奉養。乃晦迹藏用。外示癡訥。自撰頓悟入道要門論一卷。法姪玄晏。竊出江外呈馬祖。祖覽訖。告眾曰。越州有大珠圓明。光透自在。無遮障處也。時學侶漸多。日夜扣激。事不得已。隨問隨答。其辨無礙。

○僧問。如何是佛。師曰。清談對面非佛而誰。眾皆茫然。

○僧又問。如何得大涅槃。師曰。不造生死業。曰如何是生死業。師曰。求大涅槃是生死業。捨垢取淨是生死業。有得有證是生死業。不脫對治門是生死業。曰云何即得解脫。師曰。本自無縛。不用求解。直用直行。是無等等。

○有行者問。即心即佛。那箇是佛。師曰。汝疑那箇不是佛。指出看。者無對。師曰。達即徧境是。不悟永乖踈。

○律師法明謂師曰。禪師家多落空。師曰。却是座主家落空。明大驚曰。何得落空。師曰。經論是紙墨文字。紙墨文字者。俱是空設。於聲上建立名句等法。無非是空。座主執滯教體。豈不落空。

明曰。禪師落空否。師曰。不落空。明曰。何得却不落空。師曰。文字等皆從智慧而生。大用現前。那得落空。

○道流問。世間還有法過於自然否。師曰有。曰何法過得。師曰。能知自然者。曰元氣是道否。師曰。元氣自元氣。道自道。曰若如是者。則有二也。師曰。知無兩人。又問。云何為邪。云何為正。師曰。心逐物為邪。物從心為正。

○三藏法師問。真如有變易否。師曰。有變易。藏曰。禪師錯也。師却問三藏有真如否。曰有。師曰。若無變易。決定是凡僧也。豈不聞善知識者。能回三毒為三聚淨戒。回六識為六神通。回煩惱作菩提。回無明為大智。真如若無變易。三藏真是自然外道也。藏曰。若爾者。真如即有變易也。師曰。若執真如有變易。亦是外道。曰禪師適來說真如有變易。如今又道不變易。如何即是。師曰。若了了見性者。如摩尼珠現色。說變亦得。說不變亦得。若不見性人。聞說真如變易。便作變易解會。說不變易。便作不變易解會。藏曰。故知南宗實不可測。

○有問。儒釋道三教。同異如何。師曰。大量者用之即同。小機者執之即異。總從一性上起用。機見差別成三。迷悟由人。不在教之同異也。

洪州百丈惟政禪師

【評】【頌】師問南泉。諸方善知識。還有不說似人底法也無。曰有。師曰。作麼生。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師曰。恁麼則說似人了也。曰某甲即恁麼。和尚作麼生。師曰。我又不是善知識。爭知有說不說底法。曰某甲不會。請和尚說。師曰。我太煞與汝說了也。

泐潭法會禪師

【頌】師問馬祖。如何是祖師西來意。祖曰。低聲近前來。向汝道。師便近前。祖打一擱曰。六耳不同謀。且去。來日來。師至來日獨入法堂曰。請和尚道。祖曰。且去。待老漢上堂。出來問。與汝證明。師忽有省。遂曰。謝大眾證明。乃繞法堂一匝。便去。

杉山智堅禪師

【頌】初與歸宗南泉行脚時。路逢一虎。各從虎邊過了。泉問歸宗。適來見虎。似箇甚麼。宗曰。似箇猫兒。宗却問師。師曰。似箇狗子。又問南泉。泉曰。我見是箇大蟲(大滄智曰。三箇老漢。聚話寐語。若要徹。一時參取這大虫始得)。

【頌】師喫飯次。南泉收生飯。乃曰。生響。師曰無生。泉曰。無生猶是末。泉行數步。師召曰長老。泉回頭曰作麼。師曰。莫道是末。

石鞏慧藏禪師

初為獵人射鹿。因遇馬祖。令自射無下手處。省悟。師擲下弓箭。投祖出家。住後常以弓箭接機。

○一日在厨作務次。祖問作甚麼。曰牧牛。祖曰。作麼生牧。曰一回入草去。驀鼻拽將回。祖曰。子真牧牛。師便休(此章下有頌古一則。因機緣出自三平章內。故不著於此)。

北蘭讓禪師

湖塘亮長老問。承聞師兄畫得先師真。暫請瞻禮。師以兩手擘胸開示之。亮便禮拜。師曰。莫禮莫禮。亮曰。師兄錯也。某甲不禮師兄。師曰。汝禮先師真那。亮曰。因甚麼教莫禮。師曰。何曾錯。

南源道明禪師

洞山參。方上法堂。師曰。已相見了也。山便下去。明日却上問曰。昨日已蒙和尚慈悲。不知甚麼處是與某甲已相見處。師曰。心心無間斷。流入於性海。山曰。幾合放過。山辭。師曰。多學佛法。廣作利益。山曰。多學佛法即不問。如何是廣作利益。師曰。一物莫違。

中邑洪恩禪師

【頌】仰山問。如何得見佛性義。師曰。我與汝說箇譬喻。如一室有六窓。內有一獼猴。外有獼猴。從東邊喚猩猩。猩猩即應。如是六窓。俱喚俱應。仰山禮謝起曰。適蒙和尚譬喻。無不了知。更有一事。祇如內獼猴睡著。外獼猴欲與相見。又且如何。師下繩牀。執仰山手作舞曰。猩猩。與汝相見了也。

泐潭常興禪師

僧問。如何是宗乘極則事。師曰。秋雨草離披。

【頌】南泉至。見師面壁。乃拊師背。師問。汝是阿誰。曰普願。師曰如何。曰也尋常。師曰。汝何多事。

汾州無業禪師

每為眾僧講涅槃大部。冬夏無廢。後聞馬大師禪門鼎盛。特往瞻禮。祖覩其狀貌奇偉。語音如鐘。乃曰。巍巍佛堂。其中無佛。師禮跪而問曰。三乘文學。粗窮其旨。常聞禪門即心是佛。實未能了。祖曰。祇未了底心即是。更無別物。師曰。如何是祖師西來密傳心印。祖曰。大德正闕在。且去。別時來。師纔出。祖召曰大德。師回首。祖曰。是甚麼。師便領悟。乃禮拜。祖曰。這鈍漢。禮拜作麼。自得旨後。詣曹谿禮祖塔。及廬嶽天台。徧尋聖迹。後住開元精舍。

【頌】學者致問。多答之曰。莫妄想。

○唐憲宗屢召。辭疾不赴。暨 穆宗即位。師被詔。中夜告弟子惠愔等曰。汝等見聞覺知之性。與太虛同壽。不生不滅。一切境界。本自空寂。無一法可得。迷者不了。即為境惑。一為境惑。流轉不窮。汝等當知。心性本自有之。非因造作。猶如金剛。不可破壞。一切諸法。如影如響。無有實者。經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常了一切空。無一物當情。是諸佛用心處。汝等勤而行之。言訖。跏趺而逝。

大同澄禪師

【頌】僧問。如何是本來人。師曰。共坐不相識。曰恁麼則學人禮謝去也。師曰。暗寫愁腸寄與誰(此一則頌。見大同普濟。投子大同兩章。原機緣實在大同澄下。頌古恐非)。

鵝湖大義禪師

【頌】唐憲宗。嘗詔入內。於麟德殿論義。有法師問。欲界無禪。禪居色界。此土憑何而立。禪師曰。法師祇知欲界無禪。不知禪界無欲。曰如何是禪。師以手點空。法師無對。帝曰。法師講無窮經論。祇這一點尚不奈何。師却問諸碩德曰。行住坐臥。畢竟以何為道。有對知者是道。師曰。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安得知者是乎。有對無分別者是。師曰。善能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安得無分別是乎。有對四禪八定是。師曰。佛身無為。不墮諸散。安在四禪八定邪。眾皆杜口。師却舉 順宗問尸利禪師。大地眾生。如何得見性成佛。利曰。佛性猶如水中月。可見不可取。因謂帝曰。佛性非見必見。水中月如何攫取。帝乃問。何者是佛性。師對曰。不離陛下所問。帝默契真宗。益加欽重。

伏牛自在禪師

參馬祖。發明心地。祖令送書與忠國師。國師曰。馬大師以何法示徒。曰即心即佛。國師曰。是甚麼語話。良久又問曰。此外更有何言教。師曰。非心非佛。或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國師曰。猶較些子。師曰。馬大師即恁麼。未審和尚此間如何。國師曰。三點如流水。曲似刈禾鎌。

○上堂。即心即佛。是無病求藥句。非心非佛。是藥病對治句。僧問。如何是脫洒底句。師曰。伏牛山下古今傳。

興善惟寬禪師

僧問。如何是道。師曰。大好山。曰學人問道。師何言好山。師曰。汝祇識好山。何曾達道。

○問狗子還有佛性否。師曰有。曰和尚還有否。師曰。我無。曰一切眾生。皆有佛性。和尚因何獨無。師曰。我非一切眾生。曰既非眾生。莫是佛否。師曰。不是佛。曰究竟是何物。師曰。亦不是物。曰可見可思否。師曰。思之不及。議之不得。故曰不可思議。

○憲宗詔至闕下。侍郎白居易嘗問曰。既曰禪師。何以說法。師曰。無上菩提者。被於身為律。說於口為法。行於心為禪。應用者三。其致一也。譬如江河淮漢。在處立名。名雖不一。水性無二。律即是法。法不離禪。云何於中妄起分別。曰既無分別。何以修心。師曰。心本無損傷。云何要修理。無論垢與淨。一切勿念起。曰垢即不可念。淨無念可乎。師曰。如人眼睛上。一物不可住。金屑雖珍寶。在眼亦為病。曰無修無念。又何異凡夫耶。師曰。凡夫無明。二乘執著。離此二病。是曰真修。真修者。不得勤。不得忘。勤即近執著。忘即落無明。此為心要云爾。

○僧問。道在何處。師曰。祇在目前。曰我何不見。師曰。汝有我故。所以不見。曰我有我故即不見。和尚還見否。師曰。有汝有

我。展轉不見。曰無我無汝還見否。師曰。無汝無我。阿誰求見。

三角總印禪師

【頌】上堂。若論此事。眨上眉毛。早已蹉過也。麻谷便問。眨上眉毛即不問。如何是此事。師曰。蹉過也。谷乃掀倒禪牀。師便打。

魯祖寶雲禪師

【頌】尋常見僧來。便面壁。南泉聞曰。我尋常向師僧道。向佛未出世時會取。尚不得一箇半箇。他恁麼。驢年去(保福問長慶。祇如魯祖節文在甚麼處。被南泉恁麼道。長慶云。退己讓於人。萬中無一箇)。

芙蓉太毓禪師

龐居士問。馬大師著實為人處。還分付吾師否。師曰。某甲尚未見他。作麼生見他著實處。士曰。祇此見知。也無討處。師曰。居士也不得一向言說。士曰。一向言說。師又失宗。若作兩向三向。師還開得口否。師曰。直是開口不得。可謂實也。士撫掌而出。

紫玉道通禪師

僧問。如何出得三界去。師曰。汝在裏許得多少時也。曰如何出離。師曰。青山不礙白雲飛。

【頌】于頔相公問。如何是黑風吹其船舫。漂墮羅刹鬼國。師曰。于頔客作漢。問恁麼事作麼。于公失色。師乃指曰。這箇便是漂墮羅刹鬼國。

【頌】公又問。如何是佛。師喚相公。公應諾。師曰。更莫別求。

五臺隱峯禪師(即鄧隱峯)

【頌】師到南泉。觀眾僧參次。泉指淨餅曰。銀餅是境。餅中有水。不得動著境。與老僧將水來。師拈起淨餅向泉面前瀉。泉便休。

西園曇藏禪師

受心印於大寂。後謁石頭。瑩然明徹。出住西園。禪侶日盛。師一日自燒浴次。僧問。何不使沙彌。師撫掌三下(僧問曹山。西園撫掌。豈不是奴兒婢子邊事。山云是。云向上更有事也無。山曰有。云如何是向上事。山叱云。這奴兒婢子)。

楊岐甄叔禪師

上堂。羣靈一源。假名為佛。體竭形銷而不滅。金流朴散而常存。性海無風。金波自湧。心靈絕兆。萬象齊照。體斯理者。不言而徧歷沙界。不用而功益玄化。如何背覺。反合塵勞。於陰界中。妄自囚執。

○禪月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呈起數珠。月罔措。師曰會麼。曰不會。師曰。某甲參見石頭來。曰見石頭得何意旨。師指庭前鹿曰。會麼。曰不會。師曰。渠儂得自由。

馬頭神藏禪師

【頌】上堂。知而無知。不是無知。而說無知。便下座(南泉云。恁麼依師道。始道得一半。黃檗云。不是南泉駁他。要圓前話)。

華林善覺禪師

【頌】觀察使裴休訪之。問曰。還有侍者否。師曰。有一兩箇。祇是不可見客。裴曰。在甚麼處。師乃喚大空小空。時二虎自庵後而出。裴觀之驚悸。師語二虎曰。有客且去。二虎哮吼而去。裴問

曰。師作何行業。感得如斯。師乃良久曰。會麼。曰不會。師曰。山僧常念觀音。

濛谿和尚

僧問。本分事如何體悉。師曰。汝何不問。曰請師答話。師曰。汝却問得好。僧大笑而出。師曰。祇有這僧靈利。

○有僧從外來。師便喝。僧曰。好箇來由。師曰。猶要棒在。僧珍重便出。師曰。得能自在。

佛隴和尚

尋常見僧來。以拄杖卓地曰。前佛也恁麼。後佛也恁麼。問正恁麼時作麼生。師畫一圓相。僧作女人拜。師便打。

○問如何是異類。師敲碗曰。花奴花奴。喫飯來。

烏臼和尚

【頌】玄紹二上座參。師乃問。二禪客發足甚麼處。玄曰江西。師便打。玄曰。久知和尚有此機要。師曰。汝既不會。後面箇師僧祇對看。紹擬進前。師便打曰。信知同坑無異土。參堂去。

【評】【頌】問僧。近離甚處。曰定州。師曰。定州法道。何似這裏。曰不別。師曰。若不別。更轉彼中去。便打。僧曰。棒頭有眼。不得草草打人。師曰。今日打著一箇也。又打三下。僧便出去。師曰。屈棒元來有人喫在。曰爭奈杓柄在和尚手裏。師曰。汝若要。山僧回與汝。僧近前奪棒。打師三下。師曰。屈棒屈棒。曰有人喫在。師曰。草草打著個漢。僧禮拜。師曰。却與麼去也。僧大笑而出。師曰。消得恁麼。消得恁麼。

石臼和尚

【頌】初參馬祖。祖問甚麼處來。師曰。烏臼來。祖曰。烏臼近日有何言句。師曰。幾人於此茫然。祖曰。茫然且置。悄然一句作麼生。師乃近前三步。祖曰。我有七棒。寄打烏臼。你還甘否。師曰。和尚先喫。某甲後甘。

本谿和尚

【頌】因龐居士問。丹霞打侍者。意在何所。師曰。大老翁。見人長短在。士曰。為我與師同參。方敢借問。師曰。若恁麼。從頭舉來。共你商量。士曰。大老翁。不可共你說人是非。師曰。念翁年老。士曰。罪過罪過。

石林和尚

【頌】見龐居士來。乃豎起拂子曰。不落丹霞機。試道一句子。士奪却拂子。却自豎起拳。師曰。正是丹霞機。士曰。與我不落看。師曰。丹霞患瘧。龐公患聾。士曰。恰是。師無語。士曰。向道偶爾。

亮座主

【頌】頗講經論。因參馬祖。祖問。見說座主大講得經論。是否。師曰不敢。祖曰。將甚麼講。師曰。將心講。祖曰。心如工伎兒。意如和伎者。爭解講得。師抗聲曰。心既講不得。虛空莫講得麼。祖曰。却是虛空講得。師不肯。便出。將下堦。祖召曰座主。師回首。祖曰。是甚麼。師豁然大悟。便禮拜。祖曰。這鈍根阿師。禮拜作麼。師曰。某甲所講經論。將謂無人及得。今日被大師一問。平生功業。一時冰釋。

百靈和尚

一日與龐居士路次相逢。問曰。南嶽得力句。還曾舉向人也無。士曰。曾舉來。師曰。舉向甚麼人。士以手自指曰龐公。師曰。直是妙德空生。也讚嘆不及。士却問阿師得力句。是誰得知。師戴笠子便行。士曰。善為道路。師更不回首。

金牛和尚

【評】【頌】每日做飯供養眾僧。至齋時舁飯桶到堂前作舞。呵呵大笑曰。菩薩子。喫飯來。

利山和尚

僧問。眾色歸空。空歸何所。師曰。舌頭不出口。曰為甚麼不出口。師曰。內外一如故。

乳源和尚

【頌】上堂。西來的的意。不妨難道。眾中莫有道得者。出來試道看。時有僧出禮拜。師便打曰。是甚麼時節出頭來。便歸方丈(僧舉似長慶。慶云。不妨不妨。資福代云。為和尚不惜身命)。

松山和尚

【頌】同龐居士喫茶。士舉橐子曰。人人盡有分。為甚麼道不得。師曰。祇為人人盡有。所以道不得。士曰。阿兄為甚麼却道得。師曰。不可無言也。士曰。灼然灼然。師便喫茶。士曰。阿兄喫茶。為甚麼不揖客。師曰誰。士曰龐公。師曰。何須更揖。後丹霞聞。乃曰。若不是松山。幾被箇老翁惑亂一上。士聞之。乃令人傳語霞曰。何不會取未舉橐子時。

則川和尚

【頌】與龐居士摘茶次。士曰。法界不容身。師還見我否。師曰。不是老僧。洎答公話。士曰。有問有答。蓋是尋常。師乃摘茶不聽。士曰。莫怪適來容易借問。師亦不顧。士喝曰。這無禮儀老漢。待我一舉向明眼人。師乃拋却茶籃。便歸方丈。

【頌】師一日在方丈內坐。居士來見。乃曰。只知端居丈室。不覺僧到參。時師垂下一足。士便出。行三兩步却回。師乃收足。士曰。可謂自由自在。師曰。我是主。士曰。阿師只知有主。不知有客。師喚侍者點茶。士作舞而出(南堂興拈云。好則川亦好龐公。看他兩作家恁麼相見。如二龍玩寶。兩無相傷。所謂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到這裏。方知有自由自在分。且道是什麼得恁麼靈驗。良久。復頌云云)【增收】。

打地和尚

【頌】自江西領旨。常晦其名。凡學者致問。唯以棒打地示之。時謂之打地和尚。一日被僧藏却棒。然後致問。師但張其口。僧問門人曰。祇如和尚每日有人問。便打地。意旨如何。門人即於竈內取柴一片。擲在釜中。

秀谿和尚

【頌】谷山問。聲色純真。如何是道。師曰。亂道作麼。山却從東過西立。師曰。若不恁麼。即禍事也。山又從西過東立。師乃下禪牀方行兩步。被谷山捉住曰。聲色純真事。作麼生。師便打一掌。山曰。三十年後要箇人下茶也無在。師曰。要谷山這漢作甚麼。山呵呵大笑。

江西樺樹和尚

【頌】臥次。道吾近前牽被覆之。師曰作麼。吾曰蓋覆。師曰。臥底是。坐底是。吾曰。不在這兩處。師曰。爭奈蓋覆何。吾曰。莫

亂道。

水潦和尚

【頌】初參馬祖。問曰。如何是西來的的意。祖曰。禮拜著。師纔禮拜。祖乃當胸踏倒。師大悟。起來撫掌呵呵大笑曰。也大奇。也大奇。百千三昧。無量妙義。祇向一毫頭上識得根源去。禮拜而退。住後每告眾曰。自從一喫馬祖踏。直至如今笑不休。

浮杯和尚

【頌】凌行婆來禮拜。師與坐喫茶。婆乃問。盡力道不得底句。分付阿誰。師曰。浮杯無剩語。婆曰。未到浮杯。不妨疑著。師曰。別有長處。不妨拈出。婆斂手哭曰。蒼天中更忝冤苦。師無語。婆曰。語不知偏正。理不識倒邪。為人即禍生。後有僧舉似南泉。泉曰。苦哉浮杯。被這老婆摧折一上。婆後聞笑曰。王老師猶少機關在。澄一禪客。逢見行婆。便問。怎生是南泉猶少機關在。婆乃哭曰。可悲可痛。一罔措。婆曰會麼。一合掌而立。婆曰。伎死禪和。如麻似粟。一舉似趙州。州曰。我若見這臭老婆。問教口瘡。一曰。未審和尚怎生問他。州便打。一曰。為甚麼却打某甲。州曰。似這伎死漢。不打更待幾時。連打數棒。婆聞。却曰。趙州合喫婆手裡棒。後僧舉似趙州。州哭曰。可悲可痛。婆聞此語。合掌嘆曰。趙州眼光。爍破四天下。州令僧問。如何是趙州眼。婆乃豎起拳頭。僧回舉似趙州。州作偈曰。當機覲面提。覲面當機疾。報汝凌行婆。哭聲何得失。婆以偈答曰。哭聲師已曉。已曉復誰知。當時摩竭國。幾喪目前機。

龍山和尚

【頌】洞山與密師伯經由。見溪流菜葉。洞曰。深山無人。因何有菜隨流。莫有道人居否。乃共議撥草。溪行。五七里間。忽見師羸

形異貌。放下行李問訊。師曰。此山無路。闍黎從何處來。洞曰。無路且置。和尚從何而入。師曰。我不從雲水來。洞曰。和尚住此山多少時耶。師曰。春秋不涉。洞曰。和尚先住。此山先住。師曰。不知。洞曰。為甚麼不知。師曰。我不從人天來。洞曰。和尚得何道理。便住此山。師曰。我見兩箇泥牛鬪入海。直至于今絕消息。

龐蘊居士

【頌】唐貞元初。謁石頭。乃問。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頭以手掩其口。豁然有省。後與丹霞為友。一日石頭問曰。子見老僧以來。日用事作麼生。士曰。若問日用事。即無開口處。乃呈偈曰。日用事無別。唯吾自偶諧。頭頭非取捨。處處沒張乖。朱紫誰為號。丘山絕點埃。神通并妙用。運水及般柴。頭然之。曰子以緇邪素邪。士曰。願從所慕。遂不剃染。後參馬祖。問曰。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祖曰。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士於言下頓領玄旨。

【頌】有偈曰。有男不婚。有女不嫁。大家團欒頭。共說無生話。

【評】【頌】因辭藥山。山命十禪客相送至門首。士乃指空中雪曰。好雪。片片不落別處。有全禪客曰。落在甚處。士遂與一掌。全曰。也不得草草。士曰。恁麼稱禪客。闍羅老子未放你在。全曰。居士作麼生。士又掌曰。眼見如盲。口說如瘕。

【頌】龐行婆入鹿門寺設齋。維那請意旨。婆拈疏子插向髻後曰。回向了也。便出去。

【頌】士坐次。問靈照曰。古人道。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如何會。照曰。老老大大。作這箇語話。士曰。你作麼生。照曰。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士乃笑。

【頌】士將入滅。謂靈照曰。視日早晚。及午以報。照遽報曰已中矣。而有蝕也。士出戶觀次。靈照即登父座。合掌坐亡。士笑曰。我女鋒捷矣於是更延七日。

【頌】州牧于公頤問疾次。士謂之曰。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好住世間。皆如影響。言訖。枕于公膝而化。

(會元三卷終)

黃檗希運禪師

【頌】初遊天台。逢一僧。與之言笑。如舊相識。熟視之。目光射人。乃偕行。屬澗水暴漲。捐笠植杖而止。其僧率師同渡。師曰。兄要渡自渡。彼即褰衣躡波。若履平地。回顧曰。渡來渡來。師曰。咄。這自了漢。吾早知。當斫汝脛。其僧歎曰。真大乘法器。我所不及。言訖不見。

【頌】師在鹽官殿上禮佛次。時唐宣宗為沙彌。問曰。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長老禮拜。當何所求。師曰。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常禮如是事。彌曰。用禮何為。師便掌。彌曰。太麤生。師曰。這裏是甚麼所在。說麤說細。隨後又掌。

【頌】裴相國一日拓一尊佛於師前跪曰。請師安名。師召曰。裴休。公應諾。師曰。與汝安名竟。公禮拜。

【頌】師辭南泉。泉門送。提起師笠曰。長老身材沒量大。笠子太小生。師曰。雖然如此。大千世界。總在裏許。泉曰。王老師鬢。師戴笠便行。

【評】【頌】上堂。大眾雲集。乃曰。汝等諸人。欲何所求。以拄杖趁之。大眾不散。師却復坐曰。汝等諸人盡是嗜酒糟漢。恁麼行

脚。取笑於人。但見八百一千人處便去。不可圖他熱鬧也。老僧行脚時。或遇草根下。有一箇漢。便從頂門上一錐。看他若知痛痒。可以布袋盛米供養他。可中總似汝如此容易。何處更有今日事也。汝等既稱行脚。亦須著些精彩好。還知道大唐國內無禪師麼。時有僧問。諸方尊宿。盡聚眾開化。為甚麼却道無禪師。師曰。不道無禪。祇是無師。闍黎不見馬大師下。有八十餘人坐道場。得馬師正法眼者。止三兩人。廬山歸宗和尚是其一。夫出家人。須知有從上來事分始得。且如四祖下牛頭。橫說豎說。猶未知向上關捩子。有此眼目。方辯得邪正宗黨。且當人事宜。不能體會得。但知學言語。念向皮袋裡安著。到處稱我會禪。還替得汝生死麼。輕忽老宿。入地獄如箭。我纔見汝入門來。便識得了也。還知麼。急須努力。莫容易事持片衣口食。空過一生。明眼人笑汝。久後總被俗漢算將去在。宜自看遠近。是阿誰面上事。若會即便會。若不會即散去。珍重。

長慶大安禪師(號懶安)

造百丈。禮而問曰。學人欲求識佛。何者即是。丈曰。大似騎牛覓牛。師曰。識得後如何。丈曰。如人騎牛至家。師曰。未審始終如何保任。丈曰。如牧牛人。執杖視之。不令犯人苗稼。師自茲領旨。更不馳求。

○同參祐禪師。創居瀉山。師躬耕助道。及祐歸寂。眾請接踵住持。上堂。汝諸人總來就安求覓甚麼。若欲作佛。汝自是佛。擔佛傍家走。如渴鹿赴陽燄相似。何時得相應去。汝欲作佛。但無許多顛倒攀緣。妄想惡覺。垢淨眾生之心。便是初心正覺佛。更向何處別討。所以安在瀉山三十年來。喫瀉山飯。屙瀉山屎。不學瀉山禪。祇看一頭水牯牛。若落路入草。便把鼻孔拽轉來。纔犯人苗稼。即鞭撻。調伏既久。可憐生受人言語。如今變作箇露地白牛。常在面前。終日露迥迥地。趣亦不去。汝諸人各自有無價大寶。從

眼門放光。照見山河大地。耳門放光。領采一切善惡音響。如是六門。晝夜常放光明。亦名放光三昧。汝自不識取。影在四大身中。內外扶持。不教傾側。如人負重擔。從獨木橋上過。亦不教失脚。且道是甚麼物任持。便得如是。且無絲髮可見。豈不見誌公和尚云。內外追尋覓總無。境上施為渾大有。珍重。

○僧問。一切施為是法身用。如何是法身。師曰。一切施為是法身用。曰離却五蘊。如何是本來身。師曰。地水火風。受想行識。曰這箇是五蘊。師曰。這箇異五蘊。

○問此陰已謝。彼陰未生時如何。師曰。此陰未謝。那箇是大德。曰不會。師曰。若會此陰。便明彼陰。

○問佛在何處。師曰。不離心。

大慈寰中禪師

一日南泉至。問如何是庵中主。師曰。蒼天蒼天。泉曰。蒼天且置。如何是庵中主。師曰。會即便會。莫忉忉。泉拂袖而去。

【頌】上堂。山僧不解答話。祇能識病。時有僧出。師便歸方丈。

【頌】趙州問。般若以何為體。師曰。般若以何為體。州大笑而出。明日州掃地次。師曰。般若以何為體。州置帚拊掌大笑。師便歸方丈。

平田普岸禪師

【頌】臨濟訪師。到路口。先逢一嫂在田使牛。濟問嫂。平田路向甚麼處去。嫂打牛一棒曰。這畜生到處走。到此路也不識。濟又曰。我問你平田路向甚麼處去。嫂曰。這畜生。五歲尚使不得。濟心語曰。欲觀前人。先觀所使。便有抽釘拔楔之意。及見師。師

問。你還曾見我嫂也未。濟曰。已收下了也。師遂問。近離甚處。濟曰。江西黃檗。師曰。情知你見作家來。濟曰。特來禮拜和尚。師曰。已相見了也。濟曰。賓主之禮。合施三拜。師曰。既是賓主之禮。禮拜著。

○上堂。神光不昧。萬古徽猷。入此門來。莫存知解。便下座。

石霜性空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如人在千尺井中。不假寸繩。出得此人。即答汝西來意。曰近日湖南暢和尚出世。亦為人東語西話。師喚沙彌。拽出這死屍著(沙彌即仰山。山後問耽源。如何出得井中人。源曰。咄癡漢。誰在井中。山復問滄山。滄召慧寂。山應諾。滄曰。出也。仰山住後。常舉前語謂眾曰。我在耽源處得名。滄山處得地)。

福州古靈神贊禪師

本州大中寺受業。後行脚遇百丈。開悟。却回受業。本師問曰。汝離吾在外。得何事業。曰並無事業。遂遣執役。一日因澡身。命師去垢。師乃拊背曰。好所佛堂。而佛不聖。本師回首視之。師曰。佛雖不聖。且能放光。本師又一日在窓下看經。蜂子投窓紙求出。師覩之曰。世界如許廣闊不肯出。鑽他故紙。驢年去。遂有偈曰。空門不肯出。投窓也大痴。百年鑽故紙。何日出頭時。本師置經問曰。汝行脚遇何人。吾前後見汝發言異常。師曰。某甲蒙百丈和尚。指箇歇處。今欲報慈德耳。本師於是告眾致齋。請師說法。師乃登座。舉唱百丈門風。曰靈光獨耀。迥脫根塵。體露真常。不拘文字。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本師於言下感悟曰。何期垂老。得聞極則事。

和安通禪師

自幼寡言。時人謂之不語通。因禮佛次。有禪者問。座主禮底是甚麼。師曰是佛。禪者乃指像曰。這箇是何物。師無對。至夜具威儀禮問。今日所問。某甲未知意旨如何。禪者曰。座主幾夏邪。師曰十夏。禪者曰。還曾出家也未。師轉茫然。禪者曰。若也不會。百夏奚為。乃命同參馬祖。及至江西。祖已圓寂。遂謁百丈。頓釋疑情。有人問。師是禪師否。師曰。貧道不曾學禪。師良久召其人。其人應諾。師指椶櫚樹子。其人無對。

百丈涅槃和尚

【頌】一日謂眾曰。汝等與我開田。我與汝說大義。眾開田了。歸請說大義。師乃展兩手。眾罔措(頌見惟政)。

趙州觀音院(亦曰東院)從諗禪師

童稚從師披剃。未納戒。便抵池陽。參南泉。值泉偃息而問曰。近離甚處。師曰瑞像。泉曰。還見瑞像麼。師曰。不見瑞像。祇見臥如來。

【頌】泉便起坐。問汝是有主沙彌。無主沙彌。師曰。有主沙彌。泉曰。那箇是你主。師近前躬身曰。仲冬嚴寒。伏惟和尚。尊候萬福。泉器之。許其入室。

【頌】他日問泉曰。如何是道。泉曰。平常心是道。師曰。還可趣向也無。泉曰。擬向即乖。師曰。不擬爭知是道。泉曰。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覺。不知是無記。若真達不疑之道。猶如太虛。廓然蕩豁。豈可強是非邪。師於言下悟理。

【頌】師一日問泉曰。知有底人。向甚麼處去。泉曰。山前檀越家。作一頭水牯牛去。師曰。謝師指示。泉曰。昨夜三更月到窓。

○泉曰。今時人須向異類中行始得。師曰。異即不問。如何是類。泉以兩手拓地。師近前一踏踏倒。却向涅槃堂裏叫曰。悔悔。泉令侍者問。悔個甚麼。師曰。悔不更與兩踏。

【頌】師一日到茱萸。執拄杖於法堂上。從東過西。萸曰。作甚麼。師曰探水。萸曰。我這裏一滴也無。探箇甚麼。師以杖倚壁便下。

○上堂。如明珠在掌。胡來胡現。漢來漢現。老僧把一枝草為丈六金身用。把丈六金身為一枝草用。佛是煩惱。煩惱是佛。僧問。未審佛是誰家煩惱。師曰。與一切人煩惱。曰如何免得。師曰。用免作麼。

【頌】僧辭。師曰。甚處去。曰諸方學佛法去。師豎起拂子。曰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曰與麼則不去也。師曰。摘楊花摘楊花。

【評】【頌】僧問。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師曰。鎮州出大蘿蔔頭。

【評】【頌】上堂。金佛不度爐。木佛不度火。泥佛不度水。真佛內裏坐。菩提涅槃。真如佛性。盡是貼體衣服。亦名煩惱。實際理地。甚麼處著。一心不生。萬法無咎。汝但究理坐看。三二十年若不會。截去老僧頭去。夢幻空花。徒勞把捉。心若不異。萬法一如。既不從外得。更拘執作麼。如羊相似。亂拾物安向口裏。老僧見藥山和尚道。有人問著。但教合取狗口。老僧亦教合取狗口。取我是垢。不取我是淨。一似獵狗。專欲得物喫。佛法在甚麼處。千人萬人。盡是覓佛漢子。於中覓一箇道人無。若與空王為弟子。莫教心病最難醫。未有世界。早有此性。世界壞時。此性不壞。一從見老僧後。更不是別人。祇是箇主人公。這個更向外覓作麼。正恁

麼時。莫轉頭換腦。若轉頭換腦。即失却也。僧問。承師有言。世界壞時。此性不壞。如何是此性。師曰。四大五陰。曰此猶是壞底。如何是此性。師曰。四大五陰(法眼云。是一個兩個。是壞不壞。且作麼生會。試斷看)。

【頌】尼問。如何是密密意。師以手招之。尼曰。和尚猶有這箇在。師曰。却是你有這箇在。

【頌】有僧遊五臺。問一婆子曰。臺山路向甚麼處去。婆曰。驀直去。僧便去。婆曰。好箇師僧。又恁麼去。後有僧舉似師。師曰。待我去勘過。明日師便去問。臺山路向甚麼處去。婆曰。驀直去。師便去。婆曰。好箇師僧。又恁麼去。師歸院。謂僧曰。臺山婆子。為汝勘破了也。

【頌】有一婆子。令人送錢。請轉藏經。師受施利了。却下禪牀。轉一匝。乃曰。傳語婆。轉藏經已竟。其人回。舉似婆。婆曰。比來請轉全藏。如何祇為轉半藏。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庭前柏樹子。曰和尚莫將境示人。師曰。我不將境示人。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庭前柏樹子。

【評】【頌】上堂。至道無難。唯嫌揀擇。纔有語言。是揀擇。是明白。老僧不在明白裏。是汝還護惜也無。時有僧問。既不在明白裏。護惜箇甚麼。師曰。我亦不知。僧曰。和尚既不知。為甚道不在明白裏。師曰。問事即得。禮拜了退。

【評】【頌】別僧問。至道無難。唯嫌揀擇。是時人窠窟否。師曰。曾有人問我老僧。直得五年分踈不下。

【評】【頌】又問至道無難。唯嫌揀擇。如何是不揀擇。師曰。天上天下。唯我獨尊。曰此猶是揀擇。師曰。田廩奴。甚處是揀擇。僧無語。

【評】【頌】問至道無難。唯嫌揀擇。纔有語言。是揀擇。和尚如何為人。師曰。何不引盡此語。僧曰。某甲祇念得到這裏。師曰。至道無難。唯嫌揀擇。

【頌】問如何是道。師曰。牆外底。曰不問這箇。師曰。你問那箇。曰大道。師曰。大道透長安。

【頌】問如何是佛。師曰。殿裏底。

【頌】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示。師曰。喫粥了也未。曰喫粥了也。師曰。洗鉢盂去。其僧忽然省悟。

【頌】上堂。纔有是非。紛然失心。還有答話也無。僧舉似洛浦。浦扣齒。又舉似雲居。居曰。何必。僧回舉似師。師曰。南方大有人喪身失命。曰請和尚舉。師纔舉前話。僧指傍僧曰。這箇師僧喫却飯了。作恁麼語話。師休去。

【評】【頌】問久嚮趙州石橋。到來祇見略約。師曰。汝祇見略約。且不見石橋。曰如何是石橋。師曰。度驢度馬。

【頌】問狗子還有佛性也無。師曰無。曰上至諸佛。下至螻蟻。皆有佛性。狗子為甚麼却無。師曰。為伊有業識在。

【頌】師問新到。曾到此間麼。曰曾到。師曰。喫茶去。又問僧。僧曰。不曾到。師曰。喫茶去。後院主問曰。為甚麼曾到也云喫茶去。不曾到也云喫茶去。師召院主。主應諾。師曰。喫茶去。

【評】【頌】僧問。萬法歸一。一歸何所。師曰。老僧在青州作得一領布衫重七斤。

【頌】真定帥王公。携諸子入院。師坐而問曰。大王會麼。王曰不會。師曰。自小持齋身已老。見人無力下禪牀。王尤加禮重。翌日令客將傳語。師下禪牀受之。侍者曰。和尚見大王來。不下禪牀。今日軍將來。為甚麼却下禪牀。師曰。非汝所知。第一等人來。禪牀上接。中等人來。下禪牀接。末等人來。三門外接。

【頌】因侍者報大王來也。師曰。萬福大王。者曰。未到在。師曰。又道來也。

【頌】師到一庵主處。問有麼有麼。主豎起拳頭。師曰。水淺不是泊船處。便行。又到一庵主處。問有麼有麼。主亦豎起拳頭。師曰。能縱能奪。能殺能活。便作禮。

○上堂。正人說邪法。邪法悉皆正。邪人說正法。正法悉皆邪諸方難見易識。我這裏易見難識。

【評】【頌】僧問。如何是趙州。師曰。東門西門南門北門。

【評】【頌】問。初生孩子。還具六識也無。師曰。急水上打毬子。僧却問投子。急水上打毬子。意旨如何。子曰。念念不停留。

【頌】問和尚姓甚麼。師曰。常州有。曰甲子多少。師曰。蘇州有。

【頌】問十二時中。如何用心。師曰。汝被十二時辰使。老僧使得十二時。乃曰。兄弟莫久立。有事商量。無事向衣鉢下坐窮理好。老僧行脚時。除二時粥飯是雜用心處。除外更無別用心處。若不如是。大遠在。

長沙景岑禪師

上堂。我若一向舉揚宗教。法堂裏。須草深一丈。事不獲已。向汝諸人道。盡十方世界是沙門眼。盡十方世界是沙門全身。盡十方世界是自己光明。盡十方世界在自己光明裏。盡十方世界無一人不是自己。我常向汝諸人道。三世諸佛。法界眾生。是摩訶般若光。光未發時。汝等諸人向甚麼處委悉。光未發時。尚無佛無眾生消息。何處得山河國土來。時有僧問。如何是沙門眼。師曰。長長出不得。又曰。成佛成祖出不得。六道輪迴出不得。僧曰。未審出箇甚麼不得。師曰。晝見日夜見星。曰學人不會。師曰。妙高山色青又青。

【評】【頌】遊山歸。首座問。和尚甚處去來。師曰。遊山來。座曰。到甚麼處。師曰。始從芳草去。又逐落花回。座曰。大似春意。師曰。也勝秋露滴芙蓉。

○有客來謁。師召尚書。其人應諾。師曰。不是尚書本命。曰不可離却即今祇對。別有第二主人。師曰。喚尚書作至尊得麼。曰恁麼總不祇對時。莫是弟子主人否。師曰。非但祇對與不祇對時。無始劫來。是箇生死根本。有偈曰。學道之人不識真。祇為從來認識神。無量劫來生死本。癡人喚作本來人。

【頌】有秀才看千佛名經。問曰。百千諸佛。但見其名。未審居何國土。還化物也無。師曰。黃鶴樓。崔顥題後。秀才還曾題也未。曰未曾。師曰。得閒題取一篇好。

○皓月供奉問。天下善知識。證三德涅槃也未。師曰。大德問果上涅槃。因中涅槃。曰問果上涅槃。師曰。天下善知識未證。曰為甚麼未證。師曰。功未齊於諸聖。曰功未齊於諸聖。何為善知識。師曰。明見佛性。亦得名為善知識。曰未審功齊何道。名證大涅槃。

師示偈曰。摩訶般若照。解脫甚深法。法身寂滅體。三一理圓常。欲識功齊處。此名常寂光。曰果上三德涅槃。已蒙開示。如何是因中涅槃。師曰。大德是月。

○僧問。如何是平常心。師曰。要眠即眠。要坐即坐。曰學人不會。師曰。熱即取涼。寒即取火。

○問和尚繼嗣何人。師曰。我無人得繼嗣。曰還參學也無。師曰。我自參學。曰師意如何。師有偈曰。虛空問萬象。萬象答虛空。誰人親得聞。木叉卅角童。

【頌】師與仰山翫月次。山曰。人人盡有這箇。祇是用不得。師曰。恰是倩汝用。山曰。你作麼生用。師劈胸與一踏。山曰。因。直下是箇大蟲。自此諸方稱為岑大蟲。

【頌】三聖令秀上座問曰。南泉遷化向甚麼處去。師曰。石頭作沙彌時。參見六祖。秀曰。不問石頭見六祖。南泉遷化向甚麼處去。師曰。教伊尋思去。秀曰。和尚雖有千尺寒松。且無抽條石筍。師默然。秀曰。謝和尚答話。師亦默然。秀回舉似三聖。聖曰。若恁麼。猶勝臨濟七步。然雖如此。待我更驗看。至明日。三聖上問。承聞和尚。昨日答南泉遷化一則語。可謂光前絕後。今古罕聞。師亦默然。

○僧問。色即是空。空即是色。此理如何。師曰。聽老僧偈。礙處非墻壁。通處沒虛空。若人如是解。心色本來同。又云。佛性堂堂顯現。住性有情難見。若悟眾生無我。我面何如佛面。

○問蚯蚓斷為兩段。兩頭俱動。未審佛性在阿那頭。師曰。妄想作麼。曰其如動何。師曰。汝豈不知火風未散。

【頌】問如何轉得山河國土歸自己去。師曰。如何轉得自己成山河國土去。曰不會。師曰。湖南城下好養民。米賤柴多足四鄰。僧無語。師示偈曰。誰問山河轉。山河轉向誰。圓通無兩畔。法性本無歸。

○華嚴座主問。虛空為是定有。為是定無。師曰。言有亦得。言無亦得。虛空有時。但有假有。虛空無時。但無假無。曰如和尚所說。有何教文。師曰。大德豈不聞首楞嚴云。十方虛空。生汝心內。猶如片雲。點太清裏。豈不是虛空生時。但生假名。又云。汝等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豈不是虛空滅時。但滅假名。老僧所以道。有是假有。無是假無。又問。經云如淨瑠璃中。內現真金像。此意如何。師曰。以淨瑠璃為法界體。以真金像為無漏智。體能生智。智能達體。故云。如淨瑠璃中。內現真金像。

○久依南泉。有投機偈曰。今日還鄉入大門。南泉親道徧乾坤。法法分明皆祖父。回頭慚愧好兒孫。泉答曰。今日投機事莫論。南泉不道徧乾坤。還鄉盡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

【頌】僧問。了即業障本來空。未了應須還宿債。只如二祖。是了不了。師曰空。又問雲門。門曰確(大滄秀云。長沙空。雲門確。信手拈。非造作。離心意識參。出聖凡路學。纔有絲毫。騰蛇繞脚)【增收】。

茱萸和尚

【頌】趙州到雲居。居曰。老老大大。何不覓箇住處。曰甚麼處住得。居曰。山前有箇古寺基。州曰。和尚自住取。後到師處。師曰。老老大大。何不覓箇住處。州曰。向甚處住。師曰。老老大大。住處也不知。州曰。三十年弄馬騎。今日却被驢撲(頌見趙州章內)。

子湖利縱禪師

【頌】因邑人翁遷貴。施山下子湖創院。師於門下立碑曰。子湖有一隻狗。上取人頭。中取人心。下取人足。擬議即喪身失命。臨濟會下二僧參。方揭簾。師喝曰看狗。僧回顧。師便歸方丈。

○尼到參。師曰。汝莫是劉鐵磨否。曰不敢。師曰。左轉右轉。曰和尚莫顛倒。師便打。

白馬曇照禪師

【頌】常曰。快活快活。及臨終時叫苦苦。又曰。閻羅王來取我也。院主問曰。和尚當時被節度使拋向水中。神色不動。如今何得恁麼地。師舉枕头曰。汝道當時是。如今是。院主無對(法眼代云。此時但掩耳出去)。

雲際師祖禪師

【頌】初參南泉。問摩尼珠人不識。如來藏裡親收得。如何是藏。泉曰。與汝往來者是。師曰。不往來者如何。泉曰亦是。曰如何是珠。泉召師祖。師應諾。泉曰。去。汝不會我語。師從此信入。

香巖端禪師

上堂。兄弟。彼此未了。有甚麼事相共商量。我三五日即發去也。如今學者。須了却今時。莫愛他向上人無事。兄弟總學得種種差別義路。終不代得自己見解。畢竟著力始得。空記持他巧妙章句。即轉加煩亂去。汝若欲相應。但恭恭地。盡莫停留纖毫。直似虛空。方有少分。以虛空無鎖閉。無壁落。無形段。無心眼。時有僧問。古人相見時如何。師曰。老僧不曾見古人。曰今時血脉不斷處。如何仰羨。師曰。有甚麼仰羨處。

○問某不問閑事。請和尚答話。師曰。更從我覓甚麼。曰不為閑事。師曰。汝教我道。乃曰。兄弟。佛是塵。法是塵。終日馳求。有甚麼休歇。但時中不用挂情。情不挂物。無善可取。無惡可棄。莫教他籠罩著。始是學處也。

○問某甲曾辭一老宿。宿曰。去則親良朋。附善友。某今辭和尚。未審有何指示。師曰。禮拜著。僧禮拜。師曰。禮拜一任禮拜。不得認奴作郎。

靈鷲閑禪師

上堂。是汝諸人本分事。若教老僧道。即是與蛇畫足。時有僧問。與蛇畫足即不問。如何是本分事。師曰。闍黎試道看。僧擬再問。師曰。畫足作麼。

蘇州西禪和尚

僧問。三乘十二分教則不問。如何是祖師西來的的意。師舉拂子示之。其僧不禮拜。竟參雪峯。峯問。甚麼處來。曰浙中來。峯曰。今夏甚麼處。曰西禪。峯曰。和尚安否。曰來時萬福。峯曰。何不且在彼從容。曰佛法不明。峯曰。有甚麼事。僧舉前話。峯曰。汝作麼生不肯伊。曰是境。峯曰。汝見蘇州城裏人家男女否。曰見。峯曰。汝見路上林木池沼否。曰見。峯曰。凡覩人家男女大池林沼。總是境。汝還肯否。曰肯。峯曰。祇如舉起拂子。汝作麼生不肯。僧乃禮拜。曰學人取次發言。乞師慈悲。峯曰。盡乾坤是箇眼。汝向甚麼處蹲坐。僧無語。

陸亘大夫

【評】【頌】問南泉曰。肇法師也甚奇怪。解道天地同根。萬物一體。泉指庭前牡丹曰。大夫。時人見此一株花。如夢相似(此機緣按

會元。見南泉章)。

甘贄行者

【頌】一日入南泉設齋。黃檗為首座。行者請施財。座曰。財法二施。等無差別。甘曰。恁麼道。爭消得某甲覷。便將出去。須臾復入。曰請施財。座曰。財法二施。等無差別。甘乃行覷。

【頌】又一日入寺設粥。仍請南泉念誦。泉乃白椎曰。請大眾為狸奴白牯。念摩訶般若波羅蜜。甘拂袖便出。泉粥後問典座。行者在甚處。座曰。當時便去也。泉便打破鍋子。

關南道常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舉拄杖曰會麼。曰不會。師便打。師每見僧來參禮。多以拄杖打趂。或曰。遲一刻。或曰。打動關南鼓。而時輩鮮有唱和者。

雙嶺玄真禪師

初問道吾。無神通菩薩。為甚麼足跡難尋。吾曰。同道者方知。師曰。和尚還知否。吾曰不知。師曰。何故不知。吾曰。去。你不識我語。師後於鹽官處悟旨焉。

徑山鑑宗禪師

有小師洪謹。以講論自矜。師謂之曰。佛祖正法。直截忘詮。汝算海沙。於理何益。但能莫存知見。泯絕外緣。離一切心。即汝真性。謹茫然。遂禮辭遊方。至滄山方悟玄旨。乃嗣滄山。

芙蓉靈訓禪師

【頌】師辭歸宗。宗問。甚麼處去。師曰。歸嶺中去。宗曰。子在此多年。裝束了。却來為子說一上佛法。師結束了上去。宗曰。近前來。師乃近前。宗曰。時寒。途中善為。師領此言。頓忘前解。

新羅大茅和尚

上堂。欲識諸佛師。向無明心內識取欲識常住不凋性。向萬物遷變處識取。

五臺智通禪師(自稱大〔神〕佛)

【頌】初在歸宗會下。忽一夜連叫曰。我大悟也。眾駭之。明日上堂。眾集。宗曰。昨夜大悟底僧出來。師出曰某甲。宗曰。汝見甚麼道理。便言大悟。試說看。師曰。師姑元是女人作。宗異之。師便辭去。宗門送。與提笠子。師接得笠子。戴頭上便行。更不回顧。臨終有偈曰。舉手攀南斗。回身倚北辰。出頭天外看。誰是我般人。

杭州天龍和尚

上堂。大眾莫待老僧來上便上來。下去便下去。各有華藏性海。具足功德無礙光明。各各參取。

杭州刺史白居易

久參佛光。得心法。兼稟大乘金剛寶戒。(云云)凡守任處。多訪祖道。學無常師。

鎮州普化和尚

【頌】師事盤山。密授真訣。而佯狂出言無度。暨盤山順世。乃於北地行化。或城市。或塚間。振一鐸曰。明頭來明頭打。暗頭來暗

頭打。四方八面來。旋風打。虛空來連架打。一日臨濟令僧捉住曰。總不恁麼來時如何。師拓開曰。來日大悲院裏有齋。僧回舉似濟。濟曰。我從來疑著這漢。凡見人無高下。皆振鐸一聲。

【頌】臨濟一日與河陽木塔長老。同在僧堂內坐。正說師每日在街市掣風掣顛。知他是凡是聖。師忽入來。濟便問。汝是凡是聖。師曰。汝且道。我是凡是聖。濟便喝。師以手指曰。河陽新婦子。木塔老婆禪。臨濟小廝兒。却具一隻眼。濟曰這賊。師曰賊賊。便出去。

壽州良遂禪師

【頌】參麻谷。谷見來。便將鋤頭去鋤草。師到鋤草處。谷殊不顧。便歸方丈閉却門。師次日復去。谷又閉門。師乃敲門。谷問阿誰。師曰良遂。纔稱名。忽然契悟。曰和尚莫謾良遂。良遂若不來禮拜和尚。洎被經論賺過一生。谷便開門相見。及歸講肆。謂眾曰。諸人知處。良遂總知。良遂知處。諸人不知。

薯山慧超禪師

洞山來禮拜次。師曰。汝已住一方。又來這裏作麼。曰良价無奈疑何。特來見和尚。師召良价。价應諾。師曰。是甚麼。价無語。師曰。好箇佛。祇是無光燄。

虔州處微禪師

僧問。三乘十二分教。體理得妙。與祖意是同是別。師曰。須向六句外鑒。不得隨聲色轉。曰如何是六句。師曰。語底。默底。不語。不默。總是。總不是。汝合作麼生。僧無對。

薦福弘辯禪師

唐宣宗問。云何名戒。對曰。防非止惡謂之戒。帝曰。云何為定。對曰。六根涉境。心不隨緣名定。帝曰。云何為慧。對曰。心境俱空。照覺無惑名慧。帝曰。何為方便。對曰。方便者。隱實覆相。權巧之門也。被接中下。曲施誘迪。謂之方便。設為上根。言捨方便但說無上道者。斯亦方便之談。乃至祖師玄言。忘功絕調。亦無出方便之迹。帝曰。何為佛心。對曰。佛者西天之語。唐言覺。謂人有智慧覺照為佛心。心者佛之別名。有百千異號。體唯其一。無形狀。非青黃赤白。男女等相。在天非天。在人非人。而現天現人。能男能女。非始非終。無生無滅。故號靈覺之性。如陛下日應萬機。即是陛下佛心。假使千佛共傳。而不念別有所得也。帝曰。如今有人念佛如何。對曰。如來出世。為天人師。善知識。隨根器而說法。為上根者開最上乘。頓悟至理。中下者。未能頓曉。是以佛為韋提希。權開十六觀門。令念佛生於極樂。故經云。是心作佛。是心是佛。心外無佛。佛外無心。帝曰。有人持經念佛。持呪求佛如何。對曰。如來種種開讚。皆為最上一乘。如百川眾流。莫不朝宗于海。如是差別諸數。皆歸薩婆若海。帝曰。祖師既契會心印。金剛經云。無所得法如何。對曰。佛之一化。實無一法與人。但示眾人。各各自性。同一法藏。當時然燈如來。但印釋迦本法而無所得。方契然燈本意。故經云。無我無人。無眾生無壽者。是法平等。修一切善法。不住於相。帝曰。禪師既會祖意。還禮佛轉經否。對曰。沙門釋子。禮佛轉經。蓋是住持常法。有四報焉。然依佛戒修身。參尋知識。漸修萬行。履踐如來所行之跡。帝曰。何為頓見。何為漸修。對曰。頓明自性。與佛同儔。然有無始染習。故假漸修對治。令順性起用。如人喫飯。不一口便飽。師是日辯對七刻。賜紫方袍。號圓智禪師。

朗州古隄和尚

仰山到參。師曰。去。汝無佛性。山叉手近前三步。應喏。師笑曰。子甚麼處得此三昧來。山曰。我從耽源處得名。瀉山處得地。師曰。莫是瀉山的子麼。山曰。世諦即不無。佛法即不敢。山却問。和尚從甚麼處得此三昧。師曰。我從章敬處得此三昧。山歎曰。不可思議。來者難為湊泊。

河中府公畿和尚

【頌】因往羅漢路。路逢一騎牛翁。師曰。羅漢路向什麼處去。翁拍牛云。道道。師喝曰。這畜生。翁曰。羅漢路向什麼處去。師却拍牛曰。道道。翁曰。直饒與麼。猶少蹄角在。師便打。翁便拍牛走【增收】。

祕魔巖和尚

【頌】常持一木叉。每見僧來禮拜。即叉却頸曰。那箇魔魅。教汝出家。那箇魔魅。教汝行脚。道得也叉下死。道不得也叉下死。速道速道。學徒鮮有對者。霍山通和尚訪師。纔見不禮拜。便攬入懷裏。師拊通三下。通起拍手曰。師兄三千里外賺我來。三千里外賺我來。便回。

湖南祇林和尚

【頌】每叱文殊普賢。皆為精魅。手持木劍。自謂降魔。纔見僧來參。便曰。魔來也。魔來也。以劍亂揮歸方丈。如是十二年後。置劍無言。僧問。十二年前。為甚麼降魔。師曰。賊不打貧兒家。曰十二年後。為甚麼不降魔。師曰。賊不打貧兒家。

黃州齊安禪師

僧問如何識得自己佛。師曰。一葉明時消不盡。松風韻罷怨無人。曰如何是自己佛。師曰。草前駿馬實難窮。妙盡還須畜生行。

睦州陳尊宿

持戒精嚴。學通三藏。遊方契旨於黃檗。後為四眾請住觀音院。常百餘眾。經數十載。

【頌】學者叩激。隨問遽答。詞語峻險。既非循轍。故淺機之流。往往嗤之。唯玄學性敏者欽伏。由是諸方歸慕。咸以尊宿稱。後歸開元。居房織蒲鞋以養母。故有陳蒲鞋之號。或見講僧。乃召曰座主。主應諾。師曰。擔板漢。

【頌】一日晚參。謂眾曰。汝等諸人。還得箇入頭處也未。若未得箇入頭處。須覓箇入頭處。若得箇入頭處。已後不得孤負老僧。時有僧出禮拜曰。某甲終不敢孤負和尚。師曰。早是孤負我了也。又曰。明明向你道。尚自不會。何況蓋覆將來。

【頌】師見僧。乃曰。現成公案。放汝三十棒。曰某甲如是。師曰。三門頭金剛。為甚麼舉拳。曰金剛尚乃如是。師便打。

○問如何是向上一路。師曰。要道有甚麼難。曰請師道。師曰。初三十一。中九下七。

【頌】問以一重去一重即不問。不以一重去一重時如何。師曰。昨朝栽茄子。今日種冬瓜。

○問。某甲講兼行脚。不會教意時如何。師曰。灼然實語當懺悔。曰乞師指示。師曰。汝若不問老僧。即緘口無言。汝既問老僧。不可緘口去也。曰請師便道。師曰。心不負人。面無慚色。

【頌】問高揖釋迦。不拜彌勒時如何。師曰。昨日有人問。趁出了也。曰和尚恐某甲不實那。師曰。拄杖不在。苕帚柄聊與三十。

【評】【頌】問僧。近離甚處。僧便喝。師曰。老僧被你一喝。僧又喝。師曰。三喝四喝後作麼生。僧無語。師便打曰。這掠虛漢。

【頌】秀才訪師。稱會二十四家書。師以拄杖空中點一點曰。會麼。秀才罔措。師曰。又道會。二十四家書。永字八法也不識。

【頌】上堂。裂開也在我。捏聚也在我。時有僧問。如何是裂開。師曰。三九二十七。菩提涅槃。真如解脫。即心即佛。我且與麼道。你又作麼生。曰某甲不與麼道。師曰。盞子撲落地。碟子成七片。曰如何捏聚。師乃斂手而坐。

【頌】師看經次。陳操尚書問。和尚看甚麼經。師曰。金剛經。書曰。六朝翻譯。此當第幾。師舉起經曰。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

【頌】師問秀才。先輩治甚經。才曰治易。師曰。易中道。百姓日用而不知。且道不知箇甚麼。才曰。不知其道。師曰。作麼生是道。才無對。

【頌】示眾曰。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亦如喪考妣(千峯琬頌云。楊子江頭波浪深。行人到此盡沉吟。他時若到無波處。還似有波時用心)

【增收】。

千頃楚南禪師

參黃檗。檗問。子未現三界影像時如何。師曰。即今豈是有耶。檗曰。有無且置。即今如何。師曰。非今古。檗曰。吾之法眼。已在汝躬。

○上堂。諸子設使解得三世佛教。如餅注水。及得百千三昧。不如一念修無漏道。免被人天因果繫絆。時有僧問。無漏道如何修。師

曰。未有闍黎時體取。曰未有某甲時。教誰體。師曰。體者亦無。

烏石靈觀禪師

尋常扃戶。人罕見之。唯一信士。每至食時送供方開。

【頌】一日雪峯伺便扣門。師開門。峯驀胸搗住曰。是凡是聖。師唾曰。這野狐精。便推出閉却門。峯曰。也祇要識老兄。

○僧到敲門。行者開門便出去。僧入禮拜。問如何是西來意。師曰。適來出去者是甚麼人。僧擬近前。師便推出。閉却門。

【頌】曹山行脚時。問如何是毗盧師。法身主。師曰。我若向你道。即別有也。曹山舉似洞山。山曰。好箇話頭。祇欠進語。何不問為甚麼不道。曹却來進前語。師曰。若言我不道。即瘞却我口。若言我道。即謦却我舌。曹山歸。舉似洞山。山深肯之。

羅漢宗徹禪師

上堂。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骨剗也。

○問如何是南宗北宗。師曰。心為宗。曰還看教也無。師曰。教是心。

○問性地多昏。如何了悟。師曰。煩雲風卷。太虛廓清。曰如何得明去。師曰。一輪皎潔。萬里騰光。

相國裴休居士

【頌】守新安日。屬運禪師。初於嶺南黃檗山。捨眾。入大安精舍。混迹勞侶。掃洒殿堂。公入寺燒香。主事祇接。因觀壁畫。乃問是何圖相。主事對曰。高僧真儀。公曰。真儀可觀。高僧何在。主事無對。公曰。此間有禪人否。曰近有一僧。役寺執役。頗似禪

者。公曰。可請來詢問得否。於是遽尋檠至。公覩之欣然曰。休適有一問。諸德吝辭。今請上人代酬一語。檠曰。請相公垂問。公舉前話。檠朗聲曰。裴休。公應諾。檠曰。在甚麼處。公當下知旨。如獲髻珠。曰吾師真善知識也。示人尅的若是。何故汨沒於此乎。寺眾愕然。自此延入府署。執弟子禮。屢辭不己。復堅請住黃檗山。荐興祖道。仍集黃檗語要。親書序引。

大隨法真禪師

南遊。初見藥山。道吾。雲巖。洞山。次至嶺外大瀉會下數載。食不至充。臥不求暖。清苦鍊行。操履不羣。瀉深器之。一日問曰。闍黎在老僧此間。不曾問一轉話。師曰。教某甲向甚麼處下口。瀉曰。何不道。如何是佛。師便作手勢掩瀉口。瀉歎曰。子真得其髓。

○上堂。此性本來清淨。具足萬德。但以染淨二緣。而有差別。故諸聖悟之。一向淨用。而成覺道。凡夫迷之。一向染用。沒溺輪回。其體不二。故般若云。無二無別分。無別無斷故。

【評】【頌】僧問。劫火洞然。大千俱壞。未審這箇壞不壞。師曰。壞。曰恁麼則隨他去也。師曰。隨他去。僧不肯。後到投子。舉前話。子遂裝香遙禮曰。西川古佛出世。謂其僧曰。汝速回去懺悔。僧回大隨。師已歿。僧再至投子。子亦遷化。

【頌】庵側有一龜。僧問。一切眾生皮裹骨。這箇眾生為甚骨裹皮。師拈草履覆龜背上。僧無語。

【頌】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赤土畫簸箕。曰未審此理如何。師曰。簸箕有唇。米跳不出。

○問僧。講甚麼教法。曰百法論。師拈杖曰。從何而起。曰從緣而起。師曰。苦哉苦哉。

靈樹如敏禪師

僧問。佛法至理如何。師展手而已。

【頌】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千年田。八百主。曰如何是千年田。八百主。師曰。郎當屋舍沒人修。

靈雲志勤禪師

【頌】初在瀉山。因見桃花悟道。有偈曰。三十年來尋劍客。幾回落葉又抽枝。自從一見桃花後。直至如今更不疑。瀉覽偈。詰其所悟。與之符契。瀉曰。從緣悟達。永無退失。善自護持。

○上堂。諸仁者。所有長短。盡在不常。且觀四時草木。葉落花開。何況塵劫來。天人七趣。地水火風。成壞輪轉。因果將盡。三惡道苦。毛髮不曾添減。唯根蒂神識常存。上根者。遇善友申明。當處解脫。便是道場。中下癡愚。不能覺照。沉迷三界。流轉生死。釋尊為伊。天上人間。設教證明。顯發至道。汝等還會麼。僧問。如何得出離生老病死。師曰。青山元不動。浮雲任去來。

【頌】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驢事未去。馬事到來。曰學人不會。師曰。彩氣夜常動。精靈日少逢。

【頌】長生問。混沌未分時。含生何來。師曰。如露柱懷胎。曰分後如何。師曰。如片雲點太清。曰未審太清還受點也無。師不答。曰恁麼則含生不來也。師亦不答。曰直得純清絕點時如何。師曰。猶是真常流注。曰如何是真常流注師曰。似鏡長明。曰向上更有事也無。師曰有。曰如何是向上事。師曰。打破鏡來。與汝相見。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井底種林擒。曰學人不會。師曰。今年桃李貴。一顆直千金。

壽山師解禪師

住後上堂。諸上座。幸有真實言語。相勸諸兄弟。合各自體悉。凡聖情盡。體露真常。但一時卸却從前虛妄攀緣塵垢。心如虛空相似。他時後日。合識得些子好惡。

潞州淶水和尚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還見庭前花藥欄麼。僧無語。

嚴陽善信尊者

初參趙州。問一物不將來時如何。州曰放下著。師曰。既是一物不將來。放下個甚麼。州曰。放不下擔將去。師於言下大悟。

光孝慧覺禪師

僧問。覺華纔綻。徧滿娑婆。祖印西來。合談何事。師曰。情生智隔。曰此是教意。師曰。汝披甚麼衣服。

○師領眾出。見露柱。乃合掌曰。不審世尊。僧曰。和尚是露柱。師曰。啼得血流無用處。不如減口過殘春。

國清奉禪師

僧問。如何是出家人。師曰。銅頭鐵額。鳥觜鹿身。曰如何是出家人本分事。師曰。早起不審。夜間珍重。

木陳從朗禪師

僧問。放鶴出籠和雪去時如何。師曰。我道不一色。

杭州多福和尚

【頌】僧問。如何是多福一叢竹。師曰。一莖兩莖斜。曰學人不會。師曰。三莖四莖曲。

雪竇常通禪師

參長沙。沙問何處人。師曰邢州人。沙曰。我道汝不從彼來。師曰。和尚還曾住此否。沙然之。乃容入室。僧問。如何是三世諸佛出身處。師曰。伊不肯知有汝三世。僧良久。師曰。薦否。不然者。且向著佛不得處體取。時中常在。識盡功亡。瞥然而起。即是傷他。而況言句乎。

石梯和尚

【頌】一日見侍者拓鉢赴堂。乃喚侍者。者應諾。師曰。甚處去。者曰。上堂齋去。師曰。我豈不知汝上堂齋去。者曰。除此外別道箇甚麼。師曰。我祇問汝本分事。者曰。和尚若問本分事。某甲實是上堂齋去。師曰。汝不謬為吾侍者。

漳州浮石和尚

【頌】上堂。山僧開箇卜鋪。能斷人貧富。定人生死。僧問。離却生死貧富。不落五行。請師直道。師曰。金木水火土。

關南道吾和尚

有時曰。打動關南鼓。唱起德山歌。有時執木劍。橫肩上作舞。僧問。手中劍甚處得來。師擲於地。僧却置師手中。師曰。甚處得

來。僧無對。師曰。容汝三日內。下取一轉語。其僧亦無對。師自代拈劍橫肩上作舞曰。須恁麼始得。

【頌】趙州來。師乃著豹皮裊。執吉獠棒。在三門下翹一足等候。纔見州。便高聲唱喏而立。州曰小心祇候著。師又唱喏一聲而去。

【頌】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下禪牀作女人拜曰。謝子遠來。無可祇待(已上二則。按頌古見潭州道吾智下。准會元中機緣。在襄州關南道吾章)。

末山尼了然禪師

【頌】因灌溪和尚問。如何是末山。師曰不露頂。曰如何是末山主。師曰。非男女相。谿乃喝曰。何不變去。師曰。不是神。不是鬼。變箇甚麼。谿於是服膺。

金華俱胝和尚

【頌】初住菴時。有尼名實際。來戴笠子執錫。繞師三匝曰。道得即下笠子。如是三問。師皆無對。尼便去。師曰。日勢稍晚。何不且住。尼曰。道得即住。師又無對。尼去後。師歎曰。我雖處丈夫之形。而無丈夫之氣。不如棄菴。往諸方參尋知識去。其夜山神告曰。不須離此。將有肉身菩薩來。為和尚說法也。逾旬。果天龍和尚到庵。師乃迎禮。具陳前事。龍豎一指示之。師當下大悟。

【評】師凡有學者參問。只豎一指。

刺史陳操尚書

【頌】一日與僚屬登樓次。見數僧行脚。有一官人曰。來者總是行脚僧。公曰不是。曰焉知不是。公曰待來勘過。須與僧至樓前。公驀喚上座。僧皆回首。公謂諸官曰。不信。

長慶道巘禪師

上堂。彌勒朝入伽藍。暮成正覺。說偈曰。三界上下法。我說皆是心。離於諸心法。更無有可得。看他恁麼道。也太煞惺惺。若比吾徒。猶是鈍漢。所以一念見道。三世情盡。如印印泥。更無前後。諸子。生死事大。快須薦取。莫為等閑。業識茫茫。蓋為迷已逐物。世尊臨入涅槃。文殊請再轉法輪。世尊咄曰。吾四十九年住世。不曾說一字。汝請吾再轉法輪。是吾曾轉法輪耶。然今時眾中。建立箇賓主問答。事不獲已。蓋為初心耳。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今日三月三。曰學人不會。師曰。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便下座。

(會元四卷終)

禪宗正脉卷第二

禪宗正脉卷第三

應化聖賢

文殊菩薩

【頌】一日令善財採藥。曰是藥者採將來。善財徧觀大地無不是藥。却來白曰。無有不是藥者。殊曰。是藥者採將來。善財遂於地上拈一莖草。度與文殊。文殊接得。呈起示眾曰。此藥亦能殺人。亦能活人。

【頌】文殊問菴提遮女曰。生以何為義。女曰。生以不生生為生義。殊曰。如何是生以不生生為生義。女曰。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和合。而能隨其所宜。是為生義。殊曰。死以何為義。女曰。死以不死死為死義。殊曰。如何是死以不死死為死義。女曰。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離散。而能隨其所宜。是為死義。菴提遮女又問文殊曰。明知生是不生之理。為甚麼却被生死之所流轉。殊曰。其力未充。

天親菩薩

從彌勒內宮而下。無著菩薩問曰。人間四百年。彼天為一晝夜。彌勒於一時中。成就五百億天子。證無生法忍。未審說甚麼法。天親曰。祇說這箇法。祇是梵音清雅。令人樂聞。

維摩會上

【評】【頌】三十二菩薩。各說不二法門。文殊曰。我於一切法。無言無說。無示無識。離諸問答。是為菩薩入不二法門。於是文殊又問維摩。仁者當說何等是菩薩入不二法門。維摩默然。文殊讚曰。乃至無有語言文字。是菩薩真入不二法門。

善財

【頌】參五十三員善知識。末後到彌勒閣前。見樓閣門閉。瞻仰讚歎。見彌勒從別處來。善財作禮曰。願樓閣門開。令我得入。尋時彌勒至善財前。彈指一聲。樓閣門開。善財入已。閣門即閉。見百千萬億樓閣。一一樓閣內。有一彌勒。領諸眷屬。并一善財而立其前。善財因無著菩薩問曰。我欲見文殊。何者即是。財曰。汝發一念心清淨即是。無著曰。我發一念心清淨。為甚麼不見。財曰。是真見文殊。

須菩提尊者

在巖中宴坐。諸天雨花讚歎。者曰。空中雨花讚歎。復是何人。云何讚歎。天曰。我是梵天。敬重尊者善說般若。者曰。我於般若。未嘗說一字。汝云何讚歎。天曰。如是尊者無說。我乃無聞。無說無聞。是真說般若。

○尊者一日說法次。帝釋雨花。者乃問。此花從天得邪。從地得邪。從人得邪。釋曰弗也。者曰。從何得邪。釋乃舉手。者曰。如是如是。

舍利弗尊者

【頌】入城遙見月上女出城。舍利弗心口思惟。此姊見佛。不知得忍不得忍否。我當問之。纔近便問。大姊往甚麼處去。女曰。如舍利弗與麼去。弗曰。我方入城。汝方出城。何言如我恁麼去。女曰。諸佛弟子。當依何住。弗曰。諸佛弟子。依大涅槃而住。女曰。諸佛弟子。既依大涅槃而住。而我亦如與舍利弗與麼去。

賓頭盧尊者

【頌】赴阿育王宮大會。王行香次。作禮問曰。承聞尊者親見佛來是否。者以手策起眉毛曰。會麼。王曰不會。者曰。阿耨達池龍王請佛齋。吾是時亦預其數。

秦跋陀禪師

問生法師。講何經論。生曰。大般若經。師曰。作麼生說色空義。曰眾微聚曰色。眾微無自性曰空。師曰。眾微未聚。喚作甚麼。生罔措。師又問。別講何經論。曰大涅槃經。師曰。如何說涅槃之義。曰涅槃而不生。槃而不滅。不生不滅。故曰涅槃。師曰。這箇是如來涅槃。那箇是法師涅槃。曰涅槃之義豈有二邪。某甲祇如此。未審禪師如何說涅槃。師拈起如意曰。還見麼。曰見。師曰。見箇甚麼。曰見禪師手中如意。師將如意擲于地。曰見麼。曰見。師曰。見箇甚麼。曰見禪師手中如意墮地。師斥曰。觀公見解未出常流。何得名喧宇宙。拂衣而去。其徒懷疑不已乃追師扣問。我師說色空涅槃不契。未審禪師如何說色空義。師曰。不道汝師說得不是。汝師祇說得果上色空。不會說得因中色空。其徒曰。如何是因中色空。師曰。一微空故眾微空。眾微空故一微空。一微空中無眾微。眾微空中無一微。

寶誌禪師

【頌】垂語曰。終日拈香擇火。不知身是道場。又曰。大道祇在目前。要且目前難覩。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又曰。京都鄴都浩浩。還是菩提大道。(法眼曰。京都鄴都浩浩。不是菩提大道)。

雙林善慧大士

日常營作。夜則行道。見釋迦金粟定光三如來。放光襲其體。大士乃曰。我得首楞嚴定。天嘉二年。感七佛相隨。釋迦引前。維摩接後。唯釋尊數顧共語。為我補處也。

【評】【頌】梁武帝請講金剛經。士纔陞座。以尺揮案一下。便下座。帝愕然。聖師曰。陛下還會麼。帝曰不會。聖師曰。大士講經竟。

○心王銘曰。觀心空王。玄妙難測。無形無相。有大神力。能滅千災。成就萬德。體性雖空。能施法則。觀之無形。呼之有聲。為大法將。心戒傳經。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心王亦爾。身內居停。面門出入。應物隨情。自在無礙。所作皆成。了本識心。識心見佛。是心是佛。是佛是心。念念佛心。佛心念佛。欲得早成。戒心自律。淨律淨心。心即是佛。除此心王。更無別佛。欲求成佛。莫染一物。心性雖空。貪嗔體實。入此法門。端坐成佛。到彼岸已。得波羅蜜。慕道真士。自觀自心。知佛在內。不向外尋。即心即佛。即佛即心。心明識佛。曉了識心。離心非佛。離佛非心。非佛莫測。無所堪任。執空滯寂。於此漂沉。諸佛菩薩。非此安心。明心大士。悟此玄音。身心性妙。用無更改。是故智者。放心自在。莫言心王。空無體性。能使色身。作邪作正。非有非無。隱顯不定。心性離空。能凡能聖。是故相勸。好自防慎。剎那造作。還復漂沉。清淨心智。如世黃金。般若法藏。並在身心。無為法寶非淺非深。諸佛菩薩。了此本心。有緣遇者。非去來今。

【頌】大士頌云。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纖毫不相離。如身影相似。欲識佛去處。祇這語聲是。

【頌】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

【頌】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

南嶽慧思禪師

【頌】因誌公令人傳語曰。何不下山教化眾生。目視雲漢作甚麼。師曰。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可化。

○示眾曰。道源不遠。性海非遙。但向己求。莫從他覓。覓即不得。得亦不真。

○偈曰。頓悟心源開寶藏。隱顯靈通現真相。獨行獨坐常巍巍。百億化身無數量。縱令畱塞滿虛空。看時不見微塵相。可笑物兮無比況。口吐明珠光晃晃。尋常見說不思議。一語標名言下當。

○天不能蓋地不載。無去無來無障礙。無長無短無青黃。不在中間無內外。超羣出眾太虛玄。指物傳心人不會。

天台智者顓禪師

【頌】在南嶽誦法華經。至藥王品曰。是真精進。是真法供養如來。於是悟法華三昧。獲旋陀羅尼。見靈山一會。儼然未散。

豐干禪師

因寒山問。古鏡未磨時如何照燭。師曰。冰壺無影像。猿猴探水月。曰此是不照燭也。更請道看。師曰。萬德不將來。教我道甚麼。寒山拾得。俱作禮而退。

寒山子

因趙州遊天台。路次相逢。山見牛跡問州曰。上座還識牛麼。州曰不識。山指牛跡曰。此是五百羅漢遊山。州曰。既是羅漢。為甚麼却作牛去。山曰。蒼天蒼天。州呵呵大笑。山曰。作甚麼。州曰。蒼天蒼天。山曰。這廝兒。宛有大人之作。

拾得子

國清寺半月念戒。眾集。拾得拍手曰。聚頭作想。那事如何。維那叱之。得曰。大德且住。無嗔即是戒。心淨即出家。我性與你合。一切法無差。

明州布袋和尚

【頌】一日有僧在師前行。師乃拊其背。僧回首。師曰。乞我一文錢。曰道得即與汝一文。師放下布袋。叉手而立。白鹿和尚問。如何是布袋。師便放下布袋。曰如何是布袋下事。師負之而去。先保福和尚問。如何是佛法大意。師放下布袋叉手。福曰。為祇如此。為更有向上事。師負之而去。師在街衢立。有僧問。和尚在這裏作甚麼。師曰。等箇人。曰來也來也。師曰。汝不是這箇人。曰如何是這箇人。師曰。乞我一文錢。

法華志言大士

留講肆之久。一日讀雲門錄忽契悟。未幾宿命遂通。獨語笑。口吻囁嚅。日常不輟。世傳誦法華。因以名之。

○承相呂許公。問佛法大意。師曰。本來無一物。一味却成真。僧問。師凡邪聖邪。遂舉手曰。我不在此住。

(已上應化賢。聖在會元二卷末。今在正脉三卷首)。

青原

青原山行思禪師

【頌】聞曹谿法席。乃往參禮。問曰。當何所務。即不落階級。祖曰。汝曾作甚麼來。師曰。聖諦亦不為。祖曰。落何階級。師曰。聖諦尚不為。何階級之有。祖深器之。會下學徒雖眾。師居首焉。亦猶二祖不言。少林謂之得髓矣。

○一日祖謂師曰。從上衣法雙行。師資遞授。衣以表信。法乃印心。吾今得人。何患不信。吾受衣來。遭此多難。況乎後代。爭競必多。衣即留鎮山門。子當分化一方。無令斷絕。師既得法。歸住青原。

【頌】師令石頭持書與南嶽讓和尚。曰汝達書了。速回。吾有箇鋤斧子。與汝住山。頭至彼。未呈書便問。不慕諸聖。不重己靈時如何。嶽曰。子問太高生。何不向下問。頭曰。寧可永劫受沉淪。不從諸聖求解脫。嶽便休。頭便回。師問。子返何速。書信達否。頭曰。書亦不通。信亦不達。去日蒙和尚許箇鋤斧子。祇今便請。師垂一足。頭便禮拜。尋辭往南嶽。

【頌】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廬陵米。作麼價。

石頭希遷禪師

【頌】謁青原。原問師曰。有人道嶺南有消息。師曰。有人不道嶺南有消息。曰若甚麼。大藏小藏。從何而來。師曰。盡從這裏去。原然之已。師於唐天寶初。薦之衡山南寺。寺之東有石。狀如臺。乃結庵其上。時號石頭和尚。師因看肇論。至會萬物為己者。其唯聖人乎。師乃拊几曰。聖人無己。靡所不己。法身無象。誰云自他。圓鑑靈照於其間。萬象體玄而自現。境智非一。孰云去來。至哉斯語也。遂掩卷。不覺寢。夢自身與六祖同乘一龜。遊泳深池之內。覺而詳之。靈龜者智也。池者性海也。吾與祖師同乘靈智。遊性海矣。遂著參同契曰。竺土大僊心。東西密相付。人根有利鈍。道無南北祖。靈源明皎潔。枝派暗流注。執事元是迷。契理亦非悟。門門一切境。回互不回互。回而更相涉。不爾依位住。色本殊質象。聲元異樂苦。暗合上中言。明明清濁句。四大性自復。如子得其母。火熱風動搖。水濕地堅固。眼色耳音聲。鼻香舌鹹醋。然依一一法。依根葉分布。本末須歸宗。尊卑用其語。當明中有暗。

勿以明相覩。明暗各相對。比之前後步。萬物自有功。當言用及處。事存函蓋合。理應箭鋒拄。承言須會宗。勿自立規矩。觸目不會道。運足焉知路。進步非近遠。迷隔山河固。謹白參玄人。光陰莫虛度。

○上堂。吾之法門。先佛傳授。不論禪定精進。唯達佛之知見。即心即佛。心佛眾生。菩提煩惱。名異體一。汝等當知。自己心靈。體離斷常。性非垢淨。湛然圓滿。凡聖齊同。應用無方。離心意識。三界六道。唯自心現。水月鏡像。豈有生滅。汝能知之。無所不備。時門人道悟問。曹谿意旨誰人得。師曰。會佛法人得。曰師還得否。師曰不得。曰為甚麼不得。師曰。我不會佛法。

○僧問如何是解脫。師曰。誰縛汝。

○問如何是淨土。師曰。誰垢汝。

○問如何是涅槃。師曰。誰將生死與汝。

【頌】問如何是西來意。師曰。問取露柱。曰學人不會。師曰。我更不會。

○問如何是禪。師曰甌甑。問如何是道。師曰木頭。

○大顛問。古人云。道有道無俱是謗。請師除。師曰。一物亦無。除箇甚麼。師却問。併却咽喉唇吻道將來。顛曰。無這箇。師曰。若甚麼。汝即得入門。

○道悟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不得不知。悟曰。向上更有轉處也無。師曰。長空不礙白雲飛。

藥山惟儼禪師

博通經論。嚴持戒律。一日自歎曰。大丈夫當離法自淨。誰能屑屑事細行於布巾邪。

【頌】首造石頭之室。便問。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嘗聞南方。直指人心。見性成佛。實未明了。伏望和尚慈悲指示。頭曰。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子作麼生。師罔措。頭曰。子因緣不在此。且往馬大師處去。師稟命恭禮馬祖。仍伸前問。祖曰。我有時教伊揚眉瞬目。有時不教伊揚眉瞬目。有時揚眉瞬目者是。有時揚眉瞬目者不是。子作麼生。師於言下契悟。便禮拜。祖曰。你見甚麼道理。便禮拜。師曰。某甲在石頭處。如蚊子上鐵牛。祖曰。汝既如是。善自護持。

【頌】師侍奉馬祖三年。一日祖問。子近日見處作麼生。師曰。皮膚脫落盡。唯有一真實。祖曰。子之所得。可謂協於心體。布於四肢。既然如是。將三條篋。束取肚皮。隨處住山去。師曰。某甲又是何人。敢言住山。祖曰不然。未有常行而不住。未有常住而不行。欲益無所益。欲為無所為。宜作舟航。無久住此。

【頌】師乃辭祖。返石頭。一日在石上坐次。石頭問曰。汝在這裏作麼。曰一物不為。頭曰。恁麼即閑坐也。曰若閑坐即為也。頭曰。汝道不為。不為箇甚麼。曰千聖亦不識。頭以偈讚曰。從來共住不知名。任運相將祇麼行。自古上賢猶不識。造次凡流豈可明。後石頭垂語曰。言語動用沒交涉。師曰。非言語動用。亦沒交涉。頭曰。我這裡針筭不入。師曰。我這裏如石上栽華。頭然之。

【頌】道吾雲巖侍立次。師指按山上枯榮二樹。問道吾曰。枯者是榮者是。吾曰。榮者是。師曰。灼然一切處光明燦爛去。又問雲巖。枯者是榮者是。巖曰。枯者是。師曰。灼然一切處放教枯淡去。高沙彌忽至。師曰。枯者是榮者是。彌曰。枯者從他枯。榮者從他榮。師顧道吾雲巖曰。不是不是。

【頌】師久不陞堂。院主白曰。大眾久思和尚示誨。師曰。打鐘著。眾纔集。師便下座歸方丈。院主隨後問曰。和尚既許為眾說話。為甚一言不措。師曰。經有經師。論有論師。爭怪得老僧。

【頌】僧問。兀兀地思量甚麼。師曰。思量箇不思量底。曰不思量底如何思量。師曰。非思量。

○上堂。祖師祇教保護。若貪嗔痴起來。切須防禁。莫教振觸。是你欲知枯木石頭。却須擔荷。實無枝葉可得。雖然如此。更宜自看。不得絕言語。我今為你說這箇語。顯無語底。他那箇本來無耳目等貌。

【頌】遵布衲浴佛。師曰。這箇從汝浴。還浴得那箇麼。遵曰。把將那箇來。師乃休。

○僧問。已事未明。乞和尚指示。師良久曰。吾今為汝道一句亦不難。祇宜汝於言下便見去。猶較些子。若更入思量。却成吾罪過。不如且各各合口。免相累及。

【頌】師看經次。僧問。和尚尋常不許人看經。為甚麼却自看。師曰。我祇圖遮眼。曰某甲學和尚。還得也無。師曰。汝若看。牛皮也須穿。

【評】【頌】僧問。平田淺草。麀鹿成羣。如何射得麀中主。師曰看箭。僧放身便倒。師曰。侍者拖出這死漢。僧便走。師曰。弄泥團漢。有甚麼限。

丹霞天然禪師

【頌】於慧林寺。遇天大寒。取木佛燒火向。院主訶曰。何得燒我木佛。師以杖子撥灰曰。吾燒取舍利。主曰。木佛何有舍利。師曰。既無舍利。更取兩尊燒。主自後眉鬚墮落。

【頌】訪龐居士。見女子靈照洗菜次。師曰。居士在否。女子放下菜籃。斂手而立。師又問。居士在否。女子提籃便行。師遂回。須與居士歸。女子乃舉前話。士曰。丹霞在麼。女曰去也。士曰。赤土塗牛妳。

○上堂。阿你。渾家切須保護。一靈之物。不是你造作名邈得。更說甚薦與不薦。吾往日見石頭。亦祇教切須自保護。此事不是你談話得。阿你。渾家各有一坐具地。更疑甚麼。禪可是你解底物。豈有佛可成。佛之一字。永不喜聞。阿你自看。善巧方便。慈悲喜捨。不從外得。不著方寸。善巧是文殊。方便是普賢。你更擬趨逐甚麼物。不用經求落空去。今時學者。紛紛擾擾。皆是參禪問道。吾此間無道可修。無法可證。一飲一啄。各自有分。不用疑慮。在在處處。有恁麼底。若識得。釋迦即老凡夫是。阿你。須是看取。莫一盲引眾盲。相將入火坑。夜裏暗雙陸。賽彩若為生。無事珍重。

○有僧到參。於山下見師。便問。丹霞山向甚麼處去。師指山曰。青黯黯處。曰莫祇這箇便是麼。師曰。真師子兒。一撥便轉。

【評】【頌】問僧。甚麼處宿。曰山下宿。師曰。甚麼處喫飯。曰山下喫飯。師曰。將飯與闍黎喫底人。還具眼也無。僧無對。

大顛寶通禪師

初參石頭。頭問。那箇是汝心。師曰。見言語者是。頭便喝出。經旬日師却問。前者既不是。除此外何者是心。頭曰。除却揚眉瞬目。將心來。師曰。無心可將來。頭曰。元來有心。何言無心。無心盡同謗。師於言下大悟。

○師侍立次。頭問。汝是參禪僧。是州縣白蹋僧。師曰。是參禪僧。頭曰。何者是禪。師曰。揚眉瞬目。頭曰。除却揚眉瞬目外。

將你本來面目呈看。師曰。請和尚除却揚眉瞬目外鑿。頭曰。我除竟。師曰。將呈了也。頭曰。汝既將呈。我心如何。師曰。不異和尚。頭曰。不關汝事。師曰。本無物。頭曰。汝亦無物。師曰。本無物即真物。頭曰。真物不可得。汝心現量。意旨如此也。大須護持。

○上堂。夫學道人。須識自家本心。將心相示。方可見道。多見時輩。祇認揚眉瞬目。一語一默。驀頭印可。以為心要。此實未了。吾今為你諸人。分明說出。各須聽受。但除却一切妄運想念現量。即汝真心。此心與塵境。及守認靜默時。全無交涉。即心是佛。不待修治。何以故。應機隨照。泠泠自用。窮其用處。了不可得。喚作妙用。乃是本心。大須護持。不可容易。

○韓文公一日相訪。問師春秋多少。師提起數珠曰會麼。公曰不會。師曰。晝夜一百八。公不曉。遂回。次日再來。至門前見首座。舉前話問意旨如何。座扣齒三下。及見師。理前問。師亦扣齒三下。公曰。元來佛法無兩般。師曰。是何道理。公曰。適來問首座亦如是。師乃召首座。是汝如此對否。座曰是。師便打。趣出院。

【頌】文公又一日白師曰。弟子軍州事繁。佛法省要處。乞師一語。師良久。公罔措。時三平為侍者。乃敲禪牀三下。師曰作麼。平曰。先以定動。後以智拔。公乃曰。和尚門風高峻。弟子於侍者邊。得箇入處。

長髭曠禪師

【頌】曹谿禮祖塔回。參石頭。頭問。甚麼處來。曰嶺南來。頭曰。大庾嶺頭一鋪功德。成就也未。師曰。成就久矣。祇欠點眼

在。頭曰。莫要點眼麼。師曰便請。頭乃垂一足。師禮拜。頭曰。汝見箇甚麼道理。便禮拜。師曰。據某甲所見。如紅爐上一點雪。

○師見僧問訊次。師曰。步步是汝證明處。汝還知麼。曰某甲不知。師曰。汝若知。我堪作甚麼。僧禮拜。師曰。我不堪。汝却好。

京兆尸利禪師

問石頭。如何是學人本分事。頭曰。汝何從吾覓。曰不從師覓。如何即得。石頭曰。汝還曾失麼。師乃契會厥旨。

招提慧朗禪師

初參馬祖。祖問。汝來何求。曰求佛知見。祖曰。佛無知見。知見乃魔耳。汝自何來。曰南嶽來。祖曰。汝從南嶽來。未識曹谿心要。汝速歸彼。不宜他往。師歸石頭。便問。如何是佛。頭曰。汝無佛性。師曰。蠢動含靈。又作麼生。頭曰。蠢動含靈。却有佛性。曰慧朗為甚麼却無。頭曰。為汝不肯承當。師於言下信入。住後凡學者至。皆曰。去去。汝無佛性。其接機大約如此(時謂大朗)。

鳳翔佛陀禪師

【頌】尋常持一串數珠。念三種名號。曰一釋迦。二元和。三佛陀。自餘是甚麼椀躡丘。乃過一珠。終而復始。事跡異常。時人莫測。

大同濟禪師

一日見龐居士來。便掩却門曰。多知老翁。莫與相見。士曰。獨坐獨語。過在阿誰。師便開門。纔出。被士把住曰。師多知。我多

知。師曰。多知且置。閉門開門。卷之與舒。相較幾許。士曰。祇此一問。氣急殺人。師默然。士曰。弄巧成拙。

○僧問。此箇法門。如何繼紹。師曰。冬寒夏熱。人自委知。曰恁麼則蒙分付去也。師曰。頑嚚少智。勳贖多痴。

【頌】問十二時中。如何合道。師曰。汝還識十二時麼。曰如何是十二時。師曰。子丑寅卯。僧禮拜。師示頌曰。十二時中那事別。子丑寅卯吾今說。若會唯心萬法空。釋迦彌勒從茲決。

道吾宗智禪師

預藥山法會。密契心印。一日山問。子去何處來。師曰。遊山來。山曰。不離此室。速道將來。師曰。山上烏兒頭似雪。澗底遊魚忙不徹。

【頌】師離藥山見南泉。泉問。闍黎名甚麼。師曰宗智。泉曰。智不到處。作麼生宗。師曰。切忌道著。泉曰。灼然道著即頭角生。三日後師與雲巖在後架把針。泉見乃問。智頭陀前日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合作麼生行履。師便抽身入僧堂。泉便歸方丈。師又來把針。巖曰。師弟適來為甚不祇對和尚。師曰。你不妨靈利。巖不薦。却問南泉。適來智頭陀為甚不祇對和尚。某甲不會。乞師垂示。泉曰。他却是異類中行。巖曰。如何是異類中行。泉曰。不見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直須向異類中行。巖亦不會。

【頌】師知雲巖不薦。乃曰。此人因緣不在此。却同回藥山。山問。汝回何速。巖曰。祇為因緣不契。山曰。有何因緣。巖舉前話。山曰。子作麼生會他。這箇時節便回。巖無對。山乃大笑。巖便問。如何是異類中行。山曰。吾今日困倦。且待別時來。巖曰。某甲特為此事歸來。山曰且去。巖便出。師在方丈外。聞巖不薦。

不覺咬得指頭血出。師却下來問巖。師兄去問和尚那因緣作麼生。巖曰。和尚不與某甲說。師便低頭(僧問雲居。切忌道著。意作麼生。居云。此語最毒。云如何是最毒底語。居云。一棒打殺龍蛇)。

○雲巖臨遷化。遣書辭師。師覽書了。謂洞山密師伯曰。雲巖不知有。我悔當時不向伊道。雖然如是。要且不違藥山之子(玄覺云。古人恁麼道。還知有也未。又云。雲巖當時不會。且道甚麼處是伊不會處)。

○藥山上堂曰。我有一句子。未嘗說向人。師出曰。相隨來也。僧問藥山。一句子如何說。山曰。非言說。師曰。早言說了也。

○瀉山問雲巖。菩提以何為座。巖曰。以無為為座。巖却問瀉山。山曰。以諸法空為座。又問師作麼生。師曰。坐也聽伊坐。臥也聽伊臥。有一人不坐不臥。速道速道。山休去。

○有施主施裊。藥山提起示眾曰。法身還具四大也無。有人道得。與他一腰裊。師曰。性地非空。空非性地。此是地大。三大亦然。山曰。與汝一腰裊。

○雲巖補鞋次。師問作甚麼。巖曰。將敗壞。補敗壞。師曰。何不道。即敗壞。非敗壞。

【頌】師到五峯。峯問。還識藥山老宿否。師曰不識。峯曰。為甚麼不識。師曰。不識不識。

雲巖曇晟禪師

【頌】參百丈海禪師。二十年因緣不契。後造藥山。山問甚處來。曰百丈來。山曰。百丈有何言句示徒。師曰。尋常道。我有一句子。百味具足。山曰。鹹則鹹味。淡則淡味。不鹹不淡是常味。作麼生是百味具足底句。師無對。山曰。爭奈目前生死何。師曰。目

前無生死。山曰。在百丈多少時。師曰。二十年。山曰。二十年在百丈。俗氣也不除。

○侍立次。山又問。百丈更說甚麼法。師曰。有時道。三句外省去。六句內會取。山曰。三千里外。且喜沒交涉。山又問。更說甚麼法。師曰。有時上堂。大眾立定。以拄杖一時趨散。復召大眾。眾回首。丈曰。是甚麼。山曰。何不早恁麼道。今日因子。得見海兄。師於言下頓悟。便禮拜。

【評】【頌】道吾問。大悲千手眼。那箇是正眼。師曰。如人夜間背手摸枕头。吾曰。我會也。師曰。作麼生會。吾曰。徧身是手眼。師曰。道也太煞道。祇道得八成。吾曰。師兄作麼生。師曰。通身是手眼。

○尼僧禮拜。師問。汝爺在否。曰在。師曰年多少。曰年八十。師曰。汝有箇爺。不年八十。還知否。曰莫是恁麼來者。師曰。恁麼來者猶是兒孫(洞山代云。直是不恁麼來者。亦是兒孫)。

○僧問。一念瞥起。便落魔界時如何。師曰。汝因甚麼却從佛界來。僧無對。師曰會麼。曰不會。師曰。莫道體不得。設使體得。也祇是左之右之。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

【頌】自印心於藥山。與道吾雲巖。為同道交。泊離藥山。乃謂二同志曰。公等應各據一方。建立藥山宗旨。予率性踈野。唯好山水。樂情自遣。無所能也。他後知我所止之處。若遇靈利座主。指一人來。或堪雕琢。將授生平所得。以報先師之恩。遂分携。至秀州華亭。泛一小舟隨緣度日。以接四方往來之者。時人莫知其高蹈。因號船子和尚。道吾後到京口。遇夾山上堂。僧問如何是法身。山曰法身無相。曰如何是法眼。山曰法眼無瑕。道吾不覺失

笑。山便下座。請問道吾。某甲適來祇對這僧話。必有不是。致令上座失笑。望上座不吝慈悲。吾曰。和尚一等是出世。未有師在。山曰。某甲甚處不是。望為說破。吾曰。某甲終不說。請和尚却往華亭船子處去。山曰。此人如何。吾曰。此人上無片瓦。下無卓錫。和尚若去。須易服而往。山乃散眾。束裝直造華亭。船子纔見。便問。大德住甚麼寺。山曰。寺即不住。住即不似。師曰不似。似箇甚麼。山曰。不是目前法。師曰。甚處學得來。山曰。非耳目之所到。師曰。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師又問。垂絲千尺。意在深潭。離鈎三寸。子何不道。山擬開口。被師一橈。打落水中。山纔上船。師又曰道道。山擬開口。師又打。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師曰。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山遂問。拋綸擲釣。師意如何。師曰。絲懸淥水。浮定有無之意。山曰。語帶玄而無路。舌頭談而不談。師曰。釣盡江波。金鱗始遇。山乃掩耳。師曰。如是如是。

【頌】師遂囑曰。汝向去。直須藏身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吾二十年在藥山。祇明斯事。汝今既得。他後莫住城隍聚落。但向深山裏。鑊頭邊。覓取一箇半箇接續。無令斷絕。山乃辭行。頻頻回顧。師遂喚闍黎。山乃回首。師豎起橈子曰。汝將謂別有。乃覆船入水而逝。

百巖明哲禪師

【頌】洞山與密師伯到參。師問二上座甚處來。山曰湖南。師曰。觀察使姓甚麼。曰不得姓。師曰。名甚麼。曰不得名。師曰。還治事也無。曰自有郎幕在。師曰。還出入也無。曰不出入。師曰。豈不出入。山拂袖便出。師次早入堂。召二上座曰。昨日老僧對闍黎一轉語。不相契。一夜不安。今請闍黎別下一轉語。若愜老僧意。便開粥相伴過夏。山曰。請和尚問。師曰。豈不出入。山曰。太尊貴生。師乃開粥。同共過夏。

澧州高沙彌

初參藥山。山問。甚處來。師曰。南嶽來。山曰。何處去。師曰。江陵受戒去。山曰。受戒圖甚麼。師曰。圖免生死。山曰。有一人不受戒。亦無生死可免。汝還知否。師曰。恁麼則佛戒何用。山曰。這沙彌猶挂唇齒在。師禮拜而退。

○道吾來侍立。山曰。適來有箇跛脚沙彌。却有些子氣息。吾曰。未可全信。更須勘過始得。

【頌】至晚山上堂召曰。早來沙彌在甚麼處。師出眾立。山問。我聞長安甚鬧。你還知否。師曰。我國晏然。(法眼云見誰說)山曰。汝從看經得。請益得。師曰。不從看經得。亦不從請益得。山曰。大有人不看經。不請益。為甚麼不得。師曰。不道他不得。祇是不肯承當。山顧道吾雲巖曰。不信道。

○師辭藥山。山問。甚麼處去。師曰。某甲在眾有妨。且往路邊卓箇草庵。接待往來茶湯去。山曰。生死事大。何不受戒去。師曰。知是般事便休。更喚甚麼作戒。山曰。汝既如是。不得離吾左右。時復要與子相見。

鼎州李翱刺史

【頌】嚮藥山玄化。屢請不赴。乃躬謁之。山執經卷不顧。侍者曰。太守在此。守性褊急。乃曰。見面不如聞名。拂袖便出。山曰。太守。何得貴耳賤目。守回拱謝。問。曰。如何是道。山以手指上下曰。會麼。守曰不會。山曰。雲在青天水在瓶。守忻愜作禮。而述偈曰。鍊得身形似鶴形。千株松下兩函經。我來問道無餘說。雲在青天水在瓶。守又問。如何是戒定慧。山曰。貧道這裏無此閑家具。守莫測玄旨。山曰。太守欲得保任此事。直須向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閨閣中物捨不得。便為滲漏。

翠微無學禪師

【頌】一日師在法堂內行。投子進前。接禮問曰。西來密旨。和尚如何示人。師駐步少時。子曰。乞師垂示。師曰。更要第二杓惡水那。子便禮謝。師曰。莫塚根。子曰。時至根苗自生。

○師因供養羅漢。僧問。丹霞燒木佛。和尚為甚麼供養羅漢。師曰。燒也不燒著。供養亦一任供養。曰供養羅漢。羅漢還來也無。師曰。汝每日還喫飯麼。僧無語。師曰。少有靈利底。

孝義寺性空禪師

【頌】僧參人事畢。師曰。與麼下去。還有佛法道理也無。曰某甲結舌有分。師曰。老僧又作麼生。曰素非好手。師便仰身合掌。僧亦合掌。師乃拊掌三下。僧拂袖便出。師曰。烏不前。兔不後。幾人於此茫然走。祇有闍黎達本源。結舌何曾著空有。

僊天禪師

【頌】僧參。纔展坐具。師曰。不用通時暄。還我文彩未生時道理來。曰某甲有口。瘞却即閑。苦死覓箇臘月扇子作麼。師拈棒作打勢。僧把住曰。還我未拈棒時道理。師曰。隨我者隨之南北。不從我者死住東西。曰隨與不隨且置。請師指出東西南北。師便打。

三平義忠禪師

初參石鞏。鞏常張弓架箭接機。師詣法席。鞏曰看箭。師乃撥開胸曰。此是殺人箭。活人箭又作麼生。鞏彈弓絃三下。師乃禮拜。鞏曰。三十年張弓架箭。祇射得半箇聖人。遂拗折弓箭。後參大顛。舉前話。顛曰。既是活人箭。為甚麼向弓絃上辨。平無對。顛曰。三十年後。要舉此話也難得。

【頌】師問大顛。不用指東劃西。便請直指。顛曰。幽州江口石人蹲。師曰。猶是指東劃西。顛曰。若是鳳凰兒。不向那邊討。師作禮。顛曰。若不得後句。前話也難圓。

○上堂。今時人出來。盡學馳求造作。將當自己眼目。有甚麼相當。阿汝。欲學麼。不要諸餘。汝等各有本分事。何不體取。作麼心憤憤。口悱悱。有甚麼利益。分明向汝說。若要修行路。及諸聖建立化門。自有大藏教文在。若是宗門中事。宜汝切不得錯用心。僧問。宗門中還有學路也無。師曰。有一路滑如苔。曰學人還躡得否。師曰。不擬心。汝自看。

○講僧問。三乘十二分教。某甲不疑。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龜毛拂子。兔角拄杖。大德藏向甚麼處。曰龜毛兔角。豈是有邪。師曰。肉有千斤。智無銖兩。

○上堂。諸人若未曾見知識即不可。若曾見作者來。便合體取些子意度。向巖谷間。木食草衣恁麼去。方有少分相應。若馳求知解義句。即萬里望鄉關去也。珍重。

○師有偈曰。即此見聞非見聞。無餘聲色可呈君。箇中若了全無事。體用何妨分不分。

馬頰山本空禪師

【頌】上堂。祇這施為動轉。還合得本來祖翁麼。若合得。十二時中無處棄底道理。若合不得。喫茶說話。往往喚作茶話在。僧便問。如何免得不成茶話去。師曰。你識得口也未。曰如何是口。師曰。兩片皮也不識。曰如何是本來祖翁。師曰。大眾前不要牽爺侍孃。曰大眾忻然去也。師曰。你試點大眾性看。僧作禮。師曰。伊往往道。一性一切性在。僧欲進語。師曰。孤負平生行脚眼。

【頌】問去却即今言句。請師直指本來性。師曰。你迷源來得多少時。曰即今蒙和尚指示。師曰。若指示你。我即迷源。曰如何即是。師示頌曰。心是性體。性是心用。心性一如。誰別誰共。妄外迷源。祇者難洞。古今凡聖。如幻如夢。

本生禪師

拈拄杖示眾曰。我若拈起。你便向未拈起時作道理。我若不拈起。你便向拈起時作主宰。且道老僧為人在甚處。時有僧出曰。不敢妄生節目。師曰。也知闍黎不分外。曰低低處平之有餘。高高處觀之不足。師曰。節目上更生節目。僧無語。師曰。掩鼻偷香。空招罪犯。

石室善道禪師

一日仰山問。佛之與道。相去幾何。師曰道如展手。佛以握拳。曰畢竟如何的當。可信可依。師以手撥空三下曰。無恁麼事。無恁麼事。曰還假看教否。師曰。三乘十二分教。是分外事。若與他作對。即是心境兩法。能所雙行。便有種種見解。亦是狂慧。未足為道。若不與他作對。一事也無。所以祖師道。本來無一物。汝不見小兒出胎時。可道我解看教。不解看教。當恁麼時。亦不知有佛性義。無佛性義。及至長大便學種種知解。出來便道我能我解。不知總是客塵煩惱。十六行中嬰兒行為最。哆哆和和時。喻學道之人。離分別。取捨心。故讚歎嬰兒。可況喻取之。若謂嬰兒是道。今時人錯會。

石霜山慶諸禪師

【頌】抵瀉山。為米頭。一日篩米次。瀉曰。施主物莫拋撒。師曰。不拋撒。瀉於地上拾得一粒曰。汝道不拋撒。這箇是甚麼。師無對。瀉又曰。莫輕這一粒。百千粒盡從這一粒生。師曰。百千粒

從這一粒生。未審這一粒從甚麼處生。為呵呵大笑。歸方丈。為至晚上堂曰。大眾。米裏有蟲。諸人好看。

【頌】後參道吾。問如何是觸目菩提。吾喚沙彌。彌應諾。吾曰。添淨餅水著。良久却問師。汝適來問甚麼。師擬舉。吾便起去。師於此有省。

○吾將順世。垂語曰。我心中有一物。久而為患。誰能為我除之。師曰。心物俱非。除之益患。吾曰。賢哉賢哉。

【頌】後因僧自洞山來。師問。和尚有何言句示徒。曰解夏上堂云。秋初夏末。兄弟或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良久曰。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師曰。有人下語否。曰無。師曰。何不道出門便是草。僧回舉似洞山。山曰。此是一千五百人善知識語。因茲囊錫始露。果熟香飄。

○上堂。汝等諸人。自有本分事。不用馳求。無你是非處。無你咬嚼處。一代時教。整理時人脚手。凡有其由。皆落今時。直至法身非身。此是教家極則。我輩沙門。全無肯路。若分則差。不分則坐著泥水。但由心意。妄說見聞。

【頌】師在方丈內。僧在窗外問。咫尺之間。為甚麼不覩師顏。師曰。徧界不曾藏。僧舉問雪峯。徧界不曾藏意旨如何。峯曰。甚麼處不是石霜。師聞曰。這老漢。著甚麼死急。峯聞曰。老僧罪過。

【頌】裴相國來。師拈起裴笏問。在天子手中為圭。在官人手中為笏。在老僧手中。且道喚作甚麼。裴無對。師乃留下笏。

○示眾。初機未覩大事。先須識取頭。其尾自至。踈山仁參。問如何是頭。師曰。直須知有。曰如何是尾。師曰。盡却今時。曰有頭無尾時如何。師曰。吐得黃金。堪作甚麼。曰有尾無頭時如何。師

曰。猶有依倚在。曰直得頭尾相稱時如何。師曰。渠不作箇解會。亦未許渠在。

○僧問。三千里外。遠聞石霜有箇不顧。師曰是。曰祇如萬象歷然。是顧不顧。師曰。我道不驚眾。曰不驚眾是與萬象合。如何是不顧。師曰。徧界不曾藏。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乃咬齒示之。僧不會。後問九峰曰。先師咬齒意旨如何。峰曰。我寧可截舌。不犯國諱。又問雲蓋。蓋曰。我與先師有甚麼冤讐。

○師居石霜山。二十年間。學眾有長坐不臥。屹若株杌。天下謂之枯木眾也。

漸源仲興禪師

在道吾為侍者。

【評】【頌】一日侍吾往檀越家弔慰。師拊棺曰。生邪死邪。吾曰。生也不道。死也不道。師曰。為甚麼不道。吾曰。不道不道。歸至中路。師曰。和尚今日須與某甲道。若不道。打和尚去也。吾曰。打即任打。道即不道。師便打。吾歸院曰。汝宜離此去。恐知事得知不便。師乃禮辭。隱于村院。經三年後。忽聞童子念觀音經。至應以比丘身得度者。即現比丘身。忽然大省。遂焚香遙禮曰。信知先師遺言。終不虛發。自是我不會。却怨先師。先師既歿。唯石霜是嫡孫。必為證明。乃造石霜。霜見便問。離道吾後。到甚處來。師曰。祇在村院寄足。霜曰。前來打先師因緣。會也未。師起身進前曰。却請和尚道一轉語。霜曰不見道。生也不道。死也不道。師乃述在村院得底因緣。遂禮拜石霜。設齋懺悔。他日持鋤復到石霜。於法堂上從東過西。從西過東。霜曰作麼。師曰。

覓先師靈骨。霜曰。洪渡浩渺。白浪滔天。覓甚先師靈骨。師曰。正好著力。霜曰。這裏針筭不入。著甚麼力。源持鋤肩上便出。

淶清禪師

僧問。如何是無相。師曰。山青水綠。

○僧參。師以目視之。僧曰。是箇機關。於某甲分上用不著。師彈指三下。僧遶禪牀一匝。依位立。師曰。參堂去。僧始出。師便喝。僧却以目視之。師曰。灼然用不著。僧禮拜。

神山僧密禪師

一日與洞山鋤茶園。山擲下鑿頭曰。我今日一點氣力也無。師曰。若無氣力。爭解恁麼道。山曰汝將謂有氣力底是。

○裴大夫問僧。供養佛。佛還喫否。僧曰。如大夫祭家神。大夫舉似雲巖。巖曰。這僧未出家在。曰和尚又如何。巖曰。有幾般飯食。但一時下來。巖却問師。一時下來又作麼生。師曰。合取鉢盂。巖肯之。

【頌】師與洞山行次。忽見白兔走過。師曰俊哉。洞曰作麼生。師曰。大似白衣拜相。洞曰。老老大大。作這箇說話。師曰你作麼生。洞曰。積代簪纓。暫時落魄。

○師問洞山。智識所通莫不遊踐。徑截處。乞師一言。洞曰。師伯意。何得取功。師因斯頓覺。下語非常。

【頌】後與洞山過獨木橋。洞先過了。拈起木橋曰。過來。師喚价闍黎。洞乃放下木橋。

幽谿和尚

僧問。大用現前。不存軌則時如何。師起遶禪牀一匝而坐。僧擬進語。師與一蹋。僧歸位而立。師曰。汝恁麼。我不恁麼。汝不恁麼。我却恁麼。僧再擬進語。師又與一蹋曰。三十年後。吾道大行。

○問如何是祖師禪。師曰。泥牛步步出人前。

○問處處該不得時如何。師曰。夜半石人無影像。縱橫不辨往來源。

夾山善會禪師

上堂。有祖以來。時人錯會相承。至今以佛祖言句。為人師範。若或如此。却成狂人無智人去。他祇指示汝無法本是道。道無一法。無佛可成。無道可得。無法可取。無法可捨。所以老僧道。目前無法。意在目前。他不是目前法。若向佛祖邊學。此人未具眼在。何故。皆屬所依。不得自在。本祇為生死茫茫。識性無自由分。千里萬里求善知識。須具正眼。求脫虛謬之見。定取目前生死。為復實有。為復實無。若有人定得。許汝出頭。上根之人。言下明道。中下根器。波波浪走。何不向生死中定當取。何處更疑佛疑祖。替汝生死。有智人笑汝。汝若不會。更聽一頌。勞持生死法。唯向佛邊求。目前迷正理。撥火覓浮漚。

○西川座主。罷講徧參。到襄州華嚴和尚處問曰。祖意教意。是同是別。嚴曰。如車二輪。如鳥二翼。主曰。將為禪門別有長處。元來無。遂歸蜀。後聞師道播諸方。令小師持此語問。師曰。雕砂無鏤玉之談。結草乖道人之意。主聞舉。遙禮曰。元來禪門中別有長處。

【頌】僧問。撥塵見佛時如何。師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僧後問石霜。撥塵見佛時如何。霜曰。渠無國土。甚處逢

渠。僧回舉似師。師上堂舉了。乃曰。門庭施設。不如老僧。入理深談。猶較石霜百步。

【頌】問如何是佛。師曰。此問無賓主。曰尋常與甚麼人對談。師曰。文殊與吾携水去。普賢猶未折花來。

【頌】問如何是夾山境。師曰。猿抱子歸青嶂裏。鳥銜花落碧巖前
(法眼云。我二十年。祇作境話會)。

○師問僧。甚麼處來。曰洞山來。師曰。洞山有何言句示徒。曰尋常教學人三路學。師曰。何者三路。曰玄路。鳥道。展手。師曰。實有此語否。曰實有。師曰。軌持千里鈔。林下道人悲。

清平山令遵禪師

【頌】初參翠微。便問如何是西來的的意。微曰。待無人即向汝說。師良久曰。無人也。請和尚說。微下禪牀引師入竹園。師又曰。無人也。請和尚說。微指竹曰。這竿得恁麼長。那竿得恁麼短。師雖領其微言。猶未徹其玄旨。出住大通。上堂。舉初見翠微機緣謂眾曰。先師入泥入水為我自是我。不識好惡。

○次遷清平。上堂。諸上座。夫出家人。須會佛意始得。若會佛意。不在僧俗男女貴賤。但隨家豐儉安樂便得。諸上座。盡是久處叢林。徧參尊宿。且作麼生會佛意。試出來大家商量。莫空氣高。至後一事無成。一生空度。若未會佛意。直饒頭上出水。足下出火。燒身煉臂聰慧多辯。聚徒一千二千。說法如雲如雨。講得天花亂墜。祇成箇邪說。爭競是非去佛法大遠在。諸人幸值色身安健。不值諸難。何妨近前著些工夫。體取佛意好。

【頌】僧問。如何是大乘。師曰。井索曰如何是小乘。師曰。錢貫。又問如何是有漏。師曰。笊籬。曰如何是無漏。師曰。木杓

曰。覲面相呈時如何。師曰。分付與典座。

投子山大同禪師

初習安般觀。次閱華嚴教。發明性海。復謁翠微。頓悟宗旨。

【評】【頌】趙州問大死底人。却活時如何。師曰。不許夜行。投明須到。州曰。我早侯白。伊更侯黑。

○上堂。汝諸人來這裏。擬覓新鮮語句。攢花四六。圖口裏有可道。我老兒氣力稍劣。脣舌遲鈍。亦無閒言語與汝。汝若問我。便隨汝答。也無玄妙。可及於汝。亦不教汝垛根。終不說向上向下。有佛有法。有凡有聖。亦不存坐繫縛汝。諸人變現千般。總是汝自生見解。擔帶將來。自作自受。我這裏無可與汝。也無表無裏。說似諸人。有疑便問。僧問表裏不收時如何。師曰。汝擬向這裏垛根。便下座。

【評】【頌】問一切聲是佛聲是否。師曰是。曰和尚莫[尸@豕]沸盃鳴聲。師便打。又問麤言及細語。皆歸第一義。是否。師曰是。曰喚和尚作頭驢得麼。師便打。

【頌】問如何是十身調御。師下禪牀立。又問凡聖相去幾何。師亦下禪牀立。

【頌】師指庵前一片石。謂雪峰曰。三世諸佛總在裏許。峰曰。須知有不在裏許者。師曰。不快漆桶。

○僧問那吒。析骨還父。析肉還母。如何是那吒本來身。師放下拂子叉手。

【頌】問和尚住此山。有何境界。師曰。丫角女子白頭絲。

【頌】問月未圓時如何。師曰。吞却三箇四箇。曰圓後如何。師曰。吐却七箇八箇(師微言頗多今錄少分而已)。

道場山如訥禪師

僧問如何是教意。師曰。汝自看。僧禮拜。師曰。明月鋪霄漢。山川勢自分。又問。如何得聞性不隨緣去。師曰。汝聽看僧禮拜。師曰。聾人也唱胡笳調。好惡高低自不聞。曰恁麼則聞性宛然也。師曰。石從空裏立。火向水中焚。

○問一念不生時如何。師曰。堪作甚麼。僧無語。師又曰。透出龍門雲雨合。山川大地入無蹤。

白雲約禪師

僧問不坐偏空堂。不居無學位。此人合向甚麼安置。師曰。青天無電影。韶國師參。師問甚麼處來。韶曰。江北來。師曰。船來陸來。曰船來。師曰。還逢見魚鼈麼。曰往往遇之。師曰。遇時作麼生。韶曰。咄。縮頭去。師大笑。

棗山光仁禪師

上堂。眾集。師於座前謂眾曰。不負平生行脚眼目。致箇問來。還有麼。眾無對。師曰。若無即陞座去也。便登座。僧出禮拜。師曰。負我且從。大眾何也。便歸方丈。翌日有僧。請辨前語意旨。如何。師曰。齋時有飯與汝喫。夜後有牀與汝眠。一向煎迫我作甚麼。僧禮拜師曰。苦苦僧曰。請師直指。師乃垂足曰。舒縮一任老僧。

(會元五卷終)

大光山居誨禪師

【頌】僧問祇如達磨是祖否。師曰。不是祖。曰既不是祖。又來作甚麼。師曰。祇為汝不薦。曰薦後如何。師曰。方知不是祖。

○上堂。一代時教。祇是整理時人手脚。直饒剝盡到底。也祇成得箇了事人。不可將當衲衣下事。所以道。四十九年明不盡。標不起。到這裏合作麼生更若切切。恐成負累珍重。

九峯道虔禪師

【頌】嘗為石霜侍者。泊霜歸寂。眾請首座繼住持。師白眾曰。須明得先師意始可。座曰。先師有甚麼意。師曰先師道休去。歇去。冷湫湫地去。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一條白練去。其餘即不問。如何是一條白練去。座曰。這箇祇是明一色邊事。師曰。元來未會先師意在。座曰。你不肯我那。但裝香來。香烟斷處。若去不得。即不會先師意。遂焚香香烟未斷。座已脫去。師拊座背曰。坐脫立亡即不無。先師意未夢見在。

○僧問承古有言。向外紹則臣位。向內紹則王種是否。師曰是。曰如何是外紹。師曰。若不知事極頭。祇得了事。喚作外紹。是為臣種。曰如何是內紹。師曰。知向裏許承當擔荷。是為內紹。曰如何是王種。師曰。須見無承當底人。無擔荷。底人。始得同一色。同一色了。所以借為誕生。是為王種。曰恁麼則內紹亦須得轉。師曰。灼然有承當擔荷。爭得不轉。汝道內紹便是人王種。你且道如今還有紹底道理麼。所以古人道。紹是功。紹了非是功。轉功位了。始喚作人王種。曰未審外紹還轉也無。師曰。外紹全未知有。且教渠知有。曰如何是知有。師曰天明不覺曉。

○問如何是外紹。師曰。不借別人家裏事。曰如何是內紹。師曰。推爺向裏頭。曰二語之中。那語最親。師曰。臣在門裏。王不出門。曰恁麼則不出門者不落二邊。師曰。渠也不獨坐世界裏。紹王

種。名外紹王種性。所以道紹是功名臣。是偏中正。紹了轉功名君。是正中偏。

○問誕生還更知聞也無。師曰。更知聞阿誰曰。恁麼則莫便是否。師曰。若是。古人為甚麼道。誕生王有父。曰既有父。為甚麼不知聞。師曰。同時不識祖。

○問古人云。直得不恁麼來者。猶是兒孫。意旨如何。師曰。古人不謾語。曰如何是來底兒孫。師曰。猶守珍御在。曰如何是父。師曰。無家可坐。無世可興。

【頌】問人人盡言請益。未審師將何拯濟。師曰。汝道巨嶽還曾乏寸土也無曰。恁麼則四海參尋。當為何事。師曰。演若迷頭心自狂。曰還有不狂者麼。師曰。有曰如何是不狂者。師曰。突曉途中眼不開。

【頌】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更問阿誰。曰便恁麼承當時如何。師曰。須彌還更戴須彌。

【頌】問祖祖相傳。復傳何事。師曰。釋迦慳迦葉富。曰如何是釋迦慳。師曰。無物與人。曰如何是迦葉富。師曰。國內孟嘗君。曰畢竟傳底事作麼生。師曰。百歲老人分夜燈。

【頌】問諸聖間出。祇是箇傳語底人。豈不是和尚語。師曰是。曰祇如世尊生下。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唯我獨尊。為甚麼喚作傳語底人。師曰。為他指天指地。所以喚作傳語底人。僧禮拜而退。

【頌】問古人道。因真立妄。從妄顯真。是否。師曰是。曰如何是真心。師曰。不雜食是。曰如何是妄心。師曰。攀緣起倒是。曰離

此二途。如何是本體。師曰。本體不離。曰為甚麼不離。師曰。不敬功德天。誰嫌黑暗女。

【頌】問盡乾坤都來是箇眼。如何是乾坤眼。師曰。乾坤在裏許。曰乾坤眼何在。師曰。正是乾坤眼。曰還照矚也無。師曰不借三光勢。曰既不假三光勢。憑何喚作乾坤眼。師曰若不如是。髑髏前見鬼神無數。

【頌】示眾曰。常住法身。不生不滅。僧問。既是不生不滅。為甚麼六道輪迴。師曰。為有心故。曰以何方便。當證法身。師曰。以虛空心。合虛空理。曰證後如何。師曰任從三界轉。徒聽四生奔復曰會麼。曰不會。師曰。禮拜著【增收】。

湧泉景欣禪師

白石霜開示而止湧泉。一日不披袈裟喫飯。有僧問莫成俗否。師曰。即今豈是僧邪。

【頌】彊德二禪客。於路次見師騎牛。不識師。忽曰蹄角甚分明。爭奈騎者不鑿。師驟牛而去。彊德憩於樹下煎茶。師回却下牛問曰。二禪客近離甚麼處。彊曰。那邊。師曰那邊事作麼生。彊提起茶盞。師曰此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彊無對。師曰。莫道騎牛不鑿好。

○上堂。我四十九年在這裏。尚自有時走作。汝等諸人莫開大口。見解人多。行解人萬中無一箇。見解言語。總要知通。若識不盡。敢道輪迴去在。為何如此。蓋為識漏未盡。汝但盡却今時。始得成立。亦喚作立中功。轉功就他去。亦喚作就中功。親他去。我所以道。親人不得度。渠不度親人。恁麼譬喻尚不會薦取渾崙底。但管取性亂動舌頭。不見洞山道。相續也大難。汝須知有此事。若不知有。啼哭有日在。

雲蓋志元禪師

【頌】僧問石霜。萬戶俱閉即不問。萬戶俱開時如何。霜曰。堂中事作麼生。僧無對。經半年方始下一轉語曰。無人接得渠。霜曰道即太煞道。祇道得八成。曰和尚又且如何。霜曰。無人識得渠。師知乃禮拜。乞為舉。霜不肯。師乃抱霜上方丈曰。和尚若不道。打和尚去在。霜曰。得在。師頻禮拜。霜曰。無人識得渠。師於言下頓省。

南際僧一禪師

僧問。幸獲親近。乞師指示。師曰。我若指示。即屈著汝。曰教學人作麼生即是。師曰。切忌是非。

○問同類即不問。如何是異類。師曰。要頭斫將去。

覆船山洪薦禪師

【頌】僧問。抱璞投師。師還接否。師以手拍香臺。僧禮拜。師曰。禮拜則不無。其中事作麼生。僧却拍香臺。師曰。舌頭不出口。

鹿苑暉禪師

僧問。祖祖相傳。未審傳箇甚麼。師曰。汝問我。我問汝。曰恁麼則縑素不分也。師曰。甚麼處去來。

鳳翔石柱禪師

【頌】遊方時到洞山。時虔和尚垂語曰。有四種人。一人說過佛祖。一步行不得。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一人說得行得。一人說不得行不得。阿那箇是其人。師出眾曰。一人說過佛祖行不得

者。祇是無舌不許行。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者。祇是無足不許說。一人說得行得者。祇是函蓋相稱。一人說不得行不得者。如斷命求活。此是石女兒。披枷帶鎖。山曰。闍黎分上作麼生。師曰。該通分上。卓卓寧彰。山曰。祇如海上明公秀。又作麼生。師曰。幻人相逢。拊掌呵呵。

南嶽玄泰禪師

沉靜寡言。未嘗衣帛。時謂之泰布衲。始見德山。陞于堂矣。後謁石霜。遂入室焉。掌翰二十年。與貫休齊己為友。後居蘭若。曰金剛臺。誓不立門徒。四方後進依附。皆用交友之禮。

○嘗以衡山。多被山民。斬伐燒畚。為害滋甚。乃作畚山謠曰。畚山兒。畚山兒無所知。年年斫斷青山岨。就中最好衡嶽色。杉松利斧摧貞枝。靈禽野鶴無因依。白雲回避青烟飛。猿猱路絕。巖崖出芝。木失根。茆草肥。年年斫罷仍且鉏。千秋終是難復初。又道今年種不多。來年更斫當陽坡。國家壽嶽尚如此。不知此理如之何。遠邇傳播。達于九重。有詔禁止。故嶽中蘭若。無復延療。師之力也。將示滅。乃召一僧。令備薪蒸。留偈曰。今年六十五。四大將離主。其道自玄玄。箇中無佛祖。不用剃頭。不用澡浴。一堆猛火。千足萬足。端坐垂一足而逝。闍維收舍利。建塔於迎雲亭側。

潭州雲蓋禪師

僧問。不可以情測時如何。師曰無舌童兒。機智盡。

○風穴參。師問。石角穿雲路。携筇意若何。穴曰。紅霞籠玉象。擁嶂照川源。師曰。相隨來也。穴曰。和尚也須低聲。師曰。且坐喫茶。

龍湖普聞禪師

唐僖宗太子也。幼不茹葷。長無經世意。僖宗鍾愛之。然百計陶寫。終不能回。中和初。僖宗幸蜀。師斷髮逸遊。人無知者。造石霜問曰。祖師別傳事。肯以相付乎。霜曰。莫謗祖師。師曰。天下宗旨盛大。豈妄為之邪。霜曰。是實事耶。師曰。師意如何。霜曰。待案山點頭。即向汝道。師於言下頓省。

張拙秀才

【頌】因禪月大師指參石霜。霜問。秀才何姓。曰姓張。名拙。霜曰。覓巧尚不可得。拙自何來。公忽有省。乃呈偈曰。光明寂照徧河沙。凡聖含靈共我家。一念不生全體現。六根纔動被雲遮。斷除煩惱重增病。趣向真如亦是邪。隨順世緣無罣礙。涅槃生死等空花。

肥田慧覺伏禪師

僧問。此地名甚麼。師曰肥田。曰宜種甚麼。師便打。師有偈曰。修多好句枉工夫。返本還源是大愚。祖佛不從修證得。縱行玄路也崎嶇。

洛浦山元安禪師

卯年出家具戒。通經論。問道臨濟。後為侍者。濟嘗對眾美之曰。臨濟門下一隻箭。誰敢當鋒。師蒙印可。自謂已足。一日侍立次。有座主參濟。濟問。有一人於三乘十二分教明得。有一人不於三乘十二分教明得。且道此二人。是同是別。主曰。明得即同。明不得即別。師曰。這裏是甚麼所在。說同說別。濟顧師曰。汝又作麼生。師便喝。濟送座主回。問師。汝豈不是適來喝老僧者。師曰是。濟便打。

【頌】師後辭濟。濟問。甚麼處去。師曰。南方去。濟以拄杖畫一畫曰。過得這箇便去。師乃喝。濟便打。師作禮而去。濟明日陞堂曰。臨濟門下有箇赤稍鯉魚。搖頭擺尾向南方去。不知向誰家螿甕裏淹殺。師遊歷罷。直往夾山卓庵。經年不訪夾山。山乃修書令僧馳往。師接得便坐却再展手索。僧無對。師便打曰。歸去舉似和尚。僧回舉似。山曰。這僧若開書。三日內必來。若不開書。斯人救不得也。師果三日後至。見夾山不禮拜。乃當面叉手而立。山曰。雞棲鳳巢。非其同類。出去。師曰。自遠趨風。請師一接。山曰。目前無闍黎。此間無老僧。師便喝。山曰。住住。且莫草草忽忽。雲月是同。谿山各異。截斷天下人舌頭。即不無闍黎。爭教無舌人解語。師佇思。山便打。因茲服膺。

○山將示滅。垂語曰。石頭一枝。看看即滅矣。師曰不然。山曰何也。師曰。他家自有青山在。山曰。苟如是。即吾宗不墜矣。上堂。末後一句。始到牢關。鎖斷要津。不通凡聖尋常向諸人道。任從天下樂欣欣。我獨不肯。欲知上流之士。不將佛祖言教。貼在額頭上。如龜負圖。自取喪身之兆。鳳縈金網。趨霄漢以何期。直須旨外明宗。莫向言中取則。是以石人機似汝。也解唱巴歌。汝若似石人。雪曲也應和。指南一路。智者知疏。

【頌】僧問。供養百千諸佛。不如供養一箇無心道人。未審百千諸佛有何過。無心道人有何德。師曰。一片白雲橫谷口。幾多歸鳥盡迷巢。

○問如何是本來事。師曰。一粒在荒田。不耘苗自秀。曰若也不耘。莫被草埋却也無。師曰。肌骨異芻蕘。稊稗終難隱。

【頌】問如何是一大藏教收不得者。師曰。雨滋三草秀。片玉本來輝。

【頌】問一毫吞盡巨海。於中更復何言。師曰。家有白澤之圖。必無如是妖怪(保福別云。家無白潭之圖。必無如是妖怪)。

【頌】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日月並輪輝。誰家別有路。曰恁麼則顯晦殊途。事非一槩。師曰。但自不忘羊。何須泣岐路。

【頌】問學人擬歸鄉時如何。師曰。家破人亡。子歸何處。曰恁麼則不歸去也。師曰。庭前殘雪日輪消。室內遊塵遣誰掃。乃有偈曰。決志歸鄉去。乘船渡五湖。舉篙星月隱。停棹日輪孤。解纜離邪岸。張帆出正途。到來家蕩散。免作屋中愚。

○誠主事曰出家之法。長物不留。播種之時。切宜減省。締搆之務。悉從廢停。流光迅速。大道玄深。苟或因循。曷由體悟。雖激勵懇切。眾以為常。略不相儆。

【頌】示微疾。亦不倦參請。一日告眾曰。吾非明。即後也。今有一事問汝等。若道這箇是。即頭上安頭。若道不是。即斬頭求活。第一座對曰。青山不舉足。日下不挑燈。師曰。是甚麼時節。作這箇語話。時有彥從上座對曰。離此二途。請和尚不問。師曰。未得更道。曰彥從道不盡。師曰。我不管汝盡不盡。曰彥從無侍者祇對和尚。師便休。至夜令侍者喚從問曰。闍黎今日祇對。甚有道理。汝合體得先師意。先師道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且道那句是賓。那句是主。若擇得出。分付鉢袋子。曰彥從不會。師曰。汝合會。曰彥從實不會。師喝出。乃曰。苦苦(玄覺云。且道從上座實不會。是怕見鉢袋子粘著伊)。

黃山月輪禪師

上堂。祖師西來。特唱此事。自是諸人不薦。內外馳求。投赤水以尋珠。就荆山而覓玉。所以道。從門入者。不是家珍。認影迷頭。豈非大錯。

韶山寰普禪師

【頌】有僧到參。禮拜起立。師曰。大才藏拙戶。僧過一邊立。師曰。喪却棟梁材。

【頌】問如何是韶山境。師曰。古今猿鳥叫。翠色薄烟籠。曰如何是境中人。師曰。退後看。

【頌】問是非不到處。還有句也無。師曰。有。曰是甚麼句。師曰。一片白雲不露醜。

【頌】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絕頂無根草。無風葉自搖【增收】(遵布衲訪師問答甚奇。句繁不備錄)。

上藍令超禪師

僧問。如何是上藍本分事。師曰。不從千聖借。豈向萬機求。曰祇如不借不求時如何。師曰。不可拈放汝手裏得麼。

○問鋒前如何辨的。師曰。鋒前不露影莫向舌頭尋。

○問二龍爭珠。誰是得者。師曰。其珠徧地。目覩如泥。

○問善財見文殊後。為甚却往南方。師曰。學憑入室。知乃通方。曰為甚麼彌勒却遣見文殊。師曰。道廣無涯。逢人不盡。

太原海湖禪師

【頌】因有人請灌頂三藏供養。敷坐訖。師乃就彼位坐。時有雲涉座主問曰。和尚甚麼年行道。師曰。座主近前來。涉近前。師曰。祇如僑陳如。是甚麼年行道。涉茫然。師喝曰。這尿牀鬼。

天蓋山幽禪師

僧問。學人擬看經時如何。師曰。既是大商。何求小利。

【頌】有一院。名無垢淨光。造浴室。有人問。既是無垢淨光。為甚麼却造浴室。僧無語。後請師代。師曰。三秋明月夜。不是騁團圓【增收】。

三角令珪禪師

初參清平。平問來作麼。師曰。來禮拜。平曰。禮拜阿誰。師曰。特來禮拜和尚。平咄曰。這鈍根阿師。師乃禮拜。平以手斫師頸一下。從此領旨。

投子感溫禪師

師遊山。見蟬蛻。侍者問曰。殼在這裏。蟬向甚麼處去也。師拈殼就耳畔搖三五下。作蟬聲。侍者於是開悟。

○僧問父不投。為甚麼却投子。師曰。豈是別人屋裏事。曰父與子。還屬功也無。師曰不屬。曰不屬功底如何。師曰。父子各自脫。曰為甚麼如此。師曰。汝與我會。

牛頭微禪師

上堂。三世諸佛。用一點伎倆不得。天下老師。口似匾擔。諸人作麼生。大不容易。除非知有。餘莫能知。

盤山二世禪師

僧問。如何出得三界。師曰。在裏頭來多少時邪。曰如何出得。師曰。青山不礙白雲飛。

九巖敬慧禪師

僧問。解脫深坑。如何過得。師曰。不求過。曰如何過得。師曰。求過亦非。

觀音巖俊禪師

嘗經鳳林深谷。歎觀珍寶發現。同侶相顧。意將取之。師曰。古人鉏園。觸黃金若瓦礫。待吾菅覆頂。須此供四方僧。言訖捨去。

○謁投子。子問。昨夜宿何處。師曰。不動道場。子曰。既言不動。曷由至此。師曰。至此豈是動邪。子曰。元來宿不著處。投子默許之。

濠州思明禪師

僧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屎裏蛆兒。頭出頭沒。

谷山有緣禪師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夜半烏兒頭戴雪。天明啞子抱頭歸【增收】。

問一撥便轉時如何。師曰。野馬走時鞭轡斷。石人撫掌笑呵呵。

泐潭延茂禪師

僧問。如何是古佛心。師曰。終不道土木瓦礫是。

○問如何是和尚正主。師曰。畫鼓連椎響。耳畔不聞聲。

鳳棲同安院常察禪師

【頌】僧問。如何是鳳棲家風。師曰。鳳棲無家風。曰既是鳳棲。為甚麼無家風。師曰。不迎賓。不待客。曰恁麼則四海參尋。當為

何事。師曰。盤釘自有旁人施。

○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鐵狗吠石牛。幻人看月色。

○問如何是披毛戴角底人。師曰。蓑衣箬笠賣黃金。幾箇相逢不解喚。

○問學人未曉時機。乞師指示。師曰。參差松竹烟籠薄。重疊峰巒月上遲。僧擬進語。師曰。劔甲未施。賊身已露。僧曰。何也。師曰。精陽不剪霜前竹。水墨徒誇海上龍。僧繞禪牀而出。師曰。閉目食蝸牛。一場酸澀苦。

【頌】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犀牛翫月紋生角。象被雷驚花入牙。

○座主問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未審和尚說何法示人。師曰。我說一乘法。曰如何是一乘法。師曰。幾般雲色出峰頂。一樣泉聲落檻前。曰不問這箇。如何是一乘法。師曰。你不妨靈利。

○翫月次。謂僧曰。奇哉奇哉。星明月朗。足可觀瞻。豈異道乎。僧曰。如何是道。師曰。汝試道看。曰彼自無瘡。勿傷之也。師曰。負笈攻文。不閒弓矢。

○問僧。近離何處。曰江西。師曰。江西法道。何似此間。曰賴遇問著某甲。若問別人。則禍生也。師曰。老僧適來造次。曰某甲不是嬰兒。徒用止啼黃葉。師曰。傷鼈怨龜。殺活由我。

禾山無殷禪師

謁九峰。峰問。汝遠遠而來。暉暉隨眾。見何境界而可修行。由何徑路而能出離。師曰。重昏廓闕。盲者自盲。峰乃許入室。後住禾山。學徒濟濟。諸方降歎。

○江南李氏。召而問曰。和尚何處來。師曰。禾山來。曰山在甚麼處。師曰。人來朝鳳闕。山嶽不曾移。國主重之。

○僧問。仰山插鋤意旨如何。師曰汝問我。曰玄沙踏倒鋤。又作麼生。師曰。我問汝。曰未辨其宗。如何體悉。師曰。頭大尾尖。

【評】【頌】問習學謂之聞。絕學謂之隣。過此二者謂之真過。如何是真過。師曰。禾山解打鼓。曰如何是真諦。師曰。禾山解打鼓。又問即心即佛則不問。如何是非心非佛。師曰。禾山解打鼓。曰如何是向上事。師曰。禾山解打鼓。

○問萬法齊興時如何。師曰。禾山解打鼓(按五燈。有此一問。諸方祇說禾山四打鼓)。

洪州泐潭牟禪師

僧問。如何是學人著力處。師曰。正是著力處。

六通院紹禪師

僧問。不出咽喉唇吻事如何。師曰。待汝一鑊斲斷巾子山。我亦不向汝道。

雲蓋志罕禪師

僧問。如何是須彌頂上浪滔天。師曰。文殊正作鬧。曰如何是正位中事。師曰。不向機前展大悲。

○問如何是那邊人。師曰。鋒前不露影。句後竟無蹤。

新羅國瑞巖禪師

僧問。黑白兩亡開佛眼時如何。師曰。恐你守內。

○問如何是誕生王子。師曰。深宮引不出。曰如何是朝生王子。師曰。宮中不列位。曰如何是末生王子。師曰。處處無標的。不展萬人機。

新羅國百巖禪師

【頌】僧問。如何是禪。師曰。古塚不為家。曰如何是道。師曰。徒勞車馬迹。曰如何是教。師曰。貝葉收不盡。

新羅國大嶺禪師

僧問。古人道。祇到潼關便即休。會了便休未會便休。師曰。祇為迷途中活計。曰離却迷途。還得其中活計也無。師曰。體即得。當即不得。曰既是體得。為甚麼當不得。師曰。體是甚麼人分上事。曰其中事若何。師曰。不作尊貴。

○問如何是用中無礙。師曰。一片白雲繚亂飛。

【頌】問如何是一切處清淨。師曰。截瓊枝寸寸是寶。析梅檀片片皆香。

禾山師陰禪師

僧問。王子未來登。誰人當治化。師曰。闔外不行邊塞令。將軍自致太平年。曰甚麼則治化之功猶不當。師曰。亦有當。曰如何是當。師曰。十方國土盡屬於王。

○問如何是佛。師曰。承當者不是好手。

柘溪從實禪師

問僧。作甚麼來。曰親近來。師曰。任你白雲朝嶽頂。爭奈青山不展眉。

青峯傳楚禪師

僧問。大事已明。為甚麼也如喪考妣。師曰。不得春風花不開。及至花開又吹落。

○問如何是一色。師曰。全無一滴水。浪激似銀山。

烏牙彥賓禪師

僧問。未作人身已前。作甚麼來。師曰。三脚石牛坡上走。一枝瑞草目前分。

永安靜禪師

僧問。知有道不得時如何。師曰。知有箇甚麼。曰不可無去也。師曰。恁麼則合道得。曰道即不無。爭奈語偏。師曰。水凍魚難躍。山寒花發遲。

○問如何是一色。師曰。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

○問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時如何。師曰。鶴鷺並頭蹋雪睡。月明驚起兩遲疑。

鄧州中度禪師

僧問。如何是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師曰。真常塵不染。海納百川流。曰請和尚離聲色外答。師曰。木人常對語。有性不能言。

永安淨悟禪師

僧問。六門不通。如何達信。師曰。闍黎外邊與誰相識。

○問如何是西來意。師曰。海底泥牛吼。雲中木馬嘶。

木平善道禪師

【頌】初謁洛浦。問一漚未發已前。如何辨其水脉。浦曰。移舟諳水脉。舉棹別波瀾。師不契。乃參蟠龍。語同前問。龍曰。移舟不別水。舉棹即迷源。師從此悟入。

【頌】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石羊頭子向東看。

崇福志禪師

僧問。供養百千諸佛。不如供養一無心道人。未審諸佛有何過。無心道人有何德。師曰。雪深宜近火。身暖覺春遲。

鷲嶺善本禪師

浴次。僧問。和尚是離垢人。為甚麼却浴。師曰。定水湛然滿。浴此無垢人。

大安興古禪師

僧問。維摩默然意旨如何。師曰。黯黑石牛兒。超然不出戶。

烏牙行朗禪師

僧問。迦葉上行衣。何人合得披。師曰。天然無相子。不挂出塵衣。

開山懷晝禪師

僧問。作何行業。即得不違於千聖。師曰。妙行無倫匹。情玄體自殊。

○問如何是塵中師。師曰。荊棘林中隨處到。梅檀林裏任縱橫。

青峰山清勉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耨池無一滴。四海自滔滔。

大宋

太宗皇帝

【頌】一日因僧朝見。帝問甚處來。對曰。廬山臥雲庵。帝曰。朕聞臥雲深處不朝天。為甚到此。僧無對(雪竇代云難迹至化)。

【頌】因僧入對次。奏曰。陛下還記得麼。帝曰。甚處相見來。奏曰。靈山一別。直至如今。帝曰。卿以何為驗。僧無對(雪竇代云。貧道得得而來)。

【頌】帝嘗夢神人報曰。請陛下發菩提心。因早朝宣問左右街。菩提心作麼生發。街無對(雪竇代云。實謂今古罕聞)。

【頌】一日朝罷。帝擎鉢問丞相王隨曰。既是大庾嶺頭提不起。為甚麼却在朕手裏。隨無對。

孝宗皇帝

【頌】宣問。靈隱佛照光禪師曰。釋迦佛入山修道。六年而成。所成者何事。請師明說。對曰。將謂陛下忘却。

未詳法嗣

茶陵郁山主

【頌】不曾行脚。因廬山有化主至。論及宗門中事。教令看僧問法燈。百尺竿頭。如何進步。燈云噫。凡三年。一日乘驢度橋。一踏橋板而墮。忽然大悟。遂有頌曰。我有神珠一顆。久被塵勞關鎖。今朝塵盡光生。照破山河萬朵。因茲更不遊方。

先淨照禪師

問楞嚴大師。經中道若能轉物。即同如來。若被物轉。即名凡夫。祇如昇元閣。作麼生轉。嚴無對。

東山雲頂禪師

道學有聞。叢林稱為頂三教。一日九龍觀道士。并三士人。請上堂。儒門畫八卦。造契書。不救六道輪迴。道門朝九皇。鍊真氣。不達三祇劫數。我釋迦世尊。洞三祇劫數。救六道輪迴。以大願攝人天。如風輪持日月。以大智破生死。若劫火焚秋毫。入得我門者。自然轉變天地。幽察鬼神。使須彌鐵圍。大地大海。入一毛孔中。一切眾生。不覺不知。我說此法門如虛空俱含萬象。一為無量。無量為一。若人得一。即萬事畢。珍重。

雲幽重憚禪師

上堂。雲幽一隻箭。虛空無背面。射去徧十方。要且無人見。時有僧問。如何是和尚一隻箭。師曰。盡大地人無觸體。

樓子和尚

【頌】一日偶經遊街市間。於酒樓下整襪帶次。聞樓上唱曲云。你既無心我也休。忽然大悟。因號樓子焉。

天竺證悟法師

嘗患本宗學者。囿於名相。膠於筆錄。至以天台之傳。為文字之學。南宗鄙之。乃謁護國此菴元禪師。夜語次。師舉東坡宿東林偈。且曰。也不易到此田地。庵曰。尚未見路徑。何言到耶。曰祇如他道。溪聲便是廣長舌。山色豈非清淨身。若不到此田地。如何有這箇消息。庵曰。是門外漢耳。曰和尚不吝。可為說破。菴曰。却祇從這裏猛著精彩觀捕看。若觀捕得他破。則亦知本命元辰落著處。師通夕不寐。及曉鐘鳴。去其祕畜。以前偈別曰。東坡居士太饒舌。聲色關中欲透身。溪若是聲山是色。無山無水好愁人。特以告此菴。菴曰。向汝道。是門外漢。師禮謝。未幾。有化馬祖殿瓦者。求語發揚。師書曰。寄語江西老古錐。從教日炙與風吹。兒孫不是無料理。要見冰消瓦解時。此庵見之笑曰。須是這闍黎始得。

本嵩律師

因無為居士楊傑請問。宣律師所講毗尼性體。師以偈答曰。情智何嘗異。犬吠蛇自行。終南的的意。日午打三更。

昔有老宿【頌】一夏不為師僧說話。有僧歎曰。我祇恁麼空過一夏。不敢望和尚說佛法。得聞正因兩字也得。老宿聞。乃曰。闍黎。莫[斯/言]速。若論正因。一字也無。道了叩齒云。適來無端。不合與麼道。隣壁有一老宿聞曰。好一釜羹。被一顆鼠糞汗却(雪竇代云。誰家釜內無一兩顆)。

【頌】昔有一僧。在經堂內不看經。每日打坐。藏主曰。何不看經。僧曰。某甲不識字。主曰。何不問人。僧近前叉手鞠躬曰。這箇是甚麼字。主無對(大通本代云又道不識)。

昔二庵主住庵。【頌】旬日不相見。忽相會。上庵主問下庵主。多時不相見。向甚麼處去。下庵主曰。在庵中造箇無縫塔。上

庵主曰。某甲也要造一箇。就兄借取塔樣子。下庵主曰。何不早說。恰被人借去了也

昔有老宿云。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我立地待汝搆去
(法眼云。山僧如今坐地。待汝搆去。還有道理也無。那箇親。那箇疎。試裁斷看)。

○有僧因看法華經。至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忽疑不決。行住坐臥每自體究。都無所得。忽春月聞鶯聲。頓然開悟。遂續前偈曰。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春至百花開。黃鶯啼柳上。

○有僧與童子上經了。令持經著函內。童子曰。某甲念底著向那裏
(法燈代云。汝念甚麼經)。

昔有官人作無鬼論。中夜揮毫次。忽見一鬼出云。汝道無。我嚙
(五祖演云。老僧當時若見。但以手作鵝鳩嘴。向伊道。谷呱呱)

昔有婆子【頌】供養一庵主。經二十年。常令一二八女子。送飯給侍。一日令女子抱定曰。正恁麼時如何。主曰。枯木倚寒巖。三冬無煖氣。女子舉似婆。婆曰。我二十年。祇供養得箇俗漢。遂遣出。燒却庵

陳道婆

嘗徧扣諸方名宿。後於長老山。淨和尚語下發明。有偈曰。高坡平頂上。盡是採樵翁。人人盡懷刀斧意。不見山花映水紅。

昔有婦人入院。行眾僧隨年錢。僧曰。聖僧前著一分。婦人曰。聖僧年多少。僧無對。法眼代云。心期滿處則知。

(會元六卷終)

禪宗正脉卷第三

音釋

畱(芒逼切廣韻道滿玉篇滿謂之畱也) 顛(以) 囁嚅(鑷如多口) 鈿(突音鈍也) 荐(薦音再也屢也) 搵(根) 蹠(捷) 較(角教二音直也大略也著明貌) 罌(銀) 勔(免) 賸(蜺) 瞥(驚入聲暫見也) 鑊(居縛大鉏) 橈(饒) 駐(住) 埭(妥) 滲(森去聲) 吃(魚乞) 鍬(此遙鑿插) 石 矚(燭) 畚(于音三歲田賒音火種田) 猱(奴力猴屬) 僖(希) 締(第) 倣(景音戒也) 蛻(稅音解也) [鹵/八/夕](宗) 欸(薰入聲暴起也) 菅(姦音菅苦) 暉(混又古困切視也) 斷(斫音斫也) 黯(乙減) 憚(委粉) [斯/言](西)

禪宗正脉卷第四

青原

天皇道悟禪師

首謁徑山國一。受心法。服勤五載。後參馬祖。重印前解。法無異說。依止二夏。乃謁石頭而致問曰。離却定慧。以何法示人。頭曰。我這裏無奴婢。離箇甚麼。曰如何明得。頭曰。汝還撮得虛空麼。曰恁麼則不從今日去也。頭曰。未審汝早晚從那邊來。曰道悟不是那邊人。頭曰。我早知汝來處也。曰師何以臧誣於人。頭曰汝身現在。曰雖然如是。畢竟如何示於後人。頭曰。汝道誰是後人。師從此頓悟。罄殫前二哲匠言下有所得心。

○僧問。如何是玄妙之說。師曰。莫道我解佛法好。曰爭奈學人疑滯何。師曰。何不問老僧。曰即今問了也。師曰。去。不是汝存泊處。

龍潭崇信禪師

【頌】其家賣餅。師少而英異。初悟和尚。為靈鑒潛請居天皇寺。人莫之測。師家于寺巷。常日以十餅饋之。天皇受之。每食畢。常留一餅曰。吾惠汝以蔭子孫。師一日自念曰。餅是我持去。何以返遺我邪。其別有旨乎。遂造而問焉。皇曰。是汝持來。復汝何咎。師聞之頗曉玄旨。因投出家。

【頌】皇曰。汝昔崇福善。今信吾言。可名崇信。由是服勤左右。一日問曰。某自到來。不蒙指示心要。皇曰。自汝到來。吾未嘗不指汝心要。師曰。何處指示。皇曰。汝擎茶來吾為汝接。汝行食來吾為汝受。汝和南時吾便低首。何處不指示心要。師低頭良久。皇

曰。見則直下便見。擬思即差。師當下開解。復問如何保任。皇曰。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別無聖解。

德山宣鑒禪師

【頌】簡州周氏子。在蜀常講金剛般若。時謂之周金剛。因擔青龍疏鈔出蜀。至灄陽路上。見一婆子賣餅。遂息肩買餅點心。婆乃指擔問云。金剛經三心。未審上座點那箇心。師無語。遂往龍潭。至法堂曰。久嚮龍潭。及乎到來。潭又不見。龍又不現。潭引身曰。子親到龍潭。師無語。遂棲止焉。

【頌】師一夕侍立次。潭曰。更深。何不下去。師珍重便出。却回曰。外面黑。潭點紙燭度與師。師擬接。潭復吹滅。師於此大悟。便禮拜。潭曰。子見箇甚麼。師曰。從今向去。更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至來日。龍潭陞座謂眾曰。可中有箇漢。牙如劒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他時向孤峰頂上。立吾道去在。師將疏鈔。堆法堂前。舉火炬曰。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于巨壑。遂焚之。

【評】【頌】禮謝龍潭。直抵瀉山。挾複子上法堂。從西過東。從東過西。顧視方丈曰。有麼有麼。山坐次殊不顧盼。師曰無無。便出。至門首乃曰。雖然如此。也不得草草。遂具威儀。再入相見。纔跨門。提起坐具曰。和尚。山擬取拂子。師便喝。拂袖而出。瀉山至晚問首座。今日新到在否。座曰。當時背却法堂。著草鞋出去也。山曰。此子已後。向孤峰頂上。盤結草庵。呵佛罵祖去在。

○上堂。若也於已無事。則勿妄求。妄求而得。亦非得也。汝但無事於心。無心於事。則虛而靈。空而妙。若毛端許言之本末者。皆為自欺。何故。毫釐繫念。三途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聖名

凡號。盡是虛聲。殊相劣形。皆為幻色。汝欲求之。得無累乎。及其厭之。又成大患。終而無益。

【頌】小參示眾曰。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禮拜。師便打。僧曰。某甲話也未問。和尚因甚麼打某甲。師曰。汝是甚麼處人。曰新羅人。師曰。未跨船舷。好與三十棒(法眼云。大小德山。話作兩概。圓明云。大小德山。龍頭蛇尾)。

○上堂。問即有過。不問猶乖。有僧出禮拜。師便打。僧曰。某甲始禮拜。為甚麼便打。師曰。待汝開口。堪作甚麼。

○雪峰問。南泉斬猫兒意旨如何。師乃打趂。却喚曰會麼。峰曰不會。師曰。我怎麼老婆心。也不會。

【頌】示眾曰。道得也三十棒。道不得也三十棒。臨濟聞得。謂洛浦曰。汝去問他。道得為甚麼也三十棒。待伊打汝。接住棒送一送。看伊作麼生。浦如教而問。師便打。浦接住送一送。師便歸方丈。浦回舉似臨濟。濟曰。我從來疑著這漢。雖然如是。你還識德山麼。浦擬議。濟便打。

泐潭寶峰和尚

問僧。古人有一路。接後進初心。汝還知否。曰請師指出古人一路。師曰。甚麼則闍黎知了也。曰頭上更安頭。師曰。寶峰不合問仁者。曰問又何妨。師曰。這裏不曾有人亂說道理。出去。


巖頭全叟禪師

【頌】一日參德山。方跨門。便問是凡是聖。山便喝。師禮拜。有人舉似洞山。山曰。若不是叟公。大難承當。師曰。洞山老人。不識好惡。錯下名言。我當時一手擡一手搯。

【頌】雪峰在德山作飯頭。一日飯遲。德山擎鉢下法堂。峰曬飯巾次。見德山。乃曰。鐘未鳴鼓未響。拓鉢向甚麼處去。德山便歸方丈。峰舉似師。師曰。大小德山。未會末後句在。山聞。令侍者喚師去問。汝不肯老僧那。師密啟其意。山乃休。明日陞堂。果與尋常不同。師至僧堂前拊掌大笑曰。且喜堂頭老漢。會末後句。他後天下人不奈伊何。雖然也祇得三年活(山果三年後示滅)。

【頌】師住鄂州巖頭。值沙汰。於湖邊作渡子。兩岸各挂一板。有人過渡。打板一下。師曰阿誰。或曰。要過那邊去。師乃舞棹迎之。一日因一婆抱一孩兒來。乃曰。呈橈舞棹即不問。且道婆子手中兒甚處得來。師便打。婆曰。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祇這一箇也不消得。便拋向水中。

○上堂。吾嘗究涅槃經七八年。觀三兩段義。似衲僧說話。又曰。

休休。時有一僧出禮拜。請師舉。師曰。吾教意如字三點。第一向東方下一點。點開諸菩薩眼。第二向西方下一點。點諸菩薩命根。第三向上方下一點。點諸菩薩頂。此是第一段義。又曰。吾教意如摩醯首羅。擘開面門。豎亞一隻眼。此是第二段義。

【頌】又曰。吾教意猶如塗毒鼓。擊一聲。遠近聞者皆喪。此是第三段義。時小巖上座問。如何是塗毒鼓。師以兩手按膝。亞身曰。韓信臨朝底巖無語。

【頌】問僧甚處來。曰西京來。師曰。黃巢過後。還收得劍麼。曰收得。師引頸近前曰。因。曰師頭落也。師呵呵大笑。僧後到雪峰。峰問甚處來。曰巖頭來。峰曰。巖頭有何言句。僧舉前話。峰便打三十棒。趲出。

○僧問。雪峰。聲聞人見性。如夜見月。菩薩人見性。如晝見日。未審和尚見性如何。峰打拄杖三下。僧後舉前話問師。師與三擗。

【頌】問古帆未挂時如何。師曰。小魚吞大魚。又僧如前問。師曰。後園驢喫草。邇後人或問。佛。問法。問道。問禪者。師皆作噓聲(頌古稍異)。

雪峰義存禪師

【頌】初與巖頭至澧州鰲山鎮。阻雪。頭每日祇是打睡。師一向坐禪。一日喚曰。師兄師兄。且起來。頭曰。作甚麼。師曰。今生不著便。共文邃箇漢行脚。到處被他帶累。今日到此。又祇管打睡。頭喝曰。瞌睡去。每日牀上坐。恰似七村裏土地。他時後日。魔魅人家男女去在。師自點胸曰。我這裏未穩在。不敢自謾。頭曰。我將謂你。他日向孤峰頂上。盤結草庵。播揚大教。猶作這箇語話。師曰。我實未穩在。頭曰。你若實如此。據你見處一一通來。是處與你證明。不是處與你剗却。師曰。我初到鹽官。見上堂舉色空義。得箇入處。頭曰。此去三十年。切忌舉著。又見洞山過水偈曰。切忌從他覓。迢迢與我踈。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頭曰。若與麼。自救也未徹在。師又曰。後問德山。從上宗乘中事。學人還有分也無。德山打一棒曰。道甚麼。我當時如桶底脫相似。頭喝曰。你不聞道從門入者。不是家珍。師曰。他後如何即是。頭曰。他後若欲播揚大教。一一從自己胸襟流出將來。與我蓋天蓋地去。師於言下大悟。便作禮起。連聲叫曰。師兄。今日始是鰲山成道。

【頌】師在洞山作飯頭。淘米次。山問。淘沙去米。淘米去沙。師曰。沙米一時去。山曰。大眾喫箇甚麼。師遂覆却米盆。山曰。據子因緣。合在德山。

【頌】僧問。寂然無依時如何。師曰。猶是病。曰轉後如何。師曰。船子下揚州。

○栖典座問。古人有言。知有佛向上事。方有語話分。如何是語話。師把住曰。道道。栖無對。師遂蹋倒。栖當下汗流。

【頌】問僧甚處來。曰近離浙中。師曰。船來。陸來曰二途俱不涉。師曰。爭得到這裏。曰有甚麼隔礙。師便打。

○問僧甚處去。曰禮拜徑山和尚去。師曰。徑山若問汝。此間佛法如何。汝作麼生祇對。曰待問即道。師便打。後舉問鏡清。這僧過在甚麼處。清曰。問得徑山徹困。師曰。徑山在浙中。因甚麼問得徹困清曰。不見道。遠問近對。師曰。如是如是。

【頌】師行脚時。參烏石觀品尚。纔敲門。石問誰。師曰鳳凰兒。石曰。來作麼。師曰。來啗老觀。石便開門擱住曰。道道。師擬議。石拓開。閉却門。師住後示眾曰。我當時若入得老觀門。你這一隊啗酒糟漢。向甚麼處摸索。

○問僧甚處來。曰滄山來。師曰。滄山有何言句。曰某甲曾問。如何是祖師西來意。滄山據坐。師曰。汝肯他否。曰某甲不肯他。師曰。滄山古佛。汝速去懺悔。

○問僧甚麼處。去曰識得即知去處。師曰。汝是了事人。亂走作麼。曰和尚莫塗汙人好。師曰。我即不塗汙你古人吹布毛。作麼生。與我說來看。曰殘羹餽飯已有人喫了。師休去。

【評】【頌】上堂。南山有一條鼈鼻蛇。汝等諸人。切須好看。長慶出曰。今日堂中。大有人喪身失命。雲門以拄杖攏向師前。作怕勢。有僧舉似玄沙。沙曰。須是稜兄始得。然雖如是。我即不然。曰和尚作麼生。沙曰。用南山作麼。

【評】【頌】一日有兩僧來。師以手拓菴門。放身出曰。是甚麼。僧亦曰。是甚麼。師低頭歸菴。僧辭去。師問甚麼處去。曰湖南。

師曰。我有箇同行。住巖頭。附汝一書去。書曰。某。書上師兄某。一自鰲山成道後迄至于今飽不飢。同參某。書上。僧到巖頭。問甚麼處來。曰雪峰來。有書達和尚。頭接了。乃問僧別有何言句。僧遂舉前話。頭曰。他道甚麼。曰他無語低頭歸菴。頭曰。噫。我當初悔不向伊道末後句。若向伊道。天下人不奈雪老何。僧至夏末請益前話。頭曰。何不早問。曰未敢容易。頭曰。雪峰雖與我同條生。不與我同條死。要識末後句。祇這是。

【評】【頌】上堂。盡大地撮來如粟米粒大。拋向面前。漆桶不會。打鼓普請看(長慶問雲門曰。雪峰與麼道。還有出頭不得處麼。門曰。有。曰作麼生。門曰。不可總作野狐精見解。又曰。狼籍不少)。

【評】【頌】三聖問透網金鱗。以何為食。師曰。待汝出網來。向汝道。聖曰。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師曰。老僧住持事繁。

【頌】上堂。盡大地是箇解脫門。把手拽伊不肯入。時一僧出曰。和尚怪某甲不得。又一僧曰。用人作甚麼。師便打。

【頌】一日陞座。眾集定。師輒出木毬。玄沙遂捉來安舊處。

【頌】一日在僧堂內燒火。閉却前後門。乃叫曰。救火救火。玄沙將一片柴從窓櫺中拋入。師便開門。

【頌】僧問。古澗寒泉時如何。師曰。瞪目不見底。曰飲者如何。師曰。不從口入。僧舉似趙州。州曰。不從口入。不可從鼻孔裏入。僧却問古澗寒泉時如何。州曰苦。曰飲者如何。州曰死。師聞得。乃曰趙州古佛。遙望作禮。自此不答話。

【頌】師因閩王封柑橘各一顆。遣使送至。東問。既是一般顏色。為甚名字不同。師遂依舊封回。王復馳問玄沙。沙將一張紙蓋却。

○僧問。拈搥豎拂。不當宗乘。未審和尚如何。師豎起拂子。僧乃抱頭出去師不顧(法眼代云。大眾看此一員戰將)。

【頌】上堂。舉拂子曰。這箇為中下。僧問。上上人來時如何。師舉拂子。僧曰。這箇為中下。師便打。

○問國師三喚侍者。意如何。師乃起入方丈。

○上堂。我若東道西道。汝則尋言逐句。我若羚羊挂角。汝向甚麼處捫摸。

【頌】示眾云。此事不從脣吻得。不從黃卷上得。不從諸方老宿得。合從甚麼處得。也須子細【增收】。

師之法席。常不減千五百眾。

瑞龍恭禪師

謁德山。山問會麼曰。作麼。山曰。請相見。曰識麼。山大笑。遂許入室。

高亭簡禪師

【頌】參德山。隔江纔見。便云不審。山乃搖扇招之。師忽開悟。乃橫趨而去。更不回顧。

瑞巖師彥禪師

初禮巖頭。問曰。如何是本常理。頭曰。動也。曰動時如何。頭曰。不是本常理。師良久。頭曰。肯即未脫根塵。不肯永沉生死。師遂領悟。便禮拜。頭每與語。微疇無忒。

○後謁夾山。山問甚處來。曰臥龍來。山曰。來時龍還起也未。師乃顧視之。山曰。炙瘡癩上。更著艾燠。曰和尚又苦如此作甚麼。山休去。

【頌】師尋居丹丘瑞巖。坐磐石。終日如愚。每自喚主人公。復應諾。乃曰。惺惺著。他後莫受人謾(後有僧參玄沙。沙問近離甚處。云瑞巖。沙云。有何言句示徒。僧舉前話。沙云。一等是弄精魂。也甚奇怪。乃云。何不且在彼住。云。已遷化也。沙云。而今還喚得應麼。僧無對)。

羅山道閑禪師

【頌】閩帥飲其法味。請居羅山。號法寶禪師。開堂陞座。方斂衣。便曰。珍重。時眾不散。良久。師又曰。未識底近前來。僧出禮拜。師抗聲曰。也大苦哉。僧擬伸問。師乃喝出。

【頌】師在禾山。送同行矩長老出門次。把拄杖向面前一攏矩無對。師曰。石牛攔古路。一馬生雙駒。(後僧舉似疎山山云。石牛攔古路。一馬生三寅)。

【頌】無軫上座問。祇如巖頭道洞山好佛。祇是無光。未審洞山有何虧闕便道無光。師召軫。軫應諾。師曰。灼然好箇佛。祇是無光曰。大師為甚廢撥無軫話。師曰。甚麼處是陳老師撥你話處。快道快道。軫無語。師打三十棒。趁出。軫舉似招慶。慶一夏罵詈。至夏末。自來問師乃分明舉似。慶便作禮懺悔曰。洎錯怪大師。

○僧問。如何是百草頭上盡是祖師意。師曰。刺破汝眼。

○臨遷化上堂。集眾良久。展左手。主事罔測。乃令東邊師僧退後。又展右手。又令西邊師僧退後。迺曰。欲報佛恩。無過流通大教。歸去也。歸去也。珍重。

玄沙師備宗一禪師

布衲芒屨。食纔接氣。常終日宴坐。眾皆異之。與雪峰本法門昆季。而親近若師資。峰以其苦行。呼為頭陀。一日峰問。阿那箇是。備頭陀。師曰。終不敢誑於人。

【頌】異日峰召曰。備頭陀。何不徧參去。師曰。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峰然之。

○師入室咨決。罔替晨昏。又閱楞嚴。發明心地。由是應機敏捷。與修多羅冥契。諸方玄學有所未決。必從之請益。至與雪峰徵詰。亦當仁不讓。峰曰。備頭陀。再來人也。

○上堂。佛道閑曠。無有程途。無門解脫之門。無意道人之意。不在三際。故不可昇沉。建立乖真。非屬造化。動則起生死之本。靜則醉昏沉之鄉。動靜雙泯。即落空亡。動靜雙收。顛預佛性。必須對塵對境。如枯木寒灰。臨時應用。不失其宜。鏡照諸像不亂光輝。鳥飛空中。不雜空色。所以十方無影像。三界絕行蹤。不墮往來機。不住中間意。鐘中無鼓響。鼓中無鐘聲。鐘鼓不相交。句句無前後。如壯士屈臂。不藉他力。師子遊行。豈求伴侶。九霄絕翳。何在穿通。一段光明。未曾昏昧。若到這裏。體寂寂。常的的。日赫燄。無邊表。圓覺空中不動搖。吞爍乾坤迥然照。夫佛出世者。元無出入。名相無體。道本如如。法爾天真。不同修證。祇要虛閒。不昧作用。不涉塵泥。箇中纖毫道不盡。即為魔王眷屬。句前句後。是學人難處。所以一句當天。八萬門永絕生死。直饒得似秋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道人行處。如火銷冰。終不却成冰。箭既離弦。無返回勢。所以牢籠不肯住。呼喚不回頭。古聖不安排。至今無處所。若到這裏。步步登玄。不屬邪正。識不能識。智不能知。動便失宗。覺即迷旨。二乘膽顫。十地魂驚。語路處絕。心行處滅。直得釋迦

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須菩提唱無說而顯道。釋梵絕聽而雨花。若與麼現前。更疑何事。沒棲泊處。離去來今。限約不得。心思路絕。不因莊嚴。本來真淨。動用語咲。隨處明了。更無欠少。今時人不悟箇中道理。妄自涉事涉塵。處處染著。頭頭繫絆。縱悟則塵境紛紜。名相不實。便擬凝心斂念。攝事歸空。閉目藏睛。終有念起。旋旋破除。細想纔生。即便遏捺。如此見解。即是落空亡底外道。魂不散底死人。冥冥漠漠。無覺無知。塞耳偷鈴。徒自欺誑。這裏分別。則不然。也不是隈門傍戶。句句現前。不得商量。不涉文墨。本絕塵境。本無位次。權名箇出家兒。畢竟無蹤迹。真如凡聖。地獄人天。祇是療狂子之方。虛空尚無改變。大道豈有昇沉。悟則縱橫不離本際。若到這裏。凡聖也無立處。若向句中作意。則沒溺殺人。若向外馳求。又落空界。如如向上。沒可安排。恰似燄爐不藏蚊[虫*芮]。此理本來平坦。何用剷除。動靜揚眉是真解脫。道不彊為意度。建立。乖真。若到這裏。纖毫不受。指意則差。便是千聖出頭來。也安一字不得久立珍重。

○上堂。我今問汝諸人。且承當得箇甚麼事。在何世界安身立命。還辨得麼。若辨不得。恰似捏目生花。見事便差。知麼如今目前。見有山河大地。色空明暗。種種諸物。皆是狂勞花相。喚作顛倒知見。夫出家人。識心達本源。故號為沙門。汝今既已剃髮披衣。為沙門相。即便有自利利他分。如今看著。盡黑漫漫地。墨汁相似。自救尚不得。爭解為得人。仁者。佛法因緣事大。莫作等閒相似。聚頭亂說雜話。趁韻過時。光陰難得。可惜許大丈夫兒。何不自省察。看是甚麼事。祇如從上宗乘。是諸佛頂族。汝既承當不得。所以我方便勸汝。但從迦葉門接續頓超去。此一門超凡聖因果。超毗盧妙莊嚴世界海。超他釋迦方便門。直下永劫。不教有一物與汝作眼見。何不自急急究取。未必道我且待三生兩生。久積淨業仁者。宗乘是甚麼事。不可由汝用工莊嚴便得去不可他心宿命便得去。會麼。祇如釋迦出頭來作許多變弄。說十二分教如餅灌水。大作一場

佛事。向此門中用一點不得。用一毛頭伎倆不得。知麼。如同夢事。亦如寐語。沙門不應出頭來。不同夢事。蓋為識得知麼。識得。即是大出脫大徹頭人所以超凡越聖。出生離死。離因離果。超毗盧。越釋迦。不被凡聖因果所謾。一切處無人識得汝。知麼。莫祇長戀生死愛網。被善惡業拘將去。無自由分。饒汝鍊得身心同虛空去。饒汝到精明湛不搖處。不出識陰。古人喚作如急流水。流急不覺。妄為恬靜。恁麼修行。盡出他輪迴際不得。依前被輪迴去。所以道。諸行無常。直是三乘功果。如是可畏。若無道眼。亦不究竟。何似如今博地凡夫。不用一毫工夫。便頓超去。解省心力麼。還願樂麼。勸汝。我如今立地待汝搆去。更不教汝加工鍊行。如今不恁麼。更待何時還肯麼。便下座。

○上堂。汝諸人如在大海裏坐。沒頭浸却了。更展手問人乞水喫。夫學般若菩薩。須具大根器。有大智慧始得。若有智慧。即今便出脫得去。若是根機遲鈍。直須勤苦耐志。日夜忘疲。無眠失食。如喪考妣相似。恁麼急切。盡一生去。更得人荷挾。尅骨究實。不妨易得。搆去。且況如今。誰是堪任受學底人。仁者。莫祇是記言記語。恰似念陀羅尼相似。蹋步向前來。口裏哆哆和和地。被人把住詰問著。沒去處便嗔道和。尚不為我答話。恁麼學事大苦。知麼。有一般坐繩牀和尚。稱善知識。問著便搖身動手。點眼吐舌瞪視。更有一般說昭昭靈靈。靈臺智性。能見能聞。向五蘊身田裏作主宰。恁麼為善知識。大賺人。知麼。我今問汝。汝若認昭昭靈靈。是汝真實。為甚麼瞌睡時。又不成昭昭靈靈。若瞌睡時不是。為甚麼有昭昭時。汝還會麼。這箇喚作認賊為子。是生死根本。妄想緣起。汝欲識根由麼。我向汝道。昭昭靈靈。祇因前塵色聲香等法。而有分別。便道此是昭昭靈靈。若無前塵。汝此昭昭靈靈。同於龜毛兔角。仁者。真實在甚麼處。汝今欲得出他五蘊身田主宰。但識取汝秘密金剛體。古人向汝道。圓成正徧。徧周沙界。我今少分為汝智者。可以譬喻得解。汝還見南閻浮提日麼。世間人所作興營。

養身活命。種種心行作業。莫非皆承日光成立。祇如日體還有許多般心行麼。還有不周徧處麼。欲識金剛體。亦須如是看。祇如今山河大地。十方國土。色空明暗。及汝身心。莫非盡承汝圓成威光所現。直是天人羣生類。所作業次。受生果報。有情無情莫非承汝威光。乃至諸佛成道成果。接物利生。莫非盡承汝威光。祇如金剛體。還有凡夫諸佛麼。有汝心行麼。不可道無。便得當去也。知麼。汝既有如是奇特。當陽出身處。何不發明取。因何却隨他。向五蘊身田中。鬼趣裏作活計。直下自謾。去忽然無常殺鬼到來。眼目講張。身見命見。恁麼時大難支荷。如生脫龜殼相似。大苦。仁者莫把瞌睡見解。便當却去。未解蓋覆得毛頭許。汝還知麼。三界無安。猶如火宅。且汝未是得安樂底人。祇大作羣隊。干他人世。這邊那邊。飛走野鹿相似。但求衣食。若恁麼。爭行他王道。知麼。國王大臣。不拘執汝。父母放汝出家。十方施主。供汝衣食。土地龍神荷護汝。也須具慚愧知恩始得。莫孤負人好。長連牀上。排行著地。銷將去道是安樂。未在。皆是粥飯將養得汝。爛冬瓜相似。變將去。土裏埋將去。業識茫茫。無本可據。沙門因甚麼到恁麼地。祇如大地上。蠢蠢者。我喚作地獄劫住。如今若不了。明朝後日。入驢胎馬肚裏。牽犁拽杷。銜鐵負鞍。確擣磨磨。水火裏燒煮去。大不容易受。大須恐懼好。是汝自累。知麼。若是了去。直下永劫。不曾教汝有這箇消息。若不了此煩惱惡業因緣。不是一劫兩劫得休。直與汝金剛齊壽。知麼。

【頌】師因參次。聞燕子聲。乃曰。深談實相。善說法要。便下座。時有僧請益。曰某甲不會。師曰。去。誰信汝。

【頌】鼓山來。師作一圓相示之山曰。人人出這箇不得。師曰。情知汝向驢胎馬腹裏作活計。山曰。和尚又作麼生。師曰人人出這箇不得。山曰。和尚與麼道却得。某甲為甚麼道不得。師曰。我得汝不得。

【頌】僧侍立次。師以杖指面前地上白點曰。還見麼。曰見。如是三問僧亦如是答。師曰。你也見。我也見。為甚麼道不會。

【頌】因雪峰指火曰。三世諸佛。在火燄裏轉大法輪。師曰。近日王令稍嚴。峰曰。作麼生師曰不許攙奪行市。雲門曰。火燄為三世諸佛說法。三世諸佛立地聽。

○僧問。古人拈槌豎拂。還當宗乘也無。師曰不當。曰古人意作麼生。師舉拂子。僧曰。宗乘中事如何。師曰。待汝悟始得。

【頌】師垂語曰。諸方老宿。盡道接物利生。祇如三種病人。汝作麼生接。患盲者。拈椎豎拂。他又不見。患聾者。語言三昧。他又不聞。患瘖者。教伊說又說不得。若接不得。佛法無靈驗。時有僧出曰。三種病人。還許學人商量否師曰。許汝作麼生商量。其僧珍重出。師曰。不是不是。羅漢曰。桂琛現有眼耳口。和尚作麼生接。師曰。慚愧。便歸方丈。中塔曰。三種病人。即今在甚麼處。又一僧曰。非唯謾他。兼亦自謾。(法眼云。我當時見羅漢舉此僧語。我便會三種病人。雲居錫云。祇如此僧會不會。若道會。玄沙又道不是。若道不會。法眼為甚麼道我因此僧語。便會三種病人。上座。無事上來商量。大家要知)有僧請益雲門。門曰。汝禮拜著。僧禮拜起。門以拄杖拈之。僧退後。門曰。汝不是患盲麼。復喚近前來。僧近前。門曰。汝不是患聾麼。門曰。會麼。曰不會。門曰。汝不是患瘖麼。僧於是有省。

【頌】師因僧禮拜。師曰。因我得禮汝。

【頌】師一日遣僧送書上雪峰。峰開緘。見白紙三幅問僧會麼。曰不會。峰曰。不見道。君子千里同風僧回舉似。師曰。山頭老漢。蹉過也不知。曰和尚如何。師曰。孟春猶寒。也不解道。

【頌】師問鏡清。教中道。不見一法。為大過患。且道不見甚麼法。清指露柱。曰莫是不見這箇法麼。(同安顯別云。也知和尚不造次)師

曰。浙中清水白米從汝喫。佛法未會在。

【頌】僧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膿滴滴地。

【頌】問如何是親切底事。師曰。我是謝三郎。

【頌】師與韋監軍喫果子。韋問。如何是日用而不知。師拈起果子曰。喫。韋喫果子了。再問。師曰。祇這是日用而不知。

【頌】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用自己作麼(一作是你自己。雲門云。沒量大人被語脉裏轉却。僧問如何是學人自己。門云。忽然路上有人喚衲僧齋。你也隨分得飯喚)。

○師問明真大師。善財參彌勒。彌勒指歸文殊。文殊指歸佛處。汝道佛指歸甚麼處。曰不知。師曰。情知汝不知(法眼別云。喚甚麼作佛)。

○大普玄通到禮覲。師曰。你在彼住。莫誑惑人家男女。曰玄通祇是開箇供養門。晚來朝去。爭敢作恁麼事。師曰。事難。曰真情是難。師曰。甚麼處是難處。曰為伊不肯承當。師便入方丈拄却門。

【頌】僧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箇入路。師曰。還聞偃溪水聲麼。曰聞。師曰。從這裏入。

○問。古人皆以瞬視接人。未審和尚以何接人。師曰。我不瞬視接人。曰學人為甚麼道不得。師曰。畱塞汝口爭解道得。

長慶慧稜禪師

歷參禪苑。後參靈雲。問如何是佛法大意。雲曰。驢事未去。馬事到來。師如是往來雪峰玄沙二十年間。坐破七箇蒲團。不明此事。一日捲簾。忽然大悟。乃有。

【頌】曰。也大差。也大差捲起簾來見天下。有人問我解何宗。拈起拂子劈口打。峰舉謂玄沙曰。此子徹去也。沙曰。未可此是意識著述。更須勘過始得。至晚眾僧上來問訊。峰謂師曰。備頭陀未肯汝在。汝實有正悟。對眾舉來。師又有。

【頌】曰。萬象之中獨露身。唯人自肯乃方親。昔時謬向途中覓。今日看來火裏冰。峰乃顧沙曰。不可更是意識著述。師問峰曰。從上諸聖。傳受一路。請師垂示。峰良久。師設禮而退。峰乃微咲。師入方丈參。峰曰。是甚麼。師曰。今日天晴。好普請。自此酬問。未嘗爽於玄旨。

【評】【頌】師與保福遊山。福問古人道。妙峰山頂。莫祇這箇便是也無。師曰。是即是。可惜許(僧問鼓山。祇如長慶恁麼道。意作麼生。山云。孫公若無此語。可謂觸體徧野。白骨連山)。

【頌】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有願不撒沙。

○問。名言妙義。教有所詮。不涉三科。請師直道。師曰。珍重。師乃曰。明明歌詠。汝尚不會。忽被暗裏來底事。汝作麼生。僧問如何是暗來底事。師曰。喫茶去(中塔代云。便請和尚相伴)。

【頌】上堂。撞著道伴交肩過。一生參學事畢。

【頌】上堂。總似今日。老胡有望。保福曰。總似今日。老胡絕望。

○上堂。我若純舉唱宗乘。須閉却法堂門。所以道。盡法無民。僧問。不怕無民。請師盡法。師曰。還委落處麼。

保福展禪師

【評】【頌】嘗以古今方便詢于長慶。一日慶謂師曰。寧說阿羅漢有三毒。不可說如來有二種語。不道如來無語。祇是無二種語。師曰。作麼生是如來語。慶曰。聾人爭得聞。師曰。情知和尚向第二頭道。慶曰。汝又作麼生。師曰。喫茶去(雲居錫云。甚麼處是長慶向第二頭道處)。

【頌】雪峰上堂曰。諸上座。望州亭與汝相見了也。烏石嶺與汝相見了也。僧堂前與汝相見了也。師舉問鵝湖。僧堂前相見即且置。祇如望州亭。烏石嶺。甚麼處相見。鵝湖驟步歸方丈。師低頭入僧堂。

○保福開堂日。刺史王公禮跪三請。躬自扶掖陞座。師乃曰。須起箇笑端作麼。然雖如此。再三不容推免。諸仁者。還識麼。若識得。便與古佛齊肩。時有僧出。方禮拜。師曰。晴乾不肯去。直待雨淋頭。

【頌】師因僧侍立。問曰。汝得恁麼癡心。僧曰。甚麼處是某甲癡心處。師拈一塊土度與僧。曰拋向門前著。僧拋了。却來曰。甚麼處是某甲癡心處。師曰。我見築著磕著所以道汝癡心。

【頌】師問僧。殿裏底是甚麼。曰和尚定當看。師曰。釋迦佛。曰和尚莫謾人好。師曰。却是汝謾我。又問飯頭。鑊闊多少。曰和尚試量看。師以手作量勢。曰和尚莫謾某甲。師曰。却是汝謾我。又問僧。汝作甚麼業來。得恁麼長大。曰和尚短多少。師蹲身作短勢。曰和尚莫謾人好。師曰。却是汝謾我。又問僧。汝名甚麼。曰咸澤。師曰。忽遇枯涸時如何。曰誰是枯涸者。師曰。我是。曰和尚莫謾人好。師曰。却是汝謾我(咸澤本章在後。依頌古收於此)。

○僧問。學人近入叢林。乞師全示入路。師曰。若教全示。我却禮拜汝。

鼓山神晏興聖國師

【頌】一日參雪峰。峰知其緣熟。忽起搗住曰。是甚麼。師釋然了悟。亦忘其了心。唯舉手搖曳而已。峰曰。子作道理邪。師曰。何道理之有。峰審其懸解。撫而印之。

○閩帥常詢法要。創鼓山禪苑。請舉揚宗旨。上堂良久曰。南泉在日。亦有人舉。要且不識南泉。即今莫有識南泉者麼。試出來對眾驗看。時有僧出禮拜。纔起。師曰。作麼生。僧近前。曰咨和尚。師曰。不才。請退。乃曰。經有經師。論有論師。律有律師。有函有號有部有帙。各有人傳持。且佛法是建立教。禪道乃止啼之說。他諸聖出興。蓋為人心不等。巧開方便。遂有多門。受疾不同。處方還異。在有破有。居空叱空。二患既除。中道須遣。鼓山所以道句不當機。言非展事。承言者喪。滯句者迷。不唱言前。寧談句後。直至釋迦掩室。淨名杜口。大士梁時。童子當日。一問二問三問。盡有人了也。諸仁者。合作麼生。時有僧出禮拜。師曰。高聲問。曰學人咨和尚。師喝曰。出去。曰已事未明。以何為驗師抗聲曰。似未聞那。其僧再問。師曰。一點隨流食咸不重。

【頌】上堂。垂語曰。鼓山門下。不得咳嗽時有僧咳嗽一聲。師曰。作甚麼。曰傷風。師曰。傷風即得。

【頌】師有偈曰。直下猶難會。尋言轉更賒。若論佛與祖。特地隔天涯。師舉問僧。汝作麼生會僧無語。乃謂侍者曰。某甲不會。請代一轉語。者曰。和尚與麼道。猶隔天涯在。僧舉似師。師喚侍者問。汝為這僧代語是否。者曰。是。師便打趂出院。

龍華靈照禪師

僧問。向上一路。千聖不傳。未審甚麼人傳得。師曰。千聖也疑我。曰莫便是傳也無。師曰。晉帝斬嵇康。

○問。古人道。見色便見心。此即是色阿那箇是心。師曰。恁麼問。莫欺山僧麼。

翠巖令參禪師

【頌】上堂。一夏與兄弟東語西話。看翠巖眉毛在麼(長慶云。生也。雲門云。關。保福云。作賊人心虛。翠巖芝云。為眾竭力禍出私門)。

○僧問。凡有言句。盡是點汙。如何是向上事。師曰。凡有言句。盡是點汙。

鏡清道忞禪師

抵閩。謁雪峰。一日師問。祇如古德。豈不是以心傳心。峰曰。兼不立文字語句。師曰。祇如不立文字語句。師如何傳。峰良久。師禮謝。峯曰。更問我一轉豈不好。師曰。就和尚請一轉問頭。峰曰。祇恁麼。為有別商量。師曰。和尚恁麼即得。峰曰。於汝作麼生。師曰。孤負殺人。

○雪峰謂眾曰。堂堂密密地。師出問。是甚麼堂堂密密。師起立曰。道甚麼。師退步而立。雪峰垂語曰。此事得恁麼尊貴。得恁麼綿密。師曰。道忞自到來數年。不聞和尚恁麼示誨。峰曰。我向前雖無。如今已有。莫有所妨麼。曰不敢。此是和尚不己而已。峰曰。致使我如此。師從此信入。而且隨眾。時謂之小忞布衲。

○普請次。雪峰舉滄山道。見色便見心。汝道還有過也無。師曰。古人為甚麼事。峰曰。雖然如此。要共汝商量。師曰。恁麼則不知道忞鉏地去。

○師再參雪峰峰問甚處來。師曰。嶺外來。峰曰。甚麼處逢見達磨。師曰。更在甚麼處。峰曰。未信汝在。師曰。和尚莫恁麼粘泥

好。峰便休。

○師後徧歷諸方。益資權智。因訪先曹山。山問甚麼處來。師曰。昨日離明水。山曰。甚麼時到明水。師曰。和尚到時到。山曰。汝道我甚麼時到。師曰。適來猶記得。山曰。如是如是。

○師初住越州鏡清。唱雪峰之旨。學者奔湊。副使皮光業者。日休之子。辭學宏贍。屢擊難之。退謂人曰。怱師之高論。人莫窺其極也。

○新到參。師拈起拂子。僧曰。久向鏡清。猶有這箇在。師曰。鏡清今日失利。

【評】【頌】問學人啐。請師啄。師曰。還得活也無。曰若不活。遭人怪笑。師曰。也是草裏漢。

【頌】師一日於僧堂。自擊鐘曰。玄沙道底。玄沙道底。僧問。玄沙道甚麼。師乃畫一圓相。僧曰。若不久參。爭知與麼。師曰。失錢遭罪。

○師住庵時。有行者至。徐徐近繩牀。取拂子提起問。某甲喚這箇作拂子。庵主喚作甚麼。師曰。不可更安名立字也。行者乃擲却拂子。曰著甚死急。

【頌】師問僧。外面是甚麼聲。曰蛇齧蝦蟆聲。師曰。將謂眾生苦。更有苦眾生。

○師問靈雲。行脚事大。乞師指南。雲曰。浙中米作麼價。師曰。若不是道怱。洎作米價會却。

○僧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紅日照青山。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風吹雪不寒。

【頌】問學人未達其源。請師方便。師曰。是甚麼源。曰其源。師曰。若是其源。爭受方便。僧禮拜。退後。侍者問。和尚適來莫是成褫伊麼。師曰無。曰莫是不成褫伊麼。師曰無。曰未審意旨如何。師曰。一點水墨。兩處成龍。

○師看經次。僧問。和尚看甚麼經。師曰。我與古人鬪百草。師却問汝會麼。曰少年也曾恁麼來。師曰。如今作麼生。僧舉拳。師曰。我輸汝也。

○上堂。如今事不得已。向汝道。各自驗看實箇親切。既恁麼親切。到汝分上。因何特地生疎祇為拋家日久。流浪年深。一向緣塵。致見如此所以喚作背覺合塵。亦名捨父逃逝。今勸兄弟。未歇歇去好。未徹徹去好。大丈夫兒。得恁麼無氣槩。還惆悵麼。終日茫茫地。且覓取箇管帶路好。也無人問我管帶一路。僧問。如何是管帶一路。師噓噓曰。要棒喫即道。曰恁麼則學人罪過也。師曰。幾被汝打破蔡州。

○問僧近離甚處曰石橋。師曰。本分事作麼生。曰近離石橋。師曰。我豈不知你近離石橋。本分事作麼生。曰和尚何不領話。師便打。僧曰。某甲話在。師曰。你但喫棒。我要這話行。

○僧問。新年頭還有佛法也無。師曰有。曰如何是新年頭佛法。師曰。元正啟祚。萬物咸新。曰謝師答話。師曰。鏡清今日失利。

【評】【頌】問僧。門外甚麼聲。曰雨滴聲。師曰。眾生顛倒。迷己逐物。曰和尚作麼生。師曰。泊不迷己。曰泊不迷己。意旨如何。師曰。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

【頌】師因僧問。如何是大道之源。師曰。從這裏流出【增收】。

報恩懷嶽禪師

僧問。十二時中。如何行履。師曰。動即死。曰不動時如何。師曰。猶是守古塚鬼。

安國瑫禪師

僧問。常居正位底人。還消得人天供養否。師曰。消不得。曰為甚麼消不得。師曰。是甚麼心行。曰甚麼人消得。師曰。著衣喫飯底消得。

睡龍道溥禪師

僧問。初心後學。近入叢林。方便門中。乞師指示。師敲門枋。僧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有。曰如何是向上事。師再敲門枋。

長生皎然禪師

僧問。古人有言。無明即佛性。煩惱不須除。如何是無明即佛性。師忿然作色舉拳訶曰。今日打這師僧去也。曰如何是煩惱不須除。師以手拏頭曰。這師僧得恁麼發人業。

○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未審將甚麼對。師曰。上紙墨。堪作甚麼。

鵝湖孚禪師

【頌】一日不赴堂。侍者來請赴堂。師曰。我今日在莊上喫油糍飽。者曰。和尚不曾出入。師曰。你但去問取莊主。者方出門。忽見莊主歸。謝和尚到莊喫油糍(攷頌古見南泉。古德兩章。今攷機緣。在會元鵝湖處)。

○僧問。雪峰拋下拄杖意作麼生。師以香匙拋下地。僧曰。未審此意如何。師曰。不是好種出去。

隆壽紹卿禪師

因侍雪峰山行。見芋葉動。峰指動葉示之。師曰。紹卿甚生怕怖。峰曰。是汝屋裏底。怕怖甚麼。師於此有省。

永福從弇禪師

僧問。儒門以五常為極則。未審宗門以何為極則。師良久。僧曰。恁麼則學人造次也。師曰。好與拄杖。

○問。不向問處領。猶是學人問處。和尚如何。師曰。喫茶去。

雲蓋歸本禪師

初謁雪峰。禮拜次。峰下禪牀跨背而坐。師於此有省。住後僧問。如何是西來的的意。師乃擲住。其僧變色。師曰。我這裏無這箇。

洛京南院和尚

有儒者博覽古今。時呼為張百會。謁師。師問莫是張百會麼。曰不敢。師以手於空畫一畫。曰會麼。曰不會。師曰。一尚不會。甚麼處得百會來。

法海行周禪師

僧問。如何是道中寶。師曰。不露光。曰莫便是否。師曰。是即露也。

杭州龍井通禪師

僧問。如何是龍井龍。師曰。意氣天然別。神工畫不成。曰為甚麼畫不成。師曰。出羣不帶角。不與類中同。曰還解行雨也無。師

曰。普潤無邊際。處處皆結粒。曰還有宗門中事也無。師曰有。曰如何是宗門中事。師曰。從來無形段。應物不曾虧。

杭州龍興宗靖禪師

初參雪峰。誓充飯頭。勞逾十載。嘗於眾堂中。袒一膊釘簾。峰覩而記曰。汝向後住持。有千僧。其中無一人衲子也。師悔過回浙。住六通院。錢王命居龍興寺。有眾千餘。唯三學講誦之徒。果如雪峰所誌。

南禪契璠禪師

上堂。若是名言妙句諸方總。道了也。今日眾中。還有超第一義者。致將一問來。若有。即不孤負於人。僧問。如何是第一義。師曰。何不問第一義。曰見問。師曰。已落第二義也。

越山師翥禪師

初參雪峯而染指。後因閩王請於清風樓齋。坐久。舉目忽覩日光。豁然頓曉而有偈曰。清風樓上赴官齋。此日平生眼豁開。方信普通年遠事。不從葱嶺帶將來。歸呈雪峯。峯然之。師臨終示偈曰。眼光隨色盡耳識逐聲消。還源無別旨。今日與明朝。

極樂元儼禪師

僧問。如何是極樂家風。師曰。滿目看不盡。

○問萬法本無根。未審教學人承當甚麼。師曰。莫寐語。

潮山延宗禪師

因資福來謁。師下禪牀相接。福問和尚住此山得幾年也。師曰。鈍鳥棲蘆。困魚止灤。曰恁麼則真道人也。師曰。且坐喫茶。

普通普明禪師

僧問。如何是佛性。師曰汝無佛性。曰蠢動含靈。皆有佛性。學人為何却無。師曰。為汝向外求。

太原孚上座

【頌】初在揚州光孝寺。講涅槃經。有禪者阻雪。因往聽講。至三因佛性。三德法身。廣談法身妙理。禪者失笑。師講罷。請禪者喫茶。白曰。某甲素志狹劣。依文解義。適蒙見笑。且望見教。禪者曰。實笑座主不識法身。師曰。如此解說何處不是。曰請座主更說一遍。師曰。法身之理。猶若太虛。豎窮三際。橫亘十方。彌綸八極。包括二儀。隨緣赴感。靡不周徧。曰不道座主說不是。祇是說得法身量邊事。實未識法身在師曰。既然如是。禪德當為我說。曰座主還信否。師曰。焉敢不信。曰若如是。座主輟講旬日。於室內端然靜慮。收心攝念。善惡諸緣。一時放却。師一依所教。從初夜至五更。聞鼓角聲。忽然契悟。便去扣門。禪者曰。阿誰。師曰某甲。禪者咄曰。教汝傳持大教。代佛說法。夜來為甚麼醉酒臥街師曰。禪德。自來講經。將生身父母鼻孔搗捏。從今已去更不敢如是。禪者曰。且去。來日相見。師遂罷講徧歷諸方。

○嘗遊浙中。登徑山法會一日於大佛殿前。有僧問。上座曾到五臺否。師曰。曾到。曰還見文殊麼。師曰見。曰甚麼處見。師曰。徑山佛殿前見。其僧後適閩川。舉似雪峯。峯曰。何不教伊入嶺來。師聞乃趣裝而邁。初至雪峯解院憩錫。因分柑子與僧。長慶問甚麼處將來。師曰。嶺外將來。由遠涉不易。擔負將來。師曰。柑子柑子。

【頌】次日上山。雪峯聞。乃集眾。師到法堂上顧視雪峯。便下看知事。明日却上禮拜。曰某甲昨日觸忤和尚。峯曰。知是般事便

休。

○峯一日見師。乃指日示之。師搖手而出。峯曰。汝不肯我那。師曰。和尚搖頭。某甲擺尾。甚麼處是不肯。峰曰。到處也須諱却。

○一日眾僧晚參。峰在中庭臥。師曰。五州管內。祇有這老和尚較些子。峰便起去。

○峰嘗問師。見說臨濟有三句是否師曰是曰作麼生是第一句。師舉目視之。峰曰。此猶是第二句。如何是第一句。師叉手而退。自此雪峰深器之。室中印解。師資道契。更不它遊而掌浴焉。

【頌】一日玄沙上問訊雪峰。峰曰。此間有個老鼠子。今在浴室裏。沙曰。待與和尚勘過。言訖。到浴室遇師打水。沙曰。相看上座。師曰。已相見了。沙曰。甚麼劫中曾相見。師曰。瞌睡作麼。沙却入方丈白雪峰曰。已勘破了。峰曰。作麼生勘伊。沙舉前話。峰曰。汝著賊也。

【頌】鼓山問師父母未生時鼻孔在甚麼處。師曰。老兄先道。山曰。如今生也。汝道在甚麼處。師不肯。山却問作麼生。師曰。將手中扇子來。山與扇子。再徵前話師搖扇不對。山罔測。乃毆師一拳。

【頌】鼓山赴大王請。雪峰門送。回至法堂。乃曰。一隻聖箭。直射九重城裏去也。師曰。是伊未在。峰曰。渠是徹底人。師曰。若不信。待某甲去勘過。遂趨至中路。便問。師兄向甚麼處去。山曰。九重城裏去。師曰。忽遇三軍圍繞時如何。山曰。它家自有通霄路。師曰。恁麼則離宮失殿去也。山曰。何處不稱尊。師拂袖便回。峰問如何。師曰。好隻聖箭。中路折却了也遂舉前話。峰乃曰。奴。渠語在。師曰。這老凍膿。猶有鄉情在。

○僧問。如何是觸目菩提。師踢狗子作聲走僧無對。師曰。小狗子。不消一踢。

南嶽惟勁禪師

師雪峰而友玄沙。深入玄奧。一日問鑑上座。聞汝註楞嚴是否。鑑曰。不敢。師曰。二文殊作麼生註。曰請師鑑。師乃揚袂而去(嘗續寶林傳四卷又著南嶽高僧傳)。

白兆志圓禪師

僧問。諸佛心印。甚麼人傳師曰。達磨大師。曰達磨爭能傳得。師曰。汝道甚麼人傳得。

○問如何是直截一路。師曰。截。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苦。

○問如何是道。師曰。普。

○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失。

○問如何是得無山河大地去。師曰。不起見。

(會元七卷終)

瑞峰神祿禪師

久為瑞巖侍者。後開山創院。學侶依附。師有偈曰。蕭然獨處意沉吟。誰信無言發妙音。終日法堂唯靜坐。更無人問本來心有僧朋彥問曰。如何是本來心。師召朋彥。彥應諾師曰。與老僧點茶來。彥於是信入。

黃龍誨機禪師

初參巖頭。問如何是祖師西來意。頭曰。你還解救糍麼。師曰。解。頭曰。且救糍去後到玄泉。問如何是祖師西來意。泉拈起一莖皂角曰。會麼。師曰。不會。泉放下皂角。作洗衣勢。師便禮拜。曰信知佛法無別。泉曰。你見甚麼道理。師曰。某甲曾問巖頭。頭曰。你還解救糍麼。救糍也祇是解粘。和尚提起皂角。亦是解粘。所以道無別。泉呵呵大笑。師遂有省。

【頌】僧問。風恬浪靜時如何。師曰。百尺竿頭五兩垂。

明招德謙禪師

受羅山印記。靡滯於一隅。激揚玄旨。諸老宿皆畏其敏捷。後學鮮敢當其鋒者。

○師在婺州智者寺。居第一座。尋常不受淨水主事嗔曰。上座不識觸淨。為甚麼不受淨水。師跳下牀。提起淨餅曰。這箇是觸是淨。事無語。師乃撲破。自爾道聲遐播。眾請居明招山。

○上堂。全鋒敵勝。罕遇知音。同死同生。萬中無一。尋言逐句。其數河沙。舉古舉今。滅胡種族。向上一路。啐啄猶乖。儒士相逢。握鞭回首。沙門所見誠實苦哉。拋却真金。隨隊撮土。報諸稚子。莫謾波波解得它玄。猶兼瓦礫。不如一擲。騰空太虛祇這靈鋒。阿誰敢近。任君來箭。方稱丈夫。擲欲吞聲不消一攫。

○師長到坦長老處。坦曰。夫參學。一人所在亦須到。半人所在亦須到。師便問一人所在即不問。作麼生是半人所在。坦無對。後令小師問師。師曰。汝欲識半人所在麼。也祇是弄泥團漢。

【頌】一日天寒上堂。眾纔集。師曰。風頭稍硬不是汝安身立命處。且歸暖室商量。便歸方丈大眾隨至立定。師又曰。纔到暖室。

便見瞌睡。以拄杖一時趨下。

大寧微禪師

上堂。還有騰空底麼。出來。眾無出者。師說偈曰。騰空正是時。應須眨上眉。從茲出倫去。莫待白頭兒。

天竺義澄禪師

在羅山數載。後因山示疾。師問百年後。忽有人問和尚。以何指示。山乃放身便倒。師從此契悟。

羅山義因禪師

僧問承古有言。自從認得曹谿路。了知生死不相關。曹谿路即不問。如何是羅山路。師展兩手。僧曰。恁麼則一路得通。諸路亦然。師曰。甚麼諸路。僧近前叉手。師曰。靈鶴烟霄外。鈍鳥不離窠。

○問教中道。順法身。萬象俱寂。隨智用。萬象齊生。如何是萬象俱寂。師曰。有甚麼。曰如何是萬象齊生。師曰。繩牀椅子。

羅漢桂琛禪師

一日為眾宣戒本。布薩已乃曰。持戒但律身而已。非真解脫也。依文作解。豈發聖智乎。於是訪南宗。初謁雲居雪峰。參訊勤恪。然猶未有所見。後造玄沙。一言啟發廓爾無惑。沙問三界唯心。汝作麼生會。師指椅子曰。和尚喚這箇作甚麼。曰椅子。師曰。和尚不會三界唯心。曰我喚這箇作竹木。汝喚作甚麼。師曰。桂琛亦喚作竹木。曰盡大地覓一個會佛法底人不可得。師自爾愈加激勵。沙每因誘迪學者流出諸三昧。皆命師為助發。師雖處眾韜晦。然聲譽甚遠。時漳牧王公。建精舍曰地藏。請師開法。

【頌】因插田次。見僧。乃問從甚處來。曰南州師曰。彼中佛法如何。曰商量浩浩地。師曰。爭如我這裏栽田博飯喫。曰爭奈三界何。師曰。喚甚麼作三界。

○問僧甚處來。曰南方來。師曰。南方知識有何言句示徒。曰彼中道。金屑雖貴。眼裏著不得。師曰。我道須彌在汝眼裏。

○後遷羅漢。大闡玄要。上堂。宗門玄妙。為當祇恁麼也。更別有奇特。若別有奇特。汝且舉將來看。若無去。不可將兩個字。便當却宗乘也。何者兩個字。謂宗乘教乘也。汝纔道著宗乘。便是宗乘。道著教乘便是教乘。禪德。佛法宗乘。元來由汝口裏安名立字。作取說取。便是也。斯須向這裏說平說實說圓說常。禪德。汝喚甚麼作平實。把甚麼作圓常。傍家行脚。理須甄別。莫相埋沒。得些子聲色名字。貯在心頭。道我會解。善能揀辨。汝且會個甚麼。揀個甚麼。記持得底是名字。揀辨得底是聲色。若不是聲色名字。汝又作麼生記持揀辨風吹松樹。也是聲。蝦蟆老鷄叫。也是聲。何不那裏聽取。揀擇去。若那裏有個意度模樣。祇如老師口裏。又有多少意度。與上座。莫錯。即今聲色攃攃地。為當相及不相及。若相及。即汝靈性金剛祕密。應有壞滅去也。何以如此。為聲貫破汝耳。色穿破汝眼。因緣即塞却汝。幻妄走殺汝。聲色體爾不可容也。若不相及。又甚麼處得聲色來。會麼。相及不相及。試裁辨看。少間又道。是圓常平實。甚麼人恁麼道。未是黃夷村裏漢。解甚麼說。是它古聖乖些子相助顯發。今時不識好惡。便安圓實。道我別有宗風玄妙。釋迦佛無舌頭不如汝些子。便恁麼點胸。若論殺盜淫罪。雖重猶輕尚有歇時。此個謗般若。瞎却眾生眼。入阿鼻地獄。吞鐵丸。莫將為等閒。所以古人道。過在化主不干汝事。珍重。

○保福僧到。師問彼中佛法如何。曰有時示眾道塞却你眼。教你覷不見。塞却你耳。教你聽不聞。坐却你意。教你分別不得。師曰。

吾問你不塞你眼。見個甚麼。不塞你耳。聞個甚麼。不坐你意。作麼生分別。

【頌】翫月次。乃曰。雲動有雨去。有僧曰。不是雲動。是風動。師曰。我道雲亦不動風亦不動。曰和尚適來又道雲動。師曰。阿誰罪過。

○師見僧。舉拂子曰。還會麼曰。謝和尚慈悲示學人。師曰。見我豎拂子。便道示學人。汝每日見山見水。可不示汝。又見僧來舉拂子。其僧讚歎禮拜。師曰。見我豎拂子便禮拜。讚歎。那裏掃地豎起掃帚。為甚麼不讚歎。

【頌】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未審是甚麼字。師曰。汝實不會那。曰學人實不會。師曰。看取下頭註脚。

天龍明真禪師

得法玄沙。復回浙中。錢武肅王請出世開法。上堂。若直舉宗風。獨唱本分事。便同於頑石。若言絕凡聖。消息。無大地山河盡十方世界都是一隻眼。此乃事不獲已。恁麼道。還會麼。若更不會。聽取一頌。盲聾瘖瘂是仙陀。滿眼時人不奈何。祇向目前須體妙。身心萬象與森羅。

○僧問蓮花未出水時如何。師曰。誰人不知。曰出水後如何。師曰。馨香目擊。

僊宗契苻禪師

僧問。飛岫巖邊華子秀。仙境臺前事若何。師曰。無價大寶光中現。暗客惛惛爭奈何。曰優曇華拆人皆覩。向上宗乘意若何。師曰。闍黎若問宗乘意。不知靜處薩婆訶。

白龍道希禪師

僧問。請師答無賓主話。師曰。昔年曾記得。曰即今如何。師曰。非但耳聾。亦兼眼暗。

○問請和尚生機答話。師曰。把紙筆來錄將去。

安國慧球禪師(亦曰中塔)

僧問佛法大意。從何方便頓入。師曰。入是方便。

○問雲自何山起。風從何澗生。師曰。盡力施為。不離中塔。

○上堂。我此間粥飯因緣。為兄弟舉唱。終是不常。欲得省要。却是山河大地。與汝發明。其道既常。亦能究竟。若從文殊門入者。一切無為土木瓦礫。助汝發機。若從觀音門入者。一切音響蝦蟆蚯蚓。助汝發機。若從普賢門入者。不動步而到以此三門。方便示汝。如將一隻折箸。攪大海水。令彼魚龍。知水為命。會麼。若無智眼而審諦之。任汝百般巧妙。不為究竟。

○僧問學人近入叢林。不明己事。乞師指示。師以杖指之曰會麼。曰不會。師曰。我恁麼為汝。却成抑屈人。還知麼。若約當人分上從來底事。不論初入叢林。及過去諸佛。不曾乏少。如大地水。一切魚龍。初生及至老死。所受用水。悉皆平等。

○問如何是大庾嶺頭事。師曰。料汝承當不得。曰重多少。師曰。這般底。論劫不奈何。

螺峰冲奧禪師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德重鬼神欽。曰見後如何。師曰。通身聖莫測。

○問如何是本來人。師曰。惆悵松蘿境界危。

泉州睡龍山和尚

上堂。舉拄杖曰。三十年住山。得它氣力。時有僧問和尚得它甚麼氣力。師曰。過谿過嶺。東拄西拄(招慶云。我不恁麼道。僧問和尚作麼生道。慶以杖下地拄行)。

大章契如庵主

素蘊孤操。志探祖道。預玄沙之室。穎悟幽旨。玄沙記曰。子禪已逸格則。它後要一人侍立也無。師自此不務聚徒。不畜童侍。隱于小界山。剝大朽杉。若小庵。但容身而已。凡經遊僧至。隨扣而應。無定開示。

雲峰光緒禪師

上堂。但以眾生日用而不知。譬如三千大千世界。日月星辰。江河淮濟。一切含靈。從一毛孔。入一毛孔。毛孔不小。世界不大。其中眾生。不覺不知。若要易會。上座日用。亦復不知。

國清師靜上座

始遇玄沙示眾曰。汝諸人但能一生如喪考妣。吾保汝究得徹去。師躡前語問曰。祇如教中道。不得以所知心。測度如來無上知見。又作麼生。沙曰。汝道究得徹底。所知心還測度得及否。師從此信入。後居天台。三十餘載不下山。博綜三學。操行孤立。禪寂之餘常閱龍藏。遐邇欽重。時謂大靜上座。

○嘗有人問。弟子每當夜坐。心念紛飛。未明攝伏之方。願垂示誨。師曰。如或夜間安坐。心念紛飛。却將紛飛之心。以究紛飛之處。究之無處。則紛飛之念何存。反究究心。則能究之心安在。又

能照之智本空。所緣之境亦寂。寂而非寂者。蓋無能寂之人也。照而非照者。蓋無所照之境也。境智俱寂。心慮安然。外不尋枝。內不住定。二途俱泯。一性怡然。此乃還源之要道也。

○師因覩教中幻義。乃述一偈。問諸學流曰。若道法皆如幻有。造諸過惡應無咎。云何所作業不忘。而藉佛慈興接誘。

○時有小靜上座答曰。幻人興幻幻輪圍。幻業能招幻所持。不了幻生諸幻苦。覺知如幻幻無為。

招慶道匡禪師

上堂次。大眾擁法座而立。師曰。這裏無物。諸人苦恁麼相促相拶作麼。擬心早沒交涉。更上門上戶。千里萬里。今既上來。各著精彩。招慶一時拋與諸人。好麼。乃曰。還接得也無。眾無對。師曰。勞而無功。便陞座。復曰。汝諸人得甚麼鈍。看他古人一兩個。得恁麼快。纔見便負將去。也較些子。若有此箇人。非但四事供養。便以琉璃為地。白銀為壁。亦未為貴。帝釋引前。梵王隨後。攪長河為酥酪。變大地為黃金。亦未為足。直得如是。猶更有一級在。還委得麼。珍重。

報恩寶資禪師

僧問。學人初心。請師示箇入路。師遂側掌示之。曰還會麼。曰不會。師曰。獨掌不浪鳴。

報慈光雲禪師

問僧。近離甚處。曰臥龍師。曰在彼多少時。曰經冬過夏。師曰。龍門無宿客。為甚在彼許多時。曰師子窟中無異獸。師曰。汝試作師。子吼看。曰若作師子吼。即無和尚。師曰。念汝新到。放汝三十棒。

○閩王問。報慈與神泉。相去近遠。師曰。若說近遠。不如親到。師却問。大王日應千差。是甚麼心。王曰。甚麼處得心來。師曰。豈有無心者。王曰。那邊事作麼生。師曰。請向那邊問。王曰。大師謾別人即得。

○僧問。大眾臻湊。請師舉揚。師曰。更有幾人未聞。曰恁麼則不假上來也。師曰。不上來且從。汝向甚麼處會。曰若有處所。即孤負和尚去也。師曰。祇恐不辨精粗。

開先紹宗禪師

江南李主。巡幸洪井。入山瞻謁。請上堂。令僧問。如何是開先境。師曰。最好。是一條界破青山色。曰如何是境中人。師曰。捨枯柴。煮布水。國主益加欽重。

傾心法瑫禪師

僧問。如何是不朝天子。不羨王侯底人。師曰。每日三條線。長年一衲衣。曰未審此人還紹宗風也無。師曰。鵲來頭上語。雲向眼前飛。

水陸洪儼禪師

上堂。大眾集定。師下座捧香爐巡行大眾前。曰供養十方諸佛。便歸方丈。

廣巖咸澤禪師

僧問。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師曰。城中青史樓。雲外高峰塔。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幽澗泉清。高峰月白。

報慈慧朗禪師

上堂。從上諸聖。為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遞相告報。是汝諸人還會麼。若不會。大不容易。僧問。如何是一大事。師曰。莫錯相告報麼。曰恁麼則學人不疑也。師曰。爭奈一翳在目。

石佛靜禪師

上堂。若道素面相呈。猶添脂粉。縱離添過。猶有負愆。諸人且作麼生體悉。

觀音清換禪師

上堂。諸禪德。若要論禪說道。舉唱宗風。祇如當人分上以一毛端上。有無量諸佛。轉大法輪。於一塵中。現寶王剎。佛說眾生說山河大地一時說。未嘗間斷。如毗沙門王。始終不求外寶。既各有如是家風。阿誰欠少。不可更就別人處分也。僧問。如何是法界性。師曰。汝身中有萬象。曰如何體得。師曰。虛谷尋聲。更求本末。

東禪可隆禪師

上堂。大好省要。自不仙陀。若是聽響之流。不如歸堂向火。珍重。

僊宗守玘禪師

僧問。十二時中常在底人。還消得人天供養也無。師曰。消不得。曰為甚麼消不得。師曰。為汝常在。曰祇如常不在底人。還消得也無。師曰。驢年。

永安懷烈禪師

上堂。顧視左右曰。患謇作麼。便歸方丈。

○上堂。良久曰。幸自可憐生。又被污却也。

龜山和尚

【頌】有人舉裴相國啟建法會。問僧看甚麼經。曰無言童子經。公曰。有幾卷。曰兩卷公曰。既是無言。為甚麼却有兩卷。僧無對。師代曰。若論無言。非唯兩卷(頌見斐休)。

報慈從環禪師

僧問。承古有言。今人看古教。未免心中鬧。欲免心中鬧。應須看古教。如何是古教。師曰。如是我聞。曰如何是心中鬧。師曰。那畔雀兒聲。

太傅王延彬居士

【評】到招慶煎茶。朗上座與明招把銚。忽翻茶銚。公問。茶鑪下是甚麼。朗曰。捧鑪神。公曰。既是捧鑪神。為甚麼翻却茶。朗曰。事官千日。失在一朝。公拂袖便出。明招曰。朗上座喫却招慶飯了。却向外邊打野糲。朗曰。上座作麼生。招曰。非人得其便。

延壽慧輪禪師

僧問。如何是一色。師曰。青黃赤白。曰大好一色。師曰。將謂無人。也有一箇半箇。

報慈文欽禪師

僧問。如何是諸佛境。師曰。雨來雲霧暗。晴乾日月明。

○問如何是妙覺明心。師曰。今冬好晚稻。出自秋雨成。

○問如何是妙用河沙。師曰。雲生碧岫。雨降青天。

○問如何是平常心合道。師曰。喫茶喫飯隨時過。看水看山實暢情。

鳳凰山從琛禪師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門風相似。即無阻矣。汝不是其人。曰忽遇其人時。又如何。師曰。不可預搖待痒。

○問學人根思遲回。方便門中。乞師傍瞥。師曰傍瞥。曰深領師旨。安敢言乎。師曰。太多也。

永隆慧瀛禪師

僧問。無為無事人。為甚麼却是金鎖難。師曰。為斷粗纖。貴重難留。曰為甚麼道無為無事人。逍遙實快樂。師曰。為鬧亂且要斷送。

嶽麓山和尚

僧問。如何是聲色外句。師曰。猿啼鳥叫。

○問截舌之句。請師舉揚。師曰。日能熱。月能涼。

後招慶和尚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一餅兼一鉢。到處是生涯。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擾擾忿忿。晨鷄暮鐘。

建山澄禪師

僧問。一代時教。接引今時。未審祖宗。如何示人。師曰。一代時教。已有人問了也。曰和尚如何示人。師曰。惆悵庭前紅菟樹。年

年生葉不生華。

招慶省澄禪師

開堂陞座。僧問。同學人全身不會。請師指示。師曰。還解笑得麼。乃曰。叢林先達者。不敢相觸忤。若是初心後學。未信直須信取。未省直須省取。不用掠虛。諸人本分去處。未有一時不顯露。未有一物解蓋覆得。如人若要知。不用移絲髮地。不用少許工夫。但向博地凡夫位中。承當取。豈不省心力。既能省得。便與諸佛齊肩。依而行之。緣此事是箇白淨去處。今日須得白淨身心合他始得。自然合古合今。脫生離死。古人云。識心達本。解無為法。方號沙門。如今諸官大眾。各須體取好。莫全推過。師僧分上佛法平等。上至諸佛。下至一切。共同此事。既然如此。誰有誰無。王事之外。亦須努力。適來說如許多般。蓋不得已而已。莫道從上宗門。合恁麼語話。祇如從上宗門。合作麼生。還相悉麼。若有人相悉。山僧今日雪得去也。久立大眾。珍重。

○示坐禪方便頌曰。四威儀內坐為先。澄瀟身心漸坦然。瞥爾有緣隨濁界。當須莫續是天年。修持祇學從功路。至理寧論在那邊。一切時中常管帶。因緣相湊豁通玄。

○示執坐禪者曰。大道分明絕點塵。何須長坐始相親。遇緣儻解無非是。處憤那能有故新。散誕肯齊支遁侶。逍遙曷與慧休隣。或遊泉石或闌闌。可謂煙霞物外人。

天竺子儀禪師

僧問。丹霞燒木佛。意旨如何。師曰。寒即圍爐向猛火。曰還有過也無。師曰。熱即竹林溪畔坐。問如何修行。即得與道相應。師曰。高卷吟中箔。濃煎睡後茶。

白雲智作禪師

一日鼓山上堂。召大眾。眾皆回眸。山披襟示之。眾罔措。唯師朗悟厥旨。入室印證。又參次。山召曰。近前來。師近前。山曰。南泉喚院主。意作麼生。師斂手端容。退身而立。山莞然奇之。

○住後上堂。還有人向宗乘中致得一問來麼。待山僧向宗乘中答。時有僧出禮拜。師便歸方丈。

○僧問。如何是枯木裏龍吟。師曰。火裏蓮生。曰如何是髑髏裏眼睛。師曰。泥牛入海。

龍山文義禪師

上堂。若舉宗乘。即院寂境荒。若留委問。更待箇甚麼。還有人委悉麼。出來驗看。若無人委悉。且莫掠虛好。便下座。

鼓山智嶽禪師

初遊方至鄂州黃龍。問久嚮黃龍。及乎到來。祇見赤斑蛇。龍曰。汝祇見赤斑蛇。且不識黃龍。師曰。如何是黃龍。龍曰。滔滔地。師曰。忽遇金翅鳥來。又作麼生。龍曰。性命難存。師曰。恁麼則被他吞却去也。龍曰。謝闍黎供養。師便禮拜。

報恩清護禪師

開堂日。僧問。諸佛出世。天花亂墜。和尚出世。有何祥瑞。師曰。昨日新雷發。今朝細雨飛。

瑞巖師進禪師

僧問。如何是瑞巖境。師曰。重重疊嶂南來遠。北向皇都咫尺間。曰如何是境中人。師曰。萬里白雲朝瑞嶽。微微細雨灑簷前。曰未

審如何親近此人。師曰。將謂闍黎親入室。元來猶隔萬重關。

報國照禪師

上堂。我若全機。汝向甚麼處摸索。蓋為根器不等。便成不具慚愧。遠委得麼。如今與諸仁者。作個入底門路。乃敲繩牀兩下曰。還見麼。還聞麼。若見便見。若聞便聞。莫向意識裏卜度。却成妄想顛倒。無有出期。珍重。

龍冊子興禪師

僧問。正位中還有人成佛否。師曰。誰是眾生。曰若恁麼則總成佛去也。師曰。還我正位來。曰如何是正位。師曰。汝是眾生。

佛隴知默禪師

僧問。如何是佛隴家風。師曰。送客不離三步內。邀賓祇在草堂前。

○上堂。山僧如今看見諸上座恁麼行脚。喫辛喫苦。盤山涉澗。終不為觀看州縣。參尋名山勝跡。莫非為此一大事。如今且要諸人於本分參問中。通箇消息來。雲山敢與證明。非但雲山證明。乃為禪林佛剎。亦與證明。還有甚麼生。眾皆散去。便下座。

南禪遇緣禪師

上堂。此箇事可作恁麼生。時有僧出曰。請師道。師曰。睦州谿苔。錦城石閣。

資福智遠禪師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雪嶺峰前月。鏡湖波裏明。

○問諸佛出世。天雨四花。地搖六動。和尚今日。有何祥瑞。師曰。一物不生全體露。目前光彩阿誰知。

烏巨儀晏禪師

嘗入定于叢竹間。蟻蠹其衣。敗葉沒陞。子湖訥禪師。未知師所造淺深。問曰。子所住定蓋小乘定耳。時方啜茶。師呈起橐曰。是大是小。訥駭然。

白鹿貴禪師

僧問。牛頭未見四祖時。百鳥銜花供養。見後為甚麼不來。師曰。曙色未分人盡望。及乎天曉也如常。

長慶藏用禪師

上堂。眾集。以扇子拋向地上曰。愚人謂金是土。智者作麼生。後生可畏。不可總守愚去也。還有人道得麼。出來道看。時有僧出禮拜。退後而立。師曰。別更作麼生。曰請和尚明鑑。師曰。千年桃核。

瑞峰智端禪師

初參安國。見僧問。如何是萬象之中獨露身。國舉一指。其僧不薦。師於是冥契玄旨。乃入室白曰。適來見那僧問話。智端有箇省處。國曰。汝見甚麼道理。師亦舉一指。曰這箇是甚麼。國然之。師禮謝。

○住後上堂。舉拂子曰。曹谿用不盡底。時人喚作頭角生。山僧拈來拂蚊子。薦得乾坤陷落。

○有僧夜參。師曰阿誰。曰某甲。師曰。泉州砂糖。舶上檳榔。僧良久。師曰會麼。曰不會。師曰。你若會。即廓清五蘊。吞盡十方。

○問如何是西來意。師曰。木馬走似煙。石人趂不及。

僊宗明禪師

上堂。幸有如是門風。何不烜赫地紹續取去。若也紹得。不在三界。若出三界。即壞三界。若在三界。即礙三界。不礙不壞。是出三界。是不出三界。恁麼徹去。堪為佛法種子。人天有賴。時有僧問。拏雲不假風雷便。迅浪如何透得身。師曰。何得棄本逐末。

安國祥禪師

僧問。應物現形。如水中月。如何是月。師提起拂子。僧曰。古人為甚麼道。水月無形。師曰。見甚麼。

保福清豁禪師

參睡龍。龍問曰。豁闍黎。見何尊宿來。還悟也未。曰清豁嘗訪大章。得箇信處。龍於是上堂集眾。召曰。豁闍黎出來。對眾燒香說悟處。老僧與汝證明。師出眾。乃拈香曰。香已拈了。悟即不悟。龍大悅而許之。

○僧問。家貧遭劫時如何。師曰。不能盡底去。曰為甚麼不能盡底去。師曰。賊是家親。曰既是家親。為甚麼翻成家賊。師曰。內既無應。外不能為。曰忽然捉敗時如何。師曰。內外絕消息。曰捉敗後功歸何所師曰。賞亦未曾聞。曰恁麼則勞而無功也。師曰。功即不無。成而不處。曰既是成功。為甚麼不處。師曰。不見道。太平本是將軍致。不使將軍見太平。

○師忽捨眾欲入山待滅。乃遺偈曰。世人休說路行難。鳥道羊腸咫尺間。珍重苧谿谿畔水。汝歸滄海我歸山。即往貴湖卓庵。未幾謂門人曰。吾滅後。將遺骸施諸蟲蟻。勿置墳塔。

大龍山智洪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即汝便是。曰如何領會。師曰。更嫌鉢盂無柄那。

○問如何是微妙。師曰。風送水聲來枕畔。月移山影到牀前。

【評】【頌】問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師曰。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

白馬山行靄禪師

【頌】僧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井底蝦蟆吞却月。

○問如何是白馬正眼。師曰。面南看北斗。

興教師普禪師

僧問。盈龍宮。溢海藏。真詮即不問。如何是教外別傳底法。師曰。眼裏耳裏鼻裏。曰祇此便是否。師曰。是甚麼。僧便喝。師亦喝。

棗樹和尚(二世)

問僧。發足甚處。曰閩中。師曰俊哉。曰謝師指示。師曰屈哉。僧作禮。師曰。我與麼道。落在甚麼處。僧無語。師曰。彼自無瘡。勿傷之也。

黃龍智顓禪師

僧問。如何是諸佛之本源。師曰。即此一問是何源。曰恁麼則諸佛無異去也。師曰。延平劍已成龍去。猶有刻舟求底人。

玄都澄禪師

僧問。喜得趨方丈。家風事若何。師曰。西風開曉露。明月正當天。曰如何拯濟。師曰。金鷄樓上一下鼓。

呂巖真人

字洞賓。初參黃龍。言下頓契。呂作偈曰。棄却瓢囊擻碎琴。如今不戀汞中金。自從一見黃龍後。始覺從前錯用心。龍囑令加護。

普照瑜禪師

上堂。三十年後。大有人向這裏亡鋒結舌去在。良久曰。還會麼。灼然。若不是真師子兒。爭識得上乘之機。時有僧問。師子未出窟時如何。師曰。眾獸徒然。曰出窟後如何。師曰。孤絕萬里。曰欲出不出時如何。師曰。當衙者喪。曰向去事如何。師曰。決在臨鋒。僧禮拜。師有頌曰。決在臨鋒處。天然師子機。嚙呻出三界。非祖莫能知。

清谿洪進禪師

在地藏時。居第一座。一日地藏上堂。二僧出禮拜。藏曰俱錯。二僧無語。下堂。請益修山主。修曰。汝自巍巍堂堂。却禮拜擬問他人。豈不是錯。師聞之不肯。修乃問。未審上座又作麼生。師曰。汝自迷暗。焉可為人。修憤然上方丈請益。藏指廊下曰。典座入庫頭去也。修乃省過。

【頌】一日師問修山主曰。明知生是不生之理。為甚麼為生死之所流。修曰。筍畢竟成竹去。如今作篾使還得麼。師曰。汝向後自悟

去在。修曰。某所見祇如此。上座意旨又如何。師指曰。這箇是監院房。那箇是典座房。修即禮謝。

○師經行次。眾僧隨從。乃謂眾曰。古人有甚麼言句大家商量。時有從漪上座。出眾擬問次。師曰。這沒毛驢。漪煥然省悟。

清涼休復禪師

嘗自謂曰。苟尚能詮。則為滯筏。將趨凝寂。復患墮空。既進退莫決。捨二何之。乃參尋宗匠。依地藏。經年不契。直得成病。入涅槃堂。一夜藏去看。乃問。復上座安樂麼。師曰。某甲為和尚因緣背。藏指燈籠曰。見麼。師曰見。藏曰。祇這箇也不背。師於言下有省。

○僧問。古人得箇甚麼。即便休歇去。師曰。汝得箇甚麼。印不休歇去。

○問忠座主。講甚麼經。曰法華經。師曰。若有說法華經處。我現寶塔。當為證明。大德講甚麼人證明。忠無對(法燈云。謝和尚證明)。

龍濟修禪師

【頌】初與法眼同參地藏。所得謂已臻極。暨同辭至建陽途中。談次。眼忽問。古人道萬象之中獨露身。是撥萬象不撥萬象。師曰不撥。眼曰。說甚麼撥不撥。師懵然不知。却回地藏。藏問。子去未久。何以却來。師曰。有事未決。豈憚跋涉山川。藏曰。汝跋涉許多山川。也還不惡。師未諭旨。乃問。古人道萬象之中獨露身。意旨如何。藏曰。汝道古人撥萬象不撥萬象。師曰不撥。藏曰。兩箇也。師駭然。沉思而却問。未審古人撥萬象不撥萬象。藏曰。汝喚甚麼作萬象。師方省悟。再辭地藏。覲于法眼。眼語意。與地藏開示。前後如一。

【頌】上堂。具足凡夫法。凡夫不知。具足聖人法。聖人不會。聖人若會。即是凡夫。凡夫若知。即是聖人。此兩語。一理二義。若人辨得。不妨於佛法中。有箇入處。若辨不得。莫道不疑好。珍重。

○問僧甚處來。曰翠巖。師曰。翠巖有何言句示徒。曰尋常道。出門逢彌勒。入門見釋迦。師曰。與麼道。又爭得。曰和尚又如何。師曰。出門逢阿誰。入門見甚麼。僧於言下有省。

○上堂。聲色不到處。病在見聞。言詮不及處。過在唇吻。僧問。離却聲色。請和尚道。師曰。聲色裏問將來。

【頌】問劫火洞然。大千俱壞。未審這箇還壞也無。師曰不壞。曰為甚麼不壞。師曰。為同於大千。

○上堂。卷簾除却障。閉戶生窒礙。祇這障與礙。古今無人會。會得是障礙。不會不自在。

○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照破天地。曰磨後如何。師曰。黑漆漆地。

○師有頌曰。風動心搖樹。雲生性起塵。若明今日事。昧却本來人。

○萬法是心光。諸緣唯性曉。本無迷悟人。祇要今日了。

延慶傳殷禪師

僧問。見色便見心。燈籠是色。那箇是心。師曰。汝不會古人意。曰如何是古人意。師曰。燈籠是心。

【頌】問若能轉物。即同如來。未審轉甚麼物。師曰。道甚麼。僧擬進語。師曰。這漆桶(此一則。按頌古。第一卷楞嚴經章內)。

南臺守安禪師

僧問。寂寂無依時如何。師曰。寂寂底響。因示頌曰。南臺靜坐一爐香。終日凝然萬慮亡。不是息心除妄想。都緣無事可思量。

廣平玄旨禪師

上堂。還有人證明麼。若有人證明。亦免孤負上祖。埋沒後來。若是尋言數句。大藏分明。若是祖宗門中。怪及甚麼處恁麼道。亦是傍瞥之辭。

○僧問。如何是廣平境。師曰。地負名山秀。谿連海水清。曰如何是境中人。師曰。汝問我答。

○問如何是法身體。師曰。廓落虛空絕點瑕。曰如何是體中物。師曰。一輪明月散秋江。曰未審體與物分不分。師曰。適來道甚麼。曰恁麼則不分也。師曰。穿耳胡僧笑點頭。

靈峰志恩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更是阿誰。曰既然如此。為甚麼迷妄有差殊。師曰。但自不亡羊。何須泣岐路。

○問如何是靈峰境。師曰。萬疊青山如釘出。兩條綠水若圖成。曰如何是境中人。師曰。明明密密。密密明明。

報劬玄應禪師

僧問。如何是第一義。師曰。如何是第一義。曰學人請益。師何以倒問學人。師曰。汝適來請益甚麼。曰第一義。師曰。汝謂之倒問

邪。

報恩宗顯禪師

僧問。離四句絕百非。請師道。師曰。青紅花滿庭。

○問不涉思量處。從上宗乘。請師直道。師良久。僧曰。恁麼則聽響之流。徒勞側耳。師曰。早是粘泥。

太平清海禪師

僧問。古人道。不從請益得。祖師為甚麼道誰得作佛。師曰。悟了方知。

○問從上宗乘。次第指授。未審今日如何舉唱。師曰。透出白雲深洞裏。名花異草嶺頭生。

興陽道欽禪師

僧問。如何是興陽境。師曰。松竹乍栽山影綠。水流穿過院庭中。

○問如何是佛。師曰。更是甚麼。

歸宗道詮禪師

僧問深山巖谷中。還有佛法也無。師曰無。曰佛法徧在一切處。為甚麼却無。師曰。無人到。

○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牀窄先臥。粥稀後坐。

天平山從漪禪師

僧問。大眾雲合。集談何事。師曰。香煙起處森羅見(師有一則評頌機緣。見六卷西院明章內)。

圓通德禪師

上堂。諸上座。明取道眼好。是行脚本分事。道眼若未明。有甚麼用處。祇是移盤喫飯漢。道眼若明。有何障礙。若未明得。強說多端。也無用處。無事切須尋究。

奉先慧同禪師

僧問。教中道。唯一堅密身。一切塵中見。又道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羣生前。於此二途。請師說。師曰。唯一堅密身。一切塵中見。

九峰義詮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有力者負之而趨。

隆壽法騫禪師

上堂。今日隆壽出世。三世諸佛。森羅萬象。同時出世。同時轉法輪。諸人還見麼。僧問。如何是隆壽境。師曰。無汝插足處。曰如何是境中人。師曰。未識境在。

○有僧來參。次日請問心要。師曰。昨日相逢序起居。今朝相見事還如。如何却覓呈心要。心要如何特地疎。

(會元八卷終)

禪宗正脉卷第四

禪宗正脉卷第五

南嶽為仰宗

為山靈祐禪師

始究大小乘教。後參百丈。丈一見。許之入室。遂居參學之首。

【頌】侍立次。丈問誰。師曰某甲。丈曰。汝撥鑪中有火否。師撥之曰無火。丈躬起深撥。得少火。舉以示之曰汝道無。這箇響。師由是發悟。禮謝。陳其所解。丈曰。此乃暫時岐路耳。經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既至。如迷忽悟。如忘忽憶。方省己物。不從他得。故祖師云。悟了同未悟。無心亦無法。祇是無慮妄凡聖等心。本來心法。元自備足。汝今既爾。善自護持。次日同百丈入山作務。丈曰。將得火來麼。師曰。將得來。丈曰。在甚處。師乃拈一枝柴。吹兩吹。度與百丈。丈曰。如蟲禦木。

【頌】司馬頭陀自湖南來。謂丈曰。頃在湖南尋得一山。名大為。是一千五百人善知識所居之處。丈曰。老僧住得否。陀曰。非和尚所居。丈曰何也。陀曰。和尚是骨人。彼是肉山。設居徒不盈千。丈曰。吾眾中莫有人住得否。陀曰。待歷觀之時。華林覺為第一座。丈令侍者請至。問曰。此人如何。陀請警欬一聲。行數步。陀曰不可。丈又令喚師。師時為典座。陀一見。乃曰。此正是為山主人也。丈是夜召師入室囑曰。吾化緣在此。為山勝境。汝當居之。嗣續吾宗。廣度後學。而華林聞之曰。某甲忝居上首。典座何得住持。丈曰。若能對眾下得一語出格。當與住持。即指淨瓶問曰。不得喚作淨瓶。汝喚作甚麼。林曰。不可喚作木[木*突]也。丈乃問師。師踢倒淨瓶便出去。丈笑曰。第一座輸却山子也。師遂往焉。

○住後上堂。夫道人心。質直無偽。無背無面。無詐妄心。一切時中。視聽尋常。更無委曲。亦不閉眼塞耳。但情不附物即得。從

上諸聖。祇說濁邊過患。若無如許多惡覺情見想習之事。譬如秋水澄淨。清淨無為。澹泞無礙。喚他作道人。亦名無事人。時有僧問。頓悟之人更有修否。師曰。若真悟得本。他自知時。修與不修。是兩頭語。如今初心雖從緣。得一念頓悟自理。猶有無始曠劫習氣。未能頓淨。須教渠。淨除現業流識。即是修也。不可別有法。教渠修行趣向。從聞入聖。聞理深妙。心自圓明。不居惑地。縱有百千妙義。抑揚當時。此乃得坐披衣。自解作活計始得。以要言之。則實際理地。不受一塵。萬行門中。不捨一法。若也單刀直入。則凡聖情盡。體露真常。理事不二。即如如佛。

【頌】仰山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指燈籠曰。大好燈籠。仰曰。莫祇這便是麼。師曰。這箇是甚麼。仰曰。大好燈籠。師曰。果然不見。

○一日師謂眾曰。如許多人祇得大機。不得大用。仰山舉此語。問山下庵主曰。和尚甚麼道。意旨如何。主曰。更舉看。仰擬再舉。被庵主蹋倒。仰歸舉似師。師呵呵大笑。

【頌】師摘茶次。謂仰山曰。終日摘茶。祇聞子聲。不見子形。仰撼茶樹。師曰。子祇得其用。不得其體。仰曰。未審和尚如何。師良久。仰曰。和尚祇得其體。不得其用。師曰。放子三十棒。仰曰。和尚棒。某甲喫。某甲棒。教誰喫。師曰。放子三十棒△師坐次。仰山入來。師曰。寂子速道。莫入陰界。仰曰。慧寂信亦不立。師曰。子信了不立。不信不立。仰曰。祇是慧寂。更信阿誰。師曰。若恁麼。即是定性聲聞。仰曰。慧寂佛亦不立。

○師問仰山。涅槃經四十卷。多少是佛說。多少是魔說。仰曰。總是魔說。師曰。已後無人奈子何。仰曰。慧寂即一期之事。行履在甚麼處。師曰。祇貴子眼正。不說子行履。

【頌】師問仰山。何處來。仰曰。田中來。師曰。禾好刈也未。仰作刈禾勢。師曰。汝適來作青見作黃見。作不青不黃見。仰曰。和尚背後是甚麼。師曰。子還見麼。仰拈禾穗曰。和尚何曾問這箇。師曰。此是鷲王擇乳。

【頌】師問仰曰。天寒人寒。仰曰。大家在這裏。師曰。何不直說。仰曰。適來也不曲。和尚如何。師曰。直須隨流。

【頌】上堂。仲冬嚴寒年年事。晷運推移事若何。仰山進前叉手而立。師曰。我情知汝答這話不得。香巖曰。某甲偏答得這話。師躡前問。巖亦進前叉手而立。師曰。賴遇寂子不會。

【評】【頌】師一日見劉鐵磨來。師曰。老特牛。汝來也。磨曰。來日臺山大會齋。和尚還去麼。師乃放身作臥勢。磨便出去。

【頌】僧問。如何是道。師曰。無心是道。曰某甲不會。師曰。會取不會底好。曰如何是不會底。師曰。祇汝是。不是別人。復曰。今時人但直下體取不會底。正是汝心。正是汝佛。若向外得一知一解將為禪道。且沒交涉。名運糞入。不名運糞出。汙汝心田。所以道不是道。

【頌】問如何是百丈真。師下禪牀叉手立。曰如何是和尚真。師却坐。

○師坐次。仰山從方丈前過。師曰。若是百丈先師見子。須喫痛棒始得。仰曰。即今事作麼生。師曰。合取兩片皮。仰曰。此恩難報。師曰。非子不才。迺老僧年邁。仰曰。今日親見百丈師翁來。師曰。子向甚麼處見。仰曰。不道見。祇是無別。師曰。始終作家。

【頌】師在百丈作典座。司馬頭陀舉野狐話問師作麼生。師撼門扇三下。司馬曰。太羸生。師曰。佛法不是這箇道理(按會元見百丈章。今依頌古著于此)。

【頌】仰山香巖侍立次。師舉手曰。如今恁麼者少。不恁麼者多。巖從東過西立。仰從西過東立。師曰。這箇因緣三十年後。如金擲地相似。仰曰。亦須是和尚提唱始得。巖曰。即今亦不少。師曰。合取口。

【頌】師坐次。仰山人來。師以兩手相交示之。仰作女人拜。師曰。如是如是。


【頌】師方丈內坐次。仰山人來。師曰。寂子近日宗門令嗣作麼生。仰曰。大有人疑著此事。師曰。寂子作麼生。仰曰。慧寂祇管困來合眼。健即坐禪。所以未能說著在。師曰。到這田地也難得。仰曰。據慧寂所見。祇如此一句也著不得。師曰。汝為一人也不得。仰曰。自古聖人盡皆如此。師曰。大有人笑汝恁麼祇對。仰曰。解笑者是慧寂同參。師曰。出頭事作麼生。仰繞禪牀一匝。師曰。裂破古今。

【頌】仰山香巖侍立次。師曰。過去現在未來。佛佛道同。人人得箇解脫路。仰曰。如何是人人解脫路。師回顧香巖曰。寂子借問。何不答伊。巖曰。若道過去未來現在。某甲却有箇祇對處。師曰。子作麼生祇對。巖珍重便出。師却問仰山曰。智閑恁麼祇對。還契寂子也無。仰曰不契。師曰。子又作麼生。仰亦珍重出去。師呵呵大笑曰。如水乳合。

【頌】師問仰山。妙淨明心。汝作麼生會。仰曰。山河大地。日月星辰。師曰。汝祇得其事。仰曰。和尚適來問甚麼。師曰。妙淨明心。仰曰。喚作事得麼。師曰。如是如是。

【頌】師睡次。仰山問訊。師便回面向壁。仰曰。和尚何得如此。師起曰。我適來得一夢。你試為我原看。仰取一盆水與師洗面。少頃香巖亦來問訊。師曰。我適來得一夢。寂子為我原了。汝更為我原看。巖乃點一碗茶來。師曰。二子見解過於鶩子。

【頌】上堂。老僧百年後。向山下作一頭水牯牛。左脇下書五字曰。為山僧某甲。當恁麼時。喚作為山僧。又是水牯牛。喚作水牯牛。又是為山僧。畢竟喚作甚麼即得。仰山出禮拜而退。雲居代曰。師無異號。資福寶曰。當時但作此○相。拓呈之。新羅和尚作

此[○@牛]相。拓呈之。又曰。同道者方知。芭蕉徹作此相。拓呈之。又曰。說也說了也。注也注了也。悟取好。乃述偈曰。不是為山不是牛。一身兩號實難酬。離却兩頭應須道。如何道得出常流。

仰山慧寂禪師

初謁耽源。已悟玄旨。後參為山。遂昇堂奧。耽源謂師曰。南陽忠國師當時傳得六代祖師圓相。共九十七箇。授與老僧。乃曰。吾滅後三十年。南方有一沙彌到來。大興此教。次第傳授。無令斷絕。我今付汝。汝當奉持。遂將其本過與師。師接得一覽。便將火燒却。耽源一日問。前來諸相。甚宜秘惜。師曰。當時看了便燒却也。源曰。吾此法門。無人能會。唯先師及諸祖師。諸大聖人。方可委悉。子何得焚之。師曰。慧寂一覽已知其意。但用得。不可執本也。源曰。然雖如此。於子即得。後人信之不及。師曰。和尚若要。重錄不難。即重集一本呈上。更無遺失。源曰。然。

○耽源上堂。師出眾作此○相。以手拓呈了。却又手立。源以兩手相交。作拳示之。師進前三步。作女人拜。源點頭。師便禮拜。

○後參為山。為問。汝是有主沙彌。無主沙彌。師曰有主。曰主在甚麼處。師從西過東立。為異之。師問。如何是真佛住處。為曰。

以思無思之妙。返思靈燄之無窮。思盡還源。性相常住。事理不二。真佛如如。師於言下頓悟。自此執侍。前後盤桓十五載。

【頌】後參巖頭。頭舉起拂子。師展坐具。巖拈拂子置背後。師將坐具搭肩上而出。巖曰。我不肯汝放。祇肯汝收。

【頌】師在瀉山為直歲。作務歸。瀉問。甚麼處去來。師曰。田中來。瀉曰。田中多少人。師插鋤叉手。瀉曰。今日南山大有人刈茅。師拔鋤便行(玄沙云。我若見即踏倒鋤子)。

【頌】師問瀉山。大用現前。請師辯白。瀉山下座歸方丈。師隨後入。瀉問。子適來問甚麼話。師再舉。瀉曰。還記得吾答語否。師曰記得。瀉曰。你試舉看。師便珍重出去。瀉曰錯。師回首曰。閑師弟若來。莫道某甲無語好。

【頌】師臥次。夢入彌勒內院。眾堂中諸位皆足。惟第二位空。師遂就坐。有一尊者白椎曰。今當第二座說法。師起白椎曰。摩訶衍法。離四句。絕百非。諦聽諦聽。眾皆散去。及覺。舉似瀉。瀉曰。子已入聖位。師便禮拜。

○瀉山示眾曰。一切眾生。皆無佛性。鹽官示眾曰。一切眾生。皆有佛性。鹽官有二僧往探問。既到瀉山。聞瀉山舉揚。莫測其涯。若生輕慢。因一日與師言話次。乃勸曰。師兄須是勤學佛法。不得容易。師乃作○相。以手拓呈了。却拋向背後。遂展兩手。就二僧索。二僧罔措。師曰。吾兄直須勤學佛法。不得容易。便起去。時二僧却回鹽官。行三十里。一僧忽然有省。乃曰。當知瀉山道一切眾生。皆無佛性。信之不錯。便回瀉山。一僧更前行數里。因過水。忽然有省。自歎曰。瀉山道一切眾生。皆無佛性。灼然有它恁麼道。亦回瀉山。久依法席。

○瀉山同師牧牛次。瀉曰。此中還有菩薩也無。師曰有。瀉曰。汝見那箇是。試指出看。師曰。和尚疑那箇不是。試指出看。瀉便行。

【頌】師夏末。問訊瀉山次。瀉曰。子一夏不見上來。在下面作何所務。師曰。某甲在下面鋤得一片畚。下得一籬種。瀉曰。子今夏不虛過。師却問。未審和尚一夏之中。作何所務。瀉曰。日中一食。夜後一寢。師曰。和尚今夏亦不虛過。道了乃吐舌。瀉曰。寂子何得自傷己命。

○瀉山餵鷓生飯。回頭見師。曰今日為伊上堂一上。師曰。某甲隨例得聞。瀉曰。聞底事作麼生。師曰。鴉作鴉鳴。鵲作鵲噪。瀉曰。爭奈聲色何。師曰。和尚適來道甚麼。瀉曰。我祇道為伊上堂一上。師曰。為甚麼喚作聲色。瀉曰。雖然如此。驗過也無妨。師曰。大事因緣。又作麼生驗。瀉豎起拳。師曰。終是指東畫西。瀉曰。子適來問甚麼。師曰。問和尚大事因緣。瀉曰。為甚麼喚作指東畫西。師曰。為著聲色故。某甲所以問過。瀉曰。竝未曉了此事。師曰。如何得曉了此事。瀉曰。寂子聲色。老僧東西。師曰。一月千江。體不分水。瀉曰。應須與麼始得。師曰。如金與金。終無異色。豈有異名。瀉曰。作麼生是無異名底道理。師曰。瓶盤釵釧券孟盆。瀉曰。寂子說禪。如師子吼。驚散狐狼野干之屬。

【評】【頌】問僧。近離甚處。曰廬山。師曰。曾到五老峰麼。曰不曾到。師曰。闍黎不曾遊山(雲門云。此語皆為慈悲之故。有落草之談)。

○上堂。汝等諸人。各自回光返照。莫記吾言。汝無始劫來。背明投暗。妄想根深。卒難頓拔。所以假設方便。奪汝粗識。如將黃葉止啼。有甚麼是處。亦如人將百種貨物。與金寶作一鋪貨賣。祇擬輕重來機。所以道。石頭是真金鋪。我這裏是雜貨鋪。有人來覓鼠糞。我亦拈與它。來覓真金。我亦拈與它。時有僧問。鼠糞即不

要。請和尚真金。師曰。齧鏃擬開口。驢年亦不會。僧無對。師曰。索喚則有交易。不索喚則無。我若說禪宗。身邊要一人相伴亦無。豈況有五百七百眾耶。我若東說西說。則爭頭向前採拾。如將空拳誑小兒。都無實處。我今分明向汝說聖邊事。且莫將心湊泊。但向自己性海。如實而修。不要三明六通。何以故。此是聖末邊事。如今且要識心達本。但得其本。不愁其末。他時後日。自具去在。若未得本。縱饒將情學他亦不得。汝豈不見滄山和尚云。凡聖情盡。體露真常。事理不二。即如如佛。

○師因歸滄山省觀。滄問。子既稱善知識。爭辨得諸方來者。知有不知有。有師承無師承。是義學是玄學。子試說看。師曰。慧寂有驗處。但見僧來。便豎起拂子問伊。諸方還說這箇不說。又曰。這箇且置。諸方老宿意作麼生。滄歎曰。此是從上宗門中牙爪。

【頌】滄問。大地眾生。業識茫茫。無本可據。子作麼生。知它之與無。師曰。慧寂有驗處。時有一僧從面前過。師召曰。闍黎。僧回首。師曰。和尚。這箇便是業識茫茫。無本可據。滄曰。此是師子一滴乳。迸散六斛驢乳。

○師問僧。甚處來。曰幽州。師曰。我恰要箇幽州信。米作麼價。曰某甲來時。無端從市中過。踏折他橋梁。師便休。

○師見僧來。豎起拂子。僧便喝。師曰。喝即不無。且道老僧過在甚麼處。曰和尚不合將境示人。師便打。

【頌】有梵僧從空而至。師曰。近離甚處。曰西天。師曰。幾時離彼。曰今早。師曰。何太遲生。曰遊山翫水。師曰。神通遊戲則不無闍黎。佛法須還老僧始得。曰特來東土禮文殊。却遇小釋迦。遂出梵書。貝多葉與師。作禮乘空而去。自此號小釋迦。

【頌】師住東平時。瀉山令僧送書并鏡與師。師上堂。提起示眾曰。且道是瀉山鏡。東平鏡。若道是東平鏡。又是瀉山送來。若道是瀉山鏡。又在東平手裏。道得則留取。道不得則撲破去也。眾無語。師撲破便下座。

【頌】師坐次。有僧來作禮。師不顧。其僧乃問。師識字否。師曰隨分。僧乃右旋一匝曰。是甚麼字。師於地上畫十字酬之。僧又左旋一匝曰。是甚字。師改十字作卍字。僧畫此○相。以兩手拓如修羅掌日月勢曰。是甚麼字。師乃畫此[○@卍]相對之。僧乃作婁至德勢。師曰。如是如是。此是諸佛之所護念。汝亦如是。吾亦如是。善自護持。其僧禮謝。騰空而去。時有一道者見。經五日後。遂問師。師曰。汝還見否。道者曰。某甲見出門。騰空而去。師曰。此是西天羅漢。故來探吾道。道者曰。某雖覩種種三昧。不辯其理。師曰。吾以義為汝解釋。此是八種三昧。是覺海變為義海。體則同然。此義合有因有果。即時異時總別。不離隱身三昧也。

【頌】梵僧來參。師於地上畫半月相。僧近前。添作一圓相以脚抹却。師展兩手。僧拂袖便去【增收】。

【頌】劉侍御問。了心之旨。可得聞乎。師曰。若要了心。無心可了。無了之心。是名真了。

【頌】陸郎中問。不斷煩惱而入涅槃。得箇安樂處。師豎起拂子曰。祇如這箇作麼生入。曰入之一字。也不消得。師曰。入之一字。不為相公。

【頌】龐居士問。久嚮仰山。到來為甚麼却覆。師豎起拂子。士曰恰是。師曰是仰是覆。士乃打露柱曰。雖然無人。也要露柱證明。師擲拂子曰。若到諸方。一任舉似。

【頌】師指雪師子問眾。有過得此身者麼。眾無對(雲門云。當時便好與踏倒)。

【頌】師問雙峯。師弟近日見處如何。曰據某見處。實無一法可當情。師曰。汝解猶在境。曰某祇如此。師兄又如何。師曰。汝豈不知無一法可當情者。滄山聞曰。寂子一句。疑殺天下人(玄覺云。經道實無有法。然燈佛與我授記。它道實無一法可當情。為甚麼道。解猶在境。且道利害在甚麼處)。

【頌】師臥次。僧問曰。身還解說法也無。師曰。我說不得。別有一人說得。曰說得底人在甚麼處。師推出枕头。滄山聞曰。寂子用劒刃上事△師住觀音時。出榜云。看經次。不得問事。有僧來問訊。見師看經。旁立而待。師卷却經。問會麼。曰某甲不看經。爭得會。師曰。汝已後會去在。其僧到巖頭。頭問甚處來。曰江西觀音來。頭曰。和尚有何言句。僧舉前話。頭曰。這箇老師。我將謂被故紙埋却。元來猶在。

【頌】僧思[邱-丘+益]問。禪宗頓悟。畢竟入門的意如何。師曰。此意極難。若是祖宗門下。上根上智。一聞千悟。得大總持。其有根微智劣。若不安禪靜慮。到這裏總須茫然。曰除此一路。別更有入處否。師曰有。曰如何即是。師曰。汝是甚處人。曰幽州人。師曰。汝還思彼處否。曰常思。師曰。能思者是心。所思者是境。彼處樓臺林苑人馬駢闐。汝反思底。還有許多般也無。曰某甲到這裏。總不見有。師曰。汝解猶在心。信位即得。人位未在。曰除却這箇。別更有意也無。師曰。別有別無。即不堪也。曰到這裡作麼生即是。師曰。據汝所解。祇得一玄。得坐披衣向後自看。[邱-丘+益]禮謝之。

○師將順寂。數僧侍立。師以偈示之曰。一二二三子。平目復仰視。兩口一無舌。即是吾宗旨。

香巖智閑禪師

【頌】在百丈時。性識聰敏。參禪不得。泊丈遷化。遂參為山。山問。我聞汝在百丈先師處。問一答十。問十答百。此是汝聰明靈利。意解識想。生死根本。父母未生時。試道一句看。師被一問。直得茫然。歸寮將平日看過底文字。從頭要尋一句酬對。竟不能得。乃自歎曰。畫餅不可充饑。屢乞為山說破。山曰。我若說似汝。汝已後罵我去。我說底是我底。終不干汝事。師遂將平昔所看文字燒却曰。此生不學佛法也。且作箇長行喫飯僧。免役心神。乃泣辭為山。直過南陽。覩忠國師遺跡。遂憩止焉。一日芟除草木。偶拋瓦礫擊竹作聲。忽然省悟。遽歸沐浴焚香。遙禮為山讚曰。和尚大慈。恩逾父母。當時若為我說破。何有今日之事。乃有。

【頌】曰。一擊忘所知。更不假修持。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處處無踪跡。聲色外威儀。諸方達道者。咸言上上機。為山聞得。謂仰山曰。此子徹也。仰曰。此是心機意識著述得成。待某甲親自勘過。

【頌】仰後見師曰。和尚讚歎師弟發明大事。你試說看。師舉前頌。仰曰。此是夙習記持而成。若有正悟。別更說看。師又成頌曰。去年貧未是貧。今年貧始是貧。去年貧猶有卓錫之地。今年貧錫也無。仰曰。如來禪許師弟會。祖師禪未夢見在。師復有頌曰。我有一機。瞬目視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乃報為山曰。且喜閑師弟。會祖師禪也(玄覺云。且道如來禪。與祖師禪分不分。長慶稜云。一時坐却)。

【頌】師初開堂。為山令僧送書并拄杖至。師接得便哭蒼天蒼天。僧曰。和尚為甚麼如此。師曰。祇為春行秋令。

【頌】上堂。若論此事。如人上樹。口銜樹枝。脚不踏枝。手不攀枝。樹下忽有人問。如何是祖師西來意。不對它。又違它所問。若對它。又喪身失命。當恁麼時作麼生即得。時有虎頭招上座。出眾云。樹上即不問。未上樹時請和尚道。師乃呵呵大笑。

徑山洪謹禪師

僧問。掩息如灰時如何。師曰。猶是時人功幹。曰幹後如何。師曰。耕人田不種。曰畢竟如何。師曰。禾熟不臨場。

○問如霜如雪時如何。師曰。猶是污染。曰不污染時如何。師曰。不同色。

九峰慈慧禪師

初在瀉山。山上堂曰。汝等諸人。祇得大機。不得大用。師便抽身而去。瀉召之。師更不回顧。瀉曰。此子堪為法器。

京兆米和尚

【頌】令僧去問仰山曰。今時還假悟也無。仰曰。悟即不無。爭奈落在第二頭。師深肯之。又令僧問洞山曰。那箇究竟作麼生。洞曰。却須問它始得。師亦肯之。

三角法遇庵主

【頌】因荒亂魁師入山。執刃而問。和尚有甚財寶。師曰。僧家之寶。非君所宜。魁曰。是何寶。師震聲一喝。魁不悟。以刃加之。

王敬初常侍

【頌】視事次。米和尚至。公乃舉筆示之。米曰。還判得虛空否。公擲筆入宅。更不復出。米致疑。明日憑鼓山供養主。入探其意。

米亦隨至。潛在屏蔽間偵伺。供養主纔坐。問曰。昨日米和尚有甚言句。便不相見。公曰。師子齧人。韓獹逐塊。米聞此語。即省前謬。遽出朗笑曰。我會也。我會也。公曰。會即不無。你試道看。米曰。請常侍舉。公乃豎起一隻筯。米曰。這野狐精。公曰。這漢徹也。

○問僧。一切眾生。還有佛性也無。曰有。公指壁上畫狗子曰。這箇還有也無。僧無對。公自代曰。看齧著汝。

西塔光穆禪師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同別且置。汝道瓶甃裡。甚麼物出來入去。

南塔光湧禪師

少甚俊敏。依仰山剃度。北遊謁臨濟。復歸侍山。山曰。汝來作甚麼。師曰。禮覲和尚。山曰。還見和尚麼。師曰見。山曰。和尚何似驢。師曰。某甲見和尚亦不似佛。山曰。若不似佛。似箇甚麼。師曰。若有所似。與驢何別。山大驚曰。凡聖兩忘。情盡體露。吾以此驗人二十年。無決了者。子保任之。山每指謂人曰。此子肉身佛也。

○僧問。真佛住在何處。師曰。言下無相。也不在別處。

【頌】師向火次。有僧來參。師曰。一言說盡山河。僧便問。如何是一言。師以火筯插向爐邊。却收舊處。

霍山景通禪師

【頌】初參仰山。山閉目坐。師乃翹起右足曰。如是如是。西天二十八祖亦如是。中華六祖亦如是。和尚亦如是。景通亦如是。仰山

起來打四藤條。師因此自稱集雲峰下四藤條。(歸宗下亦有大[神]佛。名智通)師曾到霍山和尚處。自稱集雲峰下四藤條。天下大禪佛。參霍山喚維那打鐘著。師驟步而去(此則按會元見兩處霍山。今依頌古併見一章)。

無著文喜禪師(喜禾人也)

【評】【頌】往五臺山華嚴寺。至金剛窟禮謁。遇一老翁牽牛而行。邀師入寺。翁呼均提。有童子應聲出迎。翁縱牛。引師陞堂。堂宇皆耀金色。翁踞牀。指繡墩命坐。翁曰。近自何來。師曰南方。翁曰。南方佛法。如何住持。師曰。末法比丘。少奉戒律。翁曰。多少眾。師曰。或三百。或五百。師却問。此間佛法如何住持。翁曰。龍蛇混雜。凡聖同居。師曰。多少眾。翁曰。前三三。後三三。(評舉)翁呼童子致茶。并進酥酪。師納其味。心意豁然。翁拈起玻璃盞問曰。南方還有這箇否。師曰無。翁曰。尋常將甚麼喫茶。師無對。師覩日色稍晚。遂問翁。擬投一宿得否。翁曰。汝有執心在。不得宿。師曰。某甲無執心。翁曰。汝曾受戒否。師曰。受戒久矣。翁曰。汝若無執心。何用受戒。師辭退。翁令童子相送。師問童子。前三三。後三三。是多少。童召大德。師應諾。童曰。是多少。師復問曰。此為何處。童曰。此金剛窟般若寺也。師悽然。悟彼翁者即文殊也。不可再見。即稽首童子。願乞一言為別。童說偈曰。面上無嗔供養具。口裏無嗔吐妙香。心裏無嗔是珍寶。無垢無染是真常。言訖。均提與寺俱隱。

【頌】咸通三年參仰山。頓了心契。令充典座。文殊嘗現於粥鑊上。師以攪粥篋便打曰。文殊自文殊。文喜自文喜。殊乃說偈曰。苦瓠連根苦。甜瓜徹蒂甜。修行三大劫。却被老僧嫌。

○一日有異僧來。求齋食。師減已分饋之。仰山預知。問曰。適來果位人至。汝給食否。師曰。輟已回施。仰曰。汝大利益。

五觀順支禪師

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是甚麼字。師作圓相示之。

南禪無染禪師

僧問。無句之句。師還答也無。師曰。從來祇明恁麼事。曰畢竟如何。師曰。且問看。

大安清幹禪師

僧問。從上諸聖。從何而證。師乃斫額。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羊頭車子推明月。

雙溪田道者

僧問。如何是啐啄之機。師以手作啄勢。

○問如何是西來意。師曰。甚麼處得箇問頭來。

洪州米嶺和尚

常語曰。莫過於此。僧問。未審是甚麼莫過於此。師曰。不出是。僧後問長慶。為甚麼不出是。慶曰。汝擬喚作甚麼。

雙峰古禪師

本業講經。因參先雙峰。峰問。大德甚麼處住。曰城裏。峰曰。尋常還思老僧否。曰常思和尚。無由禮覲。峰曰。祇這思底便是大德。師從此領旨。即罷講席。侍奉數年。後到石霜。但隨眾而已。更不參請。眾謂古侍者。嘗受雙峰印記。往往聞於石霜。霜欲詰其所悟。而未得其便。師因辭去。霜將拂子送出門首。召曰古侍者。

師回首。霜曰。擬著即差。是著即乖。不擬不是。亦莫作箇會。除非知有。莫能知之。好去好去。師應喏喏。即前邁。

資福如寶禪師

【評】【頌】因陳操尚書來。師畫一圓相。操曰。弟子與麼來。早是不著便。更畫圓相。師於中著一點。操曰。將謂是番舶主。師便歸方丈閉却門(會元無出)增收僧問。如何是一塵入正受。師作入定勢。曰如何是諸塵三昧起。師曰。汝問阿誰。

○師有時坐良久。周視左右曰會麼。眾曰不會。師曰。不會即謾汝去也。

○問如何是玄旨。師曰。汝與我掩却門。

芭蕉慧清禪師

【頌】上堂。拈拄杖示眾曰。你有拄杖子。我與你拄杖子。你無拄杖子。我奪你拄杖子。靠拄杖下座。

○上堂。如人行次。忽遇前面萬丈深坑。背後野火來逼。兩畔是荆棘叢林。若也向前。則墮坑壑。若也退後。則野火燒身。若也轉側。則被荆棘林礙。當與麼時。作麼生免得。若也免得。合有出身之路。若免不得。墮身死漢。

○僧問。如何是自己。師曰。望南看北斗。

【頌】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一不得問。二不得休。曰學人不會。師曰。第三度來。與汝相見。

清化全怱禪師

初參南塔。塔問。從何而來。師曰鄂州。塔曰。鄂州使君名甚麼。師曰。化下不敢相觸忤。曰此地道不畏。師曰。大丈夫何必相試。塔靦然而笑。遂乃印可。

○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我却不知。曰和尚為甚麼不知。師曰。不可青天白日尿牀也。師後還故國。錢氏文穆王。特加禮重。忠獻王賜紫方袍。師不受。王改以衲衣。仍號純一禪師。師曰。吾非飾讓也。慮後人倣吾而逞欲耳。

黃連義初禪師

廣主劉氏。嚮師道化。請入府內說法。僧問。人王與法王相見時如何。師曰。兩鏡相照。萬象歷然。曰法王心要。達磨西來。五祖付與曹谿。自此不傳衣鉢。未審碧玉堦前。將何付囑。師曰。石羊水上行。木馬夜翻駒。曰恁麼則我王有感。萬國歸朝。師曰。時人盡唱太平歌。

資福貞邃禪師

上堂。隔江見資福剎竿。便回去。脚根下好與三十棒。況過江來。時有僧纔出。師曰。不堪共語。

【頌】僧問。如何是古人歌。師作此○相示之。

芭蕉繼徹禪師

初參風穴。穴問。如何是正法眼。師曰。泥彈子。穴異之。次謁先芭蕉。蕉上堂。舉仰山道。兩口一無舌。此是吾宗旨。師豁然有省。住後僧問。如何是林谿境。師曰。有山有水。曰如何是境中人。師曰。三門前。佛殿後。

【頌】問有一人不捨生死。不證涅槃。師還提携也無。師曰。不提携。曰為甚麼不提携。師曰。林溪粗識好惡。

○問寂寂無依時如何。師曰。未是衲僧分上事。曰如何是衲僧分上事。師曰。要行即行。要坐即坐。師有偈曰。芭蕉的旨。不挂唇齒。木童唱和。石人側耳。

承天辭確禪師

僧問。學人有一隻箭。射即是。不射即是。師曰。作麼生是闍黎箭。僧便喝。師曰。這箇是草箭子。曰如何是和尚箭。師曰。禁忌須屈指。禱祈便扣牙。

○問眾罪如霜露。慧日能消除時如何。師曰。亭臺深夜雨。樓閣靜時鐘。曰為甚麼因緣會遇時。果報還自受。師曰。管筆能書。片舌解語。

○問如何是第一義。師曰。羣峯穿海去。滴水下巖來。

(會元九卷終)

青原法眼宗

清涼文益禪師(諡大法眼)

弱齡稟具於越州開元寺。屬律匠希覺師。盛化于明州鄞山育王寺。師往預聽習。究其微旨。復傍探儒典。遊文雅之場。覺師目為我門之游夏也。師以玄機一發。雜務俱捐。振錫南邁。抵福州參長慶。不大發明。

【頌】後同紹修法進三人。欲出嶺。過地藏院阻雪。少憩附爐次。藏問。此行何之。師曰。行脚去。藏曰。作麼生是行脚事。師曰不

知。藏曰。不知最親切。又同三人舉肇論。至天地與我同根處。藏曰。山河大地。與上座自己。是同是別。師曰別。藏豎起兩指。師曰同。藏又豎起兩指。便起去。雪霽辭去。藏門送之。問曰。上座。尋常說三界唯心。萬法唯識。乃指庭下片石曰。且道此石在心內。在心外。師曰。在心內。藏曰。行脚人。著甚麼來由。安片石在心頭。師窘無以對。即放包依席下。求決擇。近一月餘。日呈見解。說道理。藏語之曰。佛法不恁麼。師曰。某甲詞窮理絕也。藏曰。若論佛法。一切現成。師於言下大悟。

【頌】子方上座自長慶來。師舉長慶偈問曰。作麼生是萬象之中獨露身。子方舉拂子。師曰。恁麼會。又爭得。曰和尚尊意如何。師曰。喚甚麼作萬象。曰古人不撥萬象。師曰。萬象之中獨露身。說甚麼撥不撥。子方豁然悟解。述偈投誠。自是諸方會下。有存知解者。翕然而至。始則行行如也。師微以激發。皆漸而服膺。海參之眾。常不減千計。

○上堂。大眾立久。乃謂之曰。祇恁麼便散去。還有佛法道理也無試說看。若無。又在這裏作麼。若有大市裏。人叢處亦有。何須到這裏。諸人各曾看還源觀。百門義海。華嚴論。涅槃經。諸多策子。阿那箇教中。有這箇時節。若有試舉看。莫是恁麼經裏。有恁麼語是此時節麼。有甚麼交涉。所以道。微言滯於心首。嘗為緣慮之場。實際居於目前。翻為名相之境。又作麼生得翻去。若也翻去。又作麼生得正去。還會麼。莫祇恁麼念策子。有甚麼用處。僧問。如何披露。即得與道相應。師曰。汝幾時披露。即與道不相應。

○問六處不知音時如何。師曰。汝家眷屬一羣子。師又曰。作麼生會。莫道恁麼來問。便是不得。汝道六處不知音。眼處不知音。耳處不知音。若也根本是有。爭解無得。古人道。離聲色著聲色。離名字著名字。所以無想天。修得經八萬大劫。一朝退墮諸事儼然。

蓋為不知根本真實次第。修行三生六十劫。四生一百劫。如是直到三祇果滿。它古人猶道。不如一念緣起無生。超彼三乘權學等見。又道。彈指圓成八萬門。剎那滅却三祇劫。也須體究。若如此。用多少氣力。

○問十二時中如何行履。即得與道相應。師曰。取捨之心成巧偽。

【頌】問聲色兩字。甚麼人透得。師却謂眾曰。諸上座。且道這箇僧。還透得也未。若會此僧問處。透聲色也不難。

○問求佛知見。何路最徑。師曰。無過此。

○上堂。出家人但隨時及節便得。寒即寒。熱即熱。欲知佛性義。當觀時節因緣。古今方便不少。不見石頭和尚。因看肇論云。會萬物為己者。其唯聖人乎。他家便道。聖人無己靡所不己。有一片言語。喚作參同契。末上云竺土大僊心。無過此語也。中間也祇隨時說話。上座。今欲會萬物為自己去。蓋為大地。無一法可見。它又囑云。光陰莫虛度。適來向上座道。但隨時及節便得。若也移時失候。即是虛度光陰。於非色中作色解。上座。於非色中作色解。即是移時失候。且道色作非色解。還當不當。上座。若恁麼會。便是沒交涉。正是痴狂兩頭走。有甚麼用處。上座。但守分隨時過好。珍重。

【頌】師問修山主。毫釐有差。天地懸隔。兄作麼生會。修曰。毫釐有差。天地懸隔。師曰。恁麼會。又爭得。修曰。和尚如何。師曰。毫釐有差。天地懸隔。修便禮拜。(東禪齊云。山主恁麼祇對。為甚麼不肯。及乎再請益。法眼亦祇恁道便得去。且道疑訛在甚麼處。若看得透道上座有來由)。

○師與悟空禪師向火。拈起香匙問曰。不得喚作香匙。兄喚作甚麼。空曰香匙。師不肯。空後二十餘日。方明此語。

【頌】僧問。承教有言。從無住本。立一切法。如何是無住本。形興未質。名起未名。

【頌】僧參次。師指簾。時有二僧同去捲。師曰。一得一失。

【頌】問僧甚處來。曰泗州禮拜大聖來。師曰。今年大聖出塔否。曰出。師却問傍僧曰。汝道伊到泗州不到。

○師問寶資長老。古人道山河無隔礙。光明處處透。且作麼生是處處透底光明。資曰。東畔打鑼聲。

○師指竹問僧。還見麼。曰見。師曰。竹來眼裡。眼到竹邊。曰總不恁麼。

○問如何是第二月。師曰。森羅萬象。曰如何是第一月。師曰。森羅萬象。

【頌】師指凳子曰。識得凳子周匝有餘(雲門云。識得凳子。天地懸殊)。

○師一日與李王論道罷。同觀牡丹花。王命作偈。師即賦曰。擁毳對芳叢。由來趣不同。髮從今日白。花是去年紅。艷冶隨朝露。馨香逐晚風。何須待零落。然後始知空。王頓悟其意。

○師頌三界唯心曰。三界唯心。萬法唯識。唯識唯心。眼聲耳色。色不到耳。聲何觸眼。眼色耳聲。萬法成辦。萬法匪緣。豈觀如幻。山河大地。誰堅誰變。

○頌華嚴六相義曰。華嚴六相義。同中還有異。異若異於同。全非諸佛意。諸佛意總別。何曾有同異。男子身中入正定。女子身中不留意。不留意。絕名字。萬象明明無理事。

【評】【頌】僧慧超問如何是佛。師曰。汝是慧超。僧於是悟入

【增收】(按會元。慧超即歸宗策真禪師也。初名慧超。考之實矣。今依頌古收在此)。

天台德韶國師

首謁投子見同禪師。次謁龍牙。乃問。雄雄之尊為甚麼近之不得。牙曰。如火與火。師曰。忽遇水來。又作麼生。牙曰去。汝不會我語。

【頌】師又問。天不蓋。地不載。此理如何。牙曰。道者合如是。師經十七次問。牙祇如此答。師竟不論旨。再請垂誨。牙曰。道者汝已後自會去。師後於通玄峰澡浴次。忽省前話。遂具威儀。焚香遙望龍牙禮拜曰。當時若向我說。今日決定罵也。

【頌】師問疎山。百匝千重是何人境界。山曰。左搓芒繩縛鬼子。師曰。不落古今請師說。曰不說。師曰。為甚麼不說。曰箇中不辯有無。師今善說。山駭之。如是歷參五十四員善知識。皆法緣未契。最後至臨川謁法眼。眼一見。深器之。師以徧涉叢林。亦倦於參問。但隨眾而已。

【頌】一日法眼上堂。僧問。如何是曹源一滴水。眼曰。是曹源一滴水。僧惘然而退。師於坐側。豁然開悟平生凝滯。渙若冰釋。遂以所悟。聞于法眼。眼曰。汝向後當為國王所師。致祖道光大。吾不如也。自是諸方異唱。古今玄鍵。與之決擇。不留微迹。

○尋回本道。遊天台山。覩智者顛禪師遺蹤。有若舊居。師復與智者同姓。時謂之後身也。初止白沙。時忠懿王為王子時。刺台州。嚮師之名。延請問道。師謂曰。他日為霸主。無忘佛恩。漢乾祐元年戊申。王嗣國位。遣使迎之。伸弟子之禮。有傳天台智者教義寂者。(即螺溪也)屢言于師曰。智者之教。年祀浸遠。慮多散落。今新

羅國。其本甚備。自非和尚慈力。其孰能致之乎。師於是聞于王。王遣使及賈師之書。往彼國。繕寫備足而回。迄今盛行于世矣。

○上堂。古聖方便。猶如河沙。祖師道非風旛動。仁者心動。斯乃無上心印法門。我輩是祖師門下客。合作麼生會祖師意。莫道風旛不動汝心妄動。莫道不撥風幡。就風幡通取。莫道風幡動處是甚麼。有云附物明心。不須認物。有云色即是空。有云非風幡動。應須妙會。如是解會。與祖師意旨。有何交涉。既不許如是會。諸上座便合知悉。若於這裏徹底悟去。何法門而不明。百千諸佛方便。一時洞了。更有甚麼疑情。所以古人道。一了千明。一迷萬惑。上座。豈是今日會得一則。明日又不會也。莫是有一分向上事難會。有一分下劣凡夫不會。如此見解。設經塵劫。祇自勞神乏思。無有是處。

○僧問。一切山河大地。從何而起。師曰。此問從何而來。

○問。如何是轉物即同如來。師曰。汝喚甚麼作物。曰恁麼則同如來也。師曰。莫作野干鳴。

【頌】問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此兩句。按頌古見南泉。及考會元彼章無。故頌見此)既是三世諸佛。為甚麼却不知有。師曰。却是你知有。曰狸奴白牯。為甚麼却知有。師曰。你甚麼處見三世諸佛。

○問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如何是一花開五葉。師曰。日出月明。曰如何是結果自然成。師曰。天地皎然。

○上堂。大凡言句。應須絕滲漏始得。時有僧問。如何是絕滲漏底句。師曰。汝口似鼻孔。問如何是不證一法。師曰。待言語在。曰如何是證諸法。師曰。醉作麼。乃曰。祇如山僧恁麼對它。諸上座作麼生體會。莫是真實相為麼。莫是正恁麼時。無一法可證麼。莫

是認伊來處麼。莫是全體顯露麼。莫錯會好。如此見解。喚作依草附木。與佛法天地懸隔。假饒答話揀辯如懸河。祇或得箇顛倒知見。若祇貴答話揀辯。有甚麼難。但恐無益於人。翻成賺悞。如上座從前所學。揀辯問答。記持說道理極多。為甚麼疑心不息。聞古聖方便。特地不會。祇為多虛少實。上座。不如從脚跟下。一時覷破看。是甚麼道理。有多少法門與上座作疑求解。始知從前所學底事。祇是生死根源。陰界裡活計。所以古人道。見聞不脫。如水裏月。無事珍重。

【頌】示眾曰。通玄峯頂。不是人間。心外無法。滿目青山(法眼闡云。即此一偈。可起吾宗)。

○上堂。僧問。承古有言。若人見般若。即被般若縛。若人不見般若。亦被般若縛。既見般若。為甚麼却被縛。師曰。你道般若見甚麼。曰不見般若。為甚麼亦被縛。師曰。你道般若甚麼處不見。乃曰。若見般若。不名般若。不見般若。亦不名般若。且作麼生說見不見。所以古人道。若欠一法。不成法身。若剩一法。不成法身。若有一法。不成法身。若無一法。不成法身。此是般若之真宗也(云云)。

○上堂。佛法現成。一切具足。豈不見道。圓同太虛。無欠無餘。若如是也。且誰欠誰剩。誰是誰非。誰是會者。誰是不會者。所以道東去亦是上座。西去亦是上座。南去亦是上座。北去亦是上座。因甚麼得成東西南北。若會得。自然見聞覺知路絕。一切諸法現前。何故如此。為法身無相觸目皆形。般若無知。對緣而照。一時徹底會取好。諸上座。出家兒合作麼生。此是本有之理。未為分外。識心達本源。故名為沙門。若識心皎皎地。實無絲毫障礙。上座久立。珍重。

○上堂。僧問。承師有言。九天擎玉印。七佛兆前心。如何是印。師曰。不露文。曰如何是心。師曰。你名安嗣。乃曰。法界性海。如函如蓋。如鉤如鎖。如金與金。位位皆齊。無纖毫參差。不相混濫。非一非異。非同非別。若歸實地去。法法皆到底。不是上來問箇如何若何便是。不問時便非。在長連牀上座時是有。不坐時是無。祇如諸方老宿言教在世。如恒河沙。如來一大藏經。卷卷皆說佛理。句句盡言佛心。因甚麼得不會去。若一向織絡言教。意識解會。饒上座經塵沙劫。亦不能得徹。此喚作顛倒知見。識心活計。並無得力處。此蓋為脚跟下不明。若究盡諸佛法源。河沙大藏。一時現前。不欠絲毫。不剩絲毫。諸佛時常出世。時常說法度人。未曾間歇。乃至猿啼鳥叫。草木叢林。常助上座發機。未有一時不為上座。有如是奇特處可惜許。諸上座。大家究取。令法久住世間。增益人天壽命。國王安樂。無事珍重。

○上堂。舉古者道。吾有一言。天上人間。若人不會。綠水青山。且作麼生是一言底道理。古人語須是曉達始得。若是將言而名於言。未有箇會處。良由究盡諸法根蒂。始會一言。不是一言半句。思量解會。喚作一言。若會言語道斷。心行處滅。始到古人境界。亦不是閉目藏睛。暗中無所見。喚作言語道斷。且莫賺會。佛法不是這箇道理。要會麼。假饒經塵沙劫說。亦不曾有半句到諸上座。經塵沙劫不說。亦未曾欠少半句。應須徹底會去始得。若如是斟酌名言。空勞心力。並無用處。與諸上座。共相證明。後學初心。速須究取。久立珍重。

○上堂。其略云。應須徹底明達始得。不是問一則語。記一轉話。巧作道理。風雲水月。四六八對。便當佛法。莫自賺。諸上座。究竟無益。

清涼泰欽禪師

生而知道。辯才無礙。入法眼之室。海眾歸之。僉曰敏匠。初住洪州雙林院。開堂日。指法座曰。此山先代尊宿。曾說法來。此座高廣。不才何陞。古昔有言。作禮須彌燈王如來。乃可得坐。且道須彌燈王如來。今在何處。大眾要見麼。一時禮拜。便陞座。良久曰。大眾祇如此也。還有會處麼。僧問。如何是雙林境。師曰。畫也畫不成。曰如何是境中人。師曰。且去。境也未識。且討人。

靈隱清聳禪師

初參法眼。眼指兩謂師曰。滴滴落在上座眼裏。師初不論旨。後因閱華嚴感悟。承眼印可。

○上堂。十方諸佛。常在汝前。還見麼。若言見。將心見。將眼見。所以道。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又曰。見色便見心。且喚甚麼作心。山河大地。萬象森羅。青黃赤白。男女等相。是心不是心。若是心。為甚麼却成物象去。若不是心。又道見色便見心。還會麼。祇為迷此而成顛倒。種種不同。於無同異中。強生同異。且如今直下承當。頓豁本心。皎然無一物可作見聞。若離心別求解脫者。古人喚作迷波討源。卒難曉悟。僧問。根塵俱泯。為甚麼事理不明。師曰。事理且從。喚甚麼作俱泯底根塵。

○問無明實性即佛性。如何是佛性。師曰。喚甚麼作無明。

○問如何是摩訶般若。師曰。雪落茫茫。僧無語。師曰會麼。曰不會。師示偈曰。摩訶般若。非取非捨。若人不會。風寒雪下。

歸宗義柔禪師

開堂陞座。維那白椎曰。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曰。若是第一義。且作麼生觀。恁麼道落在甚麼處。為復是觀。為復不許人

觀。先德上座。共相證明。後學初心。莫喚作返問語。倒靠語。有疑請問。僧問。諸佛出世。說法度人。感天動地。和尚出世。有何祥瑞。師曰。人天大眾前寐語作麼。

○問僧。看甚麼經。曰寶積經。師曰。既是沙門。為甚麼看寶積經。僧無語。師代云。古今用無極。

百丈道恒禪師

參法眼。因請益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敘語未終。眼曰住住。汝擬向世尊良久處會那。師從此悟入。

○僧問。古人有言。釋迦與我同參。未審參見何人。師曰。唯有同參方知。曰未審此人如何親近。師曰。恁麼則你不解參也。

○問如何是百丈為人一句。師曰。若到諸方。總須問過。乃曰。實是無事。諸人各各是佛。更有何疑。得到這裡。古人道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且作麼生是心空。不是那裡閉目冷坐是心空。此正是意識想解。上座要會心空麼。但且識心。便見心空。所以道過去已過去。未來更莫算。兀然無事坐。何曾有人喚。設有人喚。上座應它好。不應它好。若應他。阿誰喚上座。若不應他。又不患聾也。三世體空。且不是木頭也。所以古人道。心空得見法王。還見法王麼也。祇是老病僧。又莫道渠自伐好。珍重。

○僧舉人問玄沙。三乘十二分教即不問。如何是祖師西來意。沙曰。三乘十二分教不要。某甲不會。請師為說。師曰。汝實不會。曰實不會。師示偈曰。不要三乘要祖宗。三乘不要與君同。君今欲會通宗旨。後夜猿啼在亂峰。

○上堂。諸上座。適來從僧堂裡出來。脚未跨門限。便回去。已是重說偈言了也。更來這裡。不可重重下切脚也。古人云。參它不如自參。所以道森羅萬象。是善財之宗師。業惑塵勞。乃普賢之境界。若恁麼參得。與善財同參。若不肯與麼參。却歸堂向火。參取勝熱婆羅門。珍重。

○上堂。眾纔集。便曰喫茶去。或時眾集。便曰珍重。或時眾集。便曰歇。後又頌曰。百丈有三訣。喫茶珍重歇。直下便承當。敢保君未徹。

杭州永明道潛禪師

【頌】初謁法眼。眼問曰。子於參請外。看甚麼經。師曰。華嚴經。眼曰。總別同異成壞六相。是何門攝屬。師曰。文在十地品中。據理則世出世間一切法。皆具六相也。眼曰。空還具六相也無。師懵然無對。眼曰。汝問我。我道向汝。師乃問。空還具六相也無。眼曰空。師於是開悟。踊躍禮謝。眼曰。子作麼生會。師曰空。眼然之。

○因四眾士女入院。眼問師曰。律中道。隔壁聞釵釧聲。即名破戒。現覩金銀合雜。朱紫駢闐。是破戒不是破戒。師曰。好箇入路。眼曰。子向後有五百毳徒。為王侯所重在。師尋禮辭。駐錫於衢州古寺。閱大藏經。忠懿王命入府。受菩薩戒。署慈化定慧禪師。建大伽藍。慧日永明。請居之。

○上堂。佛法顯然。因甚麼却不會。諸上座。欲會佛法。但問張三李四。欲會世法。則參取古佛叢林。無事久立。

○僧問。達磨西來。傳個甚麼。師曰。傳箇冊子。曰恁麼則心外有法去也。師曰。心內無法。

杭州報恩慧朗禪師

三學精練。志探玄旨。在天台山白沙卓庵。有朋彥上座。博學強記。來訪師。敵論宗乘。師曰。言多去道轉遠。今有事借問。祇如從上諸聖。及諸先德。還有不悟者也無。彥曰。若是諸聖先德。豈有不悟者哉。師曰。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今天台山巖然。如何得消殞去。彥不知所措。自是它宗泛學。來者皆服膺矣。

○上堂。諸人還委悉麼。莫道語默動靜。無非佛事好。且莫錯會。

○天龍禪師問曰。一切諸佛。及諸佛法。皆從此經出。未審此經。從何而出。師曰。道甚麼。天龍擬進語。師曰。過也。

金陵報慈行言導師

上堂。凡行脚人參善知識。到一叢林。放下餅鉢。可謂行菩薩道。能事畢矣。何用更來這裡。舉論真如涅槃。此是非時之說。然古之有言。譬如披沙識寶。沙礫若除。真金自現。便喚作常住世間具足僧寶。亦如一味之雨。一般之地。生長萬物。大小不同。甘辛有異。不可道地與雨。有大小之名也。所以道。方即現方。圓即現圓。何以故爾。法無偏正。隨相應現。喚作對現色身。還見麼。若不見也。莫閑坐地。

○師聞鳩子叫。問僧甚麼聲。曰鳩子聲。師曰。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上堂。此日英賢共會。海會同臻。諒惟佛法之趣。無不備矣。若是英鑒之者。不須待言也。然言之本無。何以默矣。是以森羅萬象。諸佛洪源。顯明則海印光澄。冥昧則情迷自惑。苟非通心上士。逸格高人。則何以於諸塵中。發揚妙極。卷舒物象。縱奪森

羅。示生非生。應滅非滅。生滅洞已。乃曰真常。言假則影散千途。論真則一空絕迹。豈可以有無生滅而計之者哉。

崇壽契稠禪師

上堂。僧問。四眾諦觀第一義。如何是第一義。師曰。何勞更問。乃曰。大眾。欲知佛性義。當觀時節因緣。作麼生是時節因緣。上座。如今便散去。且道有也未。若無。因甚麼便散去。若有。作麼生是第一義。上座。第一義現成。何勞更觀。恁麼顯明得。佛性常照。一切法常住。若見有法常住。猶未是法之真源。作麼生是法之真源。上座。不見古人道。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還有一法為意解麼。古人有如是大事因緣。依而行之即是。何勞長老多說。眾中有未知者。便請相示。

○問如何是佛。師曰。如何是佛。曰如何領解。師曰。領解即不是。

報恩法安禪師

初住曹山。上堂。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諸上座。且作麼生會不作方便。又無漸次。古人意在甚麼處。若會得。諸佛常現前。若未會。莫向圓覺經裡討。夫佛法。亘古亘今。未嘗不現前。諸上座。一切時中咸承此威光。須具大信根。荷擔得起始得。不見佛讚猛利底人。堪為器用。亦不賞他向善久修淨業者。要似他廣額兇屠。拋下操刀。便證阿羅漢果。直須恁麼始得。所以長者道。如將梵位。直授凡庸。

雲居清錫禪師

僧問。如何是雲居境。師曰。汝喚甚麼作境。曰如何是境中人。師曰。適來向汝道甚麼。

正勤希奉禪師

上堂。古聖道圓同太虛。無欠無餘。又道一一法。一一宗。眾多法。一法宗。又道起唯法起。滅唯法滅。又道起時不言我起。滅時不言我滅。據此說話。屈滯久在叢林上座。若是初心兄弟。且須體道。人身難得。正法難聞。莫同等閒。施主衣食。不易消遣。若不明道個個盡須還它。上座。要會道麼。珍重。

○僧問。古人有言。山河大地。是汝真善知識。如何得山河大地為善知識去。師曰。汝喚甚麼作山河大地。

羅漢智依禪師

上堂。盡十方世界無一微塵許法與汝作見聞覺知。還信麼。然雖如此。也須悟始得。莫將為等閒。不見道單明自己。不悟目前。此人祇具一隻眼。還會麼。僧問。纖塵不立。為甚麼。好醜現前。師曰。分明記取。別處問人。

章義道欽禪師

初住棲賢。上堂。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則神。我尋常示汝。何不向衣鉢下坐地。直下參取。須要上來討個甚麼。既上來。我即事不獲已。便舉古德少許方便。抖擻些子龜毛兔角。解落向汝。諸上座。欲得省要。僧堂裡。三門下。寮舍裡。參取好。還有會處也未。若有會處。試說看。與上座證明。僧問如何是棲賢境。師曰。棲賢有甚麼境。

○江南國主。請居章義道場。上堂。總來這裡立作甚麼。善知識如河沙數。常與汝為伴。行住坐臥。不相捨離。但長連牀上穩坐地。十方善知識自來參上座。何不信取。作得如許多難易。他古聖嗟見今時人不奈何。乃曰。傷夫。人情之惑久矣。目對真而不覺。此乃

嗟汝諸人。看却不知。且道看却甚麼不知。何不體察古人方便。祇為信之不及。致得如此。諸上座。但於佛法中留心。無不得者。無事體道去。便下座。

報恩匡逸禪師

江南國主請居上院。上堂。顧視大眾曰。依而行之。即無累矣。還信麼。如太陽赫弈皎然地。更莫思量。思量不及。設爾思量得及。喚作分限智慧。不見先德云。人無心合道。道無心合人。人道既合。是名無事人。且自何是凡。自何是聖。於此若未會。可謂為迷情所覆。便去離不得。迷時即有窒礙。為對為待種種不同。忽然省去。亦無所得。譬如演若達多。認影迷頭。豈不擔頭覓頭。然正迷之時。頭且不失。及乎悟去亦不為得。何以故。人迷謂之失。人悟謂之得得失在於人。何關於動靜。

報慈文遂導師

嘗究首楞嚴。甄會真妄緣起。本末精博。於是節科注釋。文句交絡。厥功既就。謁于法眼。述己所業。深符經旨。眼曰。楞嚴豈不是有八還義。師曰。是。曰明還甚麼。師曰。明還日輪。曰日還甚麼。師懵然無對。眼誠令焚其所注之文。師自此服膺請益。始忘知解。

○金陵國主。署雷音覺海大導師。問僧從甚麼處來。曰曹山來。師曰。幾程到此。曰七程。師曰。行却許多山林溪澗。何者是汝自己。曰總是。師曰。眾生顛倒。認物為己。曰如何是學人自己。師曰。總是乃曰諸上座。各在此經冬過夏。還有人悟自己也無。山僧與汝證明。令汝真見。不被邪魔所惑。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好箇師僧眼。目甚分明。

羅漢守仁禪師

僧眾晚參。師曰。物物本來無處所。一輪明月印心池。便歸方丈。

○住報恩上堂。報恩這裡。不曾與人揀話。今日與諸上座。揀一兩則話。還願樂麼。諸上座。鶴脰長。鳧脰短。甘草甜。黃檗苦。恁麼揀擇。還愜雅意麼。諸上座。莫是血脉不通。泥水有隔麼。且莫錯會。珍重。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喚甚麼作西來意。曰恁麼則無西來也。師曰。由汝口頭道。

黃山良匡禪師

僧問。明鏡當臺。森羅為甚麼不現。師曰。那裏當臺。曰爭奈即今何。師曰。又道不現。

報恩玄則禪師

【頌】初問青峯。如何是學人自己。峯曰。丙丁童子來求火。後謁法眼。眼問甚處來。師曰青峯。眼曰。青峯有何言句。師舉前話。眼曰。上座作麼生會。師曰。丙丁屬火而更求火。如將自己求自己。眼曰與麼會。又爭得。師曰。某甲祇與麼未審和尚如何。眼曰。你問我。我與你道師問如何是學人自己。眼曰。丙丁童子來求火。師於言下頓悟。

○開堂日。李王與法眼俱在會。僧問。龍吟霧起。虎嘯風生。學人知是出世邊事。到此為甚麼不會。師曰。會取好。僧舉頭看師。及看法眼。乃抽身入眾。法眼與李王當時失色。眼歸方丈。令侍者喚問話僧至。眼曰。上座。適來問底話。許你具眼。人天眾前。何不禮拜蓋覆却。眼撼一坐具。其僧三日後。吐光而終。

○上堂。諸上座。盡有常圓之月。各懷真價之珍。所以月在雲中。雖明而不照。智隱惑內。雖真而不通。無事久立。

○僧問。如何是不動尊。師曰。飛飛颺颺。

淨德智筠禪師

上堂。從上諸聖。方便門不少。大抵祇要諸仁者有個見處。然雖未見。且不參差一絲髮許。諸仁者亦未嘗違背一絲髮許。何以故。烜赫地顯露。如今便會取。更不費一毫氣力。還省要麼。說道毗盧有師法身有主。斯乃抑揚。對機施設。諸仁者。作麼生會對底道理。若也會。且莫嫌他佛語。莫重祖師。直下是自己眼明始得。

○上堂。夫欲慕道。也須上上根器始得。造次中下不易承當。何以故。佛法非心意識境界。上座。莫恁麼懣揆地。他古人道沙門眼把定世界。函蓋乾坤。綿綿不漏絲髮。所以諸佛讚歎。讚歎不及。比喻比喻不及。道上座威光赫奕。亘古亘今。幸有如是家風。何不紹續取。為甚麼自生卑劣。枉受辛勤。不能曉悟。祇為如此。所以諸佛出興於世。祇為如此。所以諸佛唱入涅槃。祇為如此。所以祖師特地西來。

高麗國慧炬國師

一日國主請入王府。上堂。師指威鳳樓示眾曰。威鳳樓為諸上座舉揚了也。還會麼。儻若會。且作麼生會。若道不會。威鳳樓作麼生不會。珍重。

寶塔紹巖禪師

吳越王。命師開法。上堂。山僧素寡知見。本期閑放。念經待死。豈謂今日大王勤重。苦勉山僧。效諸方宿德。施張法筵。然大王致請也。祇圖諸仁者明心。此外別無道理。諸仁者還明心也未。莫不是語言談笑時。凝然杜默時。參尋知識時。道伴商略時。觀山翫水時。耳目絕對時。是汝心否。如上所解。盡為魔魅所攝。豈曰明

心。更有一類人。離身中妄想外。別認徧十方世界。含日月。包太虛。謂是本來真心。斯亦外道所計。非明心也。諸仁者。要會麼。心無是者。亦是不是者。汝擬執認其可得乎。

般若敬遵禪師

僧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銜花。師曰。汝甚麼處見。曰見後為甚麼不銜花。師曰。且領話好。

○師自述真讚曰真兮寥廓。郢人圖騰。嶽聳雲空。碧潭月躍。

歸宗策真禪師

初名慧超。謁法眼。問曰。慧超咨和尚。如何是佛。眼曰。汝是慧超。師從此悟入。

○上堂。諸上座。見聞覺知。祇可一度。祇如會了。是見聞覺知。不是見聞覺知。要會麼。與諸上座說破了也。待汝悟始得。久立珍重。

棲賢圓禪師

上堂。出得僧堂門見五老峰。一生參學事畢。何用更到這裡來。雖然如此。也勞上座一轉了也。珍重。

新興齊禪師

僧問。如何得出三界去。師曰。汝還信麼。曰信則深信。乞和尚慈悲。師曰。祇此信心。亘古亘今。快須究取。何必沉吟。要出三界。三界唯心。

○師因雪謂眾曰。諸上座。還見雪麼。見即有眼。不見無眼。有眼即常無眼即斷。恁麼會得。佛身充滿。僧辭。去泐潭。乞和尚示個

入路師曰。好個入路。道心堅固隨眾參請。隨眾作務。要去便去。要住便住。去之與住。更無它故。若到泐潭。不審馬祖。

古賢謹禪師

侍立法眼次。眼問一僧曰。自離此間甚麼處去來。曰入嶺來。眼曰不易。曰盧涉它如許多山水。眼曰如許多山水也不惡。其僧無語。師於此有省。

興福可勳禪師

僧問。何云法空。師曰不空。有偈示眾曰。秋江烟島晴。鷗鷺行行立。不念觀世音。爭知普門入。

永明延壽禪師

初住雪竇。上堂。雪竇這裡迅瀑。千尋不停纖粟。奇巖萬仞。無立足處。汝等諸人。向甚麼處進步。僧問。雪竇一徑。如何履踐。師曰。步步寒花結。言言徹底冰。師有偈曰。孤猿叫落中巖月。野客吟殘半夜燈。此境此時誰得意。白雲深處坐禪僧。忠懿王請開山靈隱新寺。明年遷永明大道場。眾盈二千。

【頌】僧問。如何是永明妙旨。師曰。更添香著。曰謝師指示。師曰。且喜沒交涉。僧禮拜。師曰。聽取一偈。欲識永明旨。門前一湖水。日照光明生。風來波浪起。

○問學人久在永明。為甚麼不會永明家風。師曰。不會處會取。曰不會處如何會。師曰。牛胎生象子。碧海起紅塵。

○問成佛成祖亦出不得。六道輪迴亦出不得。未審出甚麼處不得。師曰。出汝問處不得。

○問如何是大圓鏡。師曰。破沙盆。

○師居永明十五載。度弟子一千七百人。開寶七年入天台山度戒。約萬餘人。常與七眾授菩薩戒。夜施鬼神食。朝放諸生類。不可稱算。六時散花行道。餘力念法華經。計萬三千部。著宗鏡錄一百卷。詩偈賦詠。凡千萬言。播于海外。

五雲志逢禪師

通貫三學。了達性相。嘗夢陞須彌山。覩三佛列坐。初釋迦。次彌勒。皆禮其足。唯不識第三尊。但仰視而已。釋尊謂之曰。此是補彌勒處。師子月佛師方作禮。覺後因閱大藏經。乃符所夢。

○遊方。抵天台雲居。參國師。賓主緣契。頓發玄秘。一日入普賢殿中宴坐。倏有一神人跪膝于前。師問。汝其誰乎。曰護戒神也。師曰。吾患有宿愆未殄。汝知之乎。曰師有何罪。唯一小過耳。師曰何也。曰凡折鉢水亦施主物。師每傾棄。非所宜也。言訖而隱。師自此洗鉢水。盡飲之。積久因致脾疾。十載方愈。(凡折退飲食。及涕唾便利等。並宜鳴指。默念呪發施心而傾棄之)吳越國王嚮師道風。召賜紫衣。署普覺禪師。命住臨安功臣院。

○上堂。諸上座。捨一知識。參一知識。盡學善財南遊之式樣。且問上座。祇如善財禮辭文殊擬登妙峯。謁德雲比丘。及到彼所。何以德雲。却於別峯相見。夫教意祖意。同一方便。終無別理。彼若明得。此亦昭然。諸上座即今簇著老僧。是相見。是不相見。此處是妙峯是別峯。脫或從此省去。可謂不孤負老僧。亦常見德雲比丘。未嘗剎那相捨離。還信得及麼。

○上堂。古德為法行脚不憚勤勞。如雪峰三到投子。九上洞山。盤桓往返。尚求個人路不得。看汝近世參學人纔跨門來。便要老僧接引。指示說禪且汝欲造玄極之道。豈同等閒而況此事。亦有時節。

躁求焉得。汝等要知悟時麼。如今各且下去堂中靜坐。直待仰家峯點頭老僧即為汝說。時有僧出曰。仰家峯點頭也。請師說。師曰。大眾且道此僧會老僧語。不會老僧語。僧禮拜。師曰。今日偶然失鑒。

○有人問僧。無為無事人。為甚麼却有金鎖難。僧無對。師代云。祇為無為無事。

○僧問教中道。文殊忽起佛見法見被佛威神。攝向二鐵圍山意旨如何。師曰。甚麼處是二鐵圍山。僧無語。師曰。還會麼。如今若有人起佛法之見。吾與烹茶兩甌。且道賞伊。罰伊同教意。不同教意。

報恩永安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過這裏立。僧纔移步。師召曰會麼。曰不會。師曰。聽取一偈。汝問西來意。且過這邊立。昨夜三更時。雨打虛空濕。電影忽然明。不似蚰蜒急。

紫凝智勤禪師

僧問。如何是空手把鋤頭。師曰。但恁麼諦信。曰如何是步行騎水牛。師曰。汝自何來。

普門希辨禪師

上堂。山僧素乏知見復寡聞持。頃雖侍立於國師。不蒙一句開示。以致今日。與諸仁者聚會。更無一法可相助發。何況能。為諸仁者。區別緇素。商量古今。還恁得山僧麼。若有恁者。且道此人具眼。不具眼。有賓主義。無賓主義。晚學初機。必須審細。

○僧問。如何是普門示現神通事。師曰。恁麼則闍黎恠老僧去也。曰不恠時如何。師曰。汝且下堂裏思惟去。

光慶遇安禪師

僧問無價寶珠。請師分付。師曰。善能吐露。曰恁麼則人人具足去也。師曰。珠在甚麼處。僧禮拜。師曰。也是虛言。

○問提綱舉領。盡立賓主。如何是主。師曰。深委此問。曰如何是賓。師曰。適來向汝道甚麼。曰賓主道合時如何。師曰。其令不行。

○上堂。欲識曹谿旨。雲飛前面山。分明真實箇。不用別追攀。僧問古德有言。井底紅塵生。山頭波浪起。未審此意如何。師曰。若到諸方。但甚麼問。曰和尚意旨如何。師曰。適來向汝道甚麼。乃曰。古今相承皆云。塵生井底。浪起山頭。結子空花。生兒石女。且作麼生會。莫是和聲送事。就物呈心。句裏藏鋒。聲前全露麼。莫是有名無體。異唱玄譚麼。上座自會。即得古人意旨。即不然既恁麼會不得。合作麼生會。上座欲得會麼。但看泥牛行處陽燄翻波。木馬嘶時。空花墜影。聖凡如此道理。分明何須久立。珍重。

華嚴慧達禪師

僧問。如何是古佛心。師曰。山河大地。

○問如何是華嚴境。師曰。滿目無形影。

九曲慶祥禪師

【頌】僧問。險惡道中以何為津梁。曰以此為津梁。曰如何是此。師曰。築著汝鼻孔。

開化行明禪師

僧問。如何是開化門中流出方便師曰。日日潮音兩度聞。

瑞鹿遇安禪師

【頌】得法於天台。又常閱首楞嚴經。到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師乃破句讀曰。知見立 知即無明本 知見無 見斯即涅槃。於此有省。有人語師曰。破句了也。師曰。此是我悟處。畢生不易。時謂之安楞嚴。

龍華慧居禪師

開堂示眾曰。從上宗乘到這裡如何舉唱。祇如釋迦如來說一代時教如餅注水。古德尚云。猶如夢事寤語一般。且道據甚麼道理。便甚麼道還會麼。大施門開。何曾壅塞。生凡育聖。不漏纖塵。言凡則全凡。舉聖則全聖。凡聖不相待。個個獨稱尊。所以道。山河大地。長時說法。長時放光。地水火風。一一如是。時有僧出禮拜。師曰。好個問頭。如法問著。僧擬進前。師曰。又沒交涉也。

○上堂。龍華這裡也祇是拈柴擇菜。上來下去。晨朝一粥。齋時一飯。睡後喫茶。但恁麼參取。珍重。

齊雲遇臻禪師

僧問。圓明了知。為甚麼不因心念。師曰。圓明了知。曰何異心念。師曰。汝喚甚麼作心念。

○秋夕閑坐。偶成頌曰。秋庭肅肅風颺颺。寒星列空蟾魄高。拈頤靜坐神不勞。鳥窠無端吹布毛。

瑞鹿本先禪師

上堂。你諸人。還見竹林蘭若。山水院舍人眾麼。若道見則心外有法。若道不見。爭奈竹林蘭若山水院舍。人眾現在攢然地。還會恁麼告示麼。若會不妨靈利。無事莫立。

○上堂。大凡參學。未必學問話是參學。未必學揀話是參學。未必學代語是參學。未必學別語是參學。未必學捻破經論中奇特言語是參學。未必學捻破祖師奇特言語是參學。若於如是等參學。任你七通八達。於佛法中儻無見處。喚作乾慧之徒。豈不聞古德道。聰明不敵生死。乾慧豈免苦輪。諸人若也參學。應須真實參學始得。行時。行時參取。立時。立時參取。坐時。坐時參取。眠時。眠時參取。語時。語時。參取默時。默時參取。一切作務時。一切作務時參取。既向如是等時參。且道參個甚人。參個甚麼語。到這裡。須自有個明白處始得。若不如此。喚作造次之流。則無究了之旨。

○上堂。幽林鳥叫。碧澗魚跳。雲片展張。瀑聲嗚咽。你等還知得如是多景象。示你等個人處麼。若也知得。不妨參取好。

○上堂。你等諸人。夜間眠熟。不知一切。既不知一切。且問你等。那時有本來性。無本來性。若道那時有本來性。又不知一切。與死無異。若道那時無本來性。睡眠忽省。覺知如故。還會麼。不知一切。與死無異。睡眠忽省。覺知如故。如是等時。是個甚麼。若也不會。各體究取。無事莫立。

○上堂。諸法所生。唯心所現。如是言語。好個人底門戶。且問你等諸人。眼見一切色。耳聞一切聲。鼻嗅一切香。舌了一切味。身觸一切輒。滑意分別一切諸法。祇如眼耳鼻舌身意。所對之物。為復唯是你等心。為復非是你等心。若道唯是你等心。何不與你等身都作一塊了休。為甚麼所對之物。却在你等眼耳鼻舌身意外。你若道眼耳鼻舌身意所對之物。非是你等心。又爭奈諸法所生。唯心

所現。言語留在世間。何人不舉著。你等見這個說話。還會麼。若也不會。大家用心商量教會去。幸在其中。莫令厭學。無事且退。

○上堂。天台教中。說文殊觀音普賢三門。文殊門者。一切色。觀音門者。一切聲。普賢門者。不動步而到。我道文殊門者。不是一切色。觀音門者。不是一切聲。普賢門者。是個甚麼。莫道別却天台教說話。無事且退。

○上堂。舉僧問長沙。南泉遷化向甚麼處去。沙曰。東家作驢。西家作馬。僧曰。學人不會。沙曰。要騎便騎。要下即下。師曰。若是求出三界修行底人。聞這個言語。不妨狐疑。不妨驚怛。南泉遷化向甚處去。東家作驢。西家作馬。或有會云。千變萬化。不出真常。或有會云。須會異類中行。始會得這個言語。或有會云。東家是南泉。西家是南泉。或有會云。東家郎君子。西家郎君子。或有會云。東家是甚麼。西家是甚麼。或有會云。便作驢叫。又作馬嘶。或有會云。喚甚麼作東家驢。喚甚麼作西家馬。或有會云。既問遷化。答在問處。或有會云。作露柱處去也。或有會云。東家作驢西家作馬。虧南泉甚麼。如是諸家會也。總於佛法有安樂處。南泉遷化向甚處去。東家作驢。西家作馬。學人不會。要騎便騎。要下即下。這個話。不消得多道理而會。若見法界性去。也沒多事。珍重。

○上堂。鑑中形影。唯憑鑑光顯現。你等諸人。所作一切事。且道唯憑個甚麼顯現。還知得麼。若也知得。於參學中千足萬足。無事莫立。

興教洪壽禪師

同國師普請次。聞墮薪有省。作偈曰。撲落非他物。縱橫不是塵。山河及大地。全露法王身。

蘇州永安道原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咄。這旃陀羅。曰學人初機。乞師方便。師曰。汝問甚麼曰問佛。師曰咄。這旃陀羅(進景德傳燈錄)。

雲居道齊禪師

徧歷禪會。學心未息。

【頌】後於上藍院。主經藏。法燈一日謂師曰。有人問我西來意。答它曰。不東不西。藏主作麼生會。師對曰。不東不西。燈曰與麼會。又爭得。曰道齊祇恁麼。未審和尚尊意如何。燈曰。它家自有兒孫在。師於是頓明厥旨。有頌曰。接物利生絕妙。外生終是不肖。它家自有兒孫。將來用得恰好(頌古見清涼泰欽法燈章)。

秀州羅漢院願昭禪師

上堂。山河大地是真善知識。時常說法。時時度人。不妨諸上座參取。僧問羅漢家風。請師一句。師曰。嘉禾合穗。上國傳芳。曰此猶是嘉禾家風。如何是羅漢家風。師曰。或到諸方。分明舉似。

支提辯隆禪師

上堂。巍巍實相。磊塞虛空。金剛之體。無有破壞。大眾還見不見。若言見也。且實相之體。本無青黃赤白長短方圓。亦非見聞覺知之法。且作麼生作個見底道理。若言不見。又道巍巍實相。磊塞虛空。為甚麼不見。僧問。如何是向上一路。師曰。脚下底曰。恁麼則尋常履踐。師曰。莫錯認。

棲賢澄湜禪師

僧問。毗目仙人執善財手。見微塵諸佛。祇如未執手時。見個甚麼。師曰。如今又見個甚麼(聯殊有頌)。

千光環省禪師

精究律部。聽天台文句。棲心於圓頓止觀。後閱楞嚴。文理宏濬。未能洞曉。一夕誦經既久。

就案假寐。夢中見日輪。自空而降。開口吞之。自爾倏然發悟。差別義門。渙然無滯。後參永明。永明唯印前解。無別指喻。

崇福慶祥禪師

上堂。諸禪德。見性周徧。聞性亦然。洞徹十方。無內無外。所以古人道。隨緣無作動寂常真。如此施為。全真智用。

雲居義能禪師

上堂。不用上來。堂中僑陳如上座。為諸上座轉第一義法輪。還得麼。若信得及。各自歸堂參取。下座後。却問一僧。祇如山僧適來教上座參取聖僧聖僧還道個甚麼。僧曰。特謝和尚再舉。

○問如何是佛。師曰。即心是佛。曰學人不會。乞師方便。師曰。方便呼為佛。回光返照看。身心是何物。

歸宗慧誠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不知乃曰問話且住。直饒問到窮劫。問也不著。答到窮劫。答也不及。何以故。祇為諸人各有本分事。圓滿十方。亘古亘今。乃至諸佛。也不敢錯誤諸人。便謂之頂族。祇是助。發上座。所以道。十方法界諸有情。念念以證善逝

果。彼既丈夫我亦爾。何得自輕而退屈。諸上座。不要退屈信取便休。祖師西來。祇道見性成佛。其餘所說。不及此說。

瑞巖義海禪師

僧問。釋迦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未審如何示眾。師曰。汝不欲我開談曰未曉師機師曰且退。

○問如何是無位真人。師曰。這裡無安排你處。

靈隱玄本禪師

見僧看經。乃問看甚麼經。僧無語。乃示頌曰。看經不識經。徒勞損眼睛。欲得不損眼。分明識取經。

堯峯顯暹禪師

僧問。承教有言。是法平等。無有高下。如何是平等法。師曰。堯峯高。寶峯低。曰恁麼則成高下去也。師曰。情知汝恁麼會。

○聞雷聲示眾曰。還聞雷聲麼。還知起處麼。若知起處。便知身命落處。若也不知。所以古人道不知天地者。剛道有乾坤。不如喫茶去。

○僧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也。師曰蒼天蒼天。乃曰。祇如末後僧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也。山僧向它道蒼天蒼天。且道意落在甚麼處。莫是悲傷遷逝痛憶道人麼。若乃恁麼平論。實謂罔知去處。要知去處麼。更不用久立。歇去。

○上堂。冬去春來。樓閣門開。若也入得。不用徘徊。諸上座。還向這裡入得也未若也入得。所以古人道。是處是彌勒。無門無善財。若也入之未得。自是諸上座狂走。更不切切久立珍重。

聖壽昇禪師

上堂。若論佛法。更有甚麼事。所以道古今山河。古今日月。古今人倫。古今城郭。喚作平等法門。絕前後際。諸人還信得及麼。若信得及。依而行之。久立珍重。

興教惟一禪師

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曰。白雲數重。曰出世後如何。師曰。青山一朵。

西余體柔禪師

上堂。一人把火。自燼其身。一人抱冰橫屍於路。進前則觸途成滯。退後則噎氣填胸。直得上天無路。入地無門。如今已不奈何也。良久曰。待得雪消去。自然春到來。

定山惟素山主

僧問達磨心印。師已曉。試舉家風對眾看。師曰。門前有個長松樹。夜半子規來上啼。

○問如何是定山境。師曰。清風滿院。曰忽遇客來。如何祇待。師曰。莫嫌冷淡。乃曰。若論家風與境。不易酬對。多見指定處所教它不得自在。曾有僧問大隨。如何是和尚家風。隨曰。赤土畫簸箕。又曰肚上不貼榜。且問諸人作麼生會。更有夾山雲門。臨濟風穴皆有此話。播于諸方。各各施設不同。又作麼生會。法無異轍。殊途同歸。若要省力易會。但識取自家桑梓。便能紹得家業。隨處解脫應用現前。天地同根。萬物一體。喚作衲僧眼睛。綿綿不漏絲髮。苟或於此不明。徒自矜嶮辛苦。

淨土惟正禪師

有問曰。師以禪師名。乃不談禪何也。師曰。徒費言語。吾懶。寧假曲折。但日夜煩萬象為敷演耳。言語有間而此法無盡。所謂造物無盡藏也。

靈隱延珊禪師

上堂。與上座一線道。且作麼生持論。佛法。若也水洩不通。便教上座無安身立命處。當此之時。祖佛出頭來。也有二十棒分。恁麼道。山僧還有過也無。不見世尊生下。周行七步。目顧四方。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惟吾獨尊。雲門。云我當初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何以如此貴圖天下大平。且道雲門恁麼說話。有佛法道理也無。雖然如此雲門祇具一隻眼。久立珍重。

(會元十卷終)

禪宗正脉卷第五

音釋

警效(輕上聲下音慨) 穗(遂) 晷(癸) 齧(孽音噬也) 鏃(促音矢鏃) 芟
(衫) 偵(稱音游偵又問) 爐(盧音韓獺犬也) 瓠(互音匏也) 舶(白音海中大
船) 鞮(丑忍切大笑貞) 鄮(茂) 窘(巨隕切迫也) 毳(吹去聲) 迄(黑
乙) 覩(趣) 剩(盛) 嶷(逆) 懷揆(滅屑) 臑(烏郭) 譚(談同) 寐
(詣) 搯頤(支夷) 湜(寔) 濬(峻音深也) 燼(辛去聲)

禪宗正脉卷第六

南嶽臨濟宗

臨濟義玄禪師

【頌】初在黃檗會中。行業純一。時睦州為第一座。乃問。上座在此多少時。師曰三年。州曰。曾參問否。師曰。不曾參問。不知問箇甚麼。州曰。何不問堂頭和尚。如何是佛法的的大意。師便去問。聲未絕。檗便打。師下來。州曰。問話作麼生。師曰。某甲問聲未絕。和尚便打。某甲不會。州曰。但更去問。師又問。檗又打。如是三度問。三度被打。師白州曰。早承激勸問法。累蒙和尚賜棒。自恨障緣。不領深旨。今且辭去。州云。汝若去。須辭和尚了去。師禮拜退。州先到黃檗處曰。問話上座。雖是後生。却甚奇特。若來辭。方便接伊。已後為一株大樹。覆蔭天下人去在。師來日辭黃檗。檗曰。不須他去。祇往高安灘頭。參大愚。必為汝說。師到大愚。愚曰。甚處來。師曰。黃檗來。愚曰。黃檗有何言句。師曰。某甲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被打。不知某甲有過無過。愚曰。黃檗與麼老婆心切。為汝得徹困。更來這裏問有過無過。師於言下大悟。乃曰。元來黃檗佛法無多子。愚擲住曰。這尿牀鬼子。適來道有過無過。如今却道黃檗佛法無多子。你見箇甚麼道理。速道速道。師於大愚肋下築三拳。愚拓開曰。汝師黃檗。非干我事。師辭大愚。却回黃檗。檗見便問。這漢來來去去。有甚了期。師曰。祇為老婆心切。便人事了。侍立。檗問。甚處去來。師曰。昨蒙和尚慈旨。令參大愚去來。檗曰。大愚有何言句。師舉前話。檗曰。大愚老漢饒舌。待來痛與一頓。師曰。說甚待來。即今便打。隨後便掌。檗曰。這風顛漢。來這裏捋虎鬚。師便喝。檗喚侍者曰。引這風顛漢。參堂去(為山舉問仰山。臨濟當時得大愚力。得黃檗力。仰云。非但騎虎頭。亦解把虎尾)。

【頌】師普請鉏地次。見黃檗來。拄鑊而立。檗曰。這漢困那。師曰。鑊也未舉。困箇甚麼。檗便打。師接住棒一送送倒。檗呼維那。扶我起來。維那扶起曰。和尚爭容得這風顛漢無禮。檗纔起。便打維那。師鑊地曰。諸方火葬。我這裏活埋(滄山問仰山。黃檗打維那意作麼生。仰云。正賊走却。邏賊人喫棒)。

○師一日在僧堂裏睡。檗入常見。以拄杖打板頭一下。師舉首見是檗。却又睡。檗又打板頭一下。却往上間。見首座坐禪。乃曰。下間後生却坐禪。汝在這裏妄想作麼。座曰。這老漢作甚麼。檗又打板頭一下。便出去(滄山舉問仰山。祇如黃檗意作麼生。仰云。兩彩一賽)。

【頌】師栽松次。檗曰。深山裏。栽許多松作甚麼。師曰。一與山門作境致。二與後人作標榜。道了將鑊頭[祝/土]地三下。檗曰。雖然如是。子也喫吾三十棒了也。師又[祝/土]地三下。噓一噓。檗曰。吾宗到汝。大興于此(滄山舉問仰山。黃檗當時祇囑臨濟一人。更有人在。仰云有。祇是年代深遠。不欲舉似和尚。滄云。雖然如是。吾亦要知。汝但舉看。仰云。一人指南。吳越令行。遇大風即止)。

○黃檗因入厨下。問飯頭作甚麼。頭曰。揀眾僧飯米。檗曰。一頓喫多少。頭曰。二石五。檗曰。莫太多麼。頭曰。猶恐少在。檗便打。頭舉似師。師曰。我與汝勘這老漢。纔到侍立。檗舉前話。師曰。飯頭不會。請和尚代一轉語。檗曰。汝但舉。師曰。莫太多麼。檗曰。來日更喫一頓。師曰。說甚麼來日。即今便喫。隨後打一掌。檗曰。這風顛漢。又來這裏捋虎鬚。師喝一喝便出去(滄山舉問仰山。此二尊宿。意作麼生。仰山云。和尚作麼生。滄山云。養子方知父慈。仰山云。不然。滄山云。子又作麼生。仰山云。大似勾賊破家)。

○師辭黃檗。檗曰。甚處去。師曰。不是河南。便歸河北。檗便打。師約住與一掌。檗大笑。乃喚侍者。將百丈先師。禪板几案

來。師曰。侍者將火來。檠曰不然。子但將去。已後坐斷天下人舌頭去在。

○師為黃檗馳書至滄山。與仰山語次。仰曰。老兄向後北去有箇住處。師曰。豈有與麼事。仰曰但去。已後有一人佐輔汝。此人祇是有頭無尾。有始無終(懸記普化)。

○師後住鎮州臨濟學侶雲集。一日謂普化克符二上座曰。我欲於此建立黃檗宗旨。汝且成禡我。二人珍重下去。三日後普化却上來問。和尚三日前說甚麼。師便打。三日後克符上來問。和尚前日打普化作甚麼。師亦打。至晚小參曰。有時奪人不奪境。有時奪境不奪人。有時人境兩俱奪。有時人境俱不奪(問答語具在克符章)。

○僧問。如何是真佛真法真道。乞師開示。師曰。佛者心清淨是。法者心光明是。道者處處無礙淨光是。三即一。皆是空名而無實有。如真正作道人。念念心不間斷。自達磨大師從西土來。祇是覓箇不受人惑底人。後遇二祖。一言便了。始知從前虛用工夫。山僧今日見處。與祖佛不別。若第一句中薦得。堪與祖佛為師。若第二句中薦得。堪與人天為師。若第三句中薦得。自救不了。僧便問。如何是第一句。師曰。三要印開朱點窄。未容擬議主賓分。曰如何是第二句。師曰。妙解豈容無著問。漚和爭負截流機。曰如何是第三句。師曰。但看棚頭弄傀儡抽牽全。藉裏頭人。乃曰。大凡演唱宗乘。一句中須具三玄門。一玄門須具三要。有權有實。有照有用。汝等諸人。作麼生會。師謂僧曰。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師子。有時一喝如探竿影草。有時一喝不作一喝用。汝作麼生會。僧擬議。師便喝。

○示眾。參學之人。大須子細。如賓主相見。便有言論往來。或應物現形。或全體作用。或機權喜怒。或現半身。或乘師子。或乘象王。如有真正學人便喝。先拈出一箇膠盆子。善知識不辨是境。便

上他境上。作模作樣。便被學人又喝。前人不肯放下。此是膏肓之病。不堪醫治。喚作賓看主。或是善知識不拈出物。祇隨學人問處即奪。學人被奪。抵死不肯放。此是主看賓。或有學人。應一箇清淨境。出善知識前。知識辨得是境。把得拋向坑裏。學人言大好善知識。知識即云咄哉。不識好惡。學人便禮拜。此喚作主看主。或有學人。披枷帶鎖。出善知識前。知識更與安一種枷鎖。學人歡喜。彼此不辨。喚作賓看賓。大德。山僧所舉。皆是辨魔揀異。知其邪正。

○師問洛浦。從上來一人行棒。一人行喝。阿那箇親。曰總不親。師曰。親處作麼生。浦便喝。師乃打。

【頌】上堂。有一人論劫在途中。不離家舍。有一人離家舍。不在途中。那箇合受人天供養。

【頌】師問院主。甚處去來。曰州中糶黃米來。師曰。糶得盡麼。主曰。糶得盡。師以拄杖畫一畫曰。還糶得這箇麼。主便喝。師便打。典座至。師舉前話。座曰。院主不會和尚意。師曰。你又作麼生。座禮拜。師亦打。

○上堂。一人在孤峯頂上。無出身路。一人在十字街頭。亦無向背。且道那箇在前。那箇在後。不作維摩詰。不作傅大士。珍重。

○有一老宿參。便問。禮拜即是。不禮拜即是。師便喝。宿便拜。師曰。好箇草賊。宿曰。賊賊。便出去。師曰。莫道無事好。時首座侍立。師曰。還有過也無。座曰有。師曰。賓家有過。主家有過。曰二俱有過。師曰。過在甚麼處。座便出去。師曰。莫道無事好(南泉闡云。官馬相踏)。

【頌】師到京行化。至一家門首曰。家常添鉢。有婆曰。太無厭生。師曰。飯也未曾得。何言太無厭生。婆便閉却門。

【頌】師陞堂。有僧出。師便喝。僧亦喝。便禮拜。師便打。

【頌】趙州遊方。到院。在後架洗脚次。師便問。如何是祖師西來意。州曰。恰遇山僧洗脚。師近前作聽勢。州曰。會即便會。啗啄作甚麼。師便歸方丈。州曰。三十年行脚。今日錯為人下註脚。

○師應機。多用喝。會下參徒。亦學師喝。師曰。汝等總學我喝。我今問汝。有一人從東堂出。一人從西堂出。兩人齊喝一聲。這裏分得賓主麼。汝且作麼生分。若分不得。已後不得學老僧喝。

○示眾。我有時先照後用。有時先用後照。有時照用同時。有時照用不同時。先照後用有人在。先用後照有法在。照用同時。驅耕夫之牛。奪飢人之食。敲骨取髓。痛下針錐。照用不同時。有問有答。立賓立主。合水和泥。應機接物。若是過量人。向未舉已前。撩起便行。猶較些子。

○師行脚時。到龍光。值上堂。師出問。不展鋒鋌。如何得勝。光據坐。師曰。大善知識。豈無方便。光瞪目曰。噯。師以手指曰。這老漢今日敗闕也。

○次到三峯平和尚處。平問甚處來。師曰。黃檗來。平曰。黃檗有何言句。師曰。金牛昨夜遭塗炭。直至如今不見蹤。平曰。金風吹玉管。那箇是知音。師曰。直透萬重關。不住青霄內。平曰。子這一問太高生。師曰。龍生金鳳子。衝破碧瑠璃。平曰。且坐喫茶。又問。近離甚處。師曰龍光。平曰。龍光近日如何。師便出去。

○麻谷問。十二面觀音。那箇是正面。師下禪牀擒住曰。十二面觀音甚處去也。速道速道。谷轉身擬坐。師便打。谷接住棒。相捉歸方丈。

○上堂。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豎起拂子。僧便喝。師便打。又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亦豎拂子。僧便喝。師亦喝。僧擬議。師便打。乃曰。大眾。夫為法者。不避喪身失命。我於黃檗先師處。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被打。如蒿枝拂相似。如今更思一頓。誰為下手。時有僧出曰。某甲下手。師度與拄杖。僧擬接。師便打。

【頌】同普化赴施主齋次。師問。毛吞巨海。芥納須彌。為復是神通妙用。為復是法爾如然。化趨倒飯牀。師曰。太羸生。曰這裏是甚麼所在。說羸說細。次日又同赴齋。師復問。今日供養何似昨日。化又趨倒飯牀。師曰。得即得。太羸生。化喝曰。瞎漢。佛法說甚麼羸細。師乃吐舌。

【頌】師與王常侍到僧堂。王問。這一堂僧。還看經麼。師曰。不看經。曰還習禪麼。師曰。不習禪。曰既不看經。又不習禪。畢竟作箇甚麼。師曰。總教伊成佛作祖去。曰金屬雖貴。落眼成翳。師曰。我將謂你是箇俗漢。

【頌】師上堂次。兩堂首座相見。同時下喝。僧問師。還有賓主也無。師曰。賓主歷然。師召眾曰。要會臨濟賓主句。問取堂中二首座。

【頌】咸通八年丁亥。師將示滅。說傳法偈曰。沿流不止問如何。真照無邊說似他。離相離名人不稟。吹毛用了急須磨。復謂眾曰。吾滅後不得滅却吾正法眼藏。三聖出曰。爭敢滅却和尚正法眼藏。師曰。已後有人問你。向它道甚麼。聖便喝。師曰。誰知吾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

興化存獎禪師

【頌】在三聖會裏為首座。常曰。我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人。三聖聞得。問曰。你具箇甚麼眼。便恁麼道。師便喝。聖曰。須是你始得。後大覺聞舉。遂曰。作麼生得風吹到大覺門裏來。師後到大覺為院主。一日覺喚院主。我聞你道。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你憑箇甚麼道理。與麼道。師便喝。覺便打。師又喝。覺又打。師來日從法堂過。覺召院主。我直下疑你昨日這兩喝。師又喝。覺又打。師再喝。覺又打。師曰。某甲於三聖師兄處。學得箇賓主句。總被師兄折倒了也。願與某甲箇安樂法門。覺曰。這瞎漢。來這裏納敗闕。脫下衲衣痛打一頓。師於言下薦得臨濟先師於黃檗處喫棒底道理。師後開堂日。拈香曰。此一炷香。本為三聖師兄。三聖與我太孤。本為大覺師兄。大覺與我太賒。不如供養臨濟先師。

【頌】僧問。四方八面來時如何。師曰。打中間底。僧便禮拜。師曰。昨日赴箇村齋。中途遇一陣卒風暴雨。却向古廟裏躲避得過。

【頌】問僧。甚處來。曰崔禪處來。師曰。將得崔禪喝來否。曰不將得來。師曰。恁麼則不從崔禪處來。僧便喝。師便打。

【頌】示眾。我聞前廊下也喝。後架裏也喝。諸子汝莫盲喝亂喝。直饒喝得興化向虛空裏。却撲下來。一點氣也無。待我蘇息起來。向汝道未在。何故。我未曾向紫羅帳裏撒真珠。與汝諸人去在。胡喝亂喝作麼。

【頌】雲居住三峯時。師問。權借一問以為影草時如何。居無對。師云。想和尚答這話不得。不如禮拜了退。二十年後。居云。如今思量。當時不消道箇何必。後遣化主到師處。師問。和尚住三峯庵時。老僧問伊話。對不得。如今道得也未。主舉前話。師云。雲居二十年。祇道得箇何必。興化即不然。爭如道箇不必。

【頌】師謂克賓維那曰。汝不久為唱導之師。賓曰。不入這保社。師曰。會了不入。不會了不入。曰總不與麼。師便打曰。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設饘飯一堂。次日師自白椎曰。克賓維那。法戰不勝。不得喫飯。即便出院。

【頌】師見同參來。纔上法堂。師便喝。僧亦喝。師又喝。僧亦喝。師近前拈棒。僧又喝。師曰。你看這瞎漢。猶作主在。僧擬議。師直打下法堂。侍者請問。適來那僧。有甚觸忤和尚。師曰。它適來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及乎我將手向伊面前橫兩橫。到這裏却去不得。似這般瞎漢。不打更待何時。僧禮拜。

【頌】後唐莊宗。車駕幸河北。回至魏府行宮。詔師問曰。朕取中原。獲得一寶。未曾有人酬價。師曰。請陛下寶看。帝以兩手舒幘頭脚。師曰。君王之寶。誰敢酬價(玄覺徵云。且道興化肯莊宗。不肯莊宗。若肯莊宗。興化眼在甚麼處。若不肯莊宗。過在甚麼處)。

寶壽沼禪師(第一世)

【頌】僧問。萬境來侵時如何。師曰。莫管他。僧禮拜。師曰。不要動著。動著即打折汝腰。

【頌】師在方丈坐。因僧問訊次。師曰。百千諸聖。盡不出此方丈內。曰祇如古人道。大千沙界海中漚。未審此方丈向甚麼處來。師曰。千聖現在世。阿誰證明。師便擲下拂子。僧從西過東立。師便打。僧曰。若不久參。焉知端的。師曰。三十年後。此話大行。

【頌】趙州來。師在禪牀。背面而坐。州展坐具禮拜。師起入方丈。州收坐具而出。

【頌】師問僧。甚處來。曰西山來。師曰。見獼猴麼。曰見。師曰。作甚麼伎倆。曰見甚麼一箇伎倆也作不得。師便打。

【頌】胡釘鉸參。師問。汝莫是胡釘鉸麼。曰不敢。師曰。還釘得虛空麼。曰請和尚打破。師便打。胡曰。和尚莫錯打某甲。師曰。向後有多口阿師。與你點破在。胡後到趙州。舉前話。州曰。汝因甚麼。被他打。胡曰。不知過在甚麼處。州曰。祇這一縫。尚不奈何。胡於此有省。趙州曰。且釘這一縫。

三聖慧然禪師

【評】【頌】至仰山。山問。汝名甚麼。師曰。慧寂。山曰。慧寂是我名。師曰。我名慧然。山大笑而已。

○仰山因有官人相訪。山問。官居何位。曰推官。山豎起拂子曰還推得這箇麼。官人無對。山令眾下語。皆不契。時師不安。在涅槃堂內將息。山令侍者去請下語。師曰。但道和尚今日有事山又令侍者問。未審有甚麼事。師曰。再犯不容。

【頌】師到德山。纔展坐具。山曰。莫展炊巾。這裏無殘羹餽飯。師曰。總有也無著處。山便打。師接住棒。推向禪牀上。山大笑。師哭蒼天。便下參堂。堂中首座號踢天泰。問行脚高士。須得本道公驗。作麼生是本道公驗。師曰。道甚麼。座再問。師打一坐具曰。這漆桶。前後觸忤多少賢良。座擬人事。師便過第二座人事。

【頌】住後上堂。我逢人則出。出則不為人。便下座(興化云。我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臭肉來蠅(興化云。破驢脊上足蒼蠅)。

○問僧。近離甚處。僧便喝。師亦喝。僧又喝。師又喝。僧曰。行棒即瞎。便喝。師拈棒。僧乃轉身作受棒勢。師曰。下坡不走。快

便難逢。便棒。僧曰這賊。便出去。師遂拋下棒。次有僧問。適來爭容得這僧。師曰。是伊見先師來。

魏府大覺和尚

參臨濟。濟纔見。豎起拂子。師展坐具。濟擲下拂子。師收坐具參堂去。時僧眾曰。此僧莫是和尚親故。不禮拜。又不喫棒。濟聞說。令侍者喚適來新到上來。師隨侍者到方丈。濟曰。大眾道。汝來參長老。又不禮拜又不喫棒。莫是老僧親故。師乃珍重下去。

【頌】師住後。僧問。如何是本來身。師曰。頭枕衡山脚踏北嶽。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良馬不窺鞭。側耳知人意。

○問如何是大覺。師曰惡覺。曰乖極。師便打。

灌谿志閑禪師

【頌】幼從柏巖。後見臨濟。濟驀胷搗住。師曰領領。濟拓開曰。且放汝一頓。

○師離臨濟。至末山(語見末山)。

○住後上堂。我在臨濟爺爺處得半杓。末山孃孃處得半杓。共成一杓。喫了。如今飽不饑。

【頌】僧問。久嚮灌谿。到來祇見漚麻池。師曰。汝祇見漚麻池。且不見灌谿。曰如何是灌谿。師曰。劈箭急。

○上堂。十方無壁落。四畔亦無門。露裸裸。赤灑灑。無可把。便下座。

○僧問。如何是一色。師曰不隨。曰一色後如何。師曰。有闍黎承當分也無。

紙衣和尚(即克符也)

初問臨濟。如何是奪人不奪境。濟曰。煦日發生鋪地錦。嬰兒垂髮白如絲。師曰。如何是奪境不奪人。濟曰。王令已行天下徧。將軍塞外絕煙塵。師曰。如何是人境俱奪。濟曰。并分絕信。獨處一方。師曰。如何是人境俱不奪。濟曰。王登寶殿。野老謳歌。師於言下領旨。有頌曰。(其一)奪人不奪境。緣自帶譎訛。擬欲求玄旨。思量反責麼。驪珠光燦爛。蟾桂影婆娑。覲面無差互。還應滯網羅。(其二)奪境不奪人。尋言何處真。問禪禪是妄。究理理非親。日照寒光澹。山搖翠色新。直饒玄會得。也是眼中塵。(其三)人境兩俱奪。從來正令行。不論佛與祖。那說聖凡情。擬把吹毛劍。還如值木盲。進前求妙會。特地斬精靈(其四)人境俱不奪。思量意不偏。主賓言少異。問答理俱全。踏破澄潭月。穿開碧落天。不能明妙用。淪溺在無緣。

○僧問。如何是賓中賓。師曰。倚門傍戶猶如醉。出言吐語不慚惶。曰如何是賓中主。師曰。口念彌陀雙拄杖。目瞽瞳人不出頭。曰如何是主中賓。師曰。高提祖印當機用。利物應知語帶悲。曰如何是主中主。師曰橫按鎊錙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曰既是太平寰宇。為甚麼却斬癡頑。師曰。不許夜行剛把火。直須當道與人看。

定州善崔禪師

【頌】州將王令公。於衙署張座。請師說法。師陞座拈拄杖曰。出來也打。不出來也打。僧出曰。崔禪響。師擲下拄杖曰。久立令公。伏惟尊重。

幽州譚空和尚

鎮州牧。有姑為尼。行脚回。欲開堂為人。牧令師勘過。師問曰。見說汝欲開堂為人是否。尼曰是。師曰。尼是五障之身。汝作麼生為人。尼曰。龍女八歲。南方無垢世界。成等正覺。又作麼生。師曰。龍女有十八變。你試一變看。尼曰。設使變得。也祇是箇野狐精。師便打。牧聞舉。乃曰。和尚棒折那。

○僧問。德山棒。臨濟喝。未審那箇最親。師曰。已前在眾裏。老僧也曾商量來。僧便喝。師曰。却是汝會。僧曰錯。師便打。

襄州歷村和尚

僧問。如何是觀其音聲。而得解脫。師將火箸敲柴曰。汝還聞麼。曰聞。師曰。誰不解脫。

【頌】師煎茶次。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舉起茶匙。僧曰。莫祇這便當否。師擲向火中。

米倉禪師

【頌】問僧。近離甚處。曰冀州太湖。師曰。闍黎來時。太湖向你道甚麼。曰知道米倉路峻。師曰。到這裏又作麼生。曰不異發足時道路。師曰。闍黎已孤太湖去在。曰某甲亦不肯。和尚恁麼道。師曰。來時路峻。如今路平。曰不妨和尚此路。師曰。漆桶裏漢。有甚麼限【增收】。

齊聳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老僧竝不知。曰和尚是大善知識。為甚麼不知。師曰。老僧不曾接下機。

雲山和尚

【頌】有僧從西京來。師問。還將得西京主人書來否。曰不敢妄通消息。師曰。作家師僧。天然有在。曰殘羹餽飯誰喫。師曰。獨有闍黎不甘喫。其僧乃作吐勢。師喚侍者曰。扶出這病僧著。僧便出去。

○師見僧來。便作起勢。僧便出去。師曰。得甚麼靈利。僧便喝曰。作這箇眼目。承嗣臨濟。也太屈哉。師曰。且望闍黎善傳。僧回首。師喝曰。作這箇眼目。錯判諸方名言。隨後便打。

虎谿庵主

【頌】僧問。庵主在這裏多少年也。師曰。祇見冬凋夏長。年代總不記得。曰大好不記得。師曰。汝道我在這裏得多少年也。曰冬凋夏長響。師曰。鬧市裏虎。

桐峯庵主

【評】【頌】僧問。和尚這裏忽遇大蟲作麼生。師便作大蟲吼。僧作怖勢。師大笑。僧曰。這老賊。師曰。爭奈老僧何。

○有老人入山參。師曰。住在甚處。老人不語。師曰。善能對機。老人地上拈一枝草示師。師便喝。老人禮拜。師便歸庵。老人曰。與麼疑殺一切人在。

杉洋庵主

有僧到參。師問阿誰。曰杉洋庵主。師曰。是我。僧便喝。師作噓聲。僧曰。猶要棒喫在。師便打。

定上座

【評】【頌】初參臨濟。問如何是佛法大意。濟下禪牀擒住。師擬議。濟與一掌。師佇思。傍僧曰。定上座何不禮拜。師方作禮。忽然大悟(頌古見臨濟章)。

○後南遊。路逢巖頭雪峯欽山三人。巖頭問。上座甚處來。師曰。臨濟來。巖曰。和尚萬福。師曰。和尚已順世也。巖曰。某甲三人特去禮拜。薄福不遇。不知和尚在日有何言句。請上座舉一兩則。

【頌】師遂舉臨濟上堂曰。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常在汝等諸人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時有僧問。如何是無位真人。濟下禪牀搗住曰。道道。僧擬議。濟拓開曰。無位真人是甚麼乾屎橛。巖頭不覺吐舌。雪峯曰。臨濟大似白拈賊。(按頌古見臨濟章內)欽山曰。何不道赤肉團上。非無位真人。師便擒住曰。無位真人與非無位真人。相去多少。速道速道。欽山被擒。直得面黃面青。語之不得。巖頭雪峯曰。這新戒不識好惡。觸忤上座。且望慈悲。師曰。若不是這兩箇老漢。[祝/土]殺這尿牀鬼子。

南院慧顛禪師(亦曰寶應)

【頌】上堂。赤肉團上。壁立千仞。僧問。赤肉團上。壁立千仞。豈不是和尚道。師曰是。僧便掀倒禪牀。師曰。這瞎驢亂作。僧擬議。師便打。

【頌】思明和尚未住西院時。到參。禮拜了曰。無可人事。從許州來。收得江西剃刀一柄。獻和尚。師曰。汝從許州來。為甚却收得江西剃刀。明把師手掐一掐。師曰。侍者收取。明以衣袖拂一拂便行。師曰。阿刺刺阿刺刺。

【頌】上堂。諸方祇具啐啄同時眼。不具啐啄同時用。僧便問。如何。是啐啄同時用。師曰。作家不啐啄。啐啄同時失。曰此猶未是某甲問處。師曰。汝問處作麼生。僧曰失。師便打。其僧不肯。後

於雲門會下。聞二時舉此話。一僧曰。當時南院棒折那。其僧忽契悟。遂奔回省覲。師已圓寂。乃謁風穴。穴一見便問。上座莫是當時問先師啐啄同時話底麼。僧曰是。穴曰。汝當時作麼生會。曰某甲當時如在燈影裏行相似。穴曰。汝會也。

【頌】僧問。古殿重興時如何。師曰。明堂瓦插簷。曰與麼則莊嚴畢備也。師曰。斬草蛇頭落。

【頌】問僧名甚麼。曰普參。師曰。忽遇屎橛作麼生。僧便不審。師便打。

○問僧。近離甚處。曰襄州。師曰。來作甚麼。曰特來禮拜和尚。師曰。恰遇寶應老不在。僧便喝。師曰。向汝道不在。又喝作甚麼。僧又喝。師便打。僧禮拜。師曰。這棒本是汝打我。我且打汝要此話大行。瞎漢參堂去。

○問僧。近離甚處。曰襄州。師曰。是甚麼物恁麼來。曰和尚試道看。師曰。適來禮拜底。曰錯。師曰。禮拜底錯箇甚麼。曰再犯不容。師曰。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撲。瞎漢參堂去。

○僧問。從上諸聖向甚麼處去。師曰。不上天堂。則入地獄。曰和尚又作麼生。師曰。還知寶應老漢落處麼。僧擬議。師打一拂曰。你還知喫拂子底麼。曰不會。師曰。正令却是你行。又打一拂子。

【頌】問寒暑到來時如何。(一作日月迭遷寒暑謝。還有不涉寒暑者麼)師曰。紫羅抹額繡腰裙。曰上上之機今已曉。向下之機事若何。師曰。炭庫裏藏身【增收】。

守廓侍者

【頌】問德山曰。從上諸聖向甚麼處去。山曰。作麼作麼。師曰。勅點飛龍馬。跛鱉出頭來。山便休去。來日浴出。師過茶與山。山

於背上拊一下曰。昨日公案作麼生。師曰。這老漢今日方始瞥地。山又休去。

○師行脚到襄州華嚴和尚會下。一日嚴上堂曰。大眾。今日若是臨濟德山高亭大愚鳥窠船子兒孫。不用如何若何。便請單刀直入。華嚴與汝證據。師出禮拜起。便喝。嚴亦喝。師又喝。嚴亦喝。師禮拜起曰。大眾看這老漢一場敗闕。又喝一喝。拍手歸眾。嚴下座歸方丈。時風穴作維那。上去問訊。嚴曰。維那汝來也。叵耐守廓。適來把老僧扭捏一上。待集眾打一頓趨出。穴曰。趨他遲了也。自是和尚言過。他是臨濟下兒孫。本分恁麼。嚴方息怒。穴下來舉似師。曰你著甚來由。勸這老漢。我未問前。早要棒喫。得我話行。如今不打。搭却我話也。穴曰。雖然如是。已遍天下也。

西院思明禪師

【頌】僧問。如何是伽藍。師曰。荊棘叢林。曰如何是境中人。師曰。獾兒貉子。

【評】【頌】從漪上座。到法席旬日。常自曰。莫道會佛法人。覓箇舉話底人也無。師聞而默之。漪異日上法堂次。師召從漪。漪舉首。師曰錯。漪進三兩步。師又曰錯。漪近前。師曰。適來兩錯。是上座錯。是思明老漢錯。曰是從漪錯。師曰錯錯。乃曰。上座且在這裏過夏。共汝商量這兩錯。漪不肯。便去。後住相州天平山。每舉前話曰。我行脚時。被惡風吹到汝州。有西院長老勸我。連下兩錯。更留我過夏。待共我商量。我不道恁麼時錯。我發足向南方去時。早知錯了也。

寶壽和尚(二世)

【頌】在先寶壽為供養主。壽問。父母未生前。還我本來面目來。師立至夜深。下語不契。翌日辭去。壽曰。汝何往。師曰。昨日蒙

和尚設問。某甲不契。往南方參知識去。壽曰。南方禁夏不禁冬。我此間禁冬不禁夏。汝且作街坊過夏。若是佛法。闐闐之中。浩浩紅塵。常說正法。師不敢違。一日街頭見兩人交爭。揮一拳曰。你得恁麼無面目。師當下大悟。走見寶壽。未及出語。壽便曰。汝會也。不用說。師便禮拜。

【頌】壽臨遷化時。囑三聖。請師開堂。師開堂日。三聖推出一僧。師便打。聖曰。與麼為人。非但瞎却這僧眼。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法眼云。甚麼處是瞎却人眼處)師擲下拄杖。便歸方丈。

大悲和尚

僧問。除上去下。請師便道。師曰。開口即錯。曰真是學人師也。師曰。今日向弟子手裏死。

水陸和尚

僧問。如何是學人用心處。師曰。用心即錯。曰不起一念時如何。師曰。沒用處漢。

澄心旻德禪師

【頌】在興化遇示眾曰。若是作家戰將。便請單刀直入。更莫如何若何。師出禮拜起。便喝。化亦喝。師又喝。化亦喝。師禮拜歸眾。化曰。適來若是別人。三十棒。一棒也較不得。何故。為他旻德會一喝。不作一喝用。

魯祖山教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今日不答話。曰大好不答話。師便打。

【頌】問如何是雙林樹。師曰。有相身中無相身。曰如何是有相身中無相身。師曰。金香爐下鐵崑崙。

○問如何是孤峯獨宿底人。師曰。半夜日頭明。日午打三更。

○問進向無門時如何。師曰。太鈍生。曰不是鈍生。直下進向無門時如何。師曰。靈機未曾論邊際。執法無門在暗中。

鎮州談空和尚

僧問。格外之談。請師舉唱。師曰。隘路不通風。曰莫祇這便是也無。師乃噓噓。

際上座

僧問。如何是佛法的的大意。師曰。龍騰滄海。魚躍深潭。曰畢竟如何。師曰。夜聞祭鬼鼓。朝聽上灘歌。

風穴延沼禪師

參南院。入門不禮拜。院曰。入門須辨主。師曰。端的請師分。院於左膝拍一拍。師便喝。院於右膝拍一拍。師又喝。院曰。左邊一拍且置。右邊一拍作麼生。師曰瞎。院便拈棒。師曰。莫盲枷瞎棒。奪打和尚。莫言不道。院擲下棒曰。今日被黃面浙子。鈍置一場。師曰。和尚大似持鉢不得。詐道不飢。院曰。闍黎曾到此間麼。師曰。是何言歟。院曰。老僧好好相借問。師曰。也不得放過。便下參眾了。却上堂頭禮謝。院曰。闍黎曾見甚麼人來。師曰。在襄州華嚴。與廓侍者同夏。院曰。親見作家來。

【頌】院問。南方一棒。作麼商量。師曰。作奇特商量。師却問。和尚此間一棒。作麼商量。院拈拄杖曰。棒下無生忍。臨機不見

師。師於言下大徹玄旨。遂依止六年。四眾請主風穴。又八年。李史君與合城士庶。再請開堂演法矣。

○上堂。夫參學眼目。臨機直須大用現前。勿自拘於小節。設使言前薦得。猶是滯殼迷封。總然句下精通。未免觸途狂見。應是從前依他作解。明昧兩岐。與你一時掃却。直教箇箇如師子兒。吒呀地。哮吼一聲。壁立千仞。誰敢正眼覷著。覷著即瞎却渠眼。時有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即便[翟*支]瞎。曰[翟*支]瞎後如何。師曰。撈天摸地。

【評】【頌】師在郢州。謁前請主李史君。留於衙內度夏。普設大會。請師上堂。纔陞座。乃曰。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祇如不去不住。印即是。不印即是。還有人道得麼。時有廬陂長老出問。學人有鐵牛之機。請師不搭印。師曰。慣釣鯨鯢澄巨浸。却嗟蛙步[馬*展]泥沙。陂佇思。師喝曰。長老何不進語。陂擬議。師便打一拂子曰。還記得話頭麼。試舉看。陂擬開口。師又打一拂子。牧主曰。信知佛法。與王法一般。師曰。見甚麼道理。牧主曰。當斷不斷。反招其亂。師便下座。

【頌】上堂。僧問。如何是佛。師曰。如何不是佛。曰未曉玄言。請師直指。師曰。家住海門洲。扶桑最先照。

【頌】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金沙灘頭馬郎婦。

○問一色難分。請師顯示。師曰。滿爐添炭猶嫌冷。路上行人祇守寒。

【頌】問如何是道。師曰。五鳳樓前。曰如何是道中人。師曰。問取皇城使。

○問摘葉尋枝即不問。直截根源事若何。師曰。赴供凌晨去。開塘帶雨歸。

【頌】問隨緣不變者。忽遇知音時如何。師曰。披莎側立千峯外。引水澆蔬五老前。

【評】【頌】上堂。若立一塵。家國興盛。野老顰蹙。不立一塵。家國喪亡。野老安恬。於此明得。闍黎無分。全是老僧。於此不明。老僧却是闍黎。闍黎與老僧。亦能悟却天下人。亦能瞎却天下人。欲識闍黎麼右邊一拍曰。這裏是。欲識老僧麼。左邊一拍曰。這裏是。

○上堂。若是上上之流。各有證據。略赴箇程限。中下之機。各須英俊。當處出生。隨處滅盡。如爆龜紋。爆即成兆。不爆成鈍。欲爆不爆。直下便捏。

【頌】僧問。語默涉離微。如何通不犯。師曰。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華香。

○問百了千當時如何。師曰。不許夜行。投明須到。

○問如何是賓中主。師曰。入市雙瞳瞽。曰如何是主中賓。師曰。回鑾兩曜新。曰如何是賓中賓。師曰。攢眉坐白雲。曰如何是主中主。師曰。磨礮三尺劍。待斬平不人。

○問如何是鑷頭邊意。師曰。山前一片青。

【頌】問如何是佛。師曰。杖林山下竹筋鞭。

穎橋安禪師(號鐵胡)

【頌】師與鍾司徒向火次。鍾忽問。三界焚燒時。如何出得。師以香匙撥開火。鍾擬議。師曰。司徒司徒。鍾忽有省。

興陽歸靜禪師

初參西院。便問。擬問不問時如何。院便打。師良久。院曰。若喚作棒。眉鬚墮落。師於言下大悟。

首山省念禪師

常密誦法華經。眾目為念法華也。晚於風穴會中充知客。一日侍立次。穴乃垂涕告之曰不幸臨濟之道。至吾將墜地矣。師曰。觀此一眾。豈無人耶。穴曰。聰敏者多。見性者少。師曰。如某者如何。穴曰。吾雖望子之久。猶恐耽著此經。不能放下。師曰。此亦可事。願聞其要。穴遂上堂。舉世尊以青蓮目。顧視大眾。乃曰。正當恁麼時。且道說箇甚麼。若道不說而說。又是埋沒先聖。且道說箇甚麼。師乃拂袖下去。穴擲下拄杖歸方丈。侍者隨後請益曰。念法華因甚不祇對和尚。穴曰。念法華會也。次日師與真園頭同上問訊次。穴問真曰。作麼生是世尊不說說。真曰。鶉鳩樹上鳴。穴曰。汝作許多癡福作麼。何不體究言句。又問師曰。汝作麼生。師曰。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穴謂真曰。汝何不看念法華下語。師受風穴印可之後。泯跡韜光。人莫知其所以。因白兆楚和尚。至汝州宣化。風穴令師往傳語。纔相見。提起坐具便問。展即是。不展即是。兆曰。自家看取。師便喝。兆曰。我曾親近知識來。未嘗輒敢恁麼造次。師曰。草賊大敗。兆曰。來日若見風穴和尚。待一一舉似。師曰。一任一任。不得忘却。師乃先回。舉似風穴。穴曰。今日又被你収下一員草賊。師曰。好手不張名。兆次日纔到相見。便舉前話。穴曰。非但昨日。今日和賊捉敗。師於是名振四方。學者望風而靡。開法首山為第一世也。

【頌】僧問。如何是學人親切處。師曰。五九盡日又逢春。曰畢竟事如何。師曰。冬到寒食一百五。

【頌】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風吹日炙。

【頌】問如何是菩提路。師曰。此去襄縣五里。曰向上事如何。師曰。往來不易。

【頌】問一切諸佛。皆從此經出。如何是此經。師曰。低聲低聲。曰如何受持。師曰。切不得汙染(此則頌古。見聯珠第一卷金剛經章)。

【頌】問如何是古佛心。師曰。鎮州蘿蔔重三斤。

○問如何是玄中的。師曰。有言須道却。曰此意如何。師曰。無言鬼也瞋。

○問如何是梵音相。師曰。驢鳴狗吠。乃曰。要得親切。第一莫將問來問。還會麼。問在答處。答在問處。汝若將問來問。老僧在汝脚底。汝若擬議。即沒交涉。時有僧出禮拜。師便打。僧便問。挂錫幽巖時如何。師曰錯。僧曰錯。師又打。

【頌】問如何是佛。師曰。新婦騎驢阿家牽。曰未審此語甚麼句中收。師曰。三玄收不得。四句豈能該。曰此意如何。師曰。天長地久。日月齊明。

【頌】示眾曰。諸上座。不得盲喝亂喝。尋常向你道。賓則始終賓。主則始終主。賓無二賓。主無二主。若有二賓二主。兩箇即成瞎漢。所以我若立。你須坐。我若坐。你須立。坐則共你坐。立則共你立。雖然如是。急著眼始得【增收】。

廣慧真禪師

嘗在風穴作園頭。穴問曰。會昌沙汰時。護法善神。向甚麼處去。師曰。常在闌闌中。要且無人識。穴曰。汝徹也。師禮拜。

汾州善昭禪師

歷參知識七十一員。後到首山。問百丈卷席意旨如何。山曰。龍袖拂開全體現。曰師意如何。山曰。象王行處絕狐蹤。師於言下大悟。拜起而曰。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摭始應知。有問者曰。見何道理。便爾自肯。師曰。正是我放身命處。後遊衡湘。及襄河間。每為郡守。以名剎力致。前後八請。堅臥不答。泊首山歿。西河道俗。遣僧契聰。近請住持。師閉關高枕。聰排闥而入。讓之曰。佛法大事。請退小節。風穴懼應識憂宗旨墜滅。幸而有先師。先師已棄世。汝有力。荷擔如來大法者。今何時而欲安眠哉。師矍起握聰手曰。非公不聞此語。趣辦巖。吾行矣。

○住後上堂謂眾曰。汾陽門下。有西河師子。當門踞坐。但有來者。即便咬殺。有何方便。入得汾陽門。見得汾陽人。若見汾陽人者。堪與祖佛為師。不見汾陽人。盡是立地死漢。如今還有人入得麼。快須入取。免得孤負平生。不是龍門客。切忌遭點額。那箇是龍門客。一齊點下。舉起拄杖曰。速退速退。珍重。

○上堂。先聖云。一句語。須具三玄門。一玄門。須具三要。阿那箇是三玄三要底句。快會取好。各自思量。還得穩當也未。古德已前行脚。聞一箇因緣未明。中間直下飲食無味。睡臥不安。火急決擇。莫將為小事。所以大覺老人。為一大事因緣。出現於世。想計他從上來行脚。不為遊山翫水。看州府奢華。片衣口食。皆為聖心未通。所以驅馳行脚。決擇深奧。傳唱敷揚。博問先知。親近高德。蓋為續佛心燈。紹隆祖代。興崇聖種。接引後機。自利利他。不忘先跡。如今還有商量者麼。有即出來。大家商量。僧問。如何是接初機底句。師曰。汝是行脚僧。曰如何是辨衲僧底句。師曰。

西方日出卯。曰如何是正令行底句。師曰。千里持來呈舊面。曰如何是立乾坤底句。師曰。北俱盧洲長粳米。食者無貪亦無瞋。乃曰。將此四轉語。驗天下衲僧。纔見你出來。驗得了也。

○問如何是學人著力處。師曰。嘉州打大像。曰如何是學人轉身處。師曰。陝府灌鐵牛。曰如何是學人親切處。師曰。西河弄師子。乃曰。若人會得此三句。已辨三玄。更有三要語在。切須薦取。不是等閑。與大眾頌出。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月菊華新。

○上堂。凡一句語。須具三玄門。每一玄門。須具三要。有照有用。或先照後用。或先用後照。或照用同時。或照用不同時。先照後用。且要共你商量。先用後照。你也須是箇人始得。照用同時。你作麼生當抵。照用不同時。你又作麼生湊泊。

○僧問。如何是賓中賓。師曰。合掌庵前問世尊。曰如何是賓中主。師曰。對面無儔侶。曰如何是主中賓。師曰。陣雲橫海上。拔劍攪龍門。曰如何是主中主。師曰。三頭六臂擎天地。忿怒那吒撲帝鐘。

○上堂。汾陽有三訣。衲僧難辨別更擬問如何。拄杖驀頭掣。時有僧問。如何是三訣。師便打。僧禮拜。師曰。為汝一時頌出。第一訣。接引無時節。巧語不能詮。雲綻青天月。第二訣。舒光辨賢哲。問答利生心。拔却眼中楔。第三訣。西國胡人說。濟水過新羅。北地用賓鐵。復曰。還有人會麼。會底出來。通箇消息。要知遠近。莫祇恁麼。記言記語。以當平生。有甚麼利益。不用久立。珍重。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青絹扇子足風涼。

【頌】上堂。謂眾曰。夫說法者。須具十智同真。若不具十智同真。邪正不辨。縑素不分。不能與人天為眼目。決斷是非。如鳥飛空而折翼。如箭射的而斷弦。弦斷故。射的不中。翼折故。空不可飛。弦壯翼牢。空的俱徹。作麼生是十智同真。與諸上座點出。一同一質。二同大事。三總同參。四同真志。五同徧普。六同具足。七同得失。八同生殺。九同音吼。十同得人。又曰。與甚麼人同得人。與阿誰同音吼。作麼生是生殺。甚麼物同得失。阿那箇同具足。是甚麼同徧普。何人同真志。孰能總同參。那箇同大事。何物同一質。有點得出底麼。點得出者。不悞慈悲。點不出來。未有參學眼在。切須辨取。要識是非面目現在。不可久立。珍重。

葉縣歸省禪師

【頌】遊方參首山。山一日舉竹篋問曰。喚作竹篋即觸。不喚作竹篋即背。喚作甚麼。師掣得。擲地上曰。是甚麼。山曰瞎。師於言下豁然頓悟。

○上堂。宗師血脉。或凡或聖。龍樹馬鳴。天堂地獄。鑊湯爐炭。牛頭獄卒。森羅萬象。日月星辰。他方此土。有情無情。以手畫一畫云。俱入此宗。此宗門中。亦能殺人。亦能活人。殺人須得殺人刀。活人須得活人句。作麼生是殺人刀。活人句。道得底。出來對眾道看。若道不得。即孤負平生。珍重。

○上堂。良久曰。夫行脚禪流。直須著忖。參學須具參學眼。見地須得見地句。方有相親分。始得不被諸境惑。亦不落於惡道。畢竟如何委悉。有時句到意不到。妄緣前塵。分別影事。有時意到句不到。如盲摸象。各說異端。有時意句俱到。打破虛空界。光明照十方。有時意句俱不到。無目之人縱橫走。忽然不覺落深坑。

○僧請益柏樹子話。師曰。我不辭與汝說。還信麼。曰和尚重言。爭敢不信。師曰。汝還聞簷頭水滴聲歷。其僧豁然。不覺失聲云。啣。師曰。你見箇甚麼道理。僧便以頌對曰。簷頭水滴。分明歷歷。打破乾坤。當下心息。師乃忻然。

【頌】問如何是學人密用心處。師曰。鬧市鞦韆子。曰意旨如何。師曰溥請眾人看【增收】。

神鼎洪謹禪師

自遊方一衲。以度寒暑。嘗與數耆舊。至襄沔間。一僧舉論宗乘。頗敏捷。會野飯山店中供辦。而僧論說不已。師曰。三界唯心。萬法唯識。唯識唯心。眼聲耳色。是甚麼人語。僧曰。法眼語。師曰。其義如何。曰唯心故。根境不相到。唯識故。聲色攢然。師曰。舌味是根境否。曰是。師以箸筴菜置口中。含糊而語曰。何謂相入耶。坐者駭然。僧不能答。師曰。途路之樂。終未到家。見解入微。不名見道。參須實參。悟須實悟。閻羅大王。不怕多語。僧拱而退。

○上堂。舉洞山曰。貪瞋癡。太無知。賴我今朝識得伊。行便打。坐便槌。分付心王子細推。無量劫來不解脫。問汝三人知不知。師曰。古人與麼道。神鼎則不然。貪瞋癡。實無知。十二時中任從伊。行即往。坐即隨。分付心王擬何為。無量劫來元解脫。何須更問知不知。

○僧問。撥塵見佛時如何。師曰。佛亦是塵。

谷隱蘊聰禪師(即石門聰)

初參百丈恒和尚。因結夏。百丈上堂。舉中觀論曰。正覺無名相。隨緣即道場。師便出問。如何是正覺無名相。丈曰。汝還見露柱

麼。師曰。如何是隨緣即道場。丈曰。今日結夏。

【頌】次參首山。問學人親到寶山。空手回時如何。山曰。家家門前火把子。師於言下大悟。呈偈曰。我今二十七。訪道曾尋覓。今朝喜得逢。要且不相識。

○後到大陽。玄和尚問。近離甚處師曰襄州。陽曰。作麼生是不隔底句。師曰。和尚住持不易。陽曰。且坐喫茶。師便參眾去。侍者問。適來新到。祇對住持不易。和尚為甚麼教坐喫茶。陽曰。我獻他新羅附子。他酬我舶上茴香你去問他。有語在。侍者請師喫茶問。適來祇對和尚道住持不易。意旨如何。師曰。真鍮不博金。

【頌】僧問。日往月來遷。不覺年衰老。還有不老者麼。師曰有。曰如何是不老者。師曰。虬龍筋力高聲叫。晚後精靈轉更多。

○問承古有言。祇者如今誰動口。意旨如何。師曰。莫認驢鞍橋。作阿爺下頷。

○示眾。第一句道得。石裏迸出。第二句道得。挨拶將來。第三句道得。自救不了。

○上堂。春景溫和。春雨普潤。萬物生芽。甚麼處不沾恩。且道承恩力一句。作麼生道。良久曰。春雨一滴滑如油。

廣慧元璉禪師

【頌】到首山。山問。近離甚處。師曰漢上。山豎起拳曰。漢上還有這箇麼。師曰。這箇是甚麼碗鳴聲。山曰瞎。師曰恰是。拍一拍。便出。他日又問。學人親到寶山。空手回時如何。山曰。家家門前火把子。師當下大悟云。某甲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山曰。汝會處作麼生。與我說來看。師曰。祇是地上水碓砂也。山曰。汝會也。師便禮拜。

○上堂。臨濟兩堂首座相見。同時下喝。諸人且道。還有賓主也無。若道有。祇是箇瞎漢。若道無。亦是箇瞎漢。不有不無。萬里崖州。若向這裏道得。也好與三十棒。若道不得。亦與三十棒。衲僧家。到這裏。作麼生出得山僧圈禩去。良久曰。苦哉。蝦蟆蚯蚓。[跳-兆+亭]跳上三十三天。撞著須彌山。百雜碎。拈拄杖曰。一隊無孔鐵槌。速退速退。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竹竿頭上曜紅旗。

三交智嵩禪師(即唐明)

【頌】參首山。問如何是佛法的大意。山曰。楚王城畔。汝水東流。師於此有省。頓契佛意。乃作三玄偈曰。(其一)須用直須用。心意莫定動。三歲師子吼。十方沒狐種。(其二)我有真如性。如同幕裏隱。打破六門關。顯出毗盧印。(其三)真骨金剛體可誇。六塵一拂永無遮。廓落世界空為體。體上無為真到家。山聞。乃請喫茶。問這三頌是汝作來耶。師曰是。山曰。或有人教汝現三十二相時如何。師曰。某甲不是野狐精。山曰。惜取眉毛。師曰。和尚落了多少。山以竹篋頭上打曰。這漢向後亂作去在。

○上堂。文殊仗劍。五臺橫行。唐明一路。把斷誘訛。三世諸佛。未出教乘。網底遊魚。龍門難渡。垂釣四海。祇釣寧龍。格外玄談。為求知識。若也舉揚宗旨。須彌直須粉碎。若也說佛說祖。海水便須枯竭。寶劍揮時。毫光萬里。放汝一路。通方說話。把斷咽喉。諸人甚處出氣。

仁王處評禪師

問首山。如何是佛法大意。山便喝。師禮拜。山拈棒。師曰。老和尚沒世界那。山拋下拄杖曰。明眼人難謾。師曰。草賊大敗。

丞相王隨居士

謁首山。得言外之旨。自爾履踐深明大法。臨終書偈曰。畫堂燈已滅。彈指向誰說。去住本尋常。春風掃殘雪。

(會元十一卷終)

石霜楚圓慈明禪師

聞汾陽道望。遂住謁焉。陽顧而默契之。經二年。未許入室。每見必罵詬。或毀詆諸方。及有所訓。皆流俗鄙事。一夕訴曰。自至法席。已再夏。不蒙指示。但增世俗塵勞。念歲月飄忽。已事不明。失出家之利。語未卒。陽熟視罵曰。是惡知識。敢裨販我。怒舉杖逐之。師擬伸救。陽掩師口。乃大悟曰。是知臨濟。道出常情。服役七年。辭去。依唐明嵩禪師。嵩謂師曰。楊大年內翰。知見高。入道穩實。子不可不見。師乃往見大年。年問曰。對面不相識。千里却同風。師曰。近奉山門請。年曰。真箇脫空。師曰。前月離唐明。年曰。適來悔相問。師曰作家。年便喝。師曰恰是。年復喝。師以手畫一畫。年吐舌曰。真是龍象。師曰。是何言歟。年喚客司點茶來。元來是屋裏人。師曰。也不消得。

【頌】年又問。如何是上座為人一句。師曰切。年曰。與麼則長裙新婦拖泥走。師曰。誰得似內翰。年曰。作家作家。師曰。放你二十棒。年拊膝曰。這裏是甚麼所在。師拍掌曰。也不得放過。年大笑。

○又問。記得唐明當時悟底因緣麼。師曰。唐明問首山。如何是佛法的大意。山曰。楚王城畔。汝水東流。年曰。祇如此語。意旨如何。師曰。水上挂燈毬。年曰。與恁則孤負古人去也。師曰。內翰疑則別參。年曰。三脚蝦蟆跳上天。師曰。一任[跳-兆+孛]跳。年乃大笑。館于齋中。日夕質疑智證。

【頌】李附馬問。我聞西河有金毛師子。是否。師曰。甚麼處得者消息。公便喝。師曰。野干鳴。公又喝。師曰恰是。公大笑。

【頌】僧問。如何是佛。師曰。水出高原。

○師謁神鼎。鼎首山高弟。望尊一時。衲子非人類精奇。無敢登其門者。住山三十年。門弟子。氣吞諸方。師髮長不剪。弊衣楚音。通謁稱法姪。一眾大笑。鼎遣童子問。長老誰之嗣。師仰視屋曰。親見汾陽來。鼎杖而出。顧見頎然問曰。汾州有西河師子是否。師指其後絕叫曰。屋倒矣。童子返走。鼎回顧相矍鑠。師地坐。脫隻履而視之。鼎老忘所問。又失師所在。師徐起整衣。且行且語曰。見面不如聞名。遂去。鼎遣人追之不可。歎曰。汾州乃有此兒耶。師自是名重叢林。

○後住道吾。上堂。先寶應曰。第一句薦得。堪與祖佛為師。第二句薦得。堪與人天為師。第三句薦得。自救不了。道吾則不然。第一句薦得。和泥合水。第二句薦得。無繩自縛。第三句薦得。四稜著地。所以道。起也。海晏河清。行人避路。住也。乾坤失色。日月無光。汝輩向甚麼處出氣。如今還有出氣者麼。有即出來對眾出氣看。如無道吾為汝出氣去也。乃噓一聲。卓拄杖下座。

○上堂。道吾打鼓。四大部洲同參。拄杖橫也。挑括乾坤大地。鉢盂覆也。蓋却恒沙世界。且問諸人。向甚麼處安身立命。若也知得。向北俱盧洲喫粥喫飯。若也不知。長連牀上喫粥喫飯。

○示眾。以拄杖擊禪牀一下云。大眾還會麼。不見道。一擊忘所知。更不假修持。諸方達道者。咸言上上機。香嚴恁麼悟去。分明悟得如來禪。祖師禪未夢見在。且道祖師禪。有甚長處。若向言中取則。悞賺後人。直饒棒下承當。孤負先聖。萬法本閑。惟人自闢。所以山僧居福巖。祇見福巖境界。晏起早眠。有時雲生碧嶂。

月落寒潭。音聲鳥。飛鳴般若臺前。娑羅華。香散祝融峯畔。把瘦筇。坐盤石。與五湖衲子時話玄微。灰頭土面。住興化。祇見興化家風。迎來送去。門連城市。車馬駢闐。漁唱瀟湘。猿啼嶽麓。絲竹哥謠。時時入耳。復與四海高人。日談禪道。歲月都忘。且道居深山。住城郭。還有優劣也無。試道看。良久云。是處是慈氏。無門無善財。

【頌】僧問。行脚不逢人時如何。師曰。釣絲絞水。

【頌】師室中插劍一口。以草鞋一對。水一盆。置在劍邊。每見入室。即曰看看。有至劍邊擬議者。師曰。險喪身失命也。便喝出。

【頌】師冬日榜僧堂。作此字[(○*○*○)/=]二二三几[(ㄣ@三)* (田/?)] [水-?+(曲-曰+口)]。其注曰。若人識得。不離四威儀中。首座見曰。和尚今日放參。師聞而笑之。

【頌】師問。顯英上座。近離甚處。曰金鑾。師曰。夏在甚處。曰金鑾。師曰。去夏在甚處。曰金鑾。師曰。前夏在甚處。曰金鑾。師曰。先前夏在甚處。曰何不領話。師曰。我也不能勘得你。教庫下奴子勘你。且點一盞茶與你濕觜【增收】。

瑯琊慧覺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銅頭鐵額。曰意旨如何。師曰。鳥觜魚腮。

○上堂。奇哉十方佛。元是眼中花。欲識眼中花。元是十方佛。欲識十方佛。不是眼中花。欲識眼中花。不是十方佛。於此明得。過在十方佛。於此未明。聲聞起舞獨覺臨粧。珍重。

○上堂。見聞覺知。俱為生死之因。見聞覺知。正是解脫之本。譬如師子返擲。南北東西且無定止。汝等諸人。若也不會。且莫孤負釋迦老子。吽。

○上堂。山僧今日。為諸人說破。明眼衲僧。莫去泥裏打坐。珍重。

○上堂。剪除狂寇。掃蕩攬搶。猶是功勳邊事。君臣道合。海晏河清。猶是法身邊事。作麼生是衲僧本分事。良久曰。透網金鱗猶滯水。回頭石馬出沙籠。

○上堂。承言須會宗。勿自立規矩。若人下得通方句。我當刎頸而謝之。

○上堂。擊水魚頭痛。穿林宿鳥驚。黃昏不擊鼓。日午打三更。諸禪德。既是日午。為甚却打三更。良久曰。昨見垂楊綠。今逢落葉黃。

【頌】上堂。汝等諸人。在我這裏過夏。與你點出五般病。一不得向萬里無寸草處去。二不得孤峯獨宿。三不得張弓架箭。四不得物外安身。五不得滯於生殺。何故。一處有滯。自救難為。五處若通。方名導師。汝等諸人。若到諸方。遇明眼作者。與我通箇消息。貴得祖風不墜。若是常徒。即便寢息。何故。裸形國裏誇服飾。想君太煞不知時。

○上堂。拈拄杖曰。盤山道向上一路滑。南院道壁立萬仞險。臨濟道石火電光鈍。瑯琊有定乾坤底句。各各高著眼。卓拄杖下座。

大愚守芝禪師

上堂。大愚相接大雄孫。五湖雲水競頭奔。競頭奔。有何門。擊箭寧知枯木存。枯木存。一年還曾兩度春。兩度春。帳裏真珠撒與人。撒與人。思量也是慕西秦。

○上堂。豎窮三際。橫徧十方。拈起也。帝釋心驚。放下也。地神膽戰。不拈不放。喚作甚麼。白云蝦蟆。

○上堂。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乃拈起拂子云。狸奴白牯總在這裏放光動地。何謂如此。兩段不同。

【頌】僧問。如何是佛。師曰。鋸解秤錘。

法華全舉禪師

到大愚芝和尚處。愚問。古人見桃華。意作麼生。師曰。曲不藏直。曰那箇且從。這箇作麼生。師曰。大街拾得金。四隣爭得知。曰上座還知麼。師曰。路逢劍客須呈劍。不是詩人不獻詩。曰作家詩客。師曰。一條紅線兩人牽。曰玄沙道。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又作麼生。師曰。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曰却是。師曰。樓閣凌雲勢。峯巒疊翠層。

【頌】到瑯琊覺和尚處。瑯問。近離甚處。師曰兩淞。曰船來陸來。師曰船來。曰船在甚處。師曰步下。曰不涉程途一句。作麼生道。師以坐具搯一搯曰。杜撰長老。如麻似粟。拂袖而出。瑯問侍者。此是甚麼人。者曰。舉上座。瑯曰。莫是舉師叔麼。先師教我尋見伊。遂下旦過問。上座莫是舉師叔麼。莫怪適來相觸忤。師便喝。復問。長老何時到汾陽。瑯曰。某時到。師曰。我在淞江早聞你名。元來見解祇如此。何得名播寰宇。瑯遂作禮曰。某甲罪過。

○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白菊乍開重日暖。百年公子不逢春。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大地絕消息。翛然獨任真。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曰。草荒人變色。凡聖兩齊空。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清風與明月。野老笑相親。

○上堂。鐘鳴鼓響鵲噪鴉鳴。為你諸人說般若。講涅槃了也。諸人還信得及麼。觀音菩薩。向諸人面前作大神通。若信不及。却往他方救苦利生去也。

○上堂。語漸也。返常合道。論頓也。不留朕迹。直饒論其頓。返其常。也是抑而為之。

芭蕉谷泉禪師

【頌】省同參慈明禪師。明問。白雲橫谷口。道人何處來。師左右顧視曰。夜來何處火。燒出古人墳。明曰。未在更道。師作虎聲。明以坐具便搥。師接住。推明置禪牀上。明却作虎聲。師大笑曰。我見七十餘員善知識。今日始遇作家。

○慈明遷住福巖。師又往省之。少留而還。作偈寄之曰。相別而今又半年。不知誰共對談禪。一般秀色湘山裏。汝自匡徒我自眠。

天聖皓泰禪師

到瑯琊。瑯問。埋兵掉鬪。未是作家。匹馬單鎗。便請相見。師指瑯曰。將頭不猛。帶累三軍。瑯打師一坐具。師亦打瑯一坐具。瑯接住曰。適來一坐具。是山僧令行。上座一坐具。落在甚麼處。師曰。伏惟尚饗。瑯拓開曰。五更侵早起。更有夜行人。師曰。賊過後張弓。瑯曰。且坐喫茶。

【頌】僧問。如何是佛。師曰。黑漆聖僧。

浮山法遠禪師(號遠錄公)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平地起骨堆。

○歐陽文忠公。聞師奇逸造其室。未有以異之。與客碁。師坐其旁。文忠遽收局。請因碁說法。師即令搥鼓。陞座曰。若論此事。如兩家著碁相似。何謂也。敵手知音當機不讓。若是綴五饒三。又通一路始得。有一般底。祇解閉門作活。不會奪角衝關。硬節與虎口齊彰。局破後徒勞綽幹。所以道。肥邊易得。瘦肚難求。思行則

往往失粘。心羸而時時頭撞。休誇國手。謾說神僊。贏局輸籌即不問。且道黑白未分時一著。落在甚麼處。良久曰。從來十九路。迷悟幾多人。文忠加歎。從容謂同僚曰。修初疑禪語為虛誕。今日見此老機緣。所得所造。非悟明於心地。安能有此妙旨哉。

○上堂。諸佛出世建立化門。不離三身智眼。亦如摩醯首羅三目。何故。一隻水泄不通。緇素難辨。一隻大地全開。十方通暢。一隻高低一顧。萬類齊瞻。雖然。若是本分衲僧。陌路相逢。別具通天正眼始得。所以道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且道狸奴白牯。知有箇甚麼事。要會麼。深秋簾幕千家雨。落日樓臺一笛風。

○師暮年休於會聖巖。敘佛祖奧義作九帶。曰佛正法眼帶。佛法藏帶。理貫帶。事貫帶。理事縱橫帶。屈曲垂帶。妙叶兼帶。金針雙鎖帶。平懷常實帶。學者既已傳誦。師曰。若據圓極法門。本具十數。今此九帶。已為諸人說了。更有一帶。還見得麼。若也見得親切分明。却請出來對眾說看。說得分明。許汝通前九帶。圓明道眼。若也不親切。說不相應。唯依吾語而為已解。則名謗法。諸人到此如何。眾無語。師叱之而去。

寶應昭禪師

上堂。十二時中。許你一時絕學。即是學佛法。不見阿難。多聞第一。却被迦葉擯出。不得結集。方知聰明博學。記持憶想。向外馳求。與靈覺心。轉沒交涉。五蘊殼中。透漏不過。順情生喜。違情生怒。蓋覆深厚。自纏自縛。無有解脫。流浪生死。六根為患。眾苦所逼。無自由分。而被妄心。於中主宰。大丈夫兒。早搆取好。喝一喝曰。參。

大乘慧果禪師

僧問。撥塵見佛時如何。師曰。撥塵即乖。見佛即錯。曰總不如是時如何。師曰。錯。

金山曇穎達觀禪師

首謁大陽玄禪師。遂問。洞山特設偏正君臣。意明何事。陽曰。父母未生時事。師曰。如何體會。陽曰。夜半正明。天曉不露。師罔然。遂謁谷隱。舉前話。隱曰。大陽不道不是。祇是口門窄。滿口說未盡。老僧即不然。師問。如何是父母未生時事。隱曰。糞墜子。師曰。如何是夜半正明。天曉不露。隱曰。牡丹華下睡猫兒。師愈疑駭。一日普請。隱問。今日運薪耶。師曰然。隱曰。雲門問僧。人搬柴。柴搬人。如何會。師無對。隱曰。此事如人學書。點畫可效者工。否者拙。蓋未能忘法耳。當筆忘手。手忘心。乃可也。師於是默契。良久曰。如石頭云。執事元是迷。契理亦非悟。隱曰。汝以為藥語。為病語。師曰。是藥語。隱呵曰。汝以病為藥。又安可哉。師曰。事如函得蓋。理如箭直鋒。妙寧有加者。而猶以為病。實未喻旨。隱曰。妙至是。亦祇明理事。祖師意旨。智識所不能到。矧事理能盡乎。故世尊云。理障礙正知見。事障續諸生死。師恍如夢覺曰。如何受用。隱曰。語不離窠臼。安能出蓋纏。師歎曰。纔涉唇吻。便落意思。盡是死門。終非活路。

○示眾曰。纔涉唇吻。便落意思。盡是死門。俱非活路。直饒透脫。猶在沉淪。莫教孤負平生。虛度此世。要得不孤負平生麼。拈拄杖卓一下曰。須是莫被拄杖瞞始得。看看。拄杖子穿過諸你人髑髏。[跳-兆+孛]跳入你鼻孔裏去也。又卓一下。

○上堂。大眾集定。有僧纔出禮拜。師曰。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僧便問。如何是時節因緣。師便下座。

○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家裏已無回日信。路遙空有望鄉牌。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滄海盡教枯見底。青山直得輾為塵。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曰。天地尚空秦日月。山河不見漢君臣。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鶯囀千林花滿地。客游三月草侵天。

仁壽珍禪師

上堂。明明無悟。有法即迷。日上無雲。麗天普照。眼中無翳。空本無花。無智人前。不得錯舉。參。

永慶普禪師

初問谷隱。古人道。來日大悲院裏有齋。意旨如何。曰日出隈陽坐。天寒不舉頭。師入室次。隱曰。適來因緣。汝作麼生會。師曰。會則途中受用。不會則世諦流布。曰未在。更道。師拂袖便出。

駙馬都尉李遵勗居士

謁谷隱。問出家事。隱以崔趙公問徑山公案答之。公於言下大悟。作偈曰。學道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直趣無上菩提。一切是非莫管。

英公夏竦居士

自契機於谷隱。日與老衲游。偶上藍溥禪師至。公問。百骸潰散時。那箇是長老自家底。藍曰。前月二十離蘄陽。公休去。藍却問。百骸潰散時。那箇是相公自家底。公便喝。藍曰。喝則不無。畢竟那箇是相公自家底。公對以偈曰。休認風前第一機。太虛何處著思惟。山僧若要通消息。萬里無雲月上時。藍曰。也是弄精魂。

華嚴道隆禪師

初參石門徹和尚。問曰。古者道。但得隨處安閑。自然合他古轍。雖有此語。疑心未歇時如何。門曰。知有乃可隨處安閑。如人在州縣住。或聞或見。千奇百怪。他總將作尋常。不知有而安閑。如人在村落住。有少聲色。則驚怪傳說。師於言下有省。門盡授其洞上厥旨。後為廣慧嗣。一日福嚴承和尚。問曰。禪師親見石門。如何却嗣廣慧。師曰。我見廣慧。渠欲剃髮。使我擎凳子來。慧曰。道者。我有凳子詩。聽取。乃曰。放下便平穩。我時便肯伊。因敘在石門處所得。廣慧曰。石門所示。如百味珍羞。祇是飽人不得。

文公楊億居士

字大年。

【頌】出守汝州。首謁廣慧。慧接見。公便問。布鼓當軒擊。誰是知音者。慧曰。來風深辨。公曰。恁麼則禪客相逢。祇彈指也。慧曰。君子可八。公應諾諾。慧曰。草賊大敗。夜語次。慧曰。秘監曾與甚人道話來。公曰。某曾聞雲巖諒監寺。兩箇大蟲相咬時如何。諒曰。一合相。某曰。我祇管看。未審恁麼道。還得麼。慧曰。這裏即不然。公曰。請和尚別一轉語。慧以手作拽鼻勢。曰這畜生更[跳-兆+孛]跳在。公於言下脫然無疑。有偈曰。八角磨盤空裏走。金毛師子變作狗。擬欲將身北斗藏。應須合掌南辰後。

【頌】公問廣慧曰。承和尚有言。一切罪業皆因財寶所生。勸人踈於財利。況南閻浮提眾生。以財為命。邦國以財聚人。教中有財法二施。何得勸人踈財乎。慧曰。幡竿尖上鐵籠頭。公曰。海壇馬子似驢大。慧曰。楚雞不是丹山鳳。公曰。佛滅二千歲。比丘少慚愧。公置一百問。請廣慧答。慧一一答回。

○公問李都尉曰。釋迦六年苦行。成得甚麼事。尉曰。擔折知柴重
(公復抒其師承密證寄李翰林)。

翠巖可真禪師

嘗參慈明。因之金鑿。同善侍者坐夏。善乃慈明高弟。道吾真。楊岐會。皆推伏之。師自負親見慈明。天下無可意者。善與語。知其未徹。笑之。一日山行。舉論鋒發。善拈一片瓦礫。置盤石上曰。若向這裏下得一轉語許你親見慈明。師左右視。擬對之。善叱曰。佇思停機。情識未透。何曾夢見。師自愧悚。即還石霜。慈明見來。叱曰。本色行脚人。必知時節有甚急事。夏未了。早已至此。師泣曰。被善兄毒心。終礙塞人。故來見和尚。明遽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無雲生嶺上。有月落波心。明瞋目喝曰。頭白齒豁。猶作這箇見解。如何脫離生死。師悚然求指示。明曰。汝問我。師理前語問之。明震聲曰。無雲生嶺上。有月落波心。師於言下大悟。師爽氣逸出。機辨迅捷。叢林憚之。

○僧問。如何是學人轉身處。師曰。一堵墻。百堵調。曰如何是學人著力處。師曰。千日斫柴一日燒。曰如何是學人親切處。師曰。渾家送上渡頭船。

○上堂。舉龍牙頌曰。學道如鑽火。逢煙未可休。直待金星現。歸家始到頭。神鼎曰。學道如鑽火。逢煙即便休。莫待金星現。燒脚又燒頭。師曰。若論頓也。龍牙正在半途。若論漸也。神鼎猶少悟在。於此復且如何。諸仁者。今年多落葉。幾處掃歸家。

○上堂。舉僧問巴陵。如何是道。陵曰。明眼人落井。又問寶應。如何是道。應曰。五鳳樓前。又問首山。如何是道。山曰。脚下深三尺。此三轉語。一句壁立千仞。一句陸地行船。一句賓主交參。

諸人莫有揀得者麼。出來道看。如無且行羅漢慈。破結賊故。行菩薩慈。安眾生故。行如來慈。得如相故。

蔣山贊元禪師

三歲出家。七歲為僧。十五遊方。遠造石霜。陞於丈室。慈明一見曰。好好著槽廠。師遂作驢鳴。明曰。真法器耳。俾為侍者。二十年中。運水搬柴。不憚寒暑。悉已躬親求道。後出世蘇臺天峯。龍華。白雲。府帥請居誌公道場。提綱宗要。機鋒迅敏。解行相應。諸方推服。

○丞相王公安石。重師德望。特奏章服師號。公又堅辭鼎席。結廬定林山中。與師蕭散林下。清談終日。贈師頌曰。不與物違真道廣。每隨緣起自禪深。舌根已淨誰能壞。足跡如空我得尋。此亦明世希有事也。

○元祐元年。師乃遷化。丞相王公慟哭于塔。讚師真曰。賢哉人也。行厲而容寂。知言而能默。譽榮弗喜。辱毀弗戚。弗矜弗克。人自稱德。有緇有白。來自南北。弗順弗逆。弗抗弗抑。弗觀汝華。唯食已實。孰其嗣之。我有遺則。

大寧道寬禪師

上堂。無念為宗。無住為本。真空為體。妙有為用。所以道。盡大地是真空。徧法界是妙有。且道是甚麼人用得。四時運用。日月常明。法本不遷。道無方所。隨緣自在。逐物昇沉。此土他方。入凡入聖。雖然如是。且道入鄉隨俗一句。作麼生道。良久曰。西天梵語。東土唐言。

○僧問。如何是露地白牛。師以火箸插火爐中曰。會麼。曰不會。師曰。頭不欠。尾不剩。

道吾悟真禪師

上堂。師子兒哮吼。龍馬駒[跳-兆+孛]跳。古佛鏡中明。三山孤月皎。遂作舞下座。

○上堂。舉洞山道。五臺山上雲蒸飯。佛殿堦前狗尿天。剎竿頭上煎餛飩。三箇猢猻夜簸錢。老僧即不然。三面狸奴腳踏月。兩頭白牯手拏煙。戴冠碧兔立庭柏。脫殼烏龜飛上天。老僧葛藤。盡被汝諸人覷破了也。洞山老人甚是奇特。雖然如是。祇行得三步四步。且不過七跳八跳。且道譎訛在甚麼處。老僧今日不惜眉毛。一時布施。良久曰。叮嚀損君德。無言真有功。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

○上堂。古人道。認著依前還不是。實難會。土宿頷下髭鬚多。波斯眼深鼻孔大。甚奇怪。欵然透過新羅界。

○僧問。如何是第一玄。師曰。釋尊光射阿難肩。曰如何是第二玄。師曰。孤輪眾象攢。曰如何是第三玄。師曰。泣向枯桑淚漣漣。曰如何是第一要。師曰。最好精羸照。曰如何是第二要。師曰。閃電乾坤光晃曜。曰如何是第三要。師曰。路夾青松老。

○上堂。舉僧問首山如何是佛。山曰。新婦騎驢阿家牽。師曰。手提巴鼻腳踏尾。仰面看天聽流水。天明送出路傍邊。夜靜還歸茅屋裏。

○問僧甚處來。曰堂中來。師曰。聖僧道甚麼。僧近前不審。師曰。東家作驢。西家作馬。曰過在甚麼處。師曰。萬里崖州。

廣法源禪師

上堂。春雨微微。簷頭水滴。聞聲不悟。歸堂面壁。

○上堂。若論此事。切莫道著。道著即頭角生。有僧出曰。頭角生也。師曰禍事。曰某甲罪過。師曰。龍頭蛇尾。伏惟珍重。

靈隱德章禪師

仁宗皇帝。詔師於延春閣下齋。宣普照大師問。如何是當機一句。師曰。一言迥出青霄外。萬仞峯前險處行。曰作麼生是險處行。師便喝。曰皇帝面前何得如此。師曰。也不得放過。

○師進心珠歌曰。心如意。心如意。任運隨緣不相離。但知莫向外邊求。外邊求。終不是。枉用工夫隱真理。識心珠。光曜日。秘藏深密無形質。拈來掌內眾人驚。二乘精進爭能測。碧眼胡。須指出。臨機妙用何曾失。尋常切忌與人看。大地山河動岌岌。

定慧超信海印禪師

僧問。如何是第一句。師曰。那叱忿怒。曰如何是第二句。師曰。衲僧罔措。曰如何是第三句。師曰。西天此土。

○上堂。若識般若。即被般若縛。若不識般若。亦被般若縛。識與不識。拈放一邊。却問諸人。如何是般若體。參堂去。

泐潭月禪師

僧問。修多羅教。如標月指。未審指箇甚麼。師曰。請高著眼。曰曙色未分人盡望。及乎天曉也尋常。師曰。年衰鬼弄人。

姜山方禪師

僧問。如何是一塵入正受。師曰。蛇銜老鼠尾。曰如何是諸塵三昧起。師曰。鼈咬釣魚竿。曰恁麼則東西不辨。南北不分去也。師曰。堂前一盃夜明燈。簾外數莖青瘦竹。

○問諸佛未出世時如何。師曰。不識酒望子。曰出世後如何。師曰。釣魚船上贈三椎。

○上堂。不是道得道不得。諸方盡把為奇特。寒山燒火滿頭灰。笑罵豐干這老賊。

白鹿端禪師

僧問。凝然湛寂時如何。師曰。不是闍黎安身立命處。曰如何是學人安身立命處。師曰。雲有出山勢。水無投澗聲。

真如方禪師

參瑯琊。唯看柏樹子話。每入室。陳其所見。不容措辭。常被喝出。忽一日大悟。直入方丈曰。我會也。瑯琊曰。汝作麼生會。師曰。夜來牀薦暖。一覺到天明。瑯琊可之。

長水子璿講師(嘉禾人也)

自落髮。誦楞嚴不輟。從洪敏法師講。至動靜二相。了然不生。有省。謂敏曰。敲空擊木。(亦作竹)尚落筌蹄。舉目揚眉。已成擬議。去此二途。方契斯旨。敏拊而證之。然欲探禪源。罔知攸往。聞琅琊。道重當世。即趨其席。值上堂次。出問。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琅琊憑陵答曰。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師領悟禮謝曰。願侍巾瓶。琅琊謂曰。汝宗不振久矣。且勵志扶持。報佛恩德。勿以殊宗為介也。乃如教。再拜以辭。後住長水。承稟日顧眾曰。道非言象得。禪非擬議知。會意通宗。曾無別致。由是二宗仰之。嘗疏楞嚴等經。盛行于世。

雲峯文悅禪師

【頌】初造大愚。聞示眾曰。大家相聚喫莖壘。若喚作一莖壘。入地獄如箭射。便下座。師大駭。

○夜造方丈。愚問。來何所求。師曰。求心法。愚曰。法輪未轉。食輪先轉。後生趨色力健。何不為眾乞食。我忍飢不暇。何暇為汝說禪乎。師不敢違。未幾愚移翠巖。師納疏罷。復過翠巖求指示。巖曰。佛法未到爛却。雪寒。且為眾乞炭。師亦奉命。能事罷。復造方丈。巖曰。堂司闕人。今以煩汝。師受之。不樂。恨巖不去心地。坐後架桶籬忽散。自架墮落。師忽然開悟。頓見巖用處。走搭袈裟上寢堂。巖迎笑曰。維那且喜大事了畢。師再拜。不及吐一辭而去。服勤八年。後出世翠巖。時首座領眾出迎。問曰。德山宗乘即不問。如何是臨濟大用。師曰。你甚處去來。座擬議。師便掌。座擬對。師喝曰。領眾歸去。自是一眾畏服。

○僧問。萬法歸一。一歸何所。師曰。黃河九曲。曰如何是第一句。師曰。垂手過膝。曰如何是第二句。師曰。萬里崖州。曰如何是第三句。師曰。糞箕掃帚。

○上堂。語不離窠臼。焉能出蓋纏。片雲橫谷口。迷却幾人源。所以道。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汝等諸人。到這裏憑何話會。良久曰。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上堂。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則神。所以娑婆世界。以音聲為佛事。香積世界。以香飯為佛事。翠巖這裏。祇於出入息內。供養承事。過現未來塵沙諸佛。無一空過者。過現未來塵沙諸佛。是翠巖侍者。無一不到。如一不到。三十拄杖。諸上座。還會麼。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上堂。若見諸相非相。即山河大地。竝無過咎。諸上座。終日著衣喫飯。未嘗咬著一粒米。未曾挂著一縷絲。便能變大地作黃金。

攪長河為酥酪。雖然如是。著衣喫飯即不無。衲僧門下汗臭氣。也未夢見在。

○上堂。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衲僧道會也。山是山。水是水。飢來喫飯。困來打睡。忽然須彌山。[跳-兆+孛]跳入你鼻孔裏。摩竭魚穿你眼睛中。作麼生商量。良久曰。參堂去。

○小參。舉百丈歲夜示眾曰。你這一隊後生。經律論固是不知。入眾參禪。禪又不會。臘月三十日。且作麼生折合去。師曰。灼然諸禪德。去聖時遙。人心澹泊。看却今時叢林。更是不得所在之處。或聚徒三百五百。浩浩地。祇以飯食豐濃。寮舍穩便為旺化。中間孜孜。為道者無一人。設有十箇五箇。走上走下。半青半黃。會即總道我會。各各自謂握靈蛇之珠。孰肯知非。及乎挨拶。鞭逼將來。直是萬中無一。苦哉苦哉。所謂般若叢林歲歲凋。無明荒草年年長。就中今時後生。纔入眾來。便自端然拱手。受他別人供養。到處菜不擇一莖。柴不搬一束。十指不沾水。百事不干懷。雖則一期快意。爭奈三途累身。豈不見教中道。寧以熱鐵纏身。不受信心人衣。寧以洋銅灌口。不受信心人食。上座。若也是去。直饒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供養上座。未為分外。若也未是。至於滴水寸絲。便須披毛帶角。牽犁拽杷。償他始得。不見祖師道。入道不通理。復身還信施。此是決定底事。終不虛也。諸上座。光陰可惜。時不待人。莫待一朝眼光落地。緇田無一簣之功。鐵圍陷百刑之苦。莫言不道。珍重。

秀州本覺若珠禪師

僧問。如何是道。師舉起拳。僧曰。學人不會。師曰。拳頭也不識。

華嚴普孜禪師

僧問。如何是賓中賓。師曰。客路如天遠。曰如何是賓中主。師曰。侯門似海深。曰如何是主中主。師曰。寰中天子勅。曰如何是主中賓。師曰。塞外將軍令。乃曰。賓中問主。互換機鋒。主中問賓。同生同死。主中辨主。飲氣吞聲。賓中覓賓。白雲萬里。故句中無意。意在句中。於斯明得。一雙孤鴈。撲地高飛。於斯未明。一對鴛鴦。池邊獨立。知音禪客。相共證明。影響異流。切須子細。良久曰。若是陶淵明。攢眉便歸去。

瑯琊方銳禪師

上堂。造化無生物之心。而物物自成。雨露非潤物之意。而靈苗自榮。所以藥劑不食而病自損。良師不親而心自明。故知妙慧靈光。不從緣得。到這裏方許你進步。瑯琊與你別作箇相見。還有麼。若無。不可壓良為賤。

興陽希隱禪師

僧問。如何是懸崖撒手底句。師曰。明月照幽谷。曰如何是絕後再蘇底句。師曰。白雲生太虛。曰恁麼則樵夫出林丘。處處歌春色。師曰。是人道得。

石佛顯忠祖印禪師

僧問。如何是相生。師曰。山河大地。曰如何是想生。師曰。兔子望月。曰如何是流注生。師曰。無間斷(人天眼眼目三種生。石佛有頌)。

淨住居說禪師

參達觀。遂問曰。某甲經論粗明。禪直不信。願師決疑。觀曰。既不信禪。豈可明經。禪是經綱。經是禪網。提綱正網。了禪見經。師曰。為某甲說禪看。觀曰。向下文長。師曰。若恁麼。經與禪乃一體。觀曰。佛及祖非二心。如手搦拳。如拳搦手。師因而有省。

乃成偈曰。二十餘年用意猜。幾番曾把此心灰。而今潦倒逢知己。
李白元來是秀才。

節使李端愿居士

兒時在館舍常閱禪書。長雖婚官。然篤志祖道。遂於後圃築室。類蘭若。邀達觀處之。朝夕咨參。至忘寢食。觀一日視公曰。非示現力。豈致爾哉。奈無箇所入何。公問曰。天堂地獄。畢竟是有是無。請師明說。觀曰。諸佛向無中說有。眼見空華。太尉就有裏尋無。手攄水月。堪笑眼前見牢獄不避。心外聞天堂欲生。殊不知忻怖在心。善惡成境。太尉但了是心。自然無惑。公曰。心如何了。觀曰。善惡都莫思量。公曰。不思量後。心歸何所觀。曰且請太尉歸宅。公曰。祇如人死後。心歸何所。觀曰。未知生。焉知死。公曰。生則某已知之。觀曰。生從何來。公罔措。觀起搥其胷曰。祇在這裏。更擬思量箇甚麼。公曰。會得也。觀曰。作麼生會。公曰。祇知貪程。不知蹉路。觀拓開曰。百年一夢。今朝方省。既而說偈曰。三十八歲懵然無知。及其有知。何異無知。滔滔汴水。隱隱隋堤。師其歸矣。箭浪東馳。

西余淨端禪師

始見弄師子。發明心要。往見龍華。蒙印可。遂旋里。合彩為師子皮。時被之。因號端師子。上堂。二月二。禪翁有何謂。春風觸日百華開。公子王孫日日醺醺醉。唯有殿前陳朝檜。不入時人意。禪家流。祇這是。莫思慮。坦然齋後一甌茶。長連牀上伸脚睡。咄。

○師到華亭。眾請上堂。靈山師子。雲間哮吼。佛法無可商量。不如打箇筋斗。便下座。

大滄慕喆真如禪師

上堂。山僧本無積蓄。且得粥足飯足。困來即便打眠。一任東卜西卜。

○上堂。不用思而知。不用慮而解。廬陵米價高。鎮州蘿蔔大。

○上堂。古佛道。昔於波羅奈。轉四諦法輪。墮坑落壑。今復轉最妙無上大法輪。土上加泥。如今還有不歷階梯。獨超物外者麼。良久曰。出頭天外看。誰是箇中人。

○上堂。阿刺刺。是甚麼。翻思當年破竈墮。杖子忽擊著。方知孤負我。以拄杖擊香臺一下曰。墮墮。

穹窿圓禪師

上堂。福臻不說禪。無事日高眠。有問祖師意。連擲兩三拳。大眾。且道為甚麼如此。不合惱亂山僧睡。

興化紹清禪師

上堂。祖宗門下。佛法不存。善法堂前。仁義休說。然雖如是。事無一向。竊聞哀哀父母。生我劬勞。欲報深恩。昊天罔極。髮膚身體。弗敢毀傷。此魯仲尼之孝也。輪轉三界中。恩愛不能捨。棄恩入無為。真實報恩者。故我大覺世尊。雪山苦行。摩竭成道。往忉利天。為母說法。此釋迦之孝也。得大解脫。現大神通。手擎金錫。掌拓龍盂。詣地獄門。卓然尋省。見其慈母。悲泣無量。此目連之孝也。作麼生是興化之孝。良久曰。興化今日不上天堂。不入地獄。於善法堂中。燈王座上。為母說法。以報劬勞。且道我母即今在甚麼處。乃曰。我母生前足善緣。無勞問佛定生天。人間上壽古今少。九十春秋減一年。下座。敢煩大眾燒一炷香。以助山僧報孝。既是山僧之母。為甚麼却煩諸人燒香。不見道東家人死。西家人助哀。以手搥胸曰。蒼天蒼天。

智海道平禪師

上堂。山僧不會佛法。為人總沒來由。或時半開半合。或時全放全收。還如萬人叢裏冷地掉箇石頭。忽然打著一箇。方知觸處周流。

泐潭景祥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十箇指頭八箇丫。師嘗叉手夜坐。如對大賓。初坐手與趺綴。至五鼓。必齊膺。因號祥叉手。

光孝慧蘭禪師

嘗以觸衣書七佛名。叢林稱為蘭布裩。有擬草庵歌。具載普燈錄。

東林遵禪師

上堂。十五日巳前。放過一著。十五日巳後。未可商量。正當十五日。試道一句看。良久曰。山色翠穠春雨歇。柏庭香擁木蘭開。

潭州東明遷禪師

晚居瀉山。真如庵忠道者高其風。每扣之。一日閱首楞嚴次。忠問。如我按指。海印發光。佛意如何。師曰。釋迦老子好與二十棒。曰為甚麼如此。師曰。用按指作麼。曰汝暫舉心。塵勞先起。又作麼生。師曰。亦是海印發光。

慶善能禪師

上堂。事不獲巳。與諸人葛藤。一切眾生。祇為心塵未脫。情量不除。見色聞聲。隨波逐浪。流轉三界。汨沒四生。致使正見不明。觸途成滯。若也是非齊泯。善惡都忘。坐斷報化佛頭。截斷聖凡途路。到這裏方有少許相應。直饒如是。衲僧分上。未為奇特。何故如此。纔有是非。紛然失心。咄。

慶善隆禪師

上堂。花簇簇。錦簇簇。鹽醬年來事事足。留得南泉打破鍋。分付沙彌煮晨粥。晨粥一任諸人喫。洗鉢盂一句作麼生會。多少人疑著。

淨因躡庵繼成禪師

上堂。茫茫盡是覓佛漢。舉世難尋真道人。棒喝交馳成藥忌。了亡藥忌未天真。

○上堂。鼻裏音聲耳裏香。眼中鹹淡舌玄黃。意能覺觸身分別。冰室如春九夏涼。如斯見得。方知男子身中入定時。女子身中從定出。葵花隨日轉。犀紋翫月生。香楓化老人。螟蛉成蜾蠃。若也不知。苦哉佛陀耶。許你具隻眼。

○師同圓悟。法真慈受。并十大法師。禪講千僧。赴太尉陳公良弼府齋。時 徽宗皇帝。私幸觀之。太師魯國公亦與焉。有善華嚴者。乃賢首宗之義虎也。對眾問諸禪曰。吾佛設教。自小乘至於圓頓。掃除空有。獨證真常。然後萬德莊嚴。方名為佛。嘗聞禪宗一喝。能轉凡成聖。則與諸經論似相違背。今一喝若能入吾宗五教。是為正說。若不能入。是為邪說。諸禪視師。師曰。如法師所問。不足三大禪師之酬。淨因小長老。可以使法師無惑也。師召善。善應諾。師曰。法師所謂愚法小乘教者。乃有義也。大乘始教者。乃空義也。大乘終教者。乃不有不空義也。大乘頓教者。乃即有即空義也。一乘圓教者。乃不有而有。不空而空(或作空而不有有而不空)義也。如我一喝。非唯能入五教。至於工巧技藝。諸子百家。悉皆能入。師震聲喝一喝。問善曰。聞麼。曰聞。師曰。汝既聞。此一喝是有。能入小乘教。須臾又問善曰。聞麼。曰不聞。師曰。汝既不聞。適來一喝是無。能入始教。遂顧善曰。我初一喝。汝既道有。

喝久聲消。汝復道無。道無則元初實有。道有則而今實無。不有不無。能入終教。我有一喝之時。有非是有。因無故有。無一喝之時。無非是無。因無故無。即有即無。能入頓教。須知我此一喝。不作一喝用。有無不及。情解俱忘。道有之時。纖塵不立。道無之時。橫徧虛空。即此一喝。入百千萬億喝。百千萬億喝。入此一喝。是故能入圓教。善乃起再拜。師復謂曰。非唯一喝為然。乃至一語一默。一動一靜。從古至今。十方虛空。萬象森羅。六趣四生。三世諸佛。一切聖賢。八萬四千法門。百千三昧。無量妙義。契理契機。與天地萬物一體。謂之法身。三界唯心。萬法唯識。四時八節。陰陽一致。謂之法性。是故華嚴經云。法性徧在一切處。有相無相。一聲一色。全在一塵中含四義。事理無邊。周徧無餘。參而不雜。混而不一。於此一喝中。皆悉具足。猶是建化門庭。隨機方便。謂之小歇場。未至寶所。殊不知吾祖宗門下。以心傳心。以法印法。不立文字。見性成佛。有千聖不傳底。向上一路在。善又問曰。如何是向上一路。師曰。汝且向下會取。善曰。如何是寶所。師曰。非汝境界。善曰。望師慈悲。師曰。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善膠口而退。聞者靡不歎仰。皇帝顧謂近臣曰。禪宗玄妙。深極如此。淨因才辨。亦罕有也。近臣奏曰。此宗師之緒餘也。

開福哲禪師

上堂。山僧有三印。更無增減剩。覲面便相呈。能轉凡成聖。諸人還知麼。若也未知。不免重重註破。一印印空。日月星辰列下風。一印印泥。頭頭物物顯真機。一印印水。捩轉魚龍頭作尾。三印分明體一同。看來非赤又非紅。互換高低如不薦。青山依舊白雲中。

鴻福昇禪師

上堂。諸人恁麼上來。墮在見聞覺知。恁麼下去。落在動靜施為。若也不去不來。正是鬼窟活計。如何道得出身底句。若也道得。則分付拄杖子。若道不得。依而行之。卓拄杖下座。

萬壽素禪師

一日有僧來作禮。師問甚處來。曰和尚合知某來處。師曰。湖南擔屎漢。江西刈禾客。曰和尚真人天眼目。某在大滄充園頭。東林作藏主。師打三棒。喝出。

香山淵禪師

上堂。酒市魚行。頭頭寶所。鷓鳴鵲噪。一一妙音。卓拄杖曰。且道這箇是何佛事。狼籍不少。

寶峯景淳知藏

往依泐潭。入室次。潭問。陝府鐵牛重多少。師叉手近前曰。且道重多少。潭曰。尾在黃河北。頭枕黃河南。善財無鼻孔。依舊向南參。師擬議。潭便打。忽頓徹。巾侍有年。竟隱居林壑。嘗作偈曰。怕寒懶剃鬢鬆髮。愛暖頻添榻柶柴。破衲伽黎撩亂搭。誰能勞力彊安排。

蘆山法真禪師

上堂。欲明向上事。須具頂門眼。若具頂門眼。始契出家心。既契出家心。常具頂門眼。要會頂門眼麼。四京人著衣喫飯。兩浙人飽煖自如。通玄峯頂香風清。花發蟠桃三四株。

冶父道川禪師

上堂。舉雪峯一日登座。拈拄杖東觀曰。東邊底。又西觀曰。西邊底。諸人還知麼。擲下拄杖曰。向這裏會取。師曰。東邊觀了復西觀。拄杖重重話歲寒。帶雨一枝華落盡。不煩公子倚欄干。

(會元十二卷終)

禪宗正脉卷第六

音釋

[祝/土](側六切擣也刺也) 攄(力括切) 禡(音植) 糴(音崇) 嘎(所訝切聲破也) 趯(他歷切跳踊也) 饋(子旦切以羹澆飯也) 餽(色求切飯壞也) 獬豸(上火丸切野豕也下莫格切蠻 | 也) 漪(於宜切) [翟*支](丑角切 | 紮也) 沔(彌善切水出也) 墜(居的切未燒也) 岌(魚及切山高貌) 鬣(且代切帶鬚頭) 籬(古胡切篋束物也) 摑(仄加切助也) 搥(知鳩切右手 | 其胷襟也) 搨(初角切指也)

禪宗正脉卷第七

青原曹洞宗

洞山良价禪師

幼歲從師。念般若心經。至無眼耳鼻舌身意處。忽以手捫面。問師曰。某甲有眼耳鼻舌等。何故經言無。其師駭然異之曰。吾非汝師。即指往五洩山。禮默禪師披剃。年二十二。詣嵩山具戒。

【頌】首謁南泉。值馬祖諱辰修齋。泉問眾曰。來日設馬祖齋。未審馬祖還來否。眾皆無對。師出對曰。待有伴即來。泉曰。此子雖後生。甚堪雕琢。師曰。和尚莫壓良為賤。

【頌】次參滄山。問曰。頃聞南陽忠國師。有無情說法話。某甲未究其微。滄曰。闍黎莫記得麼。師曰記得。滄曰。汝試舉一徧看。師遂舉僧問。如何是古佛心。國師曰。墻壁瓦礫是。僧曰。墻壁瓦礫豈不是無情。國師曰是。僧曰。還解說法否。國師曰。常說。熾然說。無間歇。僧曰。某甲為甚麼不聞。國師曰。汝自不聞。不可妨他聞者也。僧曰。未審甚麼人得聞。國師曰。諸聖得聞。僧曰。和尚還聞否。國師曰。我不聞。僧曰。和尚既不聞。爭知無情解說法。國師曰。賴我不聞。我若聞。即齊於諸聖。汝即不聞我說法也。僧曰。恁麼則眾生無分去也。國師曰。我為眾生說。不為諸聖說。僧曰。眾生聞後如何。國師曰。即非眾生。僧曰。無情說法。據何典教。國師曰。灼然言不該典。非君子之所談。汝豈不見華嚴經云。剎說眾生說。三世一切說。師舉了。滄曰。我這裏亦有。祇是罕遇其人。師曰。某甲未明。乞師指示。滄豎起拂子曰。會麼。師曰不會。請和尚說。滄曰。父母所生口。終不為子說。師曰。還有與師同時慕道者否。滄曰。此去澧陵攸縣。石室相連。有雲巖道人。若能撥草瞻風。必為子之所重。師曰。未審此人如何。滄曰。他曾問老僧。學人欲奉師去時如何。老僧對他道。直須絕滲漏始

得。他道還得不違師旨也無。老僧道第一不得道老僧在這裏。師遂辭瀉山徑造雲巖。舉前因緣了。便問。無情說法甚麼人得聞。巖曰。無情得聞。師曰。和尚聞否。巖曰。我若聞。汝即不聞吾說法也。師曰。某甲為甚麼不聞。巖豎起拂子曰。還聞麼。師曰不聞。巖曰。我說法。汝尚不聞。豈況無情說法乎。師曰。無情說法。該何典教。巖曰。豈不見彌陀經云。水鳥樹林悉皆念佛念法。師於此有省。乃述偈曰。也大奇。也大奇。無情說法不思議。若將耳聽終難會。眼處聞時方得知。

○師問雲巖。某甲有餘習未盡。巖曰。汝曾作甚麼來。師曰。聖諦亦不為。巖曰。還歡喜也未。師曰。歡喜則不無。如糞掃堆頭。拾得一顆明珠。

【頌】師辭雲巖。巖曰。自此一別。難得相見。師曰。難得不相見。

【頌】師臨行又問。百年後。忽有人問。還邈得師真否。如何祇對。巖良久曰。祇者是。師沉吟。巖曰。价闍黎。承當箇事。大須審細。師猶涉疑。

【頌】師因過水睹影。大悟前旨。有偈曰。切忌從他覓。迢迢與我疎。我今獨自往。處處得逢渠。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應須恁麼會。方得契如如。

【頌】師因供養雲巖真次。僧問。先師道祇這是。莫便是否。師曰是。曰意旨如何。師曰。當時幾錯會先師意。曰未審先師還知有也無。師曰。若不知有。爭解恁麼道。若知有。爭肯恁麼道。

○師自唐大中末。於新豐山。接誘學徒。厥後。盛化豫章高安之洞山。權開五位。善接三根。大闡一音。廣弘萬品。橫抽寶劍。剪諸見之稠林。妙叶玄通。截萬端之穿鑿。又得曹山。深明的旨。妙唱

嘉猷。道合君臣。偏正回互。由是洞上玄風。播於天下。故諸方宗匠。咸共推尊之。曰曹洞宗。

○師因雲巖諱曰營齋。僧問。和尚於雲巖處。得何指示。師曰。雖在彼中。不蒙指示。曰既不蒙指示。又用設齋作甚麼。師曰。爭敢違背他。曰和尚初見南泉。為甚麼却與雲巖設齋。師曰。我不重先師道德佛法。祇重他不為我說破。曰和尚為先師設齋。還肯先師也無。師曰。半肯半不肯。曰為甚麼不全肯。師曰。若全肯即孤負先師也。

【評】【頌】僧問。寒暑到來如何回避。師曰。何不向無寒暑處去。曰如何是無寒暑處。師曰。寒時寒殺闍黎。熱時熱殺闍黎。

○上堂。還有不報四恩三有者麼。眾無對。又曰。若不體此意。何超始終之患。直須心心不觸物。步步無處所。常無間斷。始得相應。直須努力。莫閑過日。

【頌】師與泰首座冬節喫果子次。乃問。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似漆。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且道過在甚麼處。泰曰。過在動用中。(同安別云不知)師喚侍者。掇退果卓。

【頌】有僧不安。要見師。師遂往。僧曰。和尚何不救取人家男女。師曰。你是甚麼人家男女。曰某甲是大闡提人家男女。師良久。僧曰。四山相逼時如何。師曰。老僧日前也。向人家屋簷下過來。曰回互不回互。師曰。不回互。曰教某甲向甚麼處去。師曰。粟畚裏去。僧噓一聲曰珍重。便坐脫。師拄杖敲頭三下曰。汝祇解與麼去。不解與麼來。

○僧問。相逢不拈出。舉意便知有時如何。師乃合掌頂戴。

○問僧。作甚麼來。曰孝順和尚來。師曰。世間甚麼物最孝順。僧無對。

○上堂。有一人在千人萬人中。不背一人。不向一人。你道此人具何面目。雲居出曰。某甲參堂去。

○師有時曰。體得佛向上事。方有些子語話分。僧問。如何是語話。師曰。語話時闍黎不聞。曰和尚還聞否。師曰。不語話時即聞。

○問和尚出世幾人肯。師曰。竝無一人肯。曰為甚麼竝無一人肯。師曰。為他箇箇氣宇如王。

○師問講維摩經僧曰。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喚作甚麼語。曰讚法身語。師曰。喚作法身。早是讚也。

【頌】僧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曰。火後一莖茆。

【頌】問師尋常教學人行鳥道。師曰。不逢一人。曰如何行。師曰。直須足下無私去。曰祇如行鳥道。莫便是本來面目否。師曰。闍黎因甚顛倒。曰甚麼處是學人顛倒。師曰。若不顛倒。因甚麼却認奴作郎。曰如何是本來面目。師曰。不行鳥道。

○師與密師伯過水。乃問。過水事作麼生。伯曰。不濕脚。師曰。老老大大作這箇語話伯曰。你又作麼生。師曰。脚不濕。

○師洗鉢次。見兩烏爭蝦蟇。有僧便問。這箇因甚麼到恁麼地。師曰。祇為闍黎。

【頌】僧問。三身之中。阿那身不墮眾數。師曰。吾常於此切。(後有持此問曹山。先師道吾常於此切意作麼生。山云。要頭便斫去。又問雪峯。峯以拄杖劈口打云。我亦曾到洞山來)師作五位君臣頌曰。正中偏。三更初夜

月明前。莫怪相逢不相識。隱隱猶懷舊日嫌。偏中正。失曉老婆逢古鏡。分明覲面別無真。休更迷頭猶認影。正中來。無中有路隔塵埃。但能不觸當今諱。也勝前朝斷舌才。兼中至。兩刃交鋒不須避。好手猶如火裏蓮。宛然自有冲天志。兼中到。不落有無誰敢和。人人盡欲出常流。折合還歸炭裏坐。

○上堂。向時作(麼生。奉時作麼生。功時作)麼生。共功時作麼生。功功時作麼生。僧問。如何是向。師曰。喫飯時作麼生。曰如何是奉。師曰。背時作麼生。曰如何是功。師曰。放下鑊頭時作麼生。曰如何是共功。師曰。不得色。曰如何是功功。師曰不共。乃示頌曰。向聖主由來法帝堯。御人以禮曲龍腰。有時鬧市頭邊過。到處文明賀聖朝。(奉)淨洗濃粧為阿誰。子規聲裏勸人歸。百花落盡啼無盡。更向亂峯深處啼。(功)枯木花開劫外春。倒騎玉象趨麒麟。而今高隱千峯外。月皎風清好日辰。(共功)眾生諸佛不相侵。山自高兮水自深。萬別千差明底事。鷓鴣啼處百花新。(功功)頭角纔生已不堪。擬心求佛好羞慚。迢迢空劫無人識。肯向南詢五十三。

○師因曹山辭。遂囑曰。吾在雲巖先師處。親印寶鏡三昧。事窮的要。今付於汝。詞曰。如是之法。佛祖密付。汝今得之。宜善保護。銀盃盛雪。明月藏鷺。類之弗齊。混則知處。意不在言。來機亦赴。動成窠臼。差落顧佇。背觸俱非。如大火聚。但形文彩。即屬染污。夜半正明。天曉不露。為物作則。用拔諸苦。雖非有為。不是無語。如臨寶鏡。形影相覩。汝不是渠。渠正是汝。如世嬰兒。五相完具。不去不來。不起不住。婆婆和和。有句無句。終不得物語未正故。重離六爻。偏正回互。疊而為三。變盡成五。如莖草味。如金剛杵。正中妙挾。敲唱雙舉。通宗通塗。挾帶挾路。錯然則吉。不可犯汙。天真而妙。不屬迷悟。因緣時節。寂然昭著。細入無間。大絕方所。毫忽之差。不應律呂。今有頓漸。緣立宗趣。宗趣分矣。即是規矩。宗通趣極。真常流注。外寂中搖。係駒

伏鼠。先聖悲之。為法檀度。隨其顛倒。以緇為素。顛倒想滅。肯心自許。要合古轍。請觀前古。佛道垂成。十劫觀樹。如虎之缺。如馬之鼻。以為下劣。寶几珍御。以有驚異。狸奴白牯。羿以巧力。射中百步。箭鋒相直。巧力何預。木人方歌。石女起舞。非情識到。寧容思慮。臣奉於君。子順於父。不須非孝。不奉非輔。潛行密用。如愚若魯。但能相續。名主中主。

○師又曰。末法時代人多乾慧。若要辨驗真偽。有三種滲漏。一曰見滲漏。機不離位。墮在毒海。二曰情滲漏。滯在向背。見處偏枯。三曰語滲漏。究妙失宗。機昧終始。濁智流轉。於此三種。子宜知之。又綱要偈三首。一敲唱俱行偈曰。金針雙鎖備。叶路隱全該。寶印當風妙。重重錦縫開。二金鎖玄路偈曰。交互明中暗。功齊轉覺難。力窮忘進退。金鎖網鞵鞵。三不墮凡聖(亦名理事不涉)偈曰。事理俱不涉。回照絕幽微。背風無巧拙。電火爍難追。

【頌】問僧。世間何物最苦。曰地獄最苦。師曰不然。在此衣線下不明大事。是名最苦。

○問僧名甚麼。曰某甲。師曰。阿那箇是闍黎主人公。曰見祇對次。師曰。苦哉苦哉。今時人例皆如此。祇認得驢前馬後底將為自己。佛法平沉。此之是也。賓中主尚未分。如何辨得主中主。僧便問。如何是主中主。師曰。闍黎自道取。曰某甲道得即是賓中主。(雲居代云某甲道得不是賓中主)如何是主中主。師曰。恁麼道即易。相續也大難。遂示頌曰。嗟見今時學道流。千千萬萬認門頭。恰似入京朝聖主。祇到潼關便即休。

曹山本寂禪師

尋謁洞山。山問。闍黎名甚麼。師曰本寂。山曰。那箇響。師曰。不名本寂。山深器之。自此入室。盤桓數載。乃辭去。山遂密授洞

山宗旨。

【頌】復問曰。子向甚麼處去。師曰。不變異處去。山曰。不變異處豈有去邪。師曰。去亦不變異。

○遂往曹谿禮祖塔。回吉水。眾嚮師名。乃請開法。師志慕六祖。遂名山為曹。師因僧問五位君臣旨訣。師曰。正位即空界。本來無物。偏位即色界。有萬象形。正中偏者。背理就事。偏中正者。舍事入理。兼帶者。冥應眾緣。不墮諸有。非染非淨。非正非偏。故曰。虛玄大道。無著真宗。從上先德。推此一位。最好最玄。當詳審辨明。君為正位。臣為偏位。臣向君是偏中正。君視臣是正中偏。君臣道合是兼帶語。僧又問。如何是君。師曰。妙德尊寰宇。高明朗太虛。曰如何是臣。師曰。靈機弘聖道。真智利羣生。曰如何是臣向君。師曰。不墮諸異趣。凝情望聖容。曰如何是君視臣。師曰。妙容雖不動。光燭本無偏。曰如何是君臣道合。師曰。渾然無內外。和融上下平。師又曰。以君臣偏正言者。不欲犯中。故臣稱君不敢斥言是也。此吾法宗要。乃作偈曰。學者先須識自宗。莫將真際雜頑空。妙明體盡知傷觸。力在逢緣不借中。出語直教燒不著。潛行須與古人同。無身有事超岐路。無事無身落始終。復作五相(并偈)。[○@(? / —)] 白衣須拜相。此事不為奇。積代簪纓者。休言落魄時。[○@(— / ?)] 子時當正位。明正在君臣。未離兜率界。烏鷄雪上行。[○@●] 燄裏寒冰結。楊花九月飛。泥牛吼水面。木馬逐風嘶。○王宮初降日。玉兔不能離。未得無功旨。人天何太遲。●渾然藏理事。朕兆卒難明。威音王未曉。彌勒豈惺惺。

○稠布衲問。披毛帶角是甚麼墮。師曰。是類墮。曰不斷聲色是甚麼墮。師曰。是隨墮。曰不受食是甚麼墮。師曰。是尊貴墮。乃曰。食者即是本分事。知有不取。故曰。尊貴墮。若執初心。知有自己及聖位。故曰類墮。若初心知有己事。回光之時。擯却色聲香味觸法。得寧謐。即成功勳。後却不執六塵等事。隨分而昧。任之

則礙。所以外道六師。是汝之師。彼師所墮。汝亦隨墮。乃可取食。食者即是正命食也。亦是就六根門頭見聞覺知。祇是不被他染汙。將為墮。且不是同向前均他。本分事尚不取。豈況其餘事耶。師凡言墮。謂混不得。類不齊。凡言初心者。所謂悟了同未悟耳。師作四禁偈曰。莫行心處路。不挂本來衣。何須正恁麼。切忌未生時。

【頌】僧問。學人通身是病。請師醫。師曰不醫。曰為甚麼不醫。師曰。教汝求生不得。求死不得。

【頌】問五位對賓時如何。師曰。汝即今問那箇位。曰某甲從偏位中來。請師向正位中接。師曰不接。曰為甚麼不接。師曰。恐落偏位中去。師却問僧。祇如不接。是對賓是不對賓。曰早是對賓了也。師曰。如是如是。

○問三界擾擾。六趣昏昏。如何辨色。師曰。不辨色。曰為甚麼不辨色。師曰。若辨色即昏也。

【頌】師聞鐘聲。乃曰。阿啍阿啍。僧問。和尚作甚麼。師曰。打著我心。僧無對(五祖戒代云作賊人心虛)。

【頌】師問金峯志曰。作甚麼來。曰蓋屋來。師曰。了也未。曰這邊則了。師曰。那邊事作麼生。曰候下工日白和尚。師曰。如是如是。

○師一日入僧堂向火。有僧曰。今日好寒。師曰。須知有不寒者。曰誰是不寒者。師箴火示之。僧曰。莫道無人好。師拋下火。僧曰。某甲到這裏却不會。師曰。日照寒潭月更明。

○問幻本何真。師曰。幻本元真。(法眼別云幻本不真)曰當幻何顯。師曰。即幻即顯。(法眼別云幻即無當)曰恁麼則始終不離於幻也。師曰。

覓幻相不可得。

【頌】僧問。清稅(一作銳)孤貧。乞師賑濟。師召稅闍黎。稅應諾。師曰。清原白家酒三盞。喫了猶道未沾脣(玄覺云甚麼處是與他酒喫)。

【頌】鏡清問。清虛之理。畢竟無身時如何。師曰。理即如此。事作麼生。曰如理如事。師曰。謾曹山一人即得。爭奈諸聖眼何。曰若無諸聖眼。爭鑿得箇不恁麼。師曰。官不容針。私通車馬。

【頌】僧問。子歸就父。為甚麼父全不顧。師曰。理合如是。曰父子之恩何在。師曰。始成父子之恩。曰如何是父子之恩。師曰。刀斫不開。

【頌】問雪覆千山。為甚麼孤峯不白。師曰須知有異中異。曰如何是異中異。師曰。不墮諸山色。

【頌】問世間甚麼物最貴。師曰。死貓兒頭最貴。曰為甚麼死貓兒頭最貴。師曰。無人著價。

【頌】問僧作甚麼。曰掃地。師曰。佛前掃佛後掃。曰前後一時掃。師曰。與曹山過鞞鞋來。

【頌】僧問。抱璞投師。請師雕琢。師曰。不雕琢。曰為甚麼不雕琢。師曰。須知曹山好手。

【頌】紙衣道者來參。師問。莫是紙衣道者否。者曰不敢。師曰。如何是紙衣下事。者曰。一裘纔挂體。萬法悉皆如。師曰。如何是紙衣下用。者近前應諾。便立脫。師曰。汝祇解恁麼去。何不解恁麼來。者忽開眼問曰。一靈真性。不假胞胎時如何。師曰。未是妙。者曰。如何是妙。師曰。不借借。者珍重便化。師示頌曰。覺性圓明無相身。莫將知見妄疎親。念異便於玄體昧。心差不與道為

隣。情分萬法沉前境。識鑿多端喪本真。如是句中全曉會。了然無事昔時人。

【頌】師問強上座曰。佛真法身。猶若虛空。應物現形。如水中月。作麼生說箇應底道理。曰如驢覷井。師曰。道則太煞道祇道得八成。曰和尚又如何。師曰。如井覷驢。

【頌】陸亘大夫。問南泉姓甚麼。泉曰姓王。曰王還有眷屬也無。泉曰。四臣不昧。曰王居何位。泉曰。玉殿苔生。後僧舉問師。玉殿苔生意旨如何。師曰。不居正位。曰八方來朝時如何。師曰。他不受禮。曰何用來朝。師曰。違則斬。曰違是臣分上。未審君意如何。師曰。樞密不得旨。曰恁麼則燮理之功全歸臣相也。師曰。你還知君意麼。曰外方不敢論量師曰。如是如是。

【頌】僧問香巖。如何是道。巖曰。枯木裏龍吟。曰如何是道中人。巖曰。髑髏裏眼睛。(玄沙別云龍藏枯木)僧不領乃問石霜。如何是枯木裏龍吟。霜曰。猶帶喜在。曰如何是髑髏裏眼睛。霜曰。猶帶識在。又不領乃問師。如何是枯木裏龍吟。師曰。血脉不斷。曰如何是髑髏裏眼睛。師曰。乾不盡。曰未審還有得聞者麼。師曰。盡大地未有一人不聞。曰未審枯木裏龍吟。是何章句。師曰。不知是何章句。聞者皆喪。遂示偈曰。枯木龍吟真見道髑髏無識眼初明。喜識盡時消息盡。當人那辨濁中清。

【頌】問朗月當空時如何。師曰。猶是堦下漢。曰請師接上堦。師曰。月落後來相見。

【頌】問靈衣不挂時如何。師曰。曹山孝滿曰孝滿後如何。師曰。曹山好顛酒。

雲居道膺禪師

遊方至翠微問道會有僧自豫章來。盛稱洞山法席。師遂造焉。山問甚處來。師曰。翠微來。山曰。翠微有何言句示徒。師曰。翠微供養羅漢。某甲問供養羅漢。羅漢還來否。微曰。你每日嚏箇甚麼。山曰。實有此語否。師曰有。山曰。不虛參見作家來。山問汝名甚麼。師曰。道膺。山曰。向上更道。師曰。向上即不名道膺。山曰。與老僧祇對道吾底語一般。

【頌】南泉問僧講甚麼經。曰彌勒下生經。泉曰。彌勒幾時下生。曰見在天宮。當來下生。泉曰。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師問洞山。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未審誰與安名。山被問。直得禪牀震動。乃曰。膺闍黎吾在雲巖曾問老人直得火爐震動。今日被子一問。直得通身汗流。

○師後結庵于三峯。經旬不赴堂。山問。子近日何不赴齋。師曰。每日自有天神送食。山曰。我將謂汝是箇人。猶作這箇見解在。汝晚間來。師晚至。山召膺庵主。師應諾。山曰。不思善不思惡是甚麼。師回庵寂然宴坐。天神自此竟尋不見。如是三日乃絕。

○上堂。得者不輕微。明者不賤用。識者不咨嗟。解者無厭。惡從天降下則貧窮從地湧出則富貴。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動則埋身千丈。不動則當處生苗。一言迴脫。獨拔當時。言語不要多。多則無用處。僧問。如何是從天降下則貧窮。師曰。不貴得。曰如何是從地湧出則富貴師曰。無中忽有。

○僧問如何是一法。師曰。如何是萬法曰未審如何領會。師曰。一法是你本心。萬法是你本性。且道心與性。是一是二。僧禮拜。師示頌曰。一法諸法宗。萬法一法通。唯心與唯性。不說異兼同。

○師曾令侍者送袴與一住庵道者。道者曰。自有孃生袴。竟不受師再令侍者問。孃未生時著箇甚麼。道者無語後遷化。有舍利。持似

於師。師曰。直饒得八斛四斗。不如當時下得一轉語好。

○僧問。山河大地。從何而有。師曰。從妄想有。曰與某甲想出一錠金得麼。師便休去。僧不肯(雲門云。已是葛藤。不能折合待伊道想出一錠金得麼。拈拄杖便打)。

【頌】上堂。如人將三貫錢。買箇獵狗。祇解尋得有。蹤跡底。忽遇羚羊挂角。莫道蹤跡。氣息也無。僧問羚羊挂角時如何。師曰。六六三十六。曰挂角後如何。師曰。六六三十六。僧禮拜。師曰。會麼。曰不會。師曰。不見道無蹤跡。其僧舉似趙州州曰。雲居師兄猶在。僧便問。羚羊挂角時如何。州曰。九九八十一。曰得恁麼難會。州曰。有甚麼難會。曰請和尚指示。州曰。新羅新羅。又問。長慶羚羊挂角時如何。慶曰。草裏漢。曰挂後如何。慶曰。亂叫喚。曰畢意如何。慶曰。驢事未去。馬事到來。

○僧問。教中道。是人先世罪業。應墮惡道。以今世人輕賤故。此意如何。師曰。動則應墮惡道。靜則為人輕賤(崇壽稠別云。心外有法應墮惡道守住自己。為人輕賤)。

【頌】有僧在房內念經師隔窻問。闍黎念者是甚麼經。僧曰。維摩經。師曰。不問維摩經。念者是甚麼經。其僧從此得入。

【頌】新羅僧問。是甚麼得恁麼難道。師曰。有甚麼難道。曰便請和尚道。師曰。新羅新羅。

○上堂。僧家發言吐氣。須有來由。莫將等閒這裏是甚麼所在。爭受容易。凡問箇事也須識些子好惡。若不識尊卑良賤。不知觸犯。信口亂道。也無利益。傍家行脚。到處覓相似語。所以尋常向兄弟道莫恠不相似。恐同學太多去第一莫將來。將來不相似。言語也須看前頭。八十老人入場屋。不是小兒嬉。不是因循事。一言參差。即千里萬里難為取攝。蓋為學處不著力。敲骨打髓。須有來由。言

語如鉗如夾。如鉤如鎖。須教相續不斷。始得頭頭上具。物物上明。豈不是得妙底事。一種學。大須子細研窮直須諦。當的的無差。到這裏有甚麼蹉跎處。有甚麼擬議處。向去底人。常須慘悚戢翼始得。若是知有底人。自解護惜。終不取次。十度發言九度休去。為甚麼如此。恐怕無利益。體得底人。心如臘月扇子。直得口邊醜出。不是強為任運如此。欲得恁麼事。須是恁麼人。既是恁麼人。不愁恁麼事。恁麼事。即難得。

○上堂。汝等諸人。直饒學得佛邊事早是錯用心。不見古人講得天華落。石點頭。亦不干自己事。自餘是恁麼閑。

○擬將有限身心。向無限中用如將方木逗圓孔多少譎訛。若無恁麼事。饒你攢華簇錦。亦無用處。未離情識在。一切事須向這裏及盡若有一毫去不盡。即被塵累豈況更多。差之毫釐過犯山嶽。不見古人道學處不玄盡是流俗。閨閣中物捨不得。俱為滲漏直須向這裏及取。及去。及來。併盡一切事。始得無過。如人頭頭上了。物物上通。祇喚作了事人。終不喚作尊貴。將知尊貴一路自別。不見道從門入者非寶。捧上不成龍。知麼。

【頌】僧問僧家畢竟如何。師曰。居山好。僧禮拜師曰。你作麼生會。曰僧家畢竟於善惡生死逆順境界。其心如山不動。師乃打曰。孤負先聖。喪我兒孫。又問傍僧。你作麼生會。僧禮拜曰。僧家畢竟眼不觀玄黃之色。耳不聽絲竹之聲。師曰。孤負先聖喪我兒孫。
(黃龍南云。作麼生道得。一句。不孤負先聖。喪我兒孫。若人道得。到處青山無非道場。若道不得。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增收】。

疎山匡仁禪師

造洞山。師問一切處不乖時如何山曰。闍黎此是功勳邊事。幸有無功之功。子何不問。師曰。無功之功。豈不是那邊人。山曰。大有

人笑子恁麼問。師曰。恁麼則迢然去也。山曰。迢然非迢然。非不迢然。師曰。如何是迢然。山曰。喚作那邊人即不得。師曰。如何是非迢然。山曰。無辨處。

○山問師。空劫無人家。是甚麼人住處。師曰。不識。山曰。人還有意旨也無。師曰。和尚何不問他。山曰。現問次。師曰。是何意旨山不對。洎洞山順世。弟子禮終乃到潭州大漚。值漚示眾曰。行脚高士。直須向聲色裏睡眠。聲色裏坐臥。始得師出問。如何是不落聲色句。漚豎起拂子。師曰。此是落聲色句。漚放下拂子歸方丈。師不契便辭香巖。巖曰。何不且住。師曰。某甲與和尚無緣。巖曰。有何因緣。試舉看。師遂舉前話。巖曰。某甲有箇語。師曰。道甚麼。巖曰。言發非聲。色前不物。師曰。元來此中有人。遂囑香巖曰。向後有住處。某甲却來相見。乃去。漚問巖曰。問聲色話底矮閣黎在麼。巖曰。已去也。漚曰。曾舉向子麼巖曰。某甲亦曾對他來。漚曰。試舉看。巖舉前語。漚曰。他道甚麼巖曰。深肯某甲。漚失笑曰。我將謂這矮子有長處。元來祇在這裏。此子向去。若有箇住處。近山無柴燒。近水無水喫。

○師聞福州大漚安和尚示眾曰。有句無句。如藤倚樹。師特入嶺到彼。值漚泥壁。便問承聞和尚道有句無句。如藤倚樹。是否。漚曰是。師曰。忽遇樹倒藤枯句歸何處。漚放下泥槃。呵呵大咲歸方丈。師曰。某甲三千里賣却布單。特為此事。而來。和尚何得相弄。漚喚侍者取二百錢與這上座去。遂囑曰。向後有獨眼龍。為子點破在。漚山次日上堂。師出問。法身之理。理絕玄微。不奪是非之境猶是法身邊事。如何是法身向上事。漚舉起拂子。師曰。此猶是法身邊事。漚曰。如何是法身向上事。師奪拂子摺折。擲向地上。便歸眾漚曰。龍蛇易辨。釋子難瞞。

○師後聞。婺州明招謙和尚出世。(謙眇一自)徑往禮拜。招問甚處來。師曰。閩中來招曰。曾到大漚否。師曰。到招曰。有何言句。

師舉前話。招曰。為山可謂頭正尾正。祇是不遇知音。師亦不省。復問忽遇樹倒藤枯。句歸何處。招曰。却使為山笑轉新。師於言下大悟。乃曰。為山元來笑裏有刀。遙空禮拜。悔過。

【頌】招一日問。虎生七子。那箇無尾巴。師曰。第七箇無尾巴(頌古見明招謙章內)。

○師到夾山。山上堂。師問。承師有言。目前無法。意在目前。如何是。非目前法。山曰。夜月流輝。澄潭無影。師作掀禪牀勢。山曰。闍黎作麼生。師曰。目前無法。了不可得。山曰。大眾看取這一員戰將。

【頌】師後遷疎山。上堂。病僧咸通年前。會得法身邊事。咸通年後。會得法身向上事。雲門出問。如何是法身邊事。師曰。枯椿。曰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非枯椿。曰還許某甲說道理也無。師曰。許曰枯椿豈不是明法身邊事。師曰是。曰非枯椿豈不是明法身向上事。師曰是。曰祇如法身還該一切也無。師曰。法身周徧。豈得不該。門指淨瓶曰。祇如淨瓶還該法身麼。師曰。闍黎莫向淨瓶邊覓。門便禮拜。

○師問鏡清。肯諾不得全。子作麼生會。清曰。全歸肯諾。師曰。不得全又作麼生清曰。箇中無肯路師曰。始愜病僧意。

【頌】有僧為師造壽塔畢。白師。師曰。將多少錢與匠人。曰一切在和尚。師曰。為將三錢與匠人。為將兩錢與匠人。為將一錢與匠人。若道得。與吾親造塔來。僧無語。後僧舉似大嶺庵閑和尚。(即羅山也)嶺曰。還有人道得麼。僧曰。未有人道得嶺曰。汝歸與疎山道。若將三錢與匠人。和尚此生決定不得塔。若將兩錢與匠人和尚與匠人共出一隻手。若將一錢與匠人。累他匠人眉鬚墮落。僧回。如教而說師具威儀。望大嶺作禮歎曰。將謂無人。大嶺有古佛放光

射到此間。雖然如是也是。臘月蓮華。大嶺後聞此語。曰我恁麼道
早是龜毛長三尺。

【頌】僧問。如何是諸佛師。師曰。何不問疎山老漢僧無對。

【頌】師常握木蛇。有僧問手中是甚麼。師提起曰。曹家女。

【頌】冬至上堂。僧問如何是冬來意。師曰。京師出大黃。

青林師虔禪師

上堂。祖師門下。烏道玄微。功窮皆轉。不究難明。汝等諸人。直
須離心意識參。出凡聖路學。方可保任。若不如是。非吾子息。

高安白水仁禪師

因設先洞山忌齋僧問供養先師先師還來也無。師曰。更下一分供養
著。

【頌】上堂。老僧尋常不欲向聲前色後。鼓弄人家男女。何故。且
聲不是聲。色不是色。僧問。如何是聲不是聲。師曰。喚作色得
麼。曰如何是色不是色。師曰。喚作聲得麼。僧作禮。師曰。且道
為汝說。答汝話。若向這裏會得。有箇入處。

○僧問。如何是不遷義。師曰。落花隨流水。明月上孤峯。

白馬儒禪師

僧問如何是學人本分事。師曰。昨夜三更月正午。問如何是法身向
上事。師曰。井底蝦蟇吞却月。

龍牙居遁禪師

【評】【頌】師問翠微。如何是祖師意微曰。與我將禪板來。師遂過禪板。微接得便打。師曰。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又問臨濟。如何是祖師意濟曰與我將蒲團來。師乃過蒲團。濟接得便打。師曰。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後有僧問。和尚行脚時。問二尊宿祖師意未審二尊宿明也未。師曰。明即明也。要且無祖師意。

【頌】師復舉德山頭落底語。因自省過遂止于洞山隨眾參請。一日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曰。待澗水逆流。即向汝道。師始悟厥旨。

○上堂。夫參玄人。須透過祖佛始得。新豐和尚道。祖佛言教。似生冤家。始有參學分。若透不得。即被祖佛謾去。僧問。祖佛還有謾人之心也無。師曰。汝道江湖還有礙人之心也無。乃曰。江湖雖無礙人之心。為時人過不得。江湖成礙人去。不得道江湖不礙人。祖佛雖無謾人之心。為時人透不得。祖佛成謾人去。不得道祖佛不謾人。若透得祖佛過。此人過却祖佛。若也如是。始體得佛祖意方與向上人同。如未透得。但學佛學祖則萬劫無有出期僧曰。如何得不被祖佛謾去。師曰。道者直須自悟去始得。

【頌】問十二時中如何著力。師曰。如無手人欲行拳始得。

【頌】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待石烏龜解語即向汝道。曰石烏龜語也。師曰。向汝道甚麼。

【頌】問古人得箇甚麼。便休去。師曰。如賊入空室。

○問如何是西來意。師曰。此一問最苦(報慈云此一問最好)。

華嚴靜禪師

在洛浦作維那時。一日白槌普請曰。上間搬柴。下間鋤地。第一座問聖僧作甚麼師曰。當堂不正坐。不赴兩頭機。

○師問洞山。學人無箇理路。未免情識運為。山曰汝還見有理路也無。師曰。見無理路。山曰。甚處得情識來。師曰。學人實問。山曰。恁麼則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師曰。萬里無寸草處還許某甲去也無。山曰直須恁麼去。

○後唐莊宗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探盡龍宮藏。眾義不能詮。

九峯滿禪師

僧問。人人盡道請益。未審師還拯濟也無師曰。汝道巨嶽還乏寸土麼。曰四海參尋當為何事。師曰。演若迷頭心自狂。曰還有不狂者也無。師曰。有。曰如何是不狂者。師曰。突曉途中眼不開。

【頌】問僧近離甚處。曰閩中。師曰。遠涉不易。曰不難。動步便到。師曰。有不動步者麼曰有。師曰。爭得到此間。僧無對。師以拄杖趨出。

○僧問古人道。真因妄立從妄顯真是否。師曰是。曰如何是真。師曰。不雜食。曰如何是妄。師曰。起倒攀緣。曰去此二途。如何合得圓常。師曰。不敬功德天。誰嫌黑暗女。

北院通禪師

上堂。諸上座。有甚麼事。出來論量取。若上上根機不假如斯。若是中下之流。直須剗削門頭戶底。教索索地莫教入泥水。第一速須省事。直須無心去。學得千般萬般祇成知解。與衲僧門下。有甚麼交涉。

洞山全禪師

問先洞山。如何是出離之要。山曰。闍黎足下煙生。師當下契悟。更不他遊雲居進語曰。終不敢孤負和尚足下煙生。山曰。步步玄者。即是功到。

【頌】僧問清淨行者。不入涅槃。破戒比丘。不入地獄時如何。師曰。度盡無遺影。還他越涅槃(頌見聯珠集第一卷)。

京兆蜆子和尚

【頌】混俗闍川。不畜道具。不循律儀。冬夏唯披一衲。逐日沿江岸採掇蝦蜆。以充其腹。暮即宿東山白馬廟紙錢中。居民日為蜆子和尚。華嚴靜禪師聞之。欲決真假。先潛入紙錢中。深夜師歸。嚴把住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遽答曰。神前酒臺盤。嚴放手曰。不虛與我同根生。

幽棲道幽禪師

鏡清問。如何是少父。師曰。無標的。曰無標的。以為少父邪。師曰。有甚麼過。曰祇如少父作麼生。師曰。道者是甚麼心行。

【頌】一日歛鐘上堂。大眾纔集師乃問。甚麼人打鐘。僧曰。維那。師曰。近前來。僧近前。師遂打一掌。却歸方丈臥【增收】。

越州乾峯和尚

【頌】上堂。法身有三種病。二種光。須是一一透得。始解歸家穩坐。須知更有向上一竅在。雲門出問。庵內人為甚麼不知庵外事。師呵呵大咲。門曰。猶是學人疑處。師曰。子是甚麼心行。門曰。也要和尚相委。師曰。直須與麼。始解穩坐。門應諾諾。

【頌】上堂。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雲門出眾曰。昨日有人從天台來却往徑山去。師曰。典座來日不得普請。便下

座。

【頌】僧問。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甚麼處。師以拄杖畫云。在這裏(僧後請益雲門。門拈起扇子云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帶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傾盆。會麼)。

吉州禾山和尚

僧問。學人欲伸一問。師還答否。師曰。禾山答汝了也。

天童啟禪師

【頌】簡大德問。學人卓卓上來。請師的的。師曰。我這裏一屙便了。有甚麼卓卓的的。曰和尚恁麼答話更買草鞋行脚好。師曰。近前來。簡近前。師曰。祇如老僧恁麼答過在甚麼處簡無對。師便打。

欽山文邃禪師

【頌】師與巖頭雪峯同到德山。一日問德山曰。天皇也恁麼道。龍潭也恁麼道。未審和尚作麼生道山曰。汝試舉天皇龍潭道底看師擬進語。山便打。師被打。歸延壽堂曰。是則是。打我太煞。巖頭曰。汝恁麼道。他後不得道見德山來(法眼別云是則是。錯打我)。

○師與巖頭雪峯坐次。洞山行茶來。師乃開眼。洞曰。甚麼處去來。曰入定來洞曰。定本無門。從何而入。

○師與巖頭雪峯過江西。到一茶店喫茶次。師曰。不會轉身通氣者。不得茶喫。頭曰。若恁麼。我定不得茶喫峯曰。某甲亦然。師曰。這兩箇老漢。話頭也不識頭曰。甚處去也。師曰。布袋裏老鴉。雖活如死。頭退後曰。看看。師曰。穢公且置存公作麼生。峯

以手畫一圓相。師曰。不得不問。頭呵呵曰太遠生。師曰。有口不得茶喫者多。

【評】【頌】巨良禪客參。禮拜了。便問。一鏃破三關時如何。師曰。放出關中主看。良曰。恁麼則知過必改。師曰。更待何時。良曰。好隻箭。放不著所在。便出去。師曰。且來闍黎。良回首。師下禪牀擒住曰。一鏃破三關即且置。試為欽山發箭看良擬議。師打七棒曰。且聽箇亂統漢。疑三十年。有僧舉似同安察。安曰。良公雖解發箭。要且未中的。僧便問。未審如何得中的去安曰關中主是甚麼人。僧回舉似師。師曰。良公若解恁麼。也免得欽山口。然雖如此同安不是好心。亦須看始得。

洞山延禪師

因曹山垂語云。有一人向萬丈崖頭。騰身直下。此是甚麼人。眾無對。師出曰不存。山曰。不存箇甚麼。師曰。始得撲不碎。山深肯之。

金峯從志禪師

【頌】拈起枕头示僧曰。一切人喚作枕头。金峯道不是。僧曰。未審和尚喚作甚麼。師拈起枕头。僧曰。恁麼則依而行之。師曰。你喚作甚麼。僧曰。枕头。師曰。落在金峯窠裏。

【頌】僧問。是身無知。如土木石。此意如何。師下禪牀扭僧耳朵。僧負痛作聲。師曰。今日始捉著箇無知漢。僧作禮出去。師召闍黎。僧回首。師曰。若到堂中不可舉著。曰何故。師曰。大有人笑金峯老婆心。

○上堂。老僧二十年前有老婆心。二十年後無老婆心。僧問。如何是二十年前有老婆心。師曰。問凡答凡。問聖答聖。曰如何是二十

年後無老婆心。師曰。問凡不答凡。問聖不答聖。

【頌】僧問。四海晏清時如何。師曰。猶是階下漢。

鹿門真禪師

上堂。一片凝然光燦爛擬意追尋卒難見。瞥然撞著豁人情。大事分明總成辦。實快活。無繫絆。萬兩黃金終不換。任他千聖出頭來。總是向渠影中現。

曹山霞禪師

【頌】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曰。曹山不如。曰出世後如何。師曰。不如曹山。

【頌】僧侍立。師曰。道者可煞熱曰是。師曰。祇如熱向甚處回避。曰向鑊湯鑪炭裏回避。師曰。祇如鑊湯鑪炭又作麼生回避。曰眾苦不能到。

曹山(亦名荷玉)光慧禪師

【頌】僧問。如何是西來的的意。師曰。不禮拜。更待何時。

○上堂。舉拄杖曰。從上皆留此一路。方便接人。有僧出曰。和尚又是從頭起也。師曰。謝相委悉。

曹山智炬禪師

初問先曹山曰。古人提起那邊人學人如何體悉。山曰。退步就己。萬不失一。師於言下頓忘玄解。乃辭去。徧參。至三祖。因看經次。僧問禪僧心不挂元字脚。何得多學。師曰。文字性異。法法體空。迷則句句瘡疣悟則文文般若。苟無取捨何害圓伊。

育王通禪師

【頌】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渾身不直五文錢。曰太貧寒生。師曰。古代如是。曰如何施設。師曰。隨家豐儉。

鳳棲同安丕禪師

【頌】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金雞抱子歸霄漢。玉兔懷胎入翠微。曰忽遇客來。將何祇待。師曰。金果朝來猿摘去。玉花晚後鳳銜歸。

○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未審將甚麼對。師曰。要踢要拳。

○問纔有言詮盡落今時。不落言詮。請師直說。師曰。木人解語非干舌。石女拋梭豈亂絲。

【頌】問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此理如何。師曰。孤峯迴秀。不挂煙蘿。片月行空。白雲自在。

○新到參。師問甚處來。曰湖南。師曰。還知同安這裏。風雲體道。花檻璇璣麼。曰知。師曰。非公境界。僧便喝。師曰。短販樵人徒誇書劍。僧擬進語。師曰。劍甲未施賊身已露。

歸宗懷惲禪師

【頌】僧問。截水停輪時如何師曰。磨不轉。曰如何是磨不轉。師曰。不停輪。

嵇山章禪師

在投子作柴頭。投子同喫茶次。謂師曰。森羅萬象。總在裏許。師潑却茶曰。森羅萬象在甚麼處。子曰可惜一碗茶。

雲居懷嶽禪師

僧問。如何是大圓鏡。師曰。不鑿照。曰忽遇四方八面來時作麼生。師曰。胡來胡現。漢來漢現。曰大好不鑿照師便打。

杭州佛日本空禪師

【頌】參夾山。山一日普請。維那令師送茶。師曰。某甲為佛法來。不為送茶來。那曰。奉和尚處分。師曰。和尚尊命即得乃將茶去作務處。搖茶甌作聲。山回顧。師曰。釃茶三五盞意在鑊頭邊。山曰餅有傾茶勢。籃中幾箇甌。師曰。餅有傾茶勢。籃中無一甌。便行茶。時眾皆舉目。師曰。大眾鶴望請師一言。山曰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師曰。手執夜明符。幾個知天曉。山曰。大眾有人也。歸去來。歸去來。遂住普請眾皆仰歎。

永光真禪師

上堂。言鋒若差。鄉關萬里。直須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蘇欺君不得。非常之旨。人焉廋哉。

朱谿謙禪師

【頌】韶國師到參次。聞犬咬靈鼠聲國師便問是甚麼聲。師曰。犬齧靈鼠聲。國師曰。既是靈鼠為甚麼却被犬咬。師曰。咬殺也國師曰好箇犬。師便打國師曰。莫打某甲。話在。師休去。

雲居簡禪師

僧問。維摩豈不是金粟如來。師曰是。曰為甚麼却在釋迦。會下聽法。師曰。他不擔人我。

【頌】問路逢猛虎時如何。師曰。千人萬人不逢。為甚麼闍黎偏逢。

【頌】問孤峯獨宿時如何。師曰。閑却七間僧堂不宿阿誰教汝孤峯獨宿。

新羅雲住和尚

【頌】僧問。如何是諸佛師。師曰。文殊聳耳【增收】。

護國守澄淨果禪師

上堂。諸方老宿盡在曲条木牀上為人。及有問著祖師西來意。未曾有一人當頭道著。時有僧問請和尚當頭道。師曰。河北驢鳴。河南犬吠。

【頌】問鶴立枯松時如何。師曰。地下底一場懨懨。問會昌沙汰時。護法善神向甚麼處去。師曰。三門前兩箇一場懨懨。問滴水滴凍時如何。師曰。日出後一場懨懨。

靈泉歸仁禪師

初問疎山。枯木生花。始與他合。是這邊句。是那邊句。山曰。亦是這邊句。師曰。如何是那邊句。山曰。石牛吐出三春霧。靈雀不棲無影林。

○僧問。如何是沙門行。師曰。恰似箇屠兒。曰如何行履。師曰。破齋犯戒。曰究竟作麼生。師曰。因不收。果不入。

○俗士問俗人還許會佛法否。師曰。那箇臺無月。誰家樹不春。

疎山證禪師

謁投子子問近離甚處。曰延平。子曰。還將得劔來麼曰。將得來。子曰呈似老僧看。師乃指面前地。子便休至晚問侍者新到在麼。者曰。當時去也子曰。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撲。

○僧問。親切處。乞一言。師以拄杖敲之僧曰。為甚麼不道。師曰。得恁麼不識好惡。

百丈安禪師

僧問。如何是極則處。師曰。空王殿裏登九五。野老門前不立人。

黃檗慧禪師

少出家業經論。因增受菩薩戒而歎曰。大士攝律儀與吾。本受聲聞戒。俱止持作犯也。然於篇聚增減支本通別。制意且殊。既微細難防。復於攝善中。未嘗行於少分。況饒益有情乎。且世間泡幻身命。何可留戀哉。由是置講課。欲以身捐於水中。飼鱗甲之類。念已將行。偶二禪者接之款話。說南方頗多知識。何滯於一隅。師從此回志直造疎山。

【頌】時仁和尚坐法堂受參。師先顧視大眾然後致問曰。剎那便去時如何。山曰。逼塞虛空。汝作麼生去。師曰。逼塞虛空不如不去。山便休師下堂參第一座。座曰。適來祇對甚奇特。師曰。此乃率爾。敢望慈悲。開示愚昧。座曰。一剎那間還有擬議否。師於言下頓悟。

伏龍璘禪師

僧問。和尚還愛財色也無。師曰。愛曰既是善知識為甚麼却愛財色。師曰。知恩者少。

○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長齋冷飯。曰太寂寞生。師曰。僧家合如是。

京兆三相和尚

僧問。如何是無縫塔。師曰。覓縫不得。曰如何是塔中人。師曰。對面不相見。

廣德延禪師

【頌】僧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無力登山水。茅戶絕知音。

石門蘊禪師

初問青林如何用心。得齊於諸聖林仰面良久曰。會麼。師曰不會。林曰。去無子用心處。師禮拜。乃契悟。更不他遊。遂作園頭。一日歸侍立次。林曰。子今日作甚麼來。師曰。種菜來。林曰。徧界是佛身。子向甚處種。師曰。金鋤不動土。靈苗在處生。林欣然。來日入園。喚蘊闍黎。師應諾。林曰。剩栽無影樹。留與後人看。師曰。若是無影樹。豈受栽耶。林曰。不受栽且止。你曾見他枝葉麼。師曰。不曾見。林曰。既不曾見爭知不受栽。師曰。祇為不曾見。所以不受栽。林曰。如是如是。

○僧問。如如不動時如何。師曰。有甚麼了日。曰如何即是。師曰。石戶非關鎖。

【頌】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物外獨騎千里象。萬年松下擊金鐘【增收】（師應機多云。好大哥。時稱大哥和尚）。

龍光譚禪師

僧問。賓頭盧一身。為甚麼赴四天下供師曰。千江同一月。萬里盡逢春。遂有偈曰。龍光山頂寶月輪。照耀乾坤爍暗雲。尊者不移元一質。千家影現萬家春。

石藏炬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樹帶滄浪色。山橫一抹青。

重雲暉禪師

創溫室院。常施水給藥為事。

○僧問。要路坦然。如何踐履。師曰。我若指汝。則東西南北去也。

瑞龍璋禪師

上堂。老僧頃年。遊歷江外。嶺南荆湖。但有知識叢林。無不參問來。蓋為今日與諸人聚會各要知箇去處。然諸方。終無異說。祇教當人歇却狂心。休從他覓但隨方任真。亦無真可任。隨時受用。亦無時可用。設垂慈苦口。且不可呼晝作夜。更饒善巧。終不能指東為西脫或能爾自是神通作怪。非干我事。若是學語之流。不自省己知非。直欲向空裏採花。波中取月。還著得心力麼。汝今各且退思。忽然肯去。始知瑞龍老漢事不獲已。迂回太甚。還肯麼時有僧問。如何是瑞龍境。師曰。道汝不見得麼。曰如何是境中人。師曰。後生可畏。

報慈嶼禪師

問僧甚處來。曰臥龍來。師曰。在彼多少時。曰經冬過夏。師曰。龍門無宿客。為甚麼在彼許多時。曰師子窟中無異獸。師曰。汝試

作師子吼看。曰某甲若作師子吼。即無和尚。師曰。念汝新到。放汝三十棒。

【頌】僧問。情生智隔。想變體殊。祇如情未生時如何。師曰。隔。曰情未生時。隔箇甚麼。師曰。這箇梢郎子。未遇人在。

含珠哲禪師

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門前神樹子。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貧兒抱子渡。恩愛競隨流。

○問僧。有亦不是。無亦不是。不有不無亦不是。汝本來名箇甚麼。曰學人_已具名了師曰。具名即不無。畢竟名箇甚麼。曰祇這莫便是否。師曰且喜沒交涉。曰如何即是。師曰。親切處。更請一問曰。學人道不得。請和尚道。師曰。別日來與汝道。曰即今為甚麼不道。師曰。覓箇領話人不可得。又問僧張王李趙。不是汝本來姓。汝本來姓箇甚麼曰。與和尚同姓。師曰。同姓即且從。汝本來姓箇甚麼。曰待漢水逆流。却向和尚道師曰。即今為甚麼不道。曰漢水逆流也未。師休去。

紫陵匡一禪師

初到蟠龍。見僧問碧潭清似鏡。蟠龍何處安。龍曰。沉沙不見底。浮浪足巒岼。師不肯。龍請師道。師曰。金龍迴透青霄外潭中豈滯玉輪機龍肯之。住後僧問未作人身_已前。作甚麼來。師曰。石牛步步火中行。返顧休銜日中草。

同安威禪師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路逢神樹子。見者盡擎拳。曰見後如何。師曰。室內無靈牀。渾家不著孝。

○師一日遊山。大眾隨後。師曰。堦前翠竹。砌下黃花。古人道真如般若。同安即不然。有僧曰。古人也好和尚。師曰。不貪香餌味。可謂碧潭龍。曰諸方眼目。不怪淵明。師曰闍黎。閉目中秋坐。却笑月無光曰堦前翠竹。砌下黃花。又作麼生。師曰。安南未伏。塞北那降。僧禮拜。師曰。名稱普聞。

○問僧。寅晡飲啄。無處藏身。你道有此道理麼。曰和尚作麼生師打一拂子僧曰。僕手征人徒誇好手。師曰。握鞭側帽。豈是闍黎。曰今古之道。何處藏身。師曰。闍黎作麼生。僧珍重便出。師曰。未在。

(會元十三卷終)

上藍慶禪師

初遊方。問雪峯如何是雪峰的的意峰以杖子敲師頭。師應諾。峰大笑。師後承嗣洞山印解。

天池隆禪師

在金峰普請搬柴次。峰問搬柴人過水否。師曰。有一人不過水曰。不過水還搬柴否。師曰。雖不搬柴。也不得動著他。

益州真禪師

僧問。如何是禪。師曰。澄潭釣玉兔。曰如何是道。師曰。拍手笑春風。

佛手巖行因禪師

僧問。如何是對現色身。師豎一指(法眼別云。還有也未)。

龜洋慧忠禪師

謁草庵。庵問何方來。師曰。六眸峰。庵曰。還見六眸否。師曰。患非重瞳。庵然之。師尋回故山。屬唐武宗廢教。例民其衣暨宣宗中興。師曰。古人有言。上昇道士不受籙成佛沙彌不具戒。祇為白衣。過中不食。不字而禪。迹不出山者三十年。嘗謂門弟子曰。眾生不能解脫者。情累爾。悟道易。明道難。僧問。如何得明道去。師曰。但脫情見。其道自明矣夫明之為言信也。如禁蛇人。信其呪力藥力以蛇縮弄揣懷袖中。無難。未知呪藥等力者。怖駭棄去。但諦見自心情見便破。今千疑萬慮不得用者。未見自心者也。

同安志禪師

先同安將示寂。上堂曰。多子塔前宗子秀。五老峰前事若何。如是三舉。未有對者。末後師出曰。夜明簾外排班立。萬里歌謠道太平。安曰須是這驢漢始得。

【頌】僧問。二機不到處。如何舉唱。師曰。遍處不逢玄中不失。

【頌】問凡有言句。盡落今時學人上來。請師直指。師曰。目前不現。句後不迷。曰向上事如何師曰。迴然不換標的即乖。

智門欽禪師

僧問。兩鏡相照。為甚麼中間無像師曰。自己亦須隱。曰鏡破臺亡時如何。師豎起拳。

薦福思禪師

【頌】僧問。古殿無佛時如何。師曰。梵音何來。曰不假修證如何得成。師曰。修證即不成。

大陽堅禪師

初在靈泉入室次。泉問甚麼處來。師曰。僧堂裏來。泉曰。為甚麼不築著露柱。師於言下有省。

【頌】僧問。如何是玄旨。師曰。壁上挂錢財。

○問如何是法王劍。師曰。腦後看。

五峰紹禪師

僧問。如何是第一義。師拍禪牀云若不是僊陀。千里萬里。

廣德義禪師

謁先廣德。作禮問曰。如何是和尚密密處。德曰。隱身不必須巖谷。闐闐堆堆覩者稀。師曰。恁麼則酌水獻花去也。德曰。忽然雲霧靄。闍黎作麼生。師曰。採汲不虞施。廣德忻然曰。大眾看取第二代廣德。師次踵住持。聚徒開法。僧問如何是佛。師曰。披蓑倒騎牛。草深不露角。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魚躍無源水。鸞啼枯木花。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雪寒向火。日暖隈陽。

○問如何是賓中賓。師曰。蕩子無家計。飄蓬不自知。曰如何是賓中主。師曰。茅戶挂珠簾。曰如何是主中賓。師曰。龍樓鋪草坐。曰如何是主中主。師曰。東宮雖至嫡。不面聖堯顏。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鮓囊乍開蠅啞啞。曰見後如何。師曰。底穿蕩盡冷湫湫。

【頌】問古人云。言語道斷。非去來今。此理如何。師曰。彌勒涅槃知幾劫。護明猶未降迦維【增收】。

廣德周禪師

僧問。貧子歸家時如何。師曰。入門不見面處處故園春。

【頌】問教中道。阿逸多不斷煩惱不修禪定。佛說此人。成佛無疑。此理如何。師曰。鹽又盡炭又無。曰鹽炭無時如何。師曰。愁人莫向愁人說。說向愁人愁殺人。

石門徹禪師

【頌】僧問。雲光作牛意旨如何。師曰。陋巷不騎金色馬。回途却著破襤衫。

【頌】問年窮歲盡時如何。師曰。東村王老夜燒錢。

○上堂。一切眾生。本源佛性。譬如朗月當空。祇為浮雲翳障。不得顯現為明為照為道為路為舟為楫。為依為止。一切眾生。本源佛性亦復如是時汾陽昭和尚在眾。出問。朗月海雲遮不得。舒光直透水晶宮時如何。師曰。石壁山河非障礙。閻浮界外任昇騰。陽曰。恁麼則千里共傳無底鉢時人皆唱太平歌。師曰。太平曲子如何唱。陽曰。不墮五音。非關六律。師曰。還有人和得麼。陽曰。請和尚不恁慈悲師曰。仁者善自保任。

紫陵微禪師

僧問。如何是大猛烈底人。師曰。石牛步步火中行。返顧休銜日中草。曰如何是五逆底人。師曰。放火夜燒無相宅。天明戴帽入長安。曰如何是孝順底人。師曰。步步手提無米飯。斂手堂前不舉頭。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紅爐燄上碧波流。

興元大浪和尚

僧問。既是喝河神。為甚麼被水推却。師曰。隨流始得妙。住岸却成迷。

普寧顯禪師

僧問。曩劫共住。為甚麼不識親疎。師曰。誰。曰更待某甲道。師曰。將謂不領話。

○問千山萬水。如何登陟。師曰。青霄無間路。到者不迷機。

梁山緣觀禪師

僧問。家賊難防時如何。師曰。識得不為冤。曰識得後如何。師曰。貶向無生國裏。曰莫是他安身立命處也無。師曰。死水不藏龍。曰如何是活水龍。師曰。興波不作浪。曰忽然傾湫倒嶽時如何。師下座把住曰。莫教濕却老僧袈裟角。

○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寰中天子。塞外將軍。曰便怎麼去時如何。師曰。朗月懸空室中暗坐。

【頌】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莫亂道【增收】。

普淨常覺禪師

初訪歸宗。聞法省悟歸宗將順寂。召師撫之曰。汝於法有緣。他後濟眾。人莫測其量也。

○師以時機淺昧難任極旨苟啟之非器。令彼招謗讒之咎。我寧不務開法。每月三八。施浴僧道萬計。師嘗謂諸徒曰。但得慧門無壅則福何滯哉。

○給事中陶穀。入院致禮而問曰。經云。離一切相則名諸佛。今日前諸相紛然。如何離得。師曰。給事見箇甚麼。陶欣然仰重自是王

公大人。屢薦章服師號。皆却而不受。

雲頂德敷禪師

【頌】成部帥請就衙陞座。有樂營將出禮拜起。回顧下馬臺曰。一口吸盡西江水即不問。請師吞却堦前下馬臺。師展兩手唱曰。細抹將來。營將猛省。

石門遠禪師

初在石頭作田頭。門問如何是田頭水牯牛。師曰。角轉轟天地。朝頭處處春。他日門又問。水牯牛安樂否。師曰。水草不曾虧曰。田中事作麼生。師曰。深耕淺種。曰如法著師曰。某甲不曾取次。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布袋盛烏龜。

北禪懷感禪師

僧問。如何是諸聖為人底句。師曰。紅輪當萬戶。光燭本無心。

石門筠首座

有僧請喫茶次。問如何是首座為人一著子。師曰。適來猶記得。曰即今又如何。師曰。好生點茶來。一日荷鋤入園僧問。三身中那一身去作務。師拄鋤而立。僧曰。莫便當也無。師携鋤便行。

大陽警玄禪師

依智通禪師出家。十九為大僧。聽圓覺了義。講席無能及者。

【頌】初到梁山。問如何是無相道場。山指觀音曰。這箇是吳處士畫。師擬進語。山急索。曰這箇是有相底那箇是無相底。師遂有省。便禮拜。山曰。何不道取一句。師曰。道即不辭。恐上紙筆。

山笑曰。此語上碑去在。師獻偈。曰我昔初機學道迷。萬水千山覓見知。明今辨古終難會。直說無心轉更疑。蒙師點出秦時鏡。照見父母未生時。如今覺了何所得。夜放烏雞帶雪飛。山謂洞上之宗可倚。一時聲價籍籍。山歿辭塔至大陽謁堅禪師。堅讓席。使主之。

【頌】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滿鉢傾不出。大地沒饑人。

○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大洋海底紅塵起。須彌頂上水橫流。

○師問僧。甚處來。曰洪山。師曰。先師在麼。曰在。師曰。在即不無。請渠出來。我要相見。僧曰。嚮師曰。這箇猶是侍者。僧無對。師曰。喫茶去。

○上堂。諸禪德。須明平常無生句。妙玄無私句。體明無盡句。第一句。通一路。第二句。無賓主。第三句。兼帶去。一句。道得。師子嘖呻。二句道得。師子返擲。三句道得。師子踞地。縱也。周徧十方。擒也。一時坐斷。正當恁麼時。作麼生通得箇消息若不通得箇消息來朝更獻楚王看。僧問。如何是平常無生句。師曰。白雲覆青山。青山頂不露。曰如何是妙玄無私句。師曰。寶殿無人不侍立。不種梧桐免鳳來。曰如何是體明無盡句。師曰。手指空時天地轉。回途石馬出紗籠。曰如何是師子嘖呻。師曰。終無回顧意。爭肯落平常。曰如何是師子返擲師曰。周旋往返全歸父。繁興大用體無虧曰。如何是師子踞地。師曰。迴絕去來機。古今無變異。

○師嘗。釋曹山三種墮曰。此三語。須明得轉位始得。一作水牯牛。是類墮。師曰。是沙門轉身語。是異類中事若不曉此意。即有所滯。直是要伊一念無私。即有出身之路。二不受食。是尊貴墮。師曰。須知那邊了。却來這邊行履。若不虛此位。即坐在尊貴。三不斷聲色是隨墮。師曰。以不明聲色。故隨處墮。須向聲色裏有出

身之路。作麼生是聲色外一句。乃曰。聲不自聲。色不自色。故云不斷指掌。當指何掌也。

○五位頌曰正中偏。一輪皎潔正當天。宛轉虛玄事不彰。明暗祇在影中圓。偏中正。休觀朗月秦時鏡。隱隱猶如日下燈。明暗混融誰辨影。正中來。脉路玄玄絕迂迴。靜照無私隨處現。如行鳥道入廛開。偏中至。法法無依即智智。橫身物外兩不傷。妙用玄玄善周備。兼中到。叶路當風無中道。莫守寒巖異草青。坐却白雲宗不妙。

○師神觀奇偉。有威重。從兒稚中。日祇一食。自以先德付授之重。足不越限。脇不至席。年八十。歎無可以繼者。遂作偈。并皮履。布直裰寄浮山遠禪師。使為求法器。偈曰。陽廣山頭草。憑君待價煇。異苗翻茂處。深密固靈根。偈尾云。得法者潛眾十年。方可闡揚。遠拜而受之。遂贊師像曰。黑狗爛銀蹄。白象崑崙騎。於斯二無礙。木馬火中嘶。

藥山昱禪師

上堂。山河大地。日月星辰。與諸上座同生。三世諸佛。與諸上座同參。三藏聖教。與諸上座同時。還信得及麼。若也信得及。陝府鐵牛。吞却乾坤。雖然如是。被法身礙却。轉身不得。須知有出身之路。作麼生是諸上座出身之路。道道。良久曰。若道不得。永沉苦海。珍重。

鼎州羅紋珍山主

僧問親切處。乞師指示。師曰。老僧元是廣南人。

道吾詮禪師

僧問。如何是道吾境。師曰。溪花含玉露。庭果落金臺。曰如何是境中人。師曰。擁爐披古衲。曝日枕山根。

南禪聰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冬月深林雨。三春平地風。

投子義青禪師

入洛聽華嚴義若貫珠。嘗讀諸林菩薩偈。至即心自性。猛省曰。法離文字寧可講乎。即棄遊宗席。時圓鑑禪師(即浮山遠居會聖巖)一夕夢畜青色鷹。為吉徵。屆旦師來。鑑禮延之。令看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因緣。經三載。一日問曰。汝記得話頭麼。試舉看。師擬對。鑑掩其口。師了然開悟遂禮拜。鑑曰。汝妙悟玄機耶。師曰。設有也須吐却。時資侍者在旁曰。青華嚴。今日如病得汗。師回顧曰。合取狗口。若更切切。我即便嘔。自此復經三年。鑑時出洞下宗旨示之。悉皆妙契。付以大陽頂相。皮履直裰。囑曰。代吾續其宗風。無久滯此。善自護持。遂書偈送曰。須彌立太虛。日月輔而轉。羣峯漸倚他。白雲方改變。少林風起叢。曹谿洞簾卷。金鳳宿龍巢。宸苔豈車碾。令依圓通秀禪師。師至彼。無所參問。唯嗜睡而已。執事白通曰。堂中有僧日睡。當行規法。通曰。是誰。曰青上座。通曰未可。待與按過。通即曳杖入堂。見師正睡。乃擊牀呵曰。我這裏無閑飯與上座喫了打眠。師曰。和尚教某何為。通曰。何不參禪去。師曰。美食不中飽人喫。通曰。爭奈大有人不肯上座。師曰。待肯堪作甚麼。通曰。上座曾見甚麼人來。師曰。浮山。通曰。怪得甚麼頑賴。遂握手相笑歸方丈。

【頌】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威音前一箭。射透兩重山。曰如何是相傳底事。師曰全因淮地月。得照鄧陽春。曰恁麼則入水見長人也。師曰。祇知荊玉異。那辨楚王心。僧禮拜。師以拂子擊之。

【頌】問和尚適來拈香祝延 聖壽。且道當今年多少。師曰。月籠丹桂遠。星拱北辰高。

○上堂。默沉陰界。語落深坑。擬著則天地懸殊。棄之則千生萬劫。洪波浩渺。白浪滔天。鎮海明珠。在誰收掌。良久卓拄杖曰。百雜碎。

○師作五位頌(并序)。夫長天一色。星月何分。大地無偏。枯榮自異。是以法無異法。何迷悟而可及。心不自心。假言象而提唱。其言也。偏圓正到。兼帶叶通。其法也。不落是非豈關萬象。幽旨既融於水月。宗源派混於金河。不墜虛凝。回途復妙。頌曰。正中偏。星河橫轉月明前。彩氣夜交天未曉。隱隱俱彰暗裏圓。偏中正。夜半月明羞自影。朦朧霧色辨何分。混然不落秦時鏡。正中來。火裏金雞坐鳳臺。玄路倚空通脉上。披雲鳥道出塵埃。兼中至。雪刃籠身不回避。天然猛將兩不傷。暗裏全施善周備。兼中到。解走之人不觸道。一般拈掇與君殊。不落是非方始妙。

興陽剖禪師

在大陽作園頭種瓜次。陽問。甜瓜何時得熟。師曰。即今熟爛了也。曰揀甜底摘來。師曰。與甚麼人喫。曰不入園者。師曰。未審不入園者。還喫也無。曰汝還識伊麼。師曰。雖然不識。不得不與。陽笑而去。

○住後上堂。西來大道。理絕百非。句裏投機。全乖妙旨。不_已而_已。有屈祖宗豈況切切。有何所益。雖然如是。事無一向。且於唱教門中。通一線道。大家商量。

○師臥疾次。大陽問。是身如泡幻。泡幻終成辦若無箇泡幻大事無由辦若要大事。辦識取箇泡幻。作麼生。師曰。猶是這邊事。陽

曰。那邊事作麼生。師曰。匝地紅輪秀。海底不栽花。陽笑曰。乃爾惺惺耶。師喝曰。將謂我忘却。竟爾趨寂。

福巖審承禪師

侍立大陽次。陽曰。有一人遍身紅爛臥在荊棘林中。周匝火圍。若親近得此人。大敵廩開。若親近不得。時中以何為據。師曰。六根不具。七識不全。陽曰。你教伊出來。我要見伊。師曰。適來別無左右祇對和尚。陽曰。官不容針。師便禮拜。

○李相公特上山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指庭前柏樹。公如是三問。師如是三答。公欣然乃有頌曰。出沒雲間滿太虛。元來真相一塵無。重重請問西來意。唯指庭前柏一株。

羅浮顯如禪師

初到大陽。陽問汝是甚處人。曰益州。陽曰。此去幾里。曰五十里。陽曰。你與麼來。還曾踏著麼。曰不曾踏著。陽曰。汝解騰空那。曰不解騰空。陽曰。爭得到這裏。曰步步不迷方。通身無辨處。陽曰。汝得超方三昧邪。曰聖心不可得。三昧豈彰名。陽曰。如是如是。汝應信此即本體全彰。理事不二。善自護持。

白馬喜禪師

初問大陽。學人蒙昧。乞指箇入路。陽曰得。良久乃召師。師應諾。陽曰。與你箇入路。師於言下有省。住後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善犬帶牌。

雲門運禪師

上堂。夜來雲雨散長空。月在森羅萬象中。萬象靈光無內外。當明一句若為通。不見僧問。大哥和尚云月生雲際時如何。大哥曰。三

箇孩兒抱花鼓莫來攔我毬門路。月生雲際。是明甚麼邊事。三箇孩兒抱花鼓。擬思即隔。莫來攔我毬門路。須有出身處始得。若無出身處也似黑牛臥死水。出身一句作麼生道。不勞久立。

梁山冀禪師

頌魯祖面壁曰。魯祖三昧最省力。纔見僧來便面壁。若是知心達道人。不在揚眉便相悉。

芙蓉道楷禪師

謁投子於海會乃問佛祖言句。如家常茶飯。離此之外。別有為人處也無。子曰。汝道寰中天子勅。還假堯舜禹湯也無。師欲進語。子以拂子搥師口曰。汝發意來。早有三十棒也。師即開悟。再拜便行。子曰。且來闍黎。師不顧。子曰。汝到不疑之地耶師即以手掩耳。

○後作典座。子曰。厨務勾當不易。師曰不敢。子曰。煮粥耶。蒸飯耶。師曰。人工淘米著火。行者煮粥蒸飯。子曰。汝作甚麼。師曰。和尚慈悲。放他閑去。

○師侍投子遊菜園。子度拄杖與師。師接得便隨行。子曰。理合恁麼。師曰。與和尚提鞋挈杖。也不為分外。子曰。有同行在。師曰。那一人不受教。子休去。至晚問師。早來說話未盡。師曰。請和尚舉。子曰。卯生日。戌生月。師即點燈來。子曰。汝上來下去。縱不徒然。師曰。在和尚左右。理合如此。子曰。奴兒婢子。誰家屋裏無。師曰。和尚年尊闕他不可。子曰。得恁麼殷勤。師曰。報恩有分。

【頌】僧問。夜半正明。天曉不露。如何是不露底事。師曰。滿船空載月。漁父宿蘆華。

○上堂。晝入祇陀之苑。皓月當天。夜登靈鷲之山。太陽溢目。烏鷄似雪。孤鴈成羣。鐵狗吠而凌霄。泥牛鬪而入海。正當恁麼時。十方共聚。彼我何分。古佛場中。祖師門下。大家出一隻手。接待往來知識。諸仁者。且道成得箇甚麼事。良久曰。剩栽無影樹。留與後人看。

○上堂。喚作一句。已_巳是埋沒宗風。曲為今時。通途消耗。所以借功明位。用在體處。借位明功。體在用處。若也體用雙明。如門扇兩開。不得向兩扇上著意。不見新豐老子道。峯巒秀異。鶴不停機。靈木迢然。鳳無依倚。直得功成不處電火難追。擬議之間。長途萬里。

○上堂。臘月三十日已_巳前即不問。臘月三十日事作麼生。諸仁者。到這裏。佛也為你不得。法也為你不得。祖師也為你不得。天下老和尚也為你不得。山僧也為你不得。閻羅老子也為你不得。直須盡却今時去。若也盡得今時。佛也不奈他何。法也不奈他何。祖師也不奈他何。天下老和尚也不奈他何。山僧也不奈他何。閻羅老子也不奈他何。諸人且道。如何是盡却今時底道理。還會麼。明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上堂。鐘鼓喧喧報未聞。一聲驚起夢中人。圓常靜應無餘事。誰道觀音別有門。良久曰。還會麼。休問補陀巖上客。鶯聲啼斷海山雲。

【頌】上堂。法身者。理妙言玄。頓超終始之患。諸仁者。莫是幻身外。別有法身麼。莫即幻身。便是法身麼。若也恁麼會去。盡是依他作解。蒙昧兩岐。法眼未得通明。不見僧問夾山。如何是法身。山云。法身無相。如何是法眼。山云。法眼無瑕。所以道吾云。未有師在。忽有人問老僧如何是法身。羊便乾處臥。如何是法眼。驢便濕處尿。更有人問作麼生是法身。買帽相頭。作麼生是法

眼。坑坎堆阜。若點檢將來。夾山祇是學處不玄。如流俗閨閣裏物。不能捨得。致使情關固閉。識鎖難開。老僧今日。若不當揚顯示。後學何以知歸。勸汝諸人。不用求真。唯須息見。諸見若盡。昏霧不生。自然智鑑洞明。更無他物。諸人還會麼。良久云。珠中有火君須信。休向天邊問太陽【增收】。

【頌】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金鳳夜棲無影樹。峯巒纔露海雲遮【增收】(又示眾一篇見緇門)。

大洪恩禪師

上堂。拈起拄杖曰。昔日德山臨濟。信手拈來。便能坐斷十方。壁立千仞。直得冰河發起。枯木花芳。諸人若也善能橫擔豎夯。徧問諸方。苟或不然。少林倒行此令去也。擊禪牀一下。

○僧問。三玄三要即不問。五位君臣事若何。師曰。非公境界。曰恁麼則石人拊掌。木女呵呵。師曰。杓卜聽虛聲。熟睡饒譚語。曰若不上來伸此問。焉能得見少林機。師曰。放過即不可。隨後便打。師嘗設百問以問學者。其略曰。假使百千劫。所作業不忘。為甚麼一稱南無佛。罪滅河沙劫。又作此○相曰。森羅萬象。總在其中。具眼禪人。試請甄別(張無盡書問三教大要。師答甚詳。不備錄)。

洞山雲禪師

上堂。秋風卷地。夜雨翻空。可中別有清涼。箇裏更無熱惱。是誰活計。到者方知。纔落見聞。即居途路。且道到家後如何。任運獨行無伴侶。不居正位不居偏。

福應文禪師

上堂。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直下便承當。錯認弓為矢。惺惺底。築著磕著。懵懂底。和泥合水。龜毛拂。畝塞虛空。兔角杖。撐天拄地。日射珊瑚林。知心能幾幾。擊禪牀下座。

丹霞子淳禪師

上堂。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肇法師怎麼道。祇解指蹤話跡。且不能拈示於人。丹霞今日。擘開宇宙。打破形山。為諸人拈出。具眼者辨取。以拄杖卓一下曰。還見麼鷺鷥立雪非同色。明月蘆華不似他。

○上堂。舉德山示眾曰。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德山怎麼說話。可謂是祇知入草求人。不覺通身泥水。子細觀來。祇具一隻眼。若是丹霞則不然。我宗有語句。金刀剪不開。深深玄妙旨。玉女夜懷胎。

○上堂。亭亭日午猶虧半。寂寂三更尚未圓。六戶不曾知暖意。往來常在月明前。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金菊昨開蜂競採。曰見後如何。師曰。苗枯花謝了無依。

淨因枯木成禪師(嘉興崇德人也)

上堂。燈籠忽爾笑哈哈。如何露柱亦懷胎。天明生得白頭女。至今遊蕩不歸來。這冤家。好歸來。黃華與翠竹。早晚為誰栽。

○上堂。知有佛祖向上事。方有說話分。諸禪德。且道那箇是佛祖向上事。有箇人家兒女。六根不具。七識不全。是大闡提。無佛種性。逢佛殺佛。逢祖殺祖。天堂收不得。地獄攝無門。大眾還識此人麼。良久曰。對面不僂陀。睡多饒寐語。

寶峯照禪師

上堂。古佛道。我初成正覺。親見大地眾生。悉皆成正覺。後來又道。深固幽遠。無人能到。因。沒見識漢。好龍頭蛇尾。便下座。

○上堂。過去諸佛。已入涅槃了也。汝等諸人。不應追念。未來諸佛未出於世。汝等諸人。不要妄想。正當今日。你是何人。參。

○上堂。本自不生。今亦無滅。是死不得底樣子當處出生。隨處滅盡。是活生受底規模。大丈夫漢。直須處生死流。臥荊棘林。俯仰屈伸。隨機施設。能如是也。無量方便。莊嚴三昧。大解脫門。蕩然頓開。其或未然。無量煩惱。一切塵勞。嶽立面前。塞却去路。

○上堂。古人道。墮肢體。黜聰明。離形去智。同於大道。正當恁麼時。且道是甚麼人。刪詩書。定禮樂。還委恁麼。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

○雪下僧問。祖師西來即不問。時節因緣事若何。師曰。一片兩片三四片。落在眼中猶不薦。

石門易禪師

上堂。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大眾。祇如聞見覺知。未嘗有間。作麼生說箇心空底道理。莫是見而不見。聞而不聞。為之心空耶。錯。莫是忘機息慮萬法俱捐。銷能所以入玄宗。泯性相而歸法界。為之心空耶。錯。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未審畢竟作麼生。還會麼。良久曰。若實無為無不為。天堂地獄常相隨。三尺杖子攪黃河。八臂那吒冷眼覷。無眼魚龍盡奔走。捉得循河三脚龜。脫取殼鐵錐錐。吉凶之兆便分輝。借問東村白頭老。吉凶未兆若如何。休休休。古往今來春復秋。白日騰騰隨分過。更嫌何處不風流。咄。

天寧誦禪師

初住韶山。上堂。韶山近日沒巴鼻。眼裏聞聲鼻嘗味。有時一覺到天明。不在牀上不落地。大眾。且道在甚麼處。諸人於斯下得一轉語。非唯救得韶山。亦乃不孤行脚。其或未然。三級浪高魚化龍。癡人猶辱夜塘水。

○僧問。如何是君。師曰。宇宙無雙日。乾坤祇一人。曰如何是臣。師曰。德分明主化。道契物情機。曰如何是臣向君。師曰。赤心歸舜日。盡節報堯天。曰如何是君視臣。師曰。玄眸凝不瞬。妙體鑒旁求。曰如何是君臣道合。師曰。帳符尊賤隔。潛信往來通。

天寧璉禪師

上堂。清虛之理。佛祖同歸。畢竟無身。聖凡一體。理則如是。滿目森羅。事作麼生。纖塵絕除。渠儂有眼。豈在旁窺。官不容針。私通車馬。若到恁麼田地。始可隨機受用。信手拈來。妙應無方。當風玄路。直得金針錦縫。線脚不彰。玉殿寶階。朱簾未卷。正當此時。且道是甚麼人境界。古渡秋風寒飈飈。蘆華紅蓼滿江灣。

梅山己禪師

僧問。如何是法身邊事。師曰。枯木糝花不犯春。曰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石女不粧眉。

普賢秀禪師

僧問。如何是正中偏。師曰。龍吟初夜後。虎嘯五更前。曰如何是偏中正。師曰。輕煙籠皓月。薄霧鎖寒巖。曰如何是正中來。師曰。松瘁何曾老。花開滿未萌。曰如何是兼中至。師曰。猿啼音莫辨。鶴唳響難明。曰如何是兼中到。師曰。撥開雲外路。脫去月明前。

鹿門燈禪師

謁芙蓉。蓉問曰。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於言下。心迹泯然。從容進曰。靈然一句超羣象。迴出三乘不假修。蓉撫而印之。

資聖南禪師

聖節上堂。顧視左右曰。諸人還知麼。夜明簾外之主。萬化不渝。琉璃殿上之尊。四臣不昧。端拱而治。不令而行。壽逾百億須彌。化洽大千沙界。且道正恁麼時如何行履。野老不知黃屋貴。六街慵聽靜鞭聲。

洞山微禪師

上堂。日暖風和柳眼青。冰消魚躍浪花生。當鋒妙得空王印。半夜崑崙戴雪行。

太傅高世則居士

初參芙蓉。求指心要。蓉令去其所重。扣己而參。一日忽造微。密呈偈曰。懸崖撒手任縱橫。大地虛空自坦平。照壑輝巖不借月。庵頭別有一簾明。

大洪守遂禪師

上堂。召大眾。一拳拳倒黃鶴樓。一踏踏翻鸚鵡洲。慣向高樓驟玉馬。曾於急水打金毬。然雖恁麼。爭奈有五色絲條繫手脚。三鑄金鎖鎖咽喉。直饒鎚碎金鎖。割斷絲條。須知更有一重礙汝在。且道如何是那一重。還會麼。善吉維摩談不到。目連鶩子看如盲。

長蘆真歇清了禪師

扣丹霞之室。霞問。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擬對。霞曰。你鬧在。且去。一日登鉢盂峯。豁然契悟。徑歸侍立。霞掌曰。將謂你知有。師欣然拜之。翌日霞上堂曰。日照孤峯翠。月臨溪水寒。祖師玄妙訣。莫向寸心安。便下座。師直前曰。今日陞座。更瞞某不得也。霞曰。你試舉我今日陞座看。師良久。霞曰。將謂你瞞地。師便出。

○上堂。我於先師一掌下。伎倆俱盡。覓箇開口處不可得。如今還有恁麼快活不徹底漢麼。若無。銜鐵負鞍。各自著便。

○上堂。上孤峯頂。過獨木橋。驀直恁麼行。猶是時人脚高脚低處。若見得徹。不出戶。身徧十方。未入門。常在屋裏。其或未然。趁涼搬取一轉柴。

○上堂。處處覓不得。祇有一處不覓自得。且道那一處。良久曰。賊身已露。

○上堂。口邊白醜去。始得入門。通身紅爛去。方知有門裏事。更須知有不出門底。乃曰。喚甚麼作門。

○僧問。三世諸佛。向火燄裏轉大法輪。還端的也無。師大笑曰。我却疑著。曰和尚為甚麼却疑著。師曰。野花香滿路。幽鳥不知春。

○上堂。幻化空身即法身。遂作舞云。見麼見麼。恁麼見得。過橋村酒美。又作舞云。見麼見麼。恁麼不見。隔岸野花香。

○上堂。還有不被玄妙污染底麼。良久曰。這一點傾四海水。已是洗脫不下。

○上堂。窮微喪本。體妙失宗。一句截流。淵玄及盡。是以金針密處不露光銍。玉線通時潛舒異彩。雖然如是。猶是交互雙明。且道

巧拙不到。作麼生相委。良久曰。雲蘿秀處青陰合。巖樹高低翠鎖深。

○上堂。轉功就位。是向去底人。玉韞荆山貴。轉位就功。是却來底人。紅爐片雪春。功位俱轉。通身不滯。撒手亡依。石女夜登機。密室無人掃。正恁麼時。絕氣息一句。作麼生相委。良久曰。歸根風墮葉。照盡月潭空。

天童宏智正覺禪師

造丹霞。霞問。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曰。井底蝦蟇吞却月。三更不借夜明簾。霞曰未。更道。師擬議。霞打一拂曰。又道不借。師言下釋然。遂作禮。霞曰。何不道取一句。師曰。某甲今日失錢遭罪。霞曰。未暇打得你。且去。

○上堂。黃閣簾垂。誰傳家信。紫羅帳合。暗撤真珠。正恁麼時。視聽有所不到。言詮有所不及。如何通得箇消息去。夢回夜色依稀曉。笑指家風爛熳春。

○上堂。空劫有真宗。聲前問已躬。赤窮新活計。清白舊家風。的的三乘外。寥寥一印中。却來行異類。萬派自朝東。

○上堂。今日是釋迦老子降誕之辰。長蘆不解說禪。與諸人畫箇樣子。祇如在摩耶胎時作麼生。以拂子畫此○相。曰祇如以清淨水。浴金色身時。又作麼生。復畫此[○@水]相。曰祇如周行七步。目顧四方。指天指地。成道說法。神通變化。智慧辯才。四十九年。三百餘會。說青道黃。指東畫西。入般涅槃時。又作麼生。乃畫此⊕相。復曰。若是具眼衲僧。必也相許。其或未然。一一歷過始得。

○僧問。清虛之理。畢竟無身時如何。師曰。文彩未痕初。消息難傳際。曰一步密移玄路轉。通身放下劫壺空。師曰。誕生就父時合體無遺照。曰理既如是。事作麼生。師曰。歷歷纔回分化事。十方機應又何妨。曰恁麼則塵塵皆現本來身去也。師曰。透一切色。超一切心。曰如理如事。又作麼生。師曰。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曰入市能長嘯。歸家著短衫。師曰。木人嶺上歌。石女溪邊舞。

大洪預禪師

上堂。進一步。踐他國王水草。退一步。踏他祖父田園。不進不退。正在死水中。還有出身之路也無。蕭騷晚籟松釵短。游漾春風柳線長。

尼慧光禪師

上堂。舉趙州勘婆話。乃曰。趙州舌頭連天。老婆眉光覆地。分明勘破歸來。無限平人瞌睡。

圓通德止禪師

上堂。山僧二十年前。兩目皆盲。了無所覩。唯是聞人說道。青天之上。有大日輪。照三千大千世界。無有不徧之處。籌策萬端。終不能見。二十年後。眼光漸開。又值天色連陰。濃雲亂湧。四方觀察。上下推窮。見雲行時。便於行時作計較。見雲住時。便於住處立箇窠臼。正如是間。忽遇著箇多知漢。問道莫是要見日輪麼。何不向高山頂上去。山僧却徵他道。那裏是高山頂上。他道紅塵不到處是。諸仁者。好箇端的消息還會麼。長連牀上佛陀耶。

智通景深禪師

始謁淨慈象禪師。一日聞象曰。思而知。慮而解。皆鬼家活計。興不自過。遂往寶峯求入室。峯曰。直須斷起滅念。向空劫已前。掃除玄路。不涉正偏。盡却今時。全身放下。放盡還放。方有自由分。師聞頓領厥旨。峯擊鼓告眾曰。深得闡提大死之道。後學宜依之。因號大死翁。

○上堂。來不入門。去不出戶。來去無痕。如何提唱。直得古路苔封。羚羊絕跡。蒼梧月鑠。丹鳳不棲。所以道藏身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若是如是。去住無依。了無背向。還委悉麼。而今分散如雲鶴。你我相逢觸處玄。

華藥智朋禪師

依寶峯有年無省。因為眾持鉢。峯自題其像曰。雨洗淡紅桃萼嫩。風搖淺碧柳絲輕。白雲影裏怪石露。綠水光中古木清。噫你是何人。至焦山枯木成禪師見之。歎曰。今日方知此老。親見先師來。師遂請益其贊。成曰。豈不見法眼拈夾山境話曰。我二十年祇作境會。師即契悟。乃曰。元來恁麼地。成曰。汝作麼生會。師曰。春生夏長。秋收冬藏。成曰。直須保任。師應諾。

香山尼佛通禪師

遂寧府人。因誦蓮經有省。住見石門。乃曰。成都喫不得也。遂寧喫不得也。門拈拄杖打出。通忽悟曰。榮者自榮。謝者自謝。秋露春風。好不著便。門拂袖歸方丈。師亦不顧而出。由此道俗景從。得法者眾。

雪竇嗣宗禪師

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烏豆。

○問如何是君。師曰。磨礮三尺劍。待斬不平人。曰如何是臣。師曰。白雲閑不徹。流水太忙生。曰如何是君臣道合。師曰。雲行雨施。月皎星輝。

○問如何是正中偏。師曰。菱華未照前。曰如何是偏中正。師曰。團圞無少剩。曰如何是正中來。師曰。徧界絕纖埃。曰如何是兼中至。師曰。齧鏃功前戲。曰如何是兼中到。師曰。十道不通耗。

○問如何是轉功就位。師曰。撒手無依全體現。扁舟漁父宿蘆華。曰如何是轉位就功。師曰。半夜嶺頭風月靜。一聲高樹老猿啼。曰如何是功位齊彰。師曰。出門不踏來時路。滿目飛塵絕點埃。曰如何是功位俱隱。師曰。泥牛飲盡澄潭月。石馬加鞭不轉頭。

善權智禪師

上堂。明月高懸未照前。雪眉人凭玉欄干。夜深雨過風雷息。客散雲樓酒椀乾。

淨慈自得慧暉禪師

謁宏智。智舉。當明中有暗。不以暗相遇。當暗中有明。不以明相覩問之。語不契。初夜定回往聖僧前燒香。而宏智適至。師見之。頓明前話。次日入室。智舉。堪嗟去日顏如玉。却歎回時鬢似霜。詰之。師曰。其人離。其出微。自爾問答無滯。智許為室中真子。

○上堂。釋迦老子。窮理盡性。金口敷宣。一代時教。珠回玉轉。被人喚作拭不淨故紙。達磨祖師。以一乘法。直指單傳。面壁九年。不立文字。被人喚作壁觀婆羅門。且道作麼生行履。免被傍人指注去。衲帔蒙頭萬事休此時山僧都不會。

○上堂。巢知風。穴知雨。甜者甜兮苦者苦。不須計較作思量。五五從來二十五。萬般施設到平常。此是叢林飽參句。諸人還委悉

麼。野老不知堯舜力。鼕鼕打鼓祭江神。

○上堂。谷之神。樞之要。裏許旁參。回途得妙。雲雖動而常閑。月雖晦時彌照。賓主交參。正偏兼到。十洲春盡華凋殘。珊瑚樹林目杲杲。

石窻恭禪師

一夕誦法華。至父母所生眼。悉見三千界。時聞風刺椶櫚葉聲。忽然有省。後依天童。始明大旨。

○上堂。春風楊柳眉。春禽弄百舌。一片祖師心。兩處俱漏泄。不動步還家。習漏頓消滅。暗投玉線芒。曉貫金針穴。深固實幽遠。無人孰辯別。慚愧可憐生。頭頭皆合轍。不念阿彌陀。南無乾屎橛。無智癡人前。第一不得說。

光孝徹禪師

上堂。羊頭車子推明月。沒底船兒載曉風。一句頓超情量外。道無南北與西東。所以劫前消息。非口耳之所傳。格外真規。豈思量之能解。須知佛佛祖祖。了無一法為人。子子孫孫。直下全身荷負。既已萬機寢削。自然一糝不留。湛湛之波。碧水冷涵於秋色。靈靈之照。霽天淨洗於冰輪。宛轉旁參。叶通兼帶。夢手推開玉戶。翻身撥動機輪。正令纔行。又見一陽萌動。化工密運。俄驚三世變遷。雖則默爾無言。爭奈熾然常說。無遷無變。今朝拈置一邊。有故有新。且道如何話會。諸人還委悉麼。羣陰消剝盡。來日是書雲。

大洪為禪師

上堂。法身無相。不可以音聲求。妙道亡言。豈可以文字會。縱然超佛越祖。猶落階梯。直饒說妙談玄。終挂脣齒。須是功勳不犯。

影跡不留。枯木寒巖更無津潤。幻人木馬。情識皆空。方能垂手入廛。轉身異類。不見道。無漏國中留不住。却來煙塢臥寒沙。

長蘆琳禪師

上堂。拈拄杖曰。其宗也。離心意識。其旨也。超去來今。離心意識。故品萬類不見差殊。超去來今。故盡十方更無滲漏。當頭不犯。徹底無依。悟向朕兆未生已前。用在功勳不犯之處。平常活計不用躊躇。擬議之間。即沒交涉。

慧力悟禪師

上堂。一切聲是佛聲。簷前水滴響泠泠。一切色是佛色。覲面相呈諱不得。便恁麼。若為明。碧天雲散月華清。

雪峯深禪師

示眾。未得人頭應切切。人頭已得須教徹。雖然得人本無無。莫守無無無間歇。大洪聞之。乃曰。深兄說禪若此。惜福緣不勝耳。

慧日安禪師

僧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曰。狗走抖擻口。曰意旨如何。師曰。猿愁撻擻頭。

吉祥實禪師

自到天衣。蚤夜精勤。脇不至席。一日偶失笑喧眾。衣擯之。中夜宿田里。覲星月粲然。有省。曉歸趨方丈。衣見乃問。洞山五位君臣。如何話會。師曰。我這裏一位也無。衣令參堂。謂侍僧曰。這漢却有箇見處。奈不識宗旨何。入室次。衣預令行者五人。分序而

立。師至。俱召實上座。師於是密契奧旨。述偈曰。一位纔彰五位分。君臣叶處五雲屯。夜明簾卷無私照。金殿重重顯至尊。

雪竇智鑑禪師

上堂。世尊有密語。迦葉不覆藏。一夜落華雨。滿城流水香。

(會元十四卷終)

禪宗正脉卷第七

音釋

掇(都括切拾也) 鼻(傷遇切馬膝以上皆白也) 鞞(亡安切) 筴(古叶切箸也) 袴(口護切) 躡(他典切行貌) 蜺(戶見切) 醜(魚欠切味厚也) 迂(王俱切遠也) 夯(呼講切) 誦(匹布切) 唳(郎計切) 糝(悉感切) 鑄(息曳切鎖也) 撇(息侯切取也)

禪宗正脉卷第八

青原雲門宗

雲門文偃禪師(嘉興人也)

初參睦州。州纔見來。便閉却門。師乃扣門。州曰誰。師曰某甲。州曰。作甚麼。師曰。已事未明。乞師指示。州開門一見。便閉却。師如是連三日扣門。至第三日州開門。師乃拶入。州便擒住曰。道道。師擬議。州便推出曰。秦時[車*度]轆鑽遂掩門。損師一足。師從此悟入。州指見雪峯。師到雪峯莊。見一僧。迺問。上座今日上山去那。僧曰是。師曰。寄一則因緣。問堂頭和尚。祇是不得道是別人語。僧曰得。師曰。上座到山中。見和尚上堂。眾纔集。便出。握腕立地曰。這老漢。項上帶枷何不脫却。其僧一依師教。雪峯見這僧與麼道。便下座。攔胸把住曰。速道速道。僧無對。峯拓開曰。不是汝語。僧曰。是某甲語。峯曰。侍者將繩棒來。僧曰。不是某語。是莊上一澗中上座。教某甲來道。峯曰。大眾去莊上。迎取五百人善知識來。師次日上雪峯。峯纔見便曰。因甚麼得到與麼地。師乃低頭。從茲契合。溫研積稔。密以宗印授焉。師出嶺。徧謁諸方。覈窮殊軌。鋒辯險絕。世所盛聞。後抵靈樹。冥符知聖禪師。接首座之說。初知聖住靈樹。二十年不請首座。常云。我首座生也。我首座牧牛也。我首座行脚也。一日令擊鐘。三門外接首座。眾出迓。師果至。直請入首座寮解包。

○後廣主命師出世靈樹。開堂日。主親臨。曰弟子請益。師曰。目前無異路。(法眼別云。不可無益於人)師乃曰。莫道今日謾諸人好。抑不得已。向諸人前。作一場狼籍。忽遇明眼人見。成一場笑具。如今避不得也。且問你諸人。從上來有甚事。欠少甚麼。向你道無事。已是相埋沒也。雖然如是。也須到這田地始得。亦莫趨口快亂問。自己心裏黑漫漫地。明朝後日。大有事在。你若根思遲回。且

向古人建化門庭。東覷西覷。看是箇甚麼道理。你欲得會麼。都緣是你自家無量劫來。妄想濃厚。一期聞人說著。便生疑心。問佛問法。問向上向下。求覓解會。轉沒交涉。擬心即差。況復有言有句。莫是不擬心是麼。莫錯會好。更有甚麼事。珍重。

○上堂。我事不獲已。向你諸人道。直下無事。早是相埋沒了也。更欲踏步向前。尋言逐句。求覓解會。千差萬別。廣設問難。贏得一場口滑。去道轉遠。有甚麼休歇時。此事若在言語上。三乘十二分教。豈是無言語。因甚麼更道教外別傳。若從學解機智得。祇如十地聖人。說法如雲如雨。猶被呵責。見性如隔羅縠。以此故知。一切有心。天地懸殊。雖然如此。若是得底人。道火不能燒口。終日說事。未嘗挂著脣齒。未嘗道著一字。終日著衣喫飯。未嘗觸著一粒米。挂一縷絲。雖然如此。猶是門庭之說。也須是實得恁麼始得。若約衲僧門下。句裏呈機。徒勞佇思。直饒一句下承當得。猶是瞌睡漢。時有僧問。如何是一句。師曰舉。

○僧來參。師乃拈起袈裟曰。汝若道得。落我袈裟圈襪裏。汝若道不得。又在鬼窟裏坐。作麼生。自代云。某甲無氣力。

○上堂。諸兄弟。盡是諸方參尋知識。決擇生死。到處豈無尊宿。垂慈方便之詞。還有透不得底句麼。出來舉看。待老漢與你大家商量有麼有麼。時有僧出。擬伸問次。師曰。去去西天路。迢迢十萬餘。便下座。

○舉世尊初生下。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云。天上天下。唯我獨尊。師曰。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貴圖天下太平。

○師在文德殿赴齋。有鞠常侍。問靈樹果子熟也未。師曰。甚麼年中得信道生。

【頌】僧問。如何是大修行人。師曰。一棹在手。

【頌】上堂。因聞鐘聲。乃曰。世界與麼廣闊。為甚麼鐘聲披七條
(聯珠又云。僧無語。師曰。七里灘頭多蛤子)。

○上堂。舉一則語。教汝直下承當。早是撒屎著汝頭上也。直饒拈一毫頭。盡大地一時明得。也是剜肉作瘡。雖然如此。汝亦須是實到這箇田地始得。若未。切不得掠虛。却須退步向自己根脚下推尋看。是箇甚麼道理。實無絲毫許與汝作解會。與汝作疑惑。況汝等各各當人有一段事。大用現前。更不煩汝一毫頭氣力。便與祖佛無別。自是汝諸人。信根淺薄。惡業濃厚。突然起得許多頭角。擔鉢囊。千鄉萬里受屈作麼。且汝諸人。有甚麼不足處。大丈夫漢。阿誰無分。獨自承當得。猶不著便。不可受人欺謾。取人處分。纔見老和尚開口。便好把特石驀口塞。便是屎上青蠅相似。鬪啜將去。三箇五箇聚頭商量。苦屈。兄弟。古德一期為汝諸人不奈何。所以方便垂一言半句。通汝入路。知是般事。拈放一邊。自著些子筋骨。豈不是有少許相親處。快與快與。時不待人。出息不保入息。更有甚麼身心。別處閑用。切須在意。珍重(又上堂文長不備錄)。

【頌】僧問靈樹。如何是祖師西來意。樹默然。遷化後。門人立行狀碑。欲入此語。問師曰。先師默然處。如何上碑。師對曰。師。

【頌】普請搬柴次。師遂拈一片拋下曰。一大藏教。祇說這箇。

【評】【頌】上堂。人人自有光明在。看時不見暗昏昏。作麼生是諸人自己光明。自代云。厨堂三門。又曰。好事不如無。

【評】【頌】示眾。藥病相治。盡大地是藥。那箇是你自己(云云)。

【評】【頌】僧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師曰。餬餅。

○上堂。故知時運澆漓。代干像季。近日師僧。北去言禮文殊。南去謂遊衡嶽。恁麼行脚。名字比丘。徒消信施。苦哉苦哉。問著黑漆相似。祇管取性過時。設有三箇兩箇狂學。多聞。記持話路。到處覓相似語句。印可老宿。輕忽上流。作薄福業。他日閻羅王釘釘之時。莫道無人向你說。若是初心後學。直須擺動精神。莫空記人說處。多虛不如少實。向後祇是自賺。有甚麼事近前。

【頌】上堂。聞聲悟道。見色明心。遂舉起手曰。觀世音菩薩將錢買餬餅。放下手曰。元來祇是饅頭。

【評】【頌】上堂。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拈燈籠向佛殿裏。將三門來燈籠上。作麼生。自代曰。逐物意移。又曰。雲起雷興。

【評】【頌】示眾曰。十五日巳前不問汝。十五日巳後。道將一句來。眾無對。自代曰。日日是好日。

【頌】上堂。拈拄杖曰。凡夫實謂之有。二乘析謂之無。緣覺謂之幻有。菩薩當體即空。衲僧家見拄杖。便喚作拄杖。行但行。坐但坐。不得動著。

【頌】僧問。如何是雲門一曲。師曰。臘月二十五。曰唱者如何。師曰。且緩緩。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家家觀世音。曰見後如何。師曰。火裏唧螻吞大蟲。

○問如何是雪嶺泥牛吼。師曰。山河走。如何是雲門木馬嘶。師曰。天地黑(人天眼目互換下句稍異)。

○問十二時中。如何即得不空過。師曰。向甚麼處著此一問。曰學人不會。請師舉。師曰。將筆硯來。僧乃取筆硯來。師作一頌曰。

舉不顧。即差互。擬思量。何劫悟。

【頌】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遊山翫水。曰如何是和尚自己。師曰。賴維那不在。

【評】【頌】僧問。樹凋葉落時如何。師曰。體露金風。

【頌】問如何是佛。師曰。乾屎橛。

【頌】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東山水上行。

【頌】問古人面壁意旨如何。師曰。念七。

【頌】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日裏看山。

【頌】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有讀書人來報。

【頌】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北斗裏藏身。

○問承古有言。牛頭橫說豎說。猶未知有向上關楨子。如何是向上關楨子。師曰。東山西嶺青。

○上堂函蓋乾坤。目機銖兩。不涉世緣。作麼生承當。眾無對。自代曰。一鏟破三關。

【頌】僧問。如何是雲門劍。師曰。祖。

【頌】問如何是正法眼。師曰。普。

【頌】問如何是啐啄之機。師曰。響。

【頌】問如何是吹毛劍。師曰。髣。又曰。𦏧。

【頌】問如何是雲門一路。師曰。親。

【頌】問殺父殺母。向佛前懺悔。殺佛殺祖。向甚麼處懺悔。師曰。露。

【評】【頌】問如何是一代時教。師曰。對一說。

【評】【頌】問不是目前機。亦非目前事時如何。師曰。倒一說。

【頌】問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向上與汝道即不難。作麼生會法身。曰請和尚鑿。師曰。鑿即且置。作麼生會法身。曰與麼與麼。師曰。這箇是長連牀上學得底。我且問你。法身還解喫飯麼。僧無對。

【評】【頌】問僧。近離甚處。曰西禪。師曰。西禪近日有何言句。僧展兩手。師打一掌。僧曰。某甲話在。師却展兩手。僧無語。師又打。

【頌】僧問。秋初夏末。前程若有人問。作麼生祇對。師曰。大眾退後。曰未審過在甚麼處。師曰。還我九十日飯錢來。

【頌】講僧參。經時乃曰。未到雲門時。恰似初生月。及乎到後。曲彎彎地。師得知。乃召問是你道否。曰是。師曰甚好。吾問汝。作麼生是初生月。僧乃斫額作望月勢。師曰。你如此。已後失却目在。僧經旬日復來。師又問。你還會也未。曰未會。師曰。你問我。僧便問。如何是初生月。師曰。曲彎彎地。僧罔措。後果然失目。

○示眾。真空不壞有。真空不異色。僧便問。作麼生是真空。師曰。還聞鐘聲麼。曰此是鐘聲。師曰。驢年夢見麼。

【頌】上堂。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者是好手。時有僧出曰。與麼則堂中第一座有長處也。師曰。蘇嚕蘇嚕。

【頌】僧問。佛法如水月是否。師曰。清波無透路。曰和尚從何得。師曰。再問復何來。曰正與麼時如何。師曰。重疊關山路。

【評】【頌】上堂。拈拄杖曰。拄杖子化為龍吞却乾坤了也。山河大地甚處得來。師有偈曰。不露風骨句。未語先分付。進步口喃喃。知君大罔措。

○示眾。一人因說得悟。一人因喚得悟。一人聞舉便回去。你道便回去意作麼生。復曰。也好與三十棒。

【頌】上堂。光不透脫。有兩般病。一切處不明。面前有物是一。又透得一切法空。隱隱地似有箇物相似。亦是光不透漏。又法身亦有兩般病。得到法身。為法執不忘。己見猶存。坐在法身邊。是一。直饒透得法身去。放過即不可。子細檢點將來。有甚麼氣息。亦是病。

【頌】問僧。光明寂照徧河沙。豈不是張拙秀才語。曰是。師曰。話墮也。

【頌】僧問。一切智通無障礙時如何。師曰。掃地潑水相公來。

【評】【頌】問如何是法身。師曰。六不收。

【評】【頌】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華藥欄。曰便恁麼去時如何。師曰。金毛師子。

【評】【頌】問不起一念。還有過也無。師曰。須彌山。

【評】【頌】問如何是塵塵三昧起。師曰。鉢裏飯桶裏水。

○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面南看北斗。

○師到天童。童曰。你還定當得麼。師曰。和尚道甚麼。童曰。不會則目前包裹。師曰。會則目前包裹。

○師到曹山。見示眾云。諸方盡把格則。何不與他道却。令他不疑去。師問。密密處為甚麼不知有。山曰。祇為密密。所以不知有。師曰。此人如何親近。山曰。莫向密密處親近。師曰。不向密密處親近時如何。山曰。始解親近。師應喏喏。

○師到鷺湖。聞上堂曰。莫道未了底人。長時浮逼逼地。設使了得底。明明得知有去處。尚乃浮逼逼地。師下問首座。適來和尚意作麼生。曰浮逼逼地。師曰。首座久在此住。頭白齒黃。作這箇語話。曰上座又作麼生。師曰。要道即得。見即便見。若不見。莫亂道。曰祇如道浮逼逼地。又作麼生。師曰。項上著枷。脚下著扭。曰與麼則無佛法也。師曰。此是文殊大人境界。

○僧舉灌谿上堂曰。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淨裸裸。赤灑灑。沒可把。師曰。舉即易。出也大難。曰上座不肯和尚與麼道那。師曰。你適來與麼舉那。曰是。師曰。你驢年夢見灌谿。曰某甲話在。師曰。我問你。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你道大梵天王。與帝釋天商量甚麼事。曰豈干他事。師喝曰。逐隊喫飯漢。

【頌】師到江州。有陳尚書者。請齋。纔見便問。儒書中即不問。三乘十二分教。自有座主。作麼生是衲僧行脚事。師曰。曾問幾人來。書曰。即今問上座。師曰。即今且置。作麼生是教意。書曰。黃卷赤軸。師曰。這箇是文字語言。作麼生是教意。書曰。口欲談而辭喪。心欲緣而慮忘。師曰。口欲談而辭喪。為對有言。心欲緣而慮忘。為對妄想。作麼生是教意。書無語。師曰。見說尚書看法華經是否。書曰是。師曰。經中道。一切治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且道非非想天。有幾人退位。書無語。師曰。尚書且莫草

草。三經五論。師僧拋却。特入叢林十年二十年。尚不奈何。尚書又爭得會。書禮拜曰。某甲罪過。

【頌】師每見僧。必顧視曰。鑒。僧擬議。乃曰咦。後德山圓明大師。刪去顧字。謂之抽顧。叢林目雲門顧鑒咦【增收】。

【評】【頌】示眾云。古佛與露柱相交。是第幾機。自代云。南山起雲。北山下雨【增收】。

白雲子祥實性大師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不別。曰恁麼則同也。師曰。不妨領話。

○上堂。諸人會麼。但向街頭市尾。屠兒魁劊。地獄鑊湯處會取。若恁麼會得。堪與人天為師。若向衲僧門下。天地懸殊。更有一般底。祇向長連牀上作好人去。汝道此兩般人。那箇有長處。無事珍重。

○問僧。不壞假名而談實相。作麼生。僧指椅子曰。這箇是椅子。師以手撥椅曰。與我將鞋袋來。僧無對。師曰。這處頭漢(雲門聞乃云須是我祥兄始得)。

德山緣密圓明禪師

上堂。我有三句語。示汝諸人。一句函蓋乾坤。一句截斷眾流。一句隨波逐浪。作麼生辯。若辯得出。有參學分。若辯不出。長安路上輾輾地。

○上堂。但參活句。莫參死句。活句下薦得。永劫無滯。一塵一佛國。一葉一釋迦。是死句。揚眉瞬目舉指豎拂。是死句。山河大地

更無譎訛。是死句。時有僧問。如何是活句。師曰。波斯仰面看。曰恁麼則不謬去也。師便打。

【頌】上堂。大眾。及盡去也。直得三世諸佛口挂壁上。猶有一人呵呵大咲。若識此人。參學事畢【增收】。

巴陵新開顯鑒禪師

初到雲門。門曰。雪峯和尚道。開却門。達磨來也。我問你。作麼生。師曰。築著和尚鼻孔。門曰。地神惡發。把須彌山一擲。[跳-兆+孛]跳上梵天。搗破帝釋鼻孔你為甚麼向日本國裏藏身。師曰。和尚莫瞞人好。門曰。築著老僧鼻孔。又作麼生。師無語。門曰。將知你祇是學語之流。師住後。更不作法嗣書。祇將三轉語上雲門。

【頌】僧問。如何是道。師曰。明眼人落井。

【評】【頌】問如何是吹毛劍。師曰。珊瑚枝枝撐著月。

【評】【頌】問如何是提婆宗。師曰。銀盃裏盛雪。門曰。他後老僧忌日。祇消舉此三轉語。足以報恩。自後忌辰。果如所囑。

【頌】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雞寒上樹。鴨寒下水。

雙泉師寬明教禪師

上堂。舉拂子曰。這箇接中下之人。時有僧問。上上人來時如何。師曰。打鼓為三軍。

○問洞山初和尚。如何是佛。山曰。麻三斤。師聞之乃曰。向南有竹。向北有木。

○問如何是定。師曰。鰕跳不出斗。曰如何出得去。師曰。南山起雲。北山下雨。

○問北斗裏藏身意旨如何。師曰。雞寒上樹。鴨寒下水。

○師遊山回。首座同眾出接。座曰。和尚遊山。巖嶮不易。師提起拄杖曰。全得這箇力。座乃奪却。師放身便倒。大眾皆進前扶起。師拈拄杖。一時趨散。回顧侍者曰。向道全得這箇力。

香林澄遠禪師

在眾日。普請鋤草次。有一僧曰。看俗家失火。師曰。那裏火。曰不見那。師曰不見。曰這瞎漢。是時一眾皆言遠上座敗闕。後明教寬聞舉。歎曰。須是我遠兄始得。住後僧問。美味醍醐為甚麼變成毒藥。師曰。導江紙貴。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踏步者誰。

【頌】問如何是室內一碗燈。師曰。三人證龜成鼈。

【頌】問如何是衲衣下事。師曰。臘月火燒山。

○問但有言句盡是賓。如何是主。師曰。長安城裏。曰如何領會。師曰。千家萬戶。

【評】【頌】問如何是西來的的意。師曰。坐久成勞。曰便回轉時如何。師曰。墮落深坑。

【頌】問萬頃荒田。是誰為主。師曰。看看臘月盡【增收】。

○上堂。是汝諸人。盡是擔鉢囊向外行脚。還識得性也未。若識得。試出來道看。若識不得。祇是被人熱謾將去。且問汝諸人。是汝參學日久用心。掃地煎茶。遊山翫水。汝且釘釘。喚甚麼作自

性。諸人且道。始終不變不異。無高無下。無好無醜。不生不滅。究竟歸於何處。諸人還知得下落所在也未。若於這裏知得所在。是諸佛解脫法門。悟道見性。始終不疑不慮。一任橫行。一切人不奈汝何。出言吐氣實有來處。如人買田。須是收得元本契書。若不得他元本契書。終是不穩。遮莫經官判狀亦是不得。其奈不收得元本契書。終是被人奪却。汝等諸人。參禪學道亦復如是。還有人收得元本契書麼。試拈出看。汝且喚甚麼作元本契書。諸人試道看。若是靈利底。纔聞與麼說著。便知去處。若不知去處。向外邊學得千般巧妙。記持解會。口似傾河。終不究竟。與汝自己。天地差殊。且去衣鉢下體當尋覓看。若有箇見處。上來這裏道看。老僧與汝證明。若覓不得。且依行隊去。

洞山守初禪師

【頌】初參雲門。門問。近離甚處。師曰查渡。門曰。夏在甚處。師曰。湖南報慈。門曰。幾時離彼。師曰。八月二十五。門曰。放汝三頓棒。師至明日。却上問訊。昨日蒙和尚放三頓棒。不知過在甚麼處。門曰。飯袋子。江西湖南。便恁麼去。師於言下大悟。遂曰。他後向無人煙處。不蓄一粒米。不種一莖菜。接待十方往來。盡與伊抽釘拔楔。拈却炙脂帽子。脫却鷓鴣臭布衫。教伊灑灑地。作箇無事衲僧。豈不快哉。門曰。你身如椰子大。開得如許大口。師便禮拜。

【頌】上堂。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還得麼。你衲僧分上。到這裏須具擇法眼始得。祇如洞山恁麼道。也有一場過。且道過在甚麼處。

【頌】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紙撚無油。

【評】【頌】問如何是佛。師曰。麻三斤。

○問如何是無縫塔。師曰。十字街頭石師子。

泐潭謙禪師

僧問。如何是泐潭家風。師曰。闍黎到來幾日也。

○問但有纖毫即是塵不有時作麼生。師以手掩兩目。

○問悟本無門。如何得入。師曰。阿誰教汝恁麼問。

奉先深禪師

【頌】師同明和尚到淮河。見人牽網。有魚從網透出。師曰。明兄俊哉。一似箇衲僧相似。明曰。雖然如此。爭如當初不撞入網羅好。師曰。明兄。你欠悟在。明至中夜方省。(明即金陵清涼智明禪師)。

披雲寂禪師

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未審是甚麼字。師曰。聽老僧一偈。以字不是八不成。森羅萬象此中明。直饒巧說千般妙。不是謳和不是經。

○問如何是一塵。師曰。滿目是青山(前一則在聯珠頌古第一卷中)。

舜峯韶禪師

僧問。正法無言時如何。師曰言。曰學人不會。乞師端的。師曰。兩重公案。曰豈無方便。師曰。無禮難容。

○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日出東方夜落西。

般若柔禪師

【頌】僧問。西天以蠟人為驗。此土如何。師曰。新羅人草鞋。

○上堂。眾聞板聲集。師因示偈曰。妙哉三下板知識盡來參。既善分時節。吾今不再三。便下座。

薦福承古禪師

操行高潔。稟性虛明。參大光敬玄禪師。乃曰。祇是個草裏漢。遂參福嚴雅和尚。又曰。祇是箇脫灑衲僧。由是終日默然。深究先德洪規。一日覽雲門語。忽然發悟。自此韜藏。不求名聞。棲止雲居弘覺禪師塔所。四方學者奔湊。因稱古塔主也。景祐四年。范公仲淹。出守鄱陽。聞師道德。請居薦福。開闡宗風。

【頌】僧問。大善知識。將何為人。師曰莫。曰恁麼則有問有答去也。師曰莫(聯珠稍異)。

○問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此意若何。師曰。乾柴濕茭。僧便喝。師曰。紅燄炎天。

○上堂。夫出家者。為無為法。無為法中。無利益。無功德。近來出家人。貪著福慧。與道全乖。若為福慧。須至明心。若要達道。無汝用心處。所以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休心。利根者晝時解脫。鈍根者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與你入拔舌地獄。參。

雙峯欽禪師

僧問。如何是雙峯境。師曰。夜聽水流庵後竹。晝看雲起面前山。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曰。因風吹火。

○上堂。進一步則迷理。退一步則失事。饒你一向兀然去。又同無情。僧問。如何得不同無情去。師曰。動靜施為。曰如何得不迷理失事去。師曰。進一步。退一步。僧作禮。師曰。向來有人恁麼會。老僧不肯伊。曰請師直指。師便打出。

○問如何是正法眼。師曰。山河大地。

○問如何是法王劍。師曰。鋸刀徒逞。不若龍泉。曰用者如何。師曰。藏鋒猶不許。露刃更何堪。

【頌】問賓頭盧應供四天下。還得徧也無。師曰。如月入水。問如何是用而不雜。師曰。明月堂前垂玉露。水晶殿裏燦真珠。

資福詮禪師

僧問。覲面相逢處。如何顧鑒咦。乞師垂半偈。免使後人疑。師曰。鋒前一句超調御。擬問如何歷劫違。曰恁麼則東山西嶺。時人知有。未審資福庭前。誰家風月。師曰。且領前話。

黃雲元禪師

上堂。古人道。觸目未曾無。臨機何不道。山僧即不然。觸目未曾無。臨機道甚麼。珍重。

龍境倫禪師

開堂陞座。提起拂子曰。還會麼。若會。頭上更增頭。若不會。斷頭取活。僧問。如何是佛。師曰。勤耕田。曰學人不會。師曰。早收禾。

大容謹禪師

僧問。既是大容。為甚麼趲出僧。師曰。大海不容塵。小谿多槥
[打-丁+(天/韭)]。

○問如何是古佛一路。師指地。僧曰。不問這箇。師曰。去。

○師與一老宿。相期他往。偶因事不去。宿曰。佛無二言。師曰。
法無一向。

華嚴慧禪師

僧問。承古有言。妄心無處即菩提。正當妄時。還有菩提也無。師
曰。來音已照。曰不會。師曰。妄心無處即菩提。

黃檗法濟禪師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與天下人作榜樣。

谷山豐禪師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雪嶺梅華綻。雲洞老僧驚。

洞山清稟禪師

參雲門。門問。今日離甚處。曰慧林。門舉拄杖曰。慧林大師恁麼
去。汝見麼。曰深領此問。門顧左右微笑而已。師自此入室印悟。

○金陵主。請居光睦。未幾。命入澄心堂。集諸方語要。經十稔迎
住洞山。

北禪寂禪師

上堂。拈拄杖曰。過去未來現在三世諸佛。微塵菩薩。一時在拄杖
頭上。轉大法輪。盡向諸人鼻孔裏過。還見麼。若見。與我拈將

來。若不見大似立地死漢。良久曰。風恬浪靜。不如歸堂。

淨源真禪師

上堂。古人道。山河大地普真如。大眾。若得真如。即隱却山河大地。若不得。即違古人至言。眾中道得者。出來道看。若道不得。不如各自歸堂。珍重。

大梵圓禪師

因見聖僧。乃問僧。此箇聖僧年多少。僧曰。恰共和尚同年。師喝曰。這喝叶不易道得。

藥山圓光禪師

問新到。南來北來。曰北來。師曰。不落言詮。速道速道。曰某甲是福建道人。善會鄉談。師曰。參眾去。僧曰灼然。師曰。更[跳-兆+孛]跳。便打。

奉國海禪師

僧問。青青翠竹。盡是真如。如何是真如。師曰。點鐵成金客。聞名不見形。曰恁麼則禮謝去也。師曰。昔時妄想。至今猶存。

雲門球禪師

僧問。如何是隨色摩尼珠。師曰。色即不無。作麼生是珠。曰學人不會。特伸請益。師曰。雲有出山勢。水無投澗聲。

佛陀遠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銅頭鐵額。曰意旨如何。師曰。簸土揚塵。

慈雲深禪師

僧問。寶鏡當軒時如何。師曰。天地皆失色。

○問如何是教外別傳一句。師曰。扣牙恐驚齒。

化城鑒禪師

上堂。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諸禪德。且作麼生是涅槃門。莫是山僧這裏聚會少時。便為涅槃門麼。莫錯會好。諸禪德。總不恁麼會。莫別有商量底麼。山僧這裏。早是事不獲已。向諸人恁麼道。已是相鈍置了也。更擬踏步向前。有何所益。諸禪德。但自無事。自然安樂。任運天真。隨緣自在。莫用巡他門戶。求覓解會。記憶在心。被他繫縛。不得自在。便被生死之所拘。何時得出頭。可惜光陰。倏忽便是來生。速須努力。時有僧問。生死到來。如何免得。師曰。柴鳴竹爆驚人耳。曰學人不會。請師直指。師曰。家犬聲啼夜不休。

○僧問。如何是向上關楨子。師曰。拔劍攪龍門。

護國和尚

上堂。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又曰。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諸上座。作麼生理論。朝夕恁麼上來。向諸上座說箇甚麼即得。若說三乘十二分教。自有座主律師。若說世諦因緣。又非僧家之所議。若論佛法。從上祖宗。多少佛法可與評量。總不如是。須知各各當人分上事。作麼生是諸上座分上事。知有麼。對眾吐露箇消息。以表平生行脚。參善知識。具爍迦羅目。不被人瞞。豈不快哉。還有麼。良久云。若無人出頭。賣買不當價。徒勞更商量。珍重。

西禪欽禪師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曰。天上有星皆拱北。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曰。大地坦然平。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曰。春生夏長。

覺華照禪師

僧問。如何是真如涅槃。師曰。秋風聲颯颯。澗水響潺潺。

延長山和尚

僧問。從上古聖。向甚麼處去。師曰。不在山間。即居樹下。曰未審成得箇甚麼。師曰。汝還知落處麼。僧無語。師便打。

黃龍贊禪師

僧問。如何是和尚關楨子。師曰。少人踏得著。曰忽踏得著時如何。師曰。汝試進前看。僧便喝。師便打。

雲門朗上座

自幼肄業講肆。聞僧問雲門。如何是透法身句。門曰。北斗裏藏身。師罔測微旨。遂造雲門。門纔見。便把住曰。道道。師擬議。門拓開。乃示頌曰。雲門聳峻白雲低。水急遊魚不敢棲。入戶已知未見解。何勞再舉轆中泥。師因斯大悟。

○僧問。如何是解脫。師曰。穿靴水上行。

纂子山庵主

僧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朝看東南。暮看西北。

大歷和尚

初參白雲。雲舉拳曰。我近來不恁麼也。師領旨。禮拜。自此入室。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破草鞋。

○問如何是無為。師乃擺手。

○問施主供養將何報答。師以手撚髭曰有髭即撚。無髭又如何。師曰。非公境界。

寶華和尚

見一僧從法堂階下過。師乃敲繩牀。僧曰。若是這箇。不請拈出。師喜。下地詰之。僧無語。師便打。

月華山月禪師

初謁白雲。雲問。業箇甚麼。曰孔雀經。雲曰。好箇人家男女。隨鳥雀後走。師聞語。驚異。遂依附。久之乃契旨。尋住月華。

○有一老宿。上法堂。東西顧視曰。好箇法堂。要且無主。師聞。乃召曰。且坐喫茶。宿問曰。玄中最的。猶是龜毛兔角。不向二諦中修。如何密用。師曰側宿曰。恁麼則拗折拄杖。割斷草鞋去也。師曰。細而詳之。

樂淨匡禪師

僧問。但得本。莫愁末。如何是本。師曰。不要問人。曰如何是末。師乃豎指。

○因普請打籬次。僧問。古人種種開方便門。和尚為甚麼却攔截。師曰。牢下檝著。

後白雲和尚

僧問。古琴絕韻請師彈。師曰。伯牙雖妙手。時人聽者希。曰怎麼則再遇子期也。師曰。笑發驚絃斷。寧知調不同。

文殊真禪師

【頌】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黃河九曲【增收】。

問古人拊掌意旨如何。師曰。家無小使不成君子。

南臺勤禪師

【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一寸龜毛重七斤。

德山晏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桃源水繞白雲亭。

○上堂。一塵纔起。大地全收。一毛頭上。師子全身。且道一塵纔起大地全收。須彌山重多少。一毛頭上師子全身。大海水有幾滴。有人道得。與汝拄杖子。天下橫行。若道不得。須彌山蓋却汝頭。大海水溺却汝身。

乾明普禪師

僧問。萬行齊修。古人不許。不落功勳。還許也無。師曰一。曰學人未曉。乞師再指。師曰。三十年後。

中梁崇禪師

僧問。垂[糸*系]千尺。意在深潭時如何。師曰。紅鱗掌上躍。

黃龍愿禪師

僧問。迦葉上行衣。何人合得披。師曰。一片燒痕地。春入又逢青。

普安道禪師

三句頌。函蓋乾坤曰。乾坤并萬象。地獄及天堂。物物皆真見。頭頭用不傷。截斷眾流曰。堆山積嶽來。一一盡塵埃。更擬論玄妙。冰消瓦解摧。隨波逐浪曰。辯口利舌問。高低總不虧。還如應病藥。診候在臨時。三句外曰。當人如舉唱。三句豈能該。有問如何事。南嶽與天台。擡薦商量曰。相見不揚眉。君東我亦西。紅霞穿碧落。白日繞須彌。

泐潭靈澄散聖

師有西來意頌曰。因僧問我西來意。我話居山七八年。草履祇栽三箇耳。麻衣曾補兩番肩。東庵每見西庵雪。下澗長流上澗泉。半夜白雲消散後。一輪明月到牀前。

五祖師戒禪師

僧問。如何是隨色摩尼珠。師曰隨。曰隨後如何。師曰。一箇婆婆兩箇癭。

【頌】智門問曰。暑往寒來即不問。林下相逢事若何。師曰。五鳳樓前聽玉漏。門曰。爭奈主山高。案山低。師曰。須彌頂上擊金鐘。

【頌】僧問。如何是佛。師曰。踏著秤鎚硬似鐵【增收】。

福昌善禪師

僧問。如何是正法眼。師曰。夜觀乾象。曰學人不會。意旨如何。師曰。日裏看山。

○上堂。盡乾坤大地微塵諸佛。總在福昌這裏。拈拄杖畫一畫曰。說佛說法。諸禪德。若也會得。出來與汝證據。若也不會。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便下座。

建福同禪師

僧問。如何是透法身句。師曰。鸚鵡慕西秦。僧禮拜。師曰。聽取一頌。雲門透法身。法身何許人。鴈回沙塞北。鸚鵡慕西秦。

智門光祚禪師(先住北塔隨州人也)

【頌】僧問。如何是佛。師曰。踏破草鞋赤脚走。曰如何是佛向上事。師曰。拄杖頭上挑日月。

【評】【頌】問如何是般若體。師曰。蚌含明月。曰如何是般若用。師曰。兔子懷胎。

【評】【頌】問蓮華未出水時如何。師曰蓮華。曰出水後如何。師曰荷葉。

○上堂。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正當恁麼時。文殊向甚麼處出頭。若也出頭不得。金毛師子腰折。幸好一盤飯。莫待糝椒薑。

○上堂。汝等諸人。橫擔拄杖。出一叢林入一叢林。你道叢林有幾種。或有梅檀叢林。梅檀圍繞。或有荊棘叢林。荊棘圍繞。或有荊棘叢林。梅檀圍繞。或有梅檀叢林。荊棘圍繞。祇如四種叢林。是汝諸人在阿那箇叢林裏安身立命。若無安身立命處。虛踏破草鞋。閻羅王徵你草鞋錢有日在。

○上堂。雪峯轆毬羅漢書字。歸宗斬虵。大隨燒畚。且道明甚麼邊事。還有人明得麼。試道看。若明不得。所以道斬蛇須是斬蛇手。燒畚須是燒畚人。瞥起情塵生妄見。眼裏無筋一世貧。

福巖良雅禪師

居洞山第一座。山參次。僧出問。如何是佛。山答曰。麻三斤。參罷。山至寮謂師曰我今日答這僧話。得麼。曰恰值某淨髮。山曰。你元來作這去就。拂袖便出。師曰。答老漢。將謂我明他這話頭不得。因作偈呈曰。五彩畫牛頭。黃金為點額。春晴二月初。農人皆取則。寒日賀新正。鐵錢三五百。山見深肯之。

開福賢禪師

【頌】僧問。如何是衲僧活計。師曰。耳裏種田(此則聯珠有頌見香林遠章內)。

○上堂。不用思而知。不用慮而解。知解俱泯。合談何事。師曰。一葉落天下秋。

丫山盛禪師

上堂。鐘聲清鼓聲響。早晚相聞休妄想。薦得徒勞別問津。莫道山僧無伎倆。咄。

蓮華峯祥庵主

僧問。如何是雪裏泥牛吼。師曰聽。曰如何是雲中木馬嘶。師曰。響。

【評】【頌】示寂曰。拈拄杖示眾曰。古人到這裏。為甚麼不肯住。眾無對。師乃曰。為他途路不得力。復曰。畢竟如何。以杖橫

肩曰。榔栗橫擔不顧人。直入千峯萬峯去。言畢而逝。

德山遠禪師

上堂。枕石漱流。任運天真。不見古者道。撥霞掃雪和雲母。掘石移松得茯苓。當恁麼時。復何言哉。諸禪德。要會麼。聽取一頌。雪霽長空。迴野飛鴻。段雲片片。向西向東。

開先照禪師

僧問。向上宗乘乞師垂示。師曰。白雲斷處見明月。曰猶是學人疑處。師曰。黃葉落時聞擣衣。

○上堂。叢林規矩。古佛家風。一參一請。一粥一飯。且道明得箇甚麼。祇如諸人。心心不停。念念不住。若能不停處停。念處無念。自合無生之理。與麼說話。笑破他人口。參。

金陵天寶和尚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列半作三。曰學人未曉。師曰。鼻孔針筒(又雲門示眾曰。拆半烈三針筒鼻孔。云云。載于聯珠頌古)。

法雲善禪師

僧問。如何是古佛道場。師曰。山青水綠。

藍田真禪師

上堂。成山假就於始簣。脩途託至於初步。上座適來從地爐邊來。還與初步同別。若言同。即不會不遷。若言別。亦不會不遷。上座作麼生會。還會麼。這裏不是那裏。那裏不是這裏。且道是一處兩處。是遷不遷。是來去不是來去。若於此顯明得。便乃古今一如。

初終自爾。念念無常。心心永滅。所以道。觀方知彼去。去者不至方。上座適來恁麼來。却請恁麼去。參。

雪峯欽山主

上堂。昨日一。今日二。不用思量快須瞥地。不瞥地。蹉過平生沒巴鼻。咄。

西峯豁禪師

謁清涼。問佛未出世時如何。涼曰。雲遮海門樹。曰出世後如何。涼曰。擘破鐵圍山。師於言下大悟。涼印可之。歸住寶龍。嘗有問易中要旨者。師曰。夫神生於無形。而成於有形。從有以至於無。然後能合乎妙圓正覺之道。故自四十九衍。以至於萬有。一千五百二十。以窮天下之理。以盡天下之性。不異吾聖人之教也。

洞山曉聰禪師

在雲居作燈頭。見僧說泗洲大聖。近在揚州出現。

【頌】有設問曰。既是泗洲大聖為甚麼却向揚州出現。師曰。君子愛財。取之以道。後僧舉似蓮華峯祥庵主。主大驚曰。雲門兒孫猶在中夜望雲居拜之。

○問達磨未傳心地印。釋迦未解髻中珠。此時若問西來意。還有西來意也無。師曰。六月雨淋淋寬其萬姓心。曰恁麼則雲散家家月。春來處處花。師曰脚跟下到金剛水。際是多少。僧無語。師曰。祖師西來特唱此事。自是上座不薦所以從門入者。不是家珍。認影迷頭。豈非大錯。既是祖師西來特唱此事。又何必更對眾切切珍重。

○上堂。晨鷄報曉靈粥後便天明燈籠猶瞌睡。露柱却惺惺。復曰。惺惺直言。惺惺歷歷。直言歷歷。明朝後日。莫認奴作郎。珍重。

○上堂。舉寒山云。井底生紅塵。高峯起白浪。石女生石兒。龜毛寸寸長。若要學菩提但看此模樣。良久曰。還知落處也無。若也不知落處。看看。菩提入僧堂裏去也。久立。

○上堂。春寒凝沍。夜來好雪。還見麼。大地雪漫漫。春風依舊寒。說禪說道易成佛成祖難。珍重。

○因事示眾。天晴蓋却屋。乘乾刈却禾。早輸王稅了。鼓腹唱巴歌。

○僧問。德山入門便棒。猶是起模畫樣。臨濟入門便喝。未免捏目生花。離此二途。未審洞山如何為人。師曰。天晴久無雨。近日有雲騰。曰他日若有人問洞山宗旨教學人如何舉似。師曰。園蔬枯槁甚。擔水潑蒨稜。

石霜誠禪師

僧問古者。道捲簾當白晝移榻對青山。如何是捲簾當白晝。師曰。過淨瓶來。曰如何是移榻對青山。師曰。却安舊處著。

○上堂。心外無法。法外無心。隨緣蕩蕩。更莫沉吟。你等諸人。纔上階道。便好回去。更要待第二惡水潑作甚麼。

泐潭澄禪師

僧問。見者是色聞者是聲離此二途。請師別道。師曰。古寺新碑額。

○師一日見僧披衲。師曰。得恁麼好針線。曰祇要牢固。師曰。打草驚蛇作甚麼。曰客來須看。師曰。祇有這箇。更別有。曰雲生嶺上。師曰未在。更道。曰水滴巖前。

雲蓋顯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古寺碑難讀。曰。意旨如何。師曰。讀者盡攢眉。

上方嶽禪師

上堂。旋收黃葉燒青煙。竹榻和衣半夜眠。粥後放參三下鼓。孰能更話祖師禪。便下座。

育王坦禪師

僧問。有中有。師曰。金河峯上。曰。如何是無中無。師曰。般若臺前。

○上堂。千花競發。百鳥啼春。是向上句。諸佛出世。知識興慈。是向下句。作麼生。是不涉二途句。若識得。頂門上出氣。若識不得。土牛耕石田。擊禪牀下座。

金山新禪師

僧問。吾有大患。為吾有身。父母未生。未審此身在甚麼處。師曰。曠大劫來無處所。若論生滅盡成非。曰。恁麼則周徧十方心。不在一切處。師曰。泥裏撼椿。

○上堂。世間所貴者。和氏之璧。隋侯之珠。金山喚作驢屎馬糞。出世間所貴者。真如解脫菩提涅槃。金山喚作[尸@豕]沸碗鳴。且道。恁麼說話。落在甚麼處。故不是取捨心。重信邪顛見。諸人要知麼。猛虎不顧几上肉。洪爐豈鑄囊中錐。

雪竇重顯明覺禪師

橫經。講席。究理窮玄。詰問鋒馳。機辯無敵。咸知法器。僉指南遊。首造智門。即伸問曰。不起一念。云何有過。門召師近前。師纔近前。門以拂子驀口打。師擬開口。門又打。師豁然開悟。出住翠峯。後遷雪竇。開堂日。僧問。吹大法螺。擊大法鼓。朝宰臨筵。如何即是。師曰。清風來未休。曰恁麼則得遇於師也。師曰。一言已出。駟馬難追。僧禮拜。師曰。放過一著。乃普觀大眾曰。人天普集。合發明箇甚麼事。焉可互分賓主。馳騁問答。便當宗乘去。廣大門風。威德自在。輝騰今古。把定乾坤。千聖祇言自知。五乘莫能建立。所以聲前悟。旨猶迷顧鑑之端。言下知宗。尚昧識情之表。諸人要知真實相為麼。但以上無攀仰。下絕已躬。自然常光現前。箇箇壁立千仞。還辨明得也無。未辨辨取。未明明取。既辨明得。能截生死流同據佛祖位。妙圓超悟。正在此時。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

○上堂。僧問。如何是維摩一默。師曰。寒山訪拾得。曰恁麼則入不二之門。師噓一噓。復曰。維摩大士去何從。千古令人望莫窮。不二法門休更問。夜來明月上孤峯。

○上堂。春山疊亂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便下座。顧謂侍者曰。適來有人看方丈麼。者曰有。師曰作賊人心虛。

○上堂。大眾。這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爾諸人四至界畔。猶未識在。若要中心樹子。我也不惜。

【頌】僧問。如何是諸佛本源。師曰。千峯寒色。曰未委向上更有也無。師曰。雨滴巖花。

○上堂。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古人向甚麼處見客。或若道得接手句。許你天上天下。

【頌】示眾曰。龍泉與刀斧同質。利鈍懸殊駑駘與驥馬同途。遲速有異【增收】。

【頌】僧問。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學人分上。為甚麼不會。師曰。枯木裏瞠眼。曰恁麼則從苗辨地。因語識人也。師曰。三十棒。且待別時【增收】。

【頌】僧問。如何是佛師曰。四山圍繞【增收】。

雲蓋鵬禪師

【頌】初謁雙泉雅禪師。泉令充侍者。示以芭蕉拄杖話。經久無省發。一日泉向火次。師侍立。泉忽問拄杖子話試舉來。與子商量。師擬舉。泉拈火筴便搯。師豁然大悟。

○上堂。高不在絕頂。富不在福巖。樂不在天堂。苦不在地獄。良久曰。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彰法泗禪師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多少人摸索不著曰。忽然摸著又作麼生。師曰。堪作甚麼。

北禪賢禪師

【頌】僧問。如何是佛師曰。匙挑不上。

【頌】歲夜小參曰。年窮歲盡。無可與諸人分歲老僧烹一頭露地白牛。炊黍米飯煮野菜羹燒柁柵火。大家喫了。唱村田樂何故。免見倚他門戶傍他墻。剛被時人喚作郎。便下座。歸方丈至夜深。維那入方丈問訊曰。縣裏有公人。到勾和尚師曰。作甚麼那。曰道和尚宰牛不納皮角。師遂將下頭帽擲在地上。那便捨去。師跳下禪牀攔

芻擒住叫曰賊賊。那將帽子覆師頂曰。天寒且還和尚師呵呵大咲。那便出去。時法昌為侍者。師顧昌曰這公案作麼生。昌曰。潭州紙貴一狀領過。

日芳上座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豎起拄杖。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橫按拄杖。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擲下拄杖。僧曰。三句外請師道。師便起去。

○師贊開福真曰。清儀瘦兮。可瞻可仰。仰之非親。妙筆圖兮。可擬可像。像之非真。非親非真秋月盈輪。有言無味兮的中的既往如在兮覓焉覓當機隱顯兮[糸*系]髮誦訛金烏卓午兮迅風霹靂。

開先暹禪師

操行清苦。徧遊師席。以開悟為志。參德山。見山上堂。顧視大眾曰。師子嘖呻。象王回顧。師忽有省。入室陳所解。山曰。子作麼生會師回顧曰。後園驢喫草。山然之。後至雪竇。竇與語。喜其超邁。目曰海上橫行暹道者。遂命分座四方英衲。敬畏之。他日竇舉師出世金鷲。師聞潛書二偈于壁而去曰。不是無心繼祖燈。道慚未廁嶺南能。三更月下離巖竇。眷眷無言戀碧層。二十餘年四海間。尋師擇友未嘗閒。今朝得到無心地。却被無心趨出山。晚年眾請滋甚。遂開法開先。以慰道俗之望。

秀州資聖勤禪師

上堂。多生覺悟非干衲。一點分明不在燈。拈拄杖曰。拄杖頭上祖師。燈籠脚下彌勒。須彌山腰鼓細即不問。你作麼生是分明一點你若道得無邊剎境。總在你眉毛上。你若道不得。作麼生過得羅剎橋。良久曰。水流千派月。山鎖一谿雲。卓拄杖下座。

潭州鹿苑圭禪師

上堂。凡有因緣。須曉其宗。若曉其宗。無是無不是用。則波騰海沸。全真體以運行。體則鏡淨水沉舉隨緣而會寂。且道兜率天宮幾人行。幾人坐若向這裏辨得緇素。許你諸人。東西南北。如雲似鶴。於此不明。踏破草鞋未有了日在。參。

雲居曉舜禪師(號舜老夫)

少年羸猛。忽悟浮幻。投師出家。乃修細行。

【頌】參洞山。一日如武昌行乞。首謁劉公居士家。士高行為時所敬。意所與奪。莫不從之。師時年少。不知其飽參。頗易之。士曰。老漢有一問。若相契。即開疏。如不契。即請還山。遂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黑似漆。曰磨後如何。師曰。照天照地。士長揖曰。且請上人還山。拂袖入宅。師慙懼。即還洞山。山問其故。師具言其事。山曰。你問我。我與你道。師理前問。山曰。此去漢陽不遠師進後語。山曰。黃鶴樓前鸚鵡洲。師於言下大悟。機鋒不可觸。

○上堂。舉夾山道開市門頭。識取天子。百草頭上。薦取老僧。雲居即不然婦搖機軋軋。兒弄口嚙嚙。

○上堂。諸方有弄蛇頭。撥虎尾跳大海。劔刃裏藏身。雲居這裏。寒天熱水洗脚。夜間脫襪打睡。早朝旋打行纏風吹籬倒。喚人夫劈篾縛起。

杭州佛日契嵩禪師

得法于洞山。師夜則頂戴觀音像。而誦其號必滿十萬。乃寢。以為常。自是世間經書章句。不學而能。作原教論十萬餘言。明儒釋之道一貫。以抗宗韓排佛之說。讀之者畏服。後居永安蘭若。著禪門

定祖圖。傳法正宗記。輔教編上進 仁宗皇帝。覽之加歎。付傳法院編次入藏。下詔褒寵賜號明教。宰相韓琦。大參歐陽脩皆延見而尊禮之。洎東還。熙寧四年六月四日。晨興寫偈曰。後夜月初明。吾今喜獨行。不學大梅老。貪隨鼯鼠聲。至中夜而化。闍維不壞者五。曰頂。曰耳。曰舌。曰童真。曰數珠。其頂骨出舍利。紅白晶潔。道俗合諸不壞。葬於故居永安之左。後住淨慈北磻居簡。嘗著五種不壞贊。師有文集二十卷。目曰鐔津。盛行于世。

洪州太守許式

參洞山。得正法眼。一日與泐潭澄。上藍溥坐次潭問。聞郎中道夜坐連雲石。春栽帶兩松。當時答洞山甚麼話。公曰。今日放衙早。潭曰。聞答泗州大聖在揚州出現底是否。公曰。別點茶來。潭曰。名不虛傳。公曰。和尚早晚回山。潭曰。今日被上藍覷破。藍便喝。潭曰。須是你始得。公曰。不奈船何。打破屎斗。

育王璉禪師

齟齬出家。卍角圓頂。篤志道學。寢食無廢。一日洗面潑水于地。微有省發。即慕參尋。遠造泐潭法席投機印可。師事之。十餘年。去遊廬山。掌記于圓通訥禪師所。皇祐中 仁廟有詔住淨因禪院。召對化成殿問佛法大意。奏對稱旨賜號大覺禪師。

○上堂。太陽東昇爍破大千之暗諸人若向明中立。猶是影響相馳。若向暗中立。也是藏頭露影漢。到這裏作麼生吐露良久曰。逢人祇可三分語。未可全拋一片心。參。

○上堂。世法裏面。迷却多少人。佛法裏面醉却多少人。祇如不迷不醉。是甚麼人分上事。

○上堂言鋒纔發義海交深。若用徑截一路。各請歸堂。

○上堂。應物現形如水中月。遂拈起拄杖曰。這箇不是物。即今現形也。且道月在甚麼處良久曰長空有路還須透潭底無蹤不用。尋擊香臺下座。

承天簡禪師

上堂。夫遮那之境界眾妙之玄門知識說之而莫窮。善財酌之而莫竭。文殊體之而寂寂普賢證之以重重。若也隨其法性。如雲收碧漢。本無一物。若也隨其智用。如花開春谷應用無邊雖說遍恒沙。乃同遵一道。且問諸人。作麼生是一道。良久曰。白雲斷處見明月黃葉落時聞擣衣。參。

九峯韶禪師

上堂。山僧說禪。如蚝蜃吐油。捏著便出。若不捏著。一點也無。何故。祇為不曾看讀古今因緣及預先排疊勝妙見知。等候陞堂便磨屑捋觜。將粥飯氣。熏炙諸人。凡有一問一答。蓋不得已。豈獨山僧看他大通智勝如來。默坐十劫。無開口處後因諸天梵王。及十六王子。再三勸請。方始說之。却不是秘惜。祇為不敢埋沒諸人。山僧既不埋沒諸人。不得道山僧會陞座參。

西塔殊禪師

上堂。黃梅席上數如麻。句裏呈機事可嗟直是本來無一物。青天白日被雲遮參。

雲居億禪師

上堂。馬祖纔陞堂。雄峯便卷席。春風一陣來。滿地花狼籍便下座。

令滔首座

久參泐潭。潭因問。祖師西來。單傳心。印直指人心。見性成佛。子作麼生會。師曰。某甲不會。潭曰。子未出家時。作箇甚麼。師曰。牧牛。潭曰。作麼生牧。師曰。早朝騎出去。晚後復騎歸。潭曰。子大好不會。師於言下大悟。遂成頌曰。放却牛繩便出家。剃除鬚髮著袈裟。有人問我西來意。拄杖橫挑囉哩囉。

玉泉承皓禪師

參北塔。發明心要。得大自在三昧。製犢鼻褌書歷代祖師名字。乃曰。文殊普賢較些子。且書於帶上。故叢林目為皓布褌。元豐間。首眾於谷隱。有鄉僧亦效之。師見而詬曰。汝具何道理敢以為戲事耶。嘔血無及耳。尋於鹿門。如所言而逝。

【頌】冬至示眾曰。晷運推移。布褌赫赤。莫怪不洗無來換替。

○自贊粥稀後。坐牀窄先臥。耳聾愛高聲。眼昏宜字大。

雲居慶禪師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曰。合。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曰。闊。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曰。窄。

○上堂。道本無為法非延促。一念萬年。千古在目。月白風恬。山青水綠。法法現前。頭頭具足。祖意教意。非直非曲。要識廬陵米價會取山前麥熟。以拂子擊禪牀下座。

國慶順宗禪師

上堂。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拈起拄杖曰。此箇是法。那箇是滅底心。若人道得。許你頂上具眼。其或未然雲暗不知天早晚。雪深難辨路高低參。

天聖守道禪師

上堂。日月繞須彌。人間分晝夜。南閻浮提人。祇被明暗色空留礙。且道不落明暗一句作麼生道良久曰。柳色黃金嫩。梨花白雪香。參。

○上堂。不從一地至一地。寂滅性中寧有位。釋迦稽首問然燈。仁者何名為受記。便下座。

(會元十五卷終)

天衣義懷禪師

天聖中試經得度謁金鑾善葉縣省。皆蒙印可。遂由洛。抵龍門。復至都下。欲繼宗風意有未決。忽遇言法華。拊師背曰。雲門臨濟去。及至姑蘇禮明覺(雪竇顯也)於翠峯。覺問汝名甚麼。曰義懷覺曰。何不名懷義。曰當時致得覺曰。誰為汝立名。曰受戒來十年矣覺曰。汝行脚費却多少草鞋。曰和尚莫瞞人好。覺曰。我也沒量罪過汝也沒量罪過。你作麼生。師無語。覺打曰。脫空謾語漢。出去。入室次。覺曰。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師擬議覺又打出。如是者數四。尋為水頭。因汲水折擔。忽悟作投機偈曰。一二三四五六七。萬仞峯頭獨足立。驪龍頷下奪明珠。一言勘破維摩詰。覺聞拊几稱善。後七坐道場。化行海內。嗣法者甚眾。

【頌】上堂。衲僧橫說豎說。未知有頂門上眼。時有僧問。如何是頂門上眼。師曰。衣穿瘦骨露。屋破看星眠。

○上堂。夫為宗師。須是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遇賤即貴。遇貴即賤。驅耕夫之牛。令他苗稼豐登。奪饑人之食。令他永絕饑渴。遇賤即貴。握土成金。遇貴即賤。變金成土。老僧亦不驅耕夫之

牛。亦不奪饑人之食。何謂耕夫之牛。我復何用。饑人之食我復何餐。我也不握土成金也不變金作土何也。金是金。土是土。玉是玉石是石僧是僧俗是俗。古今天地。古今日月。古今山河。古今人倫。雖然如此打破大散關幾箇迷逢達磨。

【頌】上堂。鴈過長空。影沉寒水。鴈無遺蹤之意水無留影之心。若能如是。方解向異類中行。不用續晷截鶴夷嶽盈壑。放行也百醜千拙。收來也攣攣拳拳。用之。則敢與八大龍鬪富。不用。都來不直半分錢參。

○上堂。靈源絕朕。普現色身。法離斷常。有無堪示。所以塵塵不見佛。剎剎不聞經。要會靈山親授記。晝見日。夜見星良久曰。若到諸方。不得錯舉。參。

○上堂。虛明自照不勞心力。上士見之。鬼神茶飯。中士得之。狂心頓息更有一人。切忌道著。

○上堂。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白雲淡泞出沒太虛之中。何似南山起雲北山下雨若也會得。甜瓜徹蒂甜若也不會。苦瓠連根苦。室中問僧。無手人能行拳無舌人解言語忽然無手人打無舌人。無舌人道箇甚麼。又曰。蜀魄連宵吽。鷄[刁*鳥]終夜啼圓通門大啟。何事隔雲泥。

【頌】師舉金剛經云。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法眼云若見諸相非相。即不見如來。師曰。若見諸相非相。眼在甚麼處。此語有兩負門【增收】。

【頌】示眾曰。百骸俱潰散。一物鎮長靈百骸潰散皆歸土。一物長靈甚處安。(南堂興云)一物長靈甚處安。長空雲散碧天寬蓮宮佛剎花無數。眨起眉毛子細觀【增收】。

承天宗禪師

僧問。如何是般若體。師曰。雲籠碧嶠。曰如何是般若用。師曰。月在清池。

南明慎禪師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水天影交碧。曰畢竟是同是別。師曰。松竹聲相寒。

君山昇禪師

上堂。大方無外。含裹十虛至理不形圓融三際高超名相。妙體全彰。迴出古今。真機獨露。握驪珠而鑑物。物物流輝。擲寶劍以揮空空絕迹。把定則摩竭掩室。淨名杜詞。放行則拾得搖頭寒山拊掌。且道是何人境界。拈拄杖卓一下曰瞬目揚眉處憑君子細看。

洞庭惠金典座

依明覺於雪竇。聞舉須彌山話默有契。一日欲往訊。遇之殿軒。覺問汝名甚麼曰惠金。覺曰。阿誰惠汝金。曰容少間去方丈。致謝覺曰即今。擗。曰這裏容和尚不得。

修撰曾會居士

幼與明覺同舍。及冠異途。天禧間。公守池州一日會于景德寺公遂引中庸大學。參以楞嚴符宗門語句質明覺。覺曰。這箇尚不與教乘合。況中庸大學耶。學士要徑捷理會此事。乃彈指一下曰。但恁麼薦取。公於言下領旨。天聖初。公守四明。以書幣迎師。補雪竇。既至公曰。某近與清長老商量趙州勘婆子話。未審端的有勘破處也無。覺曰。清長老道箇甚麼。公曰。又與麼去也。覺曰。清長老且放過一著。學士還知天下衲僧出這婆子圈襪不得麼。公曰。這裏別

有箇道處。趙州若不勘破婆子。一生受屈。覺曰。勘破了也。公大笑。

圓通訥禪師

肄業講肆。耆年多下之。會禪者南遊回。力勉其行。於是徧參荆楚間。迄無所得。至襄州洞山。留止十年。因讀華嚴論有省後遊廬山道價日起。

法昌遇禪師

有大志。自受具遊方。名著叢席。浮山遠和尚嘗指謂人曰。此後學行脚樣子也。參北禪。禪問近離甚處。師曰福巖。禪曰。思大鼻孔長多少。師曰。與和尚當時見底一般。禪曰。汝道我見時長多少。師曰。和尚大似不曾到福巖。禪曰。學語之流。又問。來時馬大師安樂否。師曰。安樂禪曰向汝道甚麼。師曰。教和尚莫亂統。禪曰。念汝新到。不能打得你。師曰。某甲亦放和尚。過茶罷。禪問。鄉里甚處。師曰漳州。禪曰。三平在彼作甚麼。師曰。說禪說道禪曰。年多少。師曰。與露柱齊年。禪曰。有露柱且從無露柱年多少。師曰。無露柱一年也不少。禪曰。夜半放烏雞。師留北禪最久。於是師資敲唱。妙出一時。

○晚至西山。睽雙嶺深窳棲息三年。始應法昌之請。師在雙嶺受請與英。勝二首座相別。曰三年聚首。無事不知。檢點將來。不無滲漏。以拄杖畫一畫曰。這箇即且止。宗門事作麼生。英曰。須彌安鼻孔。師曰。恁麼則臨崖看滄眼特地一場愁。英曰。深沙努眼睛。師曰。爭奈聖凡無異路。方便有多門。英曰。鐵蛇鑽不入。師曰。這般漢。有甚共語處英曰。自緣根力淺。莫怨太陽春。却畫一畫曰。宗門事且止。這箇事作麼生。師便掌。英曰。這漳州子。莫無去就。師曰。你這般見解。不打更待何時。又打。英曰。也是老僧

招得。上堂。祖師西來。特唱此事祇要時人知有。如貧子衣珠不從人得。三世諸佛。祇是弄珠底人。十地菩薩祇是求珠底人。汝等正是矜覬乞丐懷寶迷邦。靈利漢纔聞舉著眨上眉毛。便知落處。若是踏步向前。不如策杖歸山去。長嘯一聲煙霧深。

【頌】示眾我要一箇不會禪底作國師。

○上堂。春山青。春水綠。一覺南柯夢初足。携筇縱步出松門。是處桃英香馥郁。因思昔日靈雲老。三十年來無處討。如今競愛摘楊華。紅香滿地無人掃。

○上堂。拈起拄杖曰。我若拈起。你便喚作先照後用我若放下。你便喚作先用後照我若擲下。你便喚作照用同時。忽然不拈不放。你向甚麼處卜度。直饒會得個儻分明若遇臨濟德山。便須腦門著地。且道伊有甚麼長處。良久曰。曾經大海休誇水。除却須彌不是山。

廣因要禪師

上堂。古者道。祇恐為僧心不了。為僧心了總輸僧。且如何是諸上座了底心。良久曰。漁翁睡重深潭濶。白鳥不飛舟自橫。

雲居了元佛印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木頭雕不就。曰恁麼則皆是虛妄也。師曰。梵音深遠令人樂聞。

○問如何是諸佛說不到底法師曰。蟻子解尋腥處走蒼蠅偏向臭邊飛曰學人未曉請師再指。師曰。九萬里鵬從海出一千年鶴遠天歸。

○問大修行人。還入地獄也無。師曰。在裏許。曰大作業人。還上天堂也無。師曰。鯁跳不出斗。曰恁麼則鑊湯爐炭吹教滅。劒樹刀山喝使摧。師曰。自作自受。乃曰。適來禪客。出眾禮拜各以無量

珍寶布施大眾。又於面門上。放大光明。照耀乾坤。令諸人普得相見。於此明得。可謂十方諸佛。各坐其前。常為勞生。演說大法。豈假山僧重重註破如或未然。不免橫身狗物。乃橫按拄杖曰。萬般草木根苗異一得春風便放花。

○師一日與學徒入室次。適東坡居士到面前。師曰。此間無坐榻。居士來此作甚麼。士曰。暫借佛印四大為坐榻。師曰。山僧有一問。居士若道得。即請坐。道不得。即輸腰下玉帶子。士欣然曰。便請。師曰。居士適來道。暫借山僧四大為坐榻祇如山僧四大本空。五蘊非有。居士向甚麼處坐。士不能答。遂留玉帶。師却贈以雲山衲衣。士乃作偈三首。其一曰。病骨難堪玉帶圍。鈍根仍落箭鋒機。會當乞食歌姬院。奪得雲山舊衲衣餘不備錄。

智海逸正覺禪師

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青青河畔草。曰磨後如何。師曰。鬱鬱園中柳。曰磨舉未磨是同是別。師曰。同別且置。還我鏡來。僧擬議。師便喝。

○上堂。拈拄杖曰。這拄杖。在天也。與日月竝明。在地也與山河同固。在王侯也以代蒲鞭。在百姓也防身禦惡在衲僧也。晝橫肩上。渡水穿雲。夜宿旅亭撐門拄戶。且道在山僧手裏。用作何為。要會麼有時放步東湖上。與僧遙指遠山青。擊禪牀下座。

○上堂。憶得老僧年七歲時。於村校書處得一法門。超情離見。絕妙絕玄爰自染神。逾六十載。今日輒出。普告大眾若欲傳持。宜當諦聽。遂曰。寒原耕種罷。牽犢負薪歸。此夜一爐火。渾家身上衣。諸禪德逢人不得錯舉。

○上堂。古者道接物利生絕妙。外甥終是不肖。他家自有兒孫。將來應用恰好。諸禪德。還會麼菜園牆倒晴方築房店籬穿雨過修。院

字漏時隨分整。兒孫大小盡風流。

○道士問如何是道。師曰。龍吟金鼎虎嘯丹田。曰如何是道中人。師曰。吐故納新。曰道與道中人相去多少。師曰。買鶴顛崖上。沖天味米民。

天章楚禪師

上堂。鼓聲錯落。山色崔嵬。本既不有。甚處得來。良久曰。高著眼。

蔣山泉禪師

僧問。古人說不到處請師說。師曰。夫子入太廟。曰學人未曉。師曰。春暖柳條青。

○聖節上堂。拈拄杖擊法座一下曰。以此功德。祝延聖壽。便下座。

○上堂。時人欲識南禪路。門前有箇長松樹。脚下分明不較多。無奈行人恁麼去。莫恁去。急回顧。樓臺煙鎖鐘鳴處。

○師因雪下上堂。召大眾曰。還有過得此色者麼。良久曰。文殊笑。普賢瞋。眼裏無筋一世貧。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

○上堂。快人一言快馬一鞭。若更眼睛定動未免紙裏麻纏脚下是地。頭上是天。不信但看八九月。紛紛黃葉滿山川。

慈雲慧禪師

上堂。片月浸寒潭。微雲滿空碧。若於達道人。好箇真消息。還有達道人麼。微雲穿過你觸體。片月觸著你鼻孔。珍重。

歸宗通禪師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曰。日出東方夜落西。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曰。鐵山橫在路。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曰。船子下揚州(人天眼目云。鐵船橫古路)。

○上堂。從無入有易。從有入無難。有無俱盡處。且莫自顛頂。舉來看。寒山拾得禮豐干。

天宮徽禪師

上堂。八萬四千波羅蜜門門長開。三千大千微塵諸佛。佛佛說法。不說有。不說無。不說非有非無。不說亦有亦無。何也。離四句。絕百非。相逢舉目少人知。昨日霜風漏消息。梅華依舊綴寒枝。

福昌信禪師

上堂。召大眾。眾舉頭。師曰。南山風色緊便下座。

慧林宗本圓照禪師

遊方至池陽。謁振宗。宗舉天親從彌勒內宮而下。無著問云。人間四百年。彼天為一晝夜。彌勒於一時中。成就五百億天子。證無生法忍。未審說甚麼法。天親曰。祇說這箇法。如何是這箇法。師久而開悟。宗一日問師。即心即佛時如何。師曰。殺人放火。有甚麼難。於是名播寰宇。

○僧問。上是天。下是地。未審中間是甚麼物。師曰。山河大地。曰恁麼則謝師答話。師曰。大地山河。曰和尚何得瞞人。師曰。却是老僧罪過。

○上堂。頭圓像天。足方似地。古貌稜層。丈夫意氣。趨倒須彌。踏翻海水。帝釋與龍王無著身處。乃拈拄杖曰。却來拄杖上回避。咄。任汝神通變化。究竟須歸這裏。以拄杖卓一下。

法雲圓通秀禪師

習圓覺華嚴。妙入精義。因謁鐵佛懷禪師。懷問曰。座主講甚麼經。師曰。華嚴。曰華嚴以何為宗。師曰。法界為宗。曰法界以何為宗。師曰。以心為宗。曰心以何為宗。師無對。懷曰。毫釐有差。天地懸隔汝當自看。必有發明。後聞僧舉白兆參報慈情未生時如何。慈曰隔。師忽大悟。直詣方丈。陳其所證。懷曰。汝真法器。吾宗異日。在汝行矣。

○僧問。不離生死而得涅槃不出魔界而入佛界。此理如何。師曰。赤土茶(一作塗)牛爛。曰謝師答話。師曰。你話頭道甚麼僧擬議。師便喝。

○上堂。看風使帆。正是隨波逐浪。截斷眾流。未免依前滲漏。量才補職。寧越短長。買帽相頭難得恰好。直饒上不見天。下不見地。東西不辨。南北不分。有甚麼用處。任是鈍鋼打就。生鐵鑄成。也須額頭汗出。總不恁麼。如何商量。良久曰。赤心片片誰知得。笑殺黃梅石女兒。

○上堂。山僧不會巧說。大都應箇時節。相喚喫椀茶湯。亦無祖師妙訣。禪人若也未相諳。踏著秤鎚硬似鐵。

慧林若沖覺海禪師

上堂。碧落靜無雲。秋空明有月。長江瑩如練。清風來不歇。林下道人幽。相看情共悅。諸仁者。適來道箇清風明月。猶是建化門中

事。作麼生是道人分上事。良久曰閒來石上觀流水。欲洗禪衣未有塵。

○上堂。無邊義海。咸歸顧盼之中。萬象形容。盡入照臨之內。你諸人築著磕著。因甚麼却不知。良久曰。莫怪山僧太多事。光陰如箭急相催。珍重。

長蘆應夫禪師

上堂。召眾曰。江山繞檻。宛如水墨屏風。殿閣凌空。麗若神僊洞府。森羅萬象。海印交參一道神光。更無遮障。諸人還會麼。良久曰。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參。

佛日智才禪師

上堂。城裏喧繁。空山寂靜。然雖如此。動靜一如。死生不二。四時輪轉。物理湛然。夏不去而秋自來。風不涼而人自爽。今也古也。不改絲毫誰少誰多。身無二用。諸禪德既身無二用。為甚麼龍女現十八變。君不見。弄潮須是弄潮人。珍重。

○上堂。風雨蕭騷。塞汝耳根。落葉交如。塞汝眼根。香臭叢雜。塞汝鼻根。冷熱甘甜。塞汝舌根。衣綿溫冷。塞汝身根。顛倒妄想。塞汝意根。諸禪德。直饒汝翻得轉。也是平地骨堆。參。

○上堂。舉柏樹子話。師曰。趙州庭柏。說與禪客。黑漆屏風。松權亮喞。

天鉢元禪師

初遊講肆。頗達宗教。嘗燕坐古室。忽聞空中有告師。學上乘者。無滯於此。驚駭出視。杳無人跡。翌日客至出寒山集。師一覽之。

即慕參玄。至天衣法席。遇眾請益豁然大悟。衣印可。曰此吾家千里駒也。

○上堂。冬不受寒。夏不受熱。身上衣。口中食應時應節。既非天然自然盡是人人膏血。諸禪德。山僧恁麼說話。為是世法。為是佛法。若也擇得分明。萬兩黃金亦消得。喝一喝。

棲賢遷禪師

上堂。是甚麼物。得恁頑頑嚚嚚。覩覩睨睨。拊掌呵呵大咲曰。今朝巴鼻。直是黃面瞿曇通身是口。也分疎不下。久立。

梵言首座

示眾。南陽國師道說法有所得。斯則野干鳴說法無所得。是名師子吼。師曰。國師恁麼道大似掩耳偷鈴。何故。說有說無盡是野干鳴。諸人要識師子吼麼。咄。

三祖會禪師

僧問。理雖頓悟。事假漸除。除即不問。如何是頓悟底道理。師曰。言中有響。曰便恁麼又且如何。師曰。金毛師子。問生也猶如著衫。死也猶如脫袴。未審意旨如何。師曰。譬如閑。曰為甚麼如此。師曰。因行不妨掉臂。

澄照慈禪師

上堂。若論此事眨上眉毛。早是蹉過那堪進步向前。更要山僧說破。而今說破了也。還會麼昨日雨今日晴。

崇德澄禪師(秀州人也)

上堂。覲面相呈。更無餘事。若也如此。豈不俊哉。山僧蓋不得已。曲為諸人。若向衲僧面前。一點也著不得。諸禪德。且道衲僧面前。說箇甚麼即德。良久曰。深秋簾幕千家雨。落日樓臺一笛風。

定慧雲禪師

僧問。如何是為人一句。師曰。見之不取。曰學人未曉。師曰。思之千里。

報本存禪師

在天衣受請。上堂曰。長江聖壽。見召住持。進退不遑。且隨緣分。此皆堂頭和尚提耳訓育。終始獎諭。若據今日正令當行。便好一棒打殺。那堪更容立在座前。雖然如是。養子方知父慈。

開聖棲禪師

開堂垂語曰。選佛場開。人天普會。莫有久歷覺場罷參禪客。出來相見時有僧出。師曰。作家作家。僧曰莫著忙。師曰。元來不是作家。僧提起坐具曰。看看。摩竭陀國。親行此令。師曰。祇今作麼生。僧禮拜。師曰。龍頭蛇尾。

衡山禮禪師

上堂。若論此事。直下難明三賢罔測。十聖不知。到這裏須高提祖令。橫按鎊錘。佛尚不在纖塵何立。直教教彌粉碎。大海焦枯放一線道與諸人商量。且道商量箇甚麼。良久曰。鹽貴米賤。

雲門侃禪師

上堂。塵勞未破。觸境千差。心鑑圓明絲毫不立。靈光皎皎。獨露現前。今古兩忘。聖凡路絕。到這裏。始能卷舒自在。應用無虧。出沒往還人間天上。大眾。雖然如是。忽被人把住。問你道。拄杖子向甚麼處著。又如何祇對。還有人道得麼。出來道看。眾無對。乃拍禪牀下座。

太平坦禪師

上堂。是法無宗。隨緣建立。聲色動靜。不昧見聞。舉用千差。如鐘待扣。於此薦得。且隨時著衣喫飯。若是德山臨濟。更須打草鞋行脚。參。

佛足祥禪師

僧問。一色無變異。喚作露地白牛還端的也無。師曰。頭角生也。曰頭角未生時如何。師曰。不要犯人苗稼。

明因贊禪師

上堂。橫按拄杖曰。若恁麼去。直得天無二日。國無二王。釋迦老子。飲氣吞聲。一大藏教。如蟲蝕木。設使鑽仰不及。正是無孔鐵鎚假饒信手拈來。也是殘羹餽飯。一時吐却。方有少分相應更乃墮在空亡。依舊是鬼家活計。更會麼。雨後始知山色翠。事難方見丈夫心。卓拄杖下座。

侍郎楊傑居士

號無為歷參諸名宿。晚從天衣遊。衣每引老龐機語。令研究深造。後奉祀泰山。一日雞一鳴。睹日如盤涌。忽大悟。乃別有男不婚。有女不嫁之偈曰。男大須婚。女長須嫁。討甚閒工夫。更說無生話。書以寄衣。衣稱善。後會芙蓉。楷禪師。公曰。與師相別幾年。蓉曰。七年。公曰。學道來。參禪來。蓉曰。不打這鼓笛。公

曰。恁麼則空遊山水。百無所能也。蓉曰。別來未久。善能高鑑。公大笑。公有辭世偈曰。無一可戀。無一可捨太虛空中。之乎者也。將錯就錯。西方極樂。

慧日堯禪師

僧問古者道我有一句。待無舌人解語。却向汝道。未審意旨如何。師曰。無影樹下好商量。僧禮拜。師曰。瓦解冰消。

中際遵禪師

上堂。八萬四千深法門。門門有路超乾坤。如何箇箇踏不著。祇為蜈蚣太多脚。不唯多脚亦多口釘觜鐵舌徒增醜。拈鎚豎拂泥洗泥。揚眉瞬目籠中雞。要知佛祖不到處。門掩落花春鳥啼。

百丈悟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問誰。曰特問和尚。師曰。鷓子過新羅。

善權泰禪師

上堂。諸佛出世。廣演三乘。達磨西來。密傳大事。上根之者。言下頓超。中下之流。須當漸次。發明心地。或一言唱導。或三句敷揚。或善巧應機。遂成多義。撮其樞要。總是空花。一句窮源。沉埋祖道。敢問諸人。作麼生是依時及節底句。良久曰。微雲淡河漢。疎雨滴梧桐參。

崇福基禪師

上堂。若於這裏會得。便能入一佛國。坐一道場。水鳥樹林。共談斯要。樓臺殿閣。同演真乘。續千聖不盡之燈。照八面無私之燄。

所以道。在天同天。在人同人。還有知音者麼。良久曰。水底金烏天上日。眼中瞳子面前人。

大中隆禪師

上堂。法無異法。道無別道。時時逢見釋迦。處處撞著達磨。放步即交肩開口即齧破。不齧破。大小大。

○上堂。夫欲智拔。先須定動。卓拄杖曰。唵嚩嚩嚩唎娑婆訶。歸堂喫茶。

○上堂。平旦寅。曉何人。處處彌陀佛。家家觀世音。月裏麒麟看北斗。向陽棹子一邊青。

僉判劉經臣居士

少以逸才登仕。版於佛法。未之信。年三十二。會東林照覺總禪師與語。啟迪之。乃敬服。因醉心祖道。既而抵京師。謁慧林冲禪師。於僧問雪竇。如何是諸佛本源。答曰。千峯寒色。語下有省。歲餘官雒幕。就參韶山杲禪師。將去任。辭韶山。山囑曰。公如此用心。何愁不悟。爾後或有非常境界無量歡喜。且急收拾。若收拾得去。便成法器。若收拾不得。則有不寧之疾成失心之患矣。未幾。復至京師。趨智海。依正覺逸禪師。請問因緣。海曰。古人道平常心是道。你十二時中。放光動地。不自覺知。向外馳求。轉疎轉遠。公益疑不解。一夕入室。海舉傳燈所載。香至國王問波羅提尊者。何者是佛。尊者曰。見性是佛之語問之。公不能對。疑甚。遂歸就寢。熟睡至五鼓。覺來方追念間。見種種異相。表裏通徹。六根震動。天地回旋。如雲開月現。喜不自勝。忽憶韶山臨別所囑之言姑抑之。逗明趨智海。悉以所得告。海為證據。且曰。更須用得始得。公曰。莫要踐履否。海厲聲曰。這箇是甚麼事。却說踐履。公默契。乃作發明心地頌八首。及著明道論儒篇以警世。

清獻公趙抃居士

字悅道。年四十餘。擯去聲色。系心宗教。會佛慧來居衢之南禪。公日親之。慧未嘗容措一詞。後典青州政事之餘。多宴坐。忽大雷震驚。即契悟。作偈曰。默坐公堂虛隱几。心源不動湛如水。一聲霹靂頂門開。喚起從前自家底。慧聞笑曰。趙悅道撞彩耳。

○富鄭公初於宗門未有所趣。公勉之書曰。伏惟執事。富貴如是之極。道德如是之盛。福壽康寧。如是之備。退休閒逸。如是之高。其所未甚留意者。如來一大事因緣而已。能專誠求所證悟。他日為門下賀也(公年七十有二。以太子少保致仕。作高齋自適)。

法雲善本禪師

僧問。寶塔元無縫。如何指示人。師曰。煙霞為背面。星月繞簷楹。曰如何是塔中人。師曰。竟日不知清世事。長年占斷白雲鄉。曰向上更有事也無。師曰。太無厭生。

○上堂。上不見天。下不見地。畱塞虛空。無處回避。為君明破即不中。且向南山看鼈鼻。擲拄杖下座。

金山善寧禪師

上堂。顧視大眾曰。古人道。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談論。在身覺觸。在意攀緣。雖然如是。祇見錐頭利。不見鑿頭方。若是金山即不然。有眼覷不見。有耳聽不聞。有鼻不知香。有舌不談論。有身不覺觸。有意絕攀緣。一念相應。六根解脫。敢問諸禪德。且道與前來是同是別。莫有具眼底衲僧。出來通箇消息。若無。復為諸人重重註破。放開則私通車馬。捏聚則毫末不存。若是飽戰作家。一任是非貶剝。

壽州資壽巖禪師

僧問。大藏經中還有奇特事也無。師曰。祇恐汝不信。曰如何即是。師曰。黑底是墨。黃底是紙。曰謝師答話。師曰。領取鉤頭意。莫認定盤星。

○上堂。乾坤肅靜。海晏河清。風不鳴條。雨不破塊。春生夏長。秋收冬藏。這箇是世間法。作麼生是佛法。良久曰。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秀州本覺一禪師

僧問如何是句中玄。師曰。崑崙騎象藕絲牽。曰如何是體中玄。師曰。影浸寒潭月在天。曰如何是玄中玄。師曰。長連牀上帶刀眠。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放下著。

○上堂。折半列三人人道得去一拈七亦要商量。正當今日。雲門。道底不要別作麼生露得箇消息。良久曰。日月易流。

投子顯禪師

上堂。巍巍少室。永鎮羣峯。有時雲中捧出。有時霧罩無蹤。有時突出目前。有口道不得。被人喚作壁觀胡僧。諸仁者。作麼生免得此過。休休。不如且持課。良久曰。一元和。二佛陀。三釋迦。自餘是甚椀躡丘。參。

地藏恩禪師

上堂。雨後鳩鳴。山前麥熟。何處牧童兒。騎牛笑相逐。更把鐵笛橫吹。風前一曲兩曲。參。

靈曜良禪師

上堂。不知時分之延促。不知日月之大小。灰頭土面。且與麼過。山僧每遇月朔。特地鬪釘家風。抑揚問答。一場笑具。雖然如是。因風撮土。借水獻花。有箇葛藤露布。與諸人共相解摘看。驀拈拄杖擊香臺曰。參堂去。

香山泳禪師

上堂。心隨境現。境逐心生。心境兩忘。是箇甚麼。拈起拄杖曰。且道這箇甚處得來。若道是拄杖。瞎却汝眼。若道不是拄杖。眼在甚麼處。是與不是。一時拈却。且騎拄杖出三門去也。遂曳杖下座。

靈泉一禪師

上堂。美玉藏頑石。蓮華出淤泥。須知煩惱處。悟得即菩提。咄。

石佛通禪師

僧問。如何是頓教。師曰。月落寒潭。曰如何是漸教。師曰。雲生碧漢。曰不漸不頓時如何。師曰。八十老婆不言嫁。

法雲惟白佛國禪師

上堂。過去已過去。未來且莫算。正當現在事。今朝正月半。明月正團圓。打鼓普請看。大眾。看即不無畢此喚甚麼作月。休於天上覓。莫向水中尋。師有續燈錄三十卷入藏。

僊巖純禪師

僧問德山棒。臨濟喝。和尚如何作用。師曰。老僧今日困。僧便喝。師曰。却是你惺惺。

慈濟聰禪師

上堂。終日孜孜相為。恰似牽牛上壁。大眾。何故如此。貪生逐日區區去。喚不回頭爭奈何。

白兆珪禪師

上堂。幸逢嘉會。須采異聞。既遇寶山。莫令空手。不可他時後日。門扇後壁角頭。自說大話也。窮天地。亘古今。即是當人一箇自性於是中間。更無他物。諸人每日行時行著。臥時臥著。坐時坐著。祇對語言時。滿口道著。以至揚眉瞬目嗔喜愛憎。寂默遊戲。未始間斷。因甚麼不肯承當。自家歇去。良由無量劫來。愛欲情重。生死路長。背覺合塵。自生疑惑。譬如空中飛鳥。不知空是家鄉。水裏遊魚。忘却水為性命。何得自抑。却問傍人。大似捧飯稱饑臨河叫渴。諸人要得休去麼。各請立地。定著精神。一念回光。豁然自照。何異空中紅日。獨運無私。盤裏明珠。不撥自轉。然雖如是祇為初機。向上機關未曾踏著。且道作麼生是向上機關。良久曰。仰面看天不見天。

福嚴初禪師

上堂。即性之相。一亘晴空。即相之性。千波競起。若徹來源。清流無阻。所以舉一念。而塵沙法門頓顯。拈一毫而無邊剎境齊彰。且道文殊普賢在甚麼處。下坡不走。快便難逢。便下座。

德山仁繪禪師

上堂。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山僧即不然。至道最難。須是揀擇。若無憎愛。爭見明白。

香積旻禪師

上堂。木馬衝開千騎路。鐵牛透過萬重關。木馬鐵牛在甚麼處。良久曰。驚起暮天沙上鴈。海門斜去兩三行。

瑞相來禪師

上堂。顧視眾曰。夫為宗匠。隨處提綱。應機問答。殺活臨時心眼精明。那容妖怪。若也棒頭取證喝下承當。埋沒宗風。恥他先作。轉身一路。不在疑遲。一息不來。還同死漢。大眾直饒到這田地。猶是句語埋藏。未有透脫一路。敢問諸人作麼生是透脫一路。還有人道得麼。若無。山僧不免與諸人說破。良久曰。玉離荆楚寒光動。劍出豐城紫氣橫。

真空一禪師

上堂。心鏡明。鑑無礙。遂拈起拄杖曰。喚這箇作拄杖即是礙。不喚作拄杖亦是礙。離此之外。畢竟如何。要會麼。礙不礙。誰為對。大地山河。廓然粉碎。

華嚴智明禪師

上堂。若論此事。在天則列萬象而齊現。在地則運四時而發生。在人則出歿卷舒。六根互用。且道在山僧拄杖頭上。又作麼生。良久卓一下曰。高也著低也著。

永泰航禪師

上堂。龍騰碧漢。變化無方。鳳翥青霄。誰知蹤跡。可行則行。不出百千三昧。可止則止。寧忘萬象森羅。所以道取不得。舍不得。不可得中祇麼得。且道得箇甚麼。良久曰。莫妄想。

壽聖邦禪師

僧問。祖意教意。拈放一邊。如何得速成佛去。師曰。有成終不是。是佛亦非真。僧擬議。師叱曰。話頭道甚麼。

長蘆蹟禪師

上堂。樓外紫金山色秀。門前甘露水聲寒。古槐陰下清風裏。試為諸人再指看。拈拄杖曰。還見麼。擊香桌曰。還聞麼。靠却拄杖曰。眼耳若通隨處足。水聲山色自悠悠。

夾山齡禪師

上堂。良久打一圓相曰。大眾五千餘卷詮不盡。三世諸佛讚不及。令人却憶賣油翁。狼忙走下繩牀立。參。

元豐滿禪師

上堂。此劔刃上事。須劔刃上漢始得。有般名利之徒。為人天師。懸羊頭。賣狗肉。壞後進初機。滅先聖洪範。你等諸人。聞恁麼事。豈不寒心。由是疑悞眾生墮無間獄。苦哉苦哉。取一期快意。受萬劫餘殃。有甚麼死急來為釋子。喝曰。聵人徒側耳。便下座。

善勝悟禪師

上堂。揚聲止響。不知聲是響根。弄影逃形。不知形為影本。以法問法。不知法本非法。以心傳心。不知心本無心。心本無心。知心如幻。了法非法。知法如夢。心法不實。莫謾追求。夢幻空華。何勞把捉。到這裏。三世諸佛。一大藏教。祖師言句。天下老和尚路布葛藤。盡使不著。何故。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西京招提湛禪師(嘉禾人也)

上堂。偏不偏。正不正。那事從來難比竝。滿天風雨骨毛寒。何須更入那伽定。卓拄杖下座。

○上堂。六塵不惡。還同正覺。馬上誰家白面郎。穿花折柳垂巾角。夜來一醉明月樓。呼盧輸却黃金宅。臂鷹走犬歸不歸。娥眉皓齒嗔無力。此心能有幾人知。黃頭碧眼非相識。囉囉哩。拍手一下。下座。

淨慈楚明禪師

上堂。出門見山水。入門見佛殿。靈光觸處通。諸人何不薦。若不薦。淨慈今日不著便。

○上堂。若論此事。如散鋪寶貝。亂堆金玉。昧己者自甘窮困。有眼底信手拈來。所以道。閻浮有大寶。見少得。還稀。若人將獻我。成佛一餉時。乃拈拄杖曰。如今一時呈似。普請大眾。高著眼。擲拄杖下座。

雪峯思慧禪師

上堂。大道祇在目前。要且目前難睹。欲識大道真體。今朝三月十五。不勞久立。

○上堂。一切法無差。雲門胡餅趙州茶。黃鶴樓中吹玉笛。江城五月落梅花。慚愧太原孚上座。五更聞鼓角。天曉弄琵琶。喝一喝。

○上堂。南詢諸友。踏破草鞋。絕學無為。坐消日月。凡情易脫。聖解難忘。但有纖毫。皆成滲漏。可中為道。似地擎山。應物現形。如驢覷井。總無計較。途轍已成。若論相應。轉沒交涉。勉諸仁者。莫錯用心。各自歸堂。更求何事。

資福明禪師

上堂。若論此事。譬如伐樹得根。灸病得穴。若也得根。豈在千枝徧斫。若也得穴。不假六分全燒。以拄杖卓一下曰。這箇是根。那

箇是穴。擲下拄杖曰。這箇是穴。又喚甚麼作根。咄。是何言歟。

雲峯璿禪師

上堂。休去歇去。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一條白練去。大眾。古人見處。如日暉空。不著二邊。豈墮陰界。堪嗟後代兒孫。多作一色邊會。山僧即不然。不休去。不歇去。業識茫茫去。七顛八倒去。十字街頭。鬧浩浩地。聲色裏坐臥去。三家村裏。盈衢塞路。荊棘裏遊戲去。刀山劒樹。劈腹剜心。鑊湯爐炭。皮穿骨爛去。如斯舉唱。大似三歲孩兒鞦韆毬。

○上堂。瘦竹長松滴翠香。流風疏月度炎涼。不知誰住原西寺。每日鐘聲送夕陽。

○上堂。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築著額頭磕著鼻。曰意旨如何。師曰。驢駝馬載。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朝到西天。暮歸東土。曰謝師答話。師曰。大乘研郎當。僧退。師乃曰。僧問。西來意築著額頭磕著鼻。意旨又如何。驢駝并馬載。朝到西天暮歸唐。大乘恰似研郎當。何故。沒量大人。被語脉裏轉却。遂拊掌大笑下座。

○僧問。丹霞燒木佛。院主為甚麼眉鬚墮落。師曰。一人傳虛。萬人傳實。曰恁麼則不落也。師曰。兩重公案。曰學人未曉。特伸請益。師曰。筠袁虔吉。頭上插筆。

延慶復禪師

上堂。胡來胡現漢來漢現忽然胡漢俱來時如何祇準。良久曰。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參。

道場顏禪師

上堂。世尊按指。海印發光。拈拄杖曰。莫妄想便下座。

天竺從諫講師

具大知見。聲播講席。於止觀。深有所契。每與禪衲遊。嘗以道力扣大通。通一日作書寄之。師發緘睹黑白二圓相乃悟。答偈曰。黑相白相。擔枷過狀。了不了兮。無風起浪。若問究竟事如何。洞庭山在太湖上。

普濟淳禪師

上堂。雨過山青。雲開月白。帶雪寒松。搖風庭柏。山僧怎麼說話。還有祖師意也無。其或未然良久曰。看看。

尼法海禪師

首參法雲秀和尚。後領旨於法真言下。諸名儒屢挽應世。堅不從。殂日說偈曰霜天雲霧結。山月冷涵輝。夜接故鄉信。曉行人不知。屈明坐脫。

丞相富弼居士

由清獻公警勵之後不舍晝夜。力進此道聞顯禪師。主投子。法席。冠淮甸。往質所疑會顯為眾登座。見其顧視。如象王回旋。公微有得。因執弟子禮趨函丈。命侍者請為入室顯見。即曰。相公已入來。富弼猶在外。公聞汗流浹背。即大悟。尋以偈寄圓照本曰。一見顯公悟入深。夤緣傳得老師心。東南謾說江山遠。目對靈光與妙音。後奏署顯師證悟號。

尼文照禪師

上堂。靈源不動。妙體何依。歷歷孤明。是誰光彩。若道真如實際。大似好肉剜瘡。更作祖意商量。正是迷頭認影。老胡四十九年說夢即且止。僧堂裏僑陳如上座。為你諸人舉覺底還記得麼。良久曰。惜取眉毛好。

萬年幽禪師

上堂。先聖行不到處。凡流恰到。凡流既到。先聖莫知。到與不到。知與不知。總置一壁。祇如僧問乾峯。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甚麼處。峯以拄杖畫一畫曰。在這裏且道。此老與他先聖。凡流相去幾何。南山虎齧石羊兒。須向其中識生死。

慧林懷深慈受禪師

依淨照於嘉禾資聖。照舉良遂見麻谷因緣。問曰。如何是良遂知處。師即洞明。出住資福。履滿戶外。蔣山佛鑑懃禪師行化至。茶退師引巡察。至千人街坊。鑑問。既是千人街坊。為甚麼祇有一人。師曰。多虛不如少實。鑑曰。恁麼那。師赧然。偶朝廷以資福為神霄宮。因棄往蔣山。留西庵陳請益。鑑曰。資福。知是般事便休。師曰。某實未穩。望和尚不外。鑑舉倩女離魂話反覆窮之。大豁疑礙。呈偈曰。祇是舊時行履處。等閒舉著便譎訛。夜來一陣狂風起。吹落桃花知幾多。鑑拊几曰。這箇豈不是活祖師意。

○上堂。雲是何山起。風從甚澗生。好箇入頭處。官路少人行。

○上堂。不是境。亦非心。喚作佛時也陸沉。箇中本自無階級。切忌無階級處尋。總不尋。過猶深。打破雲門飯袋子。方知赤土是黃金。咄。

萬壽瓚禪師

凡見僧。必問近日如何。僧擬議。即拊其背曰。不可思議。將示寂。眾集。復曰。不可思議。乃合掌而終。

天衣哲禪師

有以瑞巖喚主人公話問者。師答以偈曰。瑞巖長喚主人公。突出須彌最上峯。大地掀翻無覓處。笙歌一曲畫樓中。

智者詮禪師

上堂。要扣玄關。須是有節操極慷慨。斬得釘。截得鐵。硬剝剝地漢始得。若是隈刀避箭碌碌之徒。看即有分。以拂子擊禪牀下座。

報恩然禪師

上堂。學者無事空言。須求妙悟。去妙悟而事空言。其猶逐臭耳。然雖如是。罕逢穿耳客。多遇刻舟人。一日謂眾曰。世緣易染。道業難辦。汝等勉之。語卒而逝。

雪峯演禪師

上堂。遣迷求悟。不知迷是悟之鉗鎚。愛聖憎凡。不知凡是聖之爐鞴。祇如聖凡雙泯。迷悟俱忘一句作麼生道。半夜彩霞籠玉象。天明峯頂五雲遮。

衛州王大夫

參元豐。於言下知歸。既而回壇山之陽。縛茅自處者三載。偶歌曰。壇山裏。日何長。青松嶺。白雲鄉。吟鳥啼猿作道場。散髮采薇歌又笑。從教人道野夫狂。

嶽林真禪師

上堂。古人道。秋初夏末。合有責情三十棒。岳林則不然。靈山會上。世尊拈華。迦葉微笑。正當恁麼時。好與三十棒。何故如此。太平時節。強起干戈。教人吹大法螺。擊大法鼓。舉步則金蓮躑躅。端居則寶座巍巍。梵王引之於前香花繚繞。帝釋隨之於後。龍象駢羅。致令後代兒孫。遞相倣倣。三三兩兩皆言出格風標。劫劫波波未肯歸家穩坐。鼓脣搖舌。宛如鐘磬吹竽。奮臂點霄。何啻稻麻竹葦。更逞遊山翫水。撥草瞻風。人前說得石點頭。天上飛來花撲地。也好與三十棒。且道坐夏賞勞如何酬獎。良久曰。萬寶功成何厚薄。千鈞價重自低昂。

秀州觀音和尚

僧問如何是佛。師曰。半夜烏龜火裏行。曰意作麼生。師曰。虛空無背面。僧禮拜。師便打。

淨慈象禪師

上堂。古者道一翳在眼。空華亂墜。拈拄杖曰。淨慈拈起拄杖。豈不是一翳在眼。百千諸佛。總在拄杖頭現丈六紫磨金色之身。乘其國土。遊歷十方說一切法。度一切眾。豈不是空華亂墜。即今莫有向拄杖未拈已前。坐斷得麼。出來與淨慈相見。如無。切忌向空本無花。眼本無翳處著到。乃擲拄杖下座。

靈隱惠淳禪師

上堂。吾心似秋月。碧潭清皎潔。乃喝曰。寒山子話墮了也。諸禪德皎潔無塵。豈中秋之月可比。虛明絕待。非照世之珠可倫獨露乾坤。光吞萬象。普天匝地。耀古騰今。且道是箇甚麼。良久曰。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

淨慈月堂道昌禪師

上堂。未透祖師關。千難與萬難。既透祖師關。千難與萬難。未透時難即且置。既透了因甚麼却難。放下筌籬雖得價。動他柄杓也無端。

徑山照堂了一禪師

上堂。參玄之士。觸境遇緣。不能直下透脫者。蓋為業識深重。情妄膠固。六門未息。一處不通。點絕純清。含生難到。直須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始可順生死流。入人間世。諸人要會麼。以拄杖畫曰。祇向這裏薦取。

金山了心禪師

上堂。佛之一字孰云無。木馬泥牛滿道途。倚遍欄干春色晚。香風吹斷碧珊瑚。還有同聲相應。同氣相求者。麼百鳥不來樓閣閉。祇聞夜雨滴芭蕉。

香巖如壁禪師

上堂。變化密移何太急。剎那念念一呼吸。八萬四千方便門。且道何門不可入。人不入。曉來雨打芭蕉濕。殷勤更問箇中人。門外堂堂相對立。

國清妙印禪師

上堂。滿口道得底。為甚麼不知有。十分知有底。為甚麼道不得。且道譎訛在甚麼處。若也知處。許你照用同時。明闇俱了。其或未難道得。道不得。知有不知有。南山石大蟲。解作師子吼。

中竺癡禪元妙禪師

僧問如何是截斷眾流句。師曰。佛祖開口無分。曰如何是函蓋乾坤句。師曰。帀地普天。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曰。有時入荒草。有時上孤峯。

靈巖日禪師

上堂。悟無不悟。得無不得。九年面壁空勞力。三脚驢兒跳上天。泥牛入海無蹤跡。為甚如此。九九八十一。

玉泉達禪師

僧問。如何是一印印空。師曰。萬象收歸古鑑中。曰如何是一印印水。師曰。秋蟾影落千江裏。曰如何是一印印泥。師曰。細觀文彩未生時。

光孝深禪師

上堂。維摩一默。普賢廣說。歷代聖人。互呈醜拙。君不見。落花三月子規啼。一聲聲是一點血。

○上堂。風蕭蕭。葉飄飄。雲片片。水茫茫。江干獨立向誰說。天外飛鴻三兩行。

(會元十六卷終)

禪宗正脉卷第八

音釋

[車*度](音鐸) 轆(音洛) 榼(苦閏切酒器也) 鶻(音骨) 茭(古爻切)
鋤(之遙切鎌也) 榼[打-丁+(天/韭)](上庵聲下音雜糞也) 肄(音異習也勞也而復漸生也) 寬(莫紅切犯日而見是突前也) 菠(補波切) 軋(音乙) 啞

(戈和二音) 蚝蜃(上音次下音猛) 鷓[刁*鳥](音掇刁) 覩(音忝) 睨(音顯) 雒(音洛) 砑(音訝) 赧(難上聲面赤愧) 鞞(音敗) 躩(蘇協切)

禪宗正脉卷第九

南嶽臨濟宗

黃龍慧南禪師

【頌】依泐潭澄禪師。分座接物。名振諸方。偶同雲峯悅禪師遊西山。夜話雲門法道。峯曰。澄公雖是雲門之後。法道異矣。師詰其所以異。峯曰。雲門九轉丹砂。點鐵成金。澄公藥汞銀。徒可翫。入煨則流去。師怒以枕投之。明日峯謝過。又曰。雲門氣宇如王。甘死語下乎。澄公有法授人。死語也。死語其能活人乎。即背去。師挽之曰。若如是則誰可汝意。峯曰。石霜圓。手段出諸方。子宜見之。不可後也。師默記之曰。悅師翠巖。使我見石霜。於悅何有哉。即造石霜。中途聞石霜不事事。忽叢林。遂登衡嶽。乃謁福嚴賢。賢命掌書記。俄賢卒。郡守以慈明補之。既至。目其貶剝諸方。件件數為邪解。師為之氣索。遂造其室。明曰。書記領徒遊方。借使有疑。可坐而商略。師哀懇愈切。明曰。公學雲門禪。必善其旨。如云放洞山三頓棒。是有喫棒分。無喫棒分。師曰。有喫棒分。明色莊曰。從朝至暮。鵲噪鴉鳴。皆應喫棒。明即端坐。受師炷香作禮。明復問。趙州道。臺山婆子我為汝勘破了也。且那裏是他勘破婆子處。師汗下不能加答。次日又詣。明詬罵不已。師曰。罵豈慈悲法施耶。明曰。你作罵會那。師於言下大悟。作頌曰。傑出叢林是趙州。老婆勘破沒來由。而今四海清如鏡。行人莫與路為讎。呈慈明。明頷之。

○後開法同安。初受請日。泐潭遣僧來審。師提唱之語有曰。智海無性。因覺妄而成凡。覺妄元虛。即凡心而見佛。便爾休去。將謂同安無折合。隨汝顛倒所欲。南斗七。北斗八。僧歸。舉似澄。澄不懌。自是泐潭舊好絕矣。

○僧問。儂家自有同風事。如何是同風事。師良久。僧曰。恁麼則起動和尚去也。師曰。靈利人難得。僧禮拜。

○示眾曰。江南之地。春寒秋熱。近日已來。滴水滴凍。僧問。滴水滴凍時如何。師曰。未是衲僧分上事。曰如何是衲僧分上事。師曰。滴水滴凍。

○上堂。說妙談玄。乃太平之姦賊。行棒行喝。為亂世之英雄。英雄姦賊。棒喝玄妙。皆為長物。黃檗門下。總用不著。且道黃檗門下。尋常用箇什麼。喝一喝。

○上堂。撞鐘鐘鳴。擊鼓鼓響。大眾殷勤問訊。同安端然合掌。這箇是世法。那箇是佛法。咄。

○上堂。有一人朝看華嚴。暮觀般若。晝夜精勤。無有暫暇。有一人不參禪。不論義。把箇破席日裏睡。於是二人同到黃龍。一人有為。一人無為。安下那一箇即是。良久曰。功德天。黑暗女。有智主人。二俱不受。

○上堂。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即神。乃拈拄杖曰。道之與聖。總在歸宗拄杖頭上。汝等諸人。何不識取。若也識得。十方剎土。不行而至。百千三昧。無作而成。若也未識。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

○上堂。舉大珠和尚道。身口意清淨。是名佛出世。身口意不淨。是名佛滅度。也好箇消息。古人一期方便。與你諸人討箇入路。既得箇入路。又須得箇出路。登山須到頂。入海須到底。登山不到頂。不知宇宙之寬廣。入海不到底。不知滄溟之淺深。既知寬廣。又知淺深。一踏踏翻四大海。一擱擱倒須彌山。撒手到家人不識。鵲噪鴉鳴柏樹間。

○上堂。千般說。萬般喻。祇要教君早回去。去何處。良久云。夜來風起滿庭香。吹落桃花三五樹。

【頌】師室中常問僧曰。人人盡有生緣。上座生緣在何處。正當問答交鋒。却復伸手曰。我手何似佛手。又問諸方參請宗師所得。却復垂脚曰。我脚何似驢脚。三十餘年。示此三問。學者莫有契其旨。脫有酬者。師未嘗可否。叢林目之為黃龍三關。

黃龍晦堂心禪師

參雲峯悅禪師。三年無所得。辭去。悅曰。必往依黃檗南禪師。師至黃檗。四年不大發明。又辭再上雲峯。會悅謝世。就止石霜。因閱傳燈。至僧問多福。如何是多福一叢竹。福曰。一莖兩莖斜。曰不會。福曰。三莖四莖曲。師於此開悟。徹見二師用處。徑回黃檗。方展坐具。檗曰。子已入吾室矣。師踴躍曰。大事本來如是。和尚何得教人看話。百計搜尋。檗曰。若不教你如此究尋。到無心處。自見自肯。即吾埋沒汝也。

○上堂。愚人除境不忘心。智者忘心不除境。不知心境本如如。觸目遇緣無障礙。遂舉拂子曰。看。拂子走過西天。却來新羅國裏。知我者。謂我拖泥帶水。不知我者。贏得一場怪誕。

○上堂。大凡窮生死根源。直須明取自家一片田地。教伊去處分明。然後臨機應用。不失其宜。祇如鋒鋌未兆已前。都無是箇非箇。瞥爾爆動。便有五行金土。相生相剋。胡來漢現。四姓雜居。各任方隅。是非鋒起。致使玄黃不辨。水乳不分。疾在膏肓。難為救療。若不當陽曉示。窮子無以知歸。欲得大用現前。便乃頓忘諸見。諸見既盡。昏霧不生。大智洞然。更非他物。珍重。

○上堂。若也單明自己。不悟目前。此人有眼無足。若悟目前。不明自己。此人有足無眼。據此二人。十二時中。常有一物蘊在胷

中。物既在胸。不安之相。常在目前。既在目前。觸途成滯。作麼生得平穩去。祖不言乎。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

【頌】師室中常舉拳問僧曰。喚作拳頭則觸。不喚作拳頭則背。喚作甚麼。

○上堂。夫玄道者。不可以設功得。聖智者。不可以有心知。真諦者。不可以存我會。至功者。不可以營事為。古人一期應病與藥則不可。若是丈夫漢。出則經濟天下。不出則卷而懷之。爾若一向聲和響順。我則排斥諸方。爾若示現酒肆姪坊。我則孤峯獨宿。且道甚處是黃龍為人眼。

東林常總照覺禪師

久依黃龍。密授大法決旨。出住泐潭。次遷東林。皆符讖記。上堂。乾坤大地。常演圓音。日月星辰。每談實相。翻憶先黃龍道。秋雨淋漓。連宵徹曙。點點無私。不落別處。復云。滴穿汝眼睛。浸爛汝鼻孔。東林則不然。終歸大海作波濤。擊禪牀下座。

寶峯克文真淨禪師

坐夏大瀉。聞僧舉僧問雲門。佛法如水中月是否。門曰。清波無透路。師乃領解。往見黃龍。不契。却曰。我有好處。這老漢不識我。遂往香城見順和尚。順問甚處來。師曰。黃龍來。曰黃龍近日有何言句。師曰。黃龍近日州府委請黃檗長老。龍垂語曰。鐘樓上念讚。牀脚下種菜。有人下得語契。便往住持。勝上座云。猛虎當路坐。龍遂令去住黃檗。順不覺云。勝首座祇下得一轉語。便得黃檗住。佛法未夢見在。師於言下大悟。方知黃龍用處。遂回見黃龍。龍問甚處來。師曰。特來禮拜和尚。龍曰。恰值老僧不在。師曰。向甚麼處去。龍曰。天台普請。南嶽遊山。師曰。恁麼則學人

得自在去也。龍曰。脚下鞋甚處得來。師曰。廬山七百五十文唱來。龍曰。何曾得自在。師指鞋曰。何嘗不自在。龍駭之。

○僧問。如何是佛。師呵呵大咲。僧曰。何哂之有。師曰。笑你隨語生解。曰偶然失利。師喝曰。不得禮拜。僧便歸眾。師復笑曰。隨語生解。

○問。江西佛手驢脚接人。和尚如何接人。師曰。鮎魚上竹竿。曰全因今日。師曰。烏龜入水。

○上堂。佛法兩字。直是難得人。有底不信自己佛事。唯憑少許古人影響。相似般若。所知境界。定相法門。動則背覺合塵。黏將去。脫不得。或學者來。如印印泥。遞相印授。不唯自誤。亦乃誤他。洞山門下。無佛法與人。祇有一口劍。凡是來者。一一斬斷。使伊性命不存。見聞俱泯。却向父母未生前。與伊相見。見伊纔向前。便為斬斷。然則剛刀雖利。不斬無罪之人。莫有無罪底麼。也好與三十拄杖。

雲居元祐禪師

上堂。月色和雲白。松聲帶露寒。好箇真消息。憑君子細看。黃龍先師。和身放倒。還有人扶得起麼。祖禰不了。殃及子孫。擊禪牀下座。

○上堂。一切聲是佛聲。以拂子擊禪牀曰。梵音深遠。令人樂聞。又曰。一切色是佛色。乃拈起拂子曰。今佛放光明。助發實相義。已到之者。頂戴奉行。未到之者。應如是知。應如是信。擊禪牀下座。今諸方三塔。師始創也。

黃檗惟勝禪師

居講聚時。偶以扇勒窻櫺有聲。忽憶教中道。十方俱擊鼓。十處一時聞。因大悟。白本講。講令參問。師徑往黃龍。後因瑞州太守委龍遴選黃檗主人。龍集眾垂語曰。鐘樓上念讚。牀脚下種菜。若人道得。乃往住持。師出答曰。猛虎當路坐。龍大悅。遂令師往。由是諸方宗仰之。

○上堂。臨濟喝。德山棒。留與禪人作模範。歸宗磨。雪峯毬。此箇門庭接上流。若是黃檗即不然。也無喝。也無棒。亦不推磨。亦不鞦毬。前面是案山。背後是主山。塞却你眼睛。拶破你面門。於此見得。得不退轉地。盡未來際。不向他求。若見不得。醍醐上味。翻成毒藥。

祐聖[宋-木+居]禪師

上堂。此事如醫家驗病方。且雜毒滿腹。未易攻治。必瞑眩之藥。而後可瘳。就令徇意投之。適足狂惑。增其沉痼。求其已病。不亦左乎。法堂前草深。於心無愧。

開元琦禪師

謁翠巖真禪師。問佛法大意。真唾地曰。這一滴落在什麼處。師捫膺曰。學人今日脾疼。巖解顏。辭參積翠。歲餘。盡得其道。乘閑侍翠。商確古今。適大雪。翠指曰。斯可以一致苕帚否。師曰不能。然則天霽日出。雲物解駁。豈復有哉。知有底人。於一切言句。如破竹。雖百節。當迎刃而解。詎容聲於擬議乎。一日翠遣僧逆問老和尚三關語如何。師厲聲曰。你理會久遠時事作麼。翠聞益奇之。於是名著叢席。翠歿。四祖演禪師命分座。室中垂語曰。一人有口道不得。姓字為誰。後傳至東林。總禪師歎曰。琦首座如鐵山萬仞。卒難逗他語脉。

仰山偉禪師

挈囊遊方。至南禪師法席。六遷星序。一日扣請。尋被喝出。足擬跨門。頓省玄旨。出世仰山。道風大著。

○上堂。大眾會麼。古今事掩不得。日用事藏不得。既藏掩不得。則日用現前。且問諸人。現前事作麼生。參。

○上堂。道不在聲色。而不離聲色。凡一語一默。一動一靜。隱顯縱橫。無非佛事。日用現前。古今凝然。理何差互。

福巖慈感禪師

上堂。古佛心。祇如今。若不會。苦沉吟秋雨微微。秋風颯颯。乍此乍彼。若為酬答。沙岸蘆華。青黃交雜。禪者何依。良久曰。筭。

雲蓋智禪師

聞法昌遇禪師。韜藏西山。即之。昌問曰。汝何所來。師曰。大寧。又問三門夜來倒。汝知麼。師愕然曰不知。昌曰。吳中石佛。大有人不曾得見。師惘然。即展拜。昌使謁翠巖真禪師。雖久之無省。且不捨寸陰。及謁黃龍於積翠。始盡所疑。後首眾石霜。遂開法道吾。徙雲蓋。

○上堂。昨日高山看釣魚。步行騎馬失却驢。有人拾得駱駝去。重賞千金一也無。若向這裏薦得。不著還草鞋錢。

○示眾。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雖然先聖恁麼道。且作箇模子搭却。若也出不得。祇抱得古人底。若也出得。方有少分相應。雲蓋則不然。騎駿馬。繞須彌。過山尋蟻跡。能有幾人知。

報本元禪師

上堂。僧問諸佛所說法。種種皆方便。是否。師曰是。曰為甚麼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師曰。且莫錯會。僧以坐具一畫。師喝曰。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今之學者。方見道不可以言宣。便擬絕慮忘緣。杜塞視聽。如斯見解。未有自在分。諸人還會寂滅相麼。出門不見一纖毫。滿目白雲與青嶂。

隆慶慶閑禪師

謁黃龍於黃檗。龍問甚處來。師曰百丈。曰幾時離彼。師曰。正月十三。龍曰。脚跟好痛與三十棒。師曰。非但三十棒。龍喝曰。許多時行脚。無點氣息。師曰。百千諸佛。亦乃如是。曰汝與麼來。何曾有纖毫到諸佛境界。師曰。諸佛未必到慶閑境界。龍問。如何是汝生緣處。師曰。早晨喫白粥。如今又覺飢。問我手何似佛手。師曰。月下弄琵琶。問我脚何似驢脚。師曰。鷺鷥立雪非同色。龍嗟咨而視曰。汝剃除鬚髮。當為何事。師曰祇要無事。曰與麼則數聲清磬是非外。一箇閑人天地間也。師曰。是何言歟。曰靈利衲子。師曰。也不消得。龍曰。此間有辯上座者。汝著精彩。師曰。他有甚長處。曰他拊汝背一下。又如何。師曰。作甚麼。曰他展兩手。師曰。甚處學這虔頭來。龍大笑。師却展兩手。龍喝之。

三祖宗禪師

上堂。明晃晃。活鱗鱗十方世界一毫末。拋向面前知不知。莫向意根上拈掇。拍一拍。

泐潭英禪師

因謁華嚴十明論。乃證宗要。即詣黃檗南禪師席。檗與語達旦。曰荷擔大法。盡在爾躬厚自愛。所至議論奪席。晚遊西山。與勝首座棲雙嶺。後開法石門。久之遷泐潭。

○上堂。顧視大眾曰。石門巖嶮鐵關牢。舉目重重萬仞高。無角鐵牛衝得破。毗盧海內作波濤。且道不涉波濤一句作麼生道。良久曰。一句不遑無著問。迄今猶作野盤僧。師因知事紛爭。止之不可。乃謂眾曰。領眾不肅。正坐無德。吾有愧黃龍。敘行脚始末曰。吾滅後火化。以骨石藏普同塔。明生死不離清眾也。言卒而逝。

保寧圓璣禪師

上堂。廣尋文義。鏡裏求形。息念觀空。水中捉月。單傳心印。特地多端。德山臨濟。枉用工夫。石鞏子湖。翻成特地。若是保寧。總不恁麼。但是隨緣飲啄。一切尋常。深遯白雲。甘為無學之者。敢問諸人。保寧畢竟將何報答四恩三有。良久曰。愁人莫向愁人說。說與愁人愁殺人。

雲峯道圓禪師

依積翠曰。宴坐下板。時二僧論野狐話。一云不昧因果。也未脫得野狐身。一云不落因果。又何曾墮野狐來。師聞之悚然。因詣積翠庵渡澗猛省。述偈曰。不落不昧。僧俗本無忌諱丈夫氣宇如王。爭受囊藏被蓋。一條柳栗任縱橫。野狐跳入金貓隊。翠見為助喜。

四祖洪演禪師

僧問。如何是心相。師曰。山河大地。曰如何是心體。師曰。汝喚甚麼作山河大地。

清隱潛庵源禪師

上堂。先師初事棲賢湜。泐潭澄。歷二十年。宗門奇奧。經論玄要。莫不貫穿。及因雲峯指見慈明。則一字無用。遂設三關語以驗學者。而學者如葉公畫龍。龍現即怖。

廉泉曇秀禪師

僧問。如何是學人轉身處。師曰。掃地澆花。曰如何是學人親切處。師曰。高枕枕頭。曰總不恁麼時如何。師曰。鶯啼嶺上。花發巖前。

靈鷲慧覺禪師

上堂。大眾。百千三昧。無量妙義。盡在諸人脚跟下。各請自家回互取。會麼。回互不回互。認取歸家路。智慧為橋梁。柔和作依怙。居安則慮危。在樂須知苦。君不見龐居士。黃金拋却如糞土。父子團圓頭。共說無生語。無生語。仍記取。九夏雪華飛。三冬汗如雨。

積翠永庵主

示眾。山僧住庵來。無禪可說。無法可傳。亦無差珍異寶。祇收得續火柴頭一箇。留與後人。令他煙燄不絕。火光長明。遂擲下拂子。時有僧就地拈起吹一吹。師便喝曰。誰知續火柴頭。從這漢邊煙消火滅去。乃拂袖歸庵。僧吐舌而去。

歸宗芝庵主

依黃龍。遂領深旨。有偈曰。未到應須到。到了令人笑。眉毛本無用。無渠底波俏。未幾。龍引退。芝陸沉于眾。一日普請罷。書偈曰。茶芽麩初離焙。筍角狼忙又吐泥。山舍一年春事辦。得閑誰管板頭低。由是衲子親之。師不懌。結庵絕頂作偈曰。千峰頂上一間屋。老僧半間雲半間。昨夜雲隨風雨去。到頭不似老僧閑。

黃龍死心悟新禪師

謁晦堂。堂豎拳問曰。喚作拳頭則觸。不喚作拳頭則背。汝喚作甚麼。師罔措。經二年。方領解。然尚談辯。無所抵牾。堂患之。偶與語。至其銳。堂遽曰。住住。說食豈能飽人。師窘。乃曰。某到此。弓折箭盡。望和尚慈悲。指箇安樂處。堂曰。一塵飛而翳天。一芥墮而覆地。安樂處。政忌上座許多骨董。直須死却無量劫來全心乃可耳。師趨出。一日聞知事捶行者。而迅雷忽震。即大悟。趨見晦堂。忘納其屨。即自譽曰。天下人總是參得底禪。某是悟得底。堂笑曰。選佛得甲科。何可當也。因號死心叟。

○僧問。如何是黃龍接人句。師曰。開口要罵人。曰罵底是接人句。驗人一句。又作麼生。師曰。但識取罵人。

○上堂。清珠下於濁水。濁水不得不清。念佛投於亂心。亂心不得不佛。佛既不亂。濁水自清。濁水既清。功歸何所。良久曰。幾度黑風翻大海。未曾聞著釣舟傾。

○室中問僧。月晦之陰。以五色彩著於暝中。令百千萬人夜視其色。寧有辯其青黃赤白者麼。僧無語。師代曰。箇箇是盲人。

○師因王正言問。嘗聞三緣和合而生。又聞即死即生。何故有奪胎而生者。某甚疑之。師曰。如正言作漕使。隨所住處。即居其位。還疑否。王曰不疑。師曰。復何疑也。王於言下領解。

黃龍靈源清禪師

印心於晦堂。每謂人曰。今之學者。未脫生死。病在甚麼處。病在偷心未死耳。然非其罪。為師者之罪也。如漢高帝給韓信而殺之。信雖死。其心果死乎。古之學者。言下脫生死。效在甚麼處。在偷心已死。然非學者自能爾。實為師者鉗錘妙密也。如梁武帝御大殿。見侯景。不動聲氣。而景之心已枯竭無餘矣。諸方所說。非不美麗。要之。如趙昌畫花。花雖逼真。而非真花也。

○上堂。江月照。松風吹。永夜清宵更是誰。霧露雲霞遮不得。箇中猶道不如歸。復何歸。荷葉團團團似鏡。菱角尖尖尖似錐。

○上堂。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祖師恁麼說話。瞎却天下人眼。識是非。別緇素底衲僧。到這裏。如何辯明。未能行到水窮處。難解坐看雲起時。

泐潭草堂清禪師

初謁大滄喆禪師。無所得。後謁黃龍。龍示以風幡話。久而不契。一日龍問。風幡話。子作麼生會。師曰。迴無入處。乞師方便。龍曰。子見貓兒捕鼠乎。目睛不瞬。四足踞地。諸根順向。首尾一直。擬無不中子誠能如是心無異緣。六根自靜。默然而究。萬無失一也。師從是屏去閑緣。歲餘。豁然契悟。以偈告龍曰。隨隨隨。昔昔昔。隨隨隨後無人識。夜來明月上孤峯。元來祇是這箇賊。龍頷之。復告之曰。得道非難。弘道為難。弘道猶在己。說法為人難。既明之後。在力行之。大凡宗師說法。一句中具三玄。一玄中具三要。子入處真實。得坐披衣。向後自看。自然七通八達去。師復依止七年乃辭。徧訪叢林。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京三卅四。曰見後如何。師曰。灰頭土面。曰畢竟如何。師曰。一場懨懨。

○上堂。色心不異。彼我無差。豎起拂子曰。若喚作拂子。入地獄如箭。不喚作拂子。有眼如盲。直饒透脫兩頭。也是黑牛臥死水。

青原信禪師

上堂。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見山是山。見水是水。及至後來親見知識有箇入處。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而今得箇休歇處。

依前見山祇是山。見水祇是水。大眾。這般見解。是同是別。有人緇素得出。許汝親見老僧。

夾山純禪師

嘗以木。刻作一獸。師子頭。牛足馬身。每陞堂時。持出示眾曰。喚作師子。又是馬身。喚作馬身。又是牛足。且道畢竟喚作甚麼。令僧下語。莫有契者。師示頌曰。軒昂師子首。牛足馬身材。三道如能入。玄關疊疊開。

雙嶺化禪師

上堂。翠竹黃華非外境。白雲明月露全真。頭頭盡是吾家物。信手拈來不是塵。遂舉拂子曰。會麼。認著依前還不是。擊禪牀下座。

龜山曉津禪師

上堂。田地穩密。過犯彌天。灼然擡脚不起。神通遊戲。無瘡自傷。特地下脚不得。且道過在甚麼處。具參學眼底。出來共相理論。要見本分家山。不支岐路。莫祇管自家點頭。蹉過歲月。他時異日。頂上一錐。莫言不道。

保福權禪師(漳州人也)

性質直而勇於道。乃於晦堂舉拳處。徹證根源。機辯捷出。黃山谷。初有所入。問晦堂。此中誰可與語。堂曰。漳州權。師方督役開田。山谷同晦堂往致問曰。直歲還知露柱生兒麼。師曰。是男是女。黃擬議。師揮之。堂謂曰。不得無禮。師曰。這木頭。不打更待何時。黃大笑。

○上堂。舉寒山偈曰。吾心似秋月。碧潭清皎潔。無物堪比倫。教我如何說。老僧即不然。吾心似燈籠。點火內外紅。有物堪比倫。來

朝日出東。傳者以為笑。死心和尚見之。歎曰。權兄提唱若此。誠不負先師所付囑也。

護國新禪師

上堂。三界無法。何處求心。欲知護國當陽句。且看門前竹一林。

黃龍明禪師

一日上堂。眾纔集。師乃曰。不可更開眼說夢去也。便下座。

道吾圓禪師

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古人恁麼道。譬如管中窺豹。但見一斑。設或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亦如騎馬向冰凌上行。若是射鵰手。何不向蛇頭上揩痒。具正眼者。試辨看。良久曰。鴛鴦繡出自金針。

太史黃庭堅居士

以般若夙習。雖膺仕。澹如也。出入宗門。未有所向。好作艷詞。嘗謁圓通秀禪師。秀呵曰。大丈夫翰墨之妙。甘施於此乎。秀方戒李伯時畫馬事。公謂之曰。無乃復置我於馬腹中耶。秀曰。汝以艷語。動天下人淫心。不止馬腹中。正恐生泥犁耳。公悚然悔謝。由是絕筆。惟孳孳於道。著發願文。痛戒酒色。但朝粥午飯而已。

【頌】往依晦堂。乞指徑捷處。堂曰。祇如仲尼道。二三子。以我為隱乎。吾無隱乎爾者。太史居常如何理論。公擬對。堂曰。不是不是。公迷悶不已。一日侍堂山行次。時巖桂盛放。堂曰。聞木犀華香麼。公曰聞。堂曰。吾無隱乎爾。公釋然。即拜之曰。和尚得恁麼。老婆心切。堂笑曰。祇要公到家耳。

○謁死心新禪師。隨眾入室。心見張目。問曰。新長老。死學士。死燒作兩堆灰。向甚麼處相見。公無語。心約出曰。晦堂處參得底。使未著在後。左官黔南。道力愈勝。於無思念中。頓明死心所問。報以書曰。往年嘗蒙苦苦提撕。長如醉夢。依稀在光影中。蓋疑情不盡。命根不斷。故望崖而退耳。謫官在黔南道中。晝臥覺來。忽爾尋思。被天下老和尚謾了多少。唯有死心道人不肯。乃是第一相為也。不勝萬幸。

觀文王韶居士

出刺洪州。乃延晦堂問道。默有所契。因述投機頌曰。晝曾忘食夜忘眠。捧得驪珠欲上天。却向自身都放下。四稜塌地恰團圓。呈堂。堂深肯之。

秘書吳恂居士

居晦堂。入室次。堂謂曰。平生學解記憶多聞即不問你。父母未生已前道將一句來。公擬議。堂以拂子擊之。即領深旨。

泐潭乾禪師

上堂。靈光洞耀。迴脫根塵。體露真常。不拘文字。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古人恁麼道。殊不知是箇坑穽。貼肉汗衫脫不去。過不得。直須是師子兒。壁立千仞。方能勦絕去。然雖如是。也是布袋裏老鴉。拍禪牀下座。

開先瑛禪師

上堂。登山須到頂。入海須到底。學道須到佛祖道不得處。若不如是。盡是依草附木底精靈。喫野狐涕唾底鬼子。華嚴恁麼道。譬如良藥。然則苦口。且要治疾。阿唧唧。

象田梵卿禪師

嘉興人。僧問。大悲菩薩。用許多手眼作甚麼。師曰。富嫌千口少。曰畢竟如何是正眼。師曰。從來共住不知名。

○上堂。春已暮。落華紛紛下紅雨。南北行人歸不歸。千林萬林鳴杜宇。我無家兮何處歸。十方剎土奚相依。老夫有箇真消息。昨夜三更月在池。

褒親瑞禪師

初參黃龍南禪師。龍問。汝為人事來。為佛法來。師曰。為佛法來。龍曰。若為佛法來。即今便分付。遂打一拂子。師曰。和尚也不得惱亂人。龍即器之。後依照覺。深悟玄奧。

○上堂。有佛世界。以一塵一毛而作佛事。令見一法者。而具足一切法。故權為架閣。有佛化內。以忘言寂默為大佛事。使其學者。離一切相。即名諸佛故。好與三下火抄。有佛土中。以黃花翠竹而為佛事。令覩相者。見色即空故。且付與彌勒。有佛寶剎。以法空為座。而示佛事。俾其行人。不著佛求故。勘破了勾下。有佛道場。以四事供養而成佛事。使知足者。斷異念故。可與下載。有佛妙域。以一切語言三昧作其佛事。令隨機入者。不捨動靜故。為渠裝載大眾。且道。於中還有優劣也無。良久曰。到者須知是作家。參。

慧力昌禪師

上堂。佛法根源。非正信妙智不能悟入。祖師關鍵。非大悲重願何以開通。具信智則權實雙行。如金在鑛。全悲願。則善惡可辨。似月離雲。大眾。祇如父母未生時。許多譬喻。向甚麼處吐露。良久曰。十語九中。不如一默。

慧圓上座

遊廬山。至東林。每以己事請問。朋輩見其貌陋。舉止乖疎。皆戲侮之。一日行殿庭中。忽足顛而仆。了然開悟。作偈俾行者書于壁曰。這一交。這一交。萬兩黃金也合消。頭上笠。腰下包。清風明月杖頭挑即日離東林。眾傳至照覺。覺大喜曰。衲子參究若此。善不可加。令人迹其所往。竟無知者(大慧武庫。謂證悟顯語。非也)。

內翰蘇軾居士

因宿東林。與照覺論無情話有省。黎明獻偈曰。谿聲便是廣長舌。山色豈非清淨身。夜來八萬四千偈。他日如何舉似人。

兜率從悅禪師

初首眾於道吾。領數衲謁雲蓋智和尚。智與語未數句。盡知所蘊。乃笑曰。觀首座氣質不凡。奈何出言吐氣如醉人耶師面熱汗下。曰願和尚不恡慈悲。智復與語。錐筍之。師茫然。遂求入室。智曰。曾見法昌遇和尚否。師曰。曾看他語錄。自了可也。不願見之。智曰。曾見洞山文和尚否。師曰。關西子沒頭腦。拖一條布裙作尿臭氣。有甚長處。智曰。你但向尿臭氣處參取。師依教即謁洞山。深領奧旨。復謁智。智曰。見關西子後。大事如何。師曰。若不得和尚指示。泊乎蹉却一生。遂禮謝。師復謁真淨。後出世鹿苑。有清素者。久參慈明。寓居一室。未始與人交。師因食蜜漬荔枝。偶素過門。師呼曰。此老人鄉果也。可同食之。素曰。自先師亡後。不得此食久矣。師曰。先師為誰。素曰。慈明也。某忝侍十三年耳。師乃疑駭曰。十三年堪任執侍之役。非得其道而何。遂饋以餘果。稍稍親之。素問。師所見者何人。曰洞山文。素曰。洞見何人。師曰。黃龍南。素曰。南匾頭見先師不久。法道大振如此。師益疑駭。遂袖香詣素作禮。素起避之。曰吾以福薄。先師授記。不許為

人。師益恭。素乃曰。憐子之誠。違先師之記。子平生所得。試語我。師具通所見。素曰。可以入佛。而不能入魔。師曰。何謂也。素曰。豈不見古人道。末後一句。始到牢關。如是累月。素乃印可。仍戒之曰。文示子者。皆正知正見。然子離文太早。不能盡其妙。吾今為子點破。使子受用。得大自在。他日切勿嗣吾也。師後嗣真淨。

○僧問。提兵統將。須憑帝主虎符。領眾匡徒。密佩祖師心印。如何是祖師心印。師曰。滿口道不得。曰祇這箇。別更有。師曰。莫將支遁鶴。喚作右軍鷺。

○問。如何是兜率境。師曰。一水掇藍色。千峯削玉青。曰。如何是境中人。師曰。七凹八凸無人見。百首千頭祇自知。

○上堂。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欲識佛去處。祇這語聲是。諸禪德。大小傳大士。祇會抱橋柱澡洗。把纜放船。印板打將來。模子裏脫將去。豈知道。本色衲僧。塞除佛祖窟。打破玄妙關。跳出斷常坑。不依清淨界。都無一物。獨奮雙拳。海上橫行。建家立國。有一般漢。也要向百尺竿頭。凝然獨坐。泊乎翻身之際。捨命不得。豈不見雲門大師道。知是般事。拈向一邊。直得擺動精神。著些筋骨。向混沌未判已前薦得。猶是鈍漢。那堪更於他人舌頭上。啞啖滋味。終無了日。諸禪客要會麼。剔起眉毛有甚難。分明不見一毫端。風吹碧落浮雲盡。月上青山玉一團。喝一喝。下座。

【頌】室中設三語以驗學者。一曰。撥草瞻風。祇圖見性。即今上人性。在甚麼處。二曰。識得自性。方脫生死。眼光落地時。作麼生脫。三曰。脫得生死。便知去處。四大分離。向甚麼處去(洞山文郎寶峰真淨)。

法雲佛照杲禪師

謁圓通璣禪師。入室次。璣舉僧問投子。大死底人。却活時如何。子曰。不許夜行。投明須到。意作麼生。師曰。恩大難酬。璣大喜。遂命首眾。至晚為眾秉拂。璣遲而訥。眾笑之。師有赧色。次日於僧堂點茶。因觸茶瓢墜地。見瓢跳。乃得應機三昧。後依真淨。因讀祖偈曰。心同虛空界。示等虛空法。證得虛空時。無是無非法。豁然大悟。每謂人曰。我於紹聖三年。十一月二十一日。悟得方寸禪。

○上堂。西來祖意。教外別傳。非大根器。不能證入。其證入者。不被文字語言所轉。聲色是非所迷。亦無雲門臨濟之殊。趙州德山之異。所以唱道。須明有語中無語。無語中有語。若向這裏薦得。可謂終日著衣。未嘗挂一縷絲。終日喫飯。未嘗齧一粒米。直是訶佛罵祖。有甚麼過。雖然如是。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喝一喝下座。

○上堂。拈拄杖曰。歸宗會斬蛇。禾山解打鼓。萬象與森羅。皆從這裏去。擲下拄杖曰。歸堂喫茶。

【頌】師以力參深到。語不入時。每示眾。常舉老僧熙寧八年。文帳在鳳翔府。供申當年崩了華山四十里。壓倒八十村人家。汝輩後生。茄子瓠子。幾時知得。或問曰。寶華王座上。因甚麼一向世諦。師曰。癡人。佛性豈有二種耶。

泐潭湛堂準禪師

初謁真淨。淨問。近離甚處。師曰大仰。淨曰。夏在甚處。師曰大滄。淨曰。甚處人。師曰。興元府。淨展手曰。我手何似佛手。師罔措。淨曰。適來祇對。一一靈明。一天真。及乎道箇我手何似佛手。便成窒礙。且道病在甚處。師曰。某甲不會。淨曰。一切現

成。更教誰會。師當下釋然。服勤十載。所往必隨。紹聖三年。真淨移石門。眾益盛。凡衲僧扣問。但瞑目危坐。無所示。見來學。則往治蔬圃。率以為常。師謂同行恭上座曰。老漢無意於法道乎。一日舉杖決渠水濺衣。忽大悟。淨話曰。此乃敢爾蠢苴耶。自此迹愈晦而名益。著。

○師自浙。回泐潭。謁深禪師。尋命分座。聞有悟侍者。見所擲爨餘有省。詣方丈通所悟。深喝出。因喪志。自縊於延壽堂廁後。出沒無時。眾憚之。師聞。半夜特往登溷。方脫衣。悟即提淨水至。師曰。待我脫衣。脫罷。悟復到。未幾。悟供籌子。師滌淨已。召接淨桶去。悟纔接。師執其手問曰。汝是悟侍者那。悟曰諾。師曰。是當時在知客寮。見掉火柴頭有箇悟處底麼。參禪學道。祇要知箇本命元辰下落處。汝割地作此去就。汝在藏殿。移首座鞋。豈不是汝當時悟得底。又在知客寮。移他枕头。豈不是汝當時悟得底。汝每夜在此提水度籌。豈不是汝當時悟得底。因甚麼不知下落。却在這裏惱亂大眾。師猛推之。索然如倒壘甃。由是無復見者。

淨覺本禪師

僧問。同聲相應時如何。師曰。鶉鳩樹上啼。曰同氣相求時如何。師曰。猛虎巖前嘯。

報慈英禪師

上堂。與麼上來。猛虎出林。與麼下來。驚蛇入草。不上不下。日輪杲杲。喝一喝曰。瀟湘江水碧溶溶。出門便是長安道。

寶華鑑禪師

上堂。參禪別無奇特。祇要當人命根斷。疑情脫。千眼頓開。如大洋海底。輓一輪赫日。上昇天門。照破四天之下。萬別千差。一時明了。便能握金剛王寶劍。七縱八橫。受用自在。豈不快哉。其或見諦不真。影像彷彿。尋言逐句。受人指呼。驢年得快活去。不如屏息塵緣。豎起脊梁骨。著些精彩。究教七穿八穴。百了千當。向水邊林下。長養聖胎。亦不枉受人天供養。然雖如是。臥雲門下。有箇鐵門限。更須猛著氣力。跳過始得。擬議之間。墮坑落壑。以拂子擊禪牀。下座。

九峯廣禪師

謁雲蓋智和尚。乃問。興化打克賓。意旨如何。智下禪牀展兩手吐舌示之。師打一坐具。智曰。此是風力所轉。又問石霜琳禪師。琳曰。你意作麼生。師亦打一坐具。琳曰。好一坐具。祇是不知落處。又問真淨。淨曰。你意作麼生。師復打一坐具。淨曰。他打你也打。師於言下大悟。後住九峯。衲子宗仰。

黃檗全禪師

上堂。以拂子擊禪牀曰。一槌打透無盡藏。一切珍寶吾家有。拈來普濟貧乏人。免使波吒路邊走。遂喝曰。誰是貧乏者。

清涼慧洪覺範禪師

從宣秘講成實唯識論。逾四年。棄謁真淨於歸宗。淨遷石門。師隨至。淨患其深聞之弊。每舉玄沙未徹之語。發其疑。凡有所對。淨曰。你又說道理耶。一日頓脫所疑。述偈曰。靈雲一見不再見。紅白枝枝不著花。耐耐釣魚船上客。却來平地擁魚鰕。淨見為助喜。

○後住清涼。示眾。舉首楞嚴。如來語阿難曰。汝應覷此爐中栴檀。此香若復然於一銖。室羅筏城。四十里內。同時聞氣。於意云

何。此香為復生旃檀木。生於汝鼻。為生於空。阿難。若復此香。生於汝鼻。稱鼻所生。當從鼻出。鼻非旃檀。云何鼻中有旃檀氣。稱汝聞香。當於鼻入。鼻中出香。說聞非義。若生於空。空性常恆。香應常在。何藉罍中爇此枯木。若生於木。則此香質。因爇成煙。若鼻得聞。合蒙煙氣。其煙騰空。未及遙遠。四十里內。云何已聞。是故當知。香鼻與聞。俱無處所。即鼻與香。二處虛妄。本非因緣。非自然性。師曰。入此鼻觀。親證無生。又大智度論問曰。聞者云何聞。用耳根聞耶。用耳識聞耶。用意識聞耶。若耳根聞。耳根無覺識知。故不能聞。若耳識聞。耳識一念故。不能分別。不應聞。若意識聞。意識亦不能聞。何以故。先五識。識五塵。然後意識識。意識不能識現在五塵。唯識。過去未來五塵。若意識能識現在五塵者。盲聾人亦應識聲也。何以故。意識不破故。師曰。究此聞塵。則合本妙。既證無生。又合本妙。畢竟是何境界。良久曰。白猿已叫千巖晚。碧縷初橫萬字鑪。

○崇寧二年。會無盡居士張公於峽之善谿。張嘗自謂得龍安悅禪師末後句。叢林畏與語。因夜話及之。曰可惜雲庵不知此事。師問僧以。張曰。商英頃自金陵酒官。移知豫章。過歸宗。見之。欲為點破。方敘悅末後句。未卒。此老大怒罵曰。此吐血禿了。脫空妄語。不得信。既見其盛怒。更不欲敘之。師笑曰。相公但識龍安口傳末後句。而真藥現前。不能辯也。張大驚起。執師手曰。老師真有此意耶。曰疑則別參。乃取家藏雲庵頂相。展拜贊之。書以授師。其詞曰。雲庵綱宗。能用能照。天鼓希聲。不落凡調。冷面嚴眸。神光獨耀。孰傳其真。覲面為尚。前悅後洪。如融如肇。大慧處眾日。嘗親依之。每歎其妙悟辯慧。

超化靜禪師

上堂。聲前認得。已涉廉纖。句下承當。猶為鈍漢。電光石火。尚在遲疑。點著不來。橫屍萬里。良久云。有甚用處。咄。

石頭懷志庵主

肆講十二年。宿學敬慕。嘗欲會通諸宗。正一代時教。有禪者問曰。杜順乃賢首宗祖師也。談法身。則曰。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此偈合歸天台何義耶。師無對。即出遊方。晚至洞山。謁真淨。問古人一喝不作一喝用。意旨如何。淨叱之。師趨出。淨笑呼曰。浙子。齋後遊山好。師忽領悟。久之辭去。淨曰。子所造雖逸格。惜緣不勝耳。因識其意。自是諸方力命出世。師却之。庵居二十年。不與世接。士夫踵門。略不顧。有偈曰。萬機休罷付癡憨。蹤跡時容野鹿參。不脫麻衣拳作枕。幾生夢在綠蘿庵。或問住山多年。有何旨趣。師曰。山中住。獨掩柴門無別趣。三箇柴頭品字煨。不用援毫文彩露。

雙谿印首座

一日偶書曰。折脚鐺兒謾自煨。飯餘長是坐堆堆。一從近日生涯拙。百鳥銜華去不來。又以觸衣碎甚。作偈曰。不挂寸絲方免寒。何須特地裊長竿。而今落落零零也。七佛之名甚處安。

(會元十七卷終)

羅漢南禪師

上堂。禪不禪。道不道。三寸舌頭胡亂掃。昨夜日輪飄桂花。今朝月窟生芝草。阿呵呵。萬兩黃金無處討。一句絕思量。諸法不相到。

慈雲彥隆禪師

上堂。舉玄沙示眾曰。盡大地都來是一顆明珠。時有僧問。既是一顆明珠。學人為甚不識。沙曰。全體是珠。更教誰識。曰雖然全體是。爭奈學人不識。沙曰。問取你眼。師曰。諸禪德。這箇公案。

喚作嚼飯餒小兒。把手更與杖。還會麼。若未會。須是扣己而參。直要真實。不得信口掠虛。徒自虛生浪死。

大滄祖瑋禪師

上堂。道無定亂。法離見知。言句相投。都無定義。自古龍門無宿客。至今鳥道絕行蹤。欲會箇中端的意。火裏唧螻吞大蟲。咄。

○上堂。雨下堦頭濕。晴乾水不流。鳥巢滄海底。魚躍石山頭。眾中大有商量。前頭兩句是平實語。後頭兩句是格外談。若如是會。祇見石磊磊。不見玉落落。若見玉落落。方知道寬廓。咦。

福巖演禪師

僧問。如何是佛。師當面便唾。

昭覺白禪師

上堂。寒便向火。熱即搖扇。饑時喫飯。困來打眠。所以趙州庭前柏。香巖嶺後松。栽來無別用。祇要引清風。且道畢竟事作麼生。甲子乙丑海中金。丙寅丁卯鑪中火。

薦福道英禪師

上堂。據道而論。語也不得。默也不得。直饒語默兩忘。亦沒交涉。何故。句中無路。意在句中。無意無不意。非計較之所及。若是劈頭點一點。頂門豁然眼開者。於此却有疾速分。若低頭向意根下尋思。卒摸索不著。是知萬法無根。欲窮者錯。一源絕迹。欲返者迷。看他古佛光明。先德風彩。一一從無欲無依中發現。或時孤峻峭拔。竟不可搆。或時含融混會。了無所睹。終不椿定一處。亦不繫係兩頭。無是無不是。無非無不非。得亦無所得。失亦無所失。不曾隔越纖毫。不曾移易絲髮。明明古路。不屬玄微。覲面擎

來。瞥然便過。不居正位。豈落邪途。不蹈大方。那趨小徑。騰騰兀兀。何住何為。回首不逢。觸目無對。一念普觀。廓然空寂。此之宗要。千聖不傳。直下了知。當處超越。是知赤灑灑處。恁麼即易。明歷歷處。恁麼還難。不用沾黏點染。直須剝脫屏除。若是本分手脚。放去無收不來底。一一放光現瑞。一一削跡絕蹤。機上了不停。語中無可露。徹底攪不渾。通身撲不碎。且道畢竟是箇甚麼。得恁麼靈通。得恁麼奇特。得恁麼堅確。諸仁者。休要識渠面孔。不用安渠名字。亦莫覓渠所在。何故。渠無所在。渠無名字。渠無面孔。纔起一念追求如微塵許。便隔十生五生。更擬管帶思惟。益見紛紛叢雜。不如長時放教自由自在。要發便發。要住便住。即天然非天然。即如如非如如。即湛寂非湛寂。即敗壞非敗壞。無生戀。無死畏。無佛求。無魔怖。不與菩提會。不與煩惱俱。不受一法。不嫌一法。無在無不在。非離非不離。若能如是見得。釋迦自釋迦。達磨自達磨。干我甚麼碗。恁麼說話。衲僧門下。推勘將來。布裙芒屨。不免撩他些些泥水。豈況汝等諸人。更道這箇是平實語句。這箇是差別門庭。這箇是關捩巴鼻。這箇是道眼根塵。遞相教習。如七家村裏。傳口令相似。有甚交涉。無事珍重。

尊勝朋講師

多歷教肆。嘗疏楞嚴維摩等經。學者宗之。每疑祖師直指之道。故多與禪衲遊。一日謁開元。跡未及閫。心忽領悟。元出遂問。座主來作甚麼。師曰。不敢貴耳賤目。元曰。老老大大何必如是。師曰。自是者不長。元曰。朝看華嚴。夜讀般若則不問。如何是當今一句。師曰。日輪正當午。元曰。閑言語。更道來。師曰。平生仗忠信。今日任風波。然雖如是。祇如和尚恁麼。道有甚交涉。須要新戒草鞋穿。元曰。這裏且放你過。忽遇達磨問你作麼生道。師便

喝。元曰。這座主今日見老僧。氣衝牛斗。師曰。再犯不容。元拊掌大笑。

慧日明禪師

上堂。不用求心。唯須息見。三祖大師。雖然回避金鉤。殊不知已吞紅線。慧日又且不然。不用求真并息見。倒騎牛兮入佛殿。牧笛一聲天地寬。稽首瞿曇真箇黃面。

道場如禪師

參雲蓋。悟汾陽十智同真話。尋常多說十智同真。故叢林號為如十同也。水庵圓極皆依之。圓極嘗贊之曰。生鐵面皮難湊泊。等閑舉步動乾坤。戲拈十智同真話。不負黃龍嫡骨孫。

寶壽樂禪師

上堂。諸佛不真實。說法度羣生。菩薩有智慧。見性不分明。白雲無心意。灑為世間雨。大地不含情。能長諸草木。若也會得。猶存知解。若也不會。墮在無記。去此二途。如何即是。海闊難藏月。山深分外寒。

廣慧杲禪師

上堂。佛為無心悟。心因有佛迷。佛心清淨處。雲外野猿啼。

永安正禪師

上堂。天人羣生類。皆承此恩力。大眾。有一人道。我不承佛恩力。不居三界。不屬五行。祖師不敢定當。先佛不敢安名。你且道是箇甚麼人。良久曰。倚石巖前燒鐵鉢。就松枝上挂銅餅。

光孝爽禪師

上堂。今朝六月旦。一年已過半。奉報參玄人。識取孃生面。孃生面。薦不薦。鷺鷥飛入碧波中。抖擻一團銀繡線。

法輪添禪師

上堂。喝一喝曰。師子哮吼。又喝一喝曰。象王嘖呻。又喝一喝曰。狂狗趁塊。又喝一喝曰。鰕跳不出斗。乃曰。此四喝。有一喝堪與祖佛為師。明眼衲僧。試請揀看。若揀不出。大似日中迷路。

育王淨曇禪師(嘉禾人也)

晚歸錢塘之法慧。一日上堂。本自深山臥白雲。偶然來此寄閑身。莫來問我禪兼道。我是喫飯屙屎人。

真如戒香禪師

上堂。孟冬改旦曉天寒。葉落歸根露遠山。不是見聞生滅法。當頭莫作見聞看。

月珠祖鑑禪師

僧請筆師語要。師曰。達磨西來。單傳心印。曹谿六祖。不識一字。今日諸方出世。語句如山。重增繩索。乃拍禪牀曰。於斯薦得。猶是鈍根。若也未然。白雲深處從君臥。切忌寒猿中夜啼。

萬壽念禪師

僧問。龍華勝會。肇啟茲晨。未審彌勒世尊。現居何處。師曰。豬肉案頭。曰既是彌勒世尊。為甚麼却在豬肉案頭。師曰。不是弄潮人。休入洪波裏。曰畢竟事又且如何。師曰。番人不繫腰。

參政蘇轍居士

元豐三年。以睢陽從事左選。瑞州推筦之任。是時洪州上藍順禪師。與其父文安先生有契。因往訪焉。相得歡甚。公咨以心法。順示搐鼻因緣。已而有省。作偈呈曰。中年聞道覺前非。邂逅相逢老順師。搐鼻徑參真面目。掉頭不受別鉗鎚。枯藤破衲公何事。白酒青鹽我是誰。慚愧東軒殘月上。一杯甘露滑如飴。

禾山方禪師

上堂。舉拂子曰。看看。祇這箇在臨濟則照用齊行。在雲門則理事俱備。在曹洞則偏正叶通。在瀋山則暗機圓合。在法眼則何止於心。然五家宗派。門庭施設則不無。直饒辯得個儻分明去。猶是光影邊事。若要抵敵生死。則霄壤有隔且超越生死一句作麼生道。良久曰。泊合錯下注脚。

崇覺空禪師

上堂。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淨裸裸。赤灑灑。沒可把遂舉拂子曰。灌谿老漢。向十字街頭。逞風流。賣惺惺。道我解穿真珠。解玉板。過亂絲。卷筒絹。姪坊酒肆。瓦合輿儻。虎穴魔宮。那吒忿怒。遇文王。興禮樂。逢桀紂逞干戈。今日被崇覺覷見。一場懨懨。

九頂惠泉禪師

僧問。心迷法華轉。心悟轉法華。未審意旨如何。師曰。風暖鳥聲碎。日高花影重。

○上堂。昔日雲門有三句。謂函蓋乾坤句。截斷眾流句。隨波逐浪句。九頂今日亦有三句。所謂饑來喫飯句。寒即向火句。困來打睡句。若以佛法而論。則九頂望雲門。直立下風。若以世諦而論。則雲門望九頂。直立下風。二語相違。且如何是九頂為人處。

性空妙普庵主(嘉興人也)

久依死心獲證。乃抵秀水。追船子遺風。結茆青龍之野。吹鐵笛以自娛多賦詠。得之者必珍藏。其山居曰。心法雙忘猶隔妄。色塵不二尚餘塵。百鳥不來春又過。不知誰是住庵人。

○建炎初。徐明叛。道經烏鎮。肆殺戮。民多逃亡。師獨荷策而往。賊見其偉異。疑必詭伏者。問其來。師曰。吾禪者。欲抵密印寺。賊怒欲斬之。師曰。大丈夫要頭便斫取。奚以怒為。吾死必矣。願得一飯以為送終。賊奉肉食。師如常齋。出生畢。乃曰。孰當為我文之以祭。賊笑而不答。師索筆大書曰。嗚呼惟靈。勞我以生。則大塊之過。役我以壽。則陰陽之失。乏我以貧。則五行不正。困我以命。則時日不吉。吁哉至哉。賴有出塵之道。悟我之性。與其妙心。則其妙心。孰與為隣。上同諸佛之真化。下合凡夫之無明。纖塵不動。本自圓成。妙矣哉。妙矣哉。日月未足以為明。乾坤未足以為大。磊磊落落。無罣無礙。六十餘年。和光混俗。四十二臘。逍遙自在。逢人則喜。見佛不拜。笑矣乎。笑矣乎。可惜少年郎。風流太光彩。坦然歸去付春風。體似虛空終不壞。尚饗。遂舉箸飯餐。賊徒大笑。飲罷復曰。劫數既遭離亂。我是快活烈漢。如今正好乘時。便請一刀兩段。乃大呼斬斬。賊方駭異。稽首謝過。令衛而出。烏鎮之廬舍免焚。實師之惠也。道俗聞之愈敬。有僧睹師見佛不拜歌。逆問曰。既見佛。為甚麼不拜。師掌之曰。會麼。云不會。師又掌曰。家無二主。

空室道人智通者

龍圖范珣女也。幼聰慧。長歸丞相蘇頌之孫悌。未幾厭世相。還家求祝髮。父難之。遂清修。因看法華觀。頓有省。後父母俱亡。兄涓。領分寧尉。通偕行。聞死心名重。往謁之。心見。知其所得。便問常啼菩薩。賣却心肝。教誰學般若。通曰。你若無心我也休。

又問一雨所滋。根苗有異。無陰陽地上。生箇甚麼。通曰。一華五葉。復問十二時中。向甚麼處安身立命。通曰。和尚惜取眉毛好。心打曰。這婦女。亂作次第。通禮拜。心然之。於是道聲籍甚。

○政和間。居金陵。嘗設浴於保寧。揭榜于門曰。一物也無。洗箇甚麼。纖塵若有。起自何來。道取一句子玄。乃可大家入浴。古靈祇解揩背。開士何曾明心。欲證離垢地時。須是通身汗出。盡道水能洗垢。焉知水亦是塵。直饒水垢頓除。到此亦須洗却。後為尼。名惟久(有明心錄行世)。

上封佛心才禪師

依海印隆禪師。見老宿達道者看經。至一毛頭師子。百億毛頭一時現。師指問曰。一毛頭師子。作麼生得百億毛頭一時現。達曰。汝乍入叢林。豈可便理會許事。師因疑之。遂發心領淨頭職。一夕汛掃次。印適夜參。至則遇結座擲拄杖曰。了即毛端吞巨海。始知大地一微塵。師豁然有省。及出閩。造豫章黃龍山。與死心機不契。乃參靈源。凡入室。出必揮淚自訟曰。此事我見得甚分明。祇是臨機吐不出。若為奈何。靈源知師勤篤。告以須是大徹方得自在也。未幾。竊觀隣案僧。讀曹洞廣錄。至藥山採薪歸。有僧問。甚麼處來。山曰。討柴來。僧指腰下刀曰。鳴剝剝是箇甚麼。山拔刀作斫勢。師忽忻然。擲隣案僧一掌。揭簾趨出。衝口說偈曰。徹徹。大海乾枯。虛空迸裂。四方八面絕遮攔。萬象森羅齊漏泄。

法輪端禪師

謁真淨文禪師。機不諧。至雲居。會靈源分座。為眾激昂。師扣其旨。然以妙入諸經自負。源嘗痛劄之。師乃援馬祖百丈機語。及華嚴宗旨為表。源笑曰。馬祖百丈固錯矣。而華嚴宗旨。與箇事喜沒

交涉。師憤然欲他往。因請辭。及揭簾。忽大悟。汗流浹背。源見乃曰。是子識好惡矣。馬祖。百丈。文殊。普賢。幾被汝帶累。

長靈卓禪師

上堂。譬如眼根。不自見眼。性自平等。無平等者。便恁麼去。無孔鐵鎚。聊且安置。直得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也是一期方便。若也籬內竹抽籬外筍。澗東華發澗西紅。更待勘過了打。

寺丞戴道純居士

咨扣靈源。一日有省。乃呈偈曰。杳冥源底全機處。一片心花露印紋。知是幾生曾供養。時時微笑動香雲。

黃龍山堂道震禪師

謁丹霞淳禪師。一日與論洞上宗旨。師呈偈曰。白雲深覆古寒巖。異草靈花彩鳳銜。夜半天明日當午。騎牛背面著靴衫。淳器之。師自以為礙。棄依草堂。一見契合。日取藏經讀之。一夕聞晚參鼓。步出經堂。舉頭見月。遂大悟。亟趨方丈。堂望見。即為印可。

萬年雪巢法一禪師

上堂。拈拄杖曰。拄杖子。有時作出水蛟龍。萬里雲煙不斷。有時作踞地師子。百年妖怪潛蹤。有時心法兩忘。照體獨立。有時照用同時。主賓互用。以拄杖畫曰。延福門下。總用不著。且道延福尋常用箇甚麼。卓拄杖。喝一喝。下座。

○上堂。仰面不見天。低頭不見地。古劍觸體前。大海波濤沸。

雪峯慧空禪師

上堂。俊快底點著便行。癡鈍底推挽不動。便行則人人歡喜。不動則箇箇生嫌。山僧而今轉此癡鈍為俊快去也。彈指一下曰。從前推挽不出而今出。從前有院不住而今住。從前嫌佛不做而今做。從前嫌法不說而今說。出不出住不住即且置。敢問諸人。做底是甚麼佛。空王佛耶。然燈佛耶。釋迦佛耶。彌勒佛耶。說底又是甚麼法。根本法耶。無生法耶。世間法耶。出世間法耶。眾中莫有道得底麼。若道得。山僧出世事畢。如或未然。逢人不得錯舉。喝一喝。下座。

正法希明禪師

解制上堂。林葉紛紛落。乾坤報早秋。分明西祖意。何用更馳求。若恁麼會得。始信佛祖之道。本自平夷。大解脫門。元無關鑰。彌綸宇宙。偈塞虛空。量不可窮。智不能測。若也未明此旨。不達其源。任是百劫熏功。千生煉行。徒自疲苦。了無交涉。若深明此旨。洞達其源。乃知動靜施為。經行坐臥。頭頭合道。念念朝宗。祖不云乎。迷生寂亂。悟無好惡。得失是非。一時放却。如是則誰迷誰悟。誰是誰非。自是諸人。獨生異見。觀大觀小。執有執無。已靈獨耀。不肯承當。心月孤圓。自生違背。何異家中捨父。衣內忘珠。致使菩提路上。荊棘成林。解脫空中。迷雲蔽日。山僧今日幸值眾僧自恣。化主還山。諸上善人。得得光訪。不可緘默。隨分葛藤。曲為今時。少開方便也。須是諸人著眼。各自諦觀。若更擬議尋思。白雲萬里。遂拈拄杖曰。於斯明得。靈山一會儼在目前。其或未然。更待來晨分付。

祖庵主

見青原之後。縛茅衡嶽間。三十餘年人無知者。偶遣興作偈曰。小鍋煮菜上蒸飯。菜熟飯香人正饑。一補饑瘡了無事。明朝依樣畫貓

兒。由是衲子披榛扣之。無盡張公。力挽其開法。不從。竟終于此山。

勝因靜禪師

上堂。遊遍天下。當知寸步不曾移。歷盡門庭。家家竈裏少煙不得。所以肩筇峭履。乘興而行。掣釣沉絲任性而住。不為故鄉田地好。因緣熟處便為家。今日信手拈來。從前幾曾計較。不離舊時科段。一回舉著一回新。明眼底。瞥地便回。未悟者。識取面目。且道如何是本來面目。良久曰。前臺花發後臺見。上界鐘聲下界聞。以拂子擊禪牀下座。

○上堂。舉世尊在摩竭陀國。為眾說法。是時將欲白夏。乃謂阿難曰。諸大弟子。人天四眾。我常說法。不生敬仰。我今入因沙白室中坐夏九旬。忽有人來問法之時。汝待為我說。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言訖掩室而坐。師召眾曰。釋迦老子。初成佛道之時。大都事不獲已。纔方成箇保社。便生退倦之心。勝因當時若見。將釘釘却室門。教他一生無出身之路。免得後代兒孫。遞相倣倣。不見道。若不傳法度眾生。是不名為報恩者。擊拂子下座(師號戲魚)。

龍牙宗密禪師

上堂。休把庭花類此身。庭華落後更逢春。此身一往知何處。三界茫茫愁殺人。

東禪從密禪師

上堂。開口不是禪。合口不是道。踏步擬進前。全身落荒草。

天童交禪師

往南屏聽台教。因為檀越修懺摩。有問曰。公之所懺罪。為自懺耶。為他懺耶。若自懺罪。罪性何來。若懺他罪。他罪非汝。烏能懺之。師不能對。遂改服遊方。造泐潭。足纔踵門。潭即呵之。師擬問。潭即曳杖逐之。一日忽呼師至丈室曰。我有古人公案。要與你商量。師擬進語。潭遂喝。師豁然領悟。乃大笑。潭下繩牀執師手曰。汝會佛法耶。師便喝。復拓開。潭大笑。

圓通旻禪師

徧往參激皆染指。親為山喆禪師最久。晚慕泐潭。往謁。潭見默器之。師陳歷參所得。不蒙印可。潭舉世尊拈華。迦葉微笑語以問。復不契。後侍潭行次。潭以拄杖架肩長嘯曰。會麼。師擬對。潭便打。有頃復拈草示之曰。是甚麼。師亦擬對。潭遂喝。於是頓明大法。作拈華勢乃曰。這回瞞旻上座不得也。潭挽曰。更道更道。師曰。南山起雲。北山下雨。即禮拜。潭首肯。後關法灌谿。次居圓通。上堂。諸佛出世。無法與人。祇是抽釘拔楔。除疑斷惑。學道之士。不可自謾。若有一果如芥子許。是汝真善知識。喝一喝曰。是甚麼。切莫刺腦入膠盆。

二靈和庵主

謁泐潭。潭見。乃問作甚麼。師擬對。潭便打。復喝曰。你喚甚麼作禪。師驀領旨。即曰禪。無後無先。波澄大海。月印青天。又問如何是道。師曰。道紅塵浩浩。不用安排。本無欠少。潭然之。元符間抵雪竇之中峯棲雲兩庵。逾二十年。嘗有偈曰。竹筴二三升野水。松窻七五片閑雲。道人活計祇如此。留與人間作見聞。有志於道者。多往見之。

○師初偕天童交禪師問道。盟曰。他日吾二人宜踞孤峯絕頂。目視霄漢為世外之人。不可作今時籍名官府。屈節下氣於人者。後交爽

盟。至則師竟不接。正言陳公。以計誘師出山住二靈。三十年間。居無長物。唯二虎侍其右。一日威於人。以偈遣之。

慈氏瑞僊禪師

習毗尼。因覩戒性如虛空。持者為迷倒。師謂戒者束身之法也。何自縛乎。遂探台教。又閱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是故說無生。疑曰。又不自他。不共不無因生。畢竟從何而生。即省曰。因緣所生。空假三觀。抑揚性海。心佛眾生。名異體同。十境十乘。轉識成智。不思議境。智照方明。非言詮所及。棄謁諸方。後至投子。廣鑑問。鄉里甚處。師曰。兩浙。東越。鑑曰。東越事作麼生。師曰。秦望峯高。鑑湖水闊。曰秦望峯與你自己。是同是別。師曰。西天梵語。東土唐言。鑑曰。此猶是叢林祇對。畢竟是同是別。師便喝。鑑便打。師曰。恩大難酬。便禮拜。後歸里。開法慈氏。室中嘗問僧。三箇橐駝兩隻脚。日行萬里趨不著。而今收在玉泉山。不許時人亂斟酌。諸人向甚麼處。與僊上座相見。

雪竇持禪師

上堂。悟心容易息心難。息得心源到處閑。斗轉星移天欲曉。白雲依舊覆青山。

石佛益禪師

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一法透。萬法周。且道透那一法。遂喝曰。切忌錯認驢鞍橋作阿爺下頷。便下座。

疎山了常禪師

上堂。等閑放下。佛手掩不住。特地收來。大地絕纖埃。向君道莫疑猜。處處頭頭見善財。鎚下分明如得旨。無限勞生眼自開。

兜率慧照禪師

上堂。龍安山下。道路縱橫。兜率宮中。樓閣重疊。雖非天上。不是人間。到者安心。全忘諸念。善行者不移雙足。善入者不動雙扉。自能笑傲煙蘿。誰管坐消歲月。既然如是。且道向上還有事也無。良久曰。莫教推落巖前石。打破下方遮日雲。

丞相張商英居士

元祐六年。為江西漕。首謁東林照覺總禪師。覺詰其所見處。與己符合。乃印可。覺曰。吾有得法弟子住玉谿。乃慈古鏡也。亦可與語。公復因按部過分寧。諸禪遊之。公到。先致敬玉谿慈。次及諸山。最後問兜率悅禪師。悅為人短小。公曾見龔德莊。說其聰明可人。乃曰。聞公善文章。悅大笑曰。運使失却一隻眼了也。從悅臨濟九世孫。對運使論文章。政如運使對從悅論禪也。公不然其語。乃強屈指曰。是九世也。問玉谿去此多少。曰三十里。曰兜率響。曰五里。公是夜乃至兜率。悅先一夜夢日輪昇天。被悅以手搏取。乃說與首座曰。日輪運轉之義。聞張運使非久過此。吾當深錐痛筍。若肯回頭。則吾門幸事。座曰。今之士大夫。受人取奉慣。恐其惡發。別生事也。悅曰。正使煩惱。祇退得我院。也別無事。公與悅語次。稱賞東林。悅未肯其說。公乃題寺後擬瀑軒詩。其略曰。不向廬山尋落處。象王鼻孔謾遼天。意譏其不肯東林也。公與悅語至夜深。論及宗門事。悅曰。東林既印可運使。運使於佛祖言教有少疑否。公曰有。悅曰。疑何等語。公曰。疑香巖獨脚頌。德山拓鉢話。悅曰。既於此有疑。其餘安得無耶。祇如巖頭言末後句。是有耶。是無耶。公曰有。悅大笑。便歸方丈。閉却門。公一夜睡不穩。至五更下牀。觸翻溺器。乃大徹。猛省前話。遂有頌曰。鼓寂鐘沉拓鉢回。巖頭一拶語如雷。果然祇得三年活。莫是遭他授記來。遂扣方丈門。曰某已捉得賊了。悅曰。賊在甚處。公無語。悅曰。都運且去。來日相見。翌日公遂舉前頌。悅乃謂曰。參

禪祇為命根不斷。依語生解。如是之說。公已深悟。然至極微細處。使人不覺不知。墮在區宇。乃作頌證之曰。等閑行處。步步皆如。雖居聲色。寧滯有無。一心靡異。萬法非殊。休分體用。莫擇精麤。臨機不礙。應物無拘。是非情盡。凡聖皆除。誰得誰失。何親何疎。拈頭作尾。指實為虛。翻身魔界。轉脚邪途。了無逆順。不犯工夫。公邀悅至建昌。途中一一同察。有十頌敘其事。悅亦有十頌酬之。時元祐八年八月也。公一日謂大慧曰。余閱雪竇拈古。至百丈再參馬祖因緣曰。大冶精金。應無變色。投卷歎曰。審如是。豈得有臨濟今日耶。遂作一頌曰。馬師一喝大雄峯。深入髑髏三日聾。黃檗聞之驚吐舌。江西從此立宗風。後平禪師致書云。去夏讀臨濟宗派。乃知居士得大機大用。且求頌本。余作頌寄之曰。吐舌耳聾師已曉。搥胸祇得哭蒼天。盤山會裏翻筋斗。到此方知普化顛。諸方往往以余聰明博記。少知余者。師自江西法窟來。必辨優劣。試為老夫言之。大慧曰。居士見處與真淨死心合。公曰。何謂也。大慧舉真淨頌曰。客情步步隨人轉。有大威光不能現。突然一喝雙耳聾。那吒眼開黃檗面。死心拈曰。雲巖要問雪竇。既是大冶精金。應無變色。為甚麼却三日耳聾。諸人要知麼。從前汗馬無人識。祇要重論蓋代功。公拊几曰。不因公語。爭見真淨死心用處。若非二大老。難顯雪竇馬師爾。公於宣和四年十一月黎明。口占遺表。命子弟書之。俄取枕擲門窗上。聲如雷震。眾視之。已薨矣。公有頌古。行于世。

西蜀鑾法師

通大小乘。佛照謝事。居景德。師問照曰。禪家言多不根何也。照曰。汝習何經論。曰諸經粗知。頗通百法。照曰。祇如昨日雨今日晴。是恁麼法中收。師懵然。照舉癢和子擊曰。莫道禪家所言不根好。師憤曰。昨日雨今日晴。畢竟是甚麼法中收。照曰。第二十四時分不相應法中收。師恍悟。即禮謝。後歸蜀居講會。以直道示徒

不泥名相。而眾多引去。遂說偈罷講曰。眾賣華兮獨賣松。青青顏色不如紅。算來終不與時合。歸去來兮翠靄中。由是隱居二十年。道俗追慕。復命演法。笑答偈曰。遯跡隱高峯。高峯又不容。不如歸錦里。依舊賣青松。眾列拜悔過。兩川講者爭依之。

典牛游禪師

依湛堂於泐潭。一日潭普說曰。諸人苦苦就準上座覓佛法。遂拊膝曰。會麼。雪上加霜。又拊膝曰。若也不會。豈不見乾峯示眾曰。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師聞脫然穎悟。出世雲蓋。次遷雲巖。嘗和忠道者牧牛頌曰。兩角指天。四足踏地。拽斷鼻繩。牧甚屎屁。張無盡見之。甚擊節。後退雲巖過廬山。棲賢主翁意不欲納。乃曰。老老大大。正是質庫中典牛也。師聞之。述一偈而去曰。質庫何曾解典牛。祇緣價重實難酬。想君本領無多子。畢竟難禁這一頭。因庵于武寧。扁曰典牛。終身不出。塗毒見之。已九十三矣。

○上堂。日可冷月可熱。眾魔不能壞真說。作麼生是真說。初三十一中九下七。若信不及。雲巖與汝道破。萬人齊指處。一鴈落寒空。

九僊法清禪師

上堂。舉睦州示眾曰。汝等諸人。未得箇入頭處。須得箇入頭處。既得箇入頭處。不得忘却。老僧。明明向汝道。尚自不會。何況蓋覆將來。師曰。睦州恁麼道。意在甚麼處。其或未然。聽覺苑下箇注脚張僧見王伴。王伴叫張僧。昨夜放牛處。嶺上及前村。谿西水不飲。谿東草不吞。教覺苑如何即得。會麼。不免與麼去。遂以兩手按空。下座。

覺海法因庵主

遊方至東林謁慧日。日舉靈雲悟道機語問之。師擬對。日曰。不是不是。師忽有所契。占偈曰。巖上桃華開。華從何處來。靈雲纔一見。回首舞三臺。日曰。子所見雖已入微。然更著鞭。當明大法。師承教居廬阜。三十年不與世接。叢林尊之。嘗謂眾曰。汝等飽持定力。無憂晨炊而事干求也。

德山瓊禪師

受請日。上堂曰。作家勞籠不肯住。呼喚不回頭。為甚麼從東過西。自代曰後五日看。

中巖能禪師

抵大滄。滄問。上座桑梓何處。師曰西川。曰我聞西川有普賢菩薩示現。是否。師曰。今日得瞻慈相。曰白象何在。師曰。爪牙已具。曰還會轉身麼。師提起坐具。遶禪牀一匝。滄曰。不是這箇道理。師趨出。

○出住報恩。上堂。龍濟道。萬法是心光。諸緣惟性曉。本無迷悟人。祇要今日了。師曰。既無迷悟。了箇甚麼。咄。

雲頂印禪師

一日普說罷。師曰。諸子未要散去。更聽一頌。乃曰。四十九年一場熱鬪。八十七春老漢獨弄。誰少誰多一般作夢。歸去來兮梅梢雪重。言訖下座。倚仗而逝。

信相顯禪師

少為進士有聲。嘗畫掬溪水為戲。至夜思之。遂見水冷然盈室。欲汲之不可。而塵境自空。曰吾世網裂矣。往依昭覺得度。具滿分戒。後隨眾咨參。覺一日問師。高高峰頂立。深深海底行。汝作麼

生會。師於言下頓悟曰。釘殺脚跟也。覺拈起拂子曰。這箇又作麼生。師一笑而出。服勤七祀。

○僧問。三世諸佛六代祖師。總出這圈襪不得。如何是這圈襪。師曰。井欄唇。

大漚大圓智禪師

四明人也。上堂。舉南泉道。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師曰。三世諸佛既不知有。狸奴白牯又何曾夢見。灼然須知向上有知有底人始得。且作麼生是知有底人。喫官酒臥官街。當處死當處理。沙場無限英靈漢。堆山積嶽露屍骸。

文定公胡安國居士

久依上封。得言外之旨。崇寧中過藥山。有禪人舉南泉斬貓話問公。公以偈答曰。手握乾坤殺活機。縱橫施設在臨時。玉堂兔馬非龍象。大用堂堂總不知。又寄上封有曰。祝融峯似杜城天。萬古江山在目前。須信死心元不死。夜來秋月又同圓。

普賢素禪師

上堂。兵隨印轉。三千里外絕煙塵。將逐符行。二六時中淨裸裸。不用鐵旗鐵鼓。自然草偃風行。何須七縱七擒。直得無思不服。所謂大丈夫秉慧劍。般若鋒兮金剛燄。非但能摧外道心。早曾落却天魔膽。正恁麼時。且道主將是甚麼人。喝一喝。

○上堂。未開口時先分付。擬思量處隔千山。莫言佛法無多子。未透玄關也大難。祇如玄關作麼生透。喝一喝。

鼓山洵禪師

上堂。朔風掃地卷黃葉。門外千峯凜寒色。夜半烏龜帶雪飛。石女谿邊皺兩眉。卓拄杖云。大家在這裏。且道天寒人寒。喝一喝云。歸堂去。

鼓山珍禪師

上堂尋牛須訪跡。學道貴無心。跡在牛還在。無心道易尋。豎起拂子曰。這箇是跡。牛在甚麼處。直饒見得頭角分明。鼻孔也在法石手裏。

育王無示謔禪師

上堂。我若說有。你為有礙。我若說無。你為無礙。我若橫說你又跨不過。我若豎說你又跳不出。若欲叢林平帖大家無事。不如推倒育王。且道育王如何推得倒去。召大眾曰。著力著力。復曰。苦哉苦哉。育王被人推倒了也。還有路見不平拔劍相為底麼。若無。山僧不免自倒自起。擊拂子下座。師性剛毅。泣眾有古法。

道場慧禪師

上堂。舉臨濟示眾曰。一人在高高峯頂。無出身之路。一人在十字街頭。亦無向背。且道那箇在前。那箇在後。師曰。更有一人。不在高高峯頂。亦不在十字街頭。臨濟老漢因甚不知。便下座。

顯寧智禪師

上堂。蘆華白蓼華紅。谿邊脩竹碧煙籠。閑雲抱幽石。玉露滴巖叢。昨夜烏龜變作鼈。今朝水牯悟圓通。咄。

烏回範禪師

上堂。舉僧問趙州。至道無難。唯嫌揀擇。是時人窠窟否。州曰。曾有人問老僧。直得五年分疎不下。師召曰。趙州具頂門眼。向擊石火裏分緇素。閃電光中明縱奪。為甚麼却五年分疎不下。還委悉麼。易分雪裏粉。難辯墨中煤。

德山初禪師

上堂。顧視大眾曰。見麼。在天成象。在地成形。在日月為晦為朔。在四時為寒為暑。鼓之以雷霆。潤之以風雨。且道在衲僧分上。又作麼生。一趯趯翻四大海。一拳拳倒須彌山。佛祖位中留不住。又吹漁笛汨羅灣。

嘉興報恩法常首座

開封人也。於首楞嚴經深入義海。自湖湘至萬年。謁雪巢機契。命掌牋翰。後首眾報恩室中。唯有一矮榻。餘無長物(有漁父詞)。

萬壽夢庵信禪師

上堂。殘雪既消盡。春風日漸多。若將時節會。佛法又如何。且道時節因緣。與佛法道理。是同是別。良久曰。無影樹栽人不見。開華結果自馨香。

慧日默庵道禪師

上堂。同雲欲雪未雪。愛日似暉不暉。寒雀啾啾鬧籬落。朔風冽冽舞簾帷。要會韶陽親切句。今朝覲面為提撕。卓拄杖下座。

光孝愍禪師

上堂。舉南泉斬貓兒話。乃曰。南泉提起下刀誅。六臂脩羅救得無。設使兩堂俱道得。也應流血滿街衢。

雪峯忠禪師

上堂。終日忙忙那事無妨。作麼生是那事。良久曰。心不負人。面無慚色。

蓬萊圓禪師

住山三十年。足不越閩。道俗尊仰之。師有偈曰。新縫紙被烘來煖。一覺安眠到五更。聞得上方鐘鼓動。又添一日在浮生。

左丞范冲居士

由翰苑守豫章。過圓通謁旻禪師。茶罷曰。某行將老矣。墮在金紫行中。去此事稍遠。通呼內翰。公應諾。通曰。何遠之有。公躍然曰。乞師再垂指誨。通曰。此去洪都有四程。公佇思。通曰。見即便見。擬思即差。公乃豁然有省。

樞密吳居厚居士

擁節歸鍾陵。謁圓通旻禪師曰。某頃赴省試過。此過趙州關。因問前住訥老。透關底事如何。訥曰。且去做官。今不覺五十餘年。旻曰。曾明得透關底事麼。公曰。八次經過常存此念。然未甚脫灑在。旻度扇與之曰。請使扇。公即揮扇。旻曰。有甚不脫灑處。公忽有省曰。便請末後句。旻乃揮扇兩下。公曰。親切親切。旻曰。吉獠舌頭三千里。

諫議彭汝霖居士

手寫觀音經施圓通。通拈起曰。這箇是觀音經。那箇是諫議經。公曰。此是某親寫。通曰。寫底是字。那箇是經。公笑曰。却了不得也。通曰。即現宰官身而為說法。公曰。人人有分。通曰。莫謗經

好。公曰。如何即是。通舉經示之。公拊掌大笑曰。嘎。通曰。又道了不得。公禮拜。

中丞盧航居士

與圓通擁鑪次。公問。諸家因緣。不勞拈出。直截一句請師指示。通厲聲指曰。看火。公急撥衣。忽大悟。謝曰。灼然佛法無多子。通喝曰。放下著。公應諾諾。

左司都貺居士

問圓通曰。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當如何湊泊。通曰。全身入火聚。公曰。畢竟如何曉會。通曰。驀直去。公沉吟。通曰。可更喫茶麼。公曰不必。通曰。何不恁麼會。公契旨曰。元來太近。通曰。十萬八千。公占偈曰。不可思議。是大火聚。便恁麼去。不離當處。通曰咦。猶有這箇在。公曰。乞師再垂指示。通曰。便恁麼去。錯是鐵鑄。公頓首謝之。

宣秘禮禪師

上堂。舉百丈野狐話。乃曰。不是翻濤手。徒誇跨海鯨。由基方撚鏃。枝上眾猿驚。

徑山塗毒智策禪師

謁大圓於明之萬壽。圓問曰。甚處來。師曰。天台來。曰見智者大師麼。師曰。即今亦不少。曰因甚在汝脚跟下。師曰。當面蹉過。圓曰。上人不耘而秀。不扶而直。一日辭去。圓送之門拊師背曰。寶所在近。此城非實。師領之。往豫章謁典牛。道由雲居。風雪塞路。坐閱四十二日。午初版聲鏗然。豁爾大悟。及造門。典牛獨指師曰。甚處見鬼見神來。師曰。雲居聞版聲來。牛曰。是甚麼。師

曰。打破虛空全無柄靶。牛曰。向上事未在。師曰。東家暗坐。西家廝罵。牛曰。嶄然超出佛祖。他日起家一麟足矣。

【頌】上堂。舉教中道。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雖然恁麼。正是捕得老鼠。打破油甕。懷禪師道。你眼在甚麼處。雖則識破釋迦老子。爭奈拈龜舐指。若是塗毒即不然。色見聲求也不妨。百華影裏繡鴛鴦。自從識得金鍼後。一任風吹滿袖香。

萬年心聞賁禪師

住江心病起。上堂。維摩病說盡道理。龍翔病咳嗽不已。咳嗽不已說盡道理。說盡道理咳嗽不已。汝等諸人。還識得其中意旨也未。本是長江湊風冷。却教露柱患頭風。

天童朴禪師

上堂。觀音巖玲瓏瓏。太白石丁丁東東。西園菜蠚似不堪食。東谷花發却無賴紅。且道是祖意教意。途中受用世諦流布。若辯不出。雪峯覆却飯桶。若辯得出。甘贄禮拜蒸籠。參。

高麗國坦然國師

少嗣王位。欽鄉宗乘。因海商方景仁抵四明。錄無示語歸。師閱之啟悟。即棄位圓顱。作書以語要及四威儀偈。令景仁呈無示。示答曰。佛祖出興於世。無一法與人。實使其自信自悟自證自到。具大知見。如所見而說。如所說而行。山河大地草木叢林。相與證明其來久矣。後復通嗣法書。

龍華本禪師

上堂。舉雲門大師拈起胡餅曰。我祇供養兩浙人。不供養向北人。眾無語。門自代曰。天寒日短。兩人共一碗。師曰。韶陽老漢言中有響。痛處著錐。檢點將來。翻成毒藥。諸人要會麼。半在河南半河北。一片虛疑似墨黑。冷地思量愁殺人。叵耐雲門這老賊。賊賊。下座。更不巡堂。

東山吉禪師

因李朝請與甥薌林居士向公子謹。謁之遂問。家賊惱人時如何。師曰。誰是家賊。李豎起拳。師曰。賊身已露。李曰。莫塗糊人好。師曰。賊證見在。李無語。師示以偈曰。家賊惱人孰奈何。千聖回機祇為他。徧界徧空無影跡。無依無住絕籠羅。賊賊。猛將雄兵收不得。疑殺天下老禪和。笑倒鬧市古彌勒。休休。不用將心向外求。回頭瞥爾賊身露。和賊捉獲世無儔。世無儔真可仰。從茲不復誇伎倆。怙怙安家樂業時。萬象森羅齊拊掌。

懶庵樞禪師

孝宗皇帝召至內殿。問禪道之要。師答以此事在陛下堂堂日用應機處。本無知見起滅之禁。聖凡迷悟之別。第護正念。則與道相應。情却物則業不能繫。盡去沉掉之病。自忘問答之意。矧今補處現在。佛般若光明中。何事不成現耶。上為之首肯數四。

龍鳴賢禪師

上堂。舉趙州勘婆話頌曰。冰雪佳人貌最奇。常將玉笛向人吹。曲中無限花心動。獨許東君第一枝。

大滄叟庵鑑禪師

上堂。老胡開一條路。甚生徑直。祇云。歇即菩提。性淨明心不從人得。後人不得其門。一向奔馳南北往復東西。極歲窮年無箇歇

處。諸人還歇得麼。休休。

○上堂。舉罽賓國王問師子尊者蘊空公案。師頌曰。尊者何曾得蘊空。罽賓徒自斬春風。桃花雨後已零落。染得一谿流水紅。

(會元十八卷終)

禪宗正脉卷九

音釋

曙(市據切方明也) 鮎(乃謙切魚名) 櫺(力庭切屋椳也) 輶(古混切車輶也) [宋-木+居](寄魚切居舍也) 湜(視力切水清也) 拈(吾故切受也) 撫(亡甫切土地腴美||然也) 啞(徐嗟切||聲也) 凹(烏合切||凸也) 凸(徒結切起貌) 啞(子答切入口也) 轟(以灼切||氣吹水貌) 璿(丑倫切玉名也) 磊(力罪切||砢也) 覲(達寂切見也) 鞞(先盍切履也) 廁(烏何切上廁也) 搯(許六切牽制也) 澗(古訛切水也) 汛(思見切灑掃也) 屁(匹避切氣下洩也) 禛(丘畏切||紐也) 洵(相均切過水中也) 趯(他力切跳踊也) 嶺(音讒山石高貌) 餗(丁回切蜀人呼蒸餅為||也) 蟻(胡光切||蜚也) 棼(扶云切複屋棟)

禪宗正脉卷第十

南嶽臨濟宗

楊岐方會禪師

少警敏。及冠不事筆硯。繫名征商課。最坐不職。乃宵遯。入瑞州九峯。恍若舊遊。眷不忍去。遂落髮。每閱經。心融神會。能折節扣參老宿。慈明白南源。徙道吾石霜。師皆佐之。總院事。依之雖久。然未有省發。每咨參。明曰。庫司事繁。且去。他日又問。明曰。監寺異時兒孫遍天下在。何用忙為。一日明適出。雨忽作。師偵之小徑。既見。遂擲住曰。這老漢今日須與我說。不說打你去。明曰。監寺知是般事便休。語未卒。師大悟。即拜於泥途。問曰。狹路相逢時如何。明曰。你且躲避。我要在那裏去。師歸。來日具威儀詣方丈禮謝。明呵曰。未在。自是明。每山行。師輒闕其出。雖晚必擊鼓集眾。明遽還。怒曰。少叢林。暮而陞座。何從得此規繩。師曰。汾陽晚參也。何謂非規繩乎。

【頌】一日。明上堂。師出問。幽鳥語喃喃。辭雲入亂峯時如何。明曰我行荒草裏。汝又入深村。師曰。官不容針。更借一問。明便喝。師曰好喝。明又喝。師亦喝。明連喝兩喝。師禮拜。明曰。此事是箇人。方能擔荷。師拂袖便行。

○明移興化。師辭歸九峯。後道俗迎居楊岐。次遷雲蓋。受請曰。拈法衣示眾曰。會麼。若也不會。今日無端走入水牯牛隊裏去也。還知麼。筠陽九岫。萍實楊岐遂陞座。時有僧出。師曰。漁翁未擲釣。躍鱗衝浪來。僧便喝。師曰。不信道。僧拊掌歸眾。師曰。消得龍王多少風。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有馬騎馬。無馬步行。曰少年長老。足有機籌。師曰。念汝年老。放汝三十棒。

【頌】問如何是佛。師曰。三脚驢子弄蹄行。曰莫祇這便是麼。師曰。湖南長老。云云。師便下座。

【頌】九峯勤和尚把住云。今日喜得箇同參。師曰。作麼生是同參底事。勤曰。九峯牽犁。楊岐拽杷。師曰。正恁麼時楊岐在前。九峯在前。勤擬議。師拓開曰。將謂同參。元來不是。

○問。人法俱遣。未是衲僧極則。佛祖雙亡。猶是學人疑處。未審和尚如何為人。師曰。你祇要勘破新長老。曰恁麼則旋斫生柴帶葉燒。師曰。七九六十三。

【頌】問古人面壁意旨如何。師曰。西天人不會唐言。

○上堂。霧鎖長空。風生大野。百草樹木作大師子吼。演說摩訶大般若。三世諸佛。在你諸人脚跟下轉大法輪。若也會得。功不浪施。若也不會。莫道楊岐山勢險。前頭更有最高峯。

○上堂。楊岐乍住屋壁疎。滿牀盡布雪真珠。縮却項。暗嗟吁。良久曰。翻憶古人樹下居。

【頌】僧問。撥雲見日時如何。師曰。東方來者東方坐。

【頌】問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衲僧得一。堪作甚麼。師曰。鉢盂口向天。

【頌】慈明忌辰設齋。眾纔集。師於真前。以兩手捏拳安頭上。以坐具畫一畫。打一圓相。便燒香。退身三步。作女人拜。首座曰。休捏怪。師曰。首座作麼生。座曰。和尚休捏怪。師曰。兔子喫牛糞。第二座近前打一圓相。便燒香。亦退身三步。作女人拜。師近前作聽勢。座擬議。師打一掌曰。這漆桶。也亂做。

【頌】室中問僧。栗棘蓬。你作麼生吞。金剛圈。你作麼生透。

○示眾云。景色乍晴。物情舒泰。舉步也。千身彌勒動用也。隨處釋迦。文殊普賢。總在這裏眾中有不受人謾底。便道。楊岐和麩糲麪。然雖如是。布袋裏盛錐子。

白雲守端禪師

幼事翰墨。冠依茶陵郁禪師披削。往參楊岐。岐一日忽問。受業師為誰。師曰。茶陵郁和尚。岐曰。吾聞伊過橋遭擲有省。作偈甚奇。能記否。師誦曰。我有明珠一顆。久被塵勞關鎖。今朝塵盡光生。照破山河萬朵。岐笑而趨起。師愕然。通夕不寐。黎明咨詢之。適歲暮。岐曰。汝見昨日打毆攤者麼。曰見。岐曰。汝一籌不及渠。師復駭曰。意旨如何。岐曰。渠愛人笑。汝怕人笑。師大悟。巾侍久之。

○上堂。忌口自然諸病減。多情未免有時勞。貧居動便成違順。落得清閑一味高。雖然如是。莫謂無心云是道。無心猶隔一重關。

○示眾。云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羣生前。隨緣赴感摩不周。而常處此菩提座。大眾作麼生說箇隨緣赴感底道理。祇於一彈指間。盡大地含生根機。一時應得周足。而未嘗動著一毫頭。便且喚作隨緣赴感。而常處此座。祇如山僧此者。受法華請。相次與大眾相別去。宿松縣裏開堂了。方歸院去。且道還離此座也無。若道離。則世諦流布。若道不離。作麼生見得箇不離底事。莫是無邊剎境。自他不隔於端毫。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麼。又莫是一切無心。一時自遍麼。若恁麼。正是掉棒打月。到這裏。直須悟始得。悟後更須遇人始得。你道既悟了便休。又何必更須遇人。若悟了遇人底。當垂手方便之時。著著自有出身之路。不瞎却學者眼。若祇悟得乾蘿蔔頭底。不唯瞎却學者眼。兼自己動便先自犯鋒傷手。你看我楊岐先師。問慈明和尚道。幽鳥語喃喃。辭雲入亂峯時如何。答云。我行荒草裏。汝又入深村。進云。官不容針。更借一

問。師翁便喝。進云好喝。師翁又喝。先師亦喝。師翁乃連喝兩喝。先師遂禮拜。大眾。須知悟了遇人者。向十字街頭與人相逢。却在千峯頂上握手。向千峯頂上相逢。却在十字街頭握手。所以山僧嘗有頌云。他人住處我不住。他人行處我不行。不是為人難共聚。大都緇素要分明。山僧此者。臨行解開布袋頭。一時撒在諸人面前了也。有眼者莫錯怪好。珍重。

○開堂示眾云。昔日靈山會上。世尊拈華。迦葉微笑。世尊道。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次第流傳。無令斷絕。至于今日。大眾。若是正法眼藏。釋迦老子自無分。將箇甚麼分付。將箇甚麼流傳。何謂如此。況諸人分上。各各自有正法眼藏。每日起來是是非非。分南分北。種種施為。盡是正法眼藏之光影。此眼開時。乾坤大地。日月星辰森羅萬象。祇在面前。不見有毫釐之相。此眼未開時。盡在諸人眼睛裏。今日已開者。不在此限。有未開者。山僧不惜手。為諸人開此正法眼藏看。乃舉手豎兩指曰。看看。若見得去。事同一家。若也未然。山僧不免重說偈言。諸人法眼藏。千聖莫能當。為君通一線。光輝滿大唐。須彌走入海。六月降嚴霜。法華能恁道。無句得商量。大眾。既滿口道了。為甚麼却無句得商量。喝一喝曰。分身兩處看。

【頌】上堂。見眾集。乃拈拄杖曰。大眾會麼。復卓拄杖曰。珊瑚枕上兩行淚。半是思君半恨君【增收】。

保寧仁勇禪師

容止淵秀。齟為大僧。通天台教。更衣謁雪竇明覺禪師。覺意其可任大法。謂之曰。央庠座主。師憤排下山。望雪竇拜曰。我此生行脚參禪。道不過雪竇。誓不歸鄉。即往泐潭。踰紀疑情未泮。聞楊岐移雲蓋。能鈐鍵學者。直造其室。一語未及。頓明心印。岐歿。從同參白雲端禪師遊。研極玄奧。後出世兩住保寧。

○僧問。如何是保寧境。師曰。主山頭倒卓。曰如何是境中人。師曰。鼻孔無半邊。

○上堂。侍者燒香罷。師指侍者曰。侍者已為諸人說法了也。

○上堂。風鳴條。雨破塊。曉來枕上鶯聲碎。蝦蟆蚯蚓一時鳴。妙德空生都不會。三箇成羣。四箇作隊窈窕窈窕。颺颺飄飄。向南北東西。折得梨花李花一佩兩佩。

【頌】示眾云。釋迦老子四十九年說法。不曾道著一字。優波鞠多丈室盈籌。不曾度得一人。達磨不居少室。六祖不住曹谿。誰是後昆。誰為先覺。既然如是。彼自無瘡。勿傷之也。拍膝顧眾曰。且喜得天下太平。

○示眾云。真相無形。示形現相千怪萬狀。自此而彰。喜則滿面光生。怒則雙眉陡豎。非凡非聖。或是或非。人不可量。天莫能測。直下搆得。未稱丈夫。喚不回頭。且莫錯怪。

【頌】示眾曰。三界唯心。萬法唯識。檻外雲生。簷前雨滴。澗水湛如藍。山花開似錦。此時若不究根源。直待當來問彌勒【增收】。

比部孫居士

【頌】因楊岐會禪師來謁。值視斷次。公曰。某為王事所牽。何由免離。岐指曰。委悉得麼。公曰。望師點破。岐曰。此是比部弘願深廣。利濟羣生。公曰。未審如何。岐示以偈曰。應現宰官身。廣弘悲願深。為人重指處。棒下血淋淋。公於此有省。

五祖法演禪師

謁圓照本禪師。古今因緣會盡。唯不會僧問興化。四方八面來時如何。化云。打中間底。僧作禮。化云。我昨日赴箇村齋。中途遇一陣卒風暴雨。却向古廟裏避得過。請益本。本云。此是臨濟下因緣。須是問他家兒孫始得。師遂謁浮山遠禪師。請益前話。遠云。我有箇譬喻說似你。你一似箇三家村裏賣柴漢子。把箇匾擔向十字街頭立地問人。中書堂今日商量甚麼事。師默計云。若如此大故未在。

【頌】遠一日語師曰。吾老矣。恐虛度子光陰。可往依白雲。此老雖後生。吾未識面。但見其頌臨濟三頓棒話。有過人處。必能了子大事。師澹然。禮辭。至白雲。遂舉僧問南泉。摩尼珠話請問。雲叱之。師領悟。獻投機偈曰。山前一片閑田地。叉手叮嚀問祖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雲特印可。

【頌】令掌磨事。未幾雲至。語師曰。有數禪客。自廬山來。皆有悟入處。教伊說亦說得有來由。舉因緣問伊亦明得。教伊下語亦下得。祇是未在。師於是大疑。私自計曰。既悟了。說亦說得。明亦明得。如何却未在。遂參究累日。忽然省悟。從前寶惜。一時放下。走見白雲。雲為手舞足蹈。師亦一笑而已。師後曰。吾因茲出一身白汗。便明得下載清風。

○雲一日示眾曰。古人道如鏡鑄像。像成後鏡在甚麼處。眾下語不契。舉以問師。師近前問訊曰。也不較多。雲笑曰。須是道者始得。乃命分座。開示方來。

【頌】僧問。如何是臨濟下事。師曰。五逆聞雷。

【頌】問如何是佛。師曰。口是禍門。又曰。肥從口入。

【頌】問一代時教。是箇切脚。未審切那箇字。師曰。鉢囉娘。

○問如何是先照後用。師曰。王言如絲。曰如何是先用後照。師曰。其出如綸。曰如何是照用同時。師曰。舉起軒轅鑑。蚩尤頓失威。曰如何是照用不同時。師曰金將火試。

○上堂。千峯列翠岸柳垂金。樵父謳歌。漁人鼓舞。笙簧聒地。鳥語呢喃。紅粉佳人。風流公子。一一。為汝諸人發上上機。開正法眼。若向這裏薦得。金色頭陀。無容身處。若也不會。喫粥喫飯。許你十穿八穴。

○上堂。汝等諸人。見老和尚鼓動脣吻。豎起拂子。便作勝解。及乎山禽聚集。牛動尾巴。却將作等閑。殊不知簷聲不斷前旬雨。電影還連後夜雷。

【頌】謝監收上堂。人之性命事。第一須是○。欲得成此○。先須防於○。若是真○人○○。

【頌】師十有餘年。海上參尋。見數人尊宿。自為了當。及到浮山會裏。直是開口不得。後到白雲門下。咬破一箇鐵酸賺。直得百味具足。且道賺子一句。作麼生道。乃曰。花發鷄冠媚早秋。誰人能染紫絲頭。有時風動頻相倚。似向堦前鬪不休。

○上堂。山僧昨日入城。見一棚傀儡。不免近前看。或見端嚴奇特。或見醜陋不堪。動靜行坐。青黃赤白一一見了。子細看時。元來青布幔裏有人。山僧忍俊不禁。乃問長史高姓。他道老和尚看便了。問甚麼姓。大眾。山僧被他一問。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還有為山僧。道得麼。昨日那裏落節。今日這裏拔本。

○上堂。說佛說法。拈槌豎拂。白雲萬里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白雲萬里。然後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也則白雲萬里。忽有箇漢出來道。長老你恁麼道。也則白雲萬

里。這箇說話。喚作矮子看戲。隨人上下。三十年後。一場好笑且道笑。箇甚麼笑白雲萬里。

○示眾云。祖師道。吾本來茲土。傳法救迷情。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達磨大師信脚來。信口道。後代兒孫多成計較。要會開花結果處麼。鄭州黎。青州棗。萬物無過出處好。

○三佛侍師於一亭上夜話。及歸。燈已滅。師於暗中曰。各人下一轉語。佛鑑曰。彩鳳舞丹霄。佛眼曰。鐵蛇橫古路。佛果曰。看脚下。師曰。滅吾宗者。乃克勤爾。

【頌】師曰。譬如水牯牛過牕櫺。頭角四蹄都過了。因甚麼尾巴過不得(高峯妙頌等閒放出這牛兒。頭角分明舉似誰。若向尾巴尖上會。新羅鷄子過多時)【增收】。

雲蓋智本禪師

僧問。人人盡有一面古鏡。如何是學人古鏡。師曰。打破來向你道。曰打破了也。師曰。胡地冬生筍。

○上堂。去者鼻孔遼天。來者腳踏實地且道祖師意向甚麼處著。良久曰。長恨春歸無覓處。不知流入此中來。

○上堂。高臺巴鼻開口便是若也便是。有甚巴鼻。月冷風高。水清山翠。

○上堂。以楔出楔。有甚休歇。欲得休。歇以楔出楔。喝一喝。

○上堂。滿口道不出。句句甚分明。滿目覩不見。山山疊亂青。鼓聲猶不會何況是鐘鳴喝一喝。

○上堂。祖翁卓卓犖犖。兒孫齷齪齷齪。有處藏頭沒處露角。借問衲僧。如何摸索。

○上堂。橫按拄杖曰。牙如刀劍面如鐵。眼放電光光不歇。手把蒺藜一萬斤。等閑敲落天邊月。卓一下。

保福殊禪師

僧問。如何是禪。師曰。秋風臨古渡。落日不堪聞。曰不問這箇禪。師曰。你問那箇禪。曰祖師禪。師曰。南華塔外松陰裏。飲露吟風又更多。

提刑郭祥正

字功甫。因謁白雲。雲上堂曰。夜來枕上作得箇山頌。謝功甫大儒。廬山二十年之舊。今日遠訪白雲之勤。當須舉與大眾。請已後分明舉似諸方。此頌豈唯謝功甫大儒。直要與天下有鼻孔衲僧。脫却著肉汗衫。莫言不道。乃曰。上大人。丘乙己。化三千。七十士。爾小生。八九子。佳作仁。可知禮也。公切疑。後聞小兒誦之。忽有省。以書報雲。雲以偈答曰。藏身不用縮頭。斂跡何須收脚。金烏半夜遼天。玉兔趕他不著。

壽聖知淵禪師

僧問。祖意西來即不問。如何是一色。師曰。目前無闍黎。此間無老僧。曰既不如是。如何曉會。師曰。領取鉤頭意。莫認定盤星。乃曰。凡有問答。一似擊石迸火。流出無盡法財。三草二木普霑其潤放行也。雲生谷口。霧罩長空。把定也。碧眼胡僧。亦須罔措。壽聖如斯舉唱。猶是化門。要且未有衲僧巴鼻。敢問諸人。作麼生是衲僧巴鼻。良久曰。布針開兩眼。君向那頭看。

上方日益禪師

僧問。如何是未出世邊事。師曰。井底蝦蟆吞却月。曰如何是出世邊事。師曰。鷺鷥踏折枯蘆枝。曰去此二途。如何是和尚為人處。師曰。十成好箇金剛鑽。攤向街頭賣與誰。

昭覺克勤圓悟佛果禪師

出蜀首謁玉泉皓。次依金鸞信。大滄喆。黃龍心。東林度。僉指為法器。而晦堂稱他日臨濟一派。屬子矣。最後見五祖。盡其機用。祖皆不諾。乃謂祖。強移換人。出不遜語。忿然而去。祖曰。待你著一頓熱病打時。方思量我在。師到金山。染傷寒困極。以平日見處試之。無得力者。追繹五祖之言。乃自誓曰。我病稍間。即歸五祖。病痊尋歸。祖一見而喜。令即參堂。便入侍者寮。方半月。會部使者解印還蜀。詣祖問道。祖曰。提刑少年曾讀小艷詩否。有兩句頗相近。頻呼小玉元無事。祇要檀郎認得聲。提刑應諾諾。祖曰。且子細。師適歸侍立次。問曰。聞和尚舉小艷詩。提刑會否。祖曰。他祇認得聲。師曰。祇要檀郎認得聲。他既認得聲。為甚麼却不是。祖曰。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響。師忽有省。遽出見鷄飛上欄干。鼓翅而鳴。復自謂曰。此豈不是聲。遂袖香入室。通所得。呈偈曰。金鴨香銷錦繡幃。笙歌叢裏醉扶歸。少年一段風流事。祇許佳人獨自知。祖曰。佛祖大事。非小根劣器所能造詣。吾助汝喜。祖徧謂山中耆舊曰。我侍者參得禪也。由此所至。推為上首。

○出峽南遊。時張無盡寓荊南。以道學自居。少見推許。師艤舟謁之。劇談華嚴旨要。曰華嚴現量境界。理事全真。初無假法。所以即一而萬。了萬為一。一復一。萬復萬。浩然莫窮。心佛眾生。三無差別。卷舒自在。無礙圓融。此雖極則。終是無風而雨之波。公於是不覺促榻。師遂問曰。到此與祖師西來意。為同為別。公曰。同矣。師曰。且得沒交涉。公色為之慍。師曰。不見雲門道。山河大地。無絲毫過患。猶是轉句。直得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

有向上全提時節。彼德山臨濟。豈非全提乎。公乃首肯。翌日復舉。事法界。理法界。至理事無礙法界。師又問。此可說禪乎。公曰。正好說禪也。師笑曰。不然。正是法界量裏在。蓋法界量未滅。若到事事無礙法界。法界量滅。始好說禪。如何是佛乾屎橛。如何是佛麻三斤。是故真淨偈曰。事事無礙。如意自在。手把豬頭。口誦淨戒。趁出姪坊。未還酒債。十字街頭解開布袋。公曰。美哉之論。豈易得聞乎。於是以師禮。留居碧巖復領昭覺。僧問。雲門道。須彌山意旨如何。師曰。推不向前。約不退後。曰未審還有過也無。師曰。坐却舌頭。

【頌】師凡垂問。學者擬議。則一拳【增收】。

太平慧勳佛鑑禪師

卅歲師廣教圓深試所習得度。每以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味之有省。乃徧參名宿。往來五祖之門。有年恚祖不為印據。與圓悟相繼而去。及悟歸五祖方丈徹證。而師忽至。意欲他邁悟勉令挂搭。且曰。某與兄相別。始月餘。比舊相見時如何。師曰。我所疑者此也。遂參堂。一日聞祖。舉僧問趙州。如何是和尚家風。州曰。老僧耳聾。高聲問將來。僧再問。州曰。你問我家風我却識你家風了也。師即大豁所疑曰。乞和尚指示極則。祖曰。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師展拜。祖令主翰墨。後同圓悟語話。次舉東寺。問仰山鎮海明珠。因緣至無理。可伸處圓悟徵。曰既云收得逮索此珠。又道無言可對。無理可伸。師不能加答明日謂。悟曰。東寺祇索一顆珠。仰山當下傾出一桲栳悟深肯之乃告之曰。老兄更宜親近。老和尚去。師一日造方丈未及語。被祖詬罵懨懨而退歸寮閉門打睡恨祖不已悟已密知即往扣門。師曰。誰悟曰。我師即開門。悟問你見老和尚如何。師曰。我本不去被你賺。累我遭這老漢。詬罵悟呵呵大笑。曰你記得前日下底語麼。師曰。是甚麼語。悟曰。你又道東寺

祇索一顆。仰山傾出一栲栳。師當下釋然。悟遂領師同上方丈。祖纔見遽。曰懃兄且喜大事了畢。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喫醋知酸喫鹽知鹹。曰弓折箭盡時如何。師曰。一場懨懨。

○上堂。至道無難。唯嫌揀擇桃華紅。李花白。誰道融融祇一色。燕子語。黃鸝鳴。誰道關關祇一聲不透。祖師關楨子空認山河作眼睛。

○上堂。橫拄杖曰。先照後用。豎起曰先用後照倒轉曰。照用同時。卓一下曰。照用不同時。汝等諸人。被拄杖一口吞盡了也。自是你不覺。若向這裏道得轉身句。免見一場氣悶。其或未然。老僧今日失利。

○師室中以木骰子六隻。面面皆書么字。僧纔入。師擲曰會麼。僧擬不擬。師即打出。

【頌】僧問。如何是佛。師曰。喫飯咬著砂【增收】。

龍門清遠佛眼禪師

因讀法華經。至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持以問講師。講師莫能答。師歎曰。義學名相。非所以了生死大事。遂卷衣南遊。造舒州太平演禪師法席。因丐於廬州。偶兩足跌仆地。煩懣間。聞二人交相惡罵。諫者曰。你猶自煩惱在。師於言下有省。

【頌】及歸。凡有所問演即曰。我不如你。你自會得好。或曰我不會。我不如你。師愈疑。遂咨決於元禮首座。禮乃以手引師之耳。繞圍爐數匝。且行且語曰。你自會得好。師曰。有冀開發。乃爾相戲耶。禮曰。你他後悟去。方知今日曲折耳。

○太平將遷海會。師慨然曰。吾持鉢方歸。復參隨往一荒院。安能究決已事耶。遂作偈告辭之。蔣山坐夏。邂逅靈源禪師。日益厚善。從容言話間。師曰。比見都下一尊宿。語句似有緣。靈源曰。演公天下第一等宗師。何故捨而事遠遊。所謂有緣者。蓋知解之師。與公初心相應耳。師從所勉徑趨海會。後命典謁。適寒夜孤坐。撥爐見火一豆許。恍然自喜曰。深深撥。有些子。平生事。只如此。遽起閱几上傳燈錄。至破竈墮因緣。忽大悟。作偈曰。刁刁林鳥啼。披衣終夜坐撥火悟平生窮神歸破墮事咬人自迷。曲淡誰能和。念之永不忘。門開少人過。圓悟因詣其寮。舉青林般土話驗之。且謂古今無人出得。你如何會。師曰。也有甚難。悟曰。祇如他道鐵輪天子寰中旨。意作麼生。師曰。我道帝釋宮中放赦書。悟退語人曰。且喜遠兄便有活人句也。

○上堂。一葉落天下春。無路尋思笑殺人。下是天。上是地。此言不入時流意。南作北。東作西。動而止。喜而悲。蛇頭蝎尾一試之。猛虎口裏活雀兒。是何言。歸堂去。

【頌】上堂。千說萬說不如親面一見。縱不說亦自分明。王子寶刀喻。眾盲摸象喻。禪學中隔江招手事。望州亭相見事。迴絕無人處事。深山巖崖處事。此皆親面而見之。不在說也。

○上堂。蘇武牧羊。辱而不屈。李陵望漢。樂以忘歸。是在外國。在本國。佛諸弟子中。有者雙足越坑。有者聆箏起舞。有者身埋糞壤。有者呵罵河神。是習氣。是妙用。至於擎叉打地。豎拂敲牀。睦州一向閉門。魯祖終年面壁。是為人。是不為人。信知一切凡夫。埋沒寶藏。殊不丈夫。諸人何不擺柁張帆拋江過岸。休更釘樁搖艫。何日到家既作曹谿人。又是家裏漢。還見家裏事麼。

○師嘗題語于龍門延壽壁間曰。佛許有病者當療治。容有將息所也。禪林凡有數名。或曰。涅槃。見法身常住。了法不生也。或曰

省行。知此違緣。皆從行苦也。或曰延壽。欲得慧命扶持色身也。其實使人了生死處也。多見少覺微恙。便入此堂。不強支吾。便有補益。及乎久病思念鄉閭。不善退思。滅除苦本。先聖云。病者眾生之良藥。若善服食。無不瘥者也。

【頌】那吒太子。析肉還母。析骨還父。然後現本身。運大神力。為父母說法。師云。肉既還母。骨既還父。用甚麼為身。學人到這裏若見得去。廓清五蘊。吞盡十方(云云)【增收】(頌見聯珠第一卷中)。

開福道寧禪師

壯為道人。於崇果寺執浴。一日將濯足。偶誦金剛經。至於此章句能生信心。以此為實。遂忘所知。忽垂足沸湯中。發明己見。

○示眾云。秋日耀長空。秋江浸虛碧。傷嗟門外人。處處尋彌勒。驀路忽擡頭。相逢不相識。諸禪德既是相逢為甚麼却不相識。剪盡霜前竹。臨谿不化龍。

○上堂。摩竭正令。未免崎嶇。少室垂慈早傷風骨。腰囊挈錫。孤負平生煉行灰心。遞相鈍置。爭似春雨晴春山青。白雲三片四片。黃鶯一聲兩聲。千眼大悲看不足。王維雖巧畫難成。直饒便恁麼。猶自涉途程。且不涉途程一句。作麼生道。人從汴州來。不得東京信。

○僧問。如何是句到意不到。師曰。瑞草本無根。信手拈來用。曰如何是意到句不到。師曰。領取鉤頭意。莫認定盤星。曰如何是意句俱到。師曰。大悲不展手。通身是眼睛。曰如何是意句俱不到。師曰。君向瀟湘我向秦。

大隨南堂靜禪師(後名道興)

首參永安恩禪師。於臨濟三頓棒話發明。次依諸名宿。無有當意者。聞五祖機峻。欲抑之。遂謁祖。祖乃曰。我此間不比諸方。凡於室中。不要汝進前退後豎指擎拳。繞禪牀作女人拜。提起坐具。千般伎倆。祇要你一言下諦當。便是你見處。師茫然。退參三載。一日入室罷。祖謂曰。子所下語。已得十分。試更與我說看。師即剖而陳之。祖曰。說亦說得十分。更與我斷看。師隨所問而判之。祖曰。好即好。祇是未曾得老僧說話在。齋後可來祖師塔所。與汝一一按過始得。及至彼。祖便以即心即佛。非心非佛。睦州擔板漢。南泉斬貓兒趙州狗子無佛性。有佛性之語。編辟之。其所對。了無凝滯。至子胡狗話。祖。遽轉面曰不是。師曰。不是却如何。祖曰。此不是。則和前面皆不是。師曰。望和尚慈悲指示。祖曰。看他道子胡有一狗。上取人頭。中取人腰。下取人脚入門者好看。纔見僧入門。便道看狗。向子胡道看狗處下一轉語。教子胡結舌。老僧鈴口。便是你了當處。次日入室。師默啟其說。祖笑曰。不道你不是千了百當底人。此語祇似先師下底語。師曰。某何人得似端和尚。祖曰不然。老僧雖承嗣他。謂他語拙蓋祇用遠錄公手段接人故也。如老僧共遠錄公。便與百丈。黃檗。南泉。趙州輩。把手共行。纔見語拙即不堪。師以為不然。乃曳杖渡江。適大水泛漲。因留四祖。儕輩挽其歸。又二年。祖方許可。嘗商略古今次。執師手曰。得汝說。須是吾舉。得汝舉。須是吾說。而今而後。佛祖秘要。諸方關鍵。無逃子掌握矣。

○上堂。問答已。乃曰。有祖已來。時人錯會。祇將言句以為禪道。殊不知道本無體。因體而得名。道本無名。因名而立號。祇如適來上座。纔恁麼出來。便恁麼歸眾。且道具眼不具眼。若道具眼。纔恁麼出來。眼在甚麼處。若道不具眼。爭合便恁麼去。諸仁者。於此見得個儻分明。則知二祖禮拜。依位而立。真得其髓。祇這些子。是三世諸佛命根。六代祖師命脉。天下老和尚安身立命處。雖然如是。須是親到始得。

○僧問祖師心印。請師直指。師曰。你聞熱麼。曰聞師曰。且不聞寒。曰和尚還聞熱否。師曰不聞。曰為甚麼不聞。師搖扇曰。為我有這箇。

○問如何是山裏禪。師曰。庭前嫩竹先生筍。澗下枯松長老枝。曰如何是市裏禪。師曰。六街鐘鼓韻鑿鑿。即處鋪金世界中。曰如何是村裏禪。師曰。賊盜消亡蠶麥熟。謳歌鼓舞樂昇平。

○有一老宿垂語云。十字街頭起一間茅廁。祇是不許人屙。僧舉似扣師。師曰。是你先屙了。更教甚麼人屙。宿聞焚香遙望大隨再拜謝之。

無為泰禪師

自出關。徧遊叢社。至五祖。告香日。祖舉趙州洗鉢盂話俾參。洎入室。舉此話問師。你道趙州向伊道甚麼。這僧便悟去。師曰。洗鉢盂去。祖曰。你祇知路上事。不知路上滋味。師曰。既知路上事。路上有甚滋味。祖曰你不知耶。又問你曾遊浙否。師曰。未也。祖曰。你未悟在。師自此凡五年不能對。祖一日陞堂。顧眾曰。八十翁翁輾繡毬。便下座。師欣然出眾曰。和尚試[車*袞]一[車*袞]看。祖以手作打仗鼓勢。操蜀音。唱綿州巴歌曰。豆子山。打瓦鼓。楊平山。撒白雨。白雨下。取龍女。織得絹。二丈五。一半屬羅江。一半屬玄武。師聞大悟。掩祖口曰。祇消唱到這裏。祖大笑而歸。

○上堂。此一大事因緣。自從世尊拈花。迦葉微笑。世尊曰。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以後燈燈相續。祖祖相傳。迄至于今。綿綿不墜。直得徧地生華。故號涅槃妙心。亦曰本心。亦曰本性。亦曰本來面目。亦曰第一義諦。亦曰爍迦羅眼。亦曰摩訶大般若。在男曰男。在女曰女。汝等諸人。但自悟去。這般盡是閑言語。遂

拈起拂子曰。會了喚作禪。未悟果然難難難。目前隔箇須彌山。悟了易易易信口道來無不是。

五祖自禪師

初依祖最久。未有省。時圓悟為座元。師往請益。悟曰。兄有疑處。試語我。師遂舉德山小參不答話。問話者三十棒。悟曰。禮拜著。我作得你師。舉話尚不會。師作禮竟。悟令再舉前話。師曰。德山小參不答話。悟掩其口曰。但恁麼看。師出揚聲曰。屈屈。豈有公案祇教人看一句底道理。有僧謂師曰。兄不可如此說。首座須有方便。因靜坐體究。及旬。頓釋所疑。詣悟禮謝。悟曰。兄始知吾不汝欺。又詣方丈。祖迎笑。自爾日深玄奧。

○師榜侍者門曰。東山有三句。若人道得即挂搭。衲子皆披靡。一日有僧携坐具。徑造丈室謂師曰。某甲道不得。祇要挂搭。師大喜。呼維那於明窗下安排。

九頂素禪師

謁五祖。聞舉首山答西來意語。倏然契語。述偈曰。顛倒顛。顛倒顛。新婦騎驢阿家牽。便恁麼。太無端。回頭不覺布衫穿。祖見乃問百丈野狐話又作麼生。師曰。來說是非者便是是非人。祖大悅。

元禮首座

初參演和尚於白雲凡入室。必謂曰。衲僧家明取緇素好。師疑之不已一日演陞堂。舉首山。新婦騎驢阿家牽語。乃曰。諸人要會麼。莫。問新婦阿家免煩。路上波吒遇飯即飯。遇茶即茶。同門出入宿世冤家。師於言下豁如。且曰。今日緇素明矣。

普融知藏

【頌】至五祖入室次。祖舉倩女離魂話問之。有契呈。偈曰。二女合為一媳婦。機輪截斷難回互。從來往返絕蹤由。行人莫問來時路。(按聯珠頌古第十卷中。有五祖演問僧曰。倩女離魂那箇是真底。乃註曰。王宙欲娶倩娘為妻。倩父母不許。倩遂臥病在家。王宙將欲遠行。月下見倩來。同舟而去。三年後遂生一子。倩遂歸父母家。纔到門家中有一倩娘出來。相見兩人遂合成一身)。

承天賢禪師

上堂。五更殘月落天曉。白雲飛分目前事。不是目前機。既是目前事。為甚麼。不是目前機。良久曰。欲言言不及。林下却商量。

金陵俞道婆

【頌】市油糞為業。常隨眾參問瑯琊。瑯以臨濟無位。真人話示之。一日聞丐者唱蓮花樂云。不因柳。毅傳書信。何緣得到洞庭湖。忽大悟。以糞盤投地。夫傍睨曰。你顛耶。婆掌曰。非汝境界。往見瑯琊。瑯望之知其造詣。問那箇是無位真人。婆應聲曰。有一無位人。六臂三頭努力嗔。一擘華山分兩路。萬年流水不知春。由是聲名藹著。凡有僧至則曰。兒兒。僧擬議。即掩門。佛燈珣禪師往勘之。婆見。如前所問。珣曰。爺在甚麼處。婆轉身拜露柱。珣即踏倒曰。將謂有多少奇特。便出。婆蹶起曰。兒兒來。惜你則箇。珣竟不顧。安首座至。婆問甚處來。安曰德山。婆曰德山泰。乃老婆兒子。安曰。婆是甚人兒子。婆曰。被上座一問。直得立地放尿。

徑山大慧宗杲禪師

年十七薙髮具毗尼。偶閱古雲門錄。恍若舊習。往依廣教程禪師。棄遊四方。從曹洞諸老宿。既得其說。去登寶峯。謁湛堂準禪師。堂一見異之。俾侍巾襪。指以入道捷徑。師橫機無所讓堂訶曰。汝

曾未悟。病在意識領解。則為所知障。堂疾革。囑師曰。吾去後當見川勤。必能盡此機用(勤即圓悟)堂卒。師趨謁無盡居士。求堂塔銘。無盡門庭高。少許可與師一言相契。下榻延之。名師庵曰妙喜。泊後再謁。且囑令見圓悟。

【頌】師至天寧。一日聞悟陞堂。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曰東山水上行。若是天寧即不然。忽有人問。如何是諸佛出身處。只向他道熏風自南來。殿閣生微涼。師於言下。忽然前後際斷。雖然動相不生。却坐在淨裸裸處。悟謂曰。也不易你得到這田地。可惜死了不能得活。不疑言句。是為大病。不見道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蘇。欺君不得。須信有這箇道理。遂令居擇木堂。為不釐務侍者。日同士大夫入室。(擇木乃朝士止息處)。

○悟每舉有句無句。如藤倚樹問之。師纔開口。悟便曰不是不是。經半載遂問悟曰。聞和尚當時在五祖。曾問這話。不知五祖道甚麼。悟笑而不答。師曰。和尚當時須對眾問。如今說亦何妨。悟不得已。謂曰。我問有句。無句。如藤倚樹。意旨如何。祖曰。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又問樹倒藤枯時如何。祖曰相隨來也。師當下釋然曰。我會也。悟遂舉數因緣詰之。師酬對無滯。悟曰。始知吾不汝欺。遂著臨濟正宗記付之。俾掌記室。未幾。令分座。室中握竹篋以驗學者。叢林浩然歸重。名振京師。右丞相呂公舜徒。奏賜紫衣佛日之號。會女真之變。其酋欲取禪僧十數人。師在選得免。趨吳虎丘度夏。因閱華嚴。至菩薩登七地證無生法忍。洞曉向所請問湛堂殃崛摩羅。持鉢至產婦家因緣。時圓悟。

【頌】詔住雲居。師往省覲。至山次日。即請為第一座。時會中多龍象。以圓悟久虛座元。俟師之來。頗有不平之心。及冬至秉拂。昭覺元禪師出眾問曰。眉間挂劍時如何。師曰。血濺梵天。圓悟於座下以手約云。住住。問得極好。答得更奇。元乃歸眾。叢林由是改觀。

○上堂。正月十四十五。雙徑椎鑼打鼓。要識祖意西來。看取村歌社舞。

○上堂。舉圓通秀禪師示眾曰。少林九年冷坐。剛被神光覷破。如今玉石難分。祇得麻纏紙裹。這一箇。那一箇。更一箇。若是明眼人。何須重說破。徑山今日。不免狗尾續貂。也有些子。老胡九年話墮。可惜當時放過致令默照之徒鬼窟長年打坐這一箇那一箇。更一箇。雖然苦口叮嚀。却似樹頭風過。

○上堂。水底泥牛嚼生鐵。僑梵鉢提咬著舌。海神怒把珊瑚鞭。須彌山王痛不徹。

○上堂。纔方八月中秋。又是九月十五。卓拄杖曰。唯有這箇不遷。擲拄杖曰。一眾耳聞目覩。

○圓悟禪師忌。師拈香曰這箇尊慈。平昔強項。氣壓諸方。逞過頭底顛預。用格外底儻侗。自言我以木楔子換天下人眼睛。殊不知被不孝之子將斷貫索穿却鼻孔。索頭既在徑山手裏。要教伊生。也由徑山。要教伊死。也由徑山。且道以何為驗。遂燒香曰。以此為驗。

○僧問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前百丈曰。不落因果。為甚麼墮野狐身。師曰。逢人但恁麼舉。曰祇如後百丈道。不昧因果。為甚麼脫野狐身。師曰。逢人但恁麼舉曰。或有人問徑山。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未審和尚向他道甚麼。師曰。向你道逢人但恁麼舉。

○問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時如何。師曰。親言出親口。曰未審如何受持。師曰。但恁麼受持。決不相賺。

【頌】問心佛俱忘時如何。師曰。賣扇老婆手遮日。

○僧請益夾山境話。聲未絕。師便喝。僧茫然。師曰。你問甚麼。僧擬舉師連打。喝出。

○師纔見僧入。便曰不是。出去。僧便出。師曰。沒量大人。被語脉裏轉却。

【頌】室中舉竹篋問僧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得下語。不得無語。速道速道。僧曰。請和尚。放下竹篋。即與和尚道。師放下竹篋。僧拂袖便出。師曰。侍者認取這僧著(淳熙初賜其全錄八十卷隨大藏流行)。

虎丘紹隆禪師

荷包謁長蘆信禪師。得其大略。有傳圓悟語至者。師讀之。歎曰。想醋生液。雖未澆腸沃胃。要且使人慶快。第恨未聆警效耳。遂由寶峯。依湛堂。客黃龍。叩死心禪師。次謁圓悟。一日入室。悟問曰。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舉拳曰。還見麼。師曰見。悟曰頭上安頭。師聞脫然契證。悟叱曰。見箇甚麼。師曰。竹密不妨流水過。悟肯之。尋俾掌藏教。有問悟曰。隆藏主柔易若此。何能為哉。悟曰。瞌睡虎耳。

○上堂。目前無法。萬象森然。意在目前。突出難辯。不是目前法。觸處逢渠。非耳目之所到。不離見聞覺知。雖然如是。也須踏著他向上關楩子始得。所以道羅籠不肯住。呼喚不回頭。佛祖不安排。至今無處所。如是則不勞斂念。樓閣門開。寸步不移。百城俱到。驀拈拄杖劃一劃云。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

【頌】初參死心。心問你是甚麼僧。師曰行脚僧。心曰。你是何處村僧。行甚驢脚馬脚。師曰。廣南蠻道甚麼。何不高聲道。心曰。却有些衲僧氣息。遂留過夏【增收】。

育王佛智端裕禪師

往依淨慈一禪師。未幾。偶聞僧擊露柱曰。你何不說禪。師忽微省。去謁龍門遠。甘露卓。泐潭祥。皆以穎邁見推。晚見圓悟於鍾阜。一日悟問。誰知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即今是滅不滅。曰請和尚合取口好。悟曰。此猶未出常情。師擬對。悟擊之。師頓去所滯。

○上堂曰。行時絕行跡。說時無說蹤。行說若到。則垛生招箭。行說未明。則神鋒劃斷。就使說無滲漏。行不迷方。猶滯殼漏在。若是大鵬金翅。奪迅百千由旬。十影神駒。馳驟四方八極。不取次啗啄。不隨處埋身。且總不依倚。還有履踐分也無。剎剎塵塵是要津。

○上堂曰。德山入門便棒。多向皮袋裏埋蹤。臨濟入門便喝。總在聲塵中出沒。若是英靈衲子。直須足下風生。超越古今途轍。拈拄杖卓一下。喝一喝曰。祇這箇。何似生。若喚作棒喝。瞌睡未惺。不喚作棒喝。未識德山臨濟。畢竟如何。復卓一下曰。總不得動著。

○師蒞眾。色必凜然。寢食不背眾。唱道無倦。紹興庚午十月初。示微疾。首座法全。請遺訓。師曰。盡此心意。以道相資。語絕而逝。

大滄佛性法泰禪師

僧問。理隨事變。該萬有而一片虛凝。事逐理融。等千差而咸歸實際。如何是理法界。師曰。山河大地。曰如何是事法界。師曰。萬象森羅。曰如何是理事無礙法界。師曰。東西南北。曰如何是事事無礙法界。師曰。上下四維。

○上堂。推真。真無有相。窮妄。妄無有形。真妄兩無所有。廓然露出眼睛。眼睛既露見箇甚麼。曉日燦開巖畔雪。朔風吹綻臘梅華。

○上堂。達得人空法空。未稱祖佛家風。體得全用全照。亦非衲僧要妙。直須打破牢關。識取向上一竅。如何是向上一竅。春寒料峭。凍殺年少。

○上堂。欲識佛去處。祇這語聲是。咄。傳大士不識好惡。以昭昭靈靈。教壞人家男女。被誌公和尚一喝曰。大士莫作是說。別更道看。大士復說曰。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誌公呵呵大笑曰。前頭猶似可。末後更愁人。

護國此庵景元禪師

習台教三禩。棄謁圓悟於鍾阜。因僧讀死心小參語云。既迷須得箇悟。既悟須識悟中迷。迷中悟。迷悟雙忘却。從無迷悟處。建立一切法。師聞而疑。即趨佛殿。以手托開門扉。豁然大徹。繼而執侍。機辯逸發。圓悟目為擎頭元。侍者遂自題肖像。付之曰。生平只說擎頭禪。撞著擎頭如鐵壁。脫却羅籠截脚。跟大地撮來墨漆黑。晚年轉復沒刀刀。奮金剛椎碎窠窟。他時要識圓悟面。一為渠儂併拈出。

南峯雲辯禪師

參圓悟值入室纔踵門。悟曰。看脚下。師打露柱一下。悟曰。何不著實道取一句。師曰。師若搖頭。弟子擺尾。悟曰。你試擺尾看。師翻筋斗而出。悟大笑。由是知名。一日入城與道俗行。至十郎巷。有問巷在這裏。十郎在甚處。師奮臂曰。隨我來。

靈隱慧遠佛海禪師

會圓悟復領昭覺。師即之聞悟普說。舉龐居士問馬祖。不與萬法為侶因緣。師忽頓悟仆於眾。眾掖之。師乃曰。吾夢覺矣。至夜小參。師出問曰。淨裸裸空無一物。赤骨力貧無一錢。戶破家亡。乞師賑濟。悟曰。七珍八寶一時拏。師曰。禍不入謹家之門。悟曰。機不離位墮在毒海。師隨聲便喝。悟以拄杖擊禪牀云。喫得棒也未。師又喝。悟連喝兩喝。師便禮拜。自此機鋒峻發。無所抵牾。

○上堂。好是仲春漸暖。那堪寒食清明。萬疊雲山聳翠。一天風月良隣。在處花紅柳綠。湖天浪穩風平。山禽枝上語諄諄。再三瑣瑣碎碎。囑付叮叮嚶嚶。你且道。他叮嚶囑付箇甚麼卓拄杖曰。記取明年今日。依舊寒食清明。

鴻福文禪師

上堂。不昧不落作麼會。會得依前墮野狐。一夜涼風生畫角。滿船明月泛江湖。

華藏民禪師

初講楞嚴於成都。為義學所歸。時圓悟居昭覺。師與勝禪師為友。因造焉聞悟小參。舉國師三喚侍者因緣。趙州拈云。如人暗中書字。字雖不成。文彩已彰。那裏是文彩已彰處。師心疑之。告香入室。悟問。坐主講何經。師曰楞嚴。悟曰。楞嚴有七處徵心八還辯見。畢竟心在甚麼處。師多呈藝解。悟皆不背。師復請益。悟令一切處作文彩已彰。會偶僧請益十玄談。方舉問君心印作何顏。悟厲聲曰。文彩已彰。師聞而有省。遂求印證。悟示以本色鉗鎚。師則罔措。一日白悟曰。和尚休舉話。待某說看。悟諾。師曰。尋常拈鎚豎拂。豈不是經中道。一切世界。諸所有相。皆即菩提。妙明真心。悟笑曰。你元來在這裏作活計。師又曰下喝敲牀時。豈不是返聞聞自性。性成無上道。悟曰。你豈不見經中道。妙性圓明。離諸

名相。師於言下釋然。悟出蜀居夾山。師罷講。侍行。悟為眾夜參。舉古帆未挂因緣。師聞未領。遂求決。悟曰你問我。師舉前話。悟曰。庭前柏樹子。師即洞明。謂悟曰。古人道如一滴投於巨壑。殊不知大海投於一滴。悟笑曰。奈這漢何。後謁佛鑑於蔣山。鑑問。佛果有不曾亂為人說底句。曾與你說麼。師曰。合取狗口。鑑震聲曰。不是這箇道理。師曰。無人奪你鹽茶袋。叫作甚麼。鑑曰。佛果若不為你說。我為你說。師曰。和尚疑時。退院別參去。鑑呵呵大咲。

昭覺道元禪師

謁大別道禪師。因看廓然無聖之語。忽爾失笑曰。達磨元來在這裏。道譽之。往參佛鑑。佛眼蒙賞識。依圓悟於金山。以所見告。悟弗之許。悟被 詔住雲居。師從之。雖有信入。終以鯁胷之物。未去為疑。會悟問參徒。生死到來時如何。僧曰。香臺子笑和尚。次問師。汝作麼生。師曰。草賊大敗。悟曰。有人問你時如何。師擬答。悟憑陵曰。草賊大敗。師即徹證。圓悟以拳擊之。師拊掌大笑。悟曰。汝見甚麼便如此。師曰。毒拳未報。永劫不忘。

中竺[仁-二+(么*刀)]堂中仁禪師

往來三藏譯經所。諦窮經論。特於宗門未之信。時圓悟居天寧。凌晨謁之。悟方為眾入室。師見敬服。奮然造前。悟曰。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速道速道。師擬對。悟劈口擊之。因墜一齒。即大悟。

○上堂。九十春光已過半。養花天氣正融和。海棠枝上鶯聲好。道與時流見得麼。雖然如是。且透聲透色一句作麼生道金勒馬嘶芳草地玉樓人醉杏花天。

○上堂。舉狗子無佛性話。乃曰。二八佳人刺繡遲。紫荊花下囀黃鸝可憐無限傷春意。盡在停針不語時。

○淳熙甲午。四月八日 孝宗皇帝詔入。賜座說法。帝舉不與萬法為侶因緣。俾拈提。師拈罷。頌曰。秤鎚搦出油。閑言長語休。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

象耳袁覺禪師

出蜀徧謁有道尊宿後往大瀉依佛性。頃之入室陳所見。性曰。汝忒煞遠在。然知其為法器。俾充侍者。掌賓客。師每侍性。性必舉法華開示悟入四字。令下語。又曰。直待我豎點頭時。汝方是也。偶不職。被斥。制中無依。寓俗士家。一日誦法華。至亦復不知何者是火。何者是舍。乃豁然。制罷歸省。性見首肯之。圓悟再得旨住雲居。師至彼。以所得白悟。悟呵云本是淨地。屙屎作麼。師所疑頓釋。嘗語客曰。東坡云。我持此石歸。袖中有東海。山谷云。惠崇煙雨蘆鴈坐我瀟湘洞庭。欲喚扁舟歸去。傍人謂是丹青。此禪髓也。

中巖華嚴祖覺禪師

依圓悟於鍾阜。一日入室。悟舉羅山道有言時。踞虎頭收虎尾。第一句下明宗旨。無言時覲露機鋒。如同電拂。作麼生會。師莫能對。夙夜參究。忽然有省。作偈呈悟曰。家住孤峯頂。長年半掩門。自嗟身已老。活計付兒孫。悟見許可。次日入室。悟又問。昨日公案作麼生。師擬對。悟便喝曰。佛法不是這箇道理。師復留五年。愈更迷悶。後於廬山棲賢。閱浮山遠禪師削執論云。若道悟有親疎。豈有旃檀林中却生臭草。豁然契悟。作偈寄圓悟曰。出林依舊入蓬蒿。天網恢恢不可逃。誰信業緣無避處。歸來不怕語聲高。悟大喜。持以示眾曰。覺華嚴徹矣。

○上堂。舉石霜和尚遷化。眾請首座繼踵住持。虔侍者所問公案。師曰。宗師行處。如火消冰。透過是非關。全機忘得喪。盡道首座滯在一色。侍者知見超師可謂體妙失宗。全迷向背。殊不知首座。如鷺鷥立雪。品類不齊。侍者如鳳翥丹霄不縈金網。一人高高山頂立。一人深深海底行。各自隨方而來。同會九重城裏。而今要識此二人麼。豎起拂子曰。龍臥碧潭風凜凜。垂下拂子曰。鶴歸霄漢背摩天。

明因曇玩禪師

上堂。汝有一對眼。我也有一對眼。汝若瞞還自瞞。汝若成佛作祖。老僧無汝底分。汝若做驢做馬。老僧救汝不得。

○眾檀越入山。請上堂。說偈曰。我無長處名虛出。謝汝殷勤特地來。明因無法堪分付。謾把山門為汝開。

虎丘雪庭元淨禪師

上堂。說得須是見得。見得又須說得。見得說不得。落在陰界。見解偏枯。說得見不得落在時機。墮在毒海。若是翠門下。直饒說得見得。好與三十棒。說不得見不得也好與三十棒。翠雲恁麼道。也好與三十棒。遂高聲召大眾曰。險。

天寧訥坐梵思禪師

上堂。知有底。也喫粥喫飯。不知有底。也喫粥喫飯。如何直下驗得他有之與無。是之與非。邪之與正。若驗不出。參學事大遠在。喝一喝。下座。

○上堂。山僧是楊岐四世孫這老漢有箇三脚驢子弄蹄行公案。雖人人舉得。祇是不知落處。山僧不惜眉毛為諸人下箇注脚。乃曰。八角磨盤空裏走。

君山覺禪師

上堂舉古者道。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諸人還識得麼。若也不識為你註破。仰之彌高。不隔絲毫。要津把斷。佛祖難逃。鑽之彌堅。真體自然。鳥啼花放。在碧巖前。瞻之在前。非正非偏。十方坐斷。威鎮大千。忽焉在後。一場漏逗。堪笑雲門。藏身北斗。咄。

寶華顯禪師

上堂。禪莫參。道休學。歇意忘機常廓落。現成公案早周遮。祇箇無心已穿鑿。直饒坐斷未生前。難透山僧錯錯錯。

東山覺禪師

上堂。舉昔廣額屠兒。一日至佛所。颺下屠刀曰。我是千佛一數。世尊曰如是如是。今日叢林將謂廣額。過去是一佛。權現屠兒。如此見廣額。且喜沒交涉。又曰。廣額正是箇殺人不眨眼底漢。颺下屠刀。立地成佛。且喜沒交涉。又道廣額颺下屠刀曰。我是千佛一數。這一佛多少分明。且喜沒交涉。要識廣額麼。夾路桃花風雨後。馬蹄何處避殘紅。

樞密徐俯

號東湖居士。靖康初。為尚書外郎。與朝士同志者挂鉢於天寧寺之擇木堂。力參圓悟。悟亦喜其見地超邁。一日至書記寮。指悟頂相曰。這老漢脚跟猶未點地在。悟賴面曰。甕裏何曾走却鼈。公曰。且喜老漢脚跟點地。悟曰。莫謗它好。公休去。

郡王趙令衿

號超然居士。紹興庚申冬。公與汪內翰藻。李參政邴。曾侍郎開詣徑山謁大慧慧聞至。乃令擊鼓入室。公欣然袖香趨之。慧曰。趙州洗鉢孟話。居士作麼生會。公曰。討甚麼碗。拂袖便出。慧起攔住曰。古人向這裏悟去。你因甚麼却不悟。公擬對。慧[打-丁+於]之曰。討甚麼碗。公曰。還這老漢始得。

侍郎李彌遜

號普現居士。為中書舍人。常入圓悟室。一日早朝回。至天津橋馬躍忽有省。通身汗流。直造天寧。適悟出門。遙見便喚曰。居士且喜大事了畢。公厲聲曰。和尚眼華作甚麼。悟便喝。公亦喝。於是機鋒迅捷。

成都范縣君者

嫠居歲久。常坐而不臥。聞圓悟住昭覺。往禮拜。請示入道因緣。悟令看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久無所契。范泣告悟曰。和尚有何方便。令某易會。悟曰。却有箇方便。遂令_祇看是箇甚麼。後有省曰。元來恁麼地近那。

文殊心道禪師

詣成都習唯識。自以為至。同舍詰之曰。三界唯心。萬法唯識。今目前萬象縱然。心識安在。師茫然不知對。遂出關周流江淮。既抵舒之太平。聞佛鑑禪師夜參。舉趙州柏樹子話至覺鐵觜云。先師無此語。莫謗先師好。因大疑。提撕既久。一夕豁然。即趨丈室。擬敘所悟。鑑見來。便閉門。師曰。和尚莫謾某甲。鑑云。十方無壁落。何不入門來。師以拳擲破窓紙。鑑即開門攔住云。道道。師以兩手捧鑑頭。作口啐而出。遂呈偈曰。趙州有箇柏樹話。禪客相傳徧天下。多是摘葉與尋枝。不能直向根源會。覺公說道無此語。正是惡言當面罵。禪人若具通方眼。好向此中辯真假。鑑深然之。

○上堂。師子嘯呻。象王哮吼。雲門北斗裏藏身。白雲因何喚作手。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且道作麼生是他知有底事。雨打梨花蛺蝶飛。風吹柳絮毛毬走。

南華曷禪師

上堂。此事最希奇。不礙當頭說。東隣田舍翁。隨例得一橛。非唯貫聲色。亦乃應時節。若問是何宗。八字不著人。擊禪牀下座。

○上堂。迷不自迷。對悟立迷。悟不自悟。因迷說悟。所以悟為迷之體。迷為悟之用。迷悟兩無從。箇中別無共。無別共。撥不動。祖師不將來。鼻孔千斤重。

龍牙才禪師

早服勤於佛鑑法席。而局務不辭難。名已聞於叢林。及遊方迫暮。至黃龍。適死心在三門。問其所從來。既稱名。則知為舒州太平才莊主矣。翌日入室。死心問曰。會得最初句。便會末後句。會得末後句。便會最初句。最初末後。拈放一邊。百丈野狐話。作麼生會。師曰。入戶已知來見解。何須更舉轆中泥。心曰。新長老。死在上座手裏也。師曰。語言雖有異。至理且無差。心曰。如何是無差底事。師曰。不扣黃龍角。焉知頷下珠。心便打。

○上堂舉死心和尚小參曰。若論此事。如人家有三子。第一子。聰明智慧。孝養父母。接待往來。主掌家業。第二子。兇頑狡猾。貪婬嗜酒。倒街臥巷。破壞家業。第三子。盲聾瘖瘂。菽麥不分。是事不能。祇會喫飯。三人中。黃龍要選一人用。更有四句。死中有活。活中有死。死中常死。活中常活。將此四句。驗天下衲僧。師曰。喚甚麼作四句。三人姓甚名誰。若也識得。與黃龍把手竝行。更無纖毫間隔。如或未然。不免借水獻華去也。三人共體。用非用。四句同音。空不空。欲識三人并四句。金烏初出一團紅。

蓬萊卿禪師

上堂。有句無句。如藤倚樹。且任諸方點頭。及乎樹倒藤枯。上無衝天之計。下無入地之謀。靈利漢。這裏著得一隻眼。便見七縱八橫。舉拂子曰。看看。一曲兩曲無人會。雨過夜塘秋水深。

佛燈珣禪師

參廣鑑瑛禪師不契。遂造太平。隨眾咨請。邈無所入。乃封其衾曰。此生若不徹去誓不展此。於是晝坐宵立。如喪考妣。逾七七。日。忽佛鑑上堂曰。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師聞頓悟。往見鑑。鑑曰。可惜一顆明珠。被這風顛漢拾得。乃詰之曰。靈雲道。自從一見桃華後。直至如今更不疑。如何是他不疑處。師曰。莫道靈雲不疑。只今覓箇疑處。了不可得。鑑曰。玄沙道。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那裏是他未徹處。師曰。深知和尚老婆心切。鑑然之。師拜起呈偈曰。終日看天不舉頭。桃華爛熳始擡眸。饒君更有遮天網。透得牢關即便休。鑑屬令護持。是夕厲聲謂眾曰。這回珣上座。穩睡去也。圓悟聞得。疑其未然。乃曰。我須勘過始得。遂令人召至。因與遊山遇到一水潭。悟推師入水。遽問曰。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潭深魚聚。悟曰。見後如何。師曰。樹高招風。悟曰。見與未見時如何。師曰。伸脚在縮脚裏。悟大稱之。

○上堂。舉婆子燒庵話。師曰。大凡扶宗立教。須是其人。你看他婆子。雖是箇女人。宛有大人作略。二十年篋油費醬。固是可知。一日向百尺竿頭。做箇失落。直得用盡平生腕頭氣力。自非箇俗漢知機。洎乎巧盡拙出。然雖如是。諸人要會麼。雪後始知松柏操。事難方見丈夫心。

泐潭明禪師

上堂。舉趙州訪茱萸探水因緣。師曰。趙老雲收山嶽露。茱萸雨過竹風清。誰家別館池塘裏。一對鴛鴦畫不成又舉德山托鉢話。師曰。從來家富小兒嬌。偏向江南弄畫橈。引得老爺把不住。又來船上助歌謳。

寶藏本禪師

上堂。清明已過十餘日。華雨闌珊方寸深。春色惱人眠不得。黃鸝飛過綠楊陰。遂大笑下座。

祥符海禪師

初見佛鑑。鑑問。三世諸佛。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可教化。此理如何。師擬進語。鑑喝之。師忽領旨。述偈曰。實際從來不受塵。箇中無舊亦無新。青山況是吾家物。不用尋家別問津鑑曰。放下著。師禮拜而出。

淨眾璨禪師

上堂。重陽九日菊花新。一句明明亘古今。楊廣橐駝無覓處。夜來足跡在松陰。

(會元十九卷終)

龍翔竹庵士珪禪師

初依大慈宗雅。心醉楞嚴。逾五秋。南遊謁諸尊宿。始登龍門。即以平時所得。白佛眼。眼曰。汝解心已極。但欠著力開眼耳。遂俾職堂司。一日侍立次。問云。絕對待時如何。眼曰。如汝僧堂中白椎相似。師罔措。眼至晚抵堂司。師理前話。眼曰。閑言語。師於言下大悟。

○紹興間。奉 詔開山。鴈蕩能仁。時真歇居江心。聞師至。恐緣法未熟。特過江迎歸方丈。大展九拜。以誘溫人。由是翕然歸敬。未視篆。其徒懼行規法。深夜放火。鞠為瓦礫之墟。師竟就樹縛屋。陞座示眾云。愛閑不打鼓山鼓。投老來看鴈蕩山。傑閣危樓渾不見。谿邊茆屋兩三間。還有共相出手者麼。喝一喝下座。聽法檀施。併力營建。未幾。復成寶坊。

○上堂。明明無悟。有法即迷。諸人向這裏立不得。諸人向這裏住不得。若立則危。若住則瞎。直須意不停玄。句不停意。用不停機。此三者既明。一切處不須管帶。自然現前。不須照顧。自然明白。雖然如是。更須知有向上事。久雨不晴。咄。

○上堂。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落花有意隨流水。流水無情戀落花。諸可還者。自然非汝。不汝還者。非汝而誰。長恨春歸無覓處。不知轉入此中來。喝一喝曰。三十年後。莫道能仁教壞人家男女。

雲居高庵悟禪師

有夙慧。聞沖禪師舉武帝問達磨因緣。如獲舊物。遽曰。我既廓然。何聖之有。沖異其語。勉之南詢。蒙授記於龍門。一日有僧被蛇傷足。佛眼問曰。既是龍門。為甚麼却被蛇咬師即應曰。果然現大人相。眼益器之。後傳此語到昭覺。圓悟云。龍門有此僧耶。東山法道未寂寥爾。

黃龍牧庵忠禪師

習台教。悟一心三觀之旨。未能泯跡。徧參名宿。至龍門觀水磨旋轉。發明心要。乃述偈曰。轉大法輪。目前包裹。更問如何。水推石磨。呈佛眼。眼曰。其中事作麼生。師曰。澗下水長流。眼曰。我有末後一句。待分付汝。師即掩耳而去。

○僧問。如何是佛。師曰。莫向外邊覓。曰如何是心。師曰。莫向外邊尋。曰如何是道。師曰莫向外邊討。曰如何是禪。師曰。莫向外邊傳。曰畢竟如何。師曰。靜處薩婆訶。

烏巨雪堂行禪師

上堂。會即便會。玉本無瑕。若言不會。確觜生花。試問九年面壁。何如大會拈華。南明恁麼商確。也是順風撒沙。參。

○到國清。眾請上堂。句亦剗。意亦剗。絕毫絕釐處。如山如嶽。句亦到。意亦到。如山如嶽處。絕毫絕釐。忽若拶通一線。意句俱到俱不到。俱剗俱不剗。直得三句外絕牢籠。六句外無標的。正當恁麼時一句。作麼生道。傾蓋同途不同轍。相將攜手上高臺。上堂。舉趙州示眾云。老僧除却二時齋粥。是雜用心處。師曰。今朝六月旦。行者擊鼓。長老陞堂。你諸人總來這裏雜用心。

白楊順禪師

依止佛眼。聞普說。舉傅大士心王銘云。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師於言下有省。後觀寶藏迅轉。頓明大法。趨丈室作禮。呈偈曰。頂有異峯雲冉冉。源無別派水泠泠。遊山未到山窮處。終被青山礙眼睛。眼笑而可之。

○上堂。好事堆堆疊疊來。不須造作與安排。落林黃葉水推去。橫谷白雲風卷回。寒鴈一聲情念斷。霜鐘纔動我山摧。白楊更有過人處。盡夜寒鑪撥死灰。忽有箇衲僧出來道。長老少賣弄。得恁麼窮乞相。山僧祇向他道。却被你道著。

○上堂。我手何似佛手。天上南星北斗。我脚何似驢脚。往事都來忘却。人人盡有生緣箇箇足方頂圓。大愚灘頭立處。孤月影射深灣。會不得。見還難。一曲漁歌過遠灘。

○上堂。風吹茆茨屋脊漏。雨打闍黎眼睛濕恁麼分明却不知。却來這裏低頭立(時紹燈上座聞之有省)師律身清苦。出入唯杖笠獨行。

雲居如禪師

徧參浙右諸宗匠。晚至龍門。以平日所證。白佛眼。眼曰。此皆學解。非究竟事。欲了生死。當求妙悟。師駭然諦信。一日命主香積。以道業未辦固辭。眼勉曰。姑就職。其中大有人為汝說法。未幾晨興開廚門望見聖僧。契所未證。即白佛眼。眼曰。這裏還見聖僧麼。師詣前問訊叉手而立。眼曰。向汝道大有人為汝說法。

歸宗真牧賢禪師

遊成都。依大慈秀公習經論。凡典籍。過目成誦。義亦頓曉。秀稱為經藏子。出蜀謁諸尊宿。後扣佛眼。一日入室。眼舉殷勤抱得旃檀樹。語聲未絕。師頓悟。眼曰。經藏子。漏逗了也。自是與師商確淵奧亶亶無盡。眼稱善。因手書真牧二字授之。

○上堂。且第一句如何道。汝等若向世界未成時。父母未生時。佛未出世時。祖師未西來時道得。已是第二句。且第一句如何道。直饒你十成道得。未免左之右之。卓拄杖下座。

道場正堂辯禪師

至西京少林。聞僧舉佛眼。以古詩發明鬪賓王斬師子尊者話曰。楊子江頭楊柳春。楊花愁殺渡江人。一聲羌笛離亭晚。君向瀟湘我向秦。師默有所契。即趨龍門。求入室。佛眼問。從上祖師方冊因緣。許你會得。忽舉拳曰。這箇因何喚作拳。師擬對。眼築其口曰。不得作道理。於是頓去知見。

○佛眼忌。拈香。龍門和尚。闡提潦倒。不信佛法。滅除禪道。搗破毗盧向上關。貓兒洗面自道好。一炷沉香鑪上然。換手槌胸空懊

惱。遂搖手曰。休懊惱。以坐具搭肩上。作女人拜曰。莫怪下房媳婦。觸忤大人好。

○師家風嚴冷。初機多憚之。因贊達磨曰。昇元閣前懨懨。洛陽峯畔乖張。皮髓傳成話霸。隻履無處埋藏。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雪堂行一見。大稱賞曰。先師猶有此人在。只消此贊。可以坐斷天下人舌頭。由是衲子奔湊。

【頌】室中問學者。蚯蚓為甚麼化為百舌(會元見圓極岑按聯珠著于此)

【增收】。

世奇首座

徧依師席。晚造龍門。一日燕坐瞌睡間。羣蛙忽鳴。誤聽為淨髮版響。亟趨往。有曉之者曰。蛙鳴非版也。師恍然。詣方丈剖露。佛眼曰。豈不見羅喉羅。師遽止曰。和尚不必舉。待去自看。未幾有省。乃占偈曰。夢中聞版響。覺後蝦蟇啼。蝦蟇與版響。山嶽一時齊。由是益加參究。洞臻玄奧。眼命分座。師固辭曰。此非細事也。如金針刺眼。毫髮若差。睛則破矣。願生生居學地。而自煅煉。眼因以偈美之曰。有道只因頻退步。謙和元自慣回光。不知已在青雲上。猶更將身入眾藏。

淨居尼慧溫禪師

上堂。舉法眼示眾曰。三通鼓罷。簇簇上來。佛法人事。一時周畢。師曰。山僧道。三通鼓罷。簇簇上來。拄杖不在。茗蒂柄聊與三十。

給事馮楫濟川居士

自壯扣諸名宿。最後居龍門。從佛眼遠禪師。再歲一日同遠經行法堂。偶童子趨庭吟曰。萬象之中獨露身。遠拊公背曰。好響。公於

是契入。紹興丁巳。除給事。會大慧禪師。就明慶開堂。慧下座。公挽之曰。和尚每言於士大夫前曰。此生決不作這蟲豸。今日因甚却納敗缺。慧曰。盡大地是箇杲上座你向甚處見他。公擬對。慧便掌。公曰。是我招得。越月特丐祠。坐夏徑山。榜其室曰。不動軒。

○嘗自詠曰。公事之餘喜坐禪。少曾將脅到牀眠。雖然現出宰官相。長老之名四海傳。建炎後。名山巨剎教藏多不存。公累以己俸印施。凡一百二十八藏。用祝君壽。以兆康民。門人蒲大聘。嘗誌其事。

大滄月庵善果禪師

○上堂。奚仲造車一百輻。拈却兩頭除却軸。以拄杖打一圓相曰。且莫錯認盤定星。卓一卓下座。

○上堂。解猛虎領下金鈴。驚羣動眾。取蒼龍穴裏明珠。光天照地。山僧今日到此。讚歎不及。汝等諸人。合作麼生。豎起拂子曰。眨上眉毛。速須薦取。擲拂子下座。

石頭回禪師

上座。參禪學道。大似井底叫渴相似。殊不知塞耳塞眼。回避不及。且如十二時中。行住坐臥。動轉施為。是甚麼人使作。眼見耳聞。何處不是路頭。若識得路頭。便是大解脫路。方知老漢與你證明。山河大地與你證明。所以道十方婆伽梵。一路涅槃門。諸仁者。大凡有一物。當途要見一物之根源。一物無處要見一物之根源。見得根源。源無所源。所源既非。何處不圓。諸禪德。你看老漢有甚麼勝你處。諸人有甚麼不如老漢處。還會麼。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護聖居靜禪師

聞南堂道望。遂往依焉。堂舉香巖枯木裏龍吟話。往返酬詰。師於言下大悟。一日堂問曰。莫守寒巖異草青。坐却白雲宗不妙。汝作麼生。師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堂矍然曰。這小廁兒。師珍重便行。

○嘗謂眾曰。參學至要。不出先南堂道。最初句。及末後句。透得過者。一生事畢。儻或未然。更與你分作十門。各各印證自心。還得穩當也未。一須信有教外別傳。二須知有教外別傳。三須會無情說法。與有情說法無二。四須見性如觀掌中之物。了了分明。一一田地穩密。五須具擇法眼。六須行鳥道玄路。七須文武兼濟。八須摧邪顯正。九須大機大用。十須向異類中行。凡欲紹隆法種。須盡此綱要。方坐得這曲彙牀子。受得天下人禮拜。敢與佛祖為師。若不到恁麼田地。祇一向虔頭。他時異日。閻老子未放你在。間有學者。各門頌出呈師。師以頌示曰。十門綱要掌中施。機會來時自有為。作者不須排位次。大都首末是根基。

南巖勝禪師

上堂。召大眾曰。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會得箇中意。分明在半途。且道到家一句。又作麼生。釋迦彌勒沒量大。看來又祇是他奴。

梁山廓庵師遠禪師

上堂。舉楊岐三脚驢子話。乃召大眾曰。揚其湯者。莫若撲其火。壅其流者。莫若杜其源。此乃智人之明鑒。佛法之至論。正在斯焉。這因緣。如今叢林中提唱者甚多。商量者不少。有般底。祇道宗師家。無固必。凡有所問。隨口便答。似則也似。是即未是。若恁麼。祇作箇乾無事會。不見楊岐用處。乃至祖師千差萬別。方便

門庭。如何消遣。又有般底。祇向佛邊會。却與自己沒交涉。古人道。凡有言句。須是一一消歸自己。又作麼生。又有般底。一向祇作自己會。棄却古人用處。唯知道明自己事。古人方便。却如何消遣。既消遣不下。却似抱橋柱澡洗。要且放手不得。此亦是一病。又有般底。却去脚多少處會。若恁麼會。此病最難醫也。所以他語有巧妙處。卒難摸索。纔擬心。則差了也。前輩謂之楊岐宗旨。須是他屋裏人。到恁麼田地。方堪傳授。若不然者。則守死善道之謂也。這公案。直須還他透頂徹底漢。方能了得。此非止禪和子會不得。而今天下叢林中出世為人底。亦少有會得者。若要會去。直須向威音那畔。空劫已前。輕輕覷著。提起便行。捺著便轉。却向萬仞峯前進一步。可以籠罩古今。坐斷天下人舌頭。如今還有恁麼者麼。有則出來道看。如無更聽一頌。三脚驢子弄蹄行。直透威音萬丈坑。雲在嶺頭閑不徹。水流澗下太忙生。湖南長老誰解會。行人更在青山外(師有十牛圖并頌行于世)。

能仁悟禪師

結夏上堂。最初一步。十方世界現全身。末後一言一微塵中深鎖斷。有時提起。如倚天長劍。光耀乾坤。有時放下。似紅爐點雪。虛含萬象。得到恁麼田地。天魔外道。拱手歸降。三世諸佛。一時稽首。便可以大圓覺。為我伽藍。於一毫端。現寶王刹。如是則朝往西天。暮歸東土。亦是禁足。百華叢裏坐。姪坊酒肆行。亦是禁足。雖然如是。不曾動著這裏一步。恁麼則九旬無虛棄之功。百劫有今時之用。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此即是涅槃妙心。金剛王寶劍。敢問大眾。作麼生得到這田地去。如人上山。各自努力。

尚書莫將居士

謁南堂靜禪師。咨決心要。堂使其向一切處提撕。適如廁。俄聞穢氣。急以手掩鼻。遂有省。即呈以偈曰。從來姿韻愛風流。幾笑時人向外求。萬別千差無覓處。得來元在鼻尖頭。南堂答曰。一法纔通法法周。縱橫妙用更何求。青蛇出匣魔軍伏。碧眼胡僧笑點頭。

龍圖王蕭居士

留昭覺曰。聞開靜板聲有省。問南堂曰。某有箇見處。纔被人問。却開口不得。未審過在甚處。堂曰。過在有箇見處。堂却問。朝旆幾時到任。公曰。去年八月四日。堂曰。自按察。幾時離衙。公曰。前月二十。堂曰。為甚麼道開口不得。公乃契悟。

教忠晦庵彌光禪師

出嶺謁圓悟禪師於雲居。次參黃檗祥。高庵悟。機語皆契。以淮楚盜起。歸謁佛心。會大慧寓廣。因往從之。慧謂曰。汝在佛心處所得者。試舉一二看。師舉佛心上堂。拈普化公案曰。佛心即不然。總不恁麼來時如何。劈脊便打。從教徧界分身。慧曰。汝意如何。師曰。某不肯他後頭下箇注脚。慧曰。此正是以病為法。師毅然無信可意。慧曰。汝但揣摩看。師竟以為不然。經旬因記海印信禪師拈曰。雷聲浩大。雨點全無。始無滯。趨告慧。慧以舉道者見瑯琊。并玄沙未徹語詰之。師對已。慧笑曰。雖進得一步。祇是不著所在。如人斫樹。根下一刀。則命根斷矣。汝向枝上斫。其能斷命根乎。今諸方浩浩說禪者。見處總如此。何益於事。其楊岐正傳。三四人而已。師慍而去。翌日慧問。汝還疑否。師曰。無可疑者。慧曰。祇如人相見。未開口時。已知虛實。或聞其語。便識淺深。此理如何。師悚然汗下。莫知所詣。慧令究有句無句。慧過雲門庵。師侍行。一日問曰。某到這裏。不能得徹。病在甚處。慧曰。汝病最癖。世醫拱手何也。別人死了活不得。汝今活了未曾死。要到大安樂田地。須是死一回始得。師疑情愈深。後入室。慧問。喫

粥了也。洗鉢盂了也。去却藥忌。道將一句來。師曰裂破。慧震威喝曰。你又說禪也。師即大悟。慧搥鼓告眾曰。龜毛拈得笑哈哈。一擊萬重關鎖開。慶快平生在今日。孰云千里賺吾來。師亦以頌呈之曰。一拶當機怒雷吼。驚起須彌藏北斗。洪波浩渺浪滔天。拈得鼻孔失却口。

○上堂。有句無句。如藤倚樹。放憨作麼。及乎樹倒藤枯。句歸何處。情知汝等諸人。卒討頭鼻不著。為甚如此。祇為分明極。翻令所得遲。

東林卅庵道顏禪師

久參圓悟。微有省發。泊悟還蜀。囑依妙喜。仍以書致喜曰。顏川彩繪已畢。但欠點眼耳。他日嗣其後。未可量也。喜居雲門及洋嶼。師皆在焉。朝夕質疑。方大悟。

○上堂。欲識諸佛心。但向眾生心行中識取。欲識常住不凋性。但向萬物遷變處會取。還識得麼。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西禪懶庵鼎需禪師

幼舉進士有聲。年二十五。因讀遺教經。忽曰。幾為儒冠誤欲去家。母難之以親迎在期。師乃絕之曰。夭桃紅杏。一時分付春風。翠竹黃花。此去永為道伴。竟依保壽樂禪師為比丘。一錫湖湘。徧參名宿。法無異味。歸里結庵於羗峯絕頂。不下山者三年。佛心才禪師。挽出首眾於大乘。嘗問學者。即心即佛因緣。時妙喜庵于洋嶼。師之友彌光。與師書曰。庵主手段。與諸方別。可來少欸如何。師不答。光以計邀師飯。師往赴之。會妙喜為諸徒入室。師隨喜焉。妙喜舉僧問馬祖。如何是佛。祖云。即心是佛。作麼生。師下語。妙喜詬之曰。你見解如此。敢妄為人師耶。鳴鼓普說。訐其

平生珍重得力處。排為邪解。師淚交頤。不敢仰視。默計曰。我之所得。既為所排。西來不傳之旨。豈止此耶。遂歸心弟子之列。一日喜問曰。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如何。師擬開口。喜拈竹篋劈脊連打三下。師於此大悟厲聲曰。和尚已多了也。喜又打一下。師禮拜。喜笑云。今日方知吾不汝欺也。遂印以偈曰。頂門豎亞摩醯眼。肘後斜懸奪命符。瞎却眼。卸却符。趙州東壁挂葫蘆。於是聲名。喧動叢林。

東禪蒙庵思岳禪師

上堂。臘月初。歲云徂。黃河凍已合。深處有嘉魚。活鱗鱗。跳不脫。又不能相煦以濕。相濡以沫。慚愧菩薩摩訶薩。春風幾時來。解此黃河凍。令魚化作龍。直透桃花浪。會即便會。癡人面前。且莫說夢。

西禪此庵守淨禪師

上堂。談玄說妙。撒屎撒尿。行棒行喝。將鹽止渴。立主立賓。華肇宗乘。設或總不恁麼。又是鬼窟裏坐。到這裏。山僧已是打退鼓。且道諸人尋常心憤憤。口排排。合作麼生。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

○上堂。若也單明自己。不悟目前。此人有眼無足。若也祇悟目前。不明自己。此人有足無眼。直得眼足相資。如車二輪。如鳥二翼。正好勘過了打。

○上堂。道是常道。心是常心。汝等諸人。聞山僧恁麼道。便道我會也。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頭上是天。脚下是地。耳裏聞聲。鼻裏出氣。忽若四大海水在汝頭上。毒蛇穿你眼睛。蝦蟇入你鼻孔。又作麼生。

○上堂。文殊普賢談理事。臨濟德山行棒喝。東禪一覺到天明。偏愛風從涼處發。咄。

開善道謙禪師

初之京師。依圓悟。無所省發。後隨妙喜。庵居泉南。及喜領徑山。師亦侍行。未幾。令師往長沙通紫巖居士張公書。師自謂。我參禪二十年。無入頭處。更作此行。決定荒廢。意欲無行。友人宗元者。叱曰。不可在路便參禪不得也。去。吾與汝俱往。師不得已而行。在路泣語元曰。我一生參禪。殊無得力處。今又途路奔波。如何得相應去。元告之曰。你但將諸方參得底。悟得底。圓悟妙喜為你說得底。都不要理會。途中可替底事。我盡替你。只有五件事。替你不得。你須自家支當。師曰。五件者何事。願聞其要。元曰。著衣。喫飯。屙屎。放尿。駝箇死屍路上行。師於言下領旨。不覺手舞足蹈。元曰。你此回。方可通書。宜前進。吾先歸矣。元即回徑山。師半載方返。妙喜一見而喜曰。建州子。你這回別也。

○上堂。竺土大僊心。東西密相付。如何是密付底心。良久曰。八月秋何處熱。

育王佛照德光禪師

適大慧領育王。四海英材鱗集。師亦與焉。大慧室中問師。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得下語。不得無語。師擬對。慧便棒。師豁然大悟。初住台之光孝。僧問。浩浩塵中如何辯主。師曰。巾峯頂上塔心尖。

【頌】師住靈隱日。宋孝宗宣問。釋迦佛入山。六年所成何事。師對曰。將謂陛下忘却。

【頌】孝宗召對師舉靈雲頌。直至如今更不疑。奏曰。那裏是他不疑處。帝曰。空手牽鐵牛(此二則見會元第六卷終。其頌著于聯珠集第十卷中佛照章)。

華藏遯庵演禪師

上堂。拈起拄杖曰。識得這箇。一生參學事畢。古人恁麼道。華藏則不然。識得這箇。更須買草鞋行脚。何也。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

天童無用全禪師

上堂。學佛止言真不立。參禪多與道相違。忘機忘境急回首。無地無錐轉步歸。佛不是。心亦非。覲體承當絕所依。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

玉泉懿禪師

久依圓悟。自謂不疑。紹興初。出住興化祥雲。法席頗盛。大慧入閩。知其所見未諦。致書令來。師遲遲。慧小參。且痛斥。仍榜告四眾。師不得已。破夏謁之。慧鞫其所證。既而曰。汝恁麼見解。敢嗣圓悟老人耶。師退院親之。一日入室。慧問。我要箇不會禪底做國師。師曰。我做得國師去也。慧喝出。居無何。語之曰。香嚴悟處。不在擊竹邊。俱胝得處。不在指頭上。師乃頓明。

薦福本禪師

上堂。高揖釋迦。不拜彌勒者。與三十拄杖。何故。為他祇會步步登高。不會從空放下。東家牽犁。西家拽杷。與三十拄杖。何故。為他祇會從空放下。不會步步登高。山僧恁麼道。還有過也無。眾

中莫有點檢得出者麼。若點檢得出。須彌南畔。把手共行。若點檢不出。布袋裏老鷄。雖活如死。

靈巖性禪師

上堂。勘破了也。放過一著。是衲僧破草鞋。現修羅相。作女人拜。是野狐精魅。打箇圓相。虛空裏下一點。是小兒伎倆。攔腮贈掌。拂袖便行。正是業識茫茫。無本可據。直饒向黑豆未生已前。一時坐斷。未有喫靈巖拄杖分。敢問大眾。且道為人節文。在甚麼處。還相委悉麼。自從春色來嵩少。三十六峯青至今。

○僧問。如何是獨露身。師曰。牡丹花下睡貓兒。

蔣山直禪師

初參妙喜於回鴈峯下。一日喜問之曰。上座甚處人。師曰。安州人。喜曰。我聞你安州人會廝撲是否。師便作相撲勢。喜曰。湖南人喫魚。因甚湖北人著鯁。師打筋斗而出。喜曰。誰知冷灰裏。有粒豆爆。

○一日留守陳丞相俊卿。會諸山茶話次。舉有句無句。如藤倚樹公案。令諸山批判。皆以奇語取奉。師最後曰。張打油。李打油。不打渾身只打頭。陳大喜。

靈隱誰庵演禪師

上堂。面門拶破。天地懸殊。打透牢關。白雲萬里。饒伊兩頭坐斷。別有轉身。三生六十劫。也未夢見在。喝一喝下座。

光孝遠禪師

上堂。舉女子出定話。乃曰。從來打鼓弄琵琶。須是相逢兩會家。
佩玉鳴鸞歌舞罷。門前依舊夕陽斜。

靈隱最庵印禪師

上堂。五五二十五。擊碎虛空鼓。大地不容針。十方無寸土。春生
夏長復何云。甜者甜兮苦者苦。

竹原元庵主

久依大慧。分座西禪。丞相張公浚。帥三山。以數院迎之。不就。
歸舊里結茆。號眾妙園。宿衲士夫。交請開法。

○示眾曰。若究此事。如失却鑰匙相似。祇管尋來尋去。忽然撞
著。噫。在這裏。開箇鑰子。便見自家庫藏。一切受用。無不具
足。不假他求。別有甚麼事。

○示眾曰。主法之人。氣吞宇宙。為大法王。若是釋迦老子。達磨
大師出來。也教伊。叉手向我背後立地。直得寒毛卓豎。亦未為分
外。

○垂語云。這一些子。恰如撞著殺人漢相似。你若不殺了他。他便
殺了你。

淨居尼妙道禪師

延平尚書黃公裳之女。開堂日。乃曰。問話且止。直饒有傾湫之
辯。倒嶽之機。衲僧門下。一點用不著。且佛未出世時。一事全
無。我祖西來。便有許多建立。列剎相望。星分派列。以至今日。
累及兒孫。遂使山僧於人天大眾前。無風起浪。向第二義門。通箇
消息。語默該不盡底。彌亘大方。言詮說不及處。徧周沙界。通身
是眼。覲面當機。電卷星馳。如何湊泊。有時一喝。生殺全威。有

時一喝。佛祖莫辯。有時一喝。八面受敵。有時一喝。自救不了。且道那一喝。是生殺全威。那一喝。是佛祖莫辯。那一喝。是八面受敵那一喝。是自救不了。若向這裏薦得。堪報不報之恩。脫或未然。山僧無夢說夢去也。拈起拂子曰。還見麼。若見。被見刺所障。擊禪牀曰。還聞麼若聞。被聲塵所惑。直饒離見絕聞正是二乘小果。跳出一步。蓋色騎聲。全放全收。主賓互換。所以道。欲知佛性義。當觀時節因緣。敢問諸人。即今是甚麼時節。蕩蕩仁風扶聖化。熙熙和氣助昇平。擲拂子下座。

○尼問。如何是佛。師曰。非佛。曰如何是佛法大意。師曰。骨底骨董。

資壽尼無著。妙總禪師

丞相蘇公頌之孫女也。年三十許。厭世浮休。脫去緣飾。咨參諸老。已入正信。作夏徑山。大慧陞堂。舉藥山初參石頭。後見馬祖因緣。師聞豁然省悟。慧下座不動居士馮公楫。隨至方丈曰。某理會得和尚適來所舉公案。慧曰。居士如何。曰恁麼也不得。嚇噓娑婆訶。不恁麼也不得。唵哩娑婆訶。恁麼不恁麼總不得。嚇噓唵哩娑婆訶。慧舉似師。師曰。曾見郭象註莊子。識者曰。却是莊子註郭象。慧見其語異。復舉巖頓婆子話問之。師答偈曰。一葉扁舟泛渺茫。呈橈舞榭別宮商。雲山海月都拋却。贏得莊周蝶夢長。慧休去。馮公疑其所悟不根。後過無錫。招至舟中問曰。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祇這一箇也不消得。便棄水中。大慧老師。言道人理會得。且如何會。師曰。已上供過。竝是詣實。馮公大驚。

○慧挂牌次。師入室。慧問古人不出方丈。為甚麼却去莊上喫油糝。師曰。和尚放妙總過。妙總方敢通箇消息。慧曰。我放你過。你試道看。師曰。妙總亦放和尚過。慧曰。爭奈油糝何。師喝一喝而出。於是聲聞四方。

○隆興改元。舍人張公孝祥。來守是郡。以資壽挽開法。入院上堂。宗乘一唱。三藏絕詮。祖令當行。十方坐斷。二乘聞之怖走。十地到此猶疑。若是俊流。未言而論。設使用移星換斗底手段。施攬旗奪鼓底機關。猶是空拳。豈有實義。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靈山付囑。俯徇時機。演唱三乘。各隨根器。始於鹿野苑。轉四諦法輪。度百千萬眾。山僧今日與此界他方。乃佛乃祖。山河大地。草木叢林。現前四眾。各轉大法輪。交光相羅。如寶絲網。若一草一木不轉法輪。則不得名為轉大法輪。所以道於一毫端。現寶王剎。坐微塵裏。轉大法輪。乘時於其中間。作無量無邊廣大佛事。周徧法界。一為無量。無量為一。小中現大。大中現小。不動步。遊彌勒樓閣。不返聞。入觀音普門。情與無情。性相平等。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於此倜儻分明。皇恩佛恩。一時報足。且道是如何是報恩一句。天高羣象正。海濶百川潮。

○上堂。黃面老人。橫說豎說。權說實說。法說喻說。建法幢。立宗旨。與後人作榜樣為甚麼却道。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於是二中間。未嘗說一字。點檢將來。大似抱贓叫屈。山僧今日。人事忙冗。且放過一著。便下座。

侍郎張九成無垢居士

丁巳秋。大慧禪師董徑山。學者仰如星斗。公閱其語要。歎曰。是知宗門有人。持以語尚(即惟尚禪師)恨未一見。及為禮部侍郎。偶參政劉公。請慧說法于天竺。公三往不值。暨慧報謁。公見但寒暄而已。慧亦默識之。尋奉祠還里。至徑山。與馮給事諸公。議格物。慧曰。公祇知有格物。而不知有物格。公茫然。慧大笑。公曰。師能開論乎。慧曰。不見小說。載唐人。有與安祿山謀叛者。其人先為閬守。有畫像在焉。明皇幸蜀見之。怒令侍臣。以劒擊其像首。時閬守居陝西。首忽墮地。公聞頓領深旨。題不動軒壁曰。子韶格

物。妙喜物格。欲識一貫。兩箇五百。慧始許可。後守邵陽。丁父難。過徑山。飯僧。秉鈞者。意慧議及朝政。遂竄慧於衡陽。令公居家守服。服除。安置南安。丙子春。蒙恩北還。道次新淦。而慧適至。與聯舟劇談宗要。未嘗語往事。

○丁丑秋。丐祠枉道。訪慧於育王。越明年。慧得旨。復領徑山。公謁於慶善院曰。某每於夢中。必誦語孟。何如。慧舉圓覺曰。由寂靜故。十方世界。諸如來心。於中顯現。如鏡中像。公曰。非老師。莫聞此論也。

參政李邴居士

字漢老。醉心祖道有年。聞大慧排默照為邪禪。疑怒相半。及見慧示眾。舉趙州庭柏垂語曰。庭前柏樹子。今日重新舉。打破趙州關。特地尋言語。敢問大眾。既是打破趙州關。為甚麼却特地尋言語。良久曰。當初祇道茆長短。燒了方知地不平。公領悟。謂慧曰。無老師後語。幾蹉過。後以書咨決曰。某近扣籌室。承激發蒙滯。忽有省入。願惟根識暗鈍。平生學解。盡落情見。一取一捨。如衣壞絮。行草棘中。適自纏繞。今一笑頓釋所疑。欣幸可量。非大宗匠委曲垂慈。何以致此。自到城中。著衣喫飯抱子弄孫。色色仍舊。既無拘執之情。亦不作奇特之想。其餘夙宿舊障亦稍輕微。臨行叮嚀之語。不敢忘也。重念始得入門。而大法未明。應機接物。觸事未能無礙。更望有以提誨使卒有所至。庶無玷於法席矣。又書曰。某比蒙誨答。備悉深旨。某自驗者三。一事無逆順。隨緣即應。不留罣中。二宿習濃厚。不加排遣。自爾輕微。三古人公案。舊所茫然。時復瞥地。此非自昧者。前書大法未明之語。蓋恐得少為足。當廣而充之。豈別求勝解耶。淨勝現流。理則不無。敢不銘佩。

寶學劉彥脩居士

出知永嘉。問道於大慧禪師。慧曰。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趙州道無。但恁麼看。公後乃於柏樹子上發明。有頌曰。趙州柏樹太無端。境上追尋也大難。處處綠楊堪繫馬。家家門底透長安。

提刑吳偉明居士

久參真歇了禪師。得自受用三昧為極致後訪大慧於洋嶼庵。隨眾入室。慧舉狗子無佛性話問之。公擬答。慧以竹篋便打。公無對遂留咨參。一日慧謂曰。不須呈伎倆。直須啐地折。曝地斷。方敵得生死。若祇呈伎倆。有甚了期。即辭去。道次延平。倏然契悟。

門司黃彥節居士

於大慧一喝下疑情頓脫。慧以衣付之。

秦國夫人計氏妙真

屏去紛華。習有為法。因大慧遣謙禪者。致問其子魏公。公留謙。以祖道誘之。真一日問謙曰。徑山和尚尋常如何為人。謙曰。和尚祇教人看狗子無佛性。及竹篋子話。祇是不得下語。不得思量。不得向舉起處會。不得向開口處承當。狗子還有佛性也無。無祇恁麼教人看。真遂諦信。於是夜坐。力究前話。忽爾洞然無滯。謙辭歸。真親書入道槩略。作數偈呈慧。其後曰。逐日看經文。如逢舊識人。莫言頻有礙一舉一回新。

天童應庵曇華禪師

住歸宗日。大慧在梅陽。有僧傳師垂示語句。慧見之。極口稱歎。後以偈寄曰。坐斷金輪第一峯。千妖百怪盡潛蹤。年來又得真消息。報道楊岐正脉通。其歸重如此。

○上堂云。參禪人。切忌錯用心。悟明佛性是錯用心。成佛作祖是錯用心。看經講教是錯用心。行住坐臥是錯用心。喫粥喫飯是錯用心。屙屎送尿是錯用心。一動一靜一往一來是錯用心。更有一處錯用心。歸宗不敢與諸人說破。何故一字入公門。九牛車不出。

【頌】示眾曰。如世良馬。見鞭影而行。時佛照光和尚出眾云。見鞭影者非良馬。師休去【增收】。

【頌】示眾曰。盡力道不得底句。不在天台。定在南嶽【增收】。

師於室中能鍛鍊耆艾故世稱大慧與師居處。為二甘露門。嘗誡徒曰。衲僧家。著草鞋住院。何啻如虻蛇戀窟乎。

清涼坦禪師

有僧舉大慧竹篋話請益。師示以偈曰。徑山有箇竹篋。直下別無道理。佛殿厨庫三門。穿過衲僧眼耳。其僧言下有省。

淨慈水庵一禪師

首參雪峯慧照禪師。照舉藏身無迹話問之。師數日方明。呈偈曰。藏身無迹更無藏。脫體無依便斷當。古鏡不勞還自照。淡煙和露濕秋光。照質之曰。畢竟那裏是藏身無迹處。師曰。無蹤跡處。因甚麼莫藏身。師曰。石虎吞卻木羊兒。照深肯之。住後上堂。舉圓悟師翁道。參禪參到無參處。參到無參始徹頭。水庵則不然。參禪參到無參處。參到無參未徹頭。若也欲窮千里目。直須更上一層樓。

【頌】室中問僧曰。西天鬍子。因甚無鬚【增收】。

道場無庵全禪師

久依佛智。每入室。智以狗子無佛性話問之。師罔對。一日聞僧舉五祖頌云。趙州露刃劍。忽大悟。有偈曰。鼓吹轟轟祖半肩。龍樓香噴益州船。有時赤脚弄明月。踏破五湖波底天。

慧通旦禪師

初出關。至德山。值泰上堂。舉趙州曰。臺山婆子已為汝勘破了也。且道意在甚麼處。良久曰。就地撮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師聞釋然。

靈巖安禪師

上堂。參禪不究淵源。觸途盡為留礙。所以守其靜默澄寂虛閑。墮在毒海。以弱勝強。自是非他。立人我量。見處偏枯。遂致優劣不分。照不搆用。用不離窠。此乃學處不玄。盡為流俗到這裏。須知有殺中透脫。活處藏機。佛不可知。祖莫能測。所以古人道。有時先照後用。且要共你商量。有時先用後照。你須是箇漢始得。有時照用同時。你又作麼生抵當。有時照用不同時。你又向甚麼處湊泊。還知麼。穿楊箭與驚人句。不是臨時學得來。

國清簡堂機禪師

上堂。單明自己。樂是苦因。趣向宗乘地獄劫在。五日一參。三八普說。自揚家醜。更若問理問事。問心問性。克由叵耐。若是英靈漢。窺籬不入。據鼎不嘗便於未有生佛已前轉得身。却於今時大官路上捷行濶步。終不向老鼠窟。草窠裏。頭出頭沒。若也根性陋劣。要去有滋味處咬嚼。遇著義學阿師。遞相錮鑿。直饒說得雲興雨現。也是蝦蟇化龍。下稍依舊喫泥喫土。堪作甚麼。

○示眾云。觀色即空成大智。故不住生死。觀空即色成大悲故不證涅槃。生死不住。涅槃不證。漢地不收秦地不管且道在甚麼處安身

立命。莫是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覩。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麼。莫是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麼。若恁麼。總是觸體前敲磕。須知過量人。自有過量用。且作麼生是過量用。北斗藏身雖有語。出羣消息少人知。

焦山或庵體禪師

上堂。舉臨濟示眾四喝公案。乃召眾曰。這箇公案。天下老宿拈掇甚多。第恐皆未盡善。焦山不免四稜著地。與諸人分明註解一徧。如何是踞地師子。咄。如何是金剛王寶劍。咄。如何是探竿影草。咄。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咄。若也未會。拄杖子與焦山吐露看。卓一下曰。笑裏有刀。又卓一下曰。毒蛇無眼。又卓一下曰。忍俊不禁。又卓一下曰。出門是路。更有一機舉話長老。也理會不得。

○室中常舉苕帚柄問學者曰。依稀苕帚柄。髭鬚赤班蛇。眾皆下語不契。有僧請益。師示以頌曰。依稀苕帚柄。髭鬚赤班蛇。棒下無生忍。臨機不識爺。

湛堂深禪師

佛涅槃日。上堂。兜率降生。雙林示滅。掘地討天。虛空釘橛。四十九年。播土揚塵。三百餘會。納盡敗缺。盡力布網張羅。未免喚龜作鼈。末後拘尸城畔。擲示雙趺。旁人冷眼看來。大似弄巧成拙。卓拄杖曰。若無這箇道理。千古之下誰把口說。且道是甚麼道理。癡人面前。切忌漏洩。

參政錢端禮居士

從此庵發明己事。後於宗門旨趣一一極之(示微恙有訣別之語。得去留自在。恐繁不具錄)。

東山齊己禪師

上堂。舉修山主偈曰。是柱不見柱。非柱不見柱。是非已去了。是非裏薦取。召大眾曰。薦得是。移花兼蝶至。薦得非。擔泉帶月歸。是也好。鄭州黎勝青州棗。非也好。象山路人蓬萊島。是亦沒交涉。踏著秤鎚硬似鐵。非亦沒交涉。金剛寶劍當頭截。阿呵呵。會也麼。知事少時煩惱少。識人多處是非多(蓮社上堂文長不錄)。

疎山歸雲本禪師

上堂。久雨不晴。戊在丙丁。通身泥水。露出眼睛。且道是甚麼眼睛。卓拄杖曰。林間泥滑滑。時叫兩三聲。

內翰曾開居士

紹興辛未。佛海補三衢光孝公與超然居士趙公訪之。問曰。如何是善知識。海曰。燈籠露柱。貓兒狗子。公曰。為甚麼贊即歡喜。毀即煩惱。海曰。侍郎曾見善知識否。公曰。某三十年參問。何言不見。海曰。向歡喜處見煩惱處見。公擬議。海震聲便喝公擬對。海曰。開口底不是。公罔然。海召曰。侍郎。向甚麼處去也。公猛省。遂點頭說偈曰。咄哉瞎驢。叢林妖孽。震地一聲天機漏泄。有人便問意如何。拈起拂子劈口截。海曰。也祇得一槩。

知府葛郊居士

嘗問諸禪曰。夫妻二人相打。通兒子作證。且道證父即是。證母即是。或庵著語曰。小出大遇(或庵有頌)。

徑山寶印禪師

謁大慧。慧問甚處來。師曰。西川。慧曰。未出劔關。與汝三十棒了也。師曰。不合起動和尚。慧欣然。掃室延之。

○上堂。將心除妄妄難除。即妄明心道轉迂。桶底趯穿無忌諱。等閑一步一芙蓉。

楚安方禪師

附商舟。過湘南。舟中聞岸人。操鄉音。厲聲云叫那。由是有省。即說偈曰。沔水江心喚一聲。此時方得契平生。多年相別重相見。千聖同歸一路行。

文殊業禪師

世為屠宰。一日戮豬次。忽洞徹心源。即棄業為比丘。述偈曰。昨日夜叉心。今朝菩薩面。菩薩與夜叉。不隔一條線。往見文殊。殊曰。你正殺豬時。見箇甚麼。便乃剃頭行脚。師遂作鼓刀勢。殊喝曰。這屠兒。參堂去。師便下參堂。

○上堂。舉趙州勘婆話。乃曰。勘破婆子。面青面黑。趙州老漢。瞞我不得。

稠巖贊禪師

上堂。舉趙州狗子無佛性話。乃曰。趙州狗子無佛性。萬疊青山藏古鏡。赤脚波斯入大唐。八臂那吒行正令。咄。

待制潘良貴居士

隨眾參扣。後依佛燈。久之不契。因訴曰。某祇欲化去時如何。燈曰。好箇封皮。且留著使用。而今不了。不當後去。忽被他換却封皮。卒無整理處。公又以南泉斬貓兒話問曰。某看此甚久。終不透徹。告和尚慈悲。燈曰。你祇管理會別人家貓兒。不知走却自家狗子。公於言下如醉醒。燈復曰。不易公進此一步。更知有向上事始

得。如今士大夫。說禪說道。祇依著義理便快活。大率似將錢買油
餚喫了便不飢。其餘便道是瞞他。亦可笑也。公唯唯。

無為隨庵緣禪師

上堂。以一統萬。一月普現一切水。會萬歸一。一切水月一月攝。
展則彌綸法界。收來毫髮不存。雖然收展殊途。此事本無異致。但
能於根本上著得一隻眼去。方見三世諸佛。歷代祖師。盡從此中示
現。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盡從此中流出。天地日月。萬象森
羅。盡從此中建立。三界九地。七趣四生。盡從此中出沒。百千法
門。無量妙義。乃至世間工巧諸伎藝盡現行此事。所以世尊拈華。
迦葉便乃微笑。達磨面壁。二祖於是安心。桃華盛開。靈雲疑情淨
盡。擊竹作響。香巖頓忘所知。以至盤山於肉案頭悟道。彌勒向漁
市上接人。誠謂。造次顛沛必於是。經行坐臥在其中。既有如是奇
特。更有如是光輝。既有如是廣大。又有如是周徧。你輩諸人因甚
麼却有迷有悟。要知麼。幸無徧照處。剛有不明時。

萬年閑禪師

上堂。全機敵勝。猶在半途。啐啄同時。白雲萬里。纔生朕兆。已
落二三。不露鋒鋦。成何道理。且道從上來事。合作麼生。誣人之
罪。以罪加之。

中際能禪師

往來龍門雲居有年。未有所證。一日普請擇菜次。高庵忽以貓兒擲
師懷中師擬議。庵攔筲踏倒。於是大事洞明。

普雲圓禪師

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透法身句。門曰。北斗裏藏身。師曰。
南北東西萬萬年。乾坤上下兩無邊。相逢相見呵呵咲。屈指擡頭月

半天。

退庵休禪師

上堂。言發非聲。是箇甚麼。色前不物。莫亂針錐。透過禹門。風波更險。咄。

長蘆且庵仁禪師

上堂。百千三昧無量妙門。今日且庵不惜窮性命。祇做一句子說與諸人。乃卓拄杖下座。

圓極岑禪師

上堂。今朝八月初五。好事分明為舉。嶺頭漠漠秋雲。樹底鳴鳩喚雨。昨夜東海鯉魚。吞却南山猛虎。雖然有照有用。畢竟無賓無主。唯有文殊普賢。住住我識得你。

覺報清禪師

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曰。東山水上行。師曰。諸佛出身處。東山水上行。石壓筍斜出。岸懸花倒生。

何山然禪師

侍正堂之久。入室次。堂問貓兒為甚麼偏愛捉老鼠。曰物見主。眼卓豎。堂欣然。因命分座。

信相修禪師

上堂。舉馬祖不安公案。乃曰。兩輪舉處煙塵起。電急星馳擬何止。目前不礙往來機。正令全施無表裏。丈夫意氣自衝天。我是我兮你自你。

玉泉窮谷璉禪師

開堂日。問答已。乃曰。衲僧向人天眾前。一問一答。一擒一縱。一卷一舒。一挨一撈。須是具金剛眼睛始得。若是念語之流。君向西秦。我之東魯。於宗門中。殊無所益。這一段事。不在有言。不在無言。不礙有言。不礙無言。古人垂一言半句。正如國家兵器。不得已而用之。橫說豎說。祇要控人入處。其實不在言句上。今時人。不能一徑。徹證根源。祇以語言文字。而為至道。一句來。一句去。喚作禪道。喚作向上向下。謂之菩提涅槃。謂之祖師巴鼻。正是鄭州出曹門。從上宗師會中。往往真箇以行脚為事底。纔有疑處。便對眾決擇。祇一句下見諦明白。造佛祖直指不傳之宗。與諸有情。盡未來際。同得同證猶未是泊頭處。豈是空開脣皮。胡言漢語來。所以南院示眾云。諸方祇具啐啄同時眼。不具啐啄同時用。時有僧問。如何是啐啄同時用。院曰。作家不啐啄。啐啄同時失。僧曰。猶是學人問處。院曰。如何是你問處。曰失。院便打。其僧不契。後至雲門會中。因二僧舉此話。一僧曰。當時南院棒折那。其僧忽悟。即回南院。院已遷化。時風穴作維那。問曰。你是問先師啐啄同時話底僧那。僧曰是。穴曰。你當時如何。曰我當時如在燈影裏行。穴曰你會也。師乃召大眾曰。暗穿玉線。密度金針。如水入水。似金博金。敢問大眾。啐啄同時是親切處。因甚却失。若也會得。堪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便可橫身宇宙。獨步大方。若跳不出。依前祇在架子下。

大漚行禪師

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是箇甚麼。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畢竟在甚麼處。苦苦。有口說不得。無家何處歸。

老衲證禪師

上堂。萬象之中獨露身。如何說箇獨露底道理。豎起拂子曰。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

山堂淳禪師

上堂。俱抵一指頭。一毛拔九牛。華嶽連天碧。黃河徹底流。截却指。急回眸。青箬笠前無限事。綠蓑衣底一時休。

復庵封禪師

上堂。天寬地大。風清月白此是海字清平底時節。衲僧家。等閑問著。十箇有五雙。知有。祇如夜半華嚴池。吞却揚子江。開明橋。撞倒平山塔。是汝諸人。還知麼。若也知去。試向非非想天道將一句來。其或未知。擲下拂子曰。須是山僧拂子始得。

野庵璿禪師

上堂。喫粥了也未趙州無忌諱。更令洗鉢盂。太煞沒巴鼻。悟去由來不丈夫。這僧那免受塗糊。有指示無指示。韶石四稜渾塌地。入地獄如箭射。雲岫清風生大廈。相逢携手上高山。作者應須辯真假。真假分。若為論。午夜寒蟾出海門。

雲居蓬菴會禪師

上堂。舉教中道。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作麼生是非相底道理。佯走詐羞偷眼覷。竹門斜掩半枝花。

中庵空禪師

上堂。千家樓閣。一霎秋風。祇知襟袖涼生。不覺園林落葉。於斯薦得。觸處全真。其或未然。且作寒溫相見。

遯菴珠禪師

上堂。玉露垂青草。金風動白蘋。一聲寒鴈叫。喚起未惺人。

淨慈肯堂充禪師

聞東林謂眾曰。我此間別無玄妙。祇有木札羹。鐵釘飯。任汝咬嚼。師竊喜之。直造謁。陳所見解。林曰。據汝見處。正坐在鑒覺中。師疑不已。將從前所得底。一時颺下。一日聞僧舉南泉道。時人見此一株花。如夢相似。默有所覺。曰打草祇要蛇驚。次日入室。林問那裏是巖頭密啟其意處。師曰。今日捉敗這老賊。林曰。達磨大師性命在汝手裏。師擬開口。驀鼻攔胷一拳。忽大悟直得汗流浹背。點首自謂曰。臨濟道黃檗佛法無多子。豈虛語耶。遂呈頌曰。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德山與巖頭。萬里一條鐵。林然之。住後上堂。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卓拄杖曰。水流黃葉來何處。牛帶寒鴉過遠村。

【頌】示眾云。觀方知彼去。去者不至方。草鞋跟忽斷。全身在帝鄉【增收】。

智者元庵慈禪師

遊講肆。聽講圓覺。至四大各離今者妄身當在何處。畢竟無體。實同幻化。因而有省。作頌曰。一顆明珠在我這裏。撥著動著放光動地。以呈諸講師。無能曉之者。歸以呈其師。遂舉狗子無佛性話詰之。師曰。雖百千萬億公案。不出此頌也。其師以為不遜。乃叱出。師因南遊。至廬山圓通挂搭。時元庵為西堂為眾入室。舉僧問雲門。撥塵見佛時如何。門云。佛亦是塵。師隨聲便喝。以手指胷曰。佛亦是塵。師復頌曰。撥塵見佛。佛亦是塵。問了答了。直下翻身。勸君更盡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元庵深肯之。

鼓山木庵永禪師

謁懶庵於雲門。一日入室。庵曰。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不得向世尊良久處會。隨後便喝。倏然契悟作禮曰。不因今日問。爭喪目前機。庵許之。

○上堂。舉睦州示眾云。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不得忘却老僧。師曰。恁麼說話。面皮厚多少。木庵則不然。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直須颺下入處始得。

龍翔柏堂雅禪師

上堂。大機貴直截。大用貴頓發。縱有嚙齧機。一鎚須打殺。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

○上堂。紫蕨伸拳筍破梢。楊花飛盡綠陰交。分明西祖單傳句。黃栗留鳴燕語巢。這裏見得諦。信得及。若約諸方。決定明窻下安排。龍翔門下。直是一槌槌殺。何故不是與人難共住。大家緇素要分明。

劔門分庵主

依懶庵。未有深證。辭謁徑山大慧。行次江干。仰瞻宮闕。聞街司喝侍郎來。釋然大悟。作偈曰。幾年箇事挂胷懷。問盡諸方眼不開。肝膽此時俱裂破。一聲江上侍郎來。遂徑回西禪。懶庵迎之。付以伽黎。

天童密庵傑禪師

謁應庵於衢之明果。庵孤硬難入。屢遭呵。

【頌】庵問。如何是正法眼。師遽答曰。破沙盆。庵頷之。

○上堂。舉金峯和尚示眾云。老僧二十年前有老婆心。二十年後無老婆心。時有僧問。如何是和尚二十年前有老婆心。峯云。問凡答凡。問聖答聖。曰如何是二十年後無老婆心。峯云。問凡不答凡。問聖不答聖。師曰。烏巨當時若見。但冷笑兩聲。這老漢忽若瞥地。自然不墮聖凡窠臼。

南書記

久依應庵。於趙州狗子無佛性話。豁然契悟。有偈曰。狗子無佛性。羅睺星入命。不是打殺人。被人打殺定。庵見。喜其脫略。

侍郎李浩居士

幼閱首楞嚴經。如遊舊國。志而不忘。持橐後。造明果。投誠入室。應庵搵其胷曰。侍郎死後。向甚麼處去。公駭然汗下。庵喝出。公退參。不旬日。竟躋堂奧。以偈寄同參嚴康朝曰。門有孫臏鋪。家存甘贄妻。夜眠還早起。誰悟復誰迷。庵見稱善。

華藏伊庵權禪師

【頌】嘗夜坐達旦。行粥者至。忘展鉢。鄰僧以手觸之。師感悟。為偈曰。黑漆崑崙把釣竿。古帆高挂下驚湍。蘆花影裏弄明月。引得盲龜上釣船。

○上堂。禪禪無黨無偏。迷時千里隔。悟在口皮邊。所以僧問石霜。如何是禪。霜云甌甑。又僧問睦州。如何是禪。州云。猛火著油煎。又僧問首山。如何是禪。山云。猢猻上樹尾連顛。大眾。道無橫徑。立處孤危。此三大老。行聲前活路。用劫外靈機。若以衲僧正眼檢點將來。不無優劣。一人如張良入陣。一人如項羽用兵。一人如孔明料敵。若人辯白得。可與佛祖齊肩。雖然如是。忽有箇衲僧出來道長老話作兩橛也。適來道道無橫徑。無黨無偏。而今又

却分許多優劣。且作麼生祇對。還委悉麼。把手上山齊著力。咽喉出氣自家知(僧問石霜。如何是禪。霜云甌甑。此問答是石頭遷語。今恐誤耳)。

三峯印禪師

上堂。舉野狐話曰。不落不昧。誣人之罪不昧不落。無繩自縛。可憐柳絮隨春風。有時自西還自東。

德山涓禪師

上堂拈拄杖曰。有時奪人不奪境。拄杖子七縱八橫。有時奪境不奪人。山僧七顛八倒。有時人境兩俱奪。拄杖子與山僧削迹吞聲。有時人境俱不奪。卓拄杖曰。伴我行千里。携君過萬山。忽然撞著臨濟大師時如何。喝曰。未明心地印。難透祖師關。

(會元二十卷終)

禪宗正脉卷第十(終)

音釋

偵(恥慶切侯也) 鈴(胡潭切車轄也) 陡(當口切地名) 漣(所班切涕也) 艤(魚倚切整舟回岸也) 𡗗(占患切冠也) [車*袞](古本切轉也) 禩(音祀祭也年也) 聾(五苞切不听也) [打-丁+於](於旅切擊也) 蛙(胡媧切蝦蟇也) 哈(訶臺切笑也) 橈(如昭也小楫貌) 饗(疾資切|饗也) 淦(古南切泥也淺也) 鏗(力故切) 郟(徒甘切縣名) 朕(直引切|兆也) 啐(子律切吮聲也) 箬(音若竹葉長大也) 霎(子葉切[雨/(耳*匕)]|也) 搵(知鳩切右手其臂|襟也)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前往捐款](#)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